

대구의 고건축

2002. 2

대 구 광 역 시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

제 출 문

대구광역시장 귀하

귀 광역시에서 의뢰한 『지역내 고 건축물 전수조사』 학술용역을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본 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합니다.

2002. 2. .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장

목 차

제1장 서 언	1
제1절 조사 목적	1
제2절 조사·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제3절 조사·연구진	3
제2장 대구지역의 조사지 주변환경	5
제1절 자연·지리적 환경	6
제2절 고고·역사적 환경	8
제3장 대구지역의 전통 고 건축물	12
제1절 동구지역	13
제2절 북구지역	155
제3절 중구·남구지역	185
제4절 수성구지역	196
제5절 달성군·달서구지역	219
제4장 대구지역의 근대건축물	488
제5장 고 건축물의 보존대책 및 활용방안	638
제1절 보존의 개념	638
제2절 보존대책 및 활용방안	638

제1장 서 언

제1절 조사 목적

오늘날 세계 각 국은 문화유산의 보존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가 담긴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연구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며, 그 이전인 일제기와 해방 후 혼란기, 6,25동란 등의 문화적 암흑기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귀중한 문화유산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파손, 손실되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문화유산 하나 하나에는 민족의 혼과 정신이 깃들여 있음을 생각할 때 이를 잘 보존, 관리한다는 것은 민족적 자부심을 지키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발전에도 기여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는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 발전시켜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역사적 의미이기도 하다¹⁾.

문화유산은 「인류의 역사상, 문화상, 예술상, 가치가 많은 것 및 고고자료(考古資料)」라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민속자료의 4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古文書), 회화, 조각, 공예품 등의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중 건조물의 유형문화재는 한국문화의 고유성과 한국인의 가치관 및 세계관을 잘 반영하고 있는 역사적 산물(產物)로서 그 대상 범위가 매우 넓고, 건축문화유산자원으로서의 가치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구미의 선진 각 국에서 연구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존 건조물의 문화적 유산을 적극적으로 보존, 관리하면서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대구지역에 산재해있는 고 건축물의 문화적 유산들의 현상을 일괄 조사하고, 이들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대책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조사·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조사·연구의 대상 및 범위

이 조사·연구의 대상은 대구광역시역 내에 산재해 있는 모든 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통건축물과 근대건축물로 구분하였다. 전통건축물은 해방 이전에 건립된 전통양

1) 김종염, 문화재, 문화재관리국, 1984, p.260

식의 건축물로 하고, 근대건축물은 1876년부터 1945년까지 건립되어 현존하는 건축물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비록 근년에 철거된 건물이라도 건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소재지 및 연혁, 건물 관련자료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은 대상에 포함시켰다.

- 전통건축물
 - 주거건축
 - 향교, 서원, 서당, 재실 등 유교건축
 - 사찰, 암자 등 불교건축
 - 기타 누정·사묘·정려건축
- 근대건축물
 - 선교단체에 의한 종교 및 산하 공공시설과 주거 건축물
 - 일본인이 건축한 관청, 공공, 상업건축물 및 주택
 - 기타 한국인에 의한 문화시설 및 상업건축물

2. 조사 방법 및 내용

본 조사는 일차적으로 각종 문헌, 탐문,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소재지, 연혁, 기타 관련자료를 수집한 후 현장실측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문헌자료와 실측자료를 종합하여 분석·정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현장실측조사에서는 건축물의 전체적인 구성과 그 건축물이 가지는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1) 사진촬영 2) 건물의 실측도 작성 3) 건물의 용도, 변형 또는 보존상태 4) 건물의 연혁 및 배경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정리는 건축 유형별로 선 분류하던 기존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먼저 건축물이 위치하는 소재지별로 묶어서 분류함으로써 지역별 문화재 분포현황의 파악 및 향후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개발계획과 관광코스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고 건축물 중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대상을 발굴하여 그 보존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금번조사를 통해 파악된 건축물들에 대한 관리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조사 지침은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건축물의 유래, 대지 내 배치 및 평면도 작성
- 건축물의 주변상황과 보존상태와 가치, 그리고 활용방안
- 전체 건축물의 배치 조사는 건축물(문화재) 및 대지 내에 관련되어 있는 건물을 포함한다.
- 건축물의 입지, 연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기록한다.
- 건축물의 부재에 기록된 상량문이나 현판 등의 기록물을 조사한다.
- 소장하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도 조사·기록하고 출처를 명기한다.
- 건물의 관리현황, 향후의 보수, 정비 계획을 조사·기록한다.

- 배치실측은 평판측량을 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사진촬영은 건물의 내·외부를 촬영하여야 한다.
- 조사의 치수 단위는 미터법을 준수하여 측정하되, 척에 대한 고찰을 병행한다.
- 다층의 건물은 층별 평면도를 작성한다.
- 기타조사는 건축물 조사의 일반관행에 준하여 실시하되, 의심스러운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하여 조사한다.

3. 조사·연구의 기간

대구광역시 소재 고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작업은 2000년 12월 8일부터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는 지금까지의 여러 선행조사 및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2000. 12. 8~ 2001. 3. 2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 조사, 연구보고서 등에 수록된 자료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이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제3절 조사·연구진

• 책임연구원

윤재웅 (대구광역시 문화재전문위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공학박사)

• 공동연구원

- 장석하 (경상북도 문화재위원, 경일대학교 교수, 공학박사)
- 이철영 (울산과학대학 공간디자인학부 교수)

• 연구원

- 강유신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 팀장)
- 박기조 (안동과학대학 교수)
- 한지영 (대구가톨릭대학교 강사, 이학박사)
- 김상택 (경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경일대학교 강사)
- 여미나(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대구대 강사)

• 연구보조원

- 신혜정(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대구가톨릭대 강사)
- 강신열(경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과정)
- 백현우(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황명진(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최태봉(경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과정)
- 정해두(경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과정)
- 이주형(경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과정)

● 조사보조원

- 김정원(경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과정)
- 윤영호(대구가톨릭대학교 건축학과)
- 최우일(경일대학교 건축학과)
- 김소영(울산과학대학 실내건축과)
- 김나영(울산과학대학 실내건축과)

제2장 대구지역의 조사지 주변환경²⁾

우리가 단위지역에 분포하는 고 건축물의 내용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후, 지형 등과 같은 자연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까지 종합해 살펴보아야 한다. 주지하듯이 주거공간인 집과 마을은 인간이 정착생활을 시작한 이래에 오랜 세월동안 자연환경에 순응하면서 변화하였다. 더불어 그 생활양식 및 조형성은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문화성향 혹은 기타의 내·외부적인 요인 등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환경을 검토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

특별히 대구·경북권역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최대·최고의 고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다. 이에 생활 주변의 곳곳에서 각종 전통건축물은 물론이고 민가, 개량형 가옥 그리고 서양의 영향에 의한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를 살필 수 있다. 한편 이들 건축물은 통찰하면 時空 속에서 주거공간의 변화 내지 고착을 거듭해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평면구성 파악 등과 같은 조형물의 건축사적인 해석에 앞서서 대구지역 고유의 자연·지리적 환경 및 고고·역사적 환경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障을 작성하기 위한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三國史記』

『高麗史』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慶尙北道地名由來總攬』, 1984.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慶北마을誌』, 1991-1992.

慶尙北道·慶尙道七百年史編纂委員會, 『慶尙北道七百年史』, 1999.

국립대구박물관, 『대구오천년』, 2001.

國立文化財研究所, 『大邱時至洞 I・II』, 1996-1997.

國立地理院, 『韓國地名要覽』, 1982.

大邱廣域市(金宅圭·朴大鉉 編譯), 『大邱邑誌』, 1997.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재사랑』, 1997.

大邱廣域市·慶北大學校, 『琵琶山』, 2000.

大邱市史編纂委員會, 『大邱市史』, 1995.

대구직할시, 『대구의 향기-전통과 문물-』, 1982.

大邱直轄市, 『郷土文化遺蹟』, 1988.

大邱直轄市 『대구통계연보』, 1994.

大邱直轄市·嶺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大邱地域近代建築物調査報告書』, 1988.

대구은행, 『향토와 문화』 14, 1999.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文化遺蹟總攬』, 1977.

嶺南大學校博物館외, 『時至의 文化遺蹟Ⅷ-墜落址 本文-』, 199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제1절 자연·지리적 환경

대구의 지리적 좌표는 위도상으로 볼 때 동경 128°28'~128°46', 북위 35°46'~36°01'에 위치한다. 따라서 대구는 국토공간상에 있어서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도시이면서 영남 내륙의 가운데에 있다. 한편 영남지방은 중생대 지층이 넓게 분포해 있는 지질구조지역으로서 소백산맥과 연결되는 한 단위의 구조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구는 영남내륙의 분지에 자리하면서 자연 하천과 들판을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독특한 문화를 꽃피워왔다.

대구 주변의 자연환경을 지형적으로 살펴보면 팔공산, 비슬산 등이 주변을 둘러싼 모양으로서 중앙부가 넓고 평탄한 침식분지를 이루고 있으며 그 안쪽으로는 동에서 서로 금호강이 그리고 남에서 북으로 신천이 흐르고 있다. 한편 금호강에서 합류한 낙동강이 현 시가지의 서쪽 경계지역을 감싸면서 흐르고 있다. 이처럼 대구를 둘러싸고 그 주위에는 산지와 하천이 감싸듯 지나고 있다.

여기서 대구를 대표하는 산으로는 팔공산과 앞산을 들 수가 있다. 팔공산은 대구의 북동쪽을 감싸안고 있는 진산(鎭山)으로서 해발 1,192m, 총면적 122.08km²에 달한다. 전체 능선의 길이는 약 20km에 이르며 주봉인 비로봉에서 좌우로 이어지는 동봉·서봉이 길게 뻗어 있다. 이 일대는 옛부터 신성한 산으로 여겨 주위의 곳곳에 많은 내력과 함께 각종 문화재가 들어서 있다.

이와 더불어 앞산은 그 안에 작은 산줄기와 함께 많은 골짜기로 이루어진 대구를 대표하는 산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큰골, 고산골, 안지랑골은 비교적 크고 이름난 골짜기이며, 현재 큰골은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대구시민들에게 가깝고 친숙한 휴양지로서 잘 알려져 있다.

한편 오늘날 대구의 도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금호강 및 그 지류인 신천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천혜의 조건은 과거부터 인간이 모여 살기에 좋은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부근의 여러 지점에서 선사시대 이래의 문화유적과 유물이 다수가 출토, 보고됨으로써 충분히 증명이 되고 있다.

옛 사서인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서기 261년경에 오늘날의 대구 지역에 달벌성(達伐城)을 쌓았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어서 이 당시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출토유물로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보다 일찍이 선사시대의 것으로 편년되는 각종 사례들이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음을 보아 기록의 내용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이 지역에 사람이 모여 살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 뿐만 아니라 대구의 빼어난 자연경관 및 풍치에 관해서는 대구 출신으로 조선조에 높은 관직에 올라 문필(文筆)을 드높인 바 있는 서거정(1420~1488)의 시문(詩文)인 ‘대구십경’이 남아 있다. 이외에도 작자 미상의 ‘팔공산 팔경’ 등에서 아름다운 대구의 풍광을 시문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후를 살펴보면 대구는 동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 내륙에 위치하며 대륙

성 기후를 강하게 띤다. 이와 같은 기후는 해안으로부터 불어온 바람이 분지 외곽의 산에 의해서 차단되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구분지는 동일 위도상의 타지역에 비해서 한서의 차가 심하며, 상대적으로 건조한 날 또한 많은 편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여름에 매우 무덥고 겨울의 추위 또한 다른 곳보다 더하다. 바람은 우리나라의 일반적 경향과 같이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주로 겨울에는 서풍이, 그리고 여름에는 동남풍이나 동풍이 우세하다.

대구의 연평균 강수량은 888.5mm로 동일 위도상의 세계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에 속하나 한편 남한에서는 비교적 비가 적은 편에 속한다. 특히 대구 기후의 특색은 여름의 고온과 겨울의 저온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30℃ 이상의 폭서의 지속기간이 다른 지방에 비해 길다. 연평균 기온은 13.7℃이며 1월 평균 기온 0.8℃, 8월 평균 기온 26.9℃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연교차를 지니는 도시이다.

이제 앞에서 살펴본 자연과 지리적 환경에 이어 대구지역의 산업과 특산물 그리고 기타 교통환경 등을 개관해 보기로 한다.

대구는 8.15광복 이전부터 거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성장을 계속해왔다. 따라서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산업별 종사자율을 보면 상공업이나 서비스업이 현저한 반면 농업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특히 최근의 농업은 직할시·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새로이 대구시로 편입된 지역을 중심으로 소수 농가만이 일반농업, 원예농업, 그리고 양계·양돈·낙농 등의 축산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도이다.

한편 대구는 과거에 재배역사, 품질, 산출량 등에서 사과와 본고장으로 매우 유명하였으나 이제는 그 중심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60~70년대에 우리나라 섬유공업의 중심지로서 그리고 대구경제의 매우 큰 부분을 담당한 시기가 있었으며 이후에는 그 규모가 많이 위축되었다. 한편 90년대 후반부터는 지역산업 부문의 특화(特化)가 절실한 상황에서 고부가가치의 섬유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상설시장으로는 전국 최대의 의류 및 포복도매시장으로 유명한 서문시장을 비롯하여 교동시장, 칠성시장, 남문시장 등이 있다. 한편 조선시대에 개설된 바 있는 유명한 대구 약령시는 오늘날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때에는 위축, 폐쇄되기도 하였으나 1970년대에 다시 개장된 이후에 점차 한약재 도매시장으로서 그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다.

다음은 대구의 교통망이다. 대구는 일찍부터 남한 3대도시 중의 하나였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인구가 더욱 증가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거대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구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교통이 발달하고 이에 더하여 각종 물산의 집산지로서 교통망이 잘 연결되었다.

대구는 북으로 서울과는 300여km, 남으로 부산과는 120여km 떨어져 있으며 남북을 따라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선 철도가 연결되어 있다. 이밖에도 구마·88·중앙고속도로와 국도 등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내륙을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한편 항공

교통으로는 국내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국내정기항공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가까운 일본과 연결을 하거나 중국 방면 등으로 왕래하는 국제노선이 개설되어 있다.

제2절 고고·역사적 환경

대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의 남부 내륙에 위치하면서 고유의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이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에 근거하면 기원 후 261년에 달벌성을 축조하였으며, 이곳을 활동의 근거지로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당시의 달벌성은 토성으로서 지형상으로 보면 구릉지대의 나지막한 야산에 인공의 성을 쌓아서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이처럼 구릉지대의 나지막한 야산에 부족국가인 달구벌을 세웠으며 그 둘레에 토성인 달벌성을 축조해 이전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고대에 있어서 대구의 옛 지명은 달벌(達伐), 달구화(達句火), 달구벌(達丘伐) 등으로 불리었으며, 이후 신라 경덕왕대에 이르러서야 대구(大丘)라는 명칭이 보인다. 이어서 대구(大丘)가 다시 오늘날과 같은 대구(大邱)로 개칭이 된 시기는 한참 후인 조선의 정조(正祖)대에 이르러서이다.

한편 조선시대의 선조(宣祖)대인 1601년에는 경상도의 행정·군사·사법 등을 관장하는 관청인 경상감영이 안동에서 대구로 옮겨오면서 도약의 기틀을 맞이하였다. 이후 경상감영은 대구에서 300여년을 지속하였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날과 같은 대도시로 성장,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특별히 조선시대에는 이곳에서 학문적인 번창과 함께 많은 인재가 등용되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대구는 지리적으로 볼 때에 영남의 중앙이라는 이점 이외에도 기름진 평야를 끼고 있어 물자와 생산력이 풍부했으며 또한 수운과 육운을 이용한 편리한 교통이 가능했기에 정치·군사·행정·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개화기 이후에는 근대교육기관 건립이 활발하여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나아가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이 기울어져 가는 위기에는 「국채보상운동」이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2.28 학생의거」가 대구에서 일어나 국가의 위기 때마다 하나로 결속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상에 있어서 1950년대의 한국전쟁 당시에는 유엔군의 최종 방어선임과 동시에 반격의 거점이 되기도 하였으며 이로써 낙동강 방어선을 최후의 보루로 하여 민주주의를 지킨 도시가 되었다. 이때에도 대구는 월남한 피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도시로 거듭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대구시의 동쪽은 경산시, 서쪽은 칠곡군, 남쪽은 달성군, 북쪽은 군위군·영천시와 접하고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대구시의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변화과정을 정리해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구역상 오늘날 대구광역시의 영역은 그 명칭으로 보아서도 알 수가 있듯이 이전보다는 한층 더 넓은 관할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1945년 해방 이후의 변모를 잠깐 살펴보다라도 1949년에 대구시로 개칭된 이래, 크게는 1981년과 1988년 그리고 이어서 1995년에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광역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1981년에는 경상북도 달성군의 월배, 성서, 공산면, 경상북도 칠곡군의 칠곡읍, 경상북도 경산군의 안심읍 등을 편입해 직할시로 승격이 되었으며, 1988년에는 대구직할시의 달서구가 새롭게 신설되어 도합 7개구(個區)의 행정구역으로 개편이 된 바가 있다. 한편 1955년 1월에는 중앙정부직할의 시(市) 명칭이 대구광역시로 개칭되었으며, 같은 해 3월에는 경상북도 달성군이 새롭게 편입되면서 이제 도합 「7개구(個區) 1개군(個郡)」을 기반으로 하는 대도시로서 행정구역이 광역화되었다.

현재의 대구는 약 885,54km²의 면적에 도합 250만 인구를 포용하고 있으며 명실공히 영남의 정치·경제·행정·교통·문화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로 도약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고고학적인 성과로서 증명이 된 바가 있는 대구의 대표적인 유적, 유물에 대해서 조명해 보기로 한다.

대구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인간이 거주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괄목할만한 성과는 그동안 대구에는 청동기시대를 전후한 때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신석기시대의 토기인 빗살문토기가 발견되어 이 시기를 출발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대구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일대에서는 청동기시대의 무덤인 고인돌(支石墓)을 비롯하여 동시대의 유물로서 민무늬토기(無文土器), 간돌검(磨製石劍), 붉은간토기(紅陶) 등 다수가 출토된 바 있다. 특히 고인돌 유적과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 시가지의 확장으로 인하여 볼 수가 없으나 해방 이전만 하더라도 대구 시내의 중심가인 대구역과 달성공원 부근 그리고 중구의 봉산동 및 대봉동 일원에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열을 지어 분포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많은 수의 고인돌은 이때에 이미 상당한 정도의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로써 당시에 고인돌을 만들 수 있었던 세력집단들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수성구 상동과 북구 서변동에서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 등이 출토됨으로써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도 이른 시기에 이곳 대구에서 펼쳐진 신석기문화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 그동안 대구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와 관련한 유적, 유물이 발견된 바가 없기에 대체로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전 무렵인 청동기시대부터 인간이 거주한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대구지역에서 인간의 거주는 앞서 제시한 몇 개소의 유적에서 빗살무늬토기 또는 집석유구(集石遺構) 등이 함께 발견됨으로써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신석기시대의 유적 입지 그리고 유물 출토 상황을 통해서 볼 때에 대구의 신석기인들은 채집 또는 수렵, 어로를 주로 하였을 것이며 더불어 그 생활터전은 신천, 금호강 등과 같은 하천 주변의 충적지대나 자연제방 일대가 주

된 활동무대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대구에는 선사시대인 신석기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각종 삶의 흔적이 드러나 있기에 우리는 향토지역 주변의 여러 곳에서 출토된 각종 유적, 유물을 통해서 인간의 거주 확인은 물론 당시의 세력집단 규모 그리고 사회 및 생활상 등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직까지 고대사에서 대구의 위치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단편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유적, 유물의 사례를 모두 종합해 살펴보면 대구지역에 자리잡고 있던 정치체는 비교적 일찍이 신라에 병합되었으며 그 이후에 몇 차례의 재편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은 곧 정치적·문화적인 면에서 경주세력의 영향을 강하고 받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고고학적 관점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고분군의 분포상황 및 그 내용을 종합하면 삼국시대의 대구를 대표하는 고분군으로는 일대에서 규모가 가장 큰 달성고분군을 비롯하여 칠곡 구암동, 달성 죽곡동, 화원 성산동고분군이 있으며 이외에도 대명동, 복현동, 두산동·과동 그리고 불로동고분군 등의 대소 고분군이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달성고분군을 축조한 고대인은 옛 달구벌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에 기타의 고분군 집단과는 외형 및 구조상 특징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당시 고대인들이 남긴 유적으로서의 고분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들이 있다. 그 한가지 예로서 대구 달성(達城)은 당시 취락의 형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이 달성은 대구분지의 서쪽에 자리잡은 토성(土城)으로서 그 규모를 보면 길이 약 1.3km, 높이 약 5~12m에 이른다.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과거의 부분적인 발굴조사에서 토기류, 골기류, 패류 등과 같은 삼국시대를 전후한 시기의 유물이 다수 출토된 바가 있다. 이처럼 달성이 고대에는 대구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곳이었으며 이후에 한때는 이곳에 대구의 관아(官衙)가 들어서기도 하였다. 한편 이 토성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남서쪽으로는 달성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활유적으로서의 최근에 대구지역에서 삼국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동천동 마을유적 그리고 서변동에서는 논 유구가 새롭게 발굴되어 주위의 시선을 끈 바가 있다. 이러한 생활유적을 통해서 마을조성의 배치, 규모는 물론이고 농경 방법 및 시설 수준 등을 두루 파악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또한 특별히 이번 고 건축물 조사와 관련한 내용 가운데에는 근년에 대구 시지지구(時至地區)에서 삼국시대의 집단 취락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되어 이후 본격적인 고고학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당시의 발굴조사에서는 집자리로 추정되는 수혈주거지 및 고상건물지 그리고 우물, 노지, 도로 등의 유구를 비롯해 출토유물로는 실생활용기로 보이는 각종 토기편과 함께 어망추, 방추차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이들 생활유적 및 유물은 현실적으로 그리 활발하지 못한 생활유적 연구현황을 볼 때 향후에 고대 생활상을 규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이제 앞으로 향토지역내에서 고대의 생활유적 연구자료가 더욱 증가하게 되면 이번 조사에서 대상으로 선정한 후대 고 건축물과의 관계 및 영향 정도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대비 분석하고 또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이번 조사의 대상으로 현재까지 건축물의 형태로서 남아있는 대구의 중요문화재로는 동화사(桐華寺), 파계사(把溪寺), 북지장사(北地藏寺) 등의 사찰 및 유교문화재 등을 비롯하여 선화당(宣化堂) 등과 같은 관아건물, 그리고 기타 정자, 서원 등을 포괄하는 여러 종류의 전통 고 건축물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그 예술성 및 보존가치 등에 따라서 이미 국가에서 보물로 지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유형문화재, 사적, 문화재자료, 기념물 그리고 중요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역사의 현장에서 보존을 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대구에 서양식 건축물이 들어선 것은 비로소 19세기말 무렵인데 이때에 들어선 주거양식을 통해서 우리 생활공간의 과정 및 변모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대구지역의 고 건축물 또한 향토의 자연·지리적 여건 및 고고·역사적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종합한 이후에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때 향토 특유의 건물형태와 구조, 그리고 공간구성 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대구지역의 전통 고 건축물

전통건축물은 이 땅에서 삶을 일구었던 선현들이 역사적 시간을 경과하면서 누적해 온 지혜와 경험의 결정체로서 그 자체로서 귀중한 것임은 물론 그 지역의 정체성과 존재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그 지역에 남아있는 전통건축물을 조사하고 파악하는 작업은 단순히 지나간 시대의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와 후손들이 가꾸고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문화적 전통의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고장 대구는 가야와 신라의 고토(古土)로서 일찍부터 불교를 수용하여 그 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며 조선시대에는 영남사림파를 형성한 유교문화의 요람지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대구지역에는 다종다양한 유형의 전통 고 건축물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지역 내 각종 고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발굴코자 실시된 금번조사에서는 총 221건의 고 건축물이 채집되었으며 이를 용도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 대구지역 전체 조사대상 고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표

지 역	용 도								합계	지정 문화재
	주거	불사	재사	정자	정사	서원 향교	비각 여각	기타		
동구	10	13	23	3	-	5	6	4	64	21
북구	2	1	6	1	1	2	3	-	16	2
중·남구	-	2	-	-	-	1		3	6	4
수성구	-	1	7	-	-	3	2	2	15	4
달성군·달성군	30	9	43	10	4	13	8	3	120	16
합 계	42	26	79	14	5	24	19	12	221	47

본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대상 구역을 행정구역에 따라 동구, 북구, 중·남구, 달성군·달서구의 5개 지역으로 세분하였으며 각 지역별 조사대상 고 건축물의 건수는 도시화의 진행이 상대적으로 더딘 달성군·달서구지역이 가장 많은 120건이며 다음이 동구지역이었다.

조사된 건축물의 용도를 살펴보면 재사건축이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주거건축, 불사건축 순이었다. 재사건축은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주거건축은 주로 달성군과 동구지역에 편중되고 있다. 또한 불사건축은 대구를 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팔공산과 비슬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제1절 동구지역

동구지역은 대구의 북측을 에워싸고 있는 명산(名山) 팔공산을 중심으로 구역(區域)이 자리잡고 있다. 팔공산은 신라 때에는 중악(中岳) 또는 부악(父岳)이라 불렸으며 화랑도들이 이 산을 중심으로 심신을 수련하여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은 곳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산은 신라·고려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제일의 불교성지로 발전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달성·경산·영천·군위·신령·하양 유학의 연원지(淵源地)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자연·지리적 환경은 팔공산에 절터, 부도(浮屠), 탑, 불상 등 많은 불교문화재와 서당, 재사(재사), 누정, 사묘 등 다양한 유교용 건축물이 조영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도 팔공산 자락에는 대구광역시의 타지역에 비해 많은 불교관련 문화재와 유교용 건축물이 산재해 있으며 금번 조사에서 동구지역 고건축물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구지역에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2건, 지방문화재 19건 등 총 21건의 전통 건축물 관련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유형도 다양한 편이다. 금번조사에서는 이들 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총 90여건의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본 보고서에는 이 중 철거나 신축으로 없어진 건물을 제외한 64건의 건물이 분석·수록되었다.

구 분	용 도								합계	지정 문화재
	주거	불사	재사	정자	정사	서원 향교	비각 여각	기타		
조사대상 건수	16	13	31	6	-	5	6	11	88	21
최종수록 건수	10	13	23	3	-	5	6	4	64	21

본 보고서에 최종 수록된 64건의 건축물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재사가 가장 많은 23건이며 불교 사찰이 13건, 주거가 10건이다. 이밖에 교육용 건물인 서원이나 향교, 정려각, 정자 등도 다수가 조사되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동구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건축물의 분포상태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전술한 팔공산지역의 역사적·자연환경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사대상 전통건축물들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중엽에 건립되거나 재축(再築)된 것들이며 특히 상당수의 재사건축물은 근래에 들어 개축되거나 보수되면서 원형을 많이 상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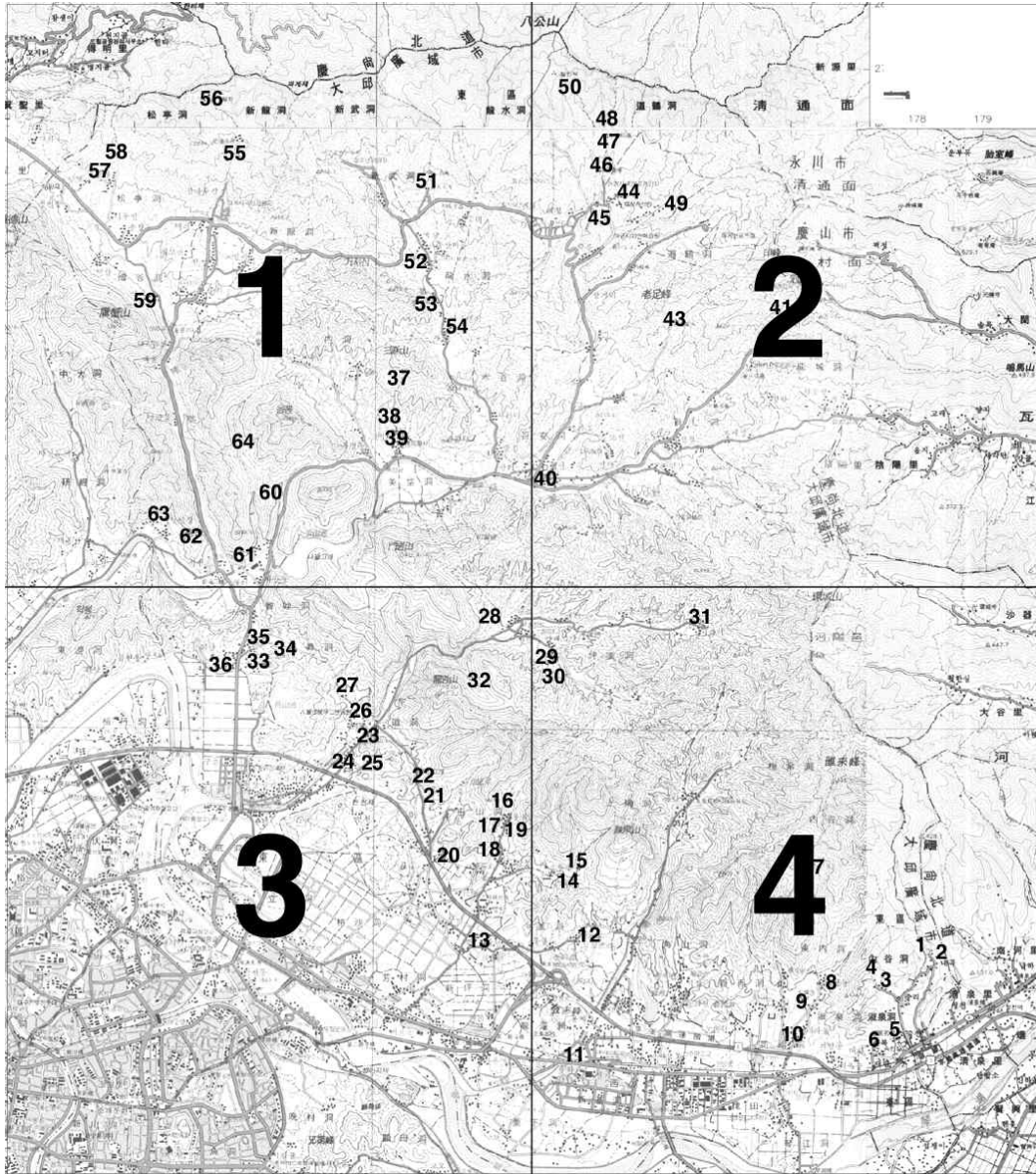
○ 동구지역 조사대상 고 건축물 목록

연번	건물명	지정종별	건립년대	소재지
1	심락재	비지정	1660년 초창	동구 내곡동 80번지
2	모의정	비지정	미상	동구 내곡동
3	원모재	비지정	미상	동구 숙천동 78번지
4	오산재	비지정	1919년	동구 숙천동 24번지
5	오우당	비지정	1932년	동구 사복동 75번지
6	서진영주택	비지정	1890년	동구 대림동 51번지
7	승방재	비지정	1915년	동구 동내동 4번지
8	동호서당	비지정	1921년	동구 동내2동
9	영사재	비지정	1948년	동구 동내동 101번지
10	충효각	비지정	미상	동구 동내동 450번지
11	삼사당	비지정	미상	동구 율하동 17번지
12	친목당	비지정	1888년	동구 부동 58번지
13	월천재	비지정	1922년	동구 부동 482번지
14	침송재	비지정	1927년	동구 둔산동 2번지
15	추모재	비지정	1890년 경	동구 둔산동 13-1번지
16	경주최씨종가	대구 민속자료 제1호	1694년	동구 둔산동 386번지
17	최병룡주택	비지정	19세기말	동구 둔산동 387번지
18	최세돈주택	비지정	1800년대 초	동구 둔산동 384번지
19	최병소주택	비지정	1850년	동구 둔산동 379번지
20	모원재	비지정	1929년	동구 둔산동 663번지
21	최홍원정려각	비지정	1789년	동구 둔산동
22	정효각	비지정	1827년	동구 둔산동 186번지
23	구로정	비지정	1903년	동구 도동 671-1번지
24	문창공영당	대구 문화재자료 제20호	1912년	동구 도동 776번지
25	구회당	비지정	1932년	동구 도동 763번지
26	전귀당	비지정	1947년	동구 도동 487번지
27	추보재	비지정	1932년	동구 도동 400번지
28	강순항정려각	대구 문화재자료 제35호	1835년	동구 평광동 1183번지
29	와룡정	비지정	1879년	동구 평광동 1011번지
30	침백당	대구 문화재자료 제13호	1896년	동구 평광동 979번지
31	모영재	비지정	1848년	동구 평광동 108번지
32	와룡암	비지정	1751년	동구 평광동 1525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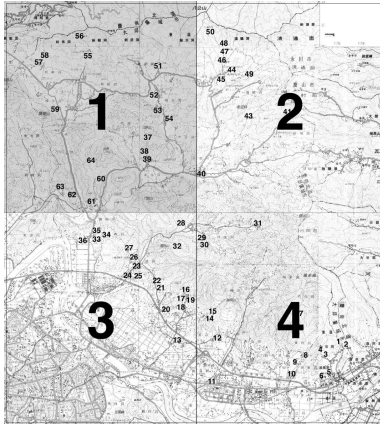
○ 동구지역 조사대상 고 건축물 목록 (계속)

연번	건물명	지정종별	건립년대	소재지
33	독암서당	대구 문화재자료 제12호	1865년	동구 봉무동 223번지
34	경지당	비지정	1939년	동구 봉무동 195번지
35	원모재	비지정	미상	동구 봉무동 114-2번지
36	봉무정	대구 유형문화재 제8호	1875년	동구 봉무동 939번지
37	성재서당	대구 유형문화재 제9호	1770년	동구 미대동 169번지
38	채효기주택	비지정	1904년	동구 미대동 236번지
39	채경기주택	비지정	1902년	동구 미대동 236번지
40	영안재	비지정	1938년	동구 백안동 183번지
41	관암사	비지정	1967년	동구 진인동 산1번지
42	보은사	비지정	1970년	동구 진인동 산1번지
43	북지장사	보물 제805호(대웅전) 외	1623년	동구 도학동 620번지
44	동화사	대구 유형문화재 제10호 (대웅전) 외	1702년	동구 도학동 35번지
45	비로암	보물 제247호(삼층석탑)	18세기 말(대적광전)	동구 도학동 30번지
46	부도암	비지정	1960년	동구 도학동 산124-1번지
47	내원암	비지정	1966년	동구 도학동 산 124-1번지
48	양진암	비지정	1980년	동구 도학동 산124-1번지
49	약수암	비지정	1970년	동구 도학동 산124-1번지
50	염불암	비지정	1962년	동구 도학동 산124-1번지
51	부인사	대구 기념물 제3호(사지)	1959년 중건	동구 신무동 356번지
52	강사당 어사각	비지정	1900년 경	동구 신무동 709번지
53	농연서당	비지정	1981년	동구 용수동 665-2번지
54	구경회주택	비지정	1921년	동구 용수동 631번지
55	과계사	대구 유형문화재 제7호 (원통전) 외	1695년(원통전)	동구 중대동 7번지
56	성전암	비지정	1915년	동구 중대동 7번지
57	원감재	비지정	1917년	동구 송정동 628번지
58	이경우주택	비지정	1905년	동구 송정동 600번지
59	효행각	비지정	1894년	동구 덕곡동 706번지
60	첨모재	비지정	1982년	동구 지묘동 산7번지
61	표충재 · 표충사	대구 기념물 제1호	1888년	동구 지묘동 526번지
62	삼충사	비지정	1820년 경	동구 지묘동 776-4번지
63	채종서주택	비지정	19세기 말	동구 지묘동 1146번지
64	원모재	비지정	1955년	동구 지묘동 25-9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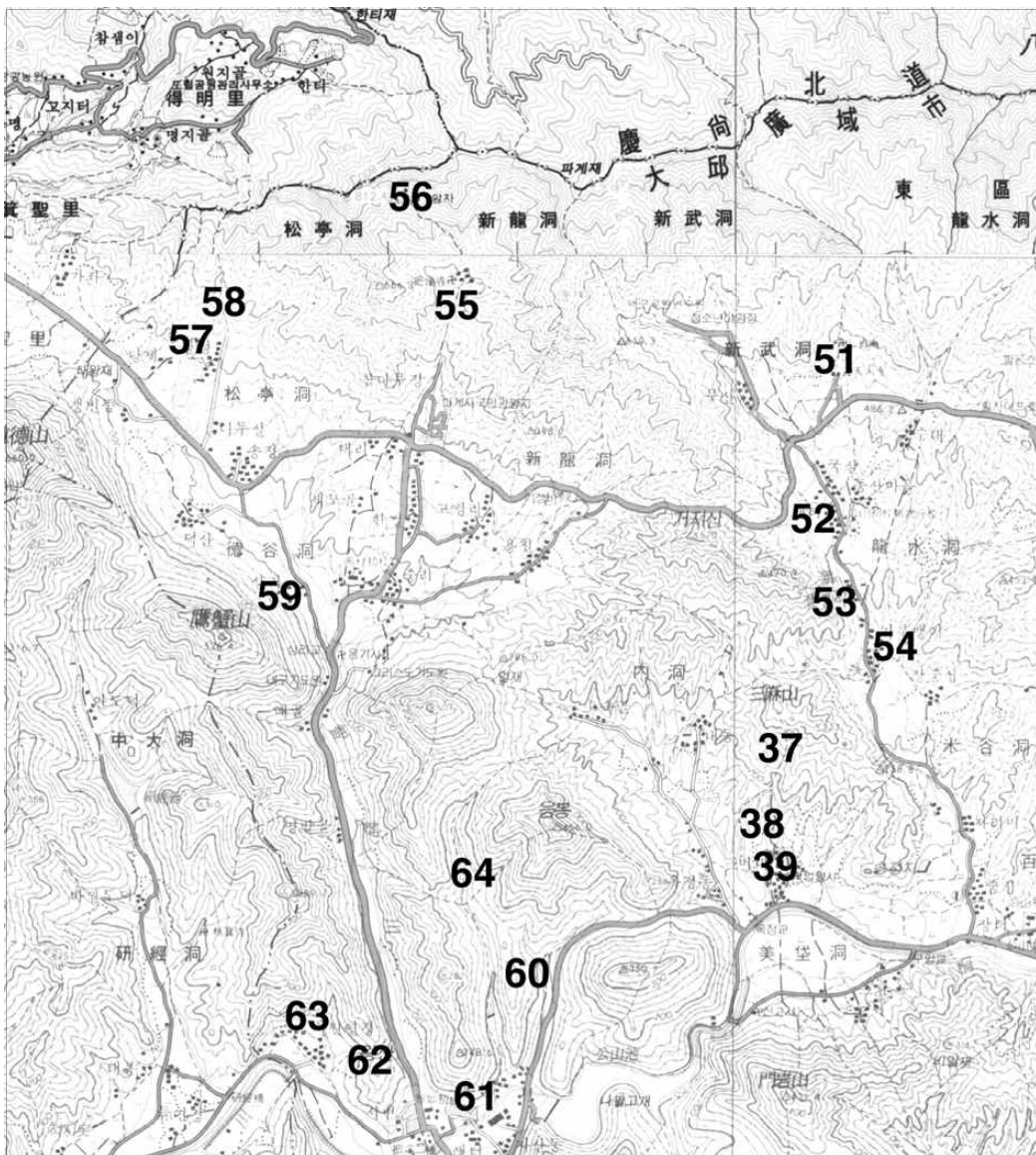
○ 동구지역 분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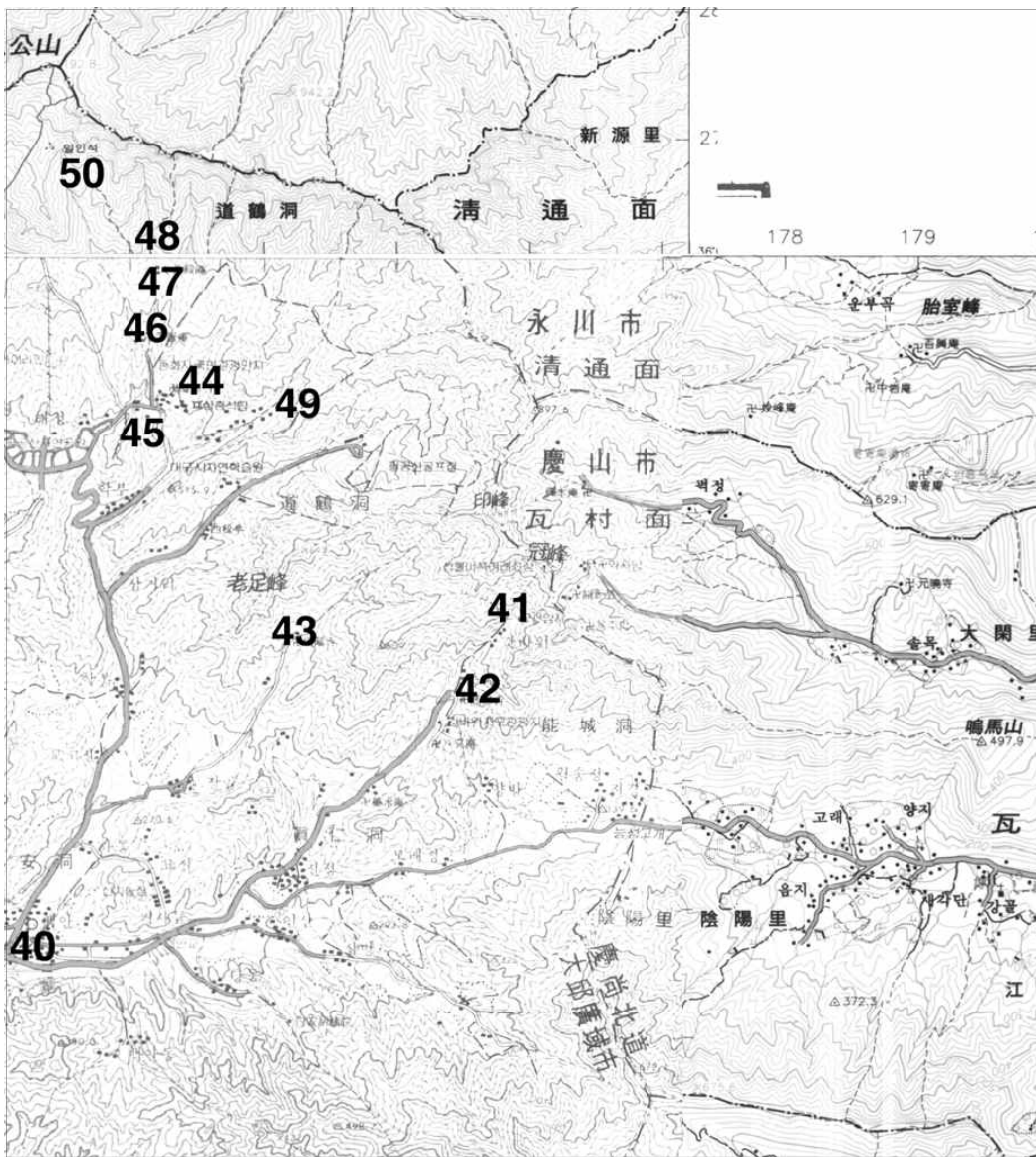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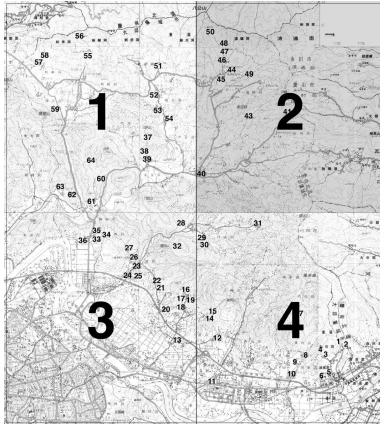
○ 동구지역 조사대상 고 건축물 위치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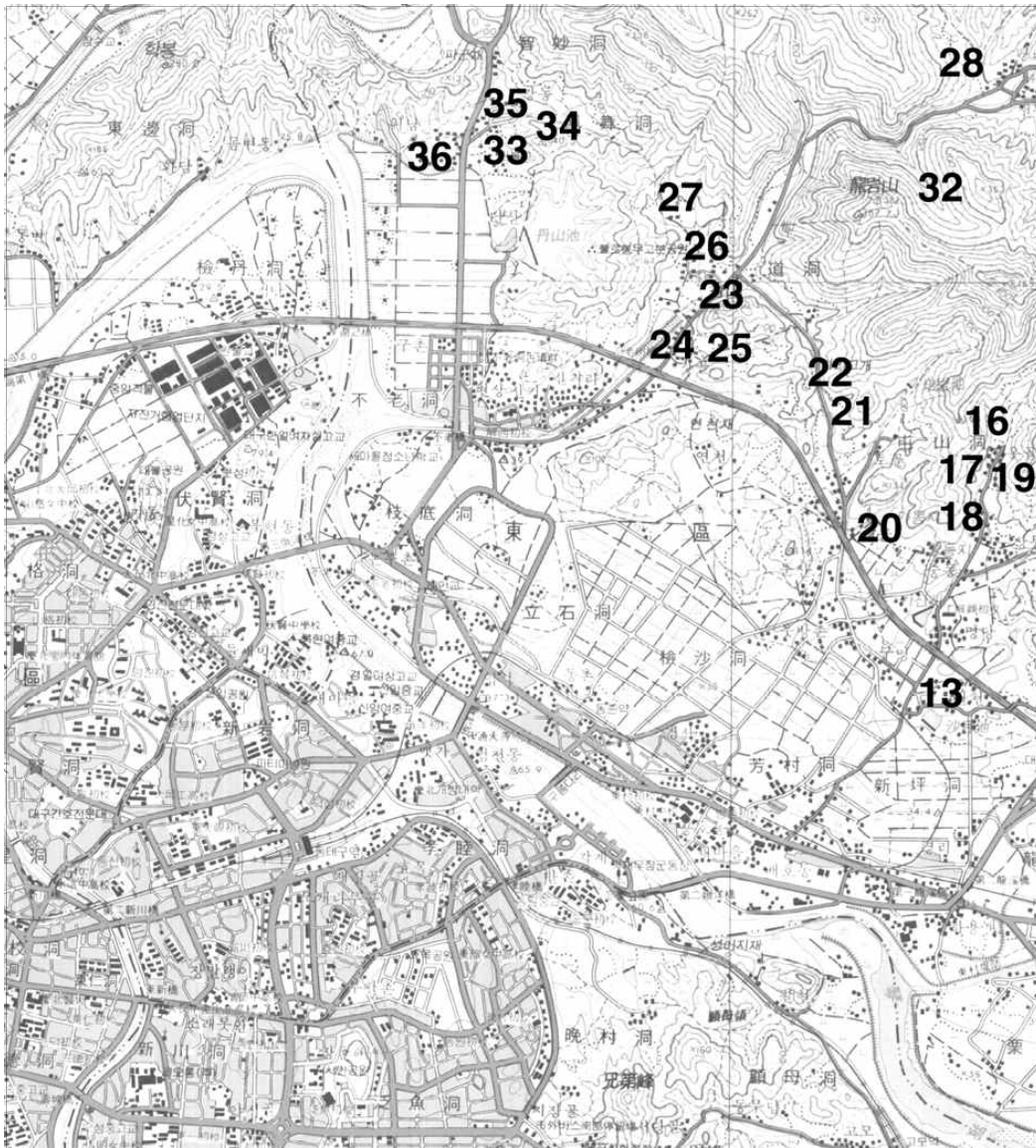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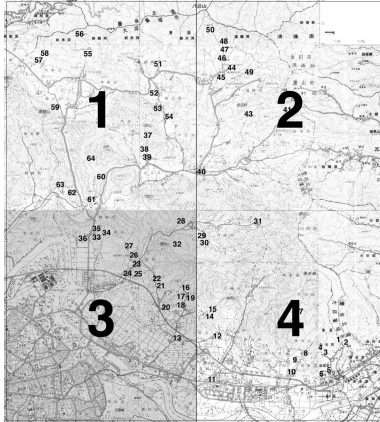
◀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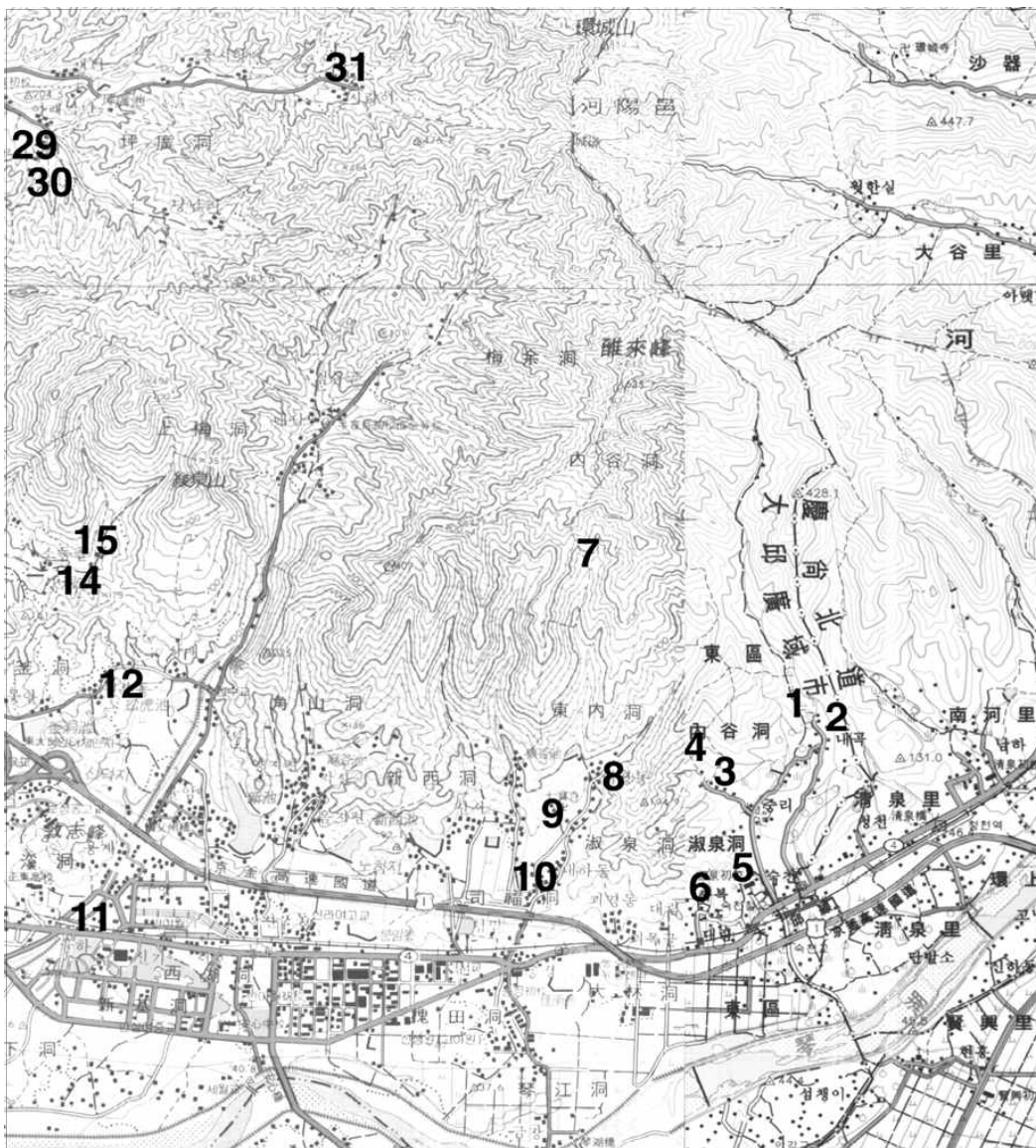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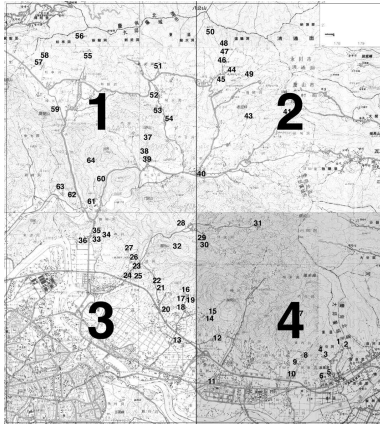
○ 동구지역 조사대상 고 건축물 위치도 2



○ 동구지역 조사대상 고 건축물 위치도 3



○ 동구지역 조사대상 고 건축물 위치도 4



1. 심락재 (尋樂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내곡동 80번지
- 건립년대 : 1660년 초창
- 건축규모 : 일곽(2동)
 - ① 재 실 - 정면 3칸 · 측면 3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② 대문채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심락재는 달성인(達城人) 세심헌(洗心軒) 서도형(徐道珩)을 봉사(奉祀)하기 위한 재실로 1660년 건립되었다고 전한다. 초창 후 건물의 중건·중수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파악할 수 없다.

이 재실은 마을 산록의 야트막한 계곡 좌측 언덕 위에 남서향으로 좌정(坐定)하고 있다. 건물의 전체 배치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일곽의 정면 우측단에 3칸 대문을 내고 재실은 계류 가까이 인접시켜 배치하였다.

심락재는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ㄱ자형 건물로 홑처마 맞배지붕을 이었다. 평면은 정면 좌측으로부터 2칸 마루를 두고 우측 끝에 1칸 온돌방을 두었다. 좌측 마루에서 꺾어 대문쪽으로 온돌방 2칸을 시설하고, 건물 앞쪽에는 쪽마루를 깔았다. 창호는 온돌방 전면과 청방간(廳房間)에는 쌍여닫이 세살문을, 대청 배면에는 쌍여닫이 골판문을 달았다. 우측마루 정면에 심락재라는 편액이 있고, 편액의 좌측에는 ‘심락재 상량문(尋樂齋 上樑文)’, 우측에는 ‘심락재기(尋樂齋記)’와 운(韻) 9수(九首)가 있다.



▲ 정면



▲ 측면

구조는 기단부를 막돌 허튼층쌓기로 구성하여 자연석 덩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다. 기둥은 정면에만 두리기둥을 쓰고, 배면에는 모두 네모기둥을 사용했다. 대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중앙칸에 대문을 달고 좌우에 헛간을 1칸씩 두었다.

심락재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인공적인 건축물을 잘 조화시켜 배치한 점이 뛰어나다.



▲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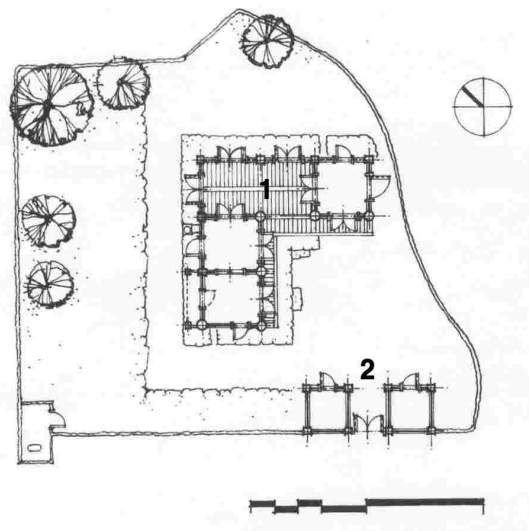
▲ 대문채



▲ 대청



▲ 대청 상부가구



심락재 배치평면도

2. 모의정 (慕義亭)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내곡동
- 건립년대 : 미상
- 건축규모 : 일곽(2동)

① 재 실 - 정면 4칸 · 측면 1.5칸, 홑처마, 팔작지붕

② 대문채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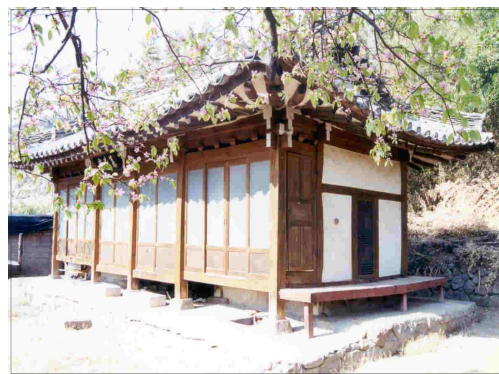
모의정은 동구 내곡동에 있는 정자로 김해인 병조참의(兵曹參議) 김달(金達)을 위한 우묘소(寓墓所)이다. 모의정은 방형을 이루고 있는 일곽의 담장 정면 중앙부에 나있는 3칸 대문을 들어서면 마당을 앞에 두고 서향하고 있다. 이 건물은 정면 4칸 · 측면 1.5칸 규모의 일자형(一字形)으로 홑처마 팔작지붕을 이었다.

평면은 2통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온돌방 1칸씩을 두었는데 양측 온돌방에 비해 중앙 마루칸의 간살이가 훨씬 좁다.

대청과 온돌방 전면에는 미서기문을 단 퇴칸을, 우측과 배면부에는 쪽마루를 놓았으며 우측 온돌방에는 벽장을 구성하였다. 창호는 온돌방 전면과 청방간(廳房間)에는 쌍여닫이 세살문을, 대청 배면에는 쌍여닫이 골판문을 달았다.



▲ 정면



▲ 측면

구조는 막돌허튼층 쌓기한 기단 위에 다듬돌 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워 대들보를 걸치고 마루도리를 받개한 간략한 3량가이다. 기둥은 모두 네모기둥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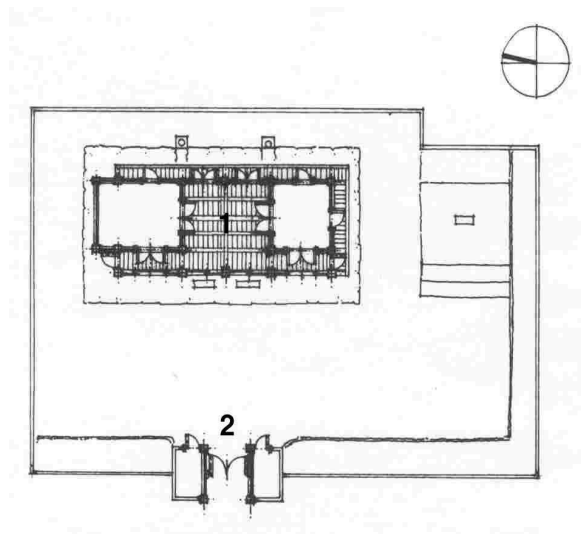
모의정은 최근에 현대식으로 완전 중건하여 관리상태는 양호하나 건축 당시의 양식이나 고풍스러운 정치는 느낄 수 없다.



▲ 배면



▲ 대문채



모의정 배치평면도

3. 원모재 (遠慕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숙천동 78번지
- 건립년대 : 미상
- 건축규모 : 일곽(2동)
 - ① 재실 - 정면 4칸 · 측면 1.5칸, 흙처마, 팔작지붕
 - ② 대문채 - 정면 1칸 · 측면 1칸, 흙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원모재는 대구시 동구 숙천동 78번지에 있는 재실로, 조선시대 순조때 참봉이었던 동고

(東皐) 서사선(徐思選)을 추모하기 위하여 후손들이 건립하였다. 현재 달성 서씨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다.

원모재는 네모 반듯한 대지에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1칸 대문을 통해 들어가면 앞쪽에 원모재가 있는데, 정면 4칸, 측면 1칸반 규모의 홀치마 팔작기와 집이다.

평면은 어칸의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들였으며, 앞쪽에는 반칸 규모의 퇴칸을 두었다. 건물 정면의 여모중방 밑은 붉은 벽돌로 마감하였고 측면이나 배면에는 별도의 쪽마루를 시설하지 않았다.



▲ 정면



▲ 배면

구조는 화강석 판석으로 마감한 낮은 기단 위에 원형 초석을 놓고 앞쪽에만 두리기둥을 세운 소로수장집이다. 상부구조는 5량가로 중보 위에 제형판대공(梯形板臺工)과 화반대공(花盤臺工)으로 마루도리를 받게 하였다.

원모재는 건립년대가 일천하여 보존상태는 양호하나 재실건축으로서의 별다른 특징은 찾아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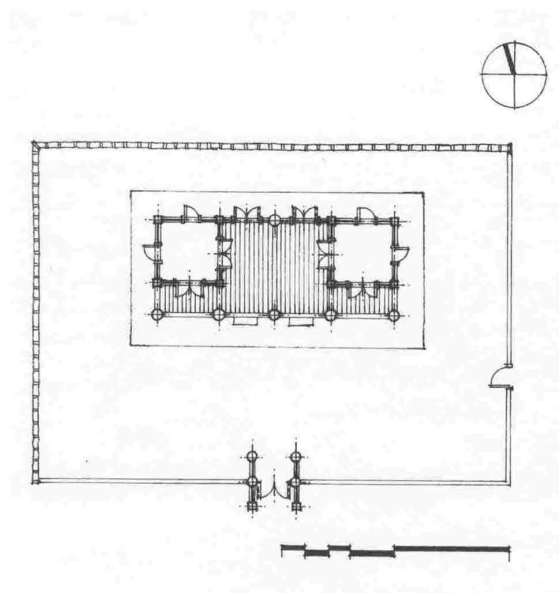
▲ 대청



▲ 대청 상부가구



▲ 대문



원모재 배치평면도

4. 오산재 (烏山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숙천동 24번지
- 건립년대 : 1919년
- 건축규모 : 일곽(3동)
 - ① 재 실 - 정면 3칸 · 측면 1.5칸, 훌처마, 팔작지붕
 - ② 대문채 - 정면 1칸 · 측면 1칸, 훌처마, 맞배지붕
 - ③ 영정각 - 정면 1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오산재는 대구시 동구 숙천동 24번지에 있다. 안동 김척암(金拓庵)의 문인이었던 배봉상(裴鳳祥)이 고종 황제가 승하했을 때 배일정신을 드높이며 슬피 운 뜻을 기려 그 후손이 1919년에 건립하였다고 한다. 재실의 우측 옆에는 미현(米軒)선생의 위패를 모신 영정각(影幀閣)이 시멘트 블록 담장으로 둘러막혀 일곽을 형성하고 있다.

이 재실은 1칸 대문을 통해 들어가면 방형의 대지에 동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오산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반 규모의 홀처마 팔작기와 집으로 평면은 중앙에 단칸의 대청을 두고 좌우에 각 1칸의 온돌방을 꾸민 중당협실형(中堂夾室形)이다. 창호는 온돌방 전면과 청방간(廳房間)에는 쌍여단이 띠살문을 달았고 대청 전면에는 4분합 들문을, 배변에는 쌍여단이 골판문을 달았다.



▲ 대문채



▲ 재실 정면

구조는 기단부를 막돌 허튼층쌓기로 구성하여 대강 다듬은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다. 전면 퇴칸 기둥은 원기둥, 나머지는 모두 사각기둥을 사용했는데 원기둥의 초석만은 원형의 화강석 다듬돌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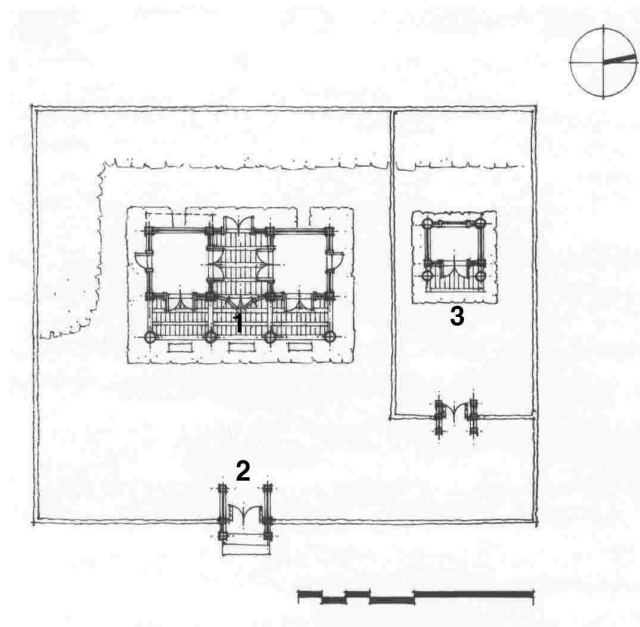
영정각은 정면과 측면이 각 1칸 규모로 출입시의 편의성을 위해 전면에만 뒹마루를 시설하였다. 지붕은 겹처마에 맞배지붕으로 좌우 양끝에 풍판을 달았다.



▲ 재실 측면



▲ 재실 대청



오산재 배치평면도

5. 오우당 (五友堂)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사북동 75번지
- 건립년대 : 1932년
- 건축규모 : 일곽(2동)
 - ① 재 실 - 정면 4칸 · 측면 1.5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② 대문채 - 정면 1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동구 사북동 75번지에 있는 오우당은 이 곳에 세거하던 경주 이씨 문중의 정자로서 향토 사회에 유덕을 남긴 오종반(五從班)을 추모하기 위해 1932년 후손들이 건립하였다. 오종반은 이은영(李殷榮) · 원영(原榮) · 문영(文榮) · 조영(祚榮) · 환영(煥榮)으로서 특히 원영은 호가 약중(藥中)으로서 흉년에 사재를 기울여 빈민을 구제한 공덕이 전한다.

오우당은 방형을 이루고 있는 일곽의 담장 정면 중앙부에 나있는 1칸 대문을 들어서면 마당을 앞에 두고 남향하고 있다. 정면 4칸 · 측면 1.5칸 규모의 일자형(一字形) 건물로 홑처마 팔작지붕을 이었다.

평면은 2통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 · 우측에 온돌방 1칸씩을 두었다. 대청과 온돌방 전면에는 반칸 규모의 퇴칸을, 대청 배면부에는 쪽마루를 놓았으며 우측 온돌방에는 벽장을 시설하였다. 창호는 온돌방 전면과 청방간(廳房間)에는 쌍여닫이 세살문을, 대청 배면에는 쌍

여닫이 골판문을 달았다.



▲ 전경



▲ 정면

구조는 시멘트 몰탈로 마감한 낮은 기단 위에 다듬돌 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전면 퇴칸 기둥과 대청 배면 중앙기둥은 두리기둥이고 나머지는 모두 네모기둥이다. 상부구조는 대들보 위에 짧은 동자주를 놓아 종보를 받고 그 위에 제형 판대공으로 마루도리를 받게 한 5량가이다.



▲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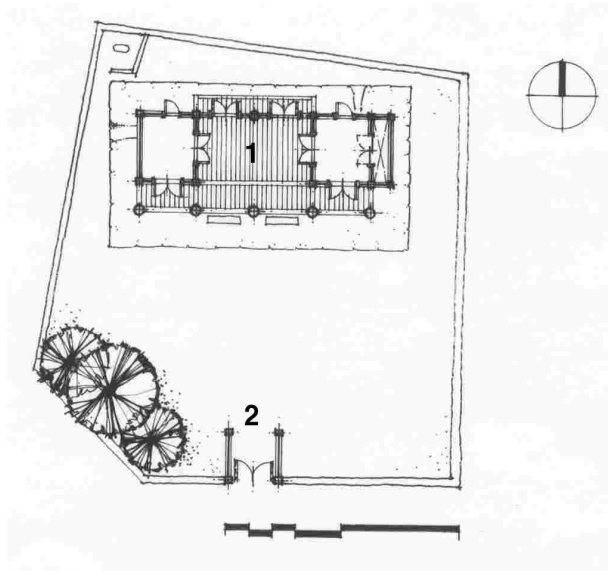
▲ 대문채



▲ 대청



▲ 대청 상부가구



오우당 배치평면도

6. 서진영주택 (徐鎭永住宅)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51
- 건립년대 : 1890년경
- 건축규모 : 일곽(3동)
 - ① 사랑채 - 정면 5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② 안채 - 정면 5칸 · 측면 1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③ 아래채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5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이 가옥은 100여년 전 달성 서씨의 문중 임야에 서병구(徐炳九)씨가 건축한 목조 기와집이다. 당시 선조의 묘소 관리를 위한 재실로 지은 것이라 한다.

이 집은 354평 대지에 일자형(一字形)의 안채 · 아래채 · 사랑채가 튼 ㄷ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최근 안채와 아래채 사이에 침실공간을 증축함에 따라 외관상으로는 두 동(棟)의 건물이 마치 ㄱ자형태로 연결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안채는 남서향한 정면 5칸 · 측면 1칸 규모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며 아래채는 정면 3칸 · 측면 1칸 규모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중정을 사이에 두고 안채와 마주보고 있는 사랑채는 정면 5칸 · 측면 1칸 규모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우측 1칸은 대문간으로 구성하였다.



▲ 사랑채 정면



▲ 사랑채 측면



▲ 안채



▲ 아래채

모든 건물의 평면은 방이 일렬로만 놓인 홑집의 형태를 띄며 가구는 간단한 3량가이다.
서진영주택은 잦은 개·보수와 증축으로 인해 내부공간구성이나 구조 등이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용(變容)되었고 또 고격(古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건축사적 가치는 별로 없다.

7. 승방재 (勝芳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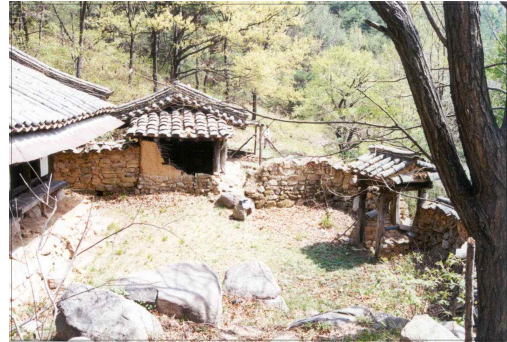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동 4번지
- 건립년대 : 1915년
- 건축규모 : 일곽(3동)
 - ① 재 실 - 정면 5칸 · 측면 1.5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② 부속사 - 정면 4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③ 출입문 - 정면 1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대구시 동구 동내동 4번지에 위치한 승방재는 임진왜란 때 의병대장 황경림(黃慶霖)이 군사교련한 뜻을 기려 논공행상을 한 결과 창의공신(昌義功臣)의 휘호를 받아 350여년 전에 지은 재실이다. 현재의 건물은 대청상부에 새겨진 “을묘정월삼십일미시중수상량(乙卯正月三十日未時重修上樑)”이란 상량문의 내용으로 보아 1915년에 중건된 듯하다.

이 재실은 마을의 뒷산 중턱 한적한 곳에 남서향으로 좌정하고 있다. 돌담을 두른 일곽의 대지 안에 승방재가 자리잡고 있으며 일곽 우측면에 부속사가 연접 배치되어 있다.



▲ 출입문



▲ 전경

승방재는 정면 5칸 · 측면 1.5칸 규모의 일자형(一字形) 건물로 홀처마 맞배지붕을 이었다. 평면은 2통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1칸×1.5칸, 우측에는 2칸×1.5칸 크기의 온돌방을 두었으며 전면에만 쪽마루를 놓았다. 승방재는 기둥의 간사이가 155cm정도 밖에 되지 않아 간수에 비해 건물의 규모는 작은 편이다.

구조는 기단부를 막돌 허튼층쌓기로 구성하여 자연석 덩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다. 기둥은 전부 원기둥을 사용하였으며 상부구조는 대들보 위에 짧은 동자주를 놓아 마루도리를 받게 한 간략한 3량가로 구성하였다.



▲ 정면



▲ 기둥 상부구조

우측면에 자리잡고 있는 부속사는 정면 4칸 · 측면 1칸 규모의 일자형(一字形) 건물로 홀

처마 맞배지붕 집이다. 평면은 좌측부터 2칸의 부엌과 단칸의 온돌방 2개를 연결시켜 배치 하였으며 대청이나 뒷마루는 들이지 않았다.

승방재는 그동안 관리 소홀로 인해 폐가가 되다시피 퇴락하였으며 1948년 문중에서 새로 이 영사재(永思齋)를 마을 내에 건립하여 ‘승방재(勝芳齋)’의 현판을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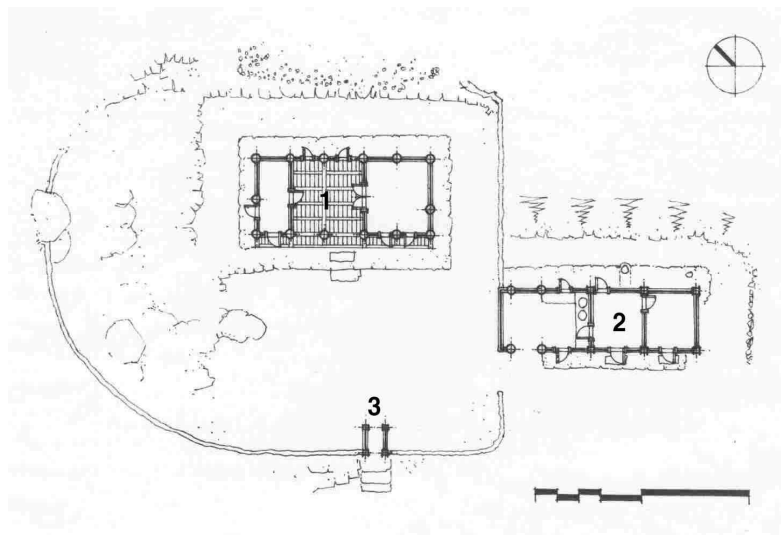
▲ 대청 상부가구



▲ 부속사 정면



▲ 부속사 측면



승방재 배치평면도

8. 동호서당 (東湖書堂)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2동
- 건립년대 : 1921년
- 건축규모 : 일곽(2동)
 - ① 서당 - 정면 4칸 · 측면 1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② 대문채 - 정면 1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동호서당은 대구시 동구 동내2동에 있으며, 면와(勉窩) 황경림(黃慶霖)이 후진의 강학을 위하여 건립한 것이다. 《동호서당중건기(東湖書堂重建記)》에 최대암(崔臺巖), 손모당(孫慕堂) 등이 이곳에서 수학하였다고 전한다. 현재의 서당건물은 대청상부 마루도리에 새겨진 “기원후신유삼월칠일사시중수상량(紀元後辛酉三月七日巳時重修上樑)”이란 상량문의 내용으로 보아 1921년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맑은 곡간수(谷澗水)가 흐르는 개울을 건너 기와를 이은 죽담으로 둘러싸인 일곽의 대지에 들어서면 단아한 서당건물이 남서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서당 전면 좌우에는 수령이 오래된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서 있어 강학공간으로서의 운치를 더해 준다.

서당의 규모는 정면 4칸 · 측면 1칸이며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평면구성은 우측 2칸은 앞쪽이 개방된 대청이고 좌측에는 2통칸의 온돌방이 배치되어 있다. 뒷마루는 온돌방의 전면에만 설치하였으며, 또한 온돌방의 좌측벽 위에는 수장용 벽장을 두었다.



▲ 대문



▲ 정면

구조는 막돌 허튼층쌓기로 구성된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운 민도리집으로, 대청 위 가구는 사다리꼴 모양의 판대공을 세워 마루도리를 받는 검박한 3량가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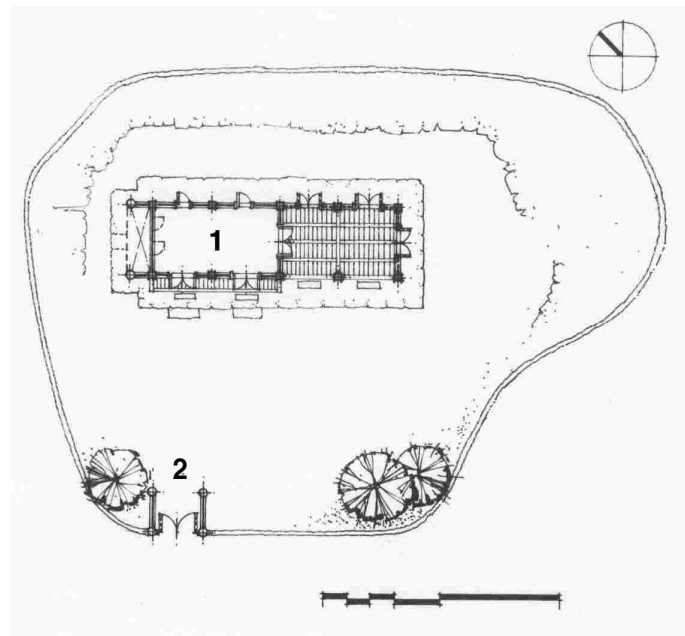
서당건물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현재에도 동민들의 집회장소나 마을의 공동사랑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 측면



▲ 대청 상부가구



동호서당 배치평면도

9. 영사재 (永思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동 101번지
- 건축년대 : 1948년
- 건축규모 : 일곽(2동)
 - ① 재 실 - 정면 5칸 · 측면 1.5칸, 흙처마, 팔작지붕
 - ② 대문채 - 정면 3칸 · 측면 1칸, 흙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영사재는 대구시 동구 동내동 101번지에 위치하며, 1948년 장수 황씨(長水 黃氏) 문중에서 면와(勉窩) 황경림(黃慶霖)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지은 것이다.

면와공은 방촌(尙村) 희(喜)의 후손이며, 판윤(判尹) 혁정(赫禎)의 증손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화산(花山) 권응수(權應銖)를 도와 영천성을 회복하고, 망우당(忘優堂) 곽재우(郭再佑)를 따라 화왕산성(火旺山城)을 지키다가 임진왜란 후 승방곡(勝芳谷)에 은거하였다. 그 뒤 순조 때 동호사(東湖祠)에 봉사(奉祀)되었다.

이 재실은 이로문(履露門)이라 편액되어 있는 정면 3칸·측면 1칸의 대문을 들어서면 방정한 일곽에 남서향으로 좌정하고 있다.



▲ 중정



▲ 대문채

재실은 정면 5칸·측면 1.5칸 규모의 일자형(一字形) 건물로 홀처마 팔작지붕을 이었다. 평면은 2통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2칸 온돌방을, 우측에는 1칸 온돌방을 들였다. 대청과 온돌방 전면에는 반칸 규모의 퇴칸을, 우측면과 배면부에는 긴 쪽마루를 놓았으며 좌측 온돌방에는 벽장을 시설하였다.



▲ 정면



▲ 배면

창호는 온돌방 전면에는 쌍여닫이 세살문을, 대청 배면에는 쌍여닫이 골판문을 달았다. 특히 청방간(廳房間)에는 사분합 들문을 달아 의례시 공간사용에 있어 융통성을 꾀하도록 하였다. 구조는 시멘트 몰탈로 마감한 낮은 기단 위에 다듬돌 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전면 퇴칸 기둥과 대청 배면 중앙기둥, 배면 모퉁이는 두리기둥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네모기둥으로 처리하였다. 상부구조는 대들보 위에 짧은 동자주를 놓아 중보를 받고 그 위에 제형 판대공과 원형 판대공으로 마루도리를 받게 한 5량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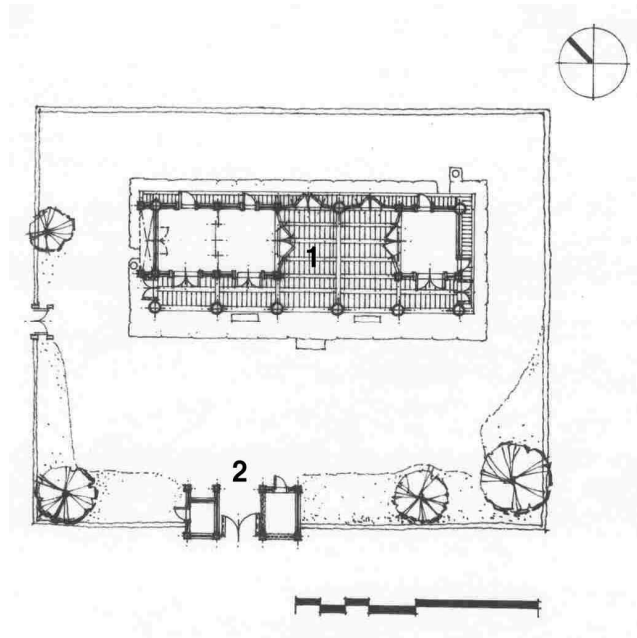
재실 내에는 《勉窩實記》의 목판 판각 10본이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 퇴칸 마루



▲ 대청 상부가구



영사재 배치평면도

10. 충효각 (忠孝閣)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동 450번지
- 건립년대 : 미상
- 건축규모 : 정면 1칸 · 측면 1칸, 흙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충효각은 동구 동내동 450번지에 자리하고 있는 건물로 조선조 숙종시에 효행이 지극했던 배이인(裴爾仁)의 정려각으로 왕이 사액(賜額)한 것으로 전해온다. 정려각 내에는 배이인의 효행을 기록한 판각이 보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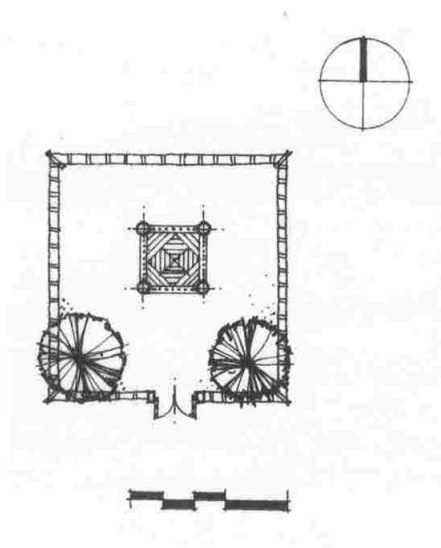
배이인의 호는 묵옹(默翁)으로 성주인(星州人)인데 아버지 병환에 까마귀를 영약으로 드리고, 못가에 잉어가 뛰어 나온 기적과 아울러 어머니 병환에 단지주혈(斷指注血)로 연명하게 한 사실, 또는 양친상의 6년 여막에 호랑이가 와서 호위한 사실, 그리고 숙종·경종의 두 국상 때 6년 동안 소식(素食)으로 슬퍼하였다는 사실 등이 전해진다. 순종 때 예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이 건물은 단칸 규모의 비각으로 홀치마 팔작지붕을 이었다. 비각은 남향으로 서 있으며 주위에는 시멘트 블록으로 담장을 쌓아 공간을 구획하였다.



▲ 전경



▲ 정면



충효각 배치평면도

11. 삼사당 (三斯堂)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17번지
- 건립년대 : 미상
- 건축규모 : 비각 - 정면 1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삼사당은 동구 율하동 17번지에 건립한 건물이다. 임진왜란 때에 성현(省峴)·연화봉(蓮花峯)·영천성(永川城) 전투 등에서 역전하여 승리를 거두고 훈련원(訓練院) 부정(副正)에 배명(拜命)되었다가 후에 진중전사(陣中戰死)한 최응담(崔應淡)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지은 것으로 유허비각(遺墟碑閣)과 아울러 건립되었다. 건물의 평면은 ㄱ자형으로 홀처마 팔작지붕을 이었다. 건축연대가 일천하여 고격(古格)을 전혀 느낄 수 없고 가구수법이나 부재의 장식수법 등에서도 별다른 특징을 찾아 볼 수 없다. 삼사당 우측에 있는 비각은 단칸 규모의 건물로 겹처마 맞배지붕을 이었으며 양측면에는 풍판을 달았다. 비각은 남향으로 서 있으며 주위에는 시멘트 블록으로 담장을 쌓아 공간을 구획하였다.



▲ 전경



▲ 유허비각



▲ 유허비각 상세

12. 친목당 (親睦堂)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 58번지
- 건립년대 : 1888년
- 건축규모 : 일곽(2동)
 - ① 정 침 - 정면 4칸 · 측면 1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② 행랑채 - 정면 4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친목당은 1888년에 건립한 성산 여씨(星山 呂氏)의 종중 재실이다. 이 재실은 방형의 대지를 전후로 나눈 일곽 안에 정침, 행랑채, 대문채가 튼 ㄷ자형을 이루고 있다. 대문채와 정침 사이에 시설된 담장 중간쯤에 일각문이 나있고, 정침의 좌측 담장 모서리에 측간이 있다.

정침은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로 우측에 2칸 대청을 두고 그 좌측에 각 1칸의 온돌방들을 연결되게 앉혔다. 온돌방 정면과 대청 배면에는 좁은 쪽마루를 두어 출입에 편리하도록 했다.



▲ 전경



▲ 친목당 정면

기둥은 대청 전면에만 두리기둥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네모기둥을 사용하였다.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한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운 간략한 3량가로 활처럼 휘어 오른 대들보 위에 제형판대공을 놓아 마루도리를 받게 했다. 지붕은 홑처마 팔작기와지붕이다.

행랑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로 좌측부터 부엌 · 온돌방 · 마루 · 온돌방의 순으로 연결되어 있다. 대문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크기로 중앙칸에 대문을 내고 좌우 양쪽에 고방을 두었다.

친목당은 전체적으로 볼 때 구조가 건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짜임새가 없고 별다른 건축적 특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부재가 가늘어지고 창호의 크기가 증대되는 등 입면구성에서 19세기말의 건축적 특성이 나타난다.



▲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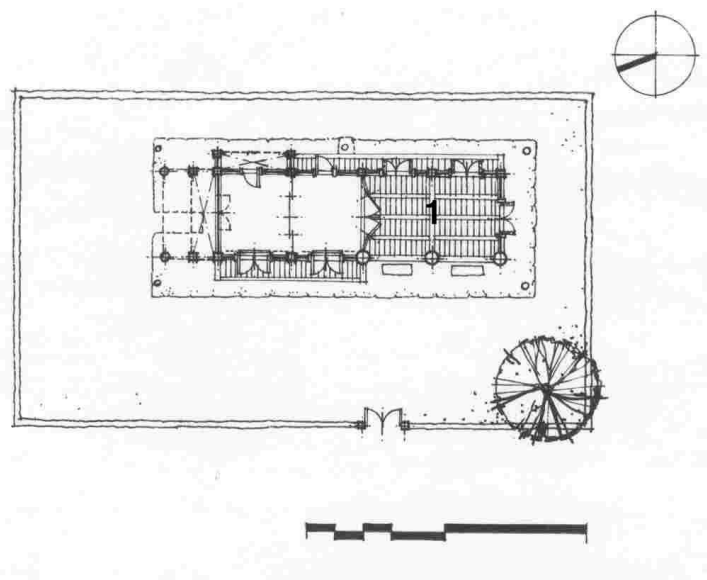
▲ 배면



▲ 대청



▲ 대청 상부가구



친목당 배치평면도

13. 월천재 (月泉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 482번지
- 건립년대 : 1922년
- 건축규모 : 정면 4칸 · 측면 1.5칸,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월천재는 약 70여년 전에 건립한 것으로, 소유자 유병태(柳炳台)씨의 종중 재실이다. 현재의 건물은 대청상부에 새겨진 “임술삼월십팔일임자진입주상량(壬戌三月十八日壬子辰立柱上樑)”이란 상량문의 내용으로 보아 1922년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월천재는 방형의 대지에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일자형(一字形) 건물로 정면 4칸, 측면 1칸반 규모의 홑처마 팔작기와 집이다. 평면은 어칸의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들였으며, 앞쪽에는 반칸 규모의 퇴칸을 두었다. 측면이나 배면에 별도의 쪽마루는 시설하지 않았다. 구조는 시멘트 몰탈로 마감한 낮은 기단 위에 원형 초석을 놓고 퇴칸 앞쪽에만 두리기둥을 세운 소로수장집이다. 상부구조는 5량가로 대들보 위에 짧은 동자주를 놓아 중보를 받고 그 위에 다시 동자주 대공을 얹어 마루도리를 받게 하였다. 월천재는 보존상태는 양호하나 재실건축으로서의 별다른 특징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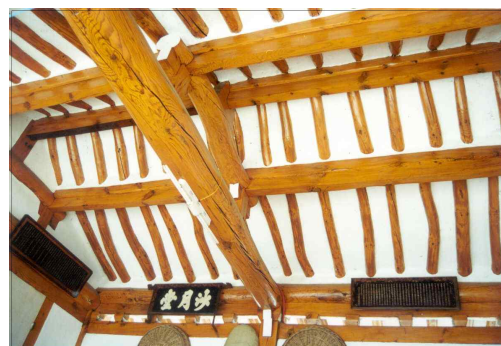
▲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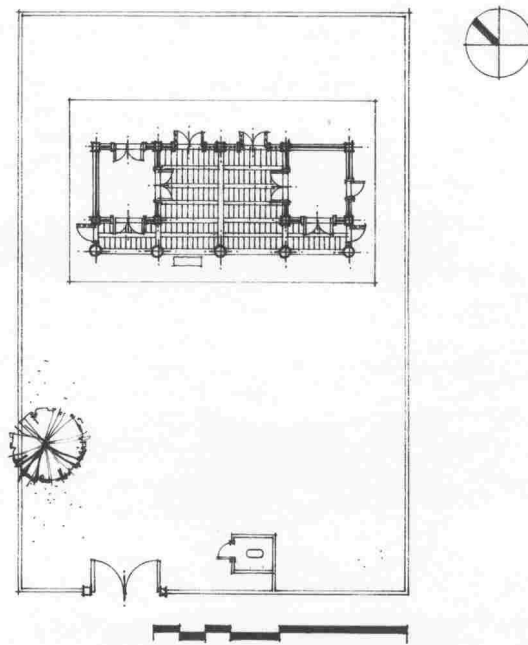
▲ 배면



▲ 기둥상부



▲ 대청 상부가구



월천재 배치평면도

14. 침송재 (瞻松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2번지
- 건립년대 : 1927년
- 건축규모 : 정면 4칸 · 측면 1칸,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침송재는 인천 채씨 투암공파(投巖公派)의 재실로 동구 둔산동 2번지에 있다. 전해 오는 얘기에 의하면, 두문동 72현 중의 한 사람인 다의당(多義堂) 채정의공(蔡貞義公)이 아들 소감공(少監公)에게 고향에 돌아가서 조상을 받들게 한 후 누대에 걸쳐 청신석덕(靑臣碩德)이 배출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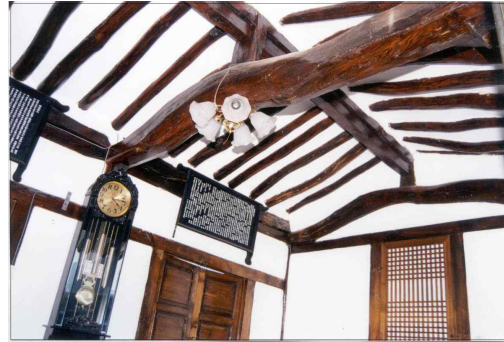
그들의 묘소가 대구 동쪽 송태산(松台山) 밑에 놓여져 있어 시조 인천군(仁川君)을 비롯하여 이들 조상을 추모하고 제사지내기 위하여 재실을 지었으나, 그 건립 연대는 불분명하고 현존 건물은 1927년에 중건한 것이다.

재실은 정면 4칸 · 측면 1칸 규모의 일자형(一字形) 건물로 홑처마 팔작지붕을 이었다. 평면은 2통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 양측에 온돌방을 1칸씩 들였다. 양측 온돌방 전면과 대청 배면에는 쪽마루를 놓았으며 온돌방 배면에는 벽장을 시설하였다. 건물의 구조는 3량가로 활처럼 휘어 오른 대들보 위에 동자주 대공을 놓아 마루도리를 받게 했다. 침송재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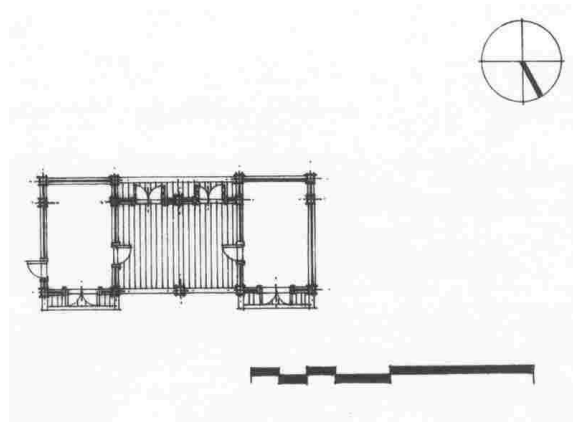
뒷마루와 대청 하부를 붉은 벽돌로 마감하고 건물 전면에는 알루미늄 유리문을 달아 외관상 고격(古格)을 전혀 느낄 수 없다.



▲ 정면



▲ 대청 상부가구



첨송재 평면도

15. 추모재 (追慕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13-1번지
- 건립년대 : 1890년경
- 건축규모 : 일곽(2동)
 - ① 재실 - 정면 4칸 · 측면 1.5칸, 흙처마, 팔작지붕
 - ② 대문채 - 정면 3칸 · 측면 1칸, 흙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추모재는 대구시 동구 둔산동 13-1번지에 있는 재실로 약 100여년 전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이 재실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대문을 들어서면 높이 2미터 정도의 견치식 기단 위에 자리잡고 있다. 정면 4칸·측면 1.5칸 규모의 일자형(一字形) 건물로 홀처마 팔작지붕을 이었다.

평면은 1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2칸 온돌방을, 우측에는 1칸 온돌방을 들였다. 대청과 온돌방 전면에는 반칸 규모의 퇴칸을 두었는데 우측 1칸 온돌방의 실 폭을 좌측 온돌방보다 줄임으로써 퇴칸 마루의 면적을 상대적으로 넓게 하였다. 가운데 마루 배면에는 쪽마루를 놓았으며 양측 온돌방에는 벽장을 시설하였다.



▲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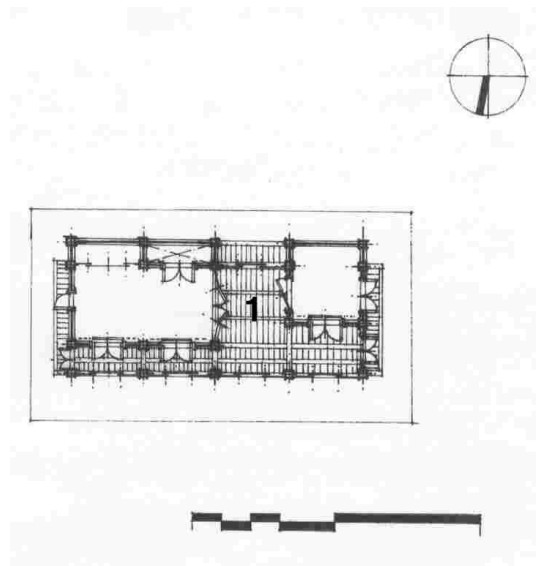
▲ 대문채

또한 툇칸 여모중방 밑은 붉은 벽돌로 영롱쌓기하여 막았으며 전면에는 방한을 위하여 유리를 끼운 미서기문을 달았다. 기둥은 전부 각주(角柱)만 사용했으며 상부 구조는 간략한 3량가로 대들보 위에 동자주 대공을 놓아 마루도리를 받게 했다.

대문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 크기의 홀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중앙칸에 대문을 내고 좌우 양쪽에 고방을 두었다.



▲ 청방간 창호



추모재 평면도

16. 경주최씨종가 (慶州崔氏宗家)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민속자료 제1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386번지
- 건립년대 : 1694년(안채, 가묘), 1742년(보본당, 별묘), 1905년(사랑채), 1927년(대문채)
- 건축규모 : 일곽(7동)
 - ① 대문채 - 정면 5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② 사랑채 - 정면 7칸 · 측면 2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③ 안채 - 정면 5칸 측면 5.5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④ 고방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⑤ 보본당 - 정면 5칸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⑥ 가묘 - 정면 3칸 측면 1.5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⑦ 별묘 - 정면 1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⑧ 포사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백불고택(百弗古宅)이라 불리는 경주 최씨(慶州 崔氏) 종가는 조선시대 전형적인 사대부가로, 현재 대구광역시 민속자료 1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이 집은 대구지방에 현존하는 조선시대 반가(班家)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경주최씨 광정공파(匡靖公派)의 시조인 최단(崔郾)의 후손인 인조때 학자 대암(臺巖) 최동집(崔東集, 1586~1661)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지은 주택이다. 최동집은 인조때 문신으로 당시 대군을 맡아 가르치던 대군사전(大君師傅)을 지낸 분으로 그의 나이 30세 되던 광해군 8년(1616)에 이곳 옷골(漆溪)에 정착하여 살았다. 옷골마을은 경주 최씨들이 동족마을을 이루며 살아오고 있는 대구지방의 이름난 반촌(班村)이다.

이 집의 건물은 대문채, 사랑채, 안채, 보본당(報本堂), 별묘(別廟), 가묘(家廟), 포사(包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경



▲ 정침 전경



▲ 보본당, 가묘 일곽

안채는 대암의 손자인 경함공(慶涵公, 1663~1699)이 숙종 20년(1694)에 창건하여 155년전에 중수하고, 81년전에 재건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16년전 문화재지정 사업으로 보수하였다. 사랑채는 대원군 당시 서원 철폐령에 의해 동천서원(東川書院)이 훼손되면서 동천서원의 일부 구재(舊材)를 이용하여 고종 42년(1905)에 중건하였다. 안채 동쪽에 있는 가묘는 안채와 함께 숙종 20년에, 보본당과 별묘는 최동집(1586~1661)을 추모하기 위하여 영조 18년(1742) 최흥원(崔興遠, 1705~1786)이 건축한 것이다. 특히 백불암(百弗庵) 최흥원은 이름난 효자였을 뿐만 아니라 빈민구제와 동약(洞約)을 통한 주민의 교화와 상부상조 정신 고취에 힘쓰신 분으로 유명하다.

이후 가묘와 별묘는 조정에서 불천위(不遷位)로 지정한 최동집과 최흥원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고종 33년(1896)에 중건되었다.

이 집은 나중에 사랑채를 증축하면서 횡적으로 확장 가능한 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적인 배치를 하였다. 이 같은 주거배치는 종가로써 공간이 깊어짐에 따라서 느끼는 경건함과 남자들의 공간인 사랑채를 외부로 개방하고 안채는 ㄷ자 폐쇄공간에 배치하여 남·여 생활공간을 분리한 내외법(内外法)에 의한 결과라 하겠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배경, 엄격한 도덕성, 산으로 둘러싸인 공격적 외부환경 등에 대한 대응 및 순응에 따른 형태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대 문 채

대문채는 정면 5칸, 측면 1칸 규모의 평대문(平大門)으로, 외별대의 앞은 흙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각주를 세워 3량가의 가구를 엮었다. 지붕은 원래 초가였으나 1940년경에 기와지붕으로 이었다. 평면은 대문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초당방(草堂房) 1칸과 마구를 두었으며 우측에는 2칸 규모의 고방을 두었다.

초당방은 소죽을 끓이거나 집안 일을 돌보던 사람이 거처하던 방이었는데 전면에 세살문을 달았으며, 마구 상부에는 다락을 설치하였다. 우측의 고방의 배면 우측에는 두짝 널문을 달아 출입하도록 하였고 좌측에는 한짝 세살창을 설치하였다. 우측 고방의 전면에는 흙돌담을 쌓아 외측(外廁)을 설치하였는데 외측으로의 출입은 대문 밖으로 하게 하였다.

● 사 랑 채

사랑채는 정면7칸·측면 2칸으로 우측 4칸통에 온돌방 2칸과 대청 2칸이 연이어 있다. 그리고 좌측 3칸은 81년전 중수시 헛간을 개조하여 중사랑채를 쓰고 있는데 큰사랑채와는 전퇴로 통하게 되어 있다. 구조는 모르타르 마감한 막돌 허튼층 쌓기 기단 위에 기둥을 세운 팔모도리집으로 대청 상부는 3량가로 구성되었다.



▲ 사랑채

무엇보다 사랑채는 원주와 각주를 혼용한 것이 특색이다. 대청과 방이 접합되는 전퇴 기둥은 8각주를, 대청 우측의 앞쪽에는 원주를, 중간에는 8각주를, 뒷면에는 4각주를 각각 사용한 것이다. 즉 마루에는 원주를 온돌방에는 각주를 쓰고 있는데, 즉 동일 건물내에서도 위

치에 따라 다른 모양의 기둥을 쓴 것은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철학적 개념을 조영물에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사랑마루 전면에는 ‘百弗古宅’이란 편액이 걸려 있고 뒷벽에는 ‘數咎堂(수구당)’이란 편액이 걸려 있다.

● 안 채

안채는 가운데 넓은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로 방과 부엌, 곳간 등이 쪽마루로 연이어져 있는 ㄷ자(字) 형태로 일자형(一字形)의 사랑채와 합해 튼 ㄱ자 배치형태를 취하고 있다. 윗골 마을에선 중가만이 유일하게 ㄱ자 배치를 하고 있다. ㄱ자형의 집은 협소한 대지에 최대한 복합적인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어, 중부지방 및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연한 영남 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대농형식(大農形式)의 주거형이다.

안채는 사랑채와 붙은 동서 두 중문(中門)만을 통해 출입하도록 하여 개방적인 사랑채와는 일단 절연(絶緣)을 시도하고 있다. 정침은 ㄱ형으로 중앙에 안마당 폭 가득히 3칸 대청이 놓이고 그 좌우에 접하여 양익사(兩翼舍)가 돌출되어 있다. 기단은 막돌로 쌓았고 막돌 초석 위에 네모 기둥을 세웠으며, 대청 상부 가구는 3량가로 사다리꼴 판대공을 세우고 마루도리를 받았다.



▲ 안채 전경



▲ 안채 부엌

● 고 방 채

고방채는 정침의 좌측에 동향하여 자리잡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일자형(一字形) 홑집인데 원래는 초가였으나 1990년경에 현재의 모습으로 건립하였다 한다.

평면은 좌로부터 목욕탕, 고방, 변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목욕탕으로 사용하고 있는 좌측칸은 원래 디딜방앗간 자리라고 한다.

기단은 비교적 얇게 축조하였는데 현재 모르타르로 마감되어 있으며 주초는 기단속에 묻혀 있는 상태이다. 가구는 3량가이며 맞배기와지붕을 얹었다.

● 보 본 당

사랑채 동편 옆으로는 마당을 사이에 두고 보본당이 있는데 260년전 별묘와 함께 건립되

었으며, 정면 5칸·측면 2칸의 무고주(無高柱) 5량집이다. 중앙의 3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방 1칸씩을 두었다.

대청 좌우의 방 상부에는 대청쪽에 개구부를 둔 고물(庫物)을 두고 있다. 고물은 집의 귀중품을 놓아두는 곳으로 필요시 사다리를 이용하여 출입토록 되어 있다. 보본당은 입향조 제사와 문중 중회시 주로 이용하며 재실로 통칭되고 있다.



▲ 보본당



▲ 보본당 대청 상부가구

보본당은 약 1척반 높이의 막돌 허튼층 쌓기 기단 위에 절단된 원추형 초석을 놓고 사랑채처럼 원주와 각주를 혼용하였다. 대청 앞에는 들어열개 창을 달았고 주두에는 초각된 보아지와 화두아(花斗牙)를 만들어 옆의 정침과 비교해서 장식적으로 꾸몄다.

지붕 4 모퉁이의 추녀에는 활주(活柱)를 세웠다. 활주 초석은 높이 1.5척에 8각으로 되어 있어 方(땅=기단)과 圓(하늘=기둥)의 순응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당 우측 구석에는 2척정도 높이의 향촉대(香燭臺) 둘이 있다.

● 가 묘

살림채와 보본당 중간 뒤에는 백불암의 불천위 사당인 가묘가 있는데 진입은 정면과 좌측면의 2곳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각각 일각문(一脚門)을 세웠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반 규모인데 전면에는 반칸의 퇴칸을 두었으며 내부는 통칸으로 꾸몄다. 어칸의 전면에는 온연귀한 문틀을 세워 양개(兩開) 널판문을 설치하였으며, 양측 칸에는 외짝 널판문을 달았다.

기단은 2단으로 축조하였는데 퇴칸 전면에는 장대석으로 얇은 기단을 형성하여 몰탈마감하였으며 퇴칸에는 초석의 높이까지 몰탈을 발라 기단을 중단지게 하였다. 초석은 덩벙주초를 사용하였는데 양측 전면기둥 하부에는 원뿔형의 다소 키가 큰 초석을 사용하였다.

기둥은 전면기둥만 원주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각주를 사용하였는데 전면기둥의 상부에는 양단을 원형으로 굴글린 보아지와 주두를 끼워 대들보를 받게 하였다. 가묘는 3량가의 맞배기와집인데 박공널에는 계눈으로 장식하였으며 양측 박공에는 풍판을 설치하였다.



▲ 가묘 전경



▲ 가묘 정면

● 별 묘

보본당 뒤에는 입향조인 대암선생을 모시는 정면 1칸·측면 1칸의 별묘가 있는데 별묘로의 진입은 보본당 후면의 담장에 난 일각문(一脚門)을 통하게 하였다.

별묘는 외별대의 얇은 기단위에 덩병주초를 놓았는데 기단의 상면은 강화다짐으로 마감하였다. 주초 위에는 4개의 원주를 세워 단칸의 공간을 형성하였는데 전면에는 양개(兩開) 널판문을 설치하였다. 3량가의 맞배기와집으로 지붕의 양측에는 풍관을 설치하였고 기둥 위에는 이익공(二翼工)으로 장식하였다.



▲ 별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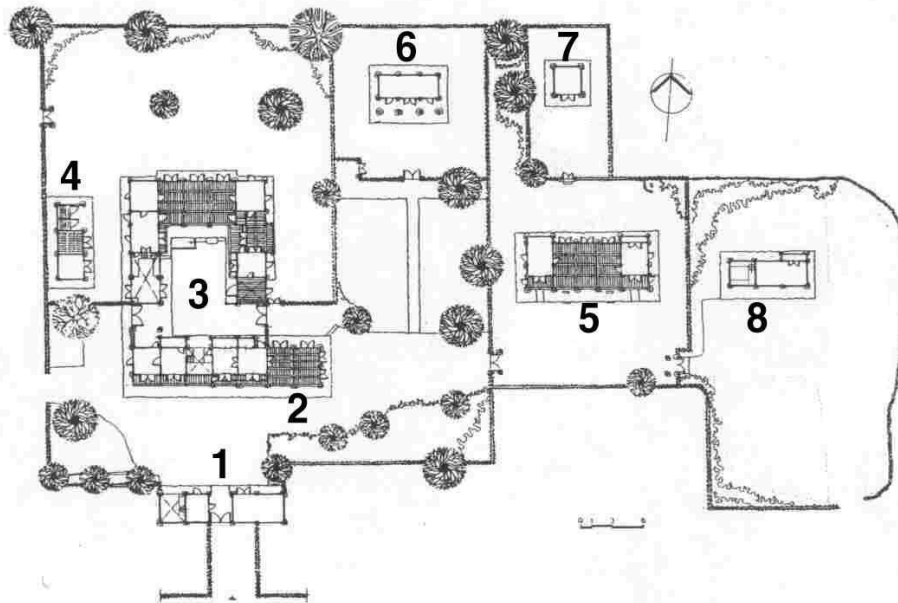
● 포 사

보본당 우측의 담장 밖에 자리잡고 있는 포사는 원래 3동으로 이루어져 ㄷ자형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1동만이 남아 있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일자형(一字形) 건물로 근년에 말끔하게 수리하였다. 평면은 좌측칸에 부엌을 두고 우측으로 2칸의 온돌방을 두었는데 좌측칸의 부엌은 원래 마루바닥이었으나 최근에 입식부엌으로 개조하였다. 가구는 3량가이며 맞배기와지붕을 얹었다.

백불고택의 조영에서 나타난 특성은 다른 반가보다도 특히 유학사상과 음양사상이 공간구성에 잘 표현된 것이라 하겠다. 즉 배치에 있어서 가묘와 별묘, 보본당으로 이루어지는 일곽

의 경공간(敬空間)은 양(陽)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동쪽에, 이에 대비하는 속적(俗的)인 생활공간은 음(陰)의 상징적 장소인 서쪽에 각각 포치한 것이다.

한편 경(敬)의 공간은 백불고택 뒷산에 위치한 대암(臺巖)을 정점으로 보본당과 직선 상에 별묘를 배치하여 유학적 교훈이 공간적 질서로 나타나도록 했다. 이것은 보본당이라고 하는 유교적 실천공간에서 비롯된 경외심이 별묘를 매개로 하여 대암까지 연결되므로써 ‘내세공간(선조)’과 ‘현세공간(후손)’이 서로 관념적으로 상통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경주최씨종가 배치평면도

17. 최병룡주택 (崔秉龍住宅)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387번지
- 건립년대 : 19세기 말
- 건축규모 : 일곽(2동)
 - ① 사랑채 - 정면 5칸 · 측면 1.5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② 안채 - 정면 4칸 · 측면 1.5칸,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주택은 100여년 전에 와가의 안채와 초가의 사랑채를 지은 후 1918년에 사랑채를 와가로, 또 안채의 칸수를 늘리고 기둥을 높이는 중건을 하였다. 앞의 백불고택으로 연결되는 길에서 우측으로 나있는 골목 안쪽에 보이는 대문채를 들어서면 일자형(一字形)의 사랑채와 안채가 이자(二字)형태를 취하면서 남향하고 있다.

● 사 랑 채

사랑채는 원래 정면 5칸, 측면 1칸반 규모였는데, 중건 때 건물 좌측에 블록으로 부엌 겸 목욕실을 증축하였다. 부엌 겸 목욕실 1칸에 연결하여 사랑옷방, 사랑아랫방, 사랑마루, 건너방이 배설되어 있다.



▲ 전경



▲ 사랑채 정면

건물의 전면에는 반칸의 퇴칸을 들였는데, 건너방 앞의 퇴칸 좌측에 문을 달아 사랑마루와 분리시켰다. 사랑마루와 좌우측 방 사이에는 4분합들문을, 사랑옷방과 아랫방 사이에는 네짝미서기문을 달아 내통하게 하였다.

장대석 쌓기한 기단 위에 덩병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모두 네모 기둥을 세웠다. 상부가구는 5량가로 대량 위에 동자주 중대공을 놓아 종량을 받도록 하고 종량 위에 원형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하였다.



▲ 사랑채 배면



▲ 사랑채 대청 상부가구

● 안 채

안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반 규모의 일자형 팔작 기와지붕집으로 좌로부터 부엌, 큰방, 대청, 작은방이 차례로 놓여 있다. 부엌을 제외한 3칸의 앞쪽에는 퇴칸을 들이고 이 퇴칸의 좌측단에 조그마한 벽장을 꾸며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의 부엌은 좌측으로 반칸

정도 확장하고 채래식을 입식으로 개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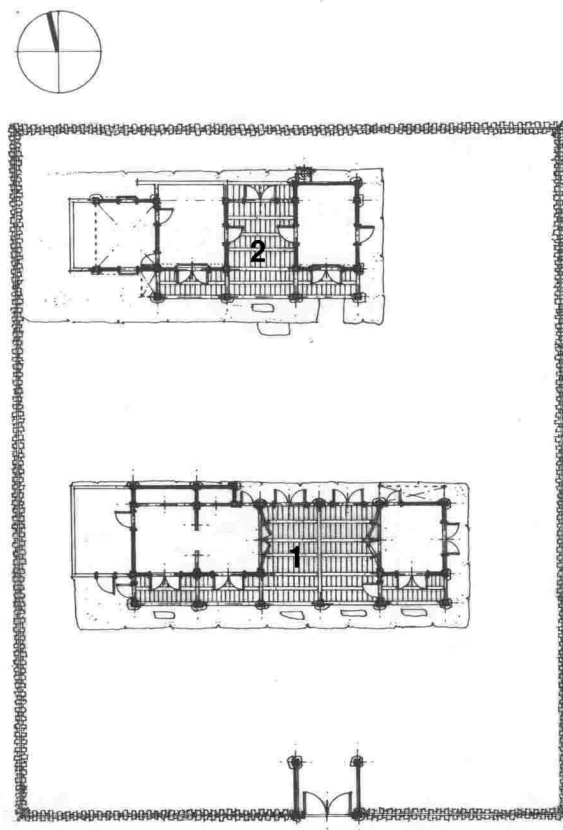
웃면을 모르타르 마감한 막돌허튼층 쌓기한 기단 위에 덩벙 주초를 놓고 모두 각주를 세웠다. 가구는 대량 위에 제형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한 간략한 3량가이다.



▲ 안채



▲ 안채 대청 상부가구



최병룡주택 배치평면도

18. 최세돈주택 (崔世惇住宅)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384번지
- 건립년대 : 1800년대 초
- 건축규모 : 일곽(2동)
 - ① 사랑채 - 정면 4칸 · 측면 1칸, 홑처마, 모임지붕
 - ② 안채 - 정면 5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최세돈 가옥은 대구지방의 이름난 반촌(班村)으로 경주 최씨의 동족마을인 옷골마을에 소재하고 있다. 이 가옥은 현 소유자인 최세돈씨의 6대조인 최명우(崔命愚)가 200여년 전에 지은 건물로 백불고택으로 통하는 주통로 좌측의 비교적 넓은 대지에 자리잡고 있다.

입구를 들어서면 넓은 사랑마당이 나타나는데 사랑채는 서쪽으로 다소 치우친 곳이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으며, 사랑채의 뒤로는 역시 넓은 안마당을 사이에 두고 안채가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다. 원래 이 집에는 사랑채와 안채사이에 좌측에는 마구간이, 우측에는 아랫채가 있어 ㄷ자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었다 하는데, 해방 후에 2동의 건물이 없어지면서 현재는 이자형(二字形)의 배치상태를 취하고 있다.



▲ 전경

안채 좌측에는 최헌식(崔憲植) 가옥이 자리잡고 있는데 원래는 최세돈 가옥과 담장으로 구획이 되어 있었으나 근년에 담장을 헐어낸 관계로 현재는 동일 대지내에 두 가옥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일자형(一字形) 홑집이다. 평면은 좌로부터 2칸의 사랑마루와 2칸의 사랑방이 연결되어 있는데 사랑방의 전면에는 쪽마루를 설치하였다. 2칸의 사랑마루는 우물마루인데 좌측면의 후면 상부에는 벽감(壁龕)을 시설하였으며 좌측칸의 후면에는 2짝 판장문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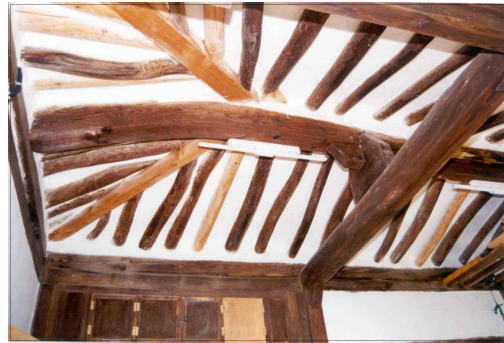
2칸 사랑방 내에는 원래 벽이 있었으나 현재는 통칸으로 되어 있으며 사랑방의 후면에는

벽장을 설치하였다. 사랑방 우측의 반칸에는 함실아궁이를 설치하였으나 현재는 블록으로 50cm가량을 더 달아내어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랑채의 구조는 막돌쌓기한 자연석 기단위에 덩벙주초를 놓고 각주를 세웠는데, 가구는 3량로 대들보 위에 판대공을 세워 마룟대를 받게 했다.



▲ 사랑채



▲ 사랑채 대청 상부가구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1칸 규모의 홑집으로, 평면은 좌로부터 부엌, 안방, 대청, 작은방이 연결되어 있다.

부엌은 현재 입식부엌으로 개조되었으며, 안방은 내부공간을 좀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 배면쪽으로 기존 벽체를 헐어내고 반칸가량을 확장하여 장농을 놓았다.

부엌 전면에는 두짝 판문이 있었으나 부엌을 개조할 때 외쪽의 플러시문으로 교체하였으며, 안방 전면의 창호도 원래는 두짝 세살문이었으나 현재는 두짝 미서기문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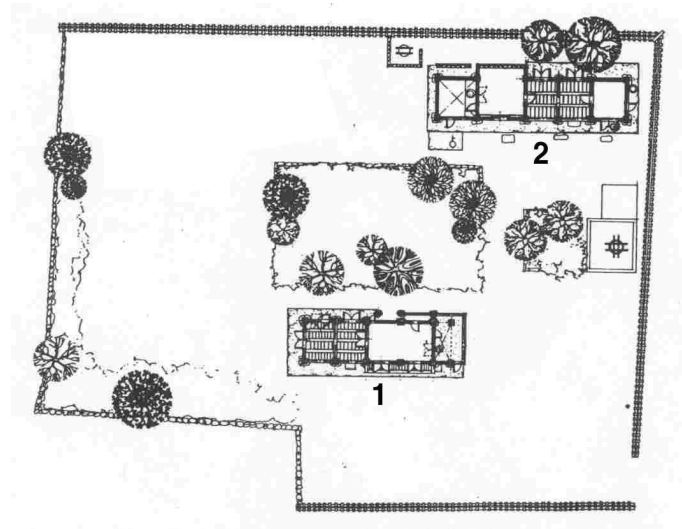
안채의 구조는 막돌허튼층쌓기한 기단위에 자연석 덩벙주초를 놓고 각주를 세웠다. 가구는 대들보 위에 제형판대공을 세워 장혀와 마룟대를 받게 한 견실한 구조의 3량가이다. 홀처마위에 골기와로 박공지붕을 이었는데 양측면에는 눈섭지붕을 달았다.



▲ 안채



▲ 안채 대청 상부가구



최세돈주택 배치평면도

19. 최병소주택 (崔秉昭住宅)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379번지
- 건립년대 : 1850년
- 건축규모 : 일곽(2동)
 - ① 사랑채 - 정면 4.5칸 · 측면 1칸, 흙처마, 모임지붕
 - ② 안채 - 정면 4칸 · 측면 1칸, 흙처마, 모임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집은 140여년 전에 건립한 후 그동안 수차례의 개보수가 있었다. 옷골 마을의 정려각에서 바로난 마을 안길을 조금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남향하고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일자형(一字形)의 사랑채와 안채가 이자형(二字形)의 배치형태를 이루고 있다. 안채의 우측 전면에는 알곡식을 저장하던 뒤주가 남아 있고 우측 후면에는 후대 개조한 슬레이트 지붕의 측간(廁間)이 있다.

사랑채는 정면 4칸반, 측면 1칸 크기의 일자형 슬레이트 모임지붕 건물로 좌로부터 도장 · 고방 · 2칸 방이 배설되어 있다. 도장과 고방의 출입문을 공히 뒷벽에만 내었는데, 이는 안채에서만 이용이 허용됨을 암시해 준다. 오른쪽 고방과 온돌방 사이에는 내통할 수 있는 문을 달고 전면에 각기 이중문을 내었다. 방 바닥은 장판지 위에 카펫을 깔았고 상부의 천정은 고미반자에 벽지로 마감하였다.

안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 크기의 일자형 시멘트기와 모임지붕 건물로 좌로부터 부엌 · 큰방 · 마루 · 작은방이 차례로 놓여 있다. 부엌의 상부에는 다락을 꾸미고 전면에는 문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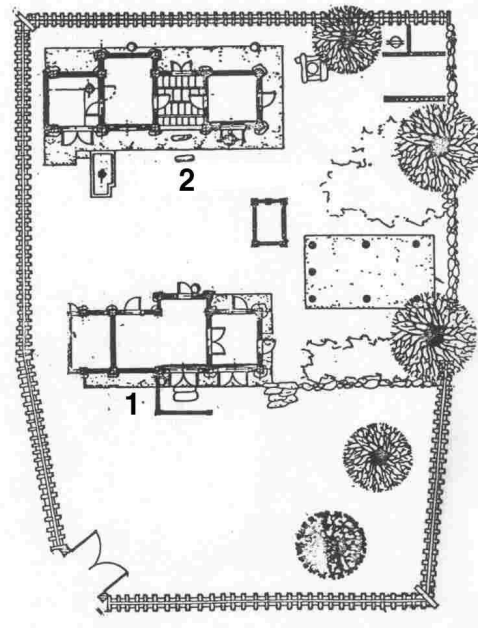
원형의 광창을 낸 두 짝 판장문을 달았다. 부엌의 내부는 재래부엌을 개조하여 싱크대를 설치하였다. 집의 상부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대량 위에 동자주 대공을 세워 마루도리를 받도록 하였다.



▲ 안채 정면



▲ 안채 측면



최병소주택 배치평면도

20. 모원재 (慕源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663번지
- 건립년대 : 1929년
- 건축규모 : 정면 4칸 · 측면 1.5칸, 홀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모원재는 대구시 동구 둔산동 663번지에 있는 재실로 남양 홍씨 송은(松隱) 국온(國溫)과 그의 아들 만휴당(晩休堂) 찬원(繼元)을 제향하기 위하여 1929년에 건립한 것이다.

송은공의 관직은 ‘통정대부승정원도승지(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에 이르렀고, 그의 아들 만휴당은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이었다 한다.

재실은 막돌쌓기한 0.5미터 높이의 기단 위에 막돌로 된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받았다. 마루는 우물 마루로 되어 있으며, 방 앞에는 마루보다 한 단 높은 툇마루가 놓여 있다.

건물 구조는 3량가로 네모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걸친 위에 체형판대공으로 마루 도리를 받게 했으며,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 전경

21. 최흥원 정려각 (崔興遠 旌閭閣)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 건립년대 : 1789년
- 건축규모 : 정면 1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효자각은 조선 정조 13년(1789)에 최흥원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려각이다. 이 정려각은 웃골마을 입구에서 조금 올라가면 도로의 우측에 동계(東溪)를 끼고 자리잡고 있다. 비각 주위에는 한식 토석담장으로 방형의 공간을 구획하고 정면에는 일각문을 세웠으며 중앙에 비각이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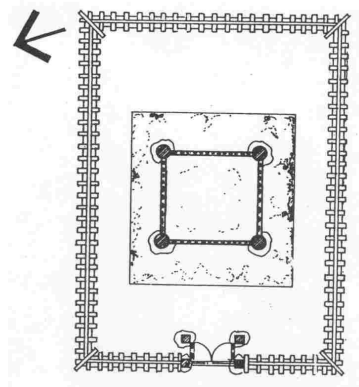
비각은 단칸 규모인데 얇은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원주를 세웠으며 기둥 상부는 이익공으로 장식하였다. 상부구조는 3량가의 가구를 결구한 후 겹처마를 올리고 맞배 기와 지붕을 이었는데 박공 양측면에는 풍판을 설치였으며 내·외부에는 모루단청을 하였다.



▲ 전경



▲ 내부



효자각 배치평면도

22. 정효각 (旌孝閣)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186번지
- 건립년대 : 1827년
- 건축규모 : 일곽(2동)
 - ① 좌측 정효각 - 정면 1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② 우측 정효각 - 정면 1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정효각은 이조 속종 때 효자 용암공(龍巖公) 남명신(南命新)과 공(公)의 증손 연와공(蓮窩公) 남이간(南履幹)의 뛰어난 효행을 후세에 기리기 위해 건립한 효자각이다.

효자 용암공은 학문과 덕행이 훌륭하여 널리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며 더욱이 부모를 섬기는 정이 두터워 생존시나 돌아가신 뒤에도 효도를 다하였는데 당시 재상 이성중(李成中)과 어사 한광조(韓光肇)가 상장과 포상을 하였다.

공의 증손 연와공 역시 지극한 효심으로 부모 섬기기를 다하였으며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도 여막(廬幕) 3년으로 효심유일(孝心惟一)하였음에 이 사실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공이 돌아가신지 7년후 정묘년(丁卯年)에 포상을 받았다.

이 각은 용암공의 육세손(六世孫)인 상오(相五), 상락(相洛), 상채(相采)와 연와공의 증손 상삼(相三)이가 정해년(丁亥年)에 중수하였다고 한다. 용암공의 현판은 월성인(月城人) 손후익(孫厚翼)이 쓰고 연와공의 현판은 월성인(月城人) 최두영(崔斗永)이 근기(謹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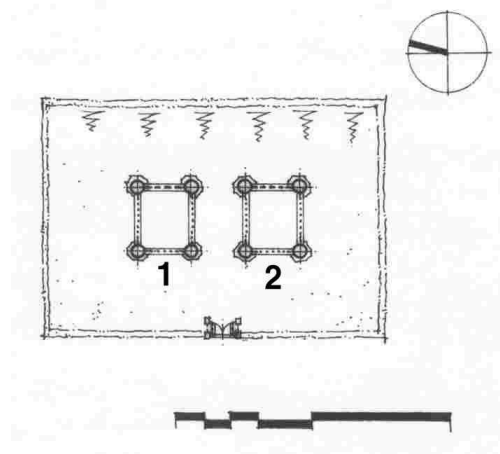
두 정효각은 좌우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며 건물의 형태나 구조가 동일하다. 비각은 단칸 규모인데 얇은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원주를 세웠으며 기둥 상부는 이익공으로 장식하였다. 상부구조는 3량가의 가구를 결구한 후 겹처마를 올리고 맞배 기와지붕을 이었는데 박공 양측면에는 풍판을 설치하였으며 내·외부에는 모루단청을 하였다.



▲ 좌측 건물



▲ 우측 건물



정효각 배치평면도

23. 구로정 (九老亭)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671-1번지
- 건립년대 : 1903년
- 건축규모 : 정면 2칸 · 측면 2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구로정은 일찍이 조선초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이 읍은 달성십경(達城十景) 중에서 제6경으로 꼽았으며 현재 천연기념물 제1호로 보호받고 있는 도동측백수림(側柏樹林)의 절벽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이 정자는 19세기 초엽 도동향림(道洞香林)의 인근에 살았던 아홉 노 선비들이 시회(詩會)를 하기 위하여 1903년 측백수림이 우거진 경치 좋은 이곳 언덕에 건립하였다고 전한다. 9인의 유림은 최운경(崔雲慶), 최완술(崔完述), 채정식(蔡正植), 채준도(蔡準道), 도윤곤(都允坤), 곽종태(郭鐘泰), 곽치일(郭致一), 서우곤(徐宇坤), 서영곤(徐永坤)이다.

건물은 10평 규모의 대지에 하여 자리잡고 있는데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로 홑처마 맞배 기와지붕집이다. 구조는 3량가로 활처럼 휘어오른 대들보 위에 대공없이 바로 종도리를 얹었다.



▲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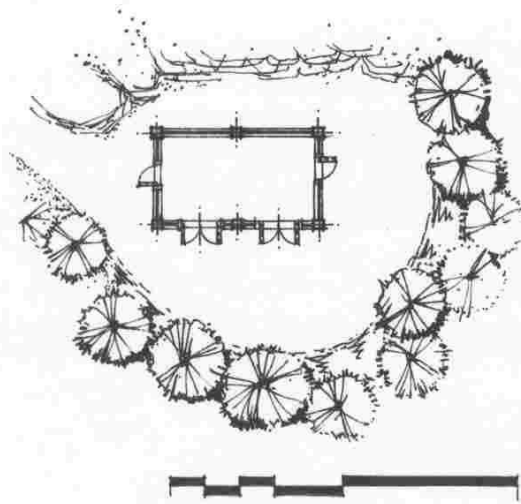
▲ 배면



▲ 실내



▲ 상부가구



구로정 배치평면도

24. 문창공 영당 (文昌公 影堂) · 경운재 (景雲齋)

- 지정종별 : 문창공 영당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0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776번지
- 건립년대 : 1912년(영당), 1993년(경운재)
- 건축규모 :

- 문창공 영당 - 일곽(2동)

- ① 영 당 - 정면 3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② 외삼문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경운재 - 일곽(4동)

- ① 재 실 - 정면 5칸 · 측면 2.5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② 동 재 - 정면 3칸 · 측면 1.5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③ 서 재 - 정면 3칸 · 측면 1.5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④ 외삼문 - 정면 3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 문창공 영당

이 건물은 신라때 문장가인 최치원의 영정을 모시기 위하여 경주 최씨 종손인 최경교(崔敬敎)가 1912년에 세운 사묘건축이다. 최치원은 고려때에 문창후(文昌侯)란 시호가 내려졌고, 향교에도 종향(從享)되었다. 한일합방이 된지 2년 후(1912년 경)에 이 영당을 지은 것은 조상의 위업을 기리는 목적 외에도 민족 정기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영당은 장방형을 이룬 일곽 안에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맞은편에 외삼문이 자리잡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겹처마 박공지붕인데, 중앙칸의 지붕이 좌·우측 지붕보다 한 단 높다. 이는 중앙칸에 궐패를 모신 대청을 두고 그 좌우에 방을 배설한 객사를 연상케 한다. 기단 위에 원주형의 높은 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운 3량가의 2익공계 집이다. 익공의 솟가지는 꽃새김과 봉두 등이 조각된 매우 장식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3칸 모두에 두쌍의 여단이 골판문을 달고 건물 전체에 단청을 입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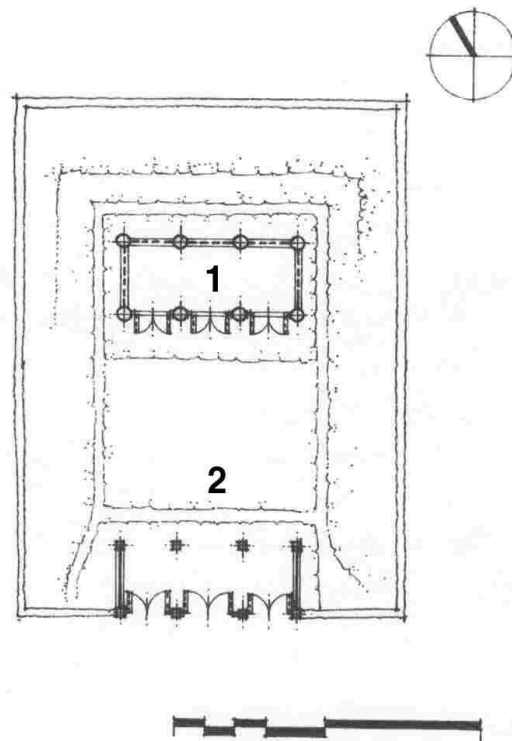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솟을대문으로 하였다. 문의 각 칸에는 두 짝의 대문을 달고 거기에 태극문양을 그려 넣었다.



▲ 전경



▲ 정면



문창공영당 배치평면도

● 경운재

근년에 건립된 경운재는 문창공 영당 좌측 대지 일곽에 자리잡고 있다. 경운재의 건립연도는 1993년이며 재실 대청에 적힌 “단기사삼이육년 계유 칠월이십사일미시입주상량(檀紀四三二六年 癸酉七月二十四日未岾立柱上樑)”이란 상량문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운재는 남향한 방형의 대지에 재실, 동·서재, 대문채 등으로 일곽을 구성하였다. 재실 건물은 정면 5칸·측면 2.5칸 규모로 겹처마, 팔작지붕을 이었다. 동재는 정면 3칸·측면 1.5칸의 겹처마, 맞배지붕 집이며 정면 중앙에 인의(仁依)라 적힌 현판을 걸었다. 서재도 건물의 규모나 형태가 동재와 동일하다. 경운재의 정문인 외삼문은 정면 3칸·측면 1칸 규모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창학문(倡學門)이란 현판을 걸었다.



▲ 경운재 전경



▲ 대문채



▲ 재실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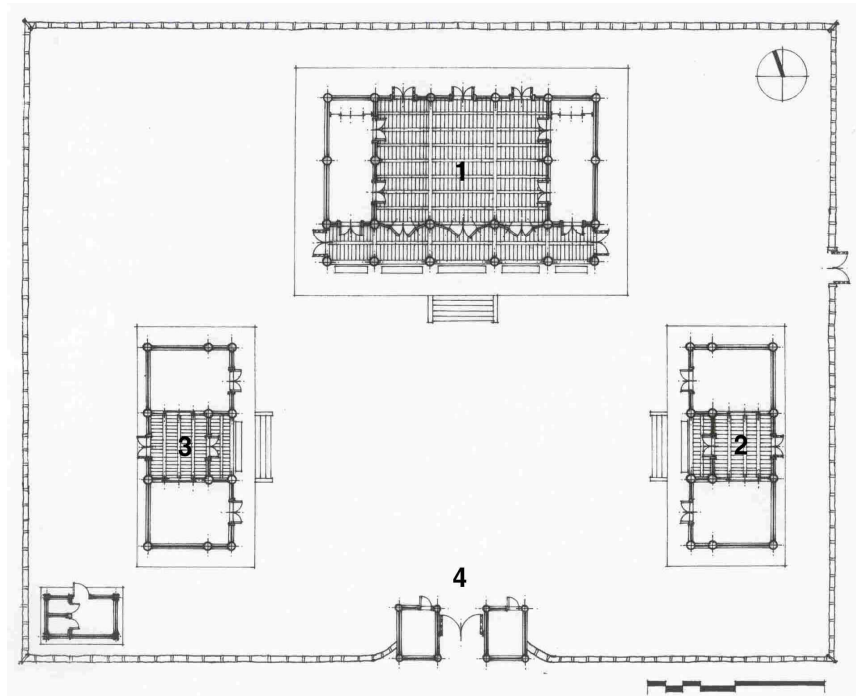
▲ 재실 측면



▲ 동재



▲ 서재



경운재 배치평면도

25. 구회당 (九會堂)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763번지
- 건립년대 : 1932년
- 건축규모 : 정면 4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763번지에 있는 구회당은 경주최씨 재실로 문창공 영당 우측편 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구회당은 대청 종도리에 적힌 “세임신오월초이일정유무신시상량(歲壬申五月初二日丁酉戌申崑上樑)”이란 상량문의 내용으로 보아 1932년에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재실은 토석담으로 둘러싸인 방형의 일곽에 남서향으로 좌정하고 있다.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일자형(一字形) 건물로 홑처마 맞배지붕을 이었다. 평면은 중앙에 2칸통의 마루를 놓고 좌우에 각각 1칸의 온돌방을 배설하였다. 좌우 온돌방의 전면과 대청 배면부에는 툇마루를 놓아 출입에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온돌방에는 벽장을 들였다. 창호는 온돌방의 전면과 청방간(廳房間)에는 쌍여닫이 세살문을, 대청 배면에는 두짝 판문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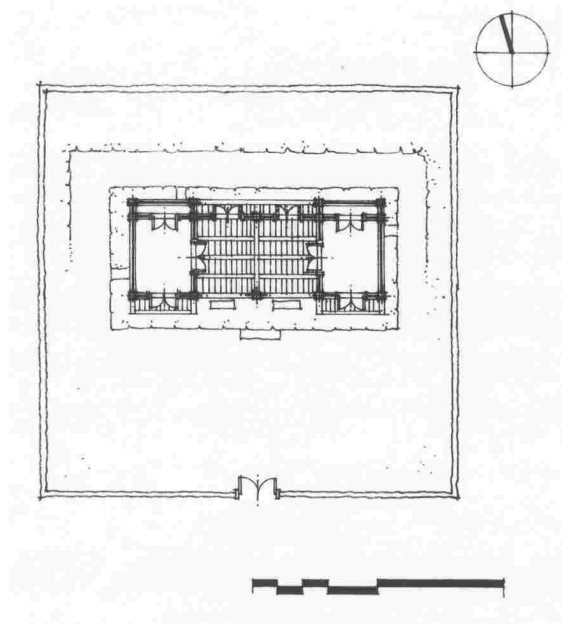
구조는 기단부를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여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모두 방주를 사용하였다. 구조는 간략한 3량가이다.



▲ 정면



▲ 배면



구회당 배치평면도

26. 전귀당 (全歸堂) · 백원서원 (百源書院)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487번지
- 건립년대 : 전귀당 - 1626년 창건, 1947년 중건
백원서원 - 1692년 창건, 1922년 복원, 1928년 이건
- 건축규모 : 일곽(5동)
 - ① 외삼문 - 정면 3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② 강당 - 정면 5칸 · 측면 1.5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③ 사당 - 정면 3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④ 비 각 - 정면 1칸 · 측면 1칸, 겹처마, 팔작지붕

⑤ 비 각 - 정면 1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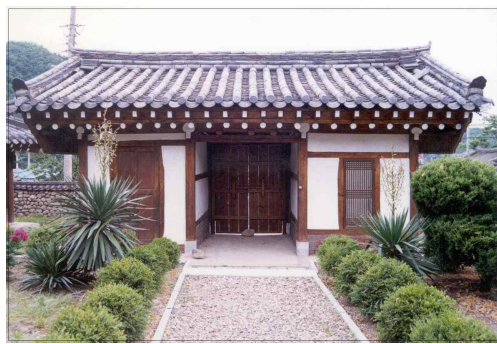
전귀당은 인조 4년(1626) 서시립(徐時立)선생이 이 곳 도동에 건립한 강학지소(講學之所)였으나 1928년 공산 백안동(百安洞)에 있던 백원서원(百源書院)이 옮겨오면서 이 서원의 강당으로 되어 1947년 증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원서원은 지방유림들이 서시립선생을 봉안하기 위해 숙종 18년(1692)에 창건한 것으로 고종 5년(1868)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었으나 1922년 복원, 1928년 현 위치인 전귀당 부지로 이건(移建)하여 현재에 이른다. 서시립은 정한강(鄭寒岡), 장여헌(張旅軒)선생의 문인으로 인조 24년(1646)과 27년(1649) 벼슬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전귀당은 오봉(五峯) 이호민(李好閔),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 등이 서시립의 효행을 칭송하여 지어준 당명(堂名)이라 한다.

백원서원은 도동마을 산자락에 남서향으로 좌정하고 있다. 건물의 배치는 2단으로 조성된 대지에 외삼문(由仁門), 강당(全歸堂), 사당(景德祠)을 일축선상에 둔 전학후묘형(前學後廟形)이고, 강당 앞에는 동·서재(東·西齋)를 두지 않았으며 사당은 강당 뒤편 높직한 곳에 토담으로 둘러막혀 일곽을 형성하고 있다.



▲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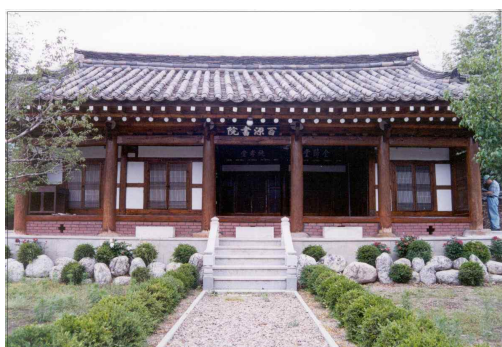


▲ 외삼문

외삼문(由仁門)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일자형(一字形) 건물로 겹처마 맞배지붕을 이었다. 평면 가운데 대문칸을 두고 좌우에 온돌방과 헛간을 1칸씩 두었다. 구조는 기단부를 화강석 다듬돌로 구성하여 다듬돌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다.

강당(全歸堂)은 정면 5칸, 측면 1.5칸 규모의 일자형(一字形) 건물로 겹처마 팔작지붕을 이었다. 평면은 전면이 개방된 2통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 온돌방 2칸, 우측에 온돌방 1칸을 두고, 양측 온돌방의 전면에는 퇴칸을, 배면부에는 쪽마루를 구성하였다. 창호는 온돌방의 전면은 쌍여닫이 세살문이고 청방간(廳房間)에는 사분합들문을 달아 필요시 공간확장을 도모하였다.

구조는 기단부를 화강석 다듬돌로 구성하여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전면 퇴칸과 대청 배면의 기둥은 원주, 나머지는 모두 방주를 사용하였다. 기둥 상부는 선각(線刻)한 뿔목을 끼워 그 위에 장혀와 도리를 결구(結構)하였고 창방 위에는 소로를 얹어 장혀와 도리를 받게 하였으며 전면 기둥 상부에는 퇴량(退樑)을 내진주(內陳柱) 위에서 합보시켜 구성하였다. 상부 가구는 오량가로 대들보 위에 동자주를 세워 중보를 얹고 그 위에 선각한 원형판대공을 세워 중도리를 받게 하였다.



▲ 강당(전귀당) 정면



▲ 강당 배면



▲ 강당 대청 상부가구

사당(景德祠)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일자형(一字形) 맞배집이다. 평면은 전면에 퇴칸을 두지 않고 3통칸으로 구성하였으며 전면의 각 칸에는 쌍여닫이 판장문을 달았다.

구조는 기단을 화강석 다듬돌로 구성하여 화강석 원형 주초를 놓고 그 위에 원주를 세웠다. 기둥 상부는 뿔목을 끼워 그 위에 장혀와 도리를 결구(結構)하고 창방 위에 소로를 얹어 장혀와 도리를 받게 하였다. 상부 가구는 3량가로 대들보 위에 동자주를 세워 중도리를 받게 하였다.

현재 이들 건물의 보존상태는 양호하나 각 건축물의 건립년대가 일천할 뿐만 아니라 서원 형식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며 평면구성, 가구수법 등에서도 별다른 특징을 찾아 볼 수 없다.



▲ 사당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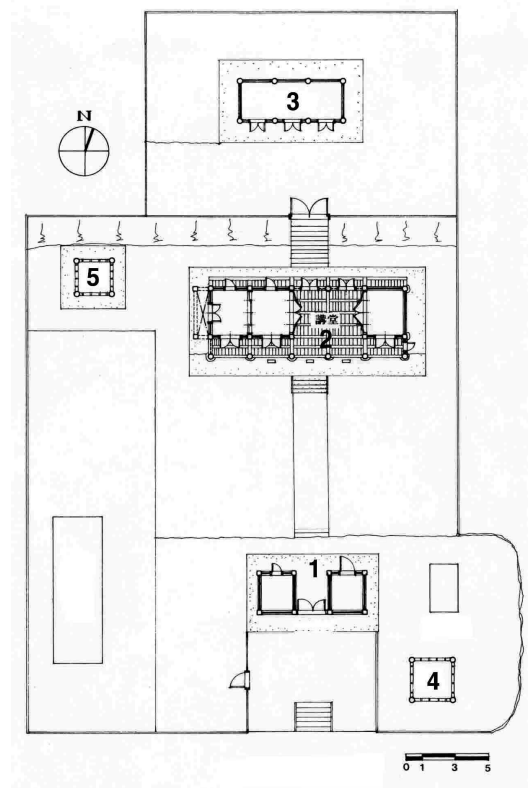
▲ 사당 측면



▲ 비각



▲ 비각



전귀당·백원서원 배치평면도

27. 추보재 (追報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400번지
- 건립년대 : 1932년
- 건축규모 : 일곽(2동)

① 재 실 - 정면 3칸 · 측면 1.5칸, 홑처마, 팔작지붕

② 대문채 - 정면 2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추보재는 대구시 동구 도동 400번지에 있는 재실이다. 일직 손씨(一直 孫氏) 19세손 홍위(洪胃)씨의 묘를 비롯하여 누대에 걸쳐서 묘를 써 오고 있으나 손자들이 묘 밑에 살면서도 제사를 지내지 않다가, 정성이 미흡하다 하여 손병곤(孫丙坤) 등의 후손들이 힘을 합하여 1932년경에 건립한 것이라 한다.

기문은 1934년에 썼으며, ‘추원보본(追遠報本)’의 뜻을 받아 추보재(追報齋)라 하였다.



▲ 전경



▲ 정면

이 재실은 토석담으로 둘러싸인 방형의 일곽에 남동향으로 좌정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1.5칸 규모의 일자형(一字形) 건물로 홑처마 팔작지붕을 이었다.

평면은 좌측으로부터 1칸의 대청과 2칸의 온돌방이 연결되어 있으며, 대청과 온돌방의 전면에는 퇴칸을, 대청 좌측면과 배면부에는 쪽마루를 구성하였다.

창호는 온돌방의 전면은 쌍여닫이 세살문이고 청방간(廳房間)에는 사분합들문을 달아 필요시 공간확장을 도모하였다.

구조는 기단부를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여 다듬돌 주조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모두 방주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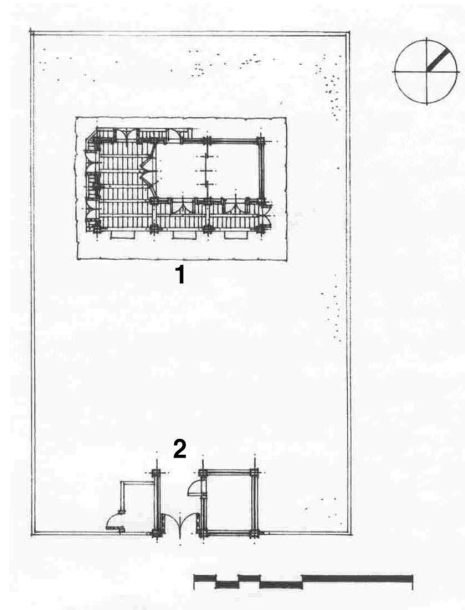
기둥 상부는 뿔목을 끼워 그 위에 장혀와 도리를 결구(結構)하고 창방 위에 소로를 얹어 장혀와 도리를 받게 하였으며 건물의 구조는 5량가이다.



▲ 배면



▲ 대청 상부가구



추보재 배치평면도

28. 강순항 정려각 (姜順恒 旌閭閣)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5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평광동 1183번지
- 건립년대 : 1835년
- 건축규모 : 정면 1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건물은 조선 후기 헌종 1년(1835)에 강순항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효자각이다. 강순항은 자가 태겸(太兼), 호가 가은(稼隱)이며 1745년(영조 21년)에 태어나 1830년(순조 30년)에 죽은 사람으로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여 호랑이까지 감동케 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그가 죽은 해인 순조 30년에 정려를 내리고 ‘숭정대부행동지중추부사(崇禎大夫行同知中樞府使)’를 증직하였으며 그 후 1835년(헌종 1년)에 유림이 주동이 되어 이 정려각을 건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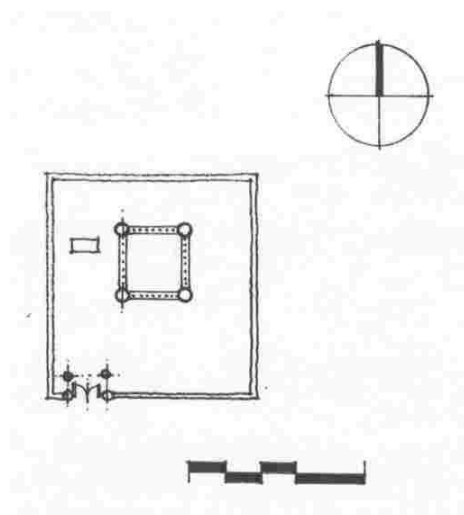
이 정려각은 3량가의 홑처마 맞배지붕을 한 평범한 모습의 건물로 기둥 위는 초익공(初翼工)으로 결구되어 있으며 단청을 올렸다. 평면은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로 약 50cm의 고맥이 위에 4면을 홍살창으로 처리하였다. 정려각의 정면에는 일각문을 세웠으며, 주위는 방형의 토석(土石)담장을 둘러 구획하였다.



▲ 전경



▲ 정면



강순항 정려각 배치평면도

29. 와룡정 (臥龍亭)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평광동 1011번지
- 건립년대 : 1879년 건립, 1966년 이건
- 건축규모 : 정면 4칸 · 측면 1.5칸,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와룡정은 동구 평광동 1011번지에 있는 조선후기의 정자로, 단양 우씨(丹陽 禹氏)의 선조인 용재공(龍齋公)을 봉향하기 위해 고종 16년(1879)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원래의 위치는 현재의 위치 건너편 산 속 후미진 곳이었다. 후대에 와서 정자가 너무 외딴곳에 떨어져 있어 관리하기 불편하다 하여 1966년 현 위치로 이건하였는데, “단기사이구구년병오윤삼월초구일이건수주상량(檀紀四二九九年丙午閏三月初九日移建竪柱上樑)”이라 적힌 대청 상량문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의 건물은 몇 차례의 수리로 인해 원형이 많이 변형된 것이다.

와룡정이라 하게 된 연유는 동네 어귀 냇가에 ‘와룡지처(臥龍之處)’가 있다고 하여 골안 이름과 아울러 와룡정이라 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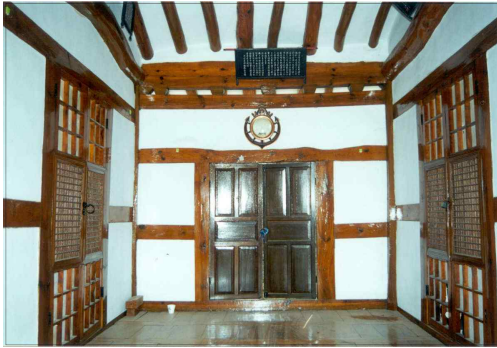
▲ 정면



▲ 배면

와룡정은 토석담으로 둘러싸인 방형의 일곽에 북향으로 좌정하고 있다. 정면 4칸, 측면 1.5칸 규모의 일자형(一字形) 건물로 홑처마 팔작지붕을 이었다. 평면은 1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2칸 온돌방을, 우측에는 1칸 온돌방을 들였다. 대청과 온돌방 전면에는 반칸 규모의 퇴칸을 두었으며 좌측 2칸 온돌방은 실내에 네짝미서기문을 달아 분리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건물 양측면과 대청 배면에는 쪽마루를 놓았으며 양측 온돌방에는 벽장을 시설하였다.

구조는 화강석으로 바른층 쌓기한 0.5미터 높이의 기단 위에 둥근 화강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대부분 원주를 사용하였다. 기둥 상부는 뿔목을 끼워 그 위에 장혀와 도리를 결구(結構)하고 창방 위에 소로를 얹어 장혀와 도리를 받게 하였다. 건물의 상부가구는 활처럼 위로 휘어진 대들보 위에 종보를 놓고 그 위에 원형판대공을 얹어 마루도리를 받게 한 5량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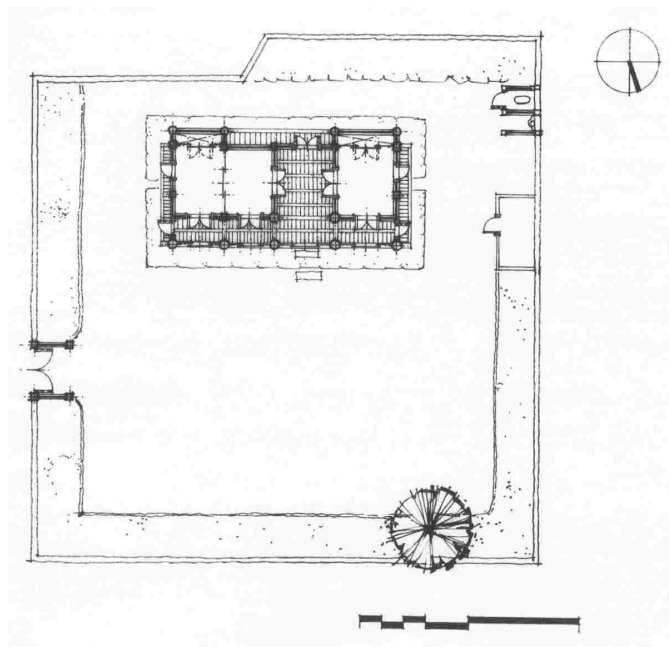
▲ 대청



▲ 대청 상부가구



▲ 실내 전경



와룡정 배치평면도

30. 침백당 (瞻栢堂)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3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평광동 979번지
- 건립년대 : 1896년
- 건축규모 : 일곽(2동)
 - ① 침백당 - 정면 7칸 · 측면 2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② 대문채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침백당은 효자로 이름났던 우효중(禹孝重)의 효행과 조선말 벼슬도 버린채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안타까워하며 향리에 숨어살던 선비 우명식(禹命植)의 절개를 기리기 위하여 고종 33년(1896)에 후손들이 세운 건물이다.

우효중은 부친이 병환으로 생명이 위독하자 손가락을 잘라 흐르는 선혈을 부친의 입속으로 넣어 회생하도록 하였고, 나중에 상을 당하자 묘소곁에 여막을 지어 3년을 지켰다고 한다. 이같은 효행이 알려져 그가 죽은 후에 조정에서는 교관(敎官)으로 증직하였다. 당호를 ‘침백당(瞻栢堂)’이라고 붙인 것은 우명식의 묘소가 있는 백전곡(栢田谷)을 우러러 보는 집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다.

침백당은 백발굴 어귀의 높은 대지 위에 침백당과 대문채가 동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주위 150평 정도의 넓은 마당은 토석(土石)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 전경



▲ 대문채

침백당의 넓은 바깥마당에는 1896년 집을 지을 때 같이 심었다는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하늘을 가리고 있고, 많은 고목들이 잘 가꾸어져 있다. 마당의 오른편 앞쪽에는 근년에 조경한 연못이 아름답게 배치되고, 바깥마당 앞에는 남에서 북으로 곡간수(谷澗水)가 흐르고 침백당의 뒷동산에는 울창한 대나무 숲이 사철 푸르게 자라고 있어 운치를 더해주고 있다.

침백당은 정면 7칸 · 측면 2칸 규모이나 정면의 중앙부 5칸은 앞뒤로 물매진 박공지붕으로 구성하였고, 그 좌우 양 협칸은 각각 측면의 박공면에 내림지붕을 달아 지붕을 형성하였다.

평면 구성은 중앙부 박공지붕 아래에는 2×1.5칸의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 온돌방 1칸,

좌측에 온돌방 2칸을 두었다. 양 협칸에는 측면쪽으로 뒗마루를 한 단 높이고 계자각(鷄子脚) 난간을 돌려 누마루처럼 구상하였다. 구조는 화강암 장대석을 2단으로 쌓은 기단 위에 화강석 초석을 놓고 전면 중앙부만 두리기둥을 세운 민도리집으로, 대청 상부는 간략한 5량가이다.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전반적으로 건물구조가 견실할 뿐만 아니라 평면구성과 구조에 짜임새가 있는 19세기말의 건축이다.



▲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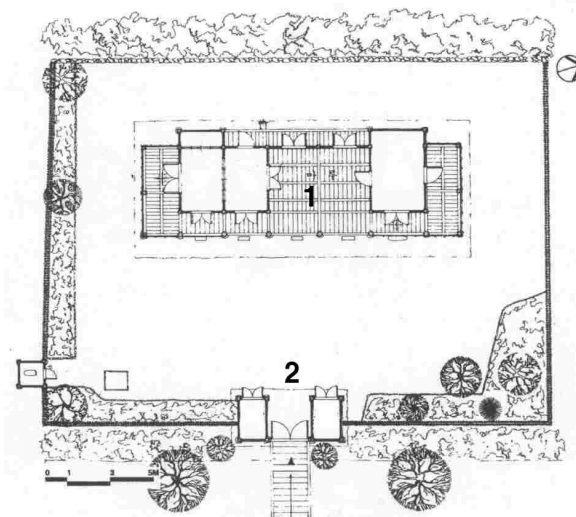
▲ 측면



▲ 대청



▲ 대청 상부가구



침백당 배치평면도

31. 모영재 (慕影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평광동 108번지
- 건립년대 : 1848년
- 건축규모 : 일곽(2동)

① 재 실 - 정면 4칸 · 측면 1.5칸, 홑처마, 맞배지붕

② 비 각 - 정면 1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유허비(遺墟碑)는 고려 태조 10년(927) 후백제 견훤과의 공산(公山) 전투에서 전사한 고려의 명장 신숭겸(申崇謙)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유허비로서 동구 평광동 108번지에 있다. 원래 비(碑)는 없어지고 순조 32년(1832) 후손 신정위(申正緯)가 세운 ‘영각 유허비(影閣 遺墟碑)’가 남아 있다.

그 후 현종 14년(1848) 유림에서 이 비를 보존하기 위해 비각을 세웠다. 매년 음력 9월 9일 중양절(重陽節)에 신씨 문중에서 합동으로 향사(享祀)를 지내고 있으며 비각 밑에 모영재가 있다. 모영재는 방형의 토석(土石)담으로 둘러싸인 일곽에 남서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면 4칸, 측면 1.5칸 규모의 일자형(一字形) 건물로 홑처마 맞배지붕을 이었다.



▲ 전경



▲ 중정

평면은 1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2칸 온돌방을, 우측에는 1칸 온돌방을 들였다. 대청과 온돌방 전면에는 반칸 규모의 퇴칸을 두었으며 좌측 2칸 온돌방은 실내에 두짝미서기문을 달아 분리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별도의 툇마루는 설치하지 않았으며 벽장은 좌측 2칸 온돌방에만 시설하였다.

구조는 화강석의 외별대 기단 위에 둥근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모두 각주를 사용하였다. 건물의 상부가구는 간단한 3량가로 대들보 위에 동자주 대공을 얹어 마루도리를 받게 하였다



▲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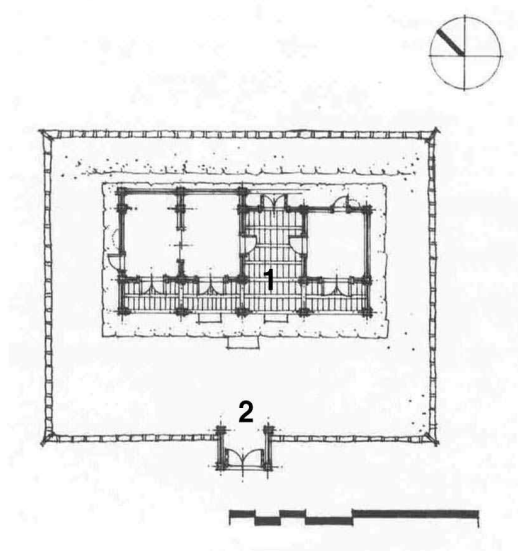
▲ 배면



▲ 대청



▲ 유허비각



모영재 배치평면도

32. 와룡암 (臥龍菴)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평광동 1525번지
- 건립년대 : 1725년 초창, 1751년 중건
- 건축규모 : 일곽(2동)
 - ① 정자 - 정면 3칸 · 측면 3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② 관리사 - 정면 3칸 · 측면 1칸

• 건축연혁 및 현황 :

와룡암은 해안현(解顔縣, 현재의 동촌) 입석리에 누대로 세거해온 영양인 남명신(南命新, 1698~1772)이 조선 후기 영조 원년(1725)에 초창하고, 영조 27년(1751)에 중건한 건물이다. 남명신은 인재 양성에 힘써 김칭정 · 권정침 · 조선유 · 장위방 등 많은 문인들을 배출하였다.

그는 또한 뛰어난 효자로 생존시나 돌아가신 뒤에도 극진한 효성을 다하여 향토 사람들 및 재상 이성중(李成中)과 어사 한광조(韓光肇)로부터 ‘出天之孝’라 하여 포상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그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동구 둔산동 186번지에 정효각(旌孝閣)을 세워 보존해 오고 있다.

한편, 그의 장자 남석노는 백불암(百弗巖) 최흥원(崔興遠)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그는 영조 29년(1753) 대과에 급제하여 예조좌랑 겸 춘추관 서기관 및 만경현령 등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와룡암은 서실(書室) 및 재실(齋室)로 사용되었는데, 주로 서실은 강습의 공간이었으며 재실은 사방에서 온 문사(文士)들이 기거하는 공간이었다. 이 건물은 중건된 후 남명신의 증손 형일(衡驥) 등에 의해 중수되었으며, 지금은 와룡암과 부속 건물 1동만이 보존되고 있다.

원래 와룡암 주변에는 민가 2동과 사찰 1동이 있었으나 개발 제한구역 정화 사업으로 모두 철거되었다.



▲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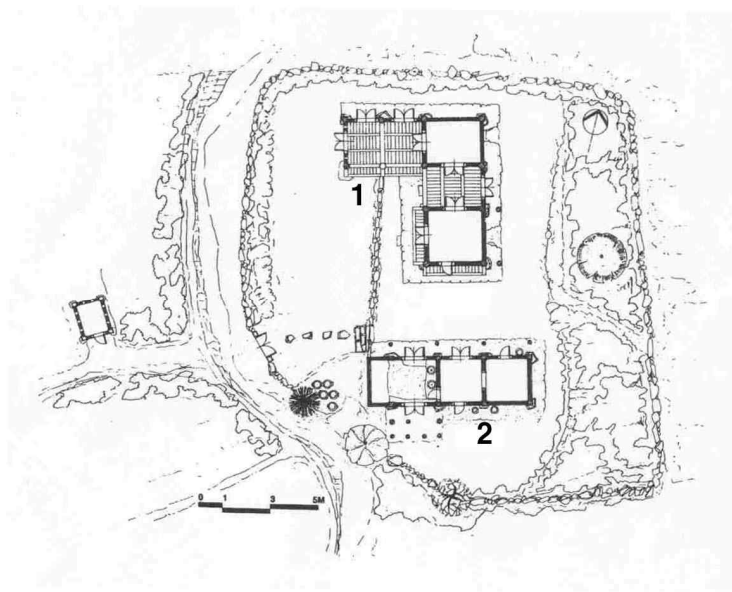
▲ 기둥 상부가구

와룡암은 산 경사지를 정지하여 ㄱ자형의 정자와 일자형(一字形)의 관리사를 서향으로 앉

힌 튼 口자형집이다. 정자는 정면 3칸·측면 3칸의 ㄱ자형으로, 온돌방 마루 온돌방으로 구성된 몸채 부분의 맨 좌측에서 누마루 2칸이 앞쪽으로 돌출되어 ㄱ자형을 이루고 있다.

누마루 하부는 창고 등의 수장 공간으로 쓰도록 하였다. 구조는 먼저 막돌 허튼층 쌓기한 축대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한 기단을 만들었다.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원주를 세워 3량가의 가구(架構)를 꾸몄다.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관리사는 정면 3칸·측면 1칸의 슬레이트 건물로 매우 조잡하나 원래는 목조 와가(瓦家)였던 것을 근년에 지금과 같이 고쳤다 한다. 전반적으로 별다른 건축적 특징이 없으며, 보존 및 관리 상태도 좋은 편이 아니다.



와룡암 배치평면도

33. 독암서당 (獨巖書堂)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2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223-3번지
- 건립년대 : 1865년 창건, 1991년 중건
- 건축규모 : 정면 3.5칸·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12호로 지정되어 있는 독암서당은 봉무당 일대에 세거해온 경주최씨 문중에서 고종 2년(1865) 건립한 것이다. 문중 자손들은 물론 인근 마을의 선비들이 강학하던 곳으로 충청도 관찰사를 지낸 최연덕도 어릴 때 여기에서 글을 배웠으며, 봉무정(鳳舞亭)을 세운 최상룡도 이곳에서 글을 읽었다고 한다.

서당 이름을 독암(獨巖)이라 붙인 것은 서당 서쪽에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과의 팔공싸움에서 패해 혼자 피신해 앉아 있었다는 유명한 독좌암(獨坐岩)이 있어 거기서 따온 것이라 한다.

원래 독암서당은 현재의 위치에서 10여 미터 앞쪽에 있었으나 1973년 길이 새로 남에 따라 뒷편으로 옮겼다. 또한 대청 상부의 “승정기원후을축팔월초이일유시수주상량(崇禎紀元後乙丑八月初二日酉時豎柱上樑), 단기사삼이사년신미육월십육일중건(檀紀四三二四年辛未六月十六日重建)”이란 내용으로 보아 1991년에 중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당은 동화사와 파계사로 들어가는 갈림길 못미처 오른쪽으로 나있는 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도로에 면하여 산기슭에 북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둘담으로 일곽을 이룬 좁은 대지 중앙에 1동의 강당이 크게 자리잡고 그 앞쪽 좌측에 측간이 놓여있다. 북쪽 담장 중앙에 철제 대문을 내었으며, 서당 뒤쪽에는 수령 200여년이 넘는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서 있다.



▲ 전경



▲ 정면



▲ 배면



▲ 실내 전경

건물은 정면 3칸반, 측면 1칸 규모의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중앙 1칸반은 앞쪽이 개방된 대청이고 양협칸에 온돌방이 배치되어 있다. 1칸반 대청의 오른쪽 칸을 왼쪽 칸과 달리 반칸 크기로 했기 때문에 기둥 간격이 동일하지 않아 어색하다. 때문에 전면 좌측칸의 중앙에 기둥을 하나 더 세워 마치 3칸처럼 보이도록 외관을 조정했다.

좌측 온돌방의 뒤벽 위에는 벽감을 설치하고, 우측 온돌방의 측벽 위에는 벽장을 두었다. 우물마루이던 대청을 장마루로 개조하고 건물의 앞·뒤쪽에는 좁은 쪽마루를 꾸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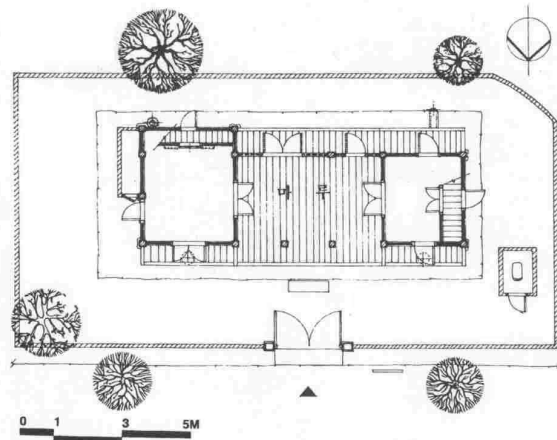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한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운 민도리집으로, 대청 위 가구는 동자주 대공을 세운 간략한 3량가로 되어 있다.



▲ 대청



▲ 대청 상부가구



독암서당 배치평면도

34. 경지당 (敬止堂)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95번지
- 건립년대 : 1939년
- 건축규모 : 정면 5칸 · 측면 1.5칸, 홀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경지당은 동구 봉무동 195번지에 있으며, 1939년 경주최씨 문중에서 건립하여 종당(宗堂)

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다.

경지당은 방형을 이루고 있는 일곽의 담장 정면 중앙부에 나있는 일각문을 들어서면 마당을 앞에 두고 남서향하고 있다. 정면 5칸·측면 1.5칸 규모의 일자형(一字形) 건물로 홀처마 팔작지붕을 이었다.

평면은 2통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2칸 온돌방을, 우측에는 1칸 온돌방을 들였다. 대청과 온돌방 전면에는 반칸 규모의 퇴칸을 두었으며 좌측 2칸 온돌방은 실내에 네짝미서기문을 달아 분리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건물 양측면과 대청 배면에는 쪽마루를 놓았으며 양측 온돌방에는 벽장을 시설하였다. 창호는 온돌방 전면과 청방간(廳房間)에는 쌍여닫이 세살문을, 대청 배면에는 쌍여닫이 골판문을 달았다.

구조는 장대석 두벌대 기단 위에 다듬돌 원형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전면 퇴칸 기둥은 두리기둥이고 나머지는 모두 네모기둥이다. 기둥 상부는 빨목을 끼워 그 위에 장혀와 도리를 결구(結構)하고 창방 위에 소로를 얹어 장혀와 도리를 받게 하였다. 건물의 상부가구는 활처럼 위로 휘어진 대들보 위에 중보를 놓고 그 위에 제형판대공을 얹어 마루도리를 받게 한 5량가이다.

담장은 기와를 이은 토석담이며 건물의 전면 우측에는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있다. 경지당은 구조가 건실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현재도 봉제(奉祭)와 문중의 대사를 논의하기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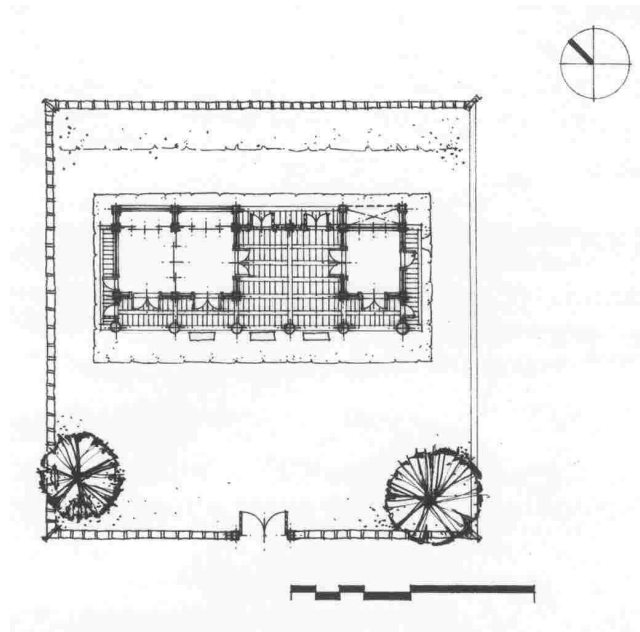
▲ 정면



▲ 배면



▲ 대청 상부가구



경지당 배치평면도

35. 원모재 (遠慕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14-2번지
- 건립년대 :
- 건축규모 : 정면 4칸 · 측면 1칸, 흙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원모재는 대구시 동구 봉무동 114-2번지에 있는 재실이다. 독좌(獨坐)부락에 언제 세워졌는지 알 수 없는 ‘남모유애비(南某遺愛碑)’이라는 비각이 있었는데, 약 60년전 동화사로 가는 길이 나면서 험하게 되자, 헌 재목을 아깝게 생각한 경주최씨 문중에서 현존하는 위치로 옮기면서 방을 넣는 등 구조를 바꾸고 “멀리 생각한다”고하여 원모정(遠慕亭)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한다. 현판은 안동 부사를 지낸 김가진(金嘉鎭)의 글씨이다.

원모재는 시멘트 블록담장으로 둘러싸인 방형의 일곽에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다. 정면 4칸 · 측면 1칸 규모이나 기둥의 간사이가 매우 좁아 건물 전체의 크기는 매우 단출하게 느껴진다.

평면은 일자형(一字形)인데 2통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 · 우측에 온돌방 1칸씩을 구성하였다. 대청과 좌측온돌방 전면에는 좁은 쪽마루를 시설하였다. 창호는 실의 규모가 작아 온돌방 전면과 청방간(廳房間)에는 외여닫이 세살문을, 대청 배면에는 쌍여닫이 골판문을 달았으며 대청 좌측 배면벽 상부에는 벽감(壁龕)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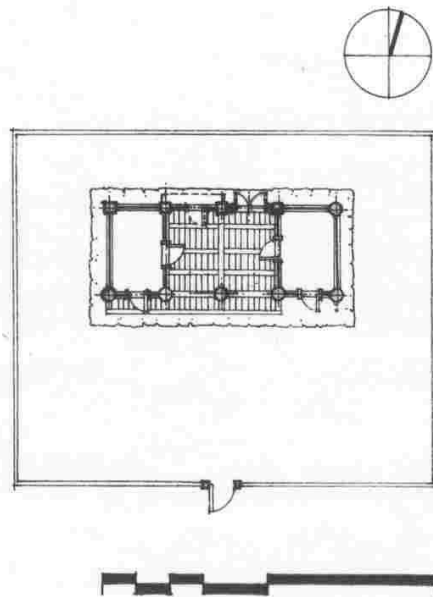
건물의 가구는 대들보 위에 대공을 얹어 마루도리를 받게 한 3량가로 지붕에는 흘처마 맞배지붕을 이었다.



▲ 정면



▲ 대청 상부가구



원모재 배치평면도

36. 봉무정 (鳳舞亭)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8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939번지
- 건립년대 : 1875년
- 건축규모 : 정면 7칸 · 측면 2칸, 흘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봉무정은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어 있는 정자 건물이다. 이 정자는 조상의 위업을 기리고 향사할 목적으로 세운 일반적인 정자와 달리 마을 행정을 원활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뜻있는 지역 인사들이 1875년에 건립한 대구지방 유일의 옛 공공건물이기도 하다.

현재의 봉무정 자리에는 본래 달성군 공산면 강동·독좌·위남·단산동 등 4개 동에서 쓰던 초가 동사무소가 있었다 한다. 그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이들 4개 동이 봉무동에 합병되자 당시 이 지역 토호이던 봉촌(鳳村) 최상용(崔象龍)이 초가를 헐고 그 자리에 어느 집 사랑채를 뜯어다가 동사무소로 새로 지은 것이다. 이때가 ‘숭정오주을해년(崇禎五週乙亥年)’인 1875년이였다. 최상용은 정립재(鄭立齋) 문하에서 수학하여 순조 22년(1822) 진사가 되었고, 향약을 만들어 권선징악의 미풍양속을 권장한 인물로 주민들의 존경을 받았다.

봉무정은 정면 7칸·측면 2칸의 홀처마 맞배지붕 집으로, 정면의 중앙 3칸은 전면이 개방된 대청을 우물마루로 깔았고 양 협칸에는 앞쪽에 반칸 뒷마루를 설치하고 그 뒷쪽으로 온돌방을 대청으로 배설하였다.



▲ 정면



▲ 배면



▲ 대청



▲ 대청 상부가구

자연석으로 땃돌을 두른 낮은 기단 위에 화강석 정평초석을 놓았는데, 정면 중앙의 여섯 기둥만 두리기둥이고 나머지는 각주이다. 구조는 대청상부 가구를 5량가로한 평범한 장혀수

장 집으로 동자주 중대공이 종보를 받고, 종보 위의 제형판대공이 종도리를 받고 있다. 지붕은 박공지붕으로 되었고, 양측 온돌방의 측면에는 박공면 하부에서 내림지붕을 달아 내었다.

대청의 상부 천장은 흙을 바르고 회반죽으로 마감한 제고물반자로 되어 있다. 대청은 짧은 판자를 세로로 길게 가로놓아 깐 우물마루로 마루바닥은 기단 보다 85cm 정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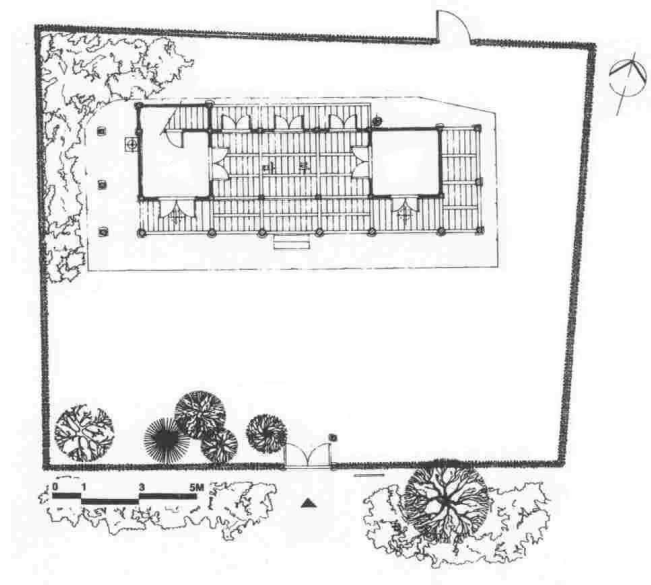
다른 정자가 선조의 유덕을 기리기 위하여 지은 것과는 달리 봉무정은 마을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지은 것으로 대구에서 유일한 옛 공공건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좌측 퇴칸



▲ 우측 퇴칸



봉무정 배치평면도

37. 성재서당 (盛才書堂)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9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미대동 169번지
- 건립년대 : 1770년경 중건
- 건축규모 : 일곽(4동)
 - ① 서당 - 정면 4칸 · 측면 2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② 대문채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③ 부속사 - 정면 3.5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③ 비각 - 정면 1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성재서당은 인천채씨(仁川蔡氏) 성재종중(盛才宗中)의 서당으로 현재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이 서당은 조선시대 인조 때 선비 채명보(蔡明甫, 1574~1644)가 건립한 것이다. 그는 본관이 인천으로 휘(諱)는 선견(先見)이며 호는 양전헌(兩傳軒)이다.

어려서 정한강(鄭寒岡)과 조지산(曹芝山)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광해군 9년(1617)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채명보는 인조 4년(1626) 희릉참봉(禧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곧 사퇴하고 귀향하여 이곳에 성재정(盛才亭)을 짓고 향내(鄉內) 명사인 모당(慕堂) 손처눌(孫處訥), 지암(止巖) 도진수(都愼修), 쌍봉(雙峰) 정극준(鄭克俊), 대암(臺巖) 최동집(崔東集) 등과 학문을 강론하면서 만년을 보냈다. 성재정은 1627년경에 건축된 것으로 보이며 후일 성재서당의 모체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정자가 퇴락함에 증손 상정(尙鼎, 1703~1782)이 1770년경에 중건하여 강학소(講學所)로 사용하였으며, 이것이 후일 성재서당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손인 진국(鎭國, 1750~1827), 영국(榮國, 1789~1827)대에 이르러 지붕을 다시 짓고 당호를 성재서당이라 바꾸었다.

성재서당은 파군재에서 동화사로 가는 길의 좌측에 있는 미대동에서 북쪽의 팔공산 지맥에 솟아 있는 삼마산(三麻山)을 향하여 1.5km가량 올라간 사방이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곳에 있다. 여기에 서당과 부속건물을 남서향으로 배치하였으며 서당의 동측에는 맑은 곡간수(谷澗水)가 굽이굽이 맴돌아 흐르고 있다.

서당으로 들어가는 길은 비교적 경사가 급해서 20여개의 계단길을 내었는데, 계단이 시작되는 좌측에는 네모진 일곽의 토담 안에 양전헌(兩傳軒)의 유허비각을 건립했다.

3칸 대문채의 어칸에 나있는 평대문을 들어서면 마당을 건너서 서당이 높은 축대 위에 서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마당의 서쪽에 주사(廚舍)가 있다. 서당의 좌우와 뒷쪽에는 돌담을 쌓아 경계를 지었다.



▲ 전경



▲ 대문채



▲ 정면



▲ 측면

서당의 강당은 높은 화강석 바른층 쌓기한 2중 기단 위에 정면 4칸·측면 2칸 규모의 홀 처마 박공지붕 건물이다. 서당은 자연석 초석 위에 앞쪽에만 두리기둥을 세운 민도리집으로 대청 상부는 5량가로 제형판대공으로 종도리를 받게 했다. 건물 네 모서리에 세워진 활주가 추녀를 지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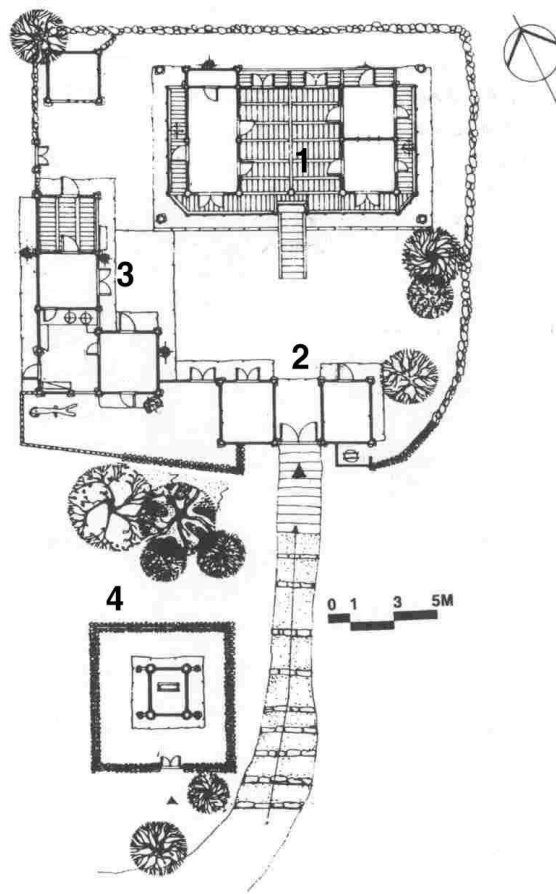
서당건물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 대청 상부가구



▲ 주사



성재서당 배치평면도

38. 채효기주택 (蔡孝基住宅)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미대동 236번지
- 건립년대 : 1904년
- 건축규모 : 정면 5칸 · 측면 4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집은 1904년에 대구 부호 정재학(鄭在學)이 지은 것을 1940년에 채효기씨의 조부가 매입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ㅁ자형 와가가 남향으로 앉아 있다.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로 가운데 넓은 대청을 두고 왼쪽에 큰방과 작은방을, 오른쪽에 사랑방과 두지·뒤주 등을 배설하였다.

좌우 익사 중 좌측에는 큰방과 부엌을, 우측에는 각 1칸씩 사랑마루와 누마루를 꾸몄으며, 부엌 위에는 큼직하게 다락을 만들어 수장공간으로 쓰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단일 건물내 대청을 중심으로 왼편을 여성들의 안채 공간으로, 오른편을 남성들의 사랑채 공간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평면구성은 조선시대 내외법(内外法)에 따라 남녀 생활공간을 구분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좋은 예라 하겠다.

또한 사랑방과 침방 뒷쪽에 두지와 뒤주를 둔 것이라든가 큰방과 사랑방 사이에 네짝 미서기를 시설하여 공간의 전용성과 기능성을 도모한 것 등이 돋보인다. 사랑 침방과 큰방이 대청과 접하는 경계벽에는 4분합들문을 달면서도 불발기 모양을 다르게 했다. 사랑침방 쪽에는 정사각형 불발기를, 큰방 쪽에는 8각형의 불발기를 내었다.



▲ 정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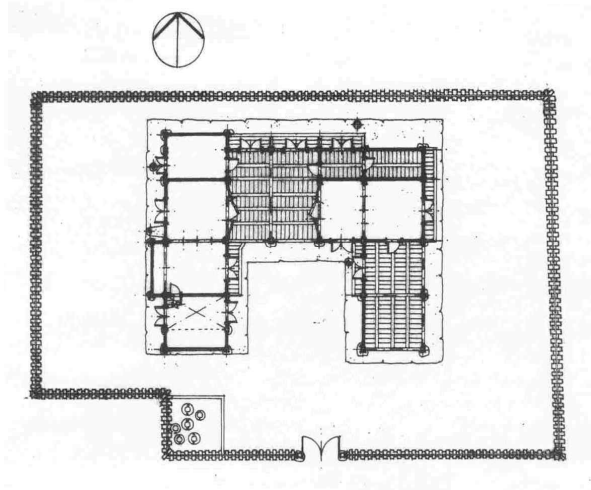
▲ 안대청



▲ 우익사 누마루

몸채는 5량가로 대들보 위에 낮은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올려놓고 제형판대공(梯形板臺工)으로 마루도리를 받게 하였다. 좌우 익사는 3량가로 대들보 위에 키 큰 동자주가 마루도리를 받고 있다.

이 집은 대구지역에서 보기 드문 ㄱ자형으로 독틀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조방식이 견실하고 짜임새가 있어 20세기초의 과도기적 주택 모습을 읽게 하는 좋은 자료라 생각된다.



채호기주택 배치평면도

39. 채경기주택 (蔡慶基住宅)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미대동 236번지
- 건립년대 : 1902년
- 건축규모 : 일곽(2동)
 - ① 정 침 - 정면 6.5칸 · 측면 1.5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② 행랑채 - 정면 5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주택은 1902년에 대구 부호 정재학(鄭在學)이 건립한 것을 1940년경 현 소유자 채경기씨가 매입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면 가운데 대문을 낸 ㄱ자형 행랑채와 뒤편 一자형의 정침이 튼 ㄷ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정침은 대지 중앙에 남동향한 정면 6칸반, 측면 1칸반 규모인데, 오른쪽으로 치우쳐 2칸 대청을 두고 그 좌우에 각각 부엌 1칸반 · 안방 2칸과 건넌방 1칸반을 배설하였다.

정침 전후에는 각각 퇴칸을 두었는데, 좌우측 방 뒤편은 벽장으로 각각 사용하고 나머지는 툇마루로 꾸몄다. 2칸 대청 앞쪽에는 4분합들문을 설치하고 2칸 안방 전면에는 이중문을 달았다. 한편 안방 뒤벽 우측칸에 배면 툇마루로 통하는 문을 내었는데, 이는 동선상의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주목된다.

이 정침의 평면구성은 20세기초 한옥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전후퇴의 발달과 내부공간의 확장등 특징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납도리를 사용한 5량가의 홑처마 팔작지붕집이다.

행랑채는 정면 5칸, 측면 1칸의 一자형 고방간에서 3칸이 꺾어져있는 ㄱ자형 집이다. 정면

좌측부터 방·부엌·대문·고방 등이 연결하였으며, 고방에서 깎여져 나온 부분은 근년에 시멘트 블럭으로 방과 부엌 2칸 정도를 증축하였다. 대문간의 뒷벽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상방 아래의 기둥과 하방·중방 등을 방화장으로 처리하였다. 간략한 3량가의 홀처마 팔작 지붕 집이다. 이 집 역시 채효기씨 주택처럼 20세기초 주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안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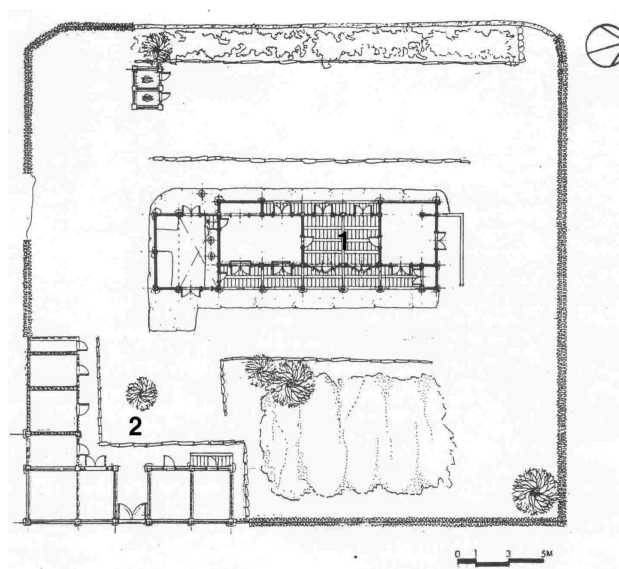
▲ 아래채 전경



▲ 안채 부엌간



▲ 안채 정면



채경기주택 배치평면도

40. 영안재 (永安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백안동 183번지
- 건립년대 : 1938년
- 건축규모 : 일곽(2동)

① 재 실 - 정면 4칸 · 측면 1.5칸, 홑처마, 팔작지붕

② 대문채 - 정면 2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영안재는 대구시 동구 백안동 183번지에 있는 이 건물은 전하는 바에 의하면 1937년 김재열(金在烈), 김봉국(金鳳國), 김선우(金善佑) 등 3인이 건립한 문중 재실이라 한다.

영안재의 정확한 건립년대는 대청 종도리에 적힌 “무인삼월초칠일기사신시상량(戊寅三月初七日己巳申時上樑)”이란 상량문의 내용으로 볼 때 1937년보다 한해 뒤인 1938년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재실은 152평의 대지에 남서향한 영안재와 1동의 부속사가 배치되어 있다. 영안재는 정면 4칸 · 측면 1.5칸 규모의 일자형(一字形) 건물로 홑처마 팔작지붕 집이다.

평면은 가운데 2통칸 대청을 놓고 좌 · 우측에 온돌방을 각각 1칸씩 구성하였다. 대청과 온돌방 전면에는 반칸 규모의 퇴칸을 두었으며 건물 좌측면에는 쪽마루를 놓았다. 창호는 온돌방 전면과 청방간(廳房間)에는 쌍여닫이 세살문을, 대청 배면에는 쌍여닫이 골판문을 달았다.



▲ 정면



▲ 측면

구조는 장대석 외벌대 기단 위에 다듬돌 원형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전면 퇴칸 기둥은 두리기둥이고 나머지는 모두 네모기둥이다. 기둥 상부는 빨목을 끼워 그 위에 장혀와 도리를 결구(結構)하고 창방 위에 소로를 얹어 장혀와 도리를 받게 하였다.

건물의 상부가구는 대들보 위에 종보를 놓고 그 위에 원형판대공(圓形板臺工)을 얹어 마루도리를 받게 한 5량가이다.

담장은 기와를 이은 토석담이며 건물의 좌측면에는 3칸 규모의 부속사가 있다. 대문채는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로 홀처마 맞배지붕을 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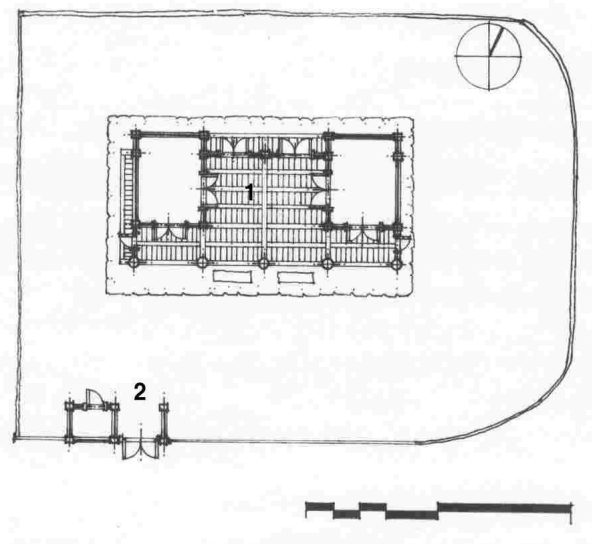
영안채는 전체적으로 볼 때 건물의 건립년대가 일천하여 전통건축으로서의 고격을 느낄 수 없고 재실건축으로서의 별다른 특징도 찾아볼 수 없다.



▲ 배면



▲ 대청 상부가구



영안채 배치평면도

41. 관암사 (冠岩寺)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산1번지
- 건립년대 : 1967년(대웅전, 주지실, 요사), 1968년(식당채), 1969년(종각), 1971년(종무소)
- 건축규모 : 일곽(7동)

- ① 대웅전 - 정면 3칸 · 측면 3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② 주지실 - 정면 5칸 · 측면 1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③ 요사채 - 정면 4칸 ·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④ 식당채 - 정면 7칸 ·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⑤ 종무소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⑥ 종 각 - 정면 2칸 · 측면 1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⑦ 산신각 - 정면 2칸 · 측면 1칸, 겹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절은 대구시 동구 진인동 산 1번지에 위치한 대한불교 태고종 사찰로 신라때 절터에 1967년 창건하였다. 관봉(冠峰) ‘석조여래좌상(石造如來坐像)’ 아래에 위치한다 하여 관암사(冠岩寺)라 부른다.

갯바위 주차장에서 갯바위로 가는 길의 중간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계곡의 우측에 석축을 쌓고, 사역(寺域)을 조성하였다. 입구를 들어서면 넓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우측으로는 종각과 종무소가, 좌측으로 식당건물이 있다. 중앙으로 난 계단을 오르면 다시 넓은 마당이 나오고 좌우에 각각 주지실, 요사(寮舍)가 배치되어 있다. 여기서 다시 반원형으로 만든 계단을 오르면 중앙에 대웅전이 자리잡고 있다.

대웅전은 장대석 기반위에 원형 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운 익공계 건물로 가구는 5량가로 되어있다. 대들보 위에는 마구리에 용수(龍首)로 장식한 충량(衝樑)을 얹었으며, 쇄서의 모양은 뿔목과 유사한 형태로 끝부분만 연봉 등으로 조각하였다. 불단은 내진주(內陣柱)에 의지하여 설치하였으며, 불단의 상부에는 보개(寶蓋)없이 서조(瑞鳥)만 매달았다.



▲ 관암사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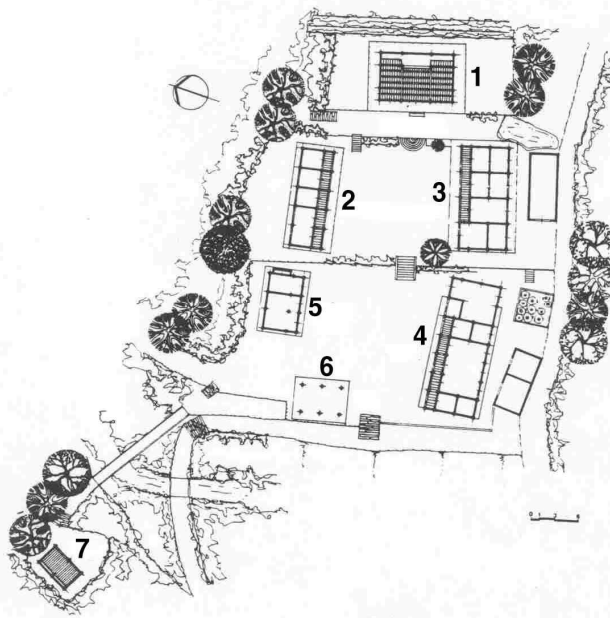
▲ 전경



▲ 대웅전 전경



▲ 측면



관암사 배치평면도

42. 보은사 (報恩寺)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산1번지
- 건립년대 : 1970년
- 건축규모 : 일곽(4동)
 - ① 대웅전 - 정면 3칸 ·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② 산신각 - 정면 1칸 · 측면 1칸, 홑처마, 모임지붕
 - ③ 요사채 - 정면 4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④ 요사채 - 정면 5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보은사는 대구시 동구 진인동 산 1번지에 있으며, 1970년에 창건된 사찰로 갯바위 입구 주차장 우측에 자리잡고 있다.

입구를 들어서면 양측에 슬레이트 지붕의 벽돌조 요사(寮舍)가 있고, 정면에는 석축을 쌓아 정면 3칸의 대웅전을 건축했다. 대웅전의 좌측에는 관봉(冠峰) 석조여래좌상(石造如來坐像)을 모방한 소규모의 불상이 있고 그 오른쪽 뒤에는 블록조의 산신각이 있다.

대웅전 뒤편에 자리잡고 있는 산신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 크기로 홀처마, 모임지붕을 이었다. 대웅전 전면에서 험시하듯 자리잡고 있는 2동의 요사채는 각각 정면 4칸·측면 1칸, 정면 5칸·측면 1칸 규모로 홀처마에 맞배지붕을 얹은 단순한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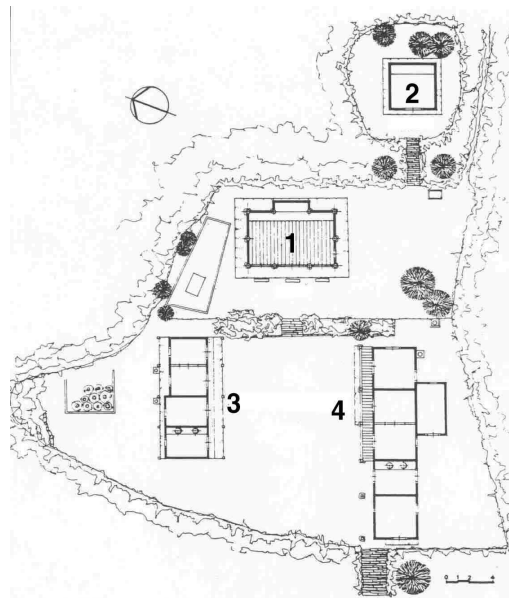
▲ 전경



▲ 대웅전 정면



▲ 배면



보은사 배치평면도

43. 북지장사 (北地藏寺)

- 지정종별 : 보물 제805호(대웅전),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6호(삼층석탑)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620번지
- 건립년대 : 1623년(대웅전), 1960년(주지실, 요사채), 1982년(옹호문, 산신각, 영산전)
- 건축규모 : 일곽(8동)

- ① 옹호문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② 대웅전 - 정면 3칸 ·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③ 산신각 - 정면 1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④ 영산전 - 정면 3칸 · 측면 2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⑤ 주지실 - 정면 5칸 ·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⑥ 요사채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모임지붕
- ⑦ 요사채 - 정면 6칸 · 측면 1칸, 홑처마, 모임지붕
- ⑧ 삼층석탑 - 3층, 2기

- 건축연혁 및 현황 :

동화사의 말사(末寺)인 북지장사의 사역(寺域)은 높은 석축 위에 조성되어 있는데, 입구의 ㄱ자형 계단을 오르면 대웅전이 옹호문과 마주하면서 남북 주축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대웅전 뒤편 동쪽에는 중정보다 대지를 한 단 높게 조성하여 삼성각을 남향으로 배치하고, 그 서쪽에는 산신각을 두었다. 산신각은 1982년 신축한 것이다.

대웅전 앞 중정 동쪽에는 요사(寮舍) 3동이 배치되어 있으며, 요사와 마주보고 있는 동쪽에는 옛 건물지(옛 대웅전 터로 추정됨)로 보이는 곳에 장대석 기단의 일부가 남아 있다. 요사의 앞쪽 오른편에는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된 신라시대 삼층석탑 2기가 있다.



▲ 삼층석탑

『불교사전』에는 고려 명종 22년(1192) 보희국사(普熙國師)가 창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웅전 정면 기단 우측에 세워져 있는 <북지장사유공인영세불망비(北地藏寺有功人永世不忘碑)>의 내용중 “... 신라고찰(新羅古刹) ...”이라는 기록과 구 대웅전지(舊 大雄殿址) 앞에 있는 3층 석탑 등을 미루어 보아 신라 고찰(古刹)임은 확실하나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기 어렵다.

이처럼 중건 기록조차 제대로 남아 있지 않으나, 대웅전 지붕에서 발견된 암막새에 보이는 1623년(明, 天啓 3)과 1665년(淸, 康熙 4)의 명문(銘文)과 지금의 대웅전 오른쪽에 남아 있는 옛 대웅전 기단과 그 앞의 3층 석탑 2기 등을 종합하여 생각해 볼 때 17세기경 화재 등으로 대웅전 등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 옹호문



▲ 대웅전



▲ 산신각



▲ 영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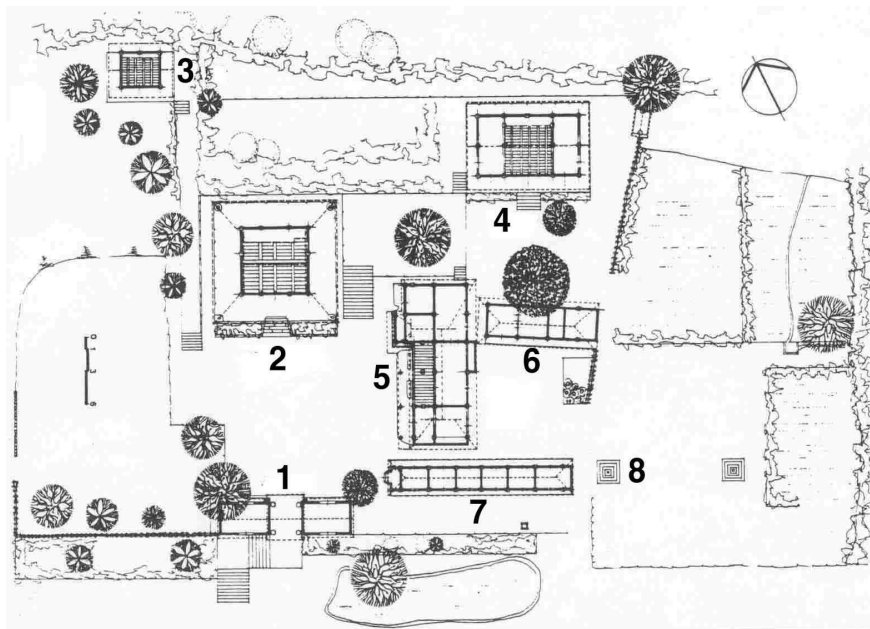
따라서 당시의 지장전(地藏殿)을 중수하여 지금까지 대웅전으로 전용해 온 것으로 짐작된다. 최근에는 1975년과 1982년에 중수 공사가 있었다.

대웅전은 보물 805호로 막돌 바른층 쌓기 기단 위에 네모의 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운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건물 정면 어칸에 쌓여단이 굽넒띠살문, 좌우 퇴칸에 광창으로 사용되는 불박이 굽넒 띠살문을 달아 놓았다. 문들은 연귀 맞춤하여 정교하게 쇠시리 하였다.

대웅전은 다포계 건축으로 막돌 덩벙 주초 위에 배흘림과 안쫄림을 둔 두리기둥을 세우고 포작을 하였는데, 4제공의 양서(仰舌)와 용두(龍頭)를 꾸미고 주심도리와 외목도리를 받도록 한 내외 4출목(出目) 건물이다. 건물에는 앞뒤 면에 4구씩, 좌우 측면에 3구씩의 공간포를 두고 있다.

그리고 내외의 출목수를 같게 한 것은 내부 가구와 천장 구성을 고려한 것이다. 내 4출목 상부장혀 위에는 화반과 토벽을 높게 두고 여기에 다시 장혀를 걸어 내목도리를 얹었으며, 이 도리가 맞닿는 정자형(井字形) 왕찌가 가구의 기본 틀이 되었다.

또한 지붕이 팔작이므로 네 모서리에서 추녀가 빠져 나와야 하나 추녀 뒷뿌리의 고정이 어려우므로 안쪽에 다시 왕찌를 짜고 도리를 얹어 추녀 뒷뿌리를 받게 하였다. 천장은 우물 반자로 마감하였다.



북지장사 배치평면도

44. 동화사 (桐華寺)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호(대웅전)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1호(극락전)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6호(수마제전)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 건립년대 : 1702년(극락전, 수마제전), 1727년(대웅전)

• 건축규모 :

- ① 옹호문 - 정면 3칸 · 측면 2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② 봉서루 - 정면 5칸 · 측면 3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③ 설법전 - 정면 8칸 · 측면 3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④ 심검당 - 정면 7칸 · 측면 11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⑤ 강생원 - 정면 6칸 · 측면 1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⑥ 대웅전 - 정면 3칸 · 측면 3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⑦ 산신각 - 정면 3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⑧ 조사전 - 정면 3칸 ·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⑨ 칠성각 - 정면 3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⑩ 염화실 - 정면 7칸 · 측면 4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⑪ 영산전 - 정면 3칸 · 측면 2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⑫ 천태각 - 정면 1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⑬ 극락전 - 정면 5칸 · 측면 3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⑭ 수마제전 - 정면 1칸 · 측면 2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⑮ 금당선원 - 정면 8칸 · 측면 3칸, 겹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동화사는 팔공산의 남쪽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신라때의 고찰(古刹)로 과거에는 31대 본산(本山)의 하나였으며, 지금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 9교구 본사(本寺)이다. 이 절이 자리잡고 있는 팔공산은 신라시대 오악신앙(五岳信仰)의 중심지로 중악(中岳), 북악(北岳), 영악(靈岳)으로 불리워졌으며, 산의 여러 곳에 불사(佛寺)가 세워져 불국토(佛國土)를 이루었다.

이중환(李重煥)은 『택리지(宅里志)』에서 동화사의 창건 연기(緣起)와 규모에 대해 “동화사는 신라때 중 진홍(眞弘)이 지팡이를 공중에 날렸더니, 지팡이가 여기에 떨어지므로 드디어 절을 세워 거주하였다. 지형이 둘러 겹쳤고, 집들이 광장하며 예로부터 유명한 중과 戒行을 닦는 자가 많았다”라고 했다. 이같이 동화사는 신라와 고려시대를 통하여 큰 가람이었으며, 유가종(瑜伽宗)에 소속된 사찰로써 유가종(法相宗) 3대 사찰의 하나로 미륵불(彌勒佛)을 본존(本尊)으로 숭배하였다.

유가종은 중국 13종과 신라 5교 중의 하나였다. 근본 도량은 금산사(金山寺)이며 개조(開祖)는 경덕왕때 진표(眞表)이다. 후에 원측(圓測)이 크게 일으켰다.

진표는 금산사에 장육 미륵불상(丈六 彌勒佛像)을 조성하여 이 종의 근본도량으로 삼고 그의 제자 영심(永深)이 속리산 법주사(法住寺)에서 그리고 영심의 제자 심지(心地)는 팔공산 동화사에서 교법을 홍화(弘化)하니 이것을 소위 유가종의 3대 사찰이라 한다.

사적명(寺績銘)에는 신라 소지왕 15년(493) 극달화상(極達和尚)이 창건하여 유가사(瑜伽寺)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창건 년대가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동화사라고 사명(寺名)을 고쳐 부른 것은 신라 흥덕왕 7년(832) 심지왕사가 중건할 때 거울철인데도 절 주위에 오동나무꽃이 상서롭게 피었다는데서 유래하며 그 후 팔창(八創)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의 가람배치는 조선 시대에 들어와 선조 40년(1606) 송운 대사 사명당(松雲大師 四溟堂)이 임진왜란으로 불탄 절을 중건한 것이 바탕이 되었고, 그 후 숙종 3년(1677)에 칠창(七創), 영조 8년(1732)에 관허(冠虛)·운암(雲岩)·낙빈(洛濱)·청월(淸月) 등이 팔창(八創)했다 한다.

이 사찰은 1천 5백년을 자랑하는 고찰이기 때문에 경내에 보물 제243호인 마애불좌상, 보물 제248호인 금당 삼층석탑, 보물 제254호인 당간지주와 대구광역시 지정 문화재인 대웅전(大雄殿)·극락전(極樂殿)·수마제전(須摩提殿) 등 문화재가 많다.

동화사에 있었던 전각과 방사(房舍)들에 대해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 <대구부(大丘府)>불우조(佛宇條)에는 "심검당(尋劍堂)·인법당(仁法堂)·강생당(降生堂)·자비당(慈悲堂)·명월료(明月寮)·화우당(花雨堂)·침계료(枕溪寮)·등방(等房) 고유금무(古有今無) 승당상실(僧堂上室) 약사전(藥師殿)·관음전(觀音殿)·두월료(斗月寮)·수월당(水月堂)·관곡당(灌谷堂)·서별당(西別堂)"이라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을 살펴볼 때 『경상도읍지』가 편찬되던 1832년 당시의 동화사에는 심검당·인법당·강생전·자비당·명월요·화우당·침계료 등의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상실·약사전·관음전·두월료·수월당·관곡당·서별당 등의 건물은 그 이전에 있었을 뿐 당시에는 이미 남아 있지 않았다.

현재 동화사에는 일주문인 봉황문(鳳凰門)과 사천왕상이 있는 옹호문(擁護門)을 비롯 대웅전을 중심 전각으로 구역에 대웅전·봉서루·심검당·강생원·칠성각·산신각·천태각·조사당·서별당·원음각·영산전·객사 등이 배치되어 있다.

대웅전 영역에서 조금 떨어진 극락전을 중심으로 한 3금당암(金堂庵) 구역에는 극락전·수마제전·금당선원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 전각들은 전술한 1832년 당시의 동화사에는 없었던 전각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동화사에 속한 주위의 암자로는 염불암·양진암·내원암·부도암·비로암·약수암 등이 유명하다.

동화사는 '팔공산 동화사 봉황문'이라 편액한 일주문을 지나 옹호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있고, 그 전면에는 큰 바위가 있는 높은 계단 위에 봉서루가 자리잡고 있다. 봉서루 밑의 통로를 지나면 대웅전 앞마당에 이르는데, 대웅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심검당, 우측에는 강생원이 있고 뒤편 좌우에는 영산전·산신각·조사당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봉서루의 우측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토담으로 둘러진 또 하나의 건물군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극락전·수마제전·금당선원 등이 자리잡고 있다.

동화사의 가람배치는 중심영역인 대웅전 일곽과 금당암으로 분리워지는 극락전 일곽의 두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창건 당시에는 금당 영역이 사찰의 중심 영역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대웅전 일곽의 배치구조는 산지 중정식 가람 배치에서 주로 나타나는 두 개의 축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축은 옹호문-봉서루-대웅전으로 이어지는 주축과 이에 직교하는 부축으로 구분된다. 대웅전은 주축상 최종의 전각으로 그 뒤에는 다른 전각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주축과 직교하는 부축을 경계로 그 위쪽 좌우에는 산신각, 조사당, 칠성각 등의 예배용 전각들

을 배치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옹호문 앞마당 우측 길을 따라 극락교를 따라 건너 돌아 나오면 극락전 일곽이 형성되어 있다. 극락전 일곽은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쪽으로 난 작은 문으로 진입하여 우측 계단을 오르면 극락전이 있고, 그 동서에 금당과 3층 석탑이 있으며 그 윗단에는 수마제전과 스님들이 거처하는 요사채가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수마제전 앞쪽에는 최근에 신축된 금당선원, 그 좌측에는 최근 신축된 요사채가 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 봉서루



▲ 설법전



▲ 심검당



▲ 강생원



▲ 칠성각



▲ 칠성각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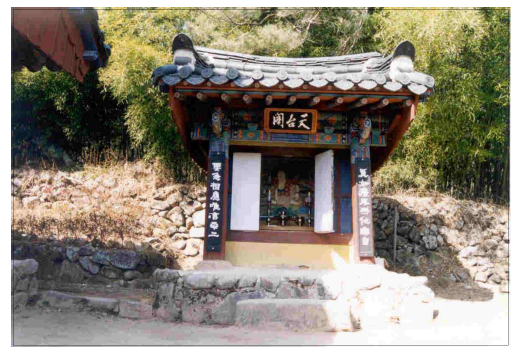
▲ 조사전



▲ 산신각



▲ 영산전



▲ 천테각



▲ 신축 요사



▲ 요사



▲ 염화실



▲ 염화실 기둥 상부가구

● 대웅전

대웅전은 1727년경 중건한 건물로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10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로 장대석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배흘림이 있는 두리기둥을 세웠다. 상부가구는 불단이 설치된 뒷열 내진 고주에 대들보를 결구한 1고주 5량으로 고주에 의지하여 벽을 치고 불단을 설치하였다. 측칸 부분은 대들보 위에 충량을 결구하고 중도리와 장혀를 받도록 하였다. 불단의 불상은 석가, 약사, 아미타불의 좌상이며, 후불벽에는 여러폭의 탕화가 걸려 있다.

이 건물은 외 3출목, 내 5출목 다표계의 겹처마 팔작지붕 집이다. 천장은 중도리 안쪽에 우물천장을, 그 바깥 외벽쪽에 빗천당을 꾸몄으며, 건물 바닥은 우물마루로 처리하였다.

대웅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문짝의 문양인데 빗살을살에 활짝 핀 꽃잎 윤곽을 표현한 조직적인 문짝, 동심원으로 흔히 볼 수 없는 우수한 작품이다. 이처럼 불전의 창호에 꽃살을 베푸는 것은 부처님께 꽃을 공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대웅전

● 극락전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11호로 지정되어 있는 극락전의 창건 및 중건 기록은 거의 없는데, 다만 『동화사사적기(桐華寺事跡記)』에 고금당(古金堂)이 1465년(명 헌종 원년) 창건되어 숙종 28년(1702) 중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극락전이 위치하고 있는 영역을 금당암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곳에 고금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고금당이 어느 시기엔가 극락전으로 바뀌어 사용되었다면 지금의 극락전이 바로 고금당이므로, 고금당의 연혁이 곧 극락전의 연혁이 될 것이다.

기단은 신라때 것으로 보이는 석재 가구식 기단이다. 현재 일부 갑석은 없어졌으나, 지대석·면석·갑석이 많이 남아 있으며 특히 갑석의 모서리는 ㄱ자형으로 만들고 회첨부분에는 물매를 주었다. 또한 네모 초석과 고목이돌, 신방석등도 제자리에 놓여 지금도 제 구실을 하고 있다. 평면은 정면 5칸, 측면 3칸인데 어칸을 가장 넓게 하였다.

가구는 2고주 5량가로 고주의 좌우는 퇴칸 쪽으로 퇴보를 걸어 평주와 연결하였다. 고주가 대들보와 중도리를 바로 받고 있으며, 그 위는 우물반자를 시설하였다. 대들보는 들을 사용했으며, 그 단면형상이 직사각형의 하부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 놓은 것과 같아 18세기 이

후의 수법으로 보여진다.

이 건물 내부는 후불벽을 5칸 모두에 설치했는데, 그 중 후불벽 중앙 3칸은 벽체를 고주상단까지 설치하고 좌우 뒷칸의 벽체는 외진주 높이 정도로 하여 높이가 낮다. 건물 바닥은 우물마루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나중에 새로 시설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마루 밑에는 지금도 바닥搏이 깔려 있어 이것이 본래의 바닥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후불벽 뒤에도 우물마루가 깔려 있으나 그 수법이 앞부분과 다르며 마루의 높이도 앞부분보다 약간 낮다. 후불벽 앞에는 각각 3개의 불단을 두어 삼존불을 안치하였다.

기둥은 모두 두리기둥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외진주들은 모두 약한 배흘림을 두고 있다. 그리고 기둥 위는 지붕의 후림과 같은 수법으로 킷기둥보다 평주를 건물 안쪽으로 더 쏠리게 했는데 이 건물의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의 사진에는 추녀 하부에 활주를 둔 것이 보이지만 현재는 없다.

건물의 공포는 다포계로 그 구성은 내외 2출목 5포작으로 먼저 기둥 위에 창방과 평방을 차례로 결구하고, 기둥 사이에 놓인 공간포는 어칸에 2구, 좌우 협칸과 퇴칸에 1구씩 모두 36구를 배설하였다. 이러한 극락전의 모습은 조선중기 건축양식으로 생각된다.



▲ 극락전



▲ 수마제전



▲ 금당선원

● 수마제전

극락전 뒤편에 위치한 수마제전은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16호로 1702년경에 창건된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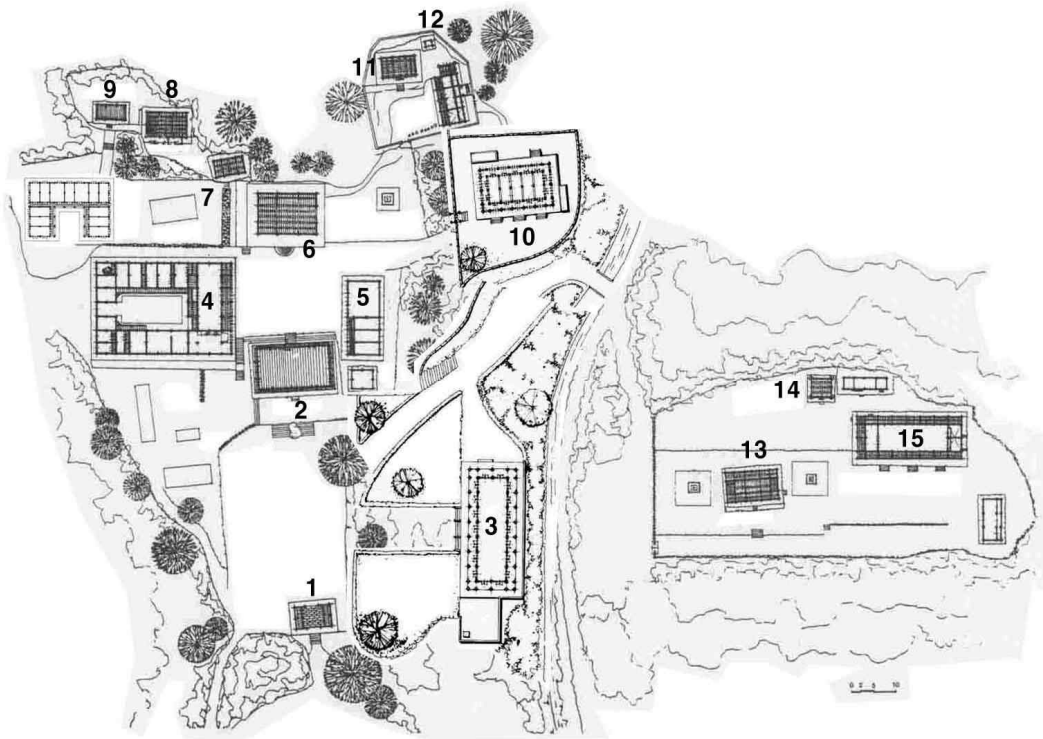
로 전해진다.

이 건물은 두벌대의 장대석 기단 위에 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운 정면 1칸, 측면 2칸의 규모로 정사각형에 가까운 평면이다. 지붕은 겹처마 박공지붕이다. 구조양식은 5량가로 기둥 위에 평방을 결구하고 그 위에 주두와 좌두를 얹고 첨차와 소로를 층놓아 짜 맞춘 다포계로 내외 2출목이다.

내부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으며 뒷벽 앞에 연화대좌를 배설하고 그 위에 불상을 봉안하였다. 불단 상부는 운각으로 장식한 조개천장을 시설하고, 나머지 천장은 우물반자로 구성하였다. 수마제전은 비록 작은 규모의 전각이지만 조선시대 다포양식 건축의 소박한 기법과 짜임새를 잘 간직하고 있다.

● 영선전

영선전은 현종 10년(1669) 창건되었으나, 지금으로부터 100년전인 1902년 대홍수로 유실되었던 것을 중건하였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구조는 간략한 3량가로서 대들보와 결합부 밑에 초각이 간략화 된 보아지를 두었다. 어칸의 상부는 우물천장으로 처리하였으나 협칸부분은 평반자로 마감하였다.



동화사 배치평면도

45. 비로암 (毘盧庵)

- 지정종별 : 보물 제247호(삼층석탑)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0번지
- 건립년대 : 18세기 말(대적광전), 19세기 초(산신각)
- 건축규모 : 일곽(6동)
 - ① 대적광전 - 정면 3칸 · 측면 3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② 산신각 - 정면 2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③ 장경각 - 정면 3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④ 보광명전 - 정면 7칸 · 측면 3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⑤ 요사채 - 정면 3칸 ·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⑥ 3층석탑 - 3층, 1기
- 건축연혁 및 현황 :

비로암은 동구 도학동 35번지에 위치하는 동화사의 속암(屬庵)으로 『동화사사적비(桐華寺事跡碑)』에는 毘盧殿(비로전)이라 하여 선조 25년(1591) 서일화주(瑞一化主)가 창건했다고 한다.

대적광전(大寂光殿)에는 신라 흥덕왕때 심지왕사(心地王師)가 조성한 보물 제244호 석조 비로자나불을 봉안하고 있으며 대적광전 앞에는 역시 보물 제247호 삼층석탑이 있다.

이 탑은 신라 경문왕 3년(863)에 민애대왕(敏哀大王)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건립한 것이며 이 절이 유명한 ‘동수원당(桐蓺願堂)’이었다. 당시는 동수(桐蓺, 동화사의 옛이름) 경내의 대적광전이었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이 절의 창건은 바로 동화사의 창건과 같다.

비로암은 동화사 옹호문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m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 난 입구를 들어서면 우측에 대적광전이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고 대적광전 앞에는 삼층석탑 1기가 서 있다. 대적광전 좌측 아래에는 요사가 동향하여 있고 대적광전 뒤에는 산신각이 배치되어 있다.



▲ 전경



▲ 대적광전 정면

비로암의 중심건물인 대적광전은 다포계 맞배집으로 건물 앞뒤면에만 공포를 두고 기둥사이
에 공간포를 1조씩 짜 넣은 외2출목, 내3출목 형식이다.

쇠서의 끝은 비스듬히 자르고 그 위에 연봉(蓮棒)으로 장식하였다. 천장은 내진만 우물천
장으로 하고 외진은 빗천장으로 처리하였다. 법당의 중앙에는 팔각 연화 대좌 위에 석조 비
로자나불을 봉안하였다.



▲ 대적광전 측면



▲ 장경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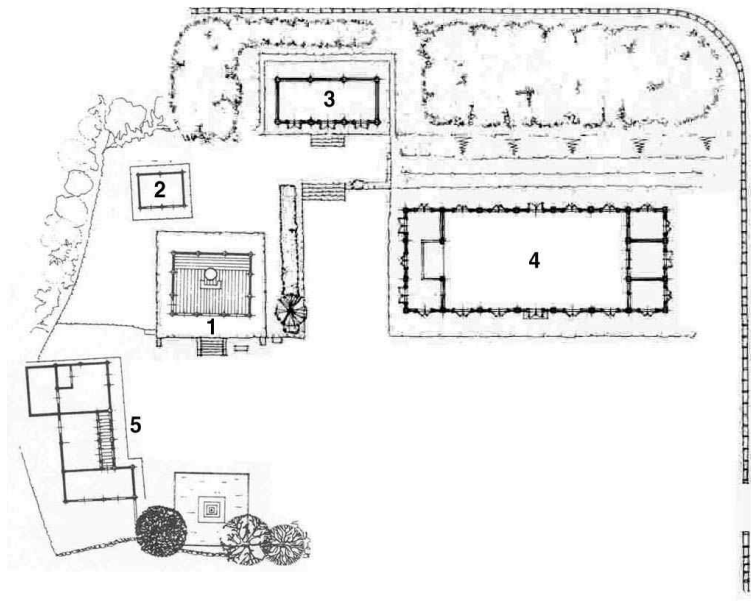
▲ 보광명전



▲ 요사채

대적광전 앞에 있는 삼층석탑은 보물 제247호로 지정되어 있는 통일신라말기의 우수한 석
탑이다. 지대석(地臺石)과 중석(中石)을 한 돌로 하여 각 면(面) 1석(石)으로 하층 기단을 구
성하고 각 면은 탕주 1주(柱)로 양분하였다. 갑석(甲石)은 4장으로 윗면에는 괴임이 있는데
아랫단이 갑석 윗면에 바로 붙지 않고 잘룩하게 안으로 파여져 별석(別石)처럼 보인다.

상층 기단 중석은 각 면 1석에 탕주 1주(柱)이다. 갑석은 2장의 판석이고 밑에는 부연이
있고 위의 옥신(屋身)괴임은 하층 기단 옥석(屋石)괴임과 같은 형식이다. 탑신부(塔身部)는
옥신석(屋身石)과 옥개석(屋蓋石)이 각각 1석(石)씩이고 옥신(屋身)에는 우주석(隅柱石)이 있
다. 옥개석 괴임은 각 층 4단에 낙수구(落水口)가 있으며 위에 옥신석 괴임이 마련되어 있
다.



비로암 배치평면도

46. 부도암 (浮屠庵)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산124-1번지
- 건립년대 : 1960년
- 건축규모 : 일곽(3동)
 - ① 선 원 - 정면 8칸 · 측면 5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② 관음전 - 정면 3칸 ·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③ 요사채 - 정면 6칸 ·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부도암은 동구 도학동 35번지에 위치하는 동화사의 속암으로 효종 9년(1658) 도오화주(道悟化主)가 창건하였고 정조 14년(1790) 춘파화주(春坡化主)가 중수하였다. 헌종7년(1841)에 쓴 염불암 『양간록(樑間錄)』과 그 문서에는 부도암에 72명의 스님이 있었다 하니 동화사 부속 암자 중 최대규모였다. 지금은 비구니 절로 바뀌었다.

본래의 부도암은 개울 건너 서쪽 산 기슭에 12기의 부도(浮屠)가 있는 곳에 있었으나 뒤에 현 위치로 이진 하였다고 전하며, 부도가 있는 곳에 절을 지었다 하여 부도암이라 하였다. 이 절은 1960년 크게 개축하였다.

동화사로부터 북으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부도암은 석축을 높게 쌓고 사역(寺域)을 조성하였다. 절 입구에서 10여 단의 돌계단을 오르면 넓은 마당이 나오고 마당 바

로 앞쪽에는 부도암이라 편액한 인법당(因法堂)이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다. 인법당 좌측에 2동의 요사(寮舍), 그리고 요사 좌측 끝부분에 관음전을 배치했다.

관음전은 다듬돌 초석위에 두리기둥을 세운 팔각지붕 건물이다. 구조양식은 익공계의 건물로서 외1출목을 두었다. 쇠서는 갖은 장식을 하고 킷포의 상부와 중량의 단부는 용머리로 장식하였다. 천장은 내진은 우물반지로, 외진은 빗천장으로 마감하였다.



▲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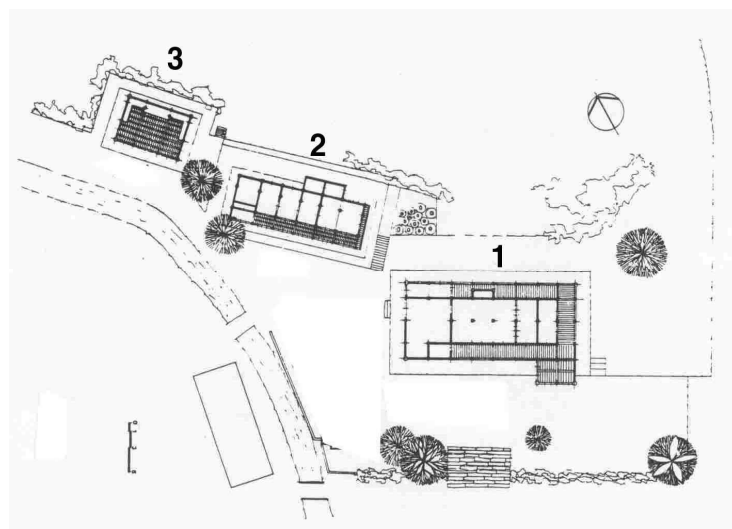
▲ 정면



▲ 측면



▲ 관음전



부도암 배치평면도

47. 내원암 (內院庵)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산124-1번지
- 건립년대 : 1966년
- 건축규모 :
 - ① 관음전 - 정면 3칸 · 측면 3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② 선원 - 정면 8칸 · 측면 4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③ 설법전 - 3층 철근콘크리트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내원암은 동구 도학동 산124-1번지에 위치하는 동화사의 속암(屬庵)이다. 이 절은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와 『동화사사적기(桐華寺事跡記)』에 따르면 1626년(天啓, 인조4년) 승 유찬(僧 惟贊)이 시창(始創) 하였으며, 그 후 순조 27년(1827)에 제월화주(霽月化主)가 재건하였다고 한다. 1960년경 장일비구니(長一比丘尼)가 가야산 국일암(國一庵)에서 이곳에 와서 비구니의 선원(禪院)을 열어 1966년에 중창하고 관음전(觀音殿) · 인법당(因法堂) · 무주헌(無佳軒)을 세웠다.

내원암은 본사인 동화사에서 북으로 800m 가량을 산길을 따라간 올라온 좌청룡 우백호를 갖춘 아늑한 길지에 자리잡고 있다. 이 절은 ㄱ자형의 선원인 인법당(因法堂)을 가운데 두고 그 동쪽에 요사 무주헌(無佳軒), 서쪽에 작은 규모의 요사, 그리고 인법당 서측 뒤쪽에 관음전(觀音殿)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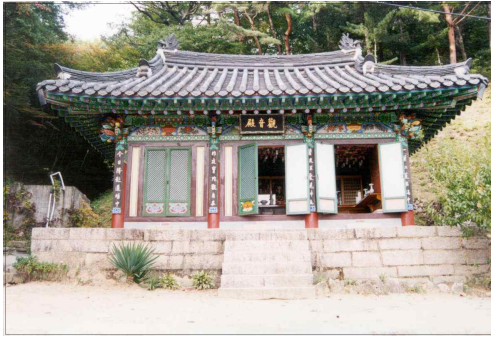
관음전은 장대석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건물은 2익공으로, 쇄서의 끝부분을 비스듬히 절단하고 연화(蓮花) · 봉두(鳳頭) 등으로 장식하였다.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3칸인데 불단을 설치하기 위해 후진주(後陣柱) 뒤로 50cm가량을 더 달아 내어 공간을 확장했으며, 후진주 사이에는 유리창을 끼웠다. 건물의 가구는 5량인데 대들보 위에 층량(衝樑)을 걸고 마무리에는 네모 모양의 판자를 붙여 동자주를 대신하였다. 천장은 중앙에만 우물반자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연등천장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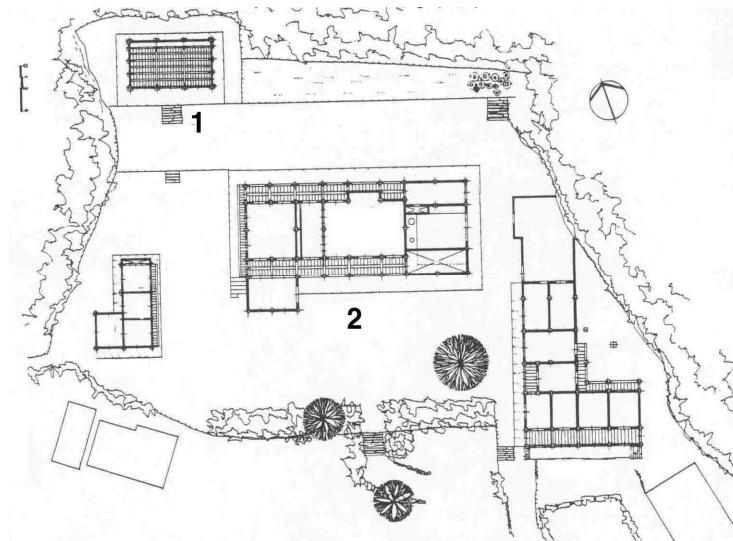
▲ 설법전



▲ 관음전



▲ 선원



내원암 배치평면도

48. 양진암 (養眞庵)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산124-1번지
- 건립년대 : 1743년 창건, 1898년 중건, 1980년 중창
- 건축규모 : 일곽(7동)
 - ① 관음전 - 정면 5칸 · 측면 3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② 육화당 - 정면 8칸 · 측면 2칸, 홑처마, 우진각지붕
 - ③ 인법당 - 정면 6칸 · 측면 4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④ 미소실 - 정면 4칸 · 측면 3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⑤ 정묵당 - 정면 3칸 ·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⑥ 법보전 - 정면 3칸 · 측면 2칸, 겹처마, 맞배지붕

⑦ 객 실 - 정면 4칸 · 측면 1칸, 홑처마, 우진각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동화사의 속암(屬庵)으로 동구 도학동 산124-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동화사 사적비에 의하면 영조 19년(1743)에 무주선사(無住禪師)가 창건하고 광무 2년(1898) 운과화주(雲坡化主)가 중수했다고 한다. 1952년 남북전쟁 이후 배성연(裵性蓮) 비구니가 법주사 수정암(水晶庵)으로부터 이곳에 와서 선원을 열어 비구니의 선원으로 면모를 바꾸었다. 1980년 중창하여 인법당(因法堂) · 정묵당(靜默堂) · 미소당(微笑堂)의 당우를 건립했으며 최근 사역 입구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관음전(觀音殿)과 육화당(六和堂) 건물을 신축하였다..

사역(寺域)을 들어서면 양진암이라 편액한 ㄱ자형의 인법당(선원)을 가운데 두고 서측에 요사인 미소실, 동측에 참선후 몸과 마음을 조용히 쉬는 정묵당 그리고 인법당 바로 뒤쪽에는 석축 위에 법보전을 각각 배치하였다. 법보전 뒤를 돌아가면 객실이 나온다.

인법당은 1980년에 개축한 정면 6칸, 측면 4칸의 건물이다. 양진암의 핵심 건물인 이 건물은 장대석 외벌대 기단 위에 앞쪽에는 고복형(鼓腹形) 주초를, 측면과 뒤쪽에는 네모난 주초를 사용한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천장은 중앙부만 우물반자로 하였고 나머지는 빗반자를 설치하였다. 불단은 뒷면을 2척 가량 더 달아내어 설치하였으며, 기둥 사이에는 유리문을 달았다. 전체적으로 현대적인 요소가 많이 채택되어 전통적인 건축양식과는 거리가 있다.



▲ 전경



▲ 육화당



▲ 관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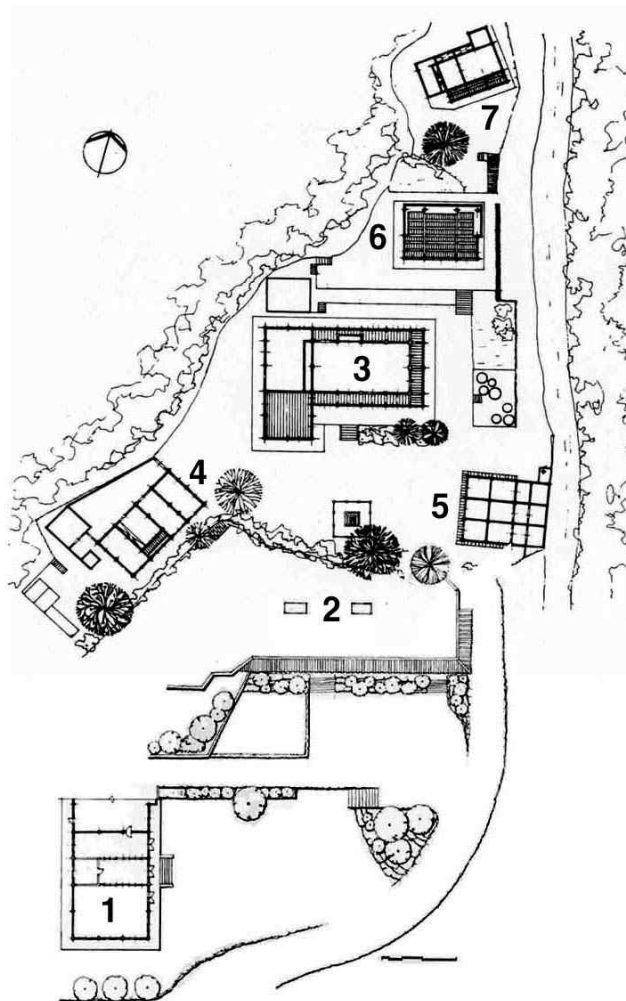
▲ 인법당



▲ 미소실



▲ 법보전



양진암 배치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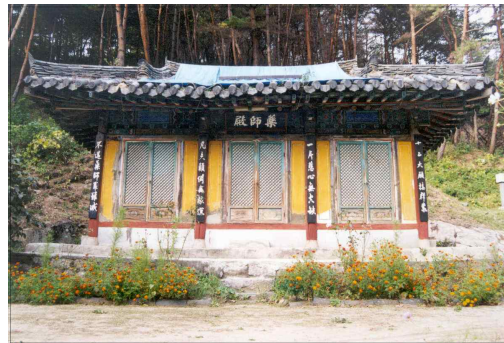
49. 약수암 (藥水庵)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산124-1번지
- 건립년대 : 1970년
- 건축규모 : 일곽(3동)
 - ① 약사전 - 정면 3칸 ·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② 요사채 - 정면 3칸 · 측면 2.5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③ 산신각 - 정면 1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대구시 동구 도학동 산 124번지에 있는 동화사의 속암(屬庵)으로, 1970년 약사전(藥師殿)의 터에 새로 지은 것이다. 약수암이란 사명(寺名)은 인근의 ‘救世藥水(구세약수)’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약사전(藥師殿)과 3동의 요사 및 산신각이 있다. 요사이 요사에 약수암이라 편액했다. 동화사 입구 해탈교에서 오른쪽으로 700m 가량을 오르면 ‘救世藥水’가 있고 약수암은 여기서 다시 50m떨어진 왼쪽 산허리에 위치하고 있다. 20여 단의 돌계단을 오르면 앞쪽에 남서향한 약사전이 좌우에 요사를 거느리고 나타난다. 산신각은 약사전 오른쪽 숲 속에 떨어져 있다.



▲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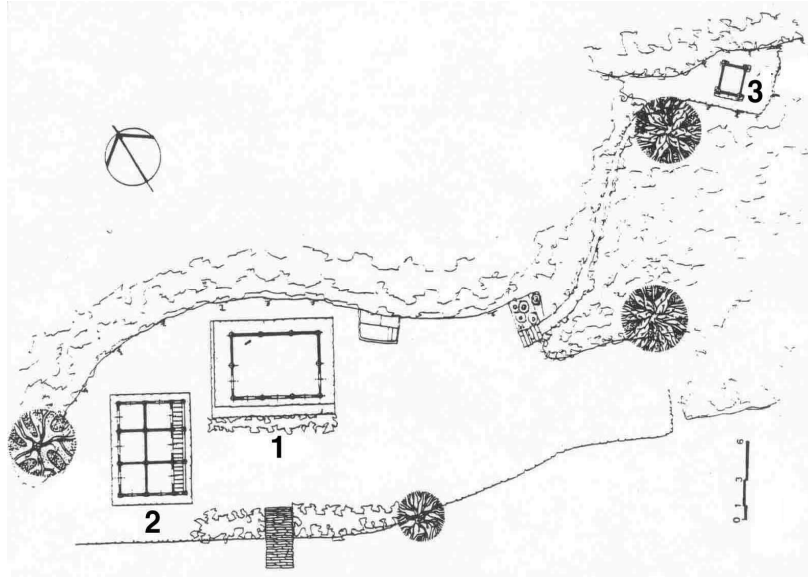


▲ 약사전



▲ 약수암 일곽

약사전은 5량가의 건물로 중보를 두지 않아 대들보 위의 긴 동자주가 마루도리를 받고 있다. 천장은 연등천장이며, 바닥에는 다다미를 깔았다. 건물 앞쪽은 익공 쇠서 없이 소로 장식만으로 꾸몄다.



약수암 배치평면도

50. 염불암 (念佛庵)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산124-1번지
- 건립년대 : 1841년 중건, 1962년 이건(극락전)
- 건축규모 : 일곽(4동)
 - ① 극락전 - 정면 3칸 · 측면 2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② 동 실 - 정면 6칸 · 측면 1.5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③ 서 당 - 정면 5칸 · 측면 2칸, 홑처마, 우진각지붕
 - ④ 산령각 - 정면 1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동화사사적비(桐華寺事蹟碑)』에 의하면 신라 경순왕 2년(928) 영조선사(靈照禪師)가 창건하였고, 조선 광해 5년(1613) 승(僧) 유찬(惟贊)이 중창하고, 숙종 25년(1699) 승(僧) 승변(勝卞)이 중수하고, 순조 3년(1803) 승(僧) 의암(義庵)이 중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에는 1612년(明, 萬曆 40)에 창건하여 숙종 25년(1699)에 중창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962년 원주스님 혜운(慧運)이 중수할 때 발견된 『양간록(樑間錄)』에는 1438년(明, 正統 3)과, 1768년(淸, 乾隆 33), 1841(淸, 道光 21)년의 중수 사실만 적혀있다.

고려 고종8년(1220)에 공산 염불사에서 주석(駐錫)하다가 여기서 열반하여 이 절에서 다비한 원진국사(圓眞國師)가 고종 2년에 공산 염불란야(念佛蘭若)에 주(住)하여 동봉에서 차를 다려 양(兩) 삼도(三道)의 고승대덕을 향응하고 기우제를 지낸 것을 볼 때 고려 때에는 유명한 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절은 팔공산 주봉인 동봉(東峯)의 밑 산 중턱에 있는 팔공산 산록에서 가장 높은데 자리잡고 있다. 동화사를 오른쪽에 두고 서쪽으로 난 길을 따라 북쪽으로 1.8km가량을 오르면 뒤에 커다란 석병(石屏)을 두르고 동서로 청룡과 백호가 다소곳하게 감싸고 있는 곳에 염불암이 있다.

이 절은 석축을 높이 쌓고 사역(寺域)을 조성하였다. 배치는 극락전(極樂殿)을 중심으로 왼쪽에 서당(西堂), 오른쪽에 요사를 그리고 극락전 왼쪽 뒤편에 산령각(山靈閣)을 각각 두었다. 극락전 오른쪽 뒤편에는 염불바위가 자리잡고 있다. 이 바위의 남면에는 문수보살, 서면에는 아미타불이 각각 양각되어 있다.



▲ 전경



▲ 극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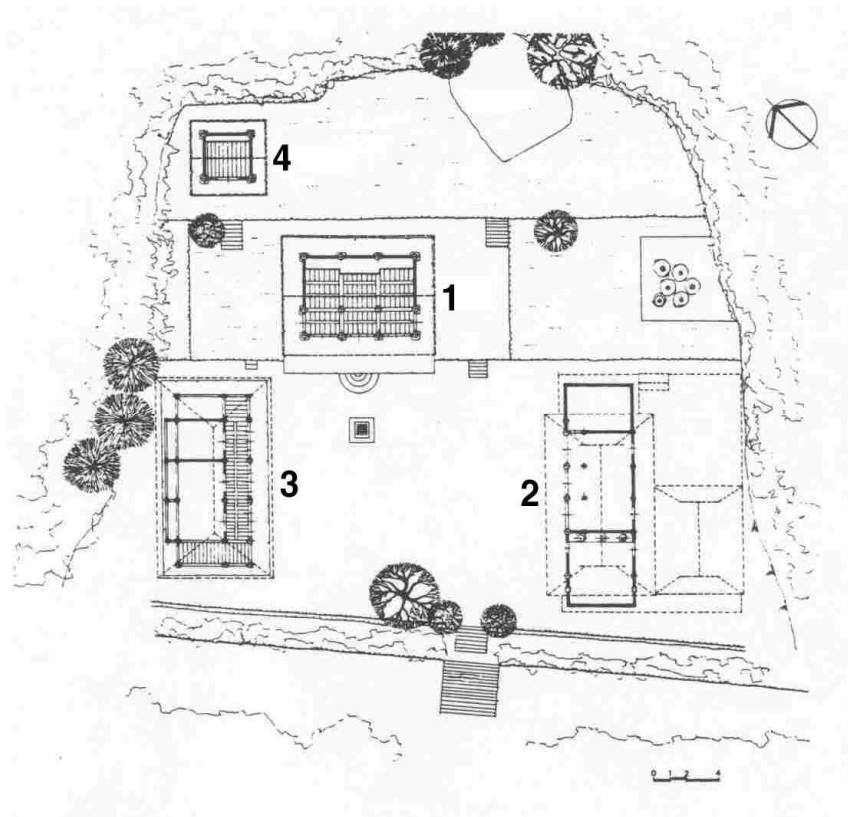
▲ 산령각

극락전에는 1841년경 중건되었으며 본래 염불바위 앞 석등이 있는 자리에 있었으나 1962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지었다고 한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이었으나 개축시 앞으로 3척 가량 넓혔다. 장대석으로 기단을 쌓고, 기단 앞쪽 중앙에는 화강석을 반원으로 다듬어 계단을 만들었으며 기단 위는 모르타르로 마감하였다.

극락전은 막돌주초 위에 두리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주초 사이에는 화강석을 팔각형으로 다듬어 받쳤다. 건물은 주심포계로 건물 앞면을 2출목, 뒷면을 1출목으로 처리했으며 천장은 우물반자로 꾸몄다.

불단에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을 각각 모셨으며, 불단 위에는 보개(寶蓋)를 시설하였다.



염불암 배치평면도

51. 부인사 (夫人寺)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3호(부인사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356번지
- 건립년대 : 1959년 중건, 1990년대 중창
- 건축규모 : 일곽(7동)
 - ① 숭모전 - 정면 3칸 · 측면 2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② 삼세루 - 정면 5칸 · 측면 3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③ 강당 - 정면 9칸 · 측면 4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④ 현음각 - 정면 3칸 · 측면 3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⑤ 대웅전 - 정면 5칸 · 측면 3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⑥ 명부전 - 정면 3칸 ·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⑦ 삼성각 - 정면 3칸 · 측면 2칸, 겹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동화사의 말사인 현재의 부인사는 옛 부인사 경역의 뒤쪽 산 밑에 자리잡고 있는 작은 절이지만, 한때는 ‘고려 초조대장경’을 보관했던 호국사찰로서 매우 중요한 사찰이었다. 부인사에 관한 개창 시기나 연혁은 잘 알려지지 않아 부인사의 창건 연대와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편이다. 단지 7세기 초 창건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 현 부인사에는 신라 선덕여왕 어진(御眞)을 모시고 매년 음력 3월 보름에 신무동 주민과 사찰측 및 경주김씨 종중에서 선덕여왕 숭모제(崇慕祭)를 지내는 것에서 부인사의 깊은 내력을 짐작할 만 하다.

옛 절터가 지금은 포도밭으로 변해 있지만 현 사찰에서 200m 남쪽에 당간지주가 남아있고 팔공산 순환도로 남쪽으로 추정 금당지(金堂址)가 연결하고 있어 옛날 번창기의 사역(寺域)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현 부인사는 6.25동란 때 불탄 것을 1959년에 중건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국내에서 유일한 승시장(僧市場)이 부인사에 개설될 정도로 아주 번창했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인사의 寺名은 시대에 따라 符仁寺, 夫人寺, 夫仁寺 등으로 각기 다르게 기록되고 있어 이자동음(異字同音)의 별개 사찰인지 동자이음(同字異音)의 동일 사찰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부인사는 고려 초조대장경의 판각처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현종 3, 4년경부터 조각되기 시작하여 숙종 4년(1099)에 완성된 총 1만 여권의 초조대장경은 처음 흥왕사(興王寺), 개국사(開國寺), 귀법사(歸法寺) 등에 봉안하였다가 그 후 어느 시기에 이곳 부인사에 봉안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여러 번의 인간(印刊)이 있었다. 그 후 고종 19년(1232) 몽고의 제 2차 침입시 元軍이 부인사 대장경과 황룡사 9층 목탑을 불태워버렸다.

이상의 자료들을 통해서도 符仁寺의 창건연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사찰의 위치가 지금의 영천(당시 永州)근방으로, 팔공산 동화사와 인접해 있었고 거찰(巨刹)로서 고려 초조대장경을 보관하여 외침을 극복하려 했던 호국사찰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의 기록으로 夫人寺의 寺名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대구도호부

(大丘都護府)> 불우조(佛宇條)이다. “...夫人寺, 慈華寺, 把溪寺, 菩提寺, 俱在公山”이라 하여 파계사와 같이 夫人寺란 절이 공산(팔공산)에 있었다고 하였다. 또 고종 때 편찬된 대구부읍지(大邱府邑誌) 불우조(佛宇條)에도 “夫人寺 在府北五十里公山 新羅善德王 創建 一名大伽藍 今革爲庵”이라 하여 공산에 있는 夫人寺가 신라 선덕왕때 창건되었으며, 한때 큰 사찰이었으나 지금은 암자라고 하였다.

그 후 1911년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자료에는 符仁寺 또는 夫人寺란 寺名은 찾아볼 수 없고 동화사의 말사로서 夫人寺란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소재지를 달성군이라고 하였으나 그 위치가 오늘날의 팔공산 夫人寺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符仁寺’, ‘夫人寺’, ‘夫仁寺’란 시대를 달리하여 寺名이 바뀌었으나 팔공산에 위치한 동일 사찰임을 암시하고 있다. 지금의 夫人寺는 경작에 의해 원형이 많이 훼손되고 사역(寺域)도 많이 축소되었지만 문헌에서 살필 수 있는 부인사의 사역이 틀림없으며, 더구나 지표상에 노출된 초석과 주위에 산재하고 있는 석조물들로 보아 거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89년 7월 대구대 박물관의 1차 발굴조사 때 ‘나’ 지구에서 정면 5칸, 측면 4칸의 대규모 건물지가 조사되었는데, ‘나’ 지구의 주 건물지 주변의 부속건물과 함께 대규모의 건물을 세운 이유는 초조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한 경판고지(經板庫址)로 판단되었다.

1959년부터 1960년까지 2년 동안 부인사 중건공사가 진행되어 몇 동의 불전과 당우가 건립되었다. 경사진 대지에 사역(寺域)이 조성하였는데 입구를 들어서면 좌측에 선덕여왕의 어진을 모신 선덕묘가 있고, 계단을 오르면 넓은 마당 앞쪽에 대웅전이 그리고 마당 서쪽에 주지실과 요사채가 자리잡고 있었다. 대웅전의 뒤에는 응진전과 칠성각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으며 대웅전 앞마당 동쪽에 또 한 동의 요사채가 있었다.



▲ 전경



▲ 대웅전 일괄

그러나 현재 부인사는 1990년대부터 대규모 중창 불사가 이루어져 1959년 중건시의 건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사역의 면모가 일신되었다. 새롭게 숭모전(崇慕殿), 삼세루(三澀樓), 강당, 현음각(玄音閣), 대웅전(大雄殿), 명부전(冥府殿), 삼성각(三聖閣) 건물이 신축되었다.

송모전은 정면 3칸·측면 2칸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며 삼세루는 정면 5칸·측면 3칸에 겹처마 팔작지붕을 이은 건물이다. 강당은 정면 9칸·측면 4칸이며 현음각은 정면 3칸·측면 3칸 규모이다. 주불전인 대웅전은 다포계 양식의 건물로 정면 5칸·측면 3칸이며 명부전과 삼성각은 각각 정면 3칸·측면 2칸 크기의 건물이다. 이들 건물은 전부 겹처마 맞배지붕을 이었다.



▲ 송모전 정면



▲ 송모전 측면



▲ 누각 정면



▲ 누각 배면



▲ 강당 일곽



▲ 강당 측면



▲ 대웅전 전경



▲ 대웅전 정면



▲ 현음각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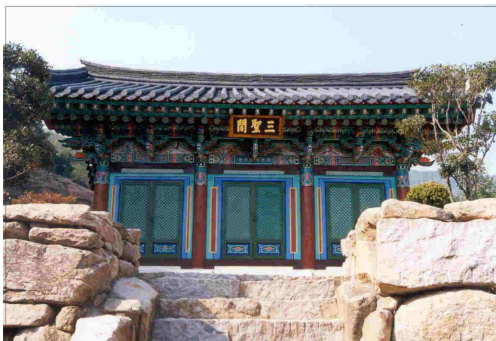
▲ 현음각 측면



▲ 명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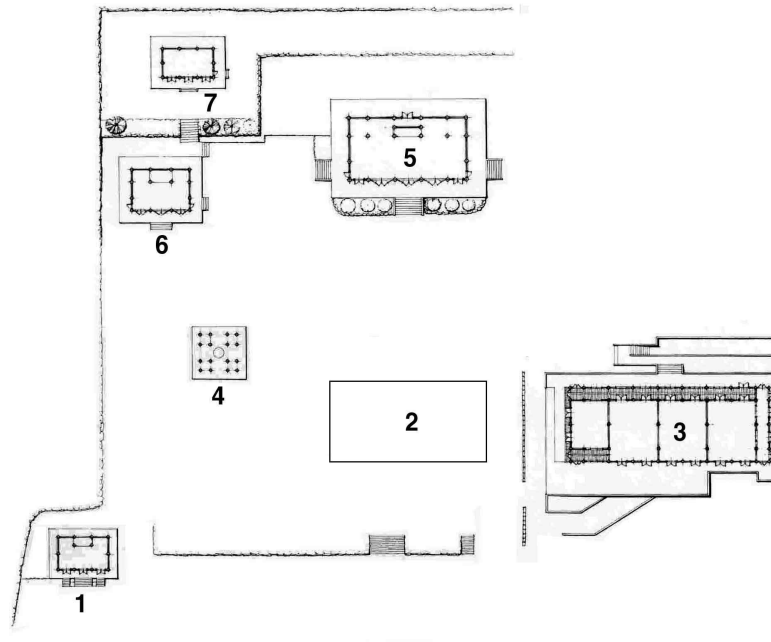
▲ 구 요사채



▲ 삼성각 정면



▲ 삼성각 측면



부인사 배치평면도

52. 강사당 어사각 (講舍堂 御賜閣)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709번지
- 건립년대 : 1900년경
- 건축규모 : 정면 4칸 · 측면 1.5칸, 흙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부인동강사(夫仁洞講舍)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국실부락) 709번지에 있다. 이 건물의 건립시기는 불분명하다. 백불암(百弗庵) 최흥원(崔興遠, 1705~1786)이 동민의 구황 및 풍속 순화를 위해 지은 건물이라고 한다. 백불암은 평소 백성들의 살기 어려운 정상을 보고 남전향약(藍田鄉約)에 의거 ‘부인동규(夫仁洞規)’를 세우고 강학과 근검으로 저축에 힘쓰게 하였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이 부인동강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대청 북벽에 걸려 있는 편액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로 66.5cm, 세로 30cm 크기의 현판에 오른쪽부터 위에서 아래로 ‘강사창계좌목(講舍創契座目), 최흥원(崔興遠), 오계선(吳繼善), 배자운(裴自雲), 구선록(具善錄), 김일해(金一海)’라고 음각(글자 크기 가로 6cm, 세로 5.5cm)되어 있다.

현재의 건물은 약 100년 전에 중건한 것이며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보수하였다. 정면 4칸 · 측면 1.5칸 둥근 기둥과 네모 기둥이 혼용된 흙처마 맞배지붕의 기와집이며 울타리는

흙돌담이다. 남향인 이 건물은 2칸의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동·서로 1칸씩 온돌방을 배치했다. 기둥은 가운데 3개는 둥근 기둥이고 양쪽 2개는 네모기둥이며, 정면 중앙 처마 밑에 ‘夫仁洞講舍’라고 음각된 편액이 걸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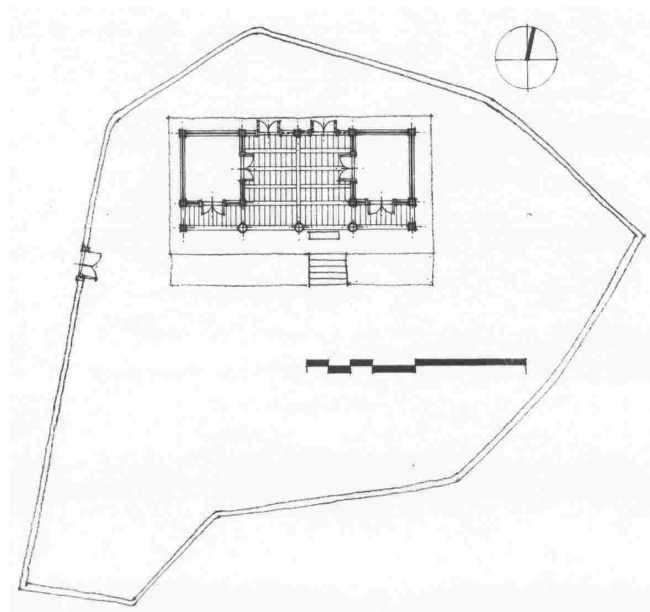
▲ 정면



▲ 배면



▲ 대청 상부가구



강사당 어사각 평면도

53. 농연서당 (聾淵書堂)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665-2번지
- 건립년대 : 1981년
- 건축규모 : 일곽(2동)
 - ① 서당 - 정면 5칸 · 측면 1.5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② 대문채 - 정면 1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농연서당은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가루뱅이 부락) 665-2번지에 있다. 이 서당의 건립연대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백불암(百弗庵) 최흥원(崔興遠, 1705~1786)이 옷골 입향조이자 공(公)의 5대조인 대암 최동집(1586-1661)을 추모하고, 강학을 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라고 한다. 백불암은 관직에서 물러나 향리(옷골)에서 강학과 근검·저축을 교육시켜 교육과 생활경제에 힘쓰기도 했다. 당시 영남의 학자인 이광정(李光靖)·상정(象靖) 형제와 교분이 두터웠는데, 이상정의 <농연서당기(聾淵書堂記)>가 《대암문집(臺巖文集)》 권사(卷四)에 실려 전하고 있다.

이 서당은 원래 계곡을 따라 약 500m 아래 위치하고 있는 「崇禎處士遺墟碑(송정처사유허비)」 건너편에 있었는데, 1925년 7월(乙丑 대홍수) 홍수로 파손된 것을 1930년(庚午)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 중건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건물은 1981년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새로 지은 것이다. 이 곳은 옛부터 ‘십계명지(拾溪名地)’라 하여 10개 폭포의 맑은 물소리로 인해 잡음이 들리지 않아 선비들이 강학하던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 서당은 대지 87평에 남향으로 지은 정면 5칸, 측면 1.5칸 규모의 홑처마 팔작지붕집이다. 평면은 가운데 2칸 대청을 두고 좌측에 2칸, 우측에 1칸 온돌방이 배치되어 있다. 대청과 온돌방 전면에는 반칸 규모의 퇴칸을 두었으며 대청 배면에는 쪽마루를 놓았다. 창호는 온돌방 전면에는 쌍여단이 세살문을, 청방간(廳房間)에는 4분합들문을 대청 배면에는 쌍여단이 골판문을 달았다.

구조는 시멘트 몰탈 마감한 기단 위에 다듬돌 원형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외진주(外陣柱)는 전부 두리기둥이고 내진주(內陣柱)는 모두 네모기둥이다. 기둥 상부는 뿔목을 끼워 그 위에 장혀와 도리를 결구(結構)하고 창방 위에 소로를 얹어 장혀와 도리를 받게 하였다. 건물의 상부가구는 대들보 위에 중보를 놓고 그 위에 원형판대공을 얹어 마루도리를 받게 한 5량가이다.

사당 정면 처마 밑에 ‘聾淵書堂’이란 편액이 있고, 또한 대청 북벽에 ‘계정유루(溪亭幽樓)’라는 미수전서체(眉叟篆書體)의 편액이 걸려 있다. 문중에서는 이 사당을 가리켜 ‘계정(溪亭)’으로 부르고 있는데 계정유루(溪亭幽樓)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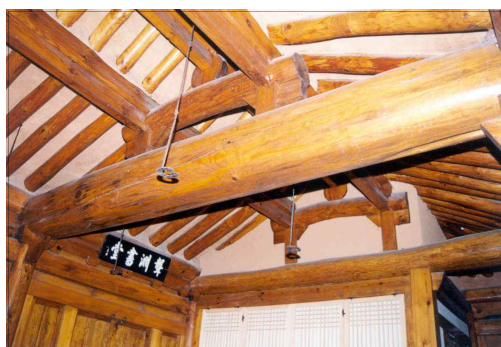
▲ 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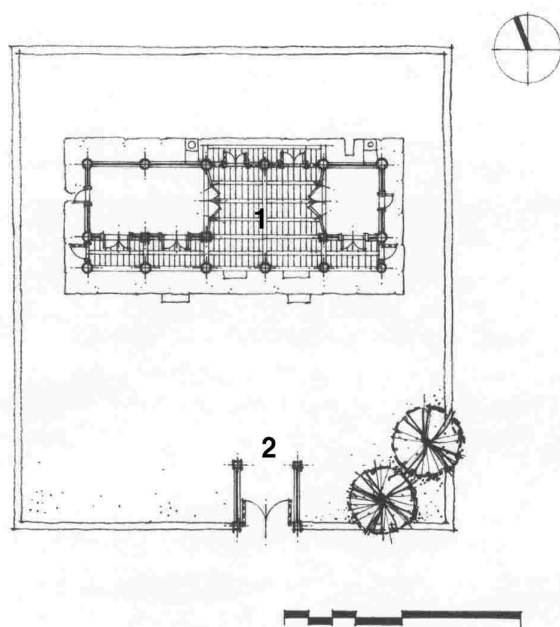
▲ 정면



▲ 배면



▲ 대청 상부가구



농연서당 배치평면도

54. 구경회주택 (具京會住宅)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631번지
- 건립년대 : 1921년
- 건축규모 : 정 침 - 정면 5칸 · 측면 1.5칸,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대구시 동구 용수동 631번지에 있는 이 가옥은 1921년 현 소유자의 조부가 건립한 것이다. 대지 125평에 정침과 행랑의 목조 와가 2동이 건립되었다. 정침 2칸(15.6평), 행랑 2칸(11.3평) 규모로 지어진 남향주택이며, 정침과 사랑채는 이자형(二字形)으로 배치되어 있고, 담장은 돌담이다. 현재 대청 앞쪽의 문은 전면적으로 개량한 것이며, 보존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 정면

55. 파계사 (把溪寺)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호(원통전),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7호(설선당)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8호(산령각),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9호(적묵당)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0호(진동루),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1호(기영각)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7번지
- 건립년대 : 1695년(원통전), 1696년경(기영각), 18세기(진동루, 적묵당, 설선당)
19세기(산령각, 응향각, 미타전, 극락전)
- 건축규모 :
 - ① 진동루 - 정면 5칸 · 측면 3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② 범종각 - 정면 3칸 ·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③ 적묵당 - 정면 6칸 · 측면 3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④ 설선당 - 정면 7칸 · 측면 3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⑤ 원통전 - 정면 3칸 · 측면 3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⑥ 기영각 - 정면 3칸 ·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⑦ 산령각 - 정면 1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⑧ 응향각 - 정면 3칸 ·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⑨ 미타전 - 정면 3칸 ·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⑩ 극락전 - 정면 5칸 · 측면 3칸,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동화사의 말사인 파계사의 창건연대에 관한 연혁을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에는 “寺之初創在新羅哀莊大王時 心地國師所建 其後重建與否 無可考”라 했다. 신라 · 고려시대에 있어서 이 절의 연혁을 알 수 있는 문적(文籍)은 거의 없다.

그러나 『파계사적기(把溪史蹟記)』에 의하면 신라 애장왕 5년(804) 심지국사(心地國師)가 창건하였고, 선조 38년(1605) 계관(戒寬)이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진 갯더미에서 원통전을 중건하였고, 광해군 14년(1621) 공현당을 건립하고, 인조 1년(1623)에 설선당을 지었고, 인조 4년(1626) 미타전을 짓고, 인조 24년(1667)에 설선당을 중건했다. 이처럼 계관(戒寬)은 창건 조사(創建祖師)와 같은 대공덕 중창조(大功德 重創祖)였다. 현종 6년(1667)에 영현도인(靈現道人)이 백화루를 중건했다.

파계사 삼창(三創)의 조사(祖師) 현응대사(玄應大師)는 파계사를 크게 중창한 고승이었다. 숙종 19년(1693) 현응이 숙종의 부탁에 따라 원자(元子)의 잉태를 기원하며 수낙산 성전(水洛山 聖殿)에서 지성껏 백일기도를 드린 결과 후일 영조대왕이 되는 원자가 태어났다고 한다. 이에 숙종은 현응의 공을 높이 사서 내탕금 삼천을 내어주어 칠불전 · 대법당 · 백화루를 짓게 하고 해마다 원자의 수복을 빌게 했다. 숙종 22년(1696)에 친제(親製)한 축책(祝冊)을 내려주어 원당(願堂)으로 삼았다.

숙종 30년(1704) 영조가 11살 때 “현응전(玄應殿)”이란 편액을 써내려 주었다. 원담(願沓)을 하사하여 불공의 수(需)로 삼게 했다. 영조가 종친부 당상시(堂上時)에 완문(完文)을 내려 주어 파계사를 종친부(宗親府)에 속하게 하고 관부의 잡역에 승려를 동원치 못하게 하고 양반 관아의 침탈로부터 보호되게 했다. 영조가 등극하고 난 후에는 정성왕후(貞聖王后, 英祖妃)의 원당(願堂)으로 삼았다.

영조 39년(1763) 수비(需費)와 완문(完文)을 내려 절을 짓게 하고 어의(御衣)와 도서(圖書) 완문(完文)을 내렸다. 이를 받드는 기영각과 만세문을 지었다. 영조 27년(1751)에 우의정 이의현(李宜顯)을 파견하여 기영각을 세워 영조의 생전 사후의 축수복(祝壽福)과 명복을 기원하는 축원당으로 삼았다. 여기에 영조 정성왕후(貞聖王后) 서씨 순조의 위패를 봉안했다.

파계사의 중수 사실을 보면 숙종 46년(1720)에 설원(雪元)과 각현사(覺賢師)가 백화루를 중건했으며, 순조 31년(1831)에 왕궁에서 내려준 돈과 회사로 미타암을 세웠다. 이때 순찰사 박기수(朴岐壽)가 성조도감(成造都監)을 맡았다. 이때 이 절이 국은을 입은 것은 현응의 도원력(道願力) 때문이었다.

철종 8년(1857) 계정상인(戒正上人)이 성전암을 보수하고 자웅전과 관음전을 보수하고 축성루를 창건했다. 철종 11년(1860)에 백화루를 중수할 때 왕비가 내탕금을 내려 주시고 안찰사(按察使) 홍우길(洪祐吉)에 특별히 유시하여 자재를 공급케 하고 앞서 철종 4년(1853)에 순원왕후(純元王后)가 내려주신 내탕전 一千혼을 합쳐서 비용으로 사용하고 경운(敬運)스님이 그 역사(役事)를 맡아서 했다. 그리하여 철종 12년(1861)에 준공했다.

고종 14년(1877) 순찰사 박제인(朴齊寅)이 기영각을 수리하고 고종 27년(1890)에 백화루를 중건했다. 광무 4년(1900)에 미타전을 개건하고, 광무 7년(1903) 겨울에 금당암이 화재로 타버렸다. 광무 9년(1905) 월주상인(月洲上人)이 축성루를 중수했다. 1914년 성전암이 산적으로 인하여 화재가 나서 이듬해 주지 장보령(張保寧)과 최관해(崔寬海)화상이 중건했다. 1918년 배용담(裴龍潭) 주지가 궁현당을 중건하고, 1922년 설선당을 중건했다. 1924년에 성전암 원주(院主) 반공산(潘公山)이 자웅전을 중수했다.

또한 1977년 6월 개금 불사(改金 佛事)때 원통전 관음보살 복장에서 영조의 어의(御衣)가 나와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파계사 입구에는 ‘대소인개하마(大小人皆下馬)’라 쓴 비가 서 있다. 이는 왕실 원당에 감히 말을 타고 못 들어오게 한 것이다. 조선후기 사원이 관아, 양반의 부역, 지묵(紙墨)의 공출 등 경제적 침탈과 사역에서 모면하기 위하여 왕실 원당으로 명맥을 유지하여온 좋은 예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100여평에 이르는 이층 누각인 진동루, 법당인 원통전 그 동쪽에 종무소로 사용되는 적묵당, 서쪽에 설선당이 口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원통전 뒤희에는 기영각과 산령각 그리고 응향각이 있고, 응향각 동북쪽에는 미타전이 있다. 응향각 오른쪽에 있는 계곡을 건너 오르면 별도의 공간에 극락전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 전각 중에서 원통전이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7호로, 설선당이 문화재자료 7호로, 산령각이 문화재자료 8호, 적묵당이 문화재자료 9호, 진동루가 문화재자료 10호, 기영각이 문화재자료 11호로 지정되어 있다. 부속 암자로는 미타암과 성전암이 있는데, 마타암에 명부전·금당암·칠성전이 있고 성전암에 자웅전이 있다. 이중 성전암에는 조선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현웅의 영정과 벽화가 있다.

● 진동루

진동루는 숙종41년(1715)에 창건되었다 전하며, 1970년 단청공사와 1976년 번와공사가 실시되었다. 이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이층 누각으로 겹처마 팔작지붕 집이다. 하층의 어칸에 누하 진입의 통로를 내고, 좌우 측간에 뒤에 각각 2칸씩의 창고를 배설하였다. 윗층은 통칸을 우물마루로 꾸몄다. 진동루는 이익공 양식의 건물로 기둥 위에는 주두를 두고 쇠서와 결구된 첨차, 소로 및 화반이 상부 하중을 받도록 했다. 가구는 5량가의 간결한 구조이나 건물의 규모에 비해 부재가 다소 약한 감이 있다. 창호는 근년 보수 때 모두 미단이 유리문으로 개체되었으며, 천장은 연등천장이다.

이 건물도 산령각처럼 조선 후기의 익공양식을 잘 보여준다. 진동루 우측에는 최근에 신축한 정면 3칸·측면 2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인 범종각이 자리잡고 있다.



▲ 진동루와 범종각

● 설선당

설선당은 인조1년(1623) 계관법사에 의해 창건되어 1646년·1725년 두 번의 중건과 1762년에 중궐(重葺)공사가 실시되었다고 전한다. 그후 1922년과 1973년 부분적인 보수공사가 실시되었으며 1976년 대수선되었다.

원통전 앞 중정의 좌측에 있는 이 건물은 ㄱ자형 평면을 구성한 겹처마 팔작지붕 집이다.



▲ 설선당 중정



▲ 설선당 정면

정면 좌측부터 부엌 2칸, 대중방 4칸, 지대방 1칸이 차례로 배치되고 지대방에서 ㄱ자로 꺾이어 부엌, 식당 3칸과 온돌방 1칸이 길게 돌출 되어 있다.

이 건물은 화강석 바른층 쌓기 기단 위에 고북초석을 놓고, 정면의 일곱개 기둥은 두리기둥으로 나머지는 네모기둥으로 처리하였다. 기둥 위에는 주두를 올려놓았다. 상부 가구는 5량가이며, 뒤틀마루와 방의 천장은 각 우물반자와 종이 반자로 꾸몄다. 단청은 모로단청을 올렸다. 설선당은 강습소로 사용되며, 구조양식과 가구수법 등이 간결하면서도 견실하다.

● 적목당

이 건물은 신라 애장왕5년(804) 창건되었다는 사전(寺傳)과 광해군12년(1620)에 창건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숙종21년(1695)에 중건되고 1920년 중창되었

으며 1976년 변화공사가 있었다.

설선당 맞은편에 있는 적묵당은 정면 6칸, 측면 6칸 규모의 ㄱ자형 건물로, 정면에만 부연을 구성한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정면 우측부터 부엌 1칸, 객실 4칸, 사무실 1칸이 배치되고, 사무실에서 ㄱ자로 꺾이어 보칸 2칸, 도리칸 1칸반의 마루와 2칸 온돌방이 달려 있다.

화강석 바른층 쌓기 한 기단 위에 정면 7주만 화강암 정평 초석 위에 두리기둥을, 그리고 나머지는 막돌 덩벙 주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사용했다. 구조는 기둥 위에 주두를 놓고 둥근도리와 장혀를 받도록 한 굴도리 장혀수장 집이다. 정면에만 기둥 사이의 창방 위에 소로를 놓아 건물의 격을 높였다. 상부가구는 5량가이다.

이 건물은 종무소와 객실로 사용되는 소박한 조선 후기의 건축이다.



▲ 적묵당 정면



▲ 적묵당 배면

● 원통전

원통전은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선조38년(1605)에 계관법사(戒寬法師)가 중건하고 숙종21년(1695)에 현응조사(玄應祖師)가 다시 고쳐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원통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겹처마 박공지붕 집이다. 가구식 기단 위에 막돌 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기둥 위에 평방을 두고 거기에 주두와 좌두를 놓고 그 위에 첨차와 소로로 포를 짜고 2제공의 양서를 둔 내외 2출목의 공포를 구성하였다.

쇠서의 모양은 만곡이 다소 강한 조선후기 양식이다. 공포를 정면과 배면에만 두고, 좌우 측면에는 두지 않았다. 컷기둥에는 귀솟음을 두었고, 가구는 1고주 5량가로 내진 고주 사이에 토벽을 치고 그 앞에 불단을 설치하였다.

불단은 영천 은혜사 백홍암의 수미단과 같은 형태로 정교하게 조각된 것으로 관세음보살상을 모셨다. 불단의 상부에는 보개(寶蓋)를 설치하고 천장을 우물반지로 마감하였다.

원통전 정면 3칸에 각각 4분합 여단이 곱넉띠살문을, 좌우 측면의 첫째 칸에 곱히 3분합 여단이 곱넉띠살문을 달았다. 건물 배면에는 어칸에만 외여단이 곱넉띠살문을 시설하였다.

원통전은 다포양식에 주심포계의 구조양식이 절충된 건물로 대웅전과 함께 조선후기 절충양식의 중요한 실례이다.



▲ 원통전 정면



▲ 원통전 배면

● 기영각

기영각은 숙종35년(1696)경 현웅조사가 성전암과 더불어 건립하였다고 전해지며 1974년과 1983년, 두 번에 걸친 보수공사가 실시되었다.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주심포계 익공양식의 겹처마 팔작지붕 집이다. 화강석 바른층 쌓기 기단 위에 막돌 덩벙주초를 놓고 배흘림이 있는 두리기둥을 세우고 기둥 상부에는 연봉(連棒)과 봉두(鳳頭) 등을 조각한 만곡이 심한 쇠서를 두었다. 주심도리와 장혀는 주두의 침차와 소로 및 주간에 놓인 화반과 소로가 받는다. 외목도리와 장혀는 익공쇠서 위에 놓인 소로와 침차가 받고 있다. 건물 바닥은 우물마루로 꾸미고 상부 천장에는 우물반자를 시설했다. 건물안 뒤벽 앞에 불단을 두고 불상을 모셨으며 뒤벽 위에는 탕화가 걸려 있다.

기영각은 주심포계 건물로 주두의 장식이 번잡하게 발달한 조선후기 공포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기영각 일곽



▲ 기영각

● 산령각

산령각의 창건년대는 미상이며 1976년 중창되고 1979년 보수되었다. 산령각은 원통전 뒤편 좌측에 석축으로 별도의 대지를 조성하고 지었다. 이 건물은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겹처마 박공지붕 집이다.

구조는 화강석 정평 초석 위에 배흘림이 있는 두리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주두와 앙서, 봉두를 둔 초익공양식이다. 정면의 불단을 배설하고 불상을 모셨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이며, 천장은 우물반자로 마감했다. 건물 내 외부에는 금단청을 올렸다.

조선후기의 번잡한 장식수법을 읽게 하는 익공계 건물이다.



▲ 산령각



▲ 미타전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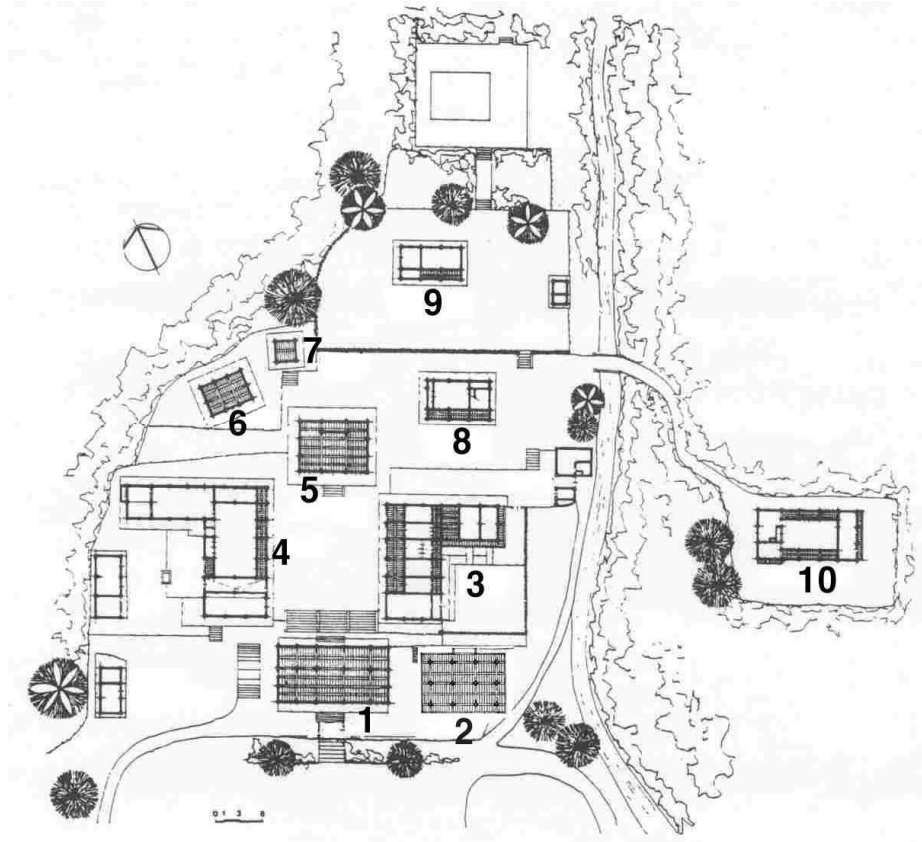
▲ 미타전 측면



▲ 응향각



▲ 일광동조



파계사 배치평면도

56. 성전암 (聖殿庵)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7번지
- 건립년대 : 1915년(큰방채), 1979년(관음전, 독성각, 요사채)
- 건축규모 :

- ① 관음전 - 정면 3칸 · 측면 2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② 독성각 - 정면 1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③ 큰방채 - 정면 5칸 · 측면 3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④ 요사채 - 정면 4칸 · 측면 1.5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⑤ 요사채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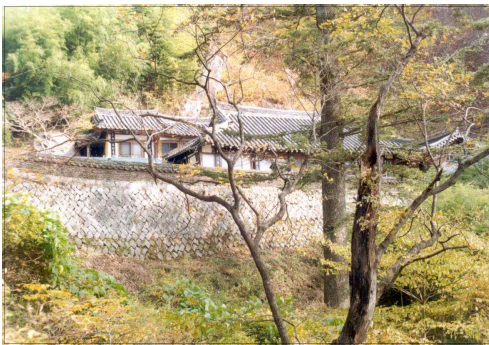
- 건축연혁 및 현황 :

파계사의 속암(屬庵)으로 현응대사(玄應大師)가 창건했다고 하나 확실치 않으며, 철종 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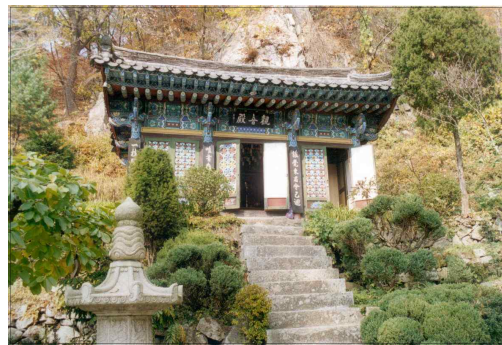
(1857) 계정상인(戒正上人)이 수보(修補)하고, 1915년경에 중건하였다.

과계사에서 좌측으로 100m가량을 가면 현웅대사의 암자가 있고, 성전암은 여기서 다시 북으로 1km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다. 산허리에 석축을 높게 쌓아 사역(寺域)을 조성하였는데, 절 입구에 들어서면 좌측에 4칸 규모의 요사가 동북향으로 앉아 있고, 이 요사 우측에는 관음전의 동쪽에 정면 5칸 측면 2칸의 큰방채가 남동향하고 있다.

큰방채 왼편 뒤에 1칸 규모의 독성각이, 오른편에 정면 4칸의 요사가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 전각배치는 정연하지 않고 질서가 없는 편이다.



▲ 전경



▲ 관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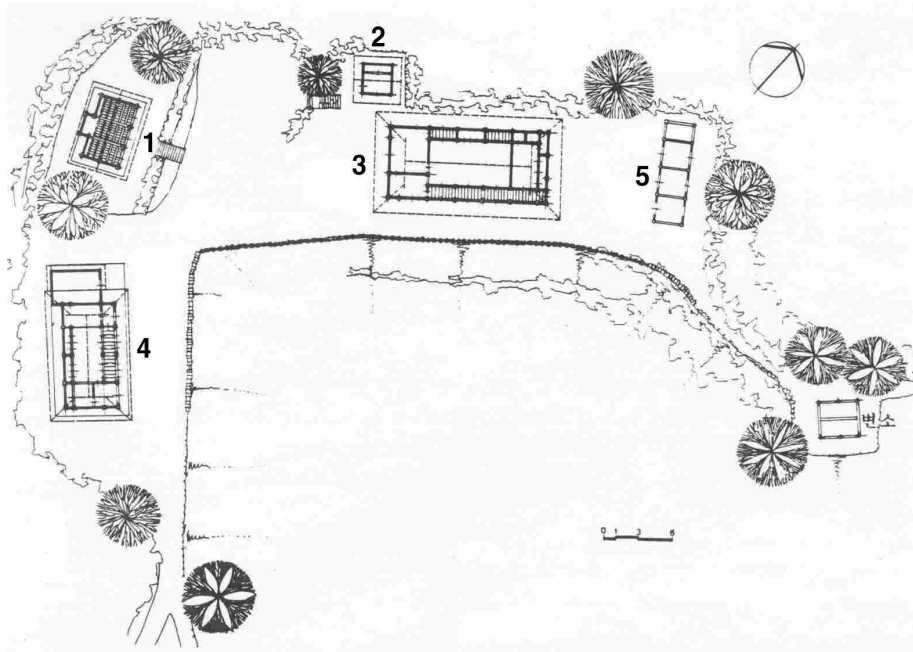
▲ 요사채 일곽



▲ 요사채

주요 건물인 관음전은 다듬은 돌 초석 위에 두리기둥을 세운 겹처마의 팔작지붕집이다. 가구는 3량가의 간결한 구조로 대들보 위에는 충량을 걸어 상부 하중을 받게 하고, 천장은 연등천장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독성각은 정면 1칸·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고 큰방채는 정면 5칸·측면 3칸 규모로 홑처마, 팔작지붕을 얹었다.

사역의 최우측에 자리잡고 있는 요사채는 정면 3칸·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고 관음전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는 요사채는 정면 4칸·측면 1.5칸 규모의 홑처마, 팔작지붕 집이다.



성전암 배치평면도

57. 원감재 (遠感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송정동 628번지
- 건립년대 : 1917년
- 건축규모 : 일곽(2동)
 - ① 재 실 - 정면 3칸 · 측면 1.5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② 대문채 - 정면 2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동구 송정동 628번지에 자리하고 있는 원감재는 기록에 의하면 의정부(議政府) 참찬(參贊)을 지낸 이산명(李山明)을 모신 경주이씨의 재실로 1915년에 건립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개국오백이십육년정사(開國五百二十六年丁巳)이월십구일계축사시수주상량(二月十九日癸丑巳時豎柱上樑)”이란 상량문의 내용으로 볼 때 이 건물은 1917년에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재실은 토석(土石)담장으로 둘러싸인 일곽의 우측 모퉁이에 난 2칸 대문을 들어서면 마당을 앞에 두고 남서향하고 있다. 정면 3칸 · 측면 1.5칸 규모의 일자형(一字形) 건물로 홑처마 팔작지붕을 이었다.

평면은 좌측에는 2칸 온돌방을, 우측에는 1칸 대청을 들였다. 온돌방 전면에는 반칸 규모의 퇴칸을 두었으며 좌측 2칸 온돌방은 실내에 네짝미서기문을 달아 분리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대청 배면에는 쪽마루를 놓았으며 2칸 온돌방 중 좌측칸에만 벽장을 시설하였다.

창호는 온돌방 전면에는 쌍여닫이 세살문을, 청방간(廳房間)에는 정사각형 불발기를 단 쌍여닫이 정자살문을, 대청 배면에는 쌍여닫이 골판문을 달았다.

구조는 시멘트 몰탈 마감한 기단 위에 다듬돌 원형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전면 퇴칸 기둥은 두리기둥이고 나머지는 모두 네모기둥이며 가구는 3랑가이다.



▲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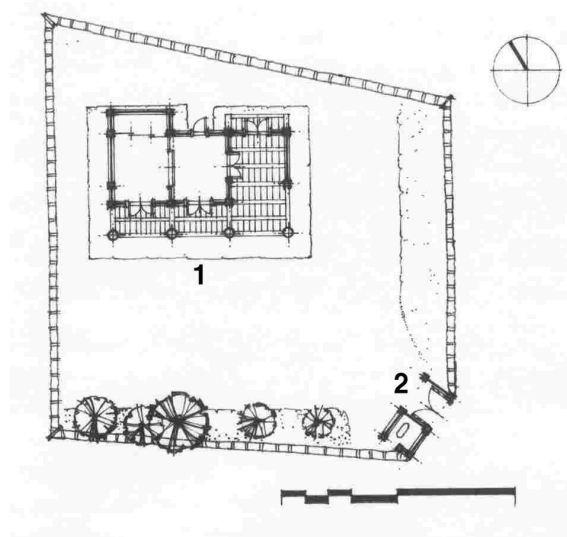
▲ 대청



▲ 배면



▲ 대문



원감재 배치평면도

58. 이경우주택 (李景雨住宅)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송정동 600번지
- 건립년대 : 1905년
- 건축규모 : 일곽(3동)
 - ① 안채 - 정면 4칸 · 측면 1칸, 흙처마, 팔작지붕
 - ② 아래채 - 정면 4칸 · 측면 1칸, 흙처마, 팔작지붕
 - ③ 고방채 - 정면 4칸 · 측면 1칸, 처마, 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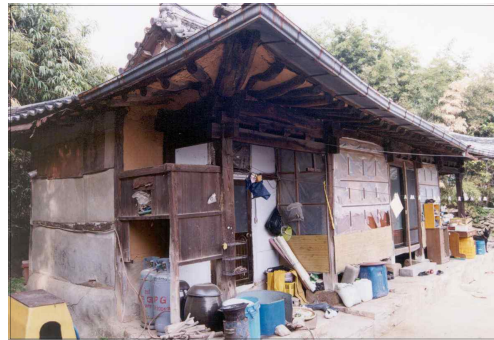
이 집은 1905년에 현 소유자 이경우씨의 2대조 이규철(李奎哲)씨가 건립한 후 3차례의 중수가 있었으며, 백석군의 집이었다 한다.

안채 · 아래채 · 고방채 3동이 뜰 門형을 이루면서 동남향하고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안마당 건너 안채가 앉아 있고 그 앞에 아래채와 고방채가 안마당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안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규모와 평기와를 올린 와가이다. 좌로부터 부엌 · 안방 · 마루 · 건너방이 차례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남부지방형 평면구성이다. 제법 큰 막돌 외벌대 기단 위에 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운 간단한 3량가이다. 채목이 가늘고 치목수법이 견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건축적 특성이 없다.



▲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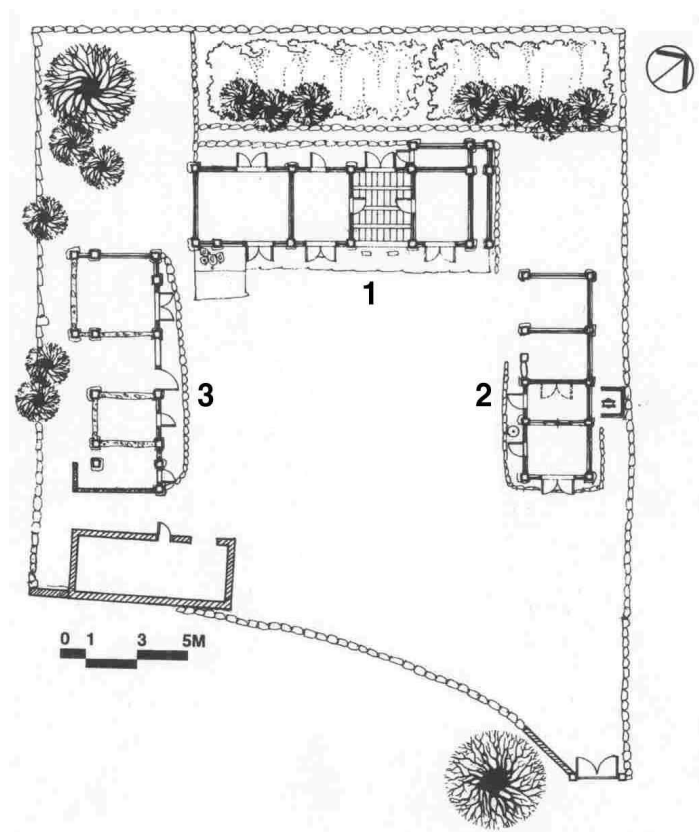
▲ 안채

아래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남서향 건물로 오른쪽으로부터 온돌방 2칸 · 외양간 · 방아간이 연결되어 있다. 막돌 외벌대 기단 위에 네모기둥을 세운 간략한 3량가이다.

고방채는 정면 4칸반, 측면 1칸으로 왼쪽부터 온돌방 · 헛간 · 고방이 차례로 놓여있고, 왼쪽 온돌방에 붙여 닭집을 두었다. 구조는 간단한 3량가이다.



▲ 아래채



이경우주택 배치평면도

59. 효행각 (孝行閣)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덕곡동 706번지
- 건립년대 : 1894년
- 건축규모 : 정면 1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효행각은 동구 덕곡동 706번지에 있는 건물로 사헌부 감찰을 지낸 우원도(禹元度)의 공적과 효행을 기려 고종 31년(1894)에 건립한 것이다.

이 건물은 단칸 규모로 대지 내에 동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대지 주위는 시멘트 블록으로 담장을 쌓아 공간을 구획하였다.

효행각의 구조는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원주를 세웠으며 기둥 상부는 이익공으로 장식하였다. 상부구조는 3량가의 가구를 결구한 후 겹처마를 올리고 맞배 기와지붕을 이었는데 박공 양측면에는 풍판을 설치였으며 내·외부에는 모루단청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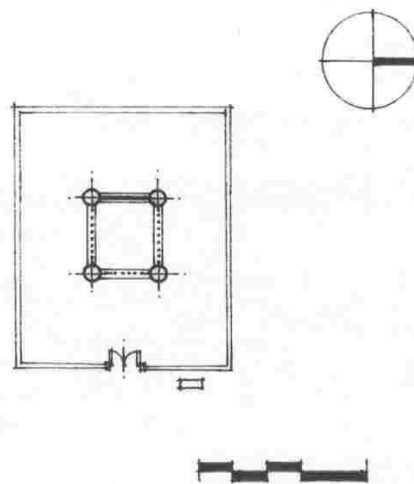
현재 건물은 관리가 매우 소홀하여 전면 홍살창이 파손되고 지붕의 기와가 허물어지는 등 매우 퇴락한 상태이므로 적절한 보존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 정면



▲ 배면



효행각 배치평면도

60. 침모재 (瞻慕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산7번지
- 건립년대 : 1982년
- 건축규모 : 일곽(2동)

① 재 실 - 정면 5칸 · 측면 1.5칸, 겹처마, 팔작지붕

② 대문채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산7에 소재한 침모재는 달성서씨 문중에서 현감(縣監) 서휘제(徐諱濟)공을 봉향하기 위해 1982년 10월에 건립하였다. 이 재실은 3칸의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마당을 앞에 두고 남서향하고 있다. 정면 5칸 · 측면 1.5칸 규모의 일자형(一字形) 건물로 겹처마 팔작지붕을 이었다.

평면은 가운데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2칸 온돌방을, 우측에는 1칸 온돌방을 들었다. 온돌방과 대청 전면에는 반칸 규모의 퇴칸을 두었으며 좌측 온돌방 1칸과 대청 배면에는 쪽마루를 놓았다. 전면 퇴칸의 여모중방 하부에는 붉은 벽돌로 막았으며 2칸 온돌방 중 좌측칸에만 벽장을 시설하였다.



▲ 전경



▲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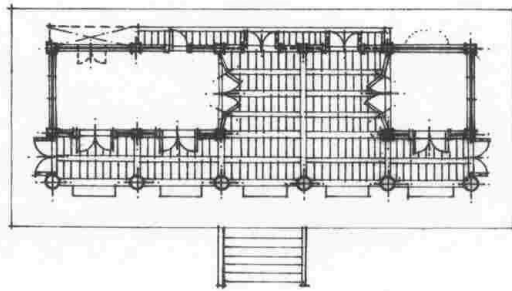
▲ 대청



▲ 대청 상부가구

창호는 온돌방 전면에는 쌍여닫이 세살문을, 청방간(廳房間)에는 팔각형 불발기를 단 사분합들문을, 대청 배면에는 쌍여닫이 골판문을 달았다.

구조는 약 1미터 높이의 기단 위에 둥근 화강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다. 기둥 상부는 팽목을 끼워 그 위에 장혀와 도리를 결구(結構)하고 창방 위에 소로를 얹어 장혀와 도리를 받게 하였다. 건물의 상부가구는 대들보 위에 중보를 놓고 그 위에 제형판대공을 얹어 마루도리를 받게 한 5량가이다.



첨모재 평면도

61. 표충사 (表忠祠) · 표충재 (表忠齋)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1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526번지 일대
- 건립년대 : 1888년
- 건축규모 : 일곽(7동)
 - ① 외삼문 - 정면 3칸 · 측면 1칸, 흙처마, 맞배지붕
 - ② 동재 - 정면 3칸 · 측면 1.5칸, 흙처마, 맞배지붕
 - ③ 서재 - 정면 4칸 · 측면 1칸, 흙처마, 맞배지붕
 - ④ 표충재 - 정면 4칸 · 측면 1.5칸, 흙처마, 맞배지붕
 - ⑤ 비각 - 정면 1칸 · 측면 1칸, 흙처마, 맞배지붕
 - ⑥ 내삼문 - 정면 3칸 · 측면 1칸, 흙처마, 맞배지붕
 - ⑦ 표충사 - 정면 3칸 ·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후삼국 시대 왕건과 견훤이 공산 숲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인 공산전투는 대구지방을 무대로 한 큰 전투의 하나였다. 이 전투에서 장렬하게 숨진 고려 명장 신숭겸의 충절은 갖가지 뒷이야기를 남기면서 주민들의 생활 속에 파고들었으며, 특히 충과 효를 최고의 가치로 삼기던 당시 사람들에게 그는 충의 귀감처럼 보였다.

동구 지묘동 526번지에 있는 표충재(表忠齋) · 표충단(表忠壇) · 충렬비(忠烈碑) ‘고려태사

장절신공영각유허비(高麗太師壯節申公影閣遺墟碑)’는 공산전투의 주인공이라 할 신숭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지금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 1호로 지정되어 있다. 원래 신숭겸의 전사지인 이곳에 지묘사를 세워 그의 영혼을 모셔왔으나 고려 말 나라가 어수선했기 때문에 개국공신을 모셨던 지묘사나 미리사는 관심이 줄어 폐사(廢寺)가 되고 말았다.

그 후 경상도 관찰사로 신숭겸의 후손인 신기(申耆)가 취임하게 되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되고 순조 32년(1832) 승정원 도승지로 있던 신정위(申正緯)가 비문을 찬(撰)하여 ‘영각유허비(影閣遺墟碑)’를 세우게 하고 헌종 14년(1848) 12월 유럽에서 비(碑)를 보존하기 위하여 비각을 세운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표충사는 일명 표충서원이라 불리어지면서 단을 수호하여 오다가 고종 9년(1817) 훼손되어, 후손이 고종 22년(1884) 영남제종(嶺南諸宗)에 구재(鳩財)하여 표충사 옛터에 기공하고 고종 26년(1888)에 2칸 대청과 동·서재를 건축하여 표충재라 편액하였다.

건물의 배치는 2단으로 조성된 대지에 외삼문(外三門), 표충재, 내삼문(景義門), 사당(표충재)을 일축선상에 둔 전재후묘형(前齋後廟形)이다.

즉 경역 남쪽 담장 중앙에 난 외삼문 정면에 표충재가 자리잡고, 표충재 앞 중정을 사이에 두고 그 좌우에 동·서재(東·西齋)가 마주 보고 배치되어 튼 口자형을 이룬다. 그리고 표충재 북측에 난 내삼문(景義門)을 들어서면 최근에 신축한 표충사가 자리잡고 있다. 또한 표충재 우측에는 별도의 담장으로 구획한 방정(方正)한 일곽에 ‘충렬비(忠烈碑)’ 비각이 자리잡고 있다.

표충재는 남향한 정면 4칸·측면 1칸반의 건물로, 평면은 중앙에 2×1.5칸의 대청을 두고, 좌우에 각 1칸의 온돌방을 꾸민 ‘중당협실형(中堂夾室形)’이다. 건물 전·후면에는 반칸 폭의 퇴칸을 두고 마루와 벽장을 시설하였다.

구조는 막돌 네 벌대 기단위에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전면 기둥 5주(柱)만 두리기둥이고 나머지는 모두 네모기둥이다. 지붕틀은 대들보 위에 짧은 동자주를 놓아 중보를 받고, 그 위는 제형판대공으로 마루도리를 받는 일반적인 수법이다. 지붕은 홑처마에 맞배지붕으로 좌우 양끝에 풍판을 달았다.

동재는 정면 3칸·측면 1칸반으로 각 1칸과 2칸의 온돌방을 두었으며, 방 앞에 전퇴를 두고 마루를 깔았다. 서재는 정면 5칸·측면 1칸으로, 중앙에 온돌방 2칸을 두고 좌우에 각각 부엌과 제기고(祭器庫)가 연결된다. 그리고 온돌방 앞에만 툇마루를 시설하여 출입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 건물의 부엌과 제기고에는 판문을 달아 놓았다. 두 건물 모두 간단한 3량가로 낮은 막돌 기단 위에 초석을 놓고 네모 기둥을 세워 대들보를 받았다. 대들보 위에는 키 큰 동자주를 놓아 마루도리를 받게 하였다. 지붕은 홑처마에 맞배지붕이다.

외삼문은 정면 3칸·측면 1칸의 솟을삼문으로, 중앙칸에 대문을 내고 좌우에 각각 문간방을 두었다. 구조는 일반적인 수법의 간단한 3량가의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내삼문(景義門)도 정면 3칸·측면 1칸의 솟을삼문으로 문짝에는 태극문양을 새겼으며 화려한 단청을 올렸다. 구조는 간단한 3량가의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표충사(表忠祠)는 정면 3칸·측면 2칸으로 전면에 반칸의 전퇴를 구성했으며 실내는 통칸으로 신승겸 장군의 영정을 봉안하였다. 표충사는 겹처마 팔작지붕을 이었으며 건물 전면(全面)에 화려한 단청을 올렸다.

표충재와 표충재는 근년에 시행된 대대적인 보수·정화 공사로 깨끗하게 새로 단장되면서 고색(古色)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각 건축물의 건축사적(建築史的) 가치는 별로 없다. 전반적으로 새로 중건한 느낌이 강하다.



▲ 신승겸장군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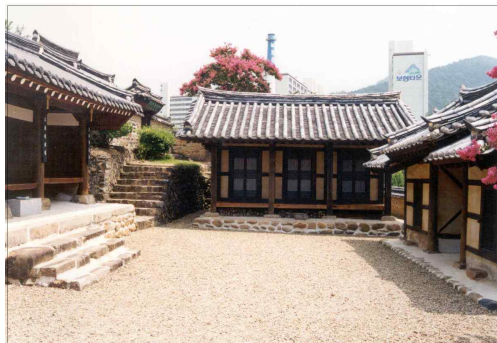
▲ 표충재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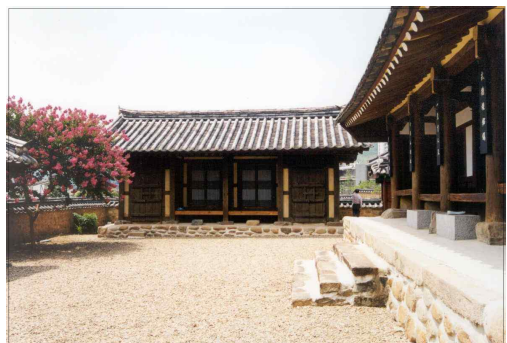
▲ 표충재 배면



▲ 표충재 대청 상부가구



▲ 표충재 동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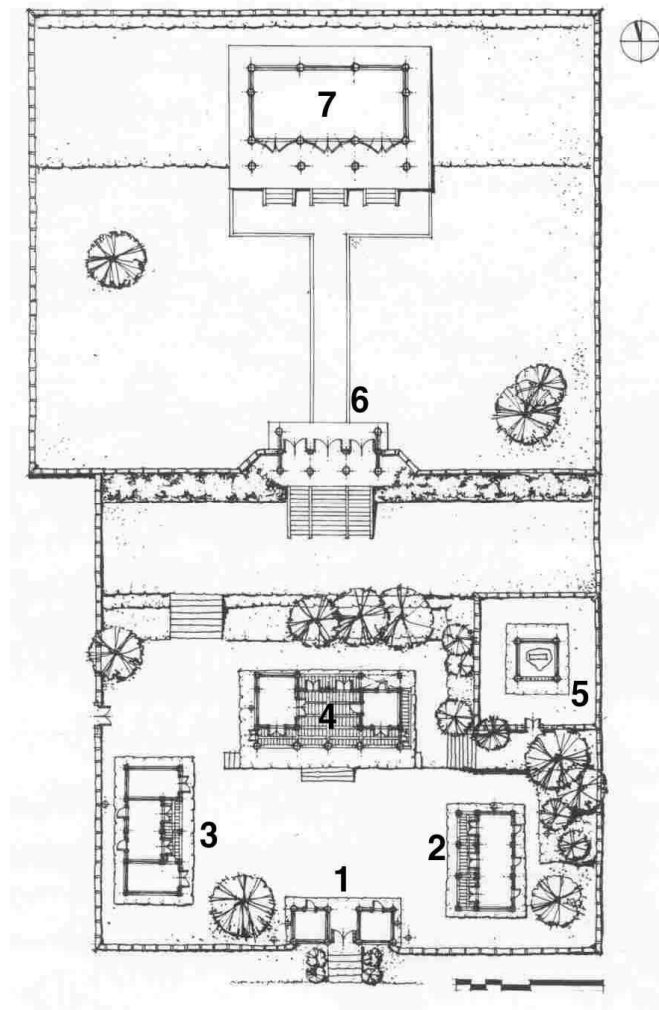
▲ 표충재 서재



▲ 표충사 내삼문



▲ 표충사 전면



표충재 · 표충사 배치평면도

62. 삼충사 (三忠祠)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776-4번지
- 건립년대 : 1820년경
- 건축규모 :
 - ① 비 각 : 정면 1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② 재 실 : 정면 3칸 · 측면 1.5칸, 겹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삼충사는 대구시 지묘동 776-4번지에 있다. 삼충사는 경주최씨 일가 삼충(三忠)인 한천(寒川) 최인(崔認), 태동(台洞) 최계(崔誡), 우락재(憂樂齋) 최동보(崔東輔) 삼숙질(三叔姪)이 임진왜란에 창의를하여 혁혁한 전공을 수립한 업적을 찬양한 충의사적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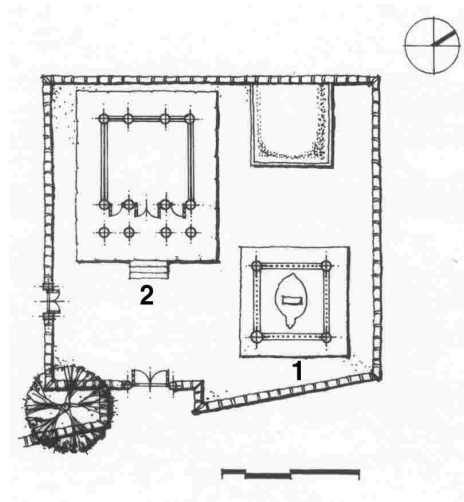
무진년(1808)년에 영남관찰사 윤광안(尹光顔)이 최씨일실삼현의 창의사실을 임금께 아뢰니 임신년(1812)에 한천 최인을 사헌부지평에, 태동 최계를 병조참판에, 우락재 최동보를 호조참판에 추증하였다.

비문은 대사간 풍산인(豊山人) 유태좌(柳台佐)가 찬(撰)하고 호조좌랑 진성인(眞城人) 이휘령(李彙寧)이 서(書)하였다.

비각 건물은 그동안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이축(移築)·보수(補修)하였다. 현재 삼충사 비각과 묘실이 있으며, 113평의 대지에 2칸 규모의 건물이다. 담장은 시멘트 블록으로 축조하였다.



▲ 삼충사 전면



삼충사 배치평면도

63. 채종서주택 (蔡鍾瑞住宅)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146번지
- 건립년대 : 사랑채 - 19세기 말, 안채 - 1920년
- 건축규모 : 일곽(4동)
 - ① 사랑채 - 정면 4칸 ·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② 안채 - 정면 5칸 · 측면 1.5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③ 아래채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모임지붕
 - ④ 고방채 - 정면 4칸 · 측면 1칸, 홑처마, 모임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집은 120여년전 채병조(蔡炳祖)씨가 건립하였다 한다. 그러나 안채 대청 상부에 적힌 “상원경신삼월십사일경신진시수주상량(上元庚申三月十四日庚申辰時豎柱上樑)”이란 내용으로 볼 때 안채는 사랑채 보다 늦은 1920년에 건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랑채 앞쪽에 있던 대문채를 헐고 그곳에 돌담을 쌓고 그 대신 사랑채 우측 모서리쪽 담장을 일부 철거하여 트임대문으로 이용하고 있다. 트임대문을 들어서면 마주한 사랑채와 그 뒤편의 안채와 아래채 · 고방채가 튼 口자형을 이루면서 동남향하고 있다.



▲ 전경



▲ 전경

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와가이다. 전면에 퇴칸을 들이고 그 뒤쪽에 각각 서고와 2칸 온돌방 및 대청을 두었다. 맨 좌측에는 뒷마루 보다 단을 한 단 높이 누마루를 만들고 관수헌(觀水軒)이라 편액하였다.

막돌허튼층 쌓기한 세벌대 기단 위에 네모기둥을 세운 5량가로, 충량위에 외기(外機)를 짜고 우물반자를 설치하고 홑처마에 팔작지붕을 얹었다. 이 사랑채는 전체적으로 19세기말 양반가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사랑채에 걸려있는 구강당(九岡堂)이란 당호는 소유자의 부친인 채만기씨의 글씨이다.



▲ 사랑채 전면



▲ 사랑채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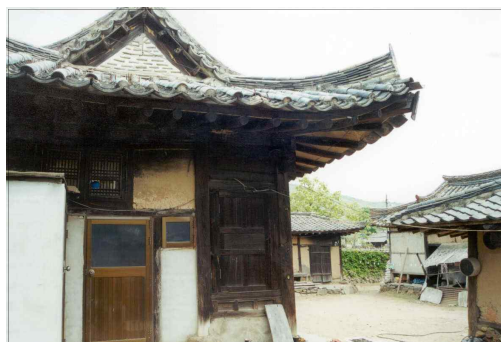


▲ 사랑채 누마루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1칸반 규모의 와가로, 좌로부터 부엌·온돌방·대청·옷방이 병렬로 연결되었다. 앞쪽에는 반칸 규모의 퇴칸에 개방된 마루를 시설하였다. 이 집은 부엌을 전면에 두지 않고 뒷마루 뒤에 시설하고 부엌 출입을 위한 부엌문을 건물의 측면에 내었다. 이는 19세기말 주거에서 더러 찾아 볼 수 있는 예이다. 건물은 막돌허튼층 쌓기한 세벌대기단 위에 네모기둥을 세운 5량가로, 종량 위에 높은 제형판대공을 세우고 마루도리를 받게 했으며, 전반적으로 부채가 넉넉하고 결구가 견실하다.



▲ 안채



▲ 안채 측면 부엌



◀ 안채 대청 상부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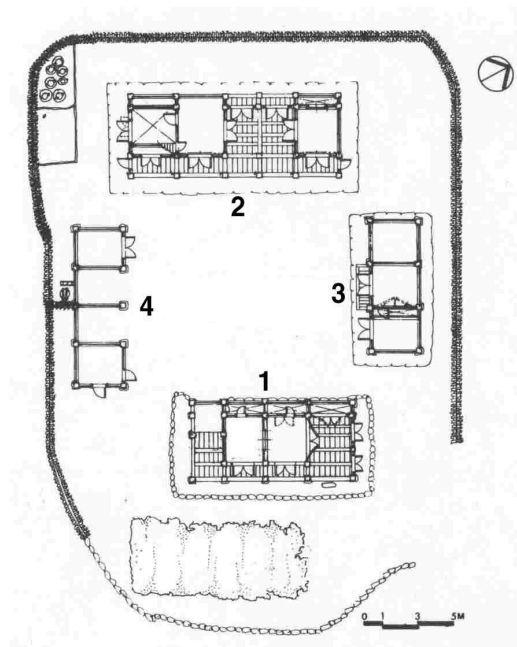
안마당의 좌우에 마주보고 배치된 아래채와 고방채 중 아래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가운데 온돌방을 그 좌우에 각각 뒤주와 부엌을 두었다. 고방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으로 가운데 2칸 헛간을 두고 그 좌우에 방과 고방을 배설했다.



▲ 아래채



▲ 고방채



채종서주택 배치평면도

64. 원모재 (遠慕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25-9번지
- 건립년대 : 1955년
- 건축규모 : 정면 4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원모재는 대구시 동구 지묘동 25-9번지에 있는 재실로 경주최씨 문중에서 건립한 것이다. 현재의 건물은 대청 마루도리에 새겨진 “단기사천이백팔십팔년을미윤삼월십이일갑자인수주상량(檀紀四千二百八十八年乙未閏三月十二日甲子印豎柱上樑)”이란 상량문의 내용으로 보아 1955(乙未年)년에 중건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모재는 방형의 대지에 동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일자형(一字形) 건물로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홑처마 맞배기와 집이다.



▲ 전경



▲ 정면



▲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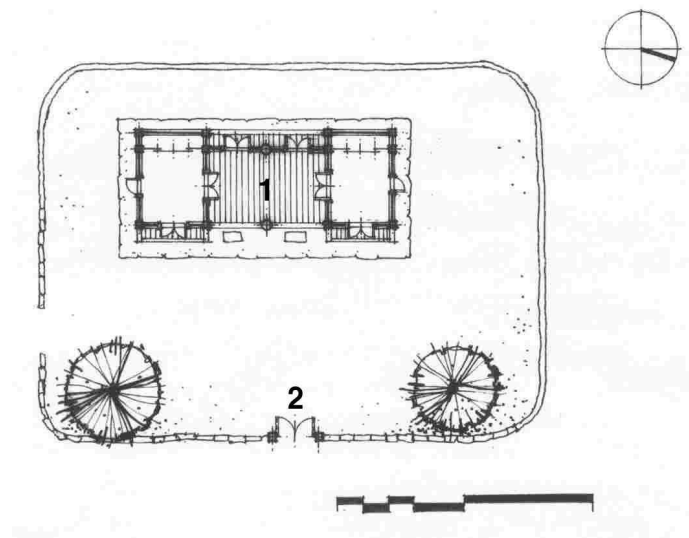


▲ 대청 상부가구

평면은 어칸의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1칸씩 들였으며, 온돌방 전면과 대청 배면에는 쪽마루를 시설하고 온돌방 배면에는 벽장을 꾸몄다.

구조는 막돌쌓기한 낮은 기단 위에 막돌로 된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대청 가운데 기둥만 원기둥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네모기둥으로 구성하였다.

상부구조는 3량가로 대들보 위에 대공을 얹어 마루도리를 받게 하였다. 원모재는 보존상태는 양호하나 재실건축으로서의 별다른 특징은 없다.



원모재 배치평면도

제2절 북구지역

북구지역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정문화재 2건을 포함한 총 16건의 전통건축물을 분석·기록하였다.

지 역	용 도								합계	지정 문화재
	주거	불사	재사	정자	정사	서원 향교	비각 여각	기타		
북구지역	2	1	6	1	1	2	3	-	1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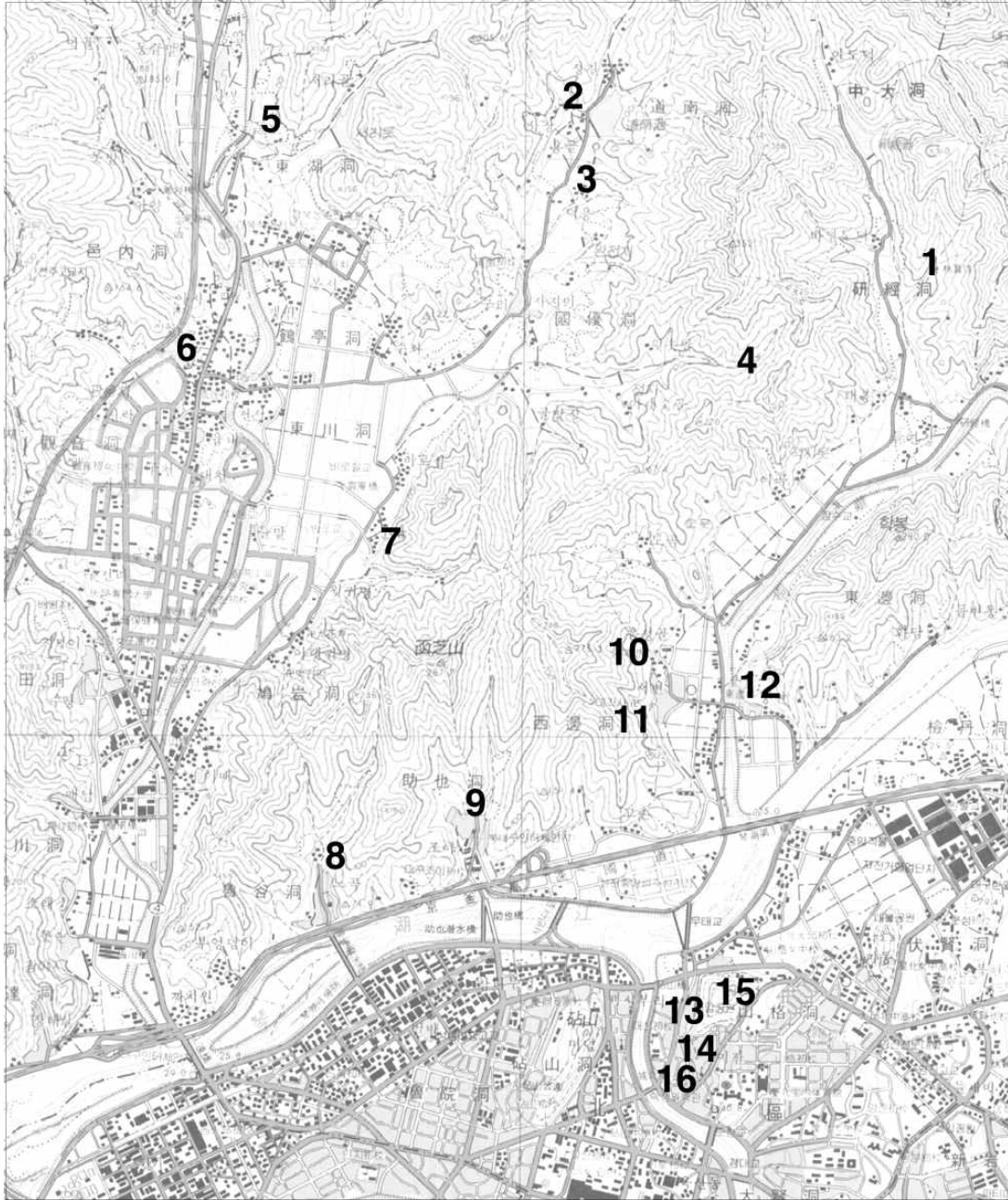
본 보고서에 최종 수록된 16건의 건축물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재사가 가장 많은 6건이며 여각이나 비각이 3건, 주거와 서원이 각각 2건이다.

북구지역은 최근 대구시역이 확장되면서 전통 고 건축물의 훼손이나 개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향후 적절한 보전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북구지역 조사대상 고 건축물 목록

연번	건물명	지정종별	건립년대	소재지
1	반야사	비지정	1950년	북구 연경동 336번지
2	유화당	비지정	1744년	북구 도남동 362번지
3	창열각	비지정	1932년	북구 도남동 623-3번지
4	도남정사	비지정	1899년	북구 국우동 415번지
5	도산재	비지정	1852년	북구 동호동 373번지
6	칠곡향교	대구 문화재자료 제6호 (대성전)	1642년 초창	북구 읍내동 600번지
7	이인술주택	비지정	1905년	북구 구암동 307번지
8	태충각	비지정	1900년	북구 노곡동 204번지
9	김화엽주택	비지정	철거	북구 조야동 127번지
10	환성정	비지정	1971년	북구 서변동 881번지
11	송계당	비지정	1960년	북구 서변동 1111번지
12	능성구씨 화수 정	비지정	신축	북구 동변동 234번지
13	서명보 효자각	비지정	1802년	북구 산격동 878번지
14	용담재	비지정	1888년	북구 산격1동 878번지
15	구암서원	대구 문화재자료 제2호	1994년 이건	북구 산격동 산79-1번지
16	체화당	비지정	1959년	북구 산격동 913번지

○ 북구지역 조사대상 고 건축물 위치도



1. 반야사 (般若寺)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336번지
- 건립년대 : 1950년
- 건축규모 : 정면 3칸 ·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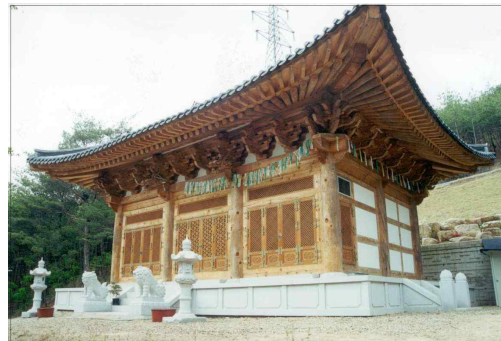
반야사는 대구시 북구 연경동 336번지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로 원래 임보사(林寶寺)란 이름으로 창건하였다가 반야사(般若寺)로 이름을 바꾸었다. 파계사에서 좌측으로 약 2km를 간 오른쪽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이 절은 1950년에 지은 것으로 당시 반야사는 이익공 팔작지붕의 극락전과 초익공 맞배지붕의 산신각 2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모두 시멘트벽으로 마감한 조잡한 건물이었다.

그러나 최근 구 건물을 헐고 정면 3칸 · 측면 2칸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였다. 신축 건물은 겹처마, 팔작지붕을 이은 다포양식의 건물이다.



▲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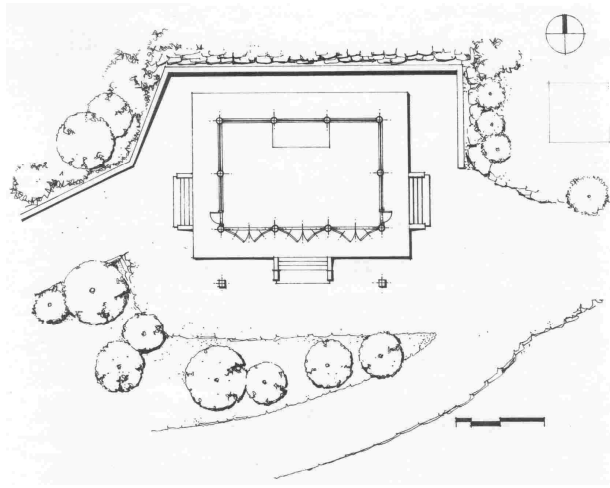
▲ 극락전



▲ 배면



▲ 기둥상부 공포



반야사 배치평면도

2. 유화당 (有華堂)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362번지
- 건립년대 : 1744년
- 건축규모 : 일곽(2동)
 - ① 유화당 - 정면 4칸 · 측면 1.5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② 대문채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유화당은 인천 이씨(仁川 李氏)의 제묘각(祭墓閣)으로 현 소유자 이종상(李種商)의 5대조 해준(海準)이 1744년에 건립한 목조 와가이다. 이들은 임진왜란 때 소유자의 10대조가 광재 우 장군과 더불어 왜적과 싸우다 순절한 후 그의 유언에 따라 이 마을에 피난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고 한다.

유화당은 방형을 이루고 있는 일곽의 담장 정면 중앙부에 나있는 3칸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마당을 앞에 두고 남서향하고 있다. 정면 4칸 · 측면 1.5칸 규모의 일자형(一字形) 건물로 홑처마 팔작지붕을 이었다.

평면은 2통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 · 우측에 온돌방 1칸씩을 두었다. 대청과 온돌방 전면에는 반칸 규모의 퇴칸을, 대청 배면부에는 쪽마루를 놓았으며 좌 · 우측 온돌방 배면에는 벽장을 시설하였다. 창호는 온돌방 전면에는 미서기 세살문을, 우측 청방간(廳房間)에는 팔각형 불발기를 단 삼분합 들문을, 대청 배면에는 쌍여단이 골판문을 달았다.

구조는 시멘트 몰탈 마감한 낮은 기단 위에 다듬돌 원형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전면 퇴칸에만 두리기둥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네모기둥으로 하였다. 상부구조는 활처럼

휘어진 대들보 위에 제형판대공을 얹어 마루도리를 받게 한 3량가이다.

대문채는 정면 3칸 · 측면 1칸 규모의 솥대문으로 홀처마 맞배지붕을 이었다. 평면은 가운데 어칸에 대문을 달고 양측에는 고방을 1칸씩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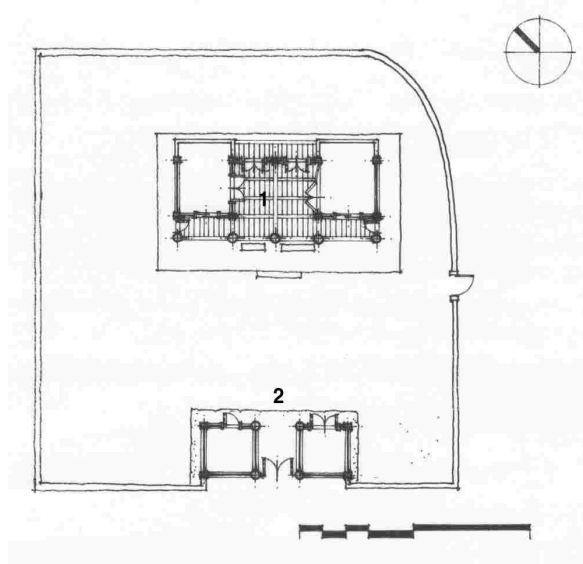
▲ 정면



▲ 대청 상부가구



▲ 대문채



유화당 배치평면도

3. 창열각 (彰烈閣)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623-3번지
- 건립년대 : 1932년
- 건축규모 : 정면 1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창열각은 북구 도남동 623-3번지에 있는 열녀각이다. 인천 이씨 완재(完在)씨의 백부가 별세한 후 열녀인 그 백모를 기려 칠곡군수 심완진(沈浣鎭)의 표창에 의하여 중중에서 1932년에 건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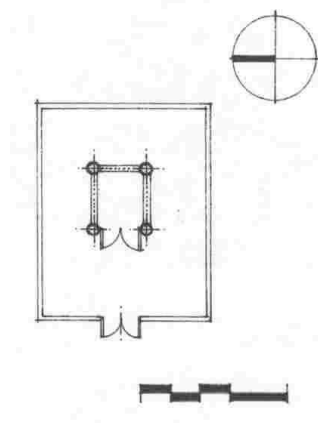
이 열녀각 단칸 규모의 서향한 3량가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며 주위에는 시멘트 블록으로 담을 둘러 공간을 구획하였다.



▲ 전경



▲ 비각



창열각 배치평면도

4. 도남정사 (道南精舍)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415번지
- 건립년대 : 1899년
- 건축규모 : 정면 3칸 · 측면 1.5칸,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도남정사는 현 소유자인 최고(崔杲)씨의 조부가 1899년에 監役(監役)을 지낸 증조부를 추모하여 건립한 서당건물이라고 한다. 최고(崔杲)씨의 조부는 이 서당을 건립한 후 여기에서 가솔(家率)을 거느리고 조용히 학문을 닦으며 지냈으며 원래의 당호는 추원재(追遠齋)였다고 한다.

도남정사는 정면 3칸, 측면 1.5칸 규모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로 남서향하여 배치되었다. 평면은 1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1칸씩 들였으며, 온돌방 전면과 대청 전면에는 쪽마루를 시설하였다.

구조는 화강석 다듬돌 허튼층쌓기한 기단 위에 자연석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외진주는 원기둥을, 내진주는 사각기둥을 사용하였다. 네 모서리에는 추녀를 지지하기 위하여 활주(活柱)를 세웠다. 건물의 상부가구는 대들보 위에 종보를 놓고 그 위에 동자주 대공을 얹어 마루도리를 받게 한 5량가이다.



▲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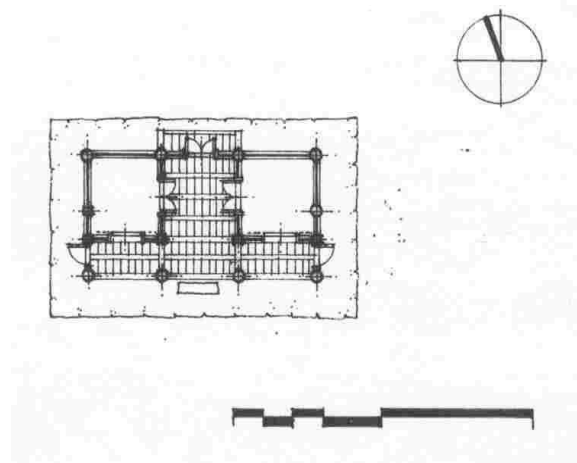
▲ 대청 상부가구



▲ 좌측면 전경



▲ 우측면 전경



도남정사 평면도

5. 도산재 (道山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동호동 373번지
- 건립년대 : 1852년
- 건축규모 : 일곽(2동)
 - ① 재 실 - 정면 4칸 · 측면 1.5칸, 홀처마, 팔작지붕
 - ② 대문채 - 정면 1칸 · 측면 1칸, 홀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도산재는 북구 동호동 373번지에 있는 재실로 1852년에 창녕 조씨(昌寧 曹氏) 조봉하(曹鳳夏)씨가 건립하였다고 한다. 숙종조에 노론 · 소론의 당파싸움이 격화되었을 때 이도암(李道岩)선생이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당파 싸움의 회유를 위해 지은 재실이다. 매년 1회 소만시(小滿時) 뜻 있는 선비들이 모여 글짓기 대회를 열었다 한다.

도산재는 방형을 이루고 있는 일곽의 담장 정면 중앙부에 나있는 1칸 대문을 들어서면 마당을 앞에 두고 남향하고 있다. 이 건물은 정면 4칸 · 측면 1.5칸 규모의 일자형(一字形)으로 홀처마 팔작지붕을 이었다.

평면은 2칸 온돌방을 좌측에 두고 통칸 대청을 우측에 두었는데 2칸 온돌방 내부에는 네 짝미서기문을 달아 실의 분리 · 통합이 가능케 하였다. 대청과 온돌방 전면에는 반칸 규모의 퇴칸을, 대청 우측칸 배면부에는 쪽마루를 놓았다. 창호는 온돌방 전면과 청방간(廳房間)에는 쌍여닫이 세살문을, 대청 배면에는 쌍여닫이 골판문을 달았다.

구조는 화강석 허튼층 쌓기한 기단을 시멘트 몰탈로 미장하여 그 위에 다듬돌 원형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다. 건물의 상부가구는 대들보 위에 종보를 놓고 그 위에 제형판대공을 얹

어 마루도리를 받게 한 5랑가이다.

도산재는 현재 퇴칸 전면에 금속재 창호를 설치하고 여모중방 하부를 붉은 벽돌로 막는 등 많은 부분을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고풍스러운 정치는 느낄 수 없다.



▲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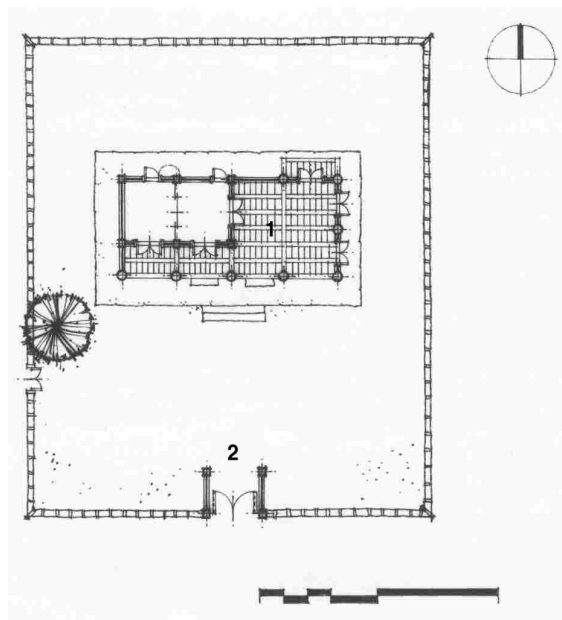
▲ 배면



▲ 대청 상부가구



▲ 대문



도산재 배치평면도

6. 칠곡향교 (漆谷鄉校)

- 지정종별 : 대성전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6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600번지
- 건립년대 : 1642년 초창, 20세기 초 중건
- 건축규모 : 일곽(6동)
 - ① 외삼문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② 명륜당 - 정면 5칸 · 측면 3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③ 내삼문 - 정면 3칸 · 측면 2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④ 동 무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⑤ 서 무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⑥ 대성전 - 정면 3칸 · 측면 3칸, 겹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칠곡향교는 관계자료의 일실로 말미암아 창건연대 및 그 후의 중수, 개수 내용을 거의 알 수 없다. 다만 《향교등록(鄕校謄錄)》을 통해 1642년 4월 10일의 향교 건립과 1722년 2월 30일(음력)의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17세기 초기에 칠곡향교가 건립되었다고 하나 현재의 향교는 1907년에 대수리가 있었다는 대성전 현판의 기록과 건물의 구조양식으로 미루어 20세기 초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칠곡중학교 교내에 있는 칠곡향교는 명륜당이 앞쪽에 놓이고 그 뒤에 대성전이 위치하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형식으로 배치 축의 구성은 명륜당이 대성전의 동서 축에서 서쪽으로 약간 벗어나 있는 병렬축을 형성하고 있다. 대성전은 동·서무와 함께 내삼문과 담장으로 둘러 쌓인 네모진 일곽안에 배치되어 있고, 명륜당은 칠곡중학교의 운동장 확장으로 그 한쪽 구석에 담장도 없이 놓여 있다가 최근에 외삼문과 담장을 설치하였다.



▲ 외삼문



▲ 전경

● 강학공간

칠곡향교의 강학공간은 현재 동·서재가 없이 명륜당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륜당은 막돌 허튼층쌓기한 기단 위에 덩병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건물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어칸 3칸에 우물마루를, 그 좌우를 온돌방을, 앞쪽에는 퇴칸을 두었다. 온돌방 앞에는 두 짝 굽넒띠살문을, 대청 뒤벽에는 매칸마다 쌍여단이 판장문을 달아 놓았다. 대청 앞은 본래 개방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4분합문을 새로 시설하였다. 무익공으로 기둥 위에는 창방을 걸구하고 소로를 올렸다. 가구는 2고주 5량가로 내진주는 평주를 사용하였다. 대들보는 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합보하였다. 대들보 위는 짧은 동자주만 올려 중보 장혀 및 중도리를 받게 했다. 중보 위에는 사다리꼴 판대공을 세워 마룟도리를 받게 한 매우 간결한 구조로 되어 있다. 온돌방의 윗쪽은 다락으로 꾸미고 방 앞쪽으로 개구부를 내었다. 지붕은 홑처마의 맞배지붕으로 양측 박공부에 풍관을 설치하였다.



▲ 명륜당 전면



▲ 명륜당 배면

● 제 향 공 간

칠곡향교의 제향공간은 대성전과 동·서무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삼문과 담장으로 둘러 쌓인 네모진 일곽의 중심에 대성전을 두고 전면 양편으로 동·서무를 배치하였다.



▲ 내삼문



▲ 제향공간 영역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6호인 대성전은 명륜당보다 한 단 높은 대지에 잡석으로 기단을 높게 쌓고 그 위에 덩병주초를 놓아 두리기둥을 받게 했다. 이 건물의 규모는 정면 3칸, 측

면 3칸이며, 기단 앞쪽 두 곳에 계단을 두어 오르내리게 했으며 상면(床面)을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했다. 건물의 정면 3칸에는 각각 쌍여닫이 울거미널문을 달았다.

구조는 기둥 상부에 창방을 짜고 주두 위에만 공포를 둔 외2출목 주심포계 양식이다. 창방 위 기둥 사이에는 소로를 끼워 받친 소첨과 대첨을 중첩시켜 화반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심첨차와 꼭 같은 모양으로 출목은 없지만 다포계의 공간포와 같은 분위기를 보여 준다. 살미의 모습은 2제공의 양서와 삼분두로 3제공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살미의 길이는 짧으나 치켜 오른 형상이 힘있고 하부는 쌍 S자로 선각하였다.

이 건물은 전퇴없이 3칸으로 구성된 관계로 양측면에 고주를 세운 후 퇴보로 고주 몸에 결구시키고 종보를 고주 위에 놓이게 한 2고주 5량가 구조수법을 구사하였고, 어칸 양쪽 기둥 위에 걸쳐 대들보를 걸친 관계로 구조수법이 측면과는 다르다. 대들보 위에 동자주를 세우고 접시받침하여 종보를 지지하게 하였다. 종보 상부는 보아지와 첨차로 보강하고 첨차를 끼운 파련대공으로 장혀와 마루도리를 받게 했다. 대성전은 부분적으로 변형되었으나 조선 중·후기의 건축수법이 잘 간직된 중요한 건물이다.



▲ 대성전 전면



▲ 대성전 배면

동·서무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낮은 기단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구조는 굴도리를 사용한 3량가이며, 어칸에 쌍여닫이 울거미널문을, 양협칸에는 외여닫이 울거미널문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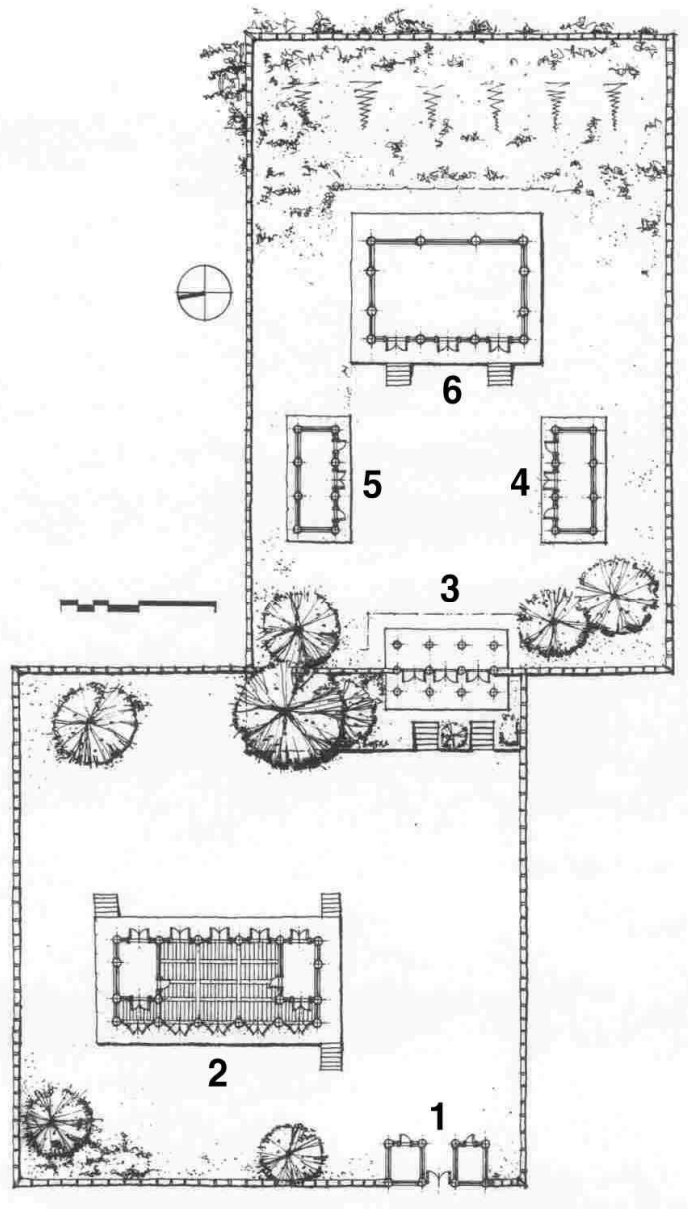


▲ 동무



▲ 서무

대성전과 동·서무로 통하는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두리기둥을 세우고 3량가로 결구한 초익공 양식이다. 창방없이 침차만 두었는데, 대구향교 내삼문과 같은 수법이다. 살미는 촛가지를 물결 무늬로 조각하고 그 끝을 날카롭게 했다. 건물 평면은 가운데 기둥 열 3개소에 문을 달고 문 위에는 홍살을 두었다.



칠곡향교 배치평면도

7. 이인술주택 (李寅述住宅)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307번지
- 건립년대 : 1905년
- 건축규모 : 일곽(2동)
 - ① 정 침 - 정면 3칸 · 측면 1.5칸, 흙처마, 맞배지붕
 - ② 대문채 - 정면 1칸 · 측면 1칸, 흙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대구시 북구 구암동 307번지에 있는 이 가옥은 1905년 지강(芝崗) 이승연(李昇淵)씨가 건립한 이다. 광주인(廣州人) 이승연은 주역에 통달한 학자로 대구시 북구 국우동에 기거하다가 구암동에 와서 학문에 뜻을 두고 제자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고 전한다.

이 집은 방형의 대지에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평면은 정면 3칸 · 측면 1칸반으로, 가운데 2칸 마루를 두고 좌우 양쪽에 각 1칸씩의 온돌방을 대칭으로 배설하였다. 방과 마루 전면에는 반칸 폭의 전퇴를 두고 마루를 시설했다. 전체 평면이 ‘중당협실형(中堂夾室形)’으로 부엌이 없는 형태인 것으로 보아 본래 채실 등의 다른 용도로 지은 것을 나중에 주택으로 전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 전경



▲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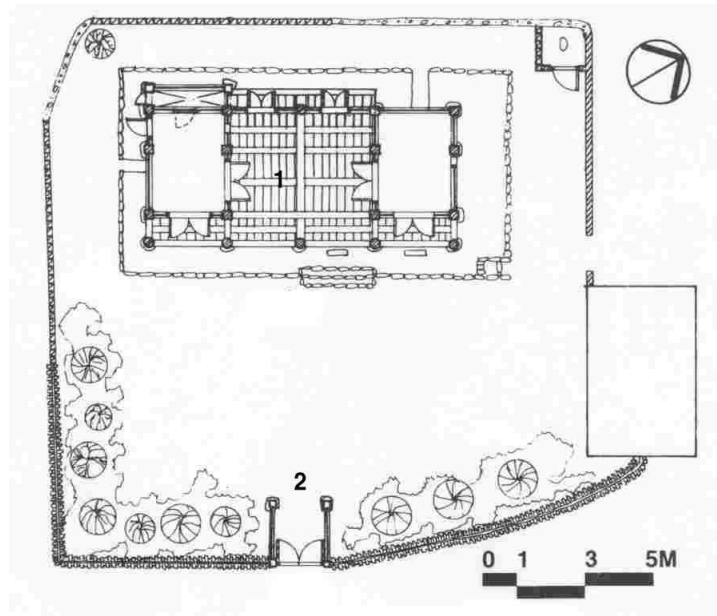
▲ 배면



▲ 대청 상부가구

구조는 막돌 허튼층 쌓기 기단 위에 둥근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운 5량가로, 지붕은 홀처마에 맞배지붕을 이었다. 중보 위에 제형 판대공을 놓아 마루도리를 받게 하고 창방과 장여 사이는 소로로 수장하였다. 기둥은 전면에만 두리기둥을 쓰고 나머지는 모두 네모기둥을 사용했다.

전체적으로 부재가 넉넉하고 구조가 견실한 이 집은 20세기 초 건축양식을 잘 보여준다.



이인술주택 배치평면도

8. 태충각 (泰忠閣)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204번지
- 건립년대 : 1900년
- 건축규모 : 일곽(3동)
 - ① 태충각 - 정면 3칸 · 측면 1칸, 홀처마, 맞배지붕
 - ② 경의재 - 정면 5칸 ·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③ 사성재 - 정면 3칸 · 측면 1칸, 홀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조선조 단종때 충신인 김문기(金文起)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충의공(忠毅公) 김백촌유적비(金白村遺蹟碑)를 세우면서 비의 보호를 위해 1900년(고종 37)에 비각을 건립하였다. 대구에 이 비각이 세워지게 된 것은 그의 9세손인 김응수(金應守)가 임진왜란 당시 영동으로 이

주해 왔기 때문이며 그는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우기도 했다. 이 곳에 비를 세운 것은 김문기가 경상도사로 있을 때 이곳 딱을 소요하며 즐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운 것이라 한다.

비각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 집으로 지붕의 양측면에는 풍판을 달았으며 내부에는 비문이 잘 보존되어 있다. 현재 비각의 좌측에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경의재(景毅齋)가, 우측으로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사성재(思誠齋)가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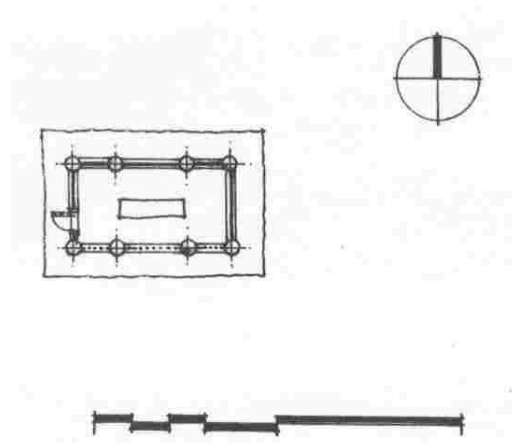
▲ 전경



▲ 경의재



▲ 사성재



태충각 평면도

9. 김화엽주택 (金和燁住宅)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동 127번지
- 건립년대 : 20세기 초, 현재 철거
- 건축규모 : 일곽(4동)
 - ① 대문채 - 정면 6칸 · 측면 1칸
 - ② 사랑채 - 정면 3칸 · 측면 2, 5칸
 - ③ 중사랑채 - 정면 4칸 · 측면 4칸
 - ④ 안채 - 정면 5칸 · 측면 1.5칸, 홀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개황 :

이 가옥은 소유자 김화엽씨의 3대조가 건립한 20세기초의 상류주택이다.

전체적으로 튼 口자형을 이루고 있는 이 집은 남서향한 대문채의 대문을 들어서면 안마당 좌측에 남향한 일자형(一字形) 안채가 있고 맞은편에 안마당을 ㄱ자형으로 감싼 중사랑채가 있으며, 사랑채는 안채 맞은편 좀 떨어진 곳에 남향하고 있었다.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1칸반의 규모로 가운데 안대청을 두고 그 좌우에 온돌방을 대청으로 배설하였다. 건물 앞쪽에 퇴칸을 들이고 있는데, 근년에 방과 대청 전면에 유리창문을 달았다. 좌측 온돌방에 있는 부엌 상부에는 다락을 두고 그 앞쪽 전퇴 좌측에 조그마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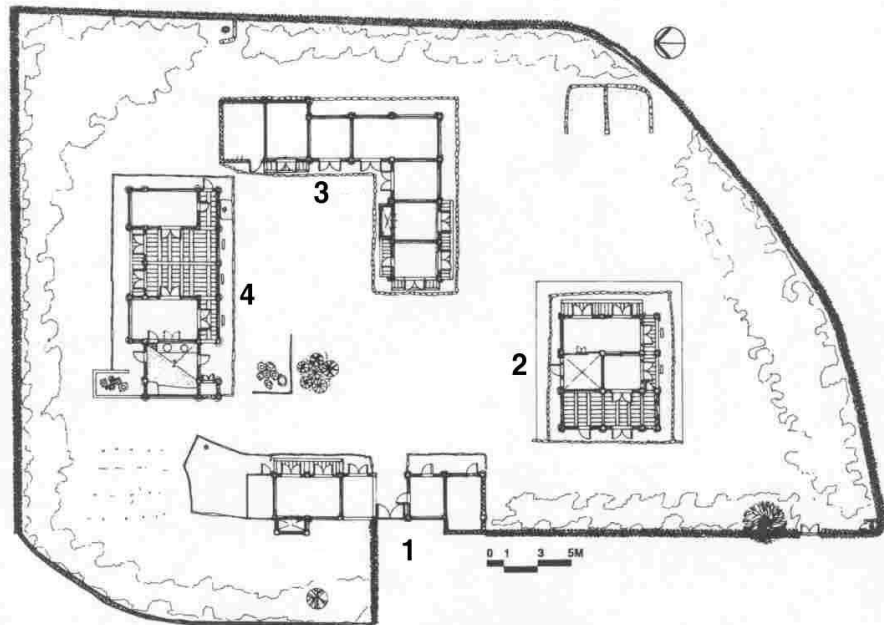
장대석 외벌대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운 5량가로, 종보 위에 원형 판대공을 놓고 마루도리를 받게 했다. 지붕은 홀처마에 물매가 약한 팔작지붕이었다.

사랑채는 정면 3칸, 측면 2칸반의 겹집으로 좌측에 2칸통의 누마루 형식의 마루방을 두고, 우측에 사랑부엌과 사랑방을 배설했다. 사랑방 앞과 우측에는 반칸 폭의 개방된 툇마루를 두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장대석 외벌대 기단 위에 네모기둥을 세운 5량가로 치목과 결구에 공을 들인 집이다.

중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 4칸의 ㄱ자형 건물로 대문채 쪽에서부터 온돌방 2칸과 부엌을 두고, 부엌에서 꺾어 안채 쪽으로 고방 2칸 · 부엌 · 온돌방 · 창고를 배설하였다. 창고는 지붕 밑에 시멘트 블록으로 달아내어 만들었다. 온돌방 앞에는 출입을 위한 작은 쪽마루를 두었다.

대문은 정면 6칸, 측면 1칸의 비교적 규모가 큰 와가로 동향하고 있다. 좌측부터 창고 · 방 · 대문간 · 고방 · 방을 병렬로 구성한 단아한 모습이었다. 한편 이 집 안에는 100년 된 오동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 운치를 더해 주었다.

이 집은 20세기 초 대구지역 전통주택의 평면 및 입면구성상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였으나 최근 다세대 주택을 짓기 위해 철거되었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김화엽주택 배치평면도

10. 환성정 (喚惺亭) · 서계서원 (西溪書院)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881번지
- 건립년대 : 1971년
- 건축규모 : 일곽(5동)
 - ① 외삼문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② 환성정 - 정면 3칸 ·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③ 화수정 - 정면 5칸 · 측면 1.5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⑤ 내삼문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④ 사 당 - 정면 3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환성정은 북구 서변동 881번지에 있는 정자이다. 이 건물은 임진왜란 때 대구에서 의병장으로 태암(苔巖) 이주(李維)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 이씨 후손들이 세운 정자이다. 태암 이주는 조선초 명신으로 대제학과 예조판서를 지낸 오천(烏川) 이문화의 8대손으로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오직 학문 연구에만 몰두한 선비였다.

그는 정한강(鄭寒岡) · 장여헌(張旅軒) · 서사원(徐思遠) 등과 교류하면서 학문에 전념하던 중 임진왜란으로 대구가 초토화되자 서사원과 분연히 일어서 의병을 모집하여 공산성을 거

점으로 왜군을 무찌르는데 앞장섰다. 그 가운데 팔거(八莒, 현 칠곡일대) 전투와 해안(解顔, 현 동춘일대)전투는 유명하다.

임진왜란 후 조정에서 그의 공을 기려 능참봉(陵參奉)을 내렸으나 끝내 사양하고 사림에 묻혀 학문에만 전념하는 한편, 불타 버린 연경서원(研經書院)의 재건에 앞장섰다. 환성정은 이때에 지은 건물로서 유생들이 공부하던 곳인데, 원래 위치는 남쪽 1km지점인 금호강변에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건물이 남아 170여년 전에 현재의 위치로 이군하였으며 1971년 대대적으로 중수하였다.

환성정은 장방형의 경내에 화수정·사당·대문 등과 함께 배치되었다. 외삼문을 들어서면 정면하여 정면 5칸, 측면 1칸반의 화수정이 남동향하고, 그 우측에 환성정이 남서향으로 앉아 있다. 그리고 화수정 뒷쪽에는 좀 떨어진 곳에 정면 3칸·측면 1칸 규모의 사당 송덕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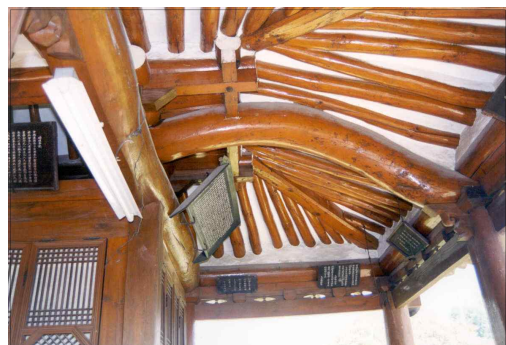
▲ 서계서원 전경



▲ 환성정 정면



▲ 환성정 배면



▲ 대청 상부가구

환성정은 정면 3칸·측면 2칸의 소로수장집으로, 중앙 칸에 온돌방 1칸을 그 좌우측에 각각 2칸통의 온돌방과 누마루를 배설하였다. 구조는 둥근 주초 위에 두리기둥과 네모기둥을 세운 5량가로 대들보 위에서 양 측면 중앙 기둥 상부로 충량을 걸어 결구하였으며, 지붕은 홑처마에 팔작지붕이다. 특히 기둥은 누마루에 두리기둥을, 온돌방에 네모기둥을 사용했다. 마루 상부의 천정은 외귀틀로 결구되고, 마루도리는 제형판대공으로 지지되고 있다. 이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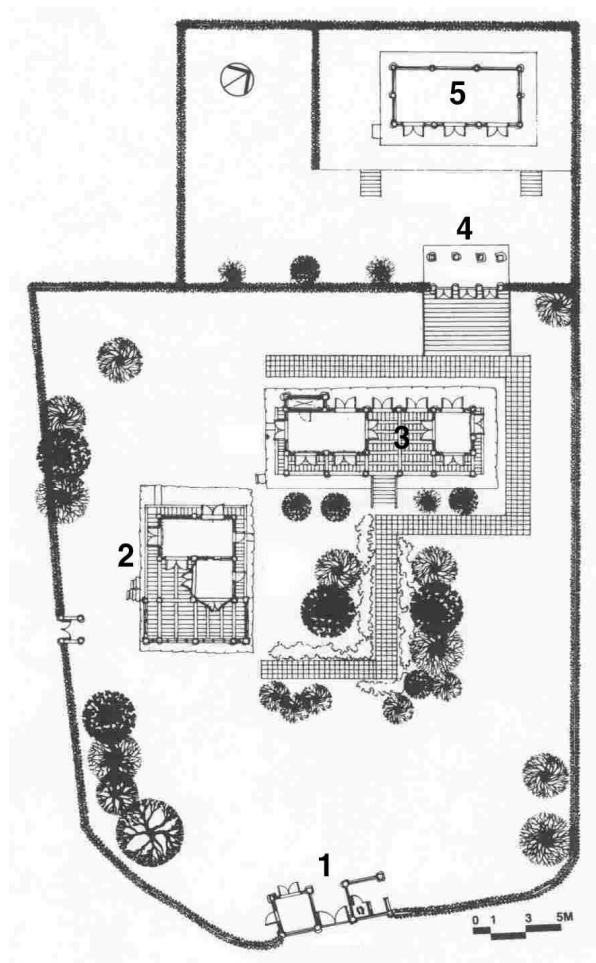
은 조선후기 정자 모습을 잘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구와 부재가 건실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환성정의 편액은 대원군의 친필이고, 화수정 편액은 조선말기의 명필 윤용구(尹用求)의 글씨이다.



▲ 화수정 정면



▲ 사당(송덕사) 정면



환성정 배치평면도

11. 송계당 (松溪堂)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111번지
- 건립년대 : 1960년
- 건축규모 : 일곽(2동)
 - ① 재 실 - 정면 4칸 ·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② 대문채 - 정면 2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송계당은 두문동 72현 중 한 사람인 고려말 충신 송은(松隱) 구홍(具鴻)과 조선조 임진왜란 때 대구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구홍의 8세손 계암(溪岩) 구회신(具懷愼)의 절개와 위업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효종 10년(1659)에 세운 재실이다. 그 후 1960년에 중건하고 근년에 보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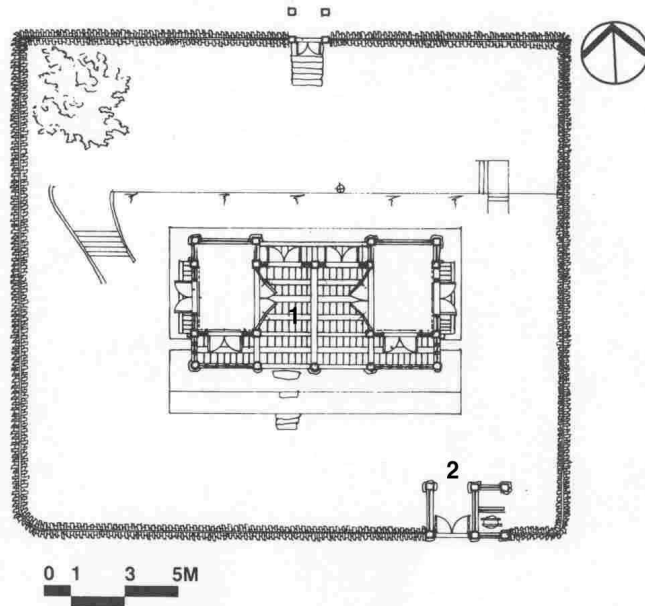
▲ 대청 상부가구

송계당은 방형 일곽의 좌측단에 나있는 대문을 들어서면 남향하고 있다.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로 중앙에 2칸 대청을 두고 그 좌우에 각 1칸씩의 온돌방을 둔 ‘중당협실형(中堂夾室形)’이다.

앞쪽에는 반칸 규모의 전퇴를 두었는데, 좌우측 온돌방 앞쪽의 전퇴는 어킨보다 단을 높여 설치하였다. 창호는 온돌방의 전면은 쌍여닫이 세살문이고 청방간(廳房間)에는 사분합들문을 달아 필요시 공간확장을 도모하였다.

가구는 3량가로 대들보 위에 원형대공을 세워 마루도리를 받게 했다. 건물은 견치석 2층 기단 위에 원형의 다듬돌 초석을 놓고 앞쪽에만 원형기둥을 세운 홑처마 팔작지붕 집이다.

송계당은 전체적으로 볼 때 건물의 건립년대가 일천하여 전통건축으로서의 고격(古格)을 느낄 수 없고 재실건축으로서의 별다른 특징도 찾아볼 수 없다.



송계당 배치평면도

12. 능성구씨 화수정 (綾城具氏 花樹亭)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동 234번지
- 건립년대 : 1828년(현재 철거·신축)
- 건축규모 : 정면 5칸·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신축 재실건물)
- 건축연혁 및 현황 :

능성구씨 화수정은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이었던 송은(松隱) 구홍(具鴻)을 파조로 하고 있는 좌정승과의 재실이다. 이들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계암(溪岩) 구회신(具懷愼)때부터 동변동(속칭 무태)에 살았다. 화수정은 1828년 선조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지으면서 문중에서 시회(詩會)도 열고 또 자손들에게 한학을 가르치는 장소로 쓰기 위하여 함께 지은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구 건물을 헐고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을 새로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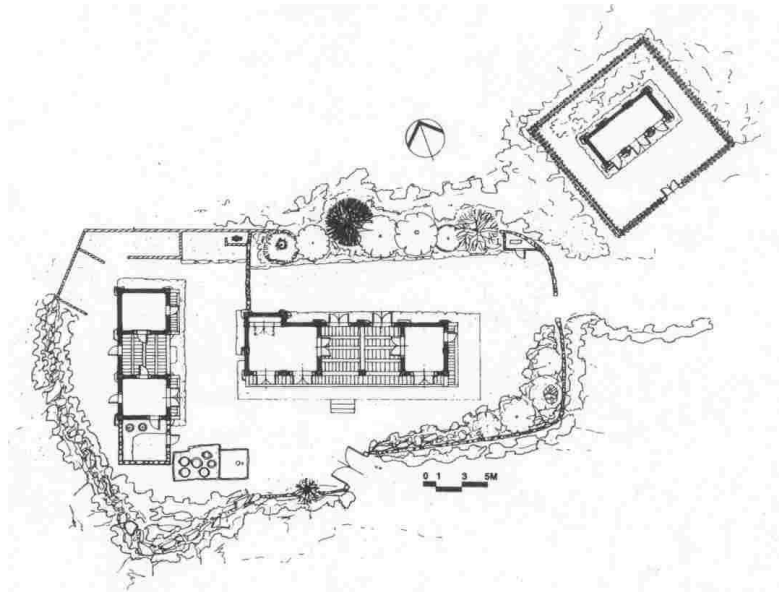
구 재실은 남서향한 화수정과 좌측에 동남향한 아래채가 튼 ㅚ형을 이루고 있으며, 화수정의 후우측에 남향한 사당이 별도로 일곽을 구성하여 자리잡고 있었다. 화수정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홑처마 팔작지붕 집이었다. 좌로부터 2칸 온돌방과 2칸 대청 그리고 1칸 온돌방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앞쪽에는 쪽마루를 시설하였다.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한 기단 위에 막돌 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중앙의 앞 기둥 셋만 두리기둥이고 나머지는 모두 네모기둥이었다. 대들보 위에 키가 낮은 제형판대공을 세워 마루도리를 받게 한 3량가

2익공계 건물이었다.

아래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로 왼쪽에서부터 부엌, 방, 대청, 방이 차례로 놓여있고,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통칸으로 되어 있었다.



▲ 신축건물 전경



구(舊) 능성구씨 화수정 배치평면도

13. 서명보 효자각 (徐命普 孝子閣)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878번지
- 건립년대 : 1802년
- 건축규모 : 정면 1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효자각은 북구 산격동 878번지에 있는 건물로 조선 숙종대의 효자였던 서명보(徐命普)의 효행을 알리기 위해 순조 2년(1802)에 건립한 것이다. 효자각은 건립 이후에 몇 차례 이 건하였으며, 1976년에 이곳 중중(宗中) 산으로 이 건하였다.

서명보는 부친의 병간호를 극진히 한 효자로서, 그가 죽은 뒤 21년이 지난 후 24년 동안 부친을 위해 쓴 시탕록(侍湯錄)을 보고 조정에서 공조좌랑(工曹佐郎)에 증직하였다. 순조 2년(1802)에 ‘좌랑공명보호자비(佐郎公命普孝子碑)’를 세웠으며, 현종 7년(1841)에는 조정에서 정려가 내려왔다.

용담재(龍潭齋) 뒤쪽 모퉁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는 효자각은 단간 규모의 맞배지붕 집으로 가구는 3량가이다. 건물 전면에 철제 살창을 설치하는 등 부분적으로 변형되었다.



▲ 효자각 전경

14. 용담재 (龍潭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878번지
- 건립년대 : 1888년
- 건축규모 : 정면 4칸 · 측면 1.5칸,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용담재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이재(怡齋) 서사진(徐思進)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문중에서 효종 1년(1605)경에 세운 것이다. 현재의 건물 대지는 그 당시 서사진이 강학소를 만들어 교육에 전념하던 곳이라 한다.

상량문에 보이는 ‘숭정기원후오무자(崇禎紀元後五戊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고종 25년(1888)에 중수한 연대를 가리킨다. 현재의 건물은 원래의 터를 매각하고 1976년 1km쯤 떨어진 북쪽 중중산에 그대로 옮긴 것이다.

웃면을 모르타르로 마감한 기단 위에 덩벙 주초를 놓고 그 위에 건물 전면에는 원주를, 나머지는 모두 네모 기둥을 세웠다.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1칸반 규모의 홑처마 팔작지붕

집이다. 맨좌측에 2칸의 우물마루 대청을 두고 그 우측에 2칸통의 온돌방을 두었다. 이 온돌방의 앞쪽에는 반칸 규모의 퇴칸을 설치하였다. 상부가구는 대들보 위에 놓인 제형판대공이마루 도리를 받는 3량가로, 장혀와 상인방 사이에는 소로로 수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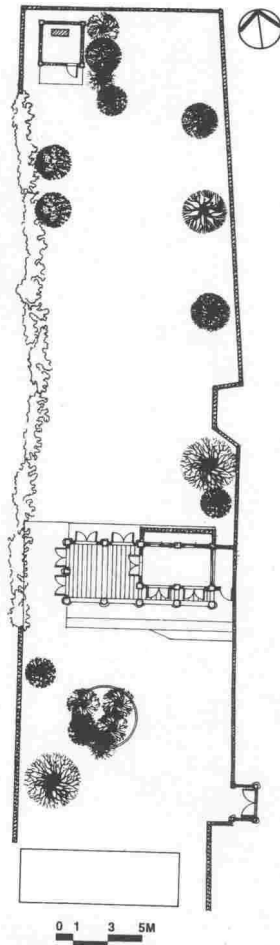
용담재는 전체적으로 부재가 건설할 뿐만 아니라 보존 상태도 대체로 양호한 조선후기 재실이다.



▲ 전면 기둥상부



▲ 대청 상부가구



용담재 · 서명보효자각 배치평면도

15. 구암서원 (龜岩書院)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산79-1번지
- 건립년대 : 1924년 중건, 1994년 이건
- 건축규모 : 일곽(8동)
 - ① 누 각 - 정면 5칸 · 측면 2칸, 팔작지붕
 - ② 동 재 - 정면 3칸 · 측면 1.5칸, 팔작지붕
 - ③ 서 재 - 정면 3칸 · 측면 1.5칸, 팔작지붕
 - ④ 강 당 - 정면 5칸 ·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⑤ 비 각 - 정면 1칸 · 측면 1칸, 맞배지붕
 - ⑥ 재사청 - 정면 3칸 · 측면 1.5칸, 팔작지붕
 - ⑦ 내삼문 - 정면 3칸 · 측면 1칸, 맞배지붕
 - ⑧ 사 당 - 정면 3칸 · 측면 2칸, 겹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현종 6년(1665) 구암서원을 처음 세운 곳은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연귀산(連龜山, 현 대구 국교 서남쪽 언덕)이었다. 그후 숙종 1년(1675) 3월 29일 유림에서 구계(龜溪) 서침(徐沈)선생을 봉안하고 매년 제사를 지내다가 숙종 43년(1717)에 현재의 동산동(府西 2里 南山下)으로 이건하였는데, 이 공사는 이듬해인 숙종 44년(1718) 3월 6일 완공되었다. 그 후 오랫동안 도심 중심부인 동산동에서 자리를 지키던 구암서원은 1996년 달성 서씨 문중에 의해 또다시 경북도청 뒤편 산으로 이건하여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구암서원은 서침徐沈()·서거정(徐居正)·서해(徐海)·서성(徐省) 4인을 배향하고 있다.

서침은 자(字)가 성묵(聖默)이며 달성(達城)사람으로서 호를 구계(龜溪)라 했다. 관직은 제처사(制處使)에 이르렀으며, 포은 정몽주에게 사사하고 성리학 연구에 몰두했다. 서침은 세종이 달성서씨 세거지인 달성의 지형이 두형(斗形)과 같고 주위가 천연적으로 성벽을 이루어 명승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남산고역기(南山古驛基, 前 남산병원 일대)’와 바꾸도록 하는 대신 대대로 세록(世祿)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는 이에 “나라의 모든 것이 국왕의 땅이거늘 어찌 대가를 바라겠습니까”하고 사양하였다. 서침의 뜻을 전해들은 세종은 이를 가상히 여겨 달리 소원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서침은 일가가 사사로운 은혜를 받기보다 만민이 골고루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대구지방 일대에 거둬들이던 환곡 이자를 감해 달라고 청했다. 세종은 서침의 뜻을 흔쾌히 받아들여 이후 대구지방의 환곡에 한해서는 쌀 1섬에 1말 5되씩 받던 환곡의 이자를 구암서원을 세운 것이다.

이에 은덕을 입은 대구 주민들이 서침의 숭덕을 기리기 위하여 구암서원을 세운 것이다. 구암서원을 연귀산(連龜山)에서 지금의 동산동으로 이건하면서 서침의 후손인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을 합향(合享)하였다. 서거정은 세종때의 유명한 학자로서 세종 26년

(1444) 문과에 급제 관직이 좌천성에 이르렀고 달성군에 봉군된 명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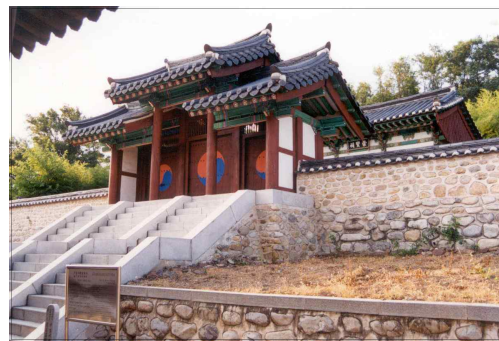
이후 영조 17년(1741) 2월 20일에 역시 후손인 충숙공(忠肅公) 약봉(藥峯) 서성(徐渚)이 추향(追享)되었다. 서성은 선조 19년(1586) 문과에 급제, 임진왜란때 함북에서 토민(土民) 국경인(鞠景仁)이 피난중이던 왕자 임해군(臨海君)과 순화군(順和君)을 포박하여 가등청정(加藤清正)에게 넘겨주어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용감하게 왕자와 재상을 구출한 충신이다.

또한 영조 33년(1757) 8월 26에는 영의정을 지낸 함재(涵齋) 서해(徐峴)의 추향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서침·서거정·서해·서성 4인을 배향하게 된 것이다.

구암서원은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없어 졌다가 1924년 유럽에서 복설하였고, 1943년 송현사와 강당을 중수하였다. 그 후 송현사 등 건물을 1974년 국비 150만원, 시비 50만원, 자체부담 100만원으로 대대적인 보수를 하였다. 그리고 1994년 현재의 위치로 이 건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호로 지정되어 있다.



▲ 전경



▲ 송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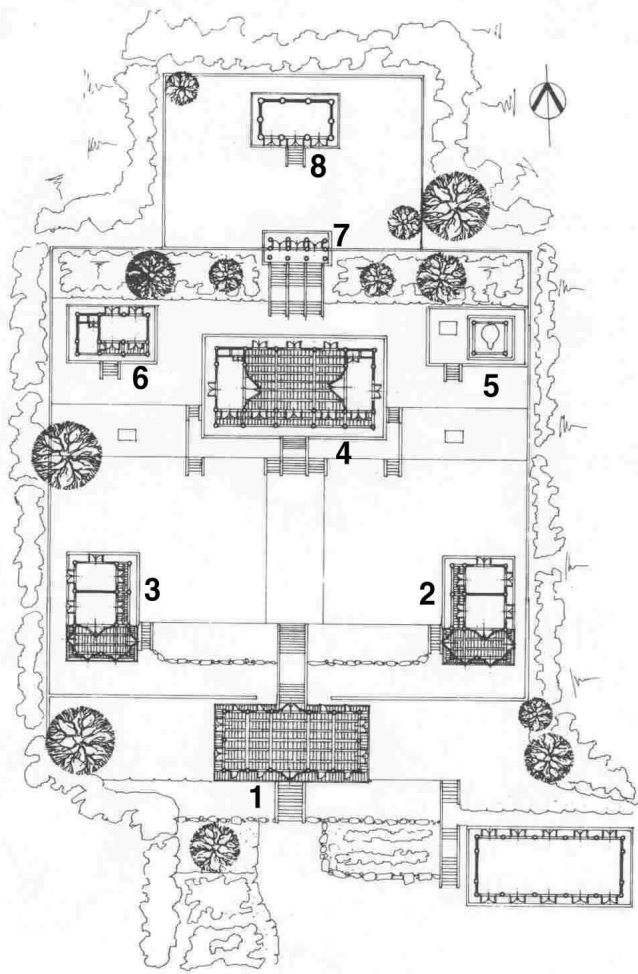
원래 동산동의 경내에는 강당, 송현사, 비각, 악재사당, 제수청 등이 있었는데, 대문과 강당 송현사가 동서 축선상에 위치하고 강당 우측에 악재사당이 있고, 악재사당 뒤쪽에 제수청이 남동향하여 배치되고, 대문 우측에 비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건을 하면서 누각, 동·서재 등을 신축하고 원래의 배치와 달리 남북 일축선상에 누각, 강당, 내삼문, 사당을 놓고 강당 앞쪽 좌·우측에 동·서재를, 강당 뒤편 좌·우측에 제사청과 비각 및 묘정비를 앉혔다.

강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5량가 팔작지붕 집이다. 원주형 초석 위에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와 중보를 차례로 결구하고, 중보 위에 제형관대공을 놓아 마루도리를 받게 하였다.

송현사는 정면 3칸·측면 2칸의 맞배지붕이며, ‘구암서원 묘정비(龜巖書院 廟庭碑)’와 ‘달성서씨 족회사적비(達城徐氏 族會事蹟碑)’를 안치한 비각은 정·측면 1칸의 맞배지붕이다.

제사청과 동·서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반의 맞배지붕 집이고 누각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로 통칸 마루를 깔고 사방에는 난간을 둘렀다.



구암서원 배치평면도

16. 체화당 (棣華堂)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913번지
- 건립년대 : 1959년
- 건축규모 : 일곽(2동)
 - ① 체화당 - 정면 5칸 · 측면 1.5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② 대문채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체화당은 서진조씨의 9대조 성은공(城隱公) 휘신(諱愼), 남계공(南溪公) 휘율(諱慄), 농포공(農圃公) 휘복(諱潑)의 삼형제 중 성은공의 종당(宗堂)과 남계공의 정사(精舍)가 약 300여

년 전에 건립되어 유지되다가 1959년 종당과 남계정사의 당호를 통합하여 남계정사 자리에 새 제목으로 집을 짓고 당호를 체화당이라 하였다.



▲ 대문채



▲ 정면



▲ 대청



▲ 대청 상부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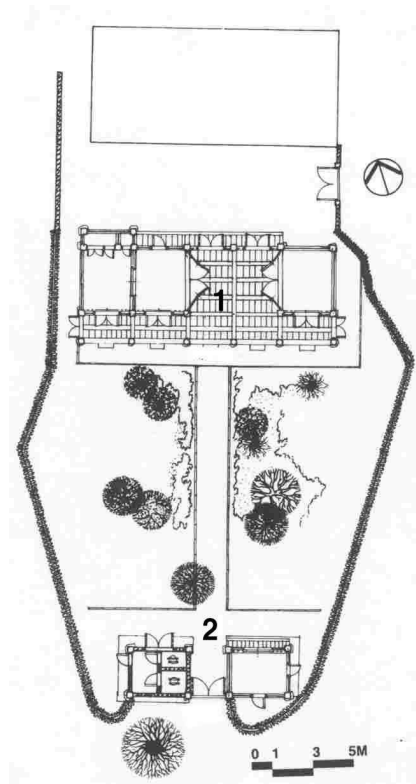
세로로 긴 장방형의 대지에 대문과 체화당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마당 건너에 정면 5칸·측면 1칸반 규모의 체화당이 자리잡고 있다.

평면은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각각 2칸과 1칸 규모의 온돌방을 두었으며, 전면에는 반칸 규모의 전퇴를 두었다. 구조는 5량가의 굴도리집으로 기둥 위에는 소로수장하였으며, 지붕은 겹처마에 팔작지붕이다.

대문은 정면 3칸·측면 1칸의 솟을대문 형태로 중앙칸에 출입을 위한 대문을 내고 좌측칸에 변소, 우측칸에 온돌방을 두었다.

창호는 온돌방의 전면은 두짝 미서기문이고 청방간(廳房間)에는 8각형의 불발기를 낸 사분합들문을 달아 필요시 공간확장을 도모하였다.

체화당은 전체적으로 볼 때 건물의 건립년대가 일천하여 전통건축으로서의 고격을 느낄 수 없고 재실건축으로서의 별다른 특징도 찾아볼 수 없다.



체화당 배치평면도

제3절 중구·남구지역

중·남구지역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정문화재 4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전통건축물이 조사·분석되었는데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적은 숫자다. 이것은 중·남구지역이 대구 시가지의 중심지역으로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전통 고 건축물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지 역	용 도								합계	지정 문화재
	주거	불사	재사	정자	정사	서원 향교	비각 여각	기타		
중·남구지역	-	2	-	-	-	1		3	6	4

본 보고서에 최종 수록된 6건의 건축물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관아용 건축물이 가장 많은 3건이며 그 다음이 불사건축으로 2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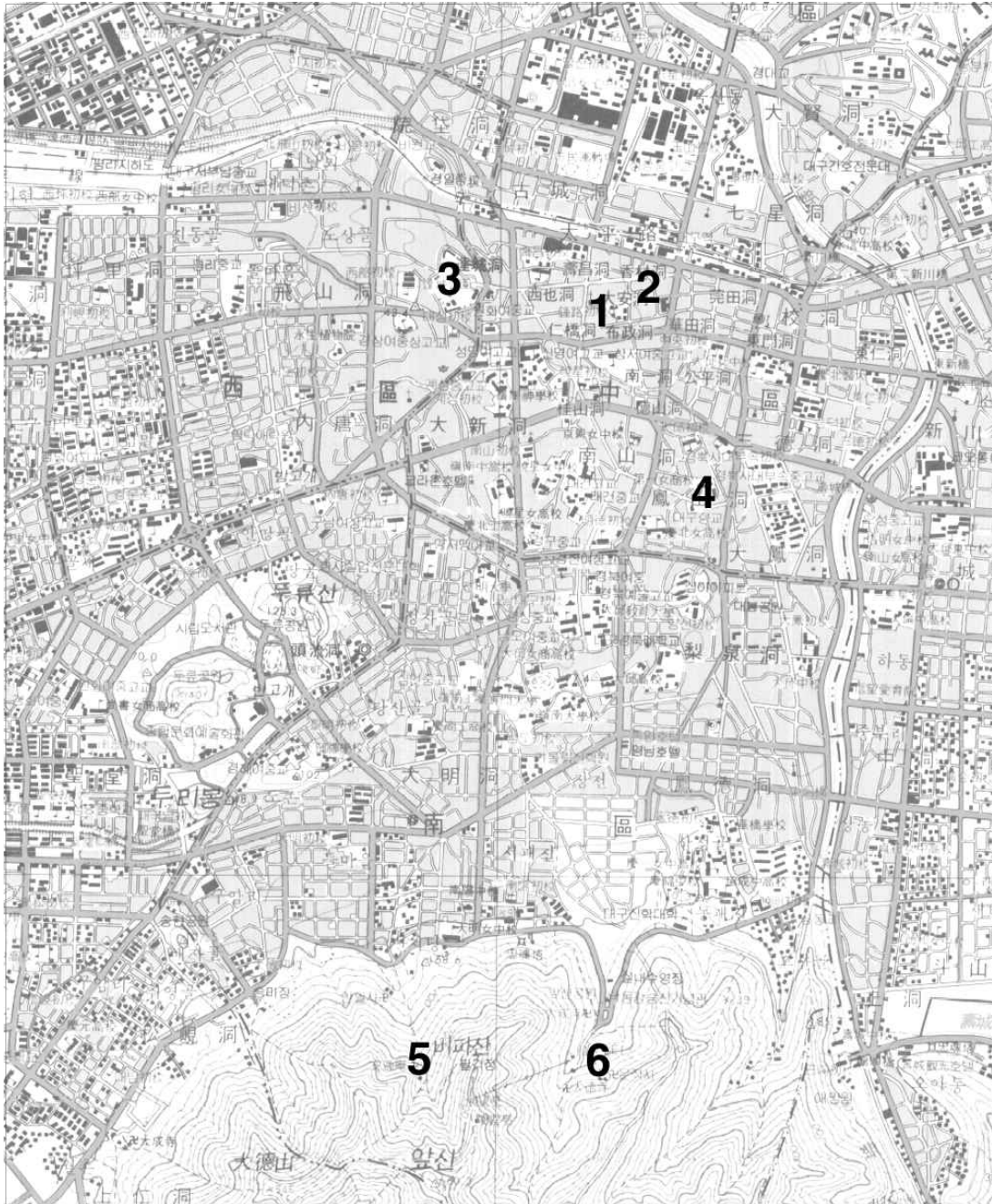
이처럼 중·남구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관아용 건물이 많은 이유는 중구지역이 조선시대 경상감영이 위치했던 역사적 장소라는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도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찰건축이 2건 조사된 것은 남구지역에 대덕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2동의 관아건물이 남아있는 옛 중앙공원은 최근 경상감영공원으로 개명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시민들이 경상감영의 역사적 의미를 인식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심휴식공원으로 새롭게 정비·단장되었다.

○ 중·남구지역 조사대상 고 건축물 목록

연번	건물명	지정종별	건립년대	소재지
1	선화당	대구 유형문화재 제1호	1807년	중구 포정동 21번지
2	징청각	대구 유형문화재 제2호	1789년	중구 포정동 21번지
3	관풍루	대구 문화재자료 제3호	1973 복원	중구 달성동 350-1번지
4	대구향교	대구 문화재자료 제1호 (대성전)	1932년	중구 남산동 735-4번지
5	안일암	비지정	미상	남구 대명동 225번지
6	은적사	비지정	947	남구 봉덕3동 산1572번지

○ 중구·남구지역 조사대상 고 건축물 위치도



1. 선화당 (宣化堂)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21번지
- 건립년대 : 1807년
- 건축규모 : 정면 6칸 · 측면 4칸, 겹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선화당은 선조 34년(1601) 안동에 있던 경상감영을 대구로 옮겨오면서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을 관찰사가 공무를 보던 곳으로 1730년 두 차례의 화재를 입었고, 현존하는 건물은 세 번의 화재가 있는 뒤인 순조 7년(1807) 관찰사 겸 부사인 윤광안(尹光顔)이 있을 때 재건된 것이다. 그 후 1969년까지 당시 경북도청 구내에 있었으며, 1970년 이곳이 중앙공원으로 조성되면서 보수공사가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이 건물은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선화당은 중앙공원 안에 있는 경상감영 때의 건물 정청각 앞에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6칸, 측면 4칸으로 사면이 개방되어 있다. 겹처마 팔작지붕의 이 건물은 정면과 측면 모두 양 협칸쪽으로 갈수록 칸살이 좁다.

구조 양식은 네모의 화강석 정평 초석 위에 두리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를 주두와 앙서, 수서로 장식한 2익공 양식이다. 이 건물의 상부 가구는 2고주(高柱) 7량(樑)으로, 대들보 위에 대접받침을 놓고 그 위에 침차와 소로를 겹쳐 놓아 뜬창방과 이중보를 받게 하였다. 이중보 위에는 등자주를 세워 뜬창방과 종보를 받도록 했고, 종보 위에는 침차와 소로를 둔 파련 대공을 두어 종도리와 장혀를 받고 있다. 건물 천장은 일부에만 우물반자를 그리고 나머지는 연등천장으로 꾸몄다.

선화당은 경상감영의 정청(政廳)으로 쓰이던 건물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현존하는 관아건축의 실례들이 별로 없는 점을 생각할 때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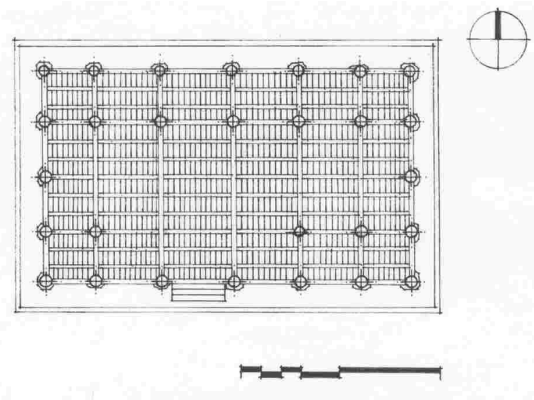
선화당과 정청각 전경



▲ 정면



▲ 측면



선화당 평면도

2. 징청각 (澄清閣)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21번지
- 건립년대 : 1789년
- 건축규모 : 정면 8칸 · 측면 4칸, 겹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징청각은 대구시 중구 포정동 21번지 중앙공원 안에 있다. 현재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선조 34년(1601) 경상감영이 대구로 옮겨올 때 선화당(宣化堂), 응향당(凝香堂) 등 여러 채의 건물과 함께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은 관찰사의 관사라 할 수 있는 내아(內衙)로 1730년 두 차례의 화재를 입었으며, 지금의 건물은 정조 13년(1789)에 새로 지은 것이다. 그 후 1970년 옛 경상감영 자리가 현재의 중앙공원으로 조성되면서 보수공사가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징청각은 선화당 뒤쪽 왼편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은 정면 8칸, 측면 4칸으로 정면과 측면 칸 모두 협칸으로 갈수록 칸살이 좁다. 바닥에는 장마루를 깔고, 개방된 네 면에 난간을 돌려 누마루처럼 꾸몄다. 건물 앞쪽 가운데 네 단의 화강석 계단을 두어 마루에 오르게 했다.

건물의 구조 양식은 겹처마 팔작지붕의 익공계로 네모의 화강석 정평 초석 위에 두리기둥을 세우고 주두와 양서, 수서로 장식한 2익공 양식이다. 건물의 가구는 2고주 7양으로 선화당과 같은 구조이며, 천장은 내진주로 둘러 쌓인 부분은 우물반자를 그리고 그 바깥은 연등천장으로 꾸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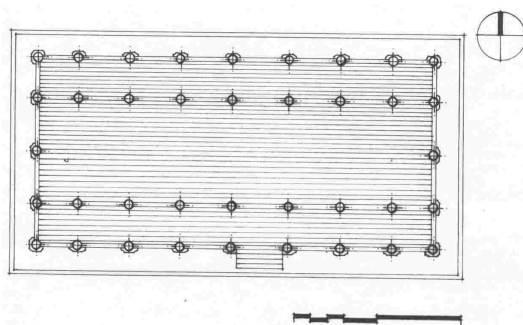
이 건물은 건축된 이후 많이 개조된 것으로 보이며, 선화당과 함께 대구에 남아 있는 관아건물로 건축적 가치가 매우 높다.



▲ 정면



▲ 측면



징청각 평면도

3. 관풍루 (觀風樓)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350-1번지
- 건립년대 : 1973년 복원

- 건축규모 : 정면 3칸 ·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관풍루는 선조 34년(1601) 대구로 옮겨온 경상감영의 정문이었다. 대구에 감영이 설치되면서 선화당의 정남쪽에 포정문(布政門)을 세우고 그 위에 문루를 만들어 관풍루라 했다. 관풍루는 폐문루(閉門樓)라고도 불린 것으로 주위에 큰 북, 종, 피리, 나팔 등 풍악기구를 준비해 놓고 매일밤 10시에 문 닫고, 새벽 5시에 문 여는 풍악을 올렸다고 한다. 이 풍악소리에 맞춰 동서남북 4개 성문을 열고 닫는 의식절차를 엄숙히 행하였다고 한다.

관풍루라는 이름은 ‘감사가 루상에서 세속을 살핀다(觀風世俗)’는 말에서 나왔다. 이 루에서 30보쯤 남쪽에는 “절도사이하개하마비(節度使以下皆下馬碑)”가 있어 감사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면 말에서 내려 걸어 들어오도록 했다.

그 후 1906년 대구 읍성이 헐리면서 지금의 달성공원 안으로 옮겼으나, 건물이 낡아 1970년 해체하여 1973년에 복원하였다. 관풍루는 달성공원의 최제우 동상 뒷편 34단의 돌계단을 둔 높은 언덕 위에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루각으로, 화강석 외벌대 기단을 조성한 후 바닥은 전을 깔았다. 건물의 아랫층은 어칸이 양 퇴칸보다 넓으며, 윗층은 우물마루 통칸으로 네 면에 한 자 가량의 쪽마로를 내밀고 거기에 계자난간을 돌렸다.

아랫층에는 뒷쪽 어칸 바로 앞에 한 칸 길이로 반칸폭의 나무계단을 설치하여 윗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게 하였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내림마루에는 갑상을 두어 장식하였다. 전체 구조 양식은 화강석 정평초석 위에 두리기둥을 세우고 연꽃은 투각한 양서와 초각한 쇠서, 봉두 등을 주두와 결구한 2익공 양식이다.

윗층의 구조는 5량가로 대들보 위에 대접받침을 얹고 초각한 보아지와 침차, 소로를 결구하여 종보와 중도리, 장혀를 받도록 했다. 종보 위에 소로를 둔 사다리꼴 판대공을 세워 중도리와 장혀를 받게 하고,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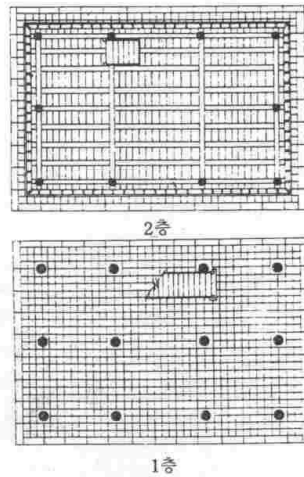
이 건물은 현재의 자리로 옮겨지면서 많은 부재가 새 것으로 교체되었으나 건축 당시의 양식을 좇아 크게 변형되지 않았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2층 누각형식의 조선시대 읍성 문루라는 점에 건축사적 가치가 있다.



▲ 정면



▲ 측면



관풍루 평면도

4. 대구향교 (大邱鄕校)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호(대성전)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735-4번지
- 건립년대 : 1932년
- 건축규모 :
 - ① 대성전 - 정면 3칸, 측면 3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② 동 무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③ 서 무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④ 내삼문 - 정면 3칸, 측면 2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대구향교는 태조 7년(1398) 대성전과 명륜당을 창건하였으나 정종 2년(1400)에 소실되었다. 이후 선조 34년(1601)에 대성전, 선조 39년(1606)에 명륜당을 중건하였고 1932년에 현재의 남산동으로 옮겨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대구부읍지(大丘府邑誌)》는 대구향교의 연혁에 대해 “향교는 부(府)의 동쪽 2리에 있다. 처음에는 동문밖 고성(古城)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곳을 옛 향교터라고 한다. 이후 선조 32년(1599)에 달성으로 옮겼다가 선조 38년(1605)에 달성으로부터 지금 있는 곳으로 개축하였다. 명륜당과 동·서재는 모두 성균관 제도대로 했으며, 이들 건물은 聖廟(文廟) 뒤에 있다.”라고 했다.

이상의 기록과 전하는 방에 의하면 대구향교는 태조 7년(1398) 부동(府東) 2리(지금의 동성로 교동으로 추정)에 건립되었으나,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의 병화에 소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선조 32년(1599)에 관찰사(觀察使) 한준겸(韓俊謙)·부사(府使) 김구정(金九

鼎)이 달성공원 남각(南角)에 건립하였으나, 관찰사(검 부사) 유영순(柳永詢)이 ‘사갈부상지조(蛇蝎不祥之兆)’로 장계를 올려 윤허를 받아 옛터인 교동에 다시 옮겨졌지만 명륜당은 역부족으로 건립하지 못하였다. 인조 2년(1624) 대구 사람이 명륜당 건립안을 부사 한명옥(韓明勗)에게 건의하여 즉시 착공하게 되었으며, 이듬해에 준공하였다.

그 후 대구향교는 3백여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주변이 시가지로 변해 복잡하므로 1932년에 지사(知使) 김서규(金瑞圭)·군수(郡守) 박제륜(朴濟輪)·직원(直員) 전병곤(全柄坤)이 상의하여 현 소재지에 옮겨지었다. 1932년 4월 8일에 개기하여 6월 25일 상량하였으며, 9월 25일에 준공하였다. 당해 10월 3일에 위패를 봉안하고, 10월 8일에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그 후 1973년과 1990년 두 차례 보수 정화공사를 실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향교의 배치는 대성전 앞에 동·서무가 있고 명륜당 앞에는 동·서재가 있어야 하지만 대구향교가 지금의 남산동으로 이전할 당시 대구 유림 단체에서 항일 운동이 심하였으므로 동·서재가 있으면 유생들이 독립운동 할 장소로 사용할 염려가 있어 짓지 못하게 했다. 최근 1990년에 들어와 시비 1억 5천만원과 자체 부담 5천만원으로 낙옥재 32평, 동·서재 각 16평씩을 증건하였다.

대구향교는 도로에 인접한 구릉 위에 대지를 2단으로 정지하고 왼편에 대성전을, 오른편에 명륜당을 둔 ‘좌학후묘(左學後廟)’의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향공간인 대성전과 동·서무만 목조이고 명륜당을 비롯한 나머지는 모두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복원하였다. 《대구부읍지(大丘府邑誌)》의 기록을 살펴볼 때 이곳으로 옮겨 짓기 전의 향교 배치는 문묘 뒤에 명륜당이 있는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배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성전은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호로 평탄한 대지에 3단의 장대석 기단을 축조하고 윗면은 전(塼)을 깔아 마감하였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이다. 덩벙주초 위에 두리기둥을 세우고 앞쪽 벽체 각 칸에는 쌍여닫이 울거미널문을 달았는데, 어칸은 중앙에, 좌·우 퇴칸은 안쪽 기둥에 붙여 문얼굴을 구성하였다. 또한 좌우 퇴칸에는 문설주와 컹기둥 사이에 격자살로 된 광창을 만들어 놓았다. 바닥은 전(塼)을 깔아 마감하였다. 건물은 기둥머리에 창방을 결구하고 그 위에 평방을 올려 공포를 구성하면서 기둥 사이에도 들썩의 공포를 둔 내외 2출목의 다포양식이다. 이렇게 대성전을 다포계 건물로 건축한 것은 전국적으로 그리 흔한 것이 아니며 경북에선 성주향교와 대구향교 두 곳 밖에 없다.

가구는 2고주 5량가로 두 개의 대들보를 사용하여 앞 뒤 평방 위의 삼제공에 걸친 후 동자주를 세워 주두를 올리고 첨차와 보아지를 끼운 후 중보를 올려 놓았다. 중보 위에는 파련대공을 두고, 장혀 하부에는 뜯창방을 결구하였다. 대들보 양 볼을 깎아 직재로 반듯하게 치목을 하였으며, 동자주에 꽃힌 보아지를 삼제공 살미와 같은 형상으로 한 것이 재미있다.

또한 첨차는 하부를 쌍 S자로 초각한 것을 사용하였다. 천장은 다포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반자를 설치하지 않고 서까래가 노출된 연등천장으로 하였는데, 이는 성주향교 대성전과 같은 수법이다. 건물내부는 바닥을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였으며 어칸 뒷벽 가까이에 공자의 위패를 그리고 그 좌우엔 선현들의 위패를 모셨다.

동·서무는 장대석 외별대 기단 위에 두리기둥을 세운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 지붕 건물이다. 내부는 3칸통으로 어칸에만 문열굴 내어 쌍여닫이 울거미널문을 달고, 좌우 퇴칸에는 중방 위에 격자살의 광창을 1개씩 내었다. 건물 바닥은 전(塼)을 깔아 마감했다.

내삼문은 정면3칸, 측면 2칸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앞쪽 3칸 에 모두 쌍여닫이 띠장 널문을 달고 그 상부에 홍살을 꽂았다. 구조는 3량가의 초익공으로 살미는 동·서무의 그것과 동일하며 첨차는 밑면을 쌍 S자로 초각하였다.



▲ 전경



▲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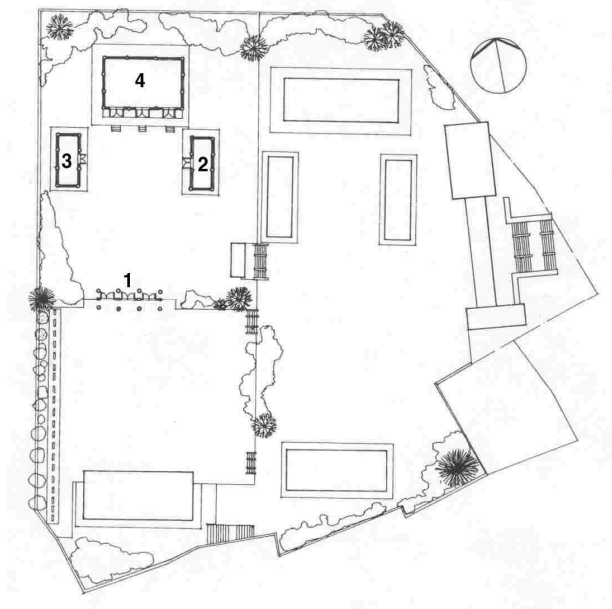
▲ 대성전



▲ 낙육재



▲ 양사재



대구향교 배치평면도

5. 안일암 (安逸庵)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25 번지
- 건립년대 : 미상
- 건축규모 : 대웅전 - 정면 9칸 ·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안일암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 속칭 안지랑골에 위치한다. 이 암자는 1915년부터 윤상태, 서상일, 이시영, 박영모, 홍주일, 이영국, 서병용, 김규, 정순영, 황병기, 안광, 이향재, 김기성 등이 독립운동을 계획하던 곳이다. 이들은 1915년 1월 15일 안일사(安逸寺)에서 단군성조(檀君聖祖)를 봉사(奉祀)하고 신명을 다하여 국권회복 운동에 몸 바칠 것을 서약하고, 비밀결사인 '조선국권회복단 중앙총부(朝鮮國權恢復團 中央總部)'를 이곳에서 조직하였다.

1919년 3월 독립만세운동이 발발하자 중앙총부에서 윤상태 등을 명하여 경남 창녕군 진동 주재소를 습격하게 하는 등 많은 구국활동을 전개했다. 윤상태는 창원에서 동민 수백명을 모아 주재소 습격에 나섰으나 도중에 일본 헌병대와 접전하여 많은 희생자를 내기도 하였다.

이 단체는 3.1운동 이후 여러 독립운동사건과 관련이 많았으며, 이 단체와 관련되어 구속된 사람도 서상일(徐相日)외 35명이나 된다.

안일암 전체경역은 출입구 정면에 목조건물인 산신각이 놓여 있고 좌측에는 ㄱ자로 깎이

어 정면 9칸인 긴 대웅전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 전경



▲ 대웅전

6. 은적사 (隱跡寺)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산1572 번지
- 건립년대 : 1947년
- 건축규모 : 대웅전 - 정면 3칸 측면 3칸, 겹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은적사는 대구시 남구 봉덕 3동 산 1572번지에 있다. 이 절은 대덕산 케이블카 타는 곳에 서 동남향으로 280m, 대성사(大成寺)에서 산길로 600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통일신라말기 고려 태조 왕건이 고려의 창업을 도모하던 중 현재의 은적사 자리에 은신하여 난을 피하였으므로 태조 18년(936)에 이를 기념하여 영조스님이 창건하였다. 중창은 인조 4년(1627)에 취감스님에 의해서 었으며, 삼창(三創)은 1947년 해웅스님이 하였다.

이 사찰내에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대웅전과 그 좌·우측에 요사채가 배치되어 있으며, 창건 당시의 유물은 남아 있지 않다.



▲ 전경



▲ 대웅전

제4절 수성구지역

수성구지역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정문화재 4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전통건축물을 분석·기록하였다.

지 역	용 도								합계	지정 문화재
	주거	불사	채사	정자	정사	서원 향교	비각 여각	기타		
수성구지역	-	1	7	-	-	3	2	2	1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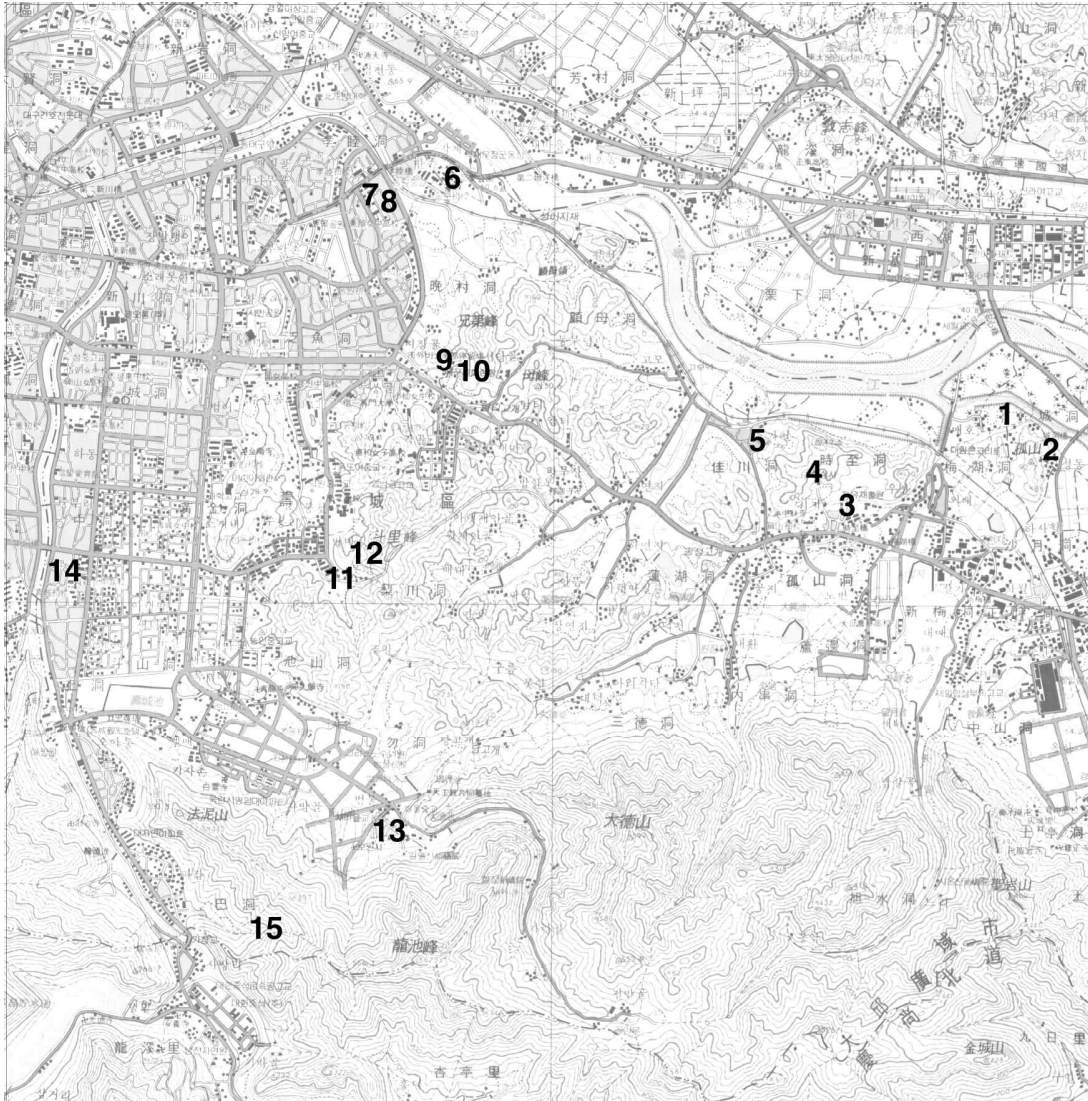
본 보고서에 최종 수록된 15건의 건축물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채사가 가장 많은 7건이며 교육용 건축물인 서원·향교가 3건, 비각·여각이 2건이다.

수성구지역 또한 최근 대구지역이 확장되면서 전통 고 건축물의 훼손이나 개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향후 적절한 보전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수성구지역 조사대상 고 건축물 목록

연번	건물명	지정종별	건립년대	소재지
1	고산서당	대구 문화재자료 제15호	1879년	수성구 성동 163번지
2	성산재	비지정	1938년	수성구 성동 203번지
3	솔일재	비지정	1997년 신축	수성구 시지동 102번지
4	증심사	비지정	1950년	수성구 시지동 산15번지
5	달성서씨재실	비지정	1900년	수성구 가천동 406번지
6	영남제일관	비지정	1980년	수성구 만촌동 90-1번지
7	독무재	대구 문화재자료 제17호	1850년경	수성구 만촌동 183번지
8	하효자 정려각	대구 문화재자료 제18호	1781년	수성구 만촌동 339번지
9	명정각	비지정	1912년	수성구 만촌동 715번지
10	모명재	비지정	1912년	수성구 만촌동 716번지
11	첨모재	비지정	1954년	수성구 황금동 258번지
12	청호서원	비지정	1969년	수성구 황금동 271번지
13	전주최씨 사당	비지정	1900년	수성구 범물동 714번지
14	야수정	대구 문화재자료 제14호	1900년	수성구 상동 140-4번지
15	오천서원	비지정	1905년	수성구 파동 432번지

○ 수성구지역 조사대상 고 건축물 위치도



1. 고산서당 (孤山書堂)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5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163번지
- 건립년대 : 1879년
- 건축규모 : 정면 4칸 · 측면 1칸,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5호인 고산서당은 성동의 서원골 야산 중턱에 북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 앞쪽에 남천(南川)이 굽이 흐르고 넓은 고산 들판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뒤편의 옛 사당터에 퇴계와 우복선생의 강학유허비가 세워져 있다. 현재 고산서당은 원래 서원이 있었던 곳으로 이에 대한 연혁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퇴계 이황(1501~1570)과 우복 정경세(1563~1633)선생이 이곳에서 강학한 바 있다 하므로 1500년대에는 이미 건립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조선 명종조에 향유(鄉儒)들과 윤희렴(尹希濂)이 재실을 짓고 퇴계선생에게 재호(齋號)를 청하여 재(齋)는 고산(孤山)으로, 문(門)은 구도(求道)로 한 퇴계의 수필(手筆)을 받았으며, ‘求道’라는 편액은 지금도 남아 있다. 사당은 임진왜란때 소실되고 선조 38년(1605)에 중건되었으며, 선조 40년(1607)년에 우복 정경세가 대구부사(大丘府使)로 있으면서 강회를 열었는데, 이때 당(唐)의 도독(都督) 이성삼(李省三)도 참강(參講)하였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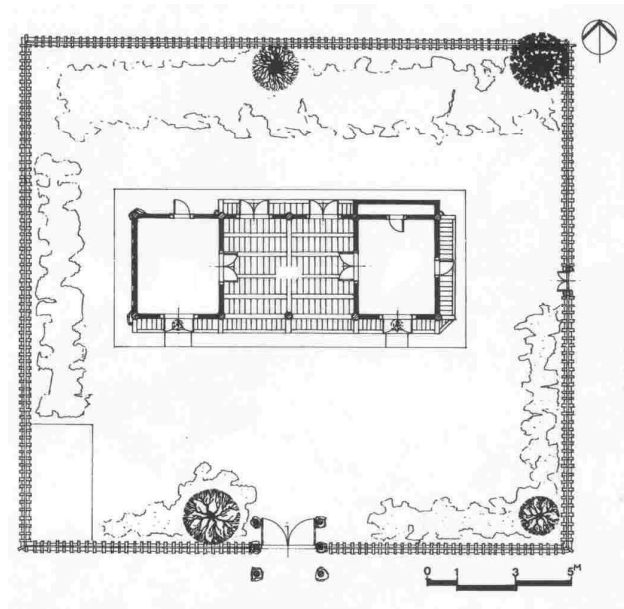
숙종 16년(1690)에 서원을 창건하여 고산이라는 당호로서 퇴계·우복 두 선생을 배향하였고, 영조 10년(1734)에 강당 및 동·서재를 건축하였으며, 영조 22년(1746)에 원우(院宇)를 중수하였다.

정조 13년(1789)에는 문루를 세우고 연안인(延安人) 김재구(金載久)가 기문(記文)을 찬(撰)하였다. 순조 22년(1822)에는 위패를 잃어 개조 봉안한 바 있으며, 고종 5년(1868) 대원군의 서원 철폐시 훼철되었다. 그 후 고종 16년(1879)에 이르러 향유(鄉儒)들을 중심으로 강학계(講學契)를 수계(修契)하여 서원의 옛터에 강당만 다시 중건하여 고산서당이라 편액하였고, 1964년에 중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정면

이 서당은 모르타르 마감한 기단 위에 앉힌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홑처마 팔작지붕 집이다. 평면은 2통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온돌방 1칸씩을 구성하였다. 건물 전면, 대청 배면, 우측 온돌방에는 좁은 쪽마루를 시설하여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구조는 3량가로 막돌 덩벙주초 위에 정면 가운데 하나만 두리기둥으로 하고, 나머지는 네모기둥을 세운 간결한 민도리집 형식으로 되어 있다.



고산서당 배치평면도

2. 성산재 (城山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203번지
- 건립년대 : 1938년
- 건축규모 : 정면 4칸 · 측면 1칸,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성산재는 수성구 성동 203번지에 있는 재실로 인천인(仁川人) 달서재(達西齋) 채선수(蔡先修)를 위한 우묘소(寓墓所)이다. 현 건물은 대청 상부에 새겨진 “무인정월이십오일오시입주해시상량(戊寅正月二十五日午時立柱亥時上樑)”이란 상량문의 내용으로 보아 약 63년전인 1938년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재실은 정면 4칸 · 측면 1칸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로 방형의 일곽에 남동향하여 배치되었다. 평면은 일자형(一字形)인데 2통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온돌방 1칸씩을 구성하였다. 좌·우 온돌방 전면에는 좁은 쪽마루를, 배면에는 벽장을 시설하였다. 창호는 온돌방

전면과 청방간(廳房間)에는 세살문을, 대청 배면에는 쌍여닫이 골판문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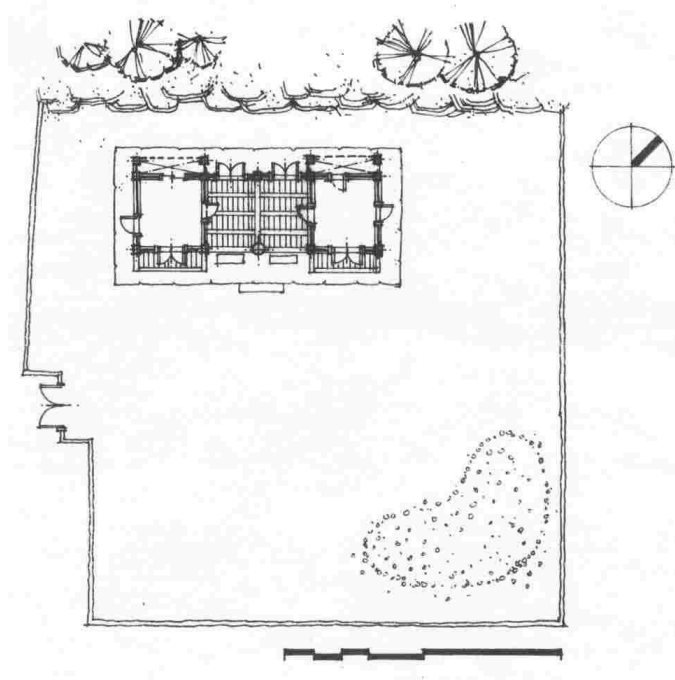
건물의 가구는 대들보 위에 대공을 얹어 마루도리를 받게 한 3랑가이다.



▲ 정면



▲ 측면



성산재 배치평면도

3. 솔일재 (率一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102번지
- 건립년대 : 1997년 신축

- 건축규모 : 정면 5칸 · 측면 1.5칸, 겹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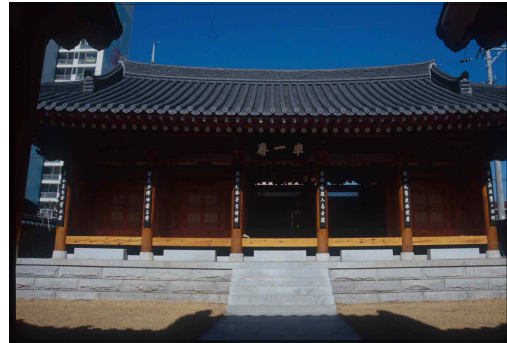
술일재는 수성구 시지동 102번지에 소재한 재실로 정면 3칸 ·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며 밀양인 대사헌(大司憲) 박해(朴咳)의 우묘소(寓墓所)이다.

박해는 밀직부원군(密直府院君) 중미(中美)의 차자(次子)로서, 고려조에 문과에 올라 사헌부 대사헌을 역임하고 국사가 소란하여 청주에 은거하였다가 고산면 신매동(현 수성구 신매동)에 이거(移居)하였다고 한다.

1997년 10월 밀양박씨 대사헌공파에서 구 술일재 건물을 헐고 정면 5칸, 측면 1.5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지붕 목조건물을 신축하였다.



▲ 전경



▲ 정면

4. 증심사 (證心寺)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산15번지
- 건립년대 : 1950년
- 건축규모 :
 - ① 대웅전 - 정면 3칸 ·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② 명부전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③ 극락전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증심사는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산15번지에 있는 사찰로, 1950년 정오화상(正悟和尚)이 창건한 법화종계의 사찰이다. 일주문을 들어서서 우측에 오층석탑과 사천왕상이 있는 천왕문이 있으며 좌측에는 요사채가 있다. 그리고 계단 위 정면 3칸 ·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대웅전이 있으며, 우측에는 지장보살과 십대천왕이 모셔진 명부전(冥府殿)이, 그리고 좌측에는 극락전(極樂殿)이 있다. 극락전 위에는 산령각(山靈閣)과 천태각(天台閣)이 있다.

이 사찰은 창건연대가 오래지 않고 건물 역시 현대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나 명부전에
높이 12m, 폭 6m의 대구·경산 지방에서 가장 큰 괘불(掛佛)이 보존되고 있어 주목된다.



▲ 대웅전



▲ 극락전



▲ 명부전

5. 달성서씨 재실 (達城徐氏 齋室)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천동 406번지
- 건립년대 : 1900년
- 건축규모 : 정면 4칸·측면 1.5칸,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재실은 수성구 가천동 406에 자리잡고 있는 달성서씨 재실로 1900년에 건립된 것이다. 재실에는 대지 270평에 목조와가 2동, 초가 1동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건물은 몸채가 4.5칸(12평), 행랑이 4칸(8평) 규모의 와가(瓦家)이며, 헛간은 초가로서 2칸(4평)이다. 담장은 토담으로 축조되었다.



▲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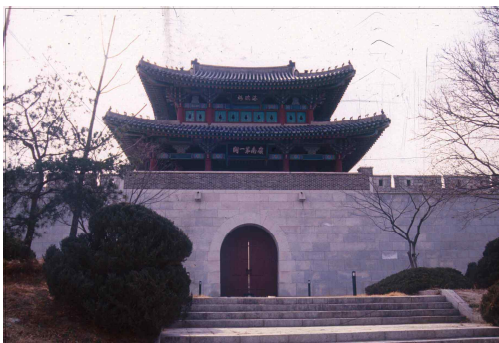


▲ 배면

6. 영남제일관 (嶺南第一關)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90-1번지
- 건립년대 : 1980년
- 건축연혁 및 현황 :

한국에서는 고래로 구릉과 산성(山城)을 방수의 요충으로 중시하고 평지에 있는 취락에 성을 축조하는 예가 드물었다. 대구의 평지에 읍성을 축성한 것은 조선 선조 24년(1591)으로 이 토성은 1년 뒤인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란으로 파괴되고 그후 140여년이 지난 영조 12년(1736)에 석성이 새로 축조되었다. 이때의 축성 사실을 기록한 ‘축성비’에 따르면 이 성에는 동서남북의 네 정문이 있고, 각 정문에는 문루를 세웠는데, 동문을 진동문, 서문을 달서문, 북문을 흥북문이라 불렀다고 한다. 특히 남문에는 ‘嶺南 第一關’의 편액을 달았다. 이밖에 동서에 두 개의 암문(暗門)이 더 있었다.



▲ 정면



▲ 측면

영조 12년(1736)에 축성된 읍성은 광무 10년(1906)과 융희 1년(1907) 사이에 남문과 더불어

어 완전히 헐리고 말았다. 지금 남아 있는 당시의 남문 사진을 보면 성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석축 기단의 중앙에 홍예문을 내고 그 위에 2층 문루를 세웠으며, 규모는 하층의 정면·측면이 모두 세 칸이다.

남문을 처음 축조한 사람이 관찰사 민응수이며 그는 경상도 관찰사로 취임하기 전에 전라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전주 풍남문(豐南門)을 세웠다. 사진에 남아 있는 남문은 바로 전주 풍남문과 같은 형태이다.

대구시에서는 1980년에 없어진 대구읍성의 남문인 영남제일관을 수성구 만촌동 산 83-5번지 망우공원내 금호강변에 옛모습을 찾아 중건하였다.

7. 독무재 (獨茂齋)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7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83번지
- 건립년대 : 1850년, 1968년 이건
- 건축규모 : 일곽(3동)
 - ① 독무재 - 정면 6칸·측면 1.5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② 경덕사 - 정면 3칸·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③ 내삼문 - 정면 3칸·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19세기 중엽에 지은 이 재실은 벼슬을 마다하고 향리에 은거하여 후진 양성에만 전념한 하시찬(夏時贊)선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그의 제자들과 유림들이 세운 것이다.

하시찬선생은 영조 26년(1750) 2월 6일 지금의 수성구 만촌동에서 태어나 순조 28년(1828)에 별세하였는데, 그는 특히 예학에 밝아 《팔예절요(八禮節要)》 2권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원래 선생은 현재의 독무재가 있는 서쪽으로 50m 지점에 ‘독무암루(獨茂岩樓)’란 조그마한 재실을 짓고 기거하였다. 이때가 선생이 39세 되던 정조 13년(1789)인데 그는 일찍이 당대의 석학이던 이경우(李景祐)와 송성담에게서 수학하였으며, 그의 명성을 듣고 배우기를 청해 모이는 젊은이들로 독무암에서는 언제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다.

독무재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제자들과 유림에서 학계를 만들어 건립한 것이며, 독무재 옆에는 경덕사를 지어 매년 3월 상정일(上丁日)에 각지의 유림들이 모여 춘향(春享)을 지내던 것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원래 효목동 경부선 철로변에 있던 독무재는 1967년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1968년 4월 현 위치로 이건하였는데, 이건 하면서 독무재의 서쪽에 경덕사(景德祠)와 장판각(藏板閣)을 신축하였으며 장판각에는 지금도 《팔예절요(八禮節要)》와 《이암문집(怡菴文集)》의 판각이 보관되어 있다.

독무재 경역을 이룬 장방형 대지내에 사당인 경덕사와 재실인 독무재가 남동향하여 병렬

로 배치되어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독무재가 있고 그 좌측 뒤로 별도의 담장안에 경덕사가 자리잡고 있다. 독무재는 정면 6칸·측면 한칸반 규모로 중앙에 2칸 대청을 두고, 그 좌우에 2칸통 온돌방을 대청으로 배치했다. 그리고 건물 앞쪽에는 반칸 폭의 전퇴를 시설하고 그 양단에 문을 달았다.

독무재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한 기단 위에 원형 기둥을 세운 간략한 3량가의 2익공 집으로, 대들보 위에 제형판대공을 놓고 마루도리를 받게 했다. 기둥 위에 짜 맞춘 익공은 매우 장식적인 솜씨를 하고 있다.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으로 좌우 박공부에 풍판을 달았다.

3칸 규모의 내삼문을 통해 경덕사로 들어가면 경덕사 좌측에는 제기고(祭器庫)가 배치되어 있다. 경덕사는 단청한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매칸마다 노란색 바탕에 태극 문양의 두 짝 판문을 달았다. 건축양식은 독무재와 같은 2익공으로 익공 쇠서를 봉두형(鳳頭形)으로 장식하였다.



▲ 독무재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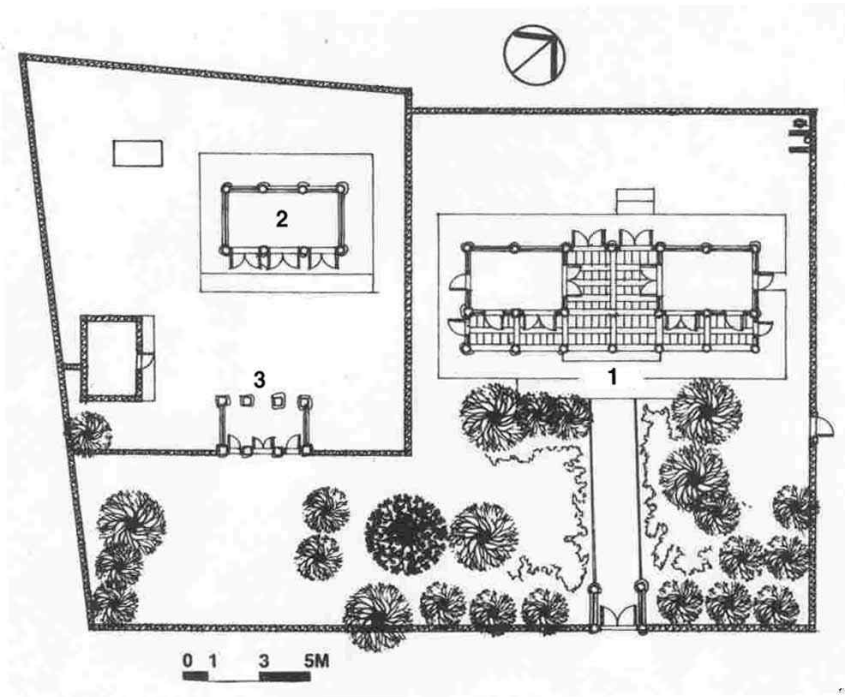
▲ 독무재 측면



▲ 경덕사 정면



▲ 비각



독무재 배치평면도

8. 하효자 정려각 (夏孝子 旌閭閣)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8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339번지
- 건립년대 : 1781년
- 건축규모 : 정면 1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정려각은 고려 때 이부시랑(吏部侍郎)을 지낸 하광신의 효행을 지리기 위해 고려 충숙왕 14년(1327)에 그가 살던 마을에 ‘이부시랑 하광신지려(吏部侍郎 夏光臣之閭)’란 정문(旌門)을 세운 것이 효시였다. 현재의 건물은 정조 5년(1781)에 만촌동 형제봉 기슭에 세웠던 것을 일제 때 경부선 철도가 놓이면서 현 위치로 다시 옮긴 것이다. 비문은 이조판서겸 홍문관대제학 황경원(黃景源)이 지었고 두전(頭篆)과 비문의 글씨는 이약채(李若榮)가 썼다.

하광신은 원래 중국 송나라의 대도독으로 고려시대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달성군(達成郡)에 봉군된 하흠(夏欽)의 아들 하영의 손자로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 치는 겨울에 복숭아를 구해 다 준 전설적인 효행 등 이에 대한 이야기가 술하게 많다.

이 정려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단칸 규모로 그 중앙에 정려비가 놓여있다. 구조는 간략한 3량가로 낮은 기단 위에 원형으로 다듬은 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운 2익공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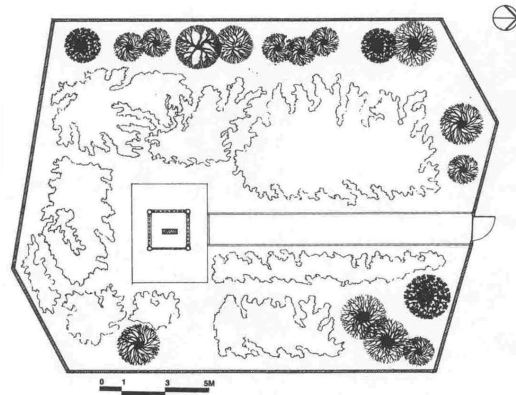
대들보 위에 놓인 제형판대공이 마루도리를 받고 있으며, 지붕은 겹처마 박공지붕이다. 건물에는 모로 단청을 입혔다. 이 건물은 조선후기 정려각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 정면



▲ 배면



하광신 정려각 배치평면도

9. 명정각 (命旌閣)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715번지
- 건립년대 : 1912년
- 건축규모 : 정면 1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명정각은 명나라에서 귀화한 두사충(杜師忠)의 7대손인 두한필(杜漢弼)의 효행을 알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두한필은 순조 23년(1823)에 태어나 고종 30년(1893)년에 죽었는데, 부모에 대한 효행이 지극하였다 한다. 그의 사후에 조정에서 정려가 내려오고 종이품 관직인 ‘통훈대부규장각직각(通訓大夫奎章閣直閣)’을 증직하였다.

명정각은 1912년 두사충을 모신 모명재를 지을 때 함께 건립한 것으로, 1966년에 보수하

였다. 이 건물 동북쪽 100여 미터 지점에 두한필의 묘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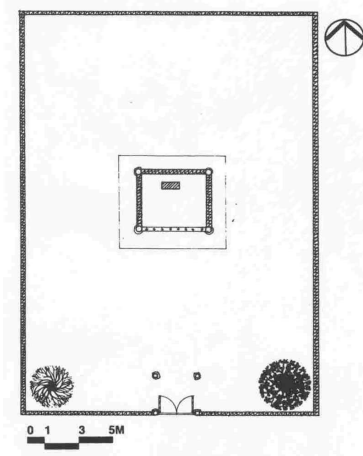
이 건물은 정·측면 각 1칸의 단칸 겹처마 맞배지붕 집이다.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한 기단 위에 원형의 다듬돌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둥근 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대들보 위에 제형판대공을 세운 3량가이고, 건축양식은 2익공으로 하였다. 건물은 전면만 살창을 끼고, 나머지 3면은 중방 하부를 붉은 벽돌로 쌓았다. 기둥 상부는 모로단청으로 주의를 입히고, 뒤벽 중방 위에는 흰색 바탕에 별화를 그려 놓았다.



▲ 전경



▲ 정면



명정각 배치평면도

10. 모명재 (慕明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716번지
- 건립년대 : 1912년
- 건축규모 : 일곽(2동)

① 재 실 - 정면 4칸 ·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② 대문채 - 정면 1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모명재는 임진왜란때 우리나라에 원병을 왔던 명나라 장수 두사충(杜師忠)이 귀화한 후 그의 후손들이 1912년에 세운 것이다.

두사충의 호는 모명(慕明)으로 중국의 두릉(杜陵)이 고향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 해 12월 명나라 제독이던 이여송(李如松) 등과 함께 원병을 와서 주위의 지형을 살펴서 진지에 적합한 장소를 만들도록 터를 잡아 주는 임무인 수륙지획 주사(水陸地劃 主事)를 맡았다. 따라서 그는 이여송의 일급 참모로서 항상 군진을 펴는데 조언을 했고, 조선과의 합동작전을 할 때는 조선 군과도 전략 전술상의 긴밀한 협의를 가져왔다. 정유재란때 두 아들과 함께 원병을 와서 공을 세웠는데 난이 평정된 후 조선에 귀화하였다.

조선에 귀화한 두사충은 대구에 정착하면서 현재의 중앙공원 일대를 하사 받았는데, 경상도 감영을 대구로 옮기자 그 땅을 내어주고 현재의 계산동 일대 두씨(杜氏)들의 세거지로 옮겼다.

그러나 중국에 두고 온 부인과 형제들이 생각나 최정산(最頂山, 현 대덕산)밑으로 주거지를 옮겨 명나라를 생각한다는 뜻에서 동네 이름을 대명동이라 붙이고 단을 쌓아 매월 초하루가 되면 관복을 입고 고국의 천자를 향해 배례를 올렸다 한다. 그의 사후 자손들은 두사충의 유언에 따라 형제봉 기슭에다 묘소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모명재는 1912년 경산 객사가 헐리자 그 재목을 사와 두사충의 묘소 앞에 지은 것인데 1966년 2월 건물이 너무 낡아 중수하였다. 모명재라고 한 것은 고국인 명나라를 사모한다는 뜻이고 대문에 달려 있는 만동문(萬東門) 역시 ‘백천유수필지동(百川流水必之東)’이라는 말에서 따온 것인데, 이것 또한 그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뜻이다.



▲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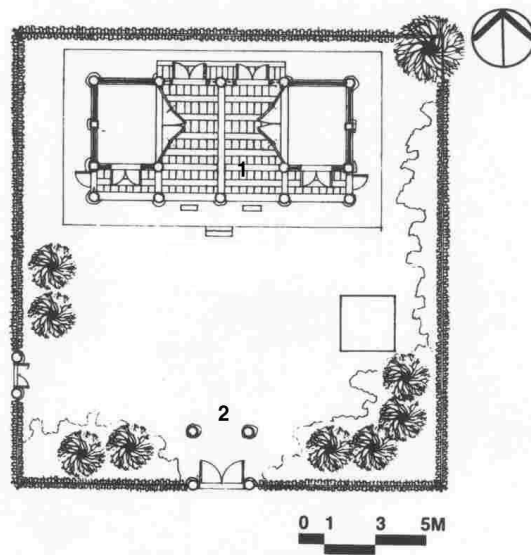


▲ 정면

또한 두사충의 묘소 앞에 있는 비문을 별도로 다시 새겨 모명재 앞뜰에 신도비를 세웠다. 이 비문은 이순신 장군의 7대손인 삼남 수군통제사(三南 水軍統制使) 이인수(李仁秀)가 지었는데 임란 당시 이순신과 두사충의 친밀한 관계가 후손들에게까지 접촉을 갖게 했음을 알

수 있다.

모명재는 네모 반듯한 대지에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대문을 통해 들어가면 앞쪽에 모명재가 있는데,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기와 집이다. 어칸의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들였으며, 앞쪽에는 반칸 규모의 퇴칸을 두었다. 건물 정면의 여모중방 밑은 붉은 벽돌로 영롱 쌓기를 했다. 가구는 5량가의 건실한 구조로 중보 위에는 원형판대공을 세웠으며 앞쪽의 창방과 장혀 사이에는 화반을 끼워 장식하였다. 이 재실은 20세기 초 대구지역 재실 건축의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모명재 배치평면도

11. 첨모재 (瞻慕齋) 및 덕산서원 (德山書院)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258번지
- 건립년대 : 1954년
- 건축규모 : 일곽(6동)
 - ① 외삼문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② 강당 - 정면 4칸 · 측면 1.5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③ 동재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④ 서재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⑤ 비각 - 정면 1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⑥ 사당 - 정면 3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첨모재는 수성구 황금동 258번지에 있는 재실로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절개를 지켰던 남은(南隱) 서섭(徐涉)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것이다.

서섭은 달성서씨 판서공파(判書公派)의 파조(派祖)로 세종때 대과에 급제, 문중을 거쳐 단종때에 이르러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까지 지낸 인물이다. 그는 단종에게 상소를 올려 간신을 멀리하고 집현전 학자들을 가까이할 것을 권유하고 국정전반의 개혁을 주장하다가 오히려 유배를 당하기도 했다. 그 후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호를 남애(南涯)에서 남은(南隱)으로 바꾸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은둔 생활을 했다.

영조 22년(1746) 12월 김종서(金宗瑞) 등과 사육신에 대한 복관이 허용될 때 빠져버리게 되어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후손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60여 년 전 그가 살던 낡은 가옥을 헐다가 천장에서 밀봉된 껌짜를 발견하였는데 거기에는 그의 행장(行狀)을 적은 기록과 유고가 대량으로 들어 있었다. 그래서 늦게나마 서섭의 충절을 알게 된 손자들과 유림에서 1926년 3월 그의 묘소가 있는 황금동에 첨모재를 건립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지의 유림에서 서원을 세워 향사를 하고 있는데, 전북 무주의 분양서원(汾陽書院)에서는 추향(秋享)을, 경북 영일의 중앙서원(中陽書院)에서는 춘향(春享)을 지내고 있다.

1954년 8월 중수하였으며 최근 대대적으로 경역을 확장하고 당우(堂宇)를 신축하여 덕산서원(德山書院)이라 편액하였다.



▲ 전경



▲ 강당



▲ 동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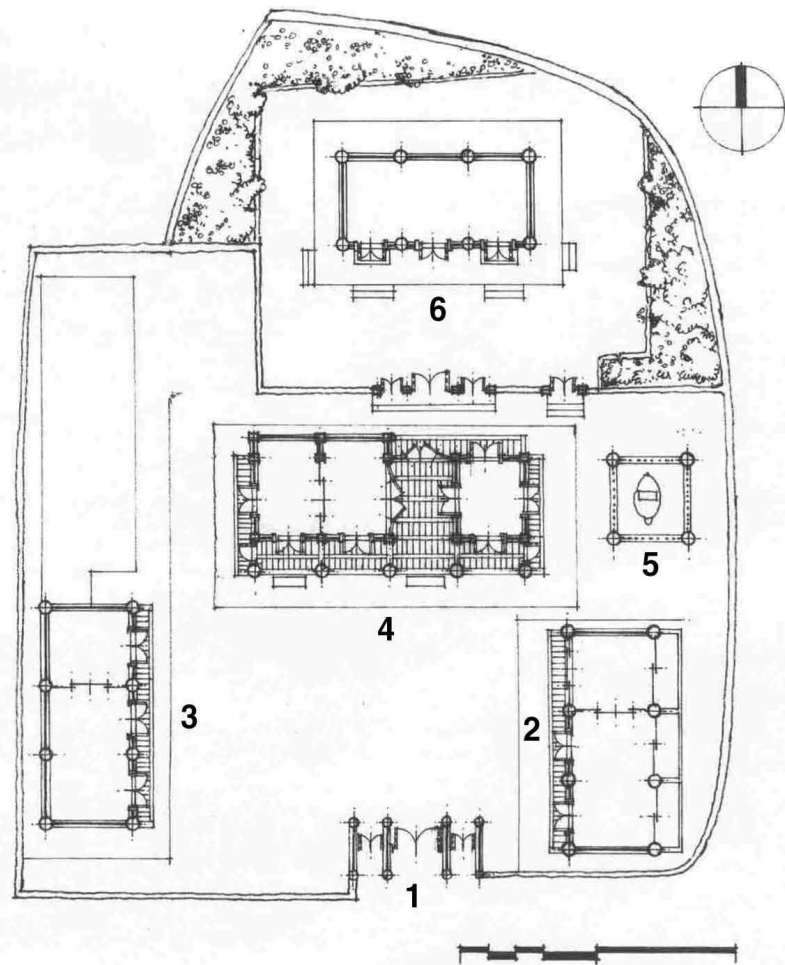


▲ 사당

정남향으로 좌정하고 있는 덕산서원은 2단으로 조성된 대지에 외삼문(崇節門), 강당(忠正堂), 사당(景義祠)을 일축선상에 두어 전학후묘형(前學後廟形)의 배치형태를 띄고 있다. 강당 앞에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동재(求仁齋)와 서재(存誠齋)를 두었으며 강당 우측에는 비각을 배치하였다. 사당은 강당 뒤편 높직한 곳에 토담으로 둘러막혀 일곽을 형성하고 있다.

강당(忠正堂)은 정면 4칸, 측면 1.5칸 규모의 일자형(一字形) 건물로 홀치마 팔작지붕을 이었다. 평면은 전면이 개방된 2통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 온돌방 2칸, 우측에 온돌방 1칸을 두고, 대청과 온돌방의 전면에는 퇴칸을 구성하였다.

사당(景義祠)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통칸건물로 겹처마 맞배지붕을 이었으며 박공 양단에는 풍판을 달았다.



덕산서원 배치평면도

12. 청호서원 (靑湖書院)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271번지
- 건립년대 : 1969년
- 건축규모 : 일곽(동)
 - ① 비 각 - 정면 1칸 ·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② 외삼문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③ 강 당 - 정면 4칸 · 측면 1.5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④ 내삼문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⑤ 사 당 - 정면 3칸 · 측면 2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서원은 조선조 학자인 모당(慕堂) 손처눌(孫處訥), 사월당(沙月堂) 유시번(柳時蕃), 격재(格齋) 손조서(孫肇瑞), 양계(陽溪) 정호인(鄭好仁) 네 분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손처눌은 조선조 명종 8년(1553)에 태어나서 인조 12년(1634) 세상을 떠날 때까지 줄곧 향리에서 후진 양성에 힘쓴 학자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는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무찌르기도 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손처눌은 그의 처소인 영모당(永慕堂)에서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는데, 영모당엔 많은 선비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옆에 망사암 · 분암 · 풍뢰헌 · 산탁재 등을 지어 선비들을 분산 교육하였다. 《영모당 통강제자록(永慕堂 通講諸子錄)》에는 문인 202명의 명단이 적혀 있어 그 규모를 짐작케 한다. 또 그는 마을 앞에 청호지(靑湖池)란 못을 만들어 천수답을 수리 안전답으로 바꾸는 등 영농방법 개선에도 힘썼고 임진왜란이 끝난 후 조정에서 논공행상을 할 때도 끝까지 상을 사양하였다.

그가 세상을 떠난 60년 뒤인 숙종20년(1694) 유림에서 황청동(지금의 황금동)에 청호서원을 건립하고 그의 위패를 모셨다. 그 후 62년뒤인 영조 31년(1755) 그의 문인인 유시번을 배향하였고, 그 뒤 40여년이 지난 정조 11년(1795) 역시 그의 문인인 정호인과 그의 6대조인 손조서를 추향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1968년 불에 타는 바람에 이듬해 강당과 위패를 모신 사당(尙仁祠)를 중건한 것이다. 서원 입구 왼쪽에는 1947년에 ‘모당선생유허비(慕堂先生遺墟碑)’를 안치한 비각이 있는데, 비문은 일제 때 의병장인 김도화(金道和)가 지은 것이라 한다.

비각 바로 뒤편에 정면 중앙에 삼문을 내고 강당을 배치한 일곽이 있고 그 후우측(後右側)에 별도로 삼문을 시설하고 사당을 앞힌 일곽이 자리잡고 있다. 강당은 정면 4칸, 측면 1칸반 규모로 가운데 2칸 대청을 두고 그 좌우에 온돌방에 배설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통칸으로 내부 바닥에 장마루를 깔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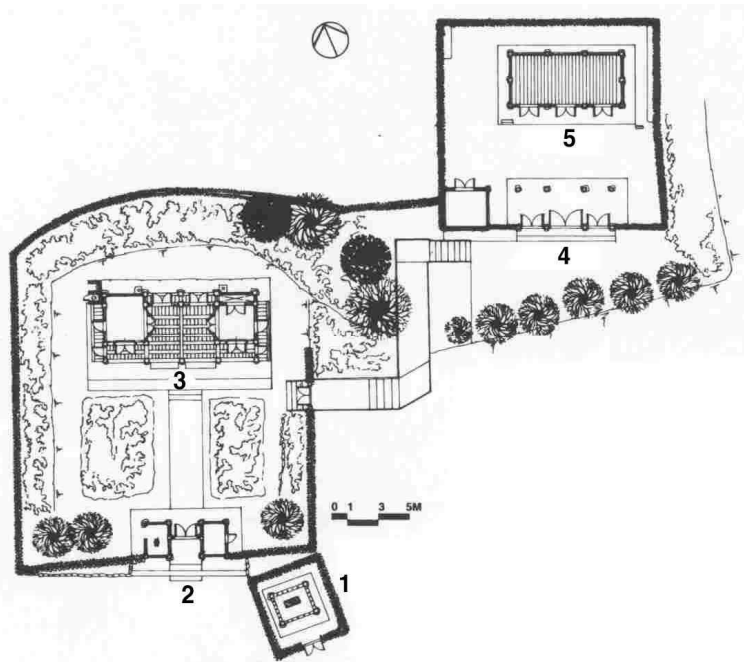
▲ 전경



▲ 강당



▲ 유허비각



청호서원 배치평면도

13. 전주최씨 사당 (全州崔氏 祠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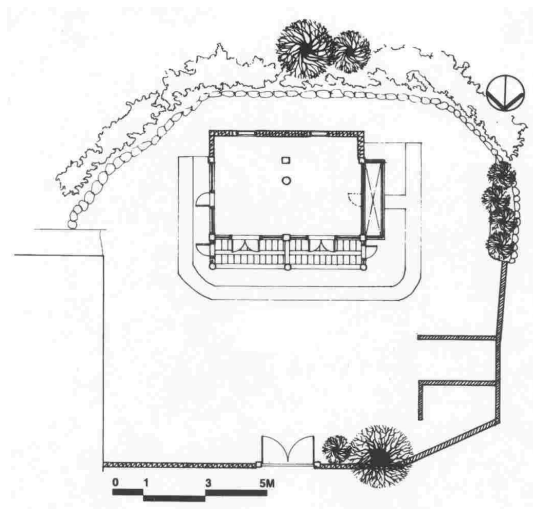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714번지
- 건립년대 : 1900년
- 건축규모 : 정면 2칸 · 측면 1.5칸,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건물은 1900년경에 전주 최씨(全州 崔氏)의 사우(祠宇)로 건립되었으나 지금은 살림채로 사용되고 있다. 사당은 블록담장으로 둘러싸인 그리 넓지 않은 대지에 마당을 앞에 두고 북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수심재(修心齋)라 편액한 사당은 정면 2칸, 측면 1칸반 규모의 홑처마 팔작지붕 집이다. 2칸통방 전면에는 각기 키 큰 쌍여닫이 불발기 세살문을 달고 반칸 규모의 퇴칸을 들였다. 이 집은 살림채로 그 용도가 바뀌면서 사당의 기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구조도 심하게 변형되었다.



▲ 정면



전주최씨 사당 배치평면도

14. 야수정 (爺叟亭)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4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140-4번지
- 건립년대 : 1900년
- 건축규모 : 정면 5칸 · 측면 1.5칸, 겹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현재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4호로 지정되어 있는 야수정은 진씨(秦氏) 문중의 재실로 1900년경 창건된 것이다. 건립 당시 야수정은 정면 5칸, 측면 1칸반 규모이었으나, 나중에 배면 부분 전체가 반칸씩 증축되어 겹집처럼 되었다. 중앙부의 2칸 마루방을 중심으로 좌측에 전후 1칸반의 온돌방이, 우측에 온돌방 1칸과 마루방 1칸이 있으며, 그 뒤에는 좌에서 우로 전퇴가 있고, 집 뒤에는 시멘트 블록으로 벽을 1칸폭 이상 물려 쌓아 헛간과 부엌을 증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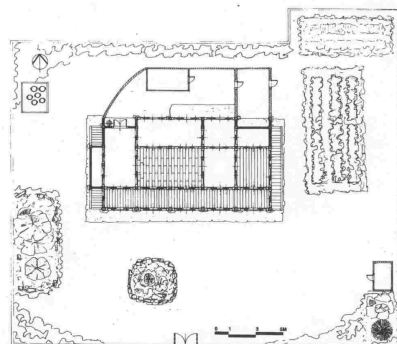
이 건물은 화강석 기단 위에 원주형 정평초석을 놓고 전면 6주는 두리기둥으로, 나머지는 네모기둥을 세운 소로수장 집이다. 마루를 장마루로 꾸미고 여모중방 밑을 붉은 벽돌로 영롱 쌓기하고 건물의 전면 모두에 유리창문을 달았으며, 방의 천장은 일식(日式) 천장에 가까운 우물반자로 마감하였다. 야수정은 전통 건축양식이 일식건축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어 가는 20세기 초의 과도기적인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전경



▲ 전면 기둥상부



야수정 배치평면도

15. 오천서원 (梧川書院)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432번지
- 건립년대 : 1905년
- 건축규모 : 일곽(5동)
 - ① 외삼문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② 강 당 - 정면 4칸 ·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③ 제수청 - 정면 3칸 · 측면 2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④ 내삼문 - 정면 3칸 ·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⑤ 사 당 - 정면 3칸 · 측면 2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오천서원은 영조 20년(1744)에 건립된 것으로 대구지방의 23개 서원 중에서 4번째로 건립되었다. 이 서원의 원래 자리는 지금의 북쪽2km 지점인 파령골이었으나 서원 철폐령으로 헐리게 되어 유럽에서 1905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당호를 무릉재로 고쳤다. 1971년 유럽총회의 결의로 사당을 신축하고 당호도 오천서원으로 다시 바꾸었다.

이 서원은 조선조 성종때 대사헌을 지낸 대봉(大峰) 양희지(楊熙止)선생을 추모하고 그가 남긴 청렴 결백한 인품을 널리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사림에서 세운 것이다. 양희지는 평안도 중화 출신으로 1439년에 태어나 성종 5년(1474) 문과에 급제한 수재였다.

외삼문을 들어서면 마당 건너편에 강당이 자리잡고 그 앞쪽 좌측에 제수청이 있으며, 강당의 좌후측(左後側)에 별도로 일곽을 이루고 삼문을 낸 사당이 배치되어 있다.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가운데 대청을 들이고 그 좌우에 각각 1칸 규모의 온돌방을 두었다. 구조는 5량가의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사당과 제수청은 각기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그 내부에 장마루를 깔았다. 사당은 3칸통이고, 제수청은 3칸 사이에 네짝미서기문으로 구분지었다. 한편 사당 뒤에는 양희지를 추모하는 5기의 비가 있다.



▲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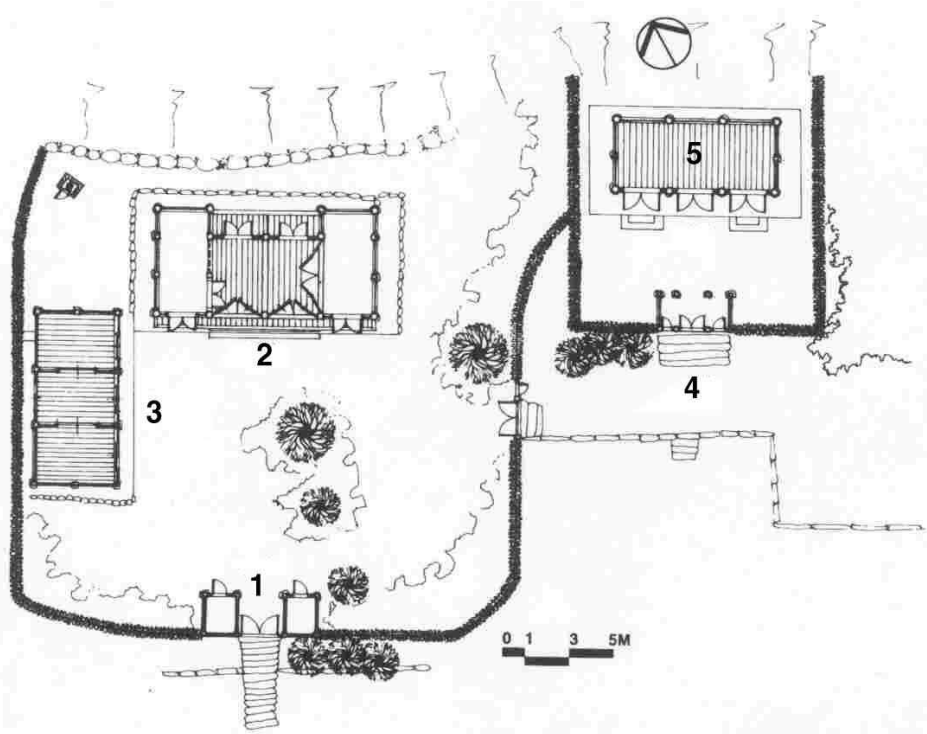
▲ 강당



▲ 제수청과 강당



▲ 사당



오천서원 배치평면도

제5절 달성군·달서구지역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달성군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달서구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면적에 비하여 보존된 전통건축물이 매우 적다. 금번 조사에서 모두 6건물이 채집되었다. 건축물의 용도를 살펴보면 일종의 교육기능의 건물이라 볼 수 있는 서원과 정사가 각 1개소 문중 재사건축 및 사당이 4개소로 채집되었다.

그러나 지정문화재는 1건도 없으며 대부분의 건물들은 관리부실로 훼손되었거나 최근에 개축하여 원형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도시화의 진행에 의하여 주변경관 훼손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달성군은 국가지정문화재 5건, 지방문화재 11건 등 총 16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다양하다. 금번 조사에서 달성군은 지정문화재를 포함한 114건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재사건축이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주거건축이었다.

재사건축들은 옥포면, 유가면, 현풍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주거건축은 남평문씨 본리세거지를 중심으로 한 화원읍에 집중되며 여타지역에도 많지는 않으나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가옥은 다수 찾을 수 있었다. 교육용 건축인 향교와 서원 등은 면마다 1개소 이상씩 고루 분산되어있으며 불사건축은 비슬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달성군에 분포하고 있는 전통건축물들은 대부분 건립년대가 오래되지 않고 19세기에서 20세기 초·중엽에 많이 건립되거나 재축되었으며 근래에 들어 상당수의 재사건축들이 개축되거나 보수되면서 원형을 많이 상실하였다.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은 대부분 건립년대가 오래되지 않는았으나 대구의 역사성이나 장소성 및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지정 보존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달성군·달서구지역 조사대상 고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표

지 역		용 도							합계	지정 문화재	
		주거	불사	재사	정자	정사	서원 향교	비각 여각			기타
달 서 구		-	-	4	-	1	1	-	-	6	-
달 성 군	하빈면	3	-	2	2	-	1	1	-	9	3
	다사면	3	-	4	1	1	2	-	-	11	1
	옥포면	2	1	10	2	-	-	2	-	17	2
	논공읍	2	-	6	1	-	1	1	1	12	-
	화원읍	9	-	-	-	2	1	-	1	13	1
	현풍면	5	-	7	1	-	2	1	1	17	4
	유가면	2	3	8	2	-	2	2	-	19	1
	구지면	2	1	2	1	-	2	1	-	9	2
	가창면	2	4	-	-	-	1	-	-	7	2
합 계		30	9	43	10	4	13	8	3	120	16

○ 달성군·달서구지역 조사대상 고 건축물 목록

연번	건물명	지정종별	건립년대	소재지
1	이락서당	비지정	1765년(영조6년)	달서구 파호동 46-1번지
2	달성서씨재실	비지정	1860년	달서구 파산동 222번지
3	용강사	비지정	1920년 중창	달서구 이곡동 1342-4번지
4	월암재실	비지정	1830년	달서구 월암동 681번지
5	인산정사	비지정	1905년	달서구 상인동 833번지
6	경주최씨재실	비지정	1920년대	달서구 대곡동 564번지
7	하목정	대구 유형문화재 제36호	1604년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043번지
8	박황가옥	중요민속자료 제104호	1809년(정침)	달성군 하빈면 묘1리 800번지
9	낙빈서원	비지정	1924년	달성군 하빈면 묘리
10	도곡재	대구 유형문화재 제32호	1850년	달성군 하빈면 묘리 692번지
11	박우규가옥	비지정	1916년 중수	달성군 하빈면 묘1리 693번지
12	박종대가옥	비지정	1930년(안채) 1938년(사랑채)	달성군 하빈면 묘리 692번지
13	삼충각	비지정	1920년대	달성군 하빈면 묘1리 689번지
14	육신사	비지정	1981년	달성군 하빈면 묘리 637번지
15	태고정	보물 제554호	1614경 재건	달성군 하빈면 묘동 638번지
16	이강서원	비지정	1636년	달성군 다사면 이천리 277번지
17	목정재	비지정	1890년	달성군 다사면 달천리 69번지
18	양치정가옥	비지정	1855년	달성군 다사면 달천리 114번지
19	정지권가옥	비지정	1840년대	달성군 다사면 박곡리 246-2번지
20	금회영정각	비지정	1964년	달성군 다사면 세천리 168번지
21	하남정사	비지정	1922년	달성군 다사면 매곡리 537번지
22	학화재	비지정	1934년 1960년 개축	달성군 다사면 매곡리 500번지
23	정병규가옥	비지정	1916년	달성군 다사면 문양1리 620번지
24	첨모재	비지정	1900년대	달성군 다사면 문산리 270번지
25	금암서당	비지정	1958년 중건	달성군 다사면 매곡2리 1102번지
26	영벽정	비지정	1900년대	달성군 다사면 문산리 405번지
27	구목당	비지정	1959년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1391번지
28	낙포재	비지정	1900년대	달성군 옥포면 신당리 1145번지
29	일우재	비지정	20세기 초	달성군 옥포면 신당리 1128번지
30	추모재	비지정	미상	달성군 옥포면 본리1리 1121번지

○ 달성군·달서구지역 조사대상 고 건축물 목록 (계속)

연번	건물명	지정종별	건립년대	소재지
31	망모재	비지정	1947년, 1999년 중수	달성군 옥포면 강림2리 337번지
32	낙교재	비지정	20세기 초	달성군 옥포면 교향리 1473번지
33	망운재	비지정	1900년대 초	달성군 옥포면 본리1리 846번지
34	김형규 정효각	비지정	1851년	달성군 옥포면 본리2리 2256번지
35	첨모재	비지정	1900년	달성군 옥포면 송촌리 311번지
36	모현재	비지정	1962년	달성군 옥포면 금흥1리 127번지
37	김광부가옥	비지정	1954년	달성군 옥포면 금흥1리 135번지
38	비슬정	비지정	1886년	달성군 유가면 기세리 698번지
39	인산당	비지정	1952년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705번지
40	소계정	대구 문화재자료 제31호	1923년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698번지
41	진주강씨 모열각	비지정	1945년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671-5번지
42	배명근가옥	비지정	1936년	달성군 옥포면 반송2리 301번지
43	용연사	대구 유형문화재 제41호	1728년 중건	달성군 옥포면 반송1리 882번지
44	임호재	비지정	1917년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 165번지
45	승호서당	비지정	1963년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 136번지
46	양촌고택	비지정	1610년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 136번지
47	영사재	비지정	1924년	달성군 논공읍 노이2리 1006번지
48	경목재	비지정	1955년	달성군 논공읍 상리 522번지
49	나호재	비지정	1720년	달성군 논공읍 상리 540번지
50	김특수가옥	비지정	1955년	달성군 논공읍 상리 536번지
51	윤재훈 효행비각	비지정	1936년	달성군 논공읍 하리 570번지
52	응산재	비지정	1928년	달성군 논공읍 하리 457번지
53	부강정	비지정	1947년 이건	달성군 논공읍 하리 160번지
54	무후사·숙청당	비지정	1981년 중건	달성군 논공읍 남리 1080번지
55	천왕당	비지정	1924년 이건	달성군 논공읍 남리
56	인홍서원	비지정	1825년	달성군 화원읍 본리1리 730번지
57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대구 민속자료 제3호	19세기 초~ 20세기 중반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401-25외 14필지
58	수봉정사	비지정	1936년	달성군 화원읍 본리 401-2번지
59	광거당	비지정	1910년	달성군 화원읍 본리 410번지
60	문근만가옥	비지정	1935년경	달성군 화원읍 본리 376-2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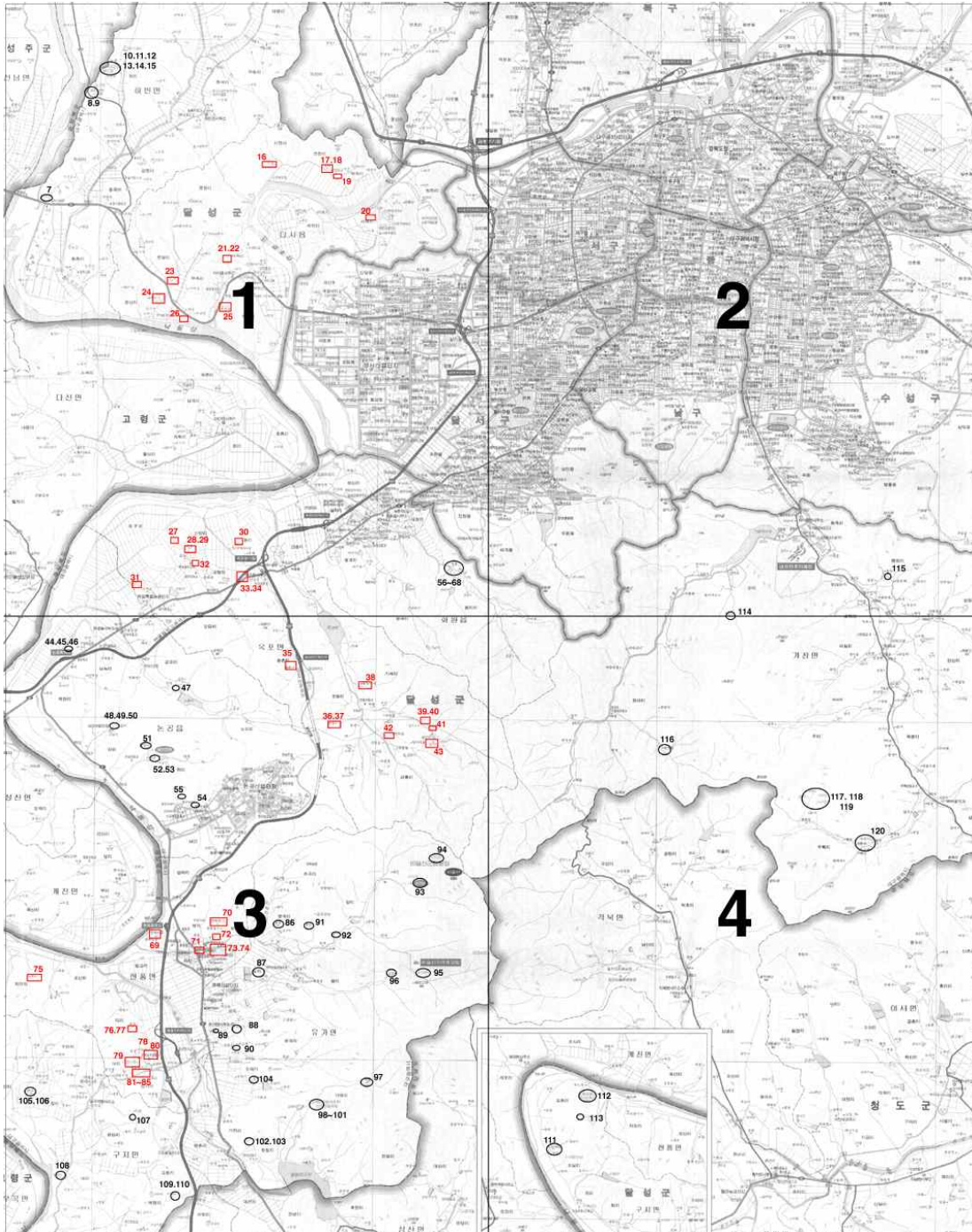
○ 달성군·달서구지역 조사대상 고 건축물 목록 (계속)

연번	건물명	지정종별	건립년대	소재지
61	문대갑가옥	비지정	1936년 건립	달성군 화원읍 본리 375-1번지
62	문보갑가옥	비지정	1933년 건립	달성군 화원읍 본리 398-2번지
63	문승기가옥	비지정	1910년 건축	달성군 화원읍 본리 397-1번지
64	문시갑가옥	비지정	1924년 건립	달성군 화원읍 본리 374-2번지
65	문영갑가옥	비지정	1925년 건립	달성군 화원읍 본리 376-3번지
66	문유만가옥	비지정	1936년 건립	달성군 화원읍 본리 376-4번지
67	문정기가옥	비지정	1927년	달성군 화원읍 본리 373번지
68	문희지가옥	비지정	1940년경 건립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399-1번지
69	공진정	비지정	1978년 중건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665번지
70	현풍향교 대성전	대구 문화재자료 제27호	초건 미상, 1758년 이건	달성군 현풍면 상리 326-1번지
71	이경순가옥	비지정	1875년	달성군 현풍면 부1리 326번지
72	박두식가옥	비지정	1892년	달성군 현풍면 산2리 618-2번지
73	여재당	비지정	1925년	달성군 현풍면 상리 596번지
74	현풍 석빙고	보물 제673호	1730년 건립	달성군 현풍면 상리 632번지
75	모원재	비지정	1985년	달성군 현풍면 자모리 268번지
76	포산사	비지정	1959년	달성군 현풍면 지리 751번지
77	추원당	비지정	1955년	달성군 현풍면 지리 722-1번지
78	김병순가옥	비지정	1857년	달성군 현풍면 지1리 1280번지
79	이양서원	대구 문화재자료 제32호	1954년 중건	달성군 현풍면 대리 907-4번지
80	추보당	비지정	1982년 중수	달성군 현풍면 대리 667-2번지
81	현풍곽씨 12정려각	대구 문화재자료 제29호	1963년 중창	달성군 현풍면 대1리 1348-2번지
82	김석영가옥	비지정	1956년 중수	달성군 현풍면 지1리 1287번지
83	유연재	비지정	1932년 초건	달성군 현풍면 대1리 713번지
84	용연재	비지정	1983년	달성군 현풍면 지리 1251번지
85	한훤당고택	비지정	미상, 1951년 중건	달성군 현풍면 지리 1143번지
86	해옹정	비지정	1884년	달성군 유가면 변계리
87	우남재	비지정	1987년 중건	달성군 유가면 상리 139번지
88	경모당	비지정	1910년	달성군 유가면 금1리 821번지
89	경제당	비지정	1966년	달성군 유가면 금1리 920번지
90	김치정·재령 이씨 효열각	비지정	1699년	달성군 유가면 유곡2리 739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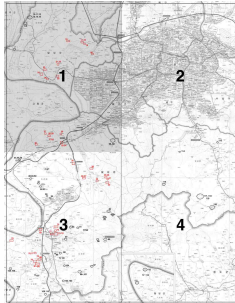
○ 달성군·달서구지역 조사대상 고 건축물 목록 (계속)

연번	건물명	지정종별	건립년대	소재지
91	경모재	비지정	1922년	달성군 유가면 양리 495번지
92	이애정	비지정	1932년	달성군 유가면 음리 631-1번지
93	유가사	비지정	1722년 중건	달성군 유가면 양리 144번지
94	도성암	비지정	신라 해공왕	달성군 유가면 양리 155번지
95	소재사	비지정	1875년 중건	달성군 유가면 용리 산4번지
96	추모재	비지정	1934년	달성군 유가면 용2리 31번지
97	태양재	비지정	1990년대 이건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98	예연서원	대구 기념물 제11호	1977년 복원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539번지
99	남계서당	비지정	1960년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376번지
100	경충재	비지정	1918년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539번지
101	홍의장군 및 충렬공 비각	비지정	1691년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584번지
102	곽원순가옥	비지정	1860년	달성군 유가면 한정2리 132번지
103	곽재옥가옥	비지정	1944년 이건	달성군 유가면 한정2리 97번지
104	도산재	비지정	미상	달성군 유가면 도의리
105	추원재	비지정	1876년	달성군 구지면 화산1리 467번지
106	화산리공가	비지정	1900년	달성군 구지면 화산리 467번지
107	제갈남학 효자비각	비지정	1937년	달성군 구지면 응암1리 산 14-1번지
108	이노정	대구 문화재자료 제30호	1904년 중수	달성군 구지면 내리 443번지
109	추원재	비지정	1903년 이건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202번지
110	김차남가옥	비지정	1900년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201번지
111	송담서원	비지정	1990년대 초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231번지
112	도동서원	보물 제350호	1605년 창건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번지
113	정수암	비지정	1956년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1번지
114	운흥사	비지정	1757년 재건	달성군 가창면 오리 151번지
115	이잠봉가옥	비지정	미상	달성군 가창면 행정2리 188번지
116	조길방가옥	중요민속자료 제200호	1784년	달성군 가창면 정대1리 350번지
117	남지장사	비지정	1769년 중건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865번지
118	남지장사 청련암	대구 유형문화재 제34호	1808년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856번지
119	백련암	비지정	1950년경 이건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856번지
120	녹동서원	비지정	1914년 중건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558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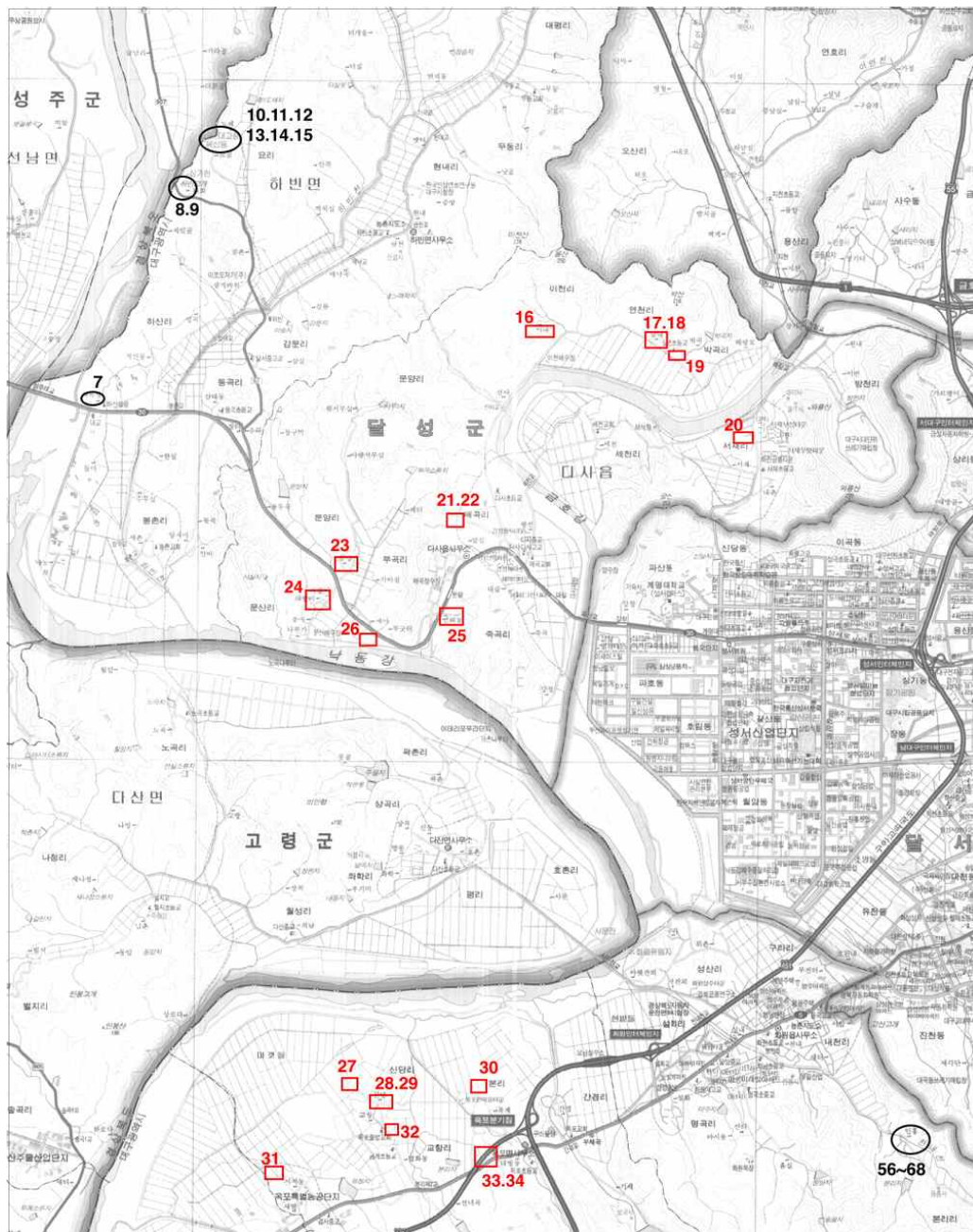
○ 달성군 · 달서구지역 분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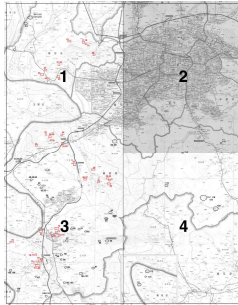
○ 달성군·달서구지역 조사대상 고 건축물 위치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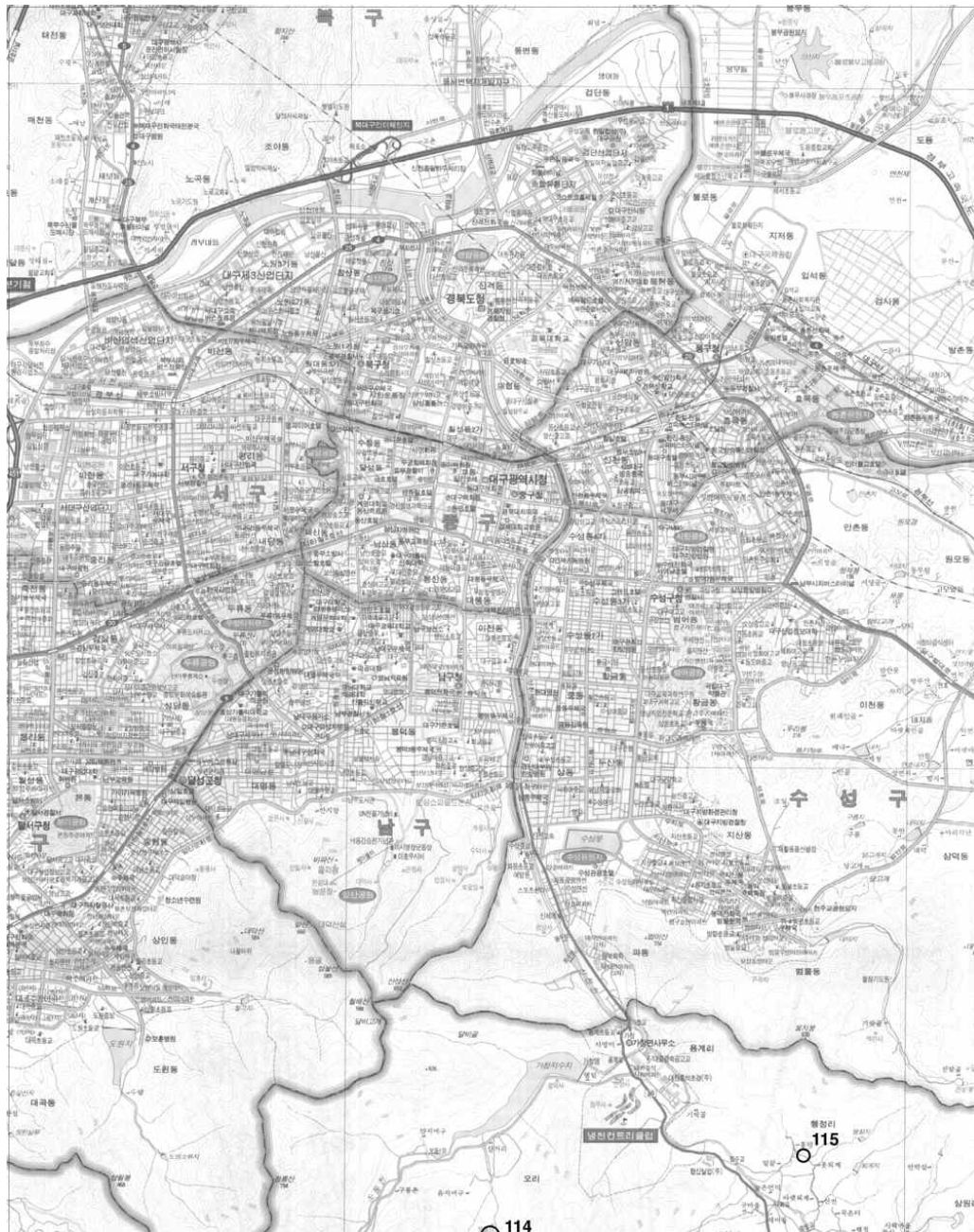
◀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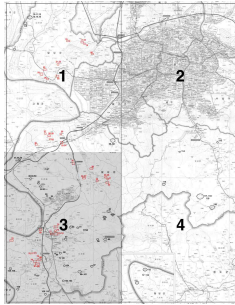
○ 달성군·달서구지역 조사대상 고 건축물 위치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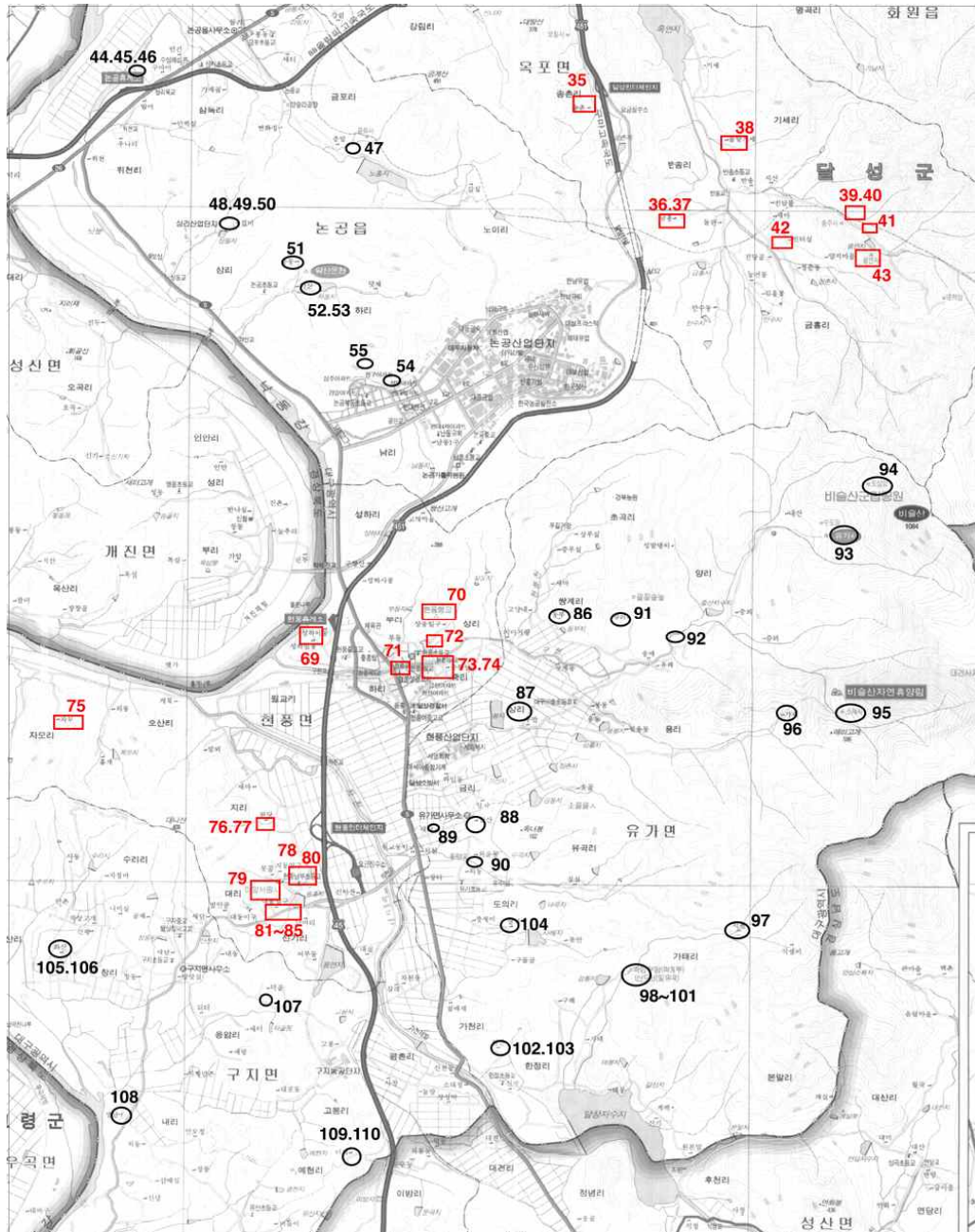
◀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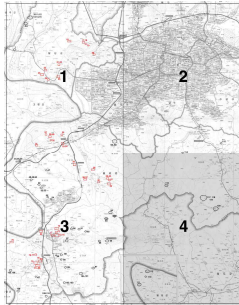
○ 달성군·달서구지역 조사대상 고 건축물 위치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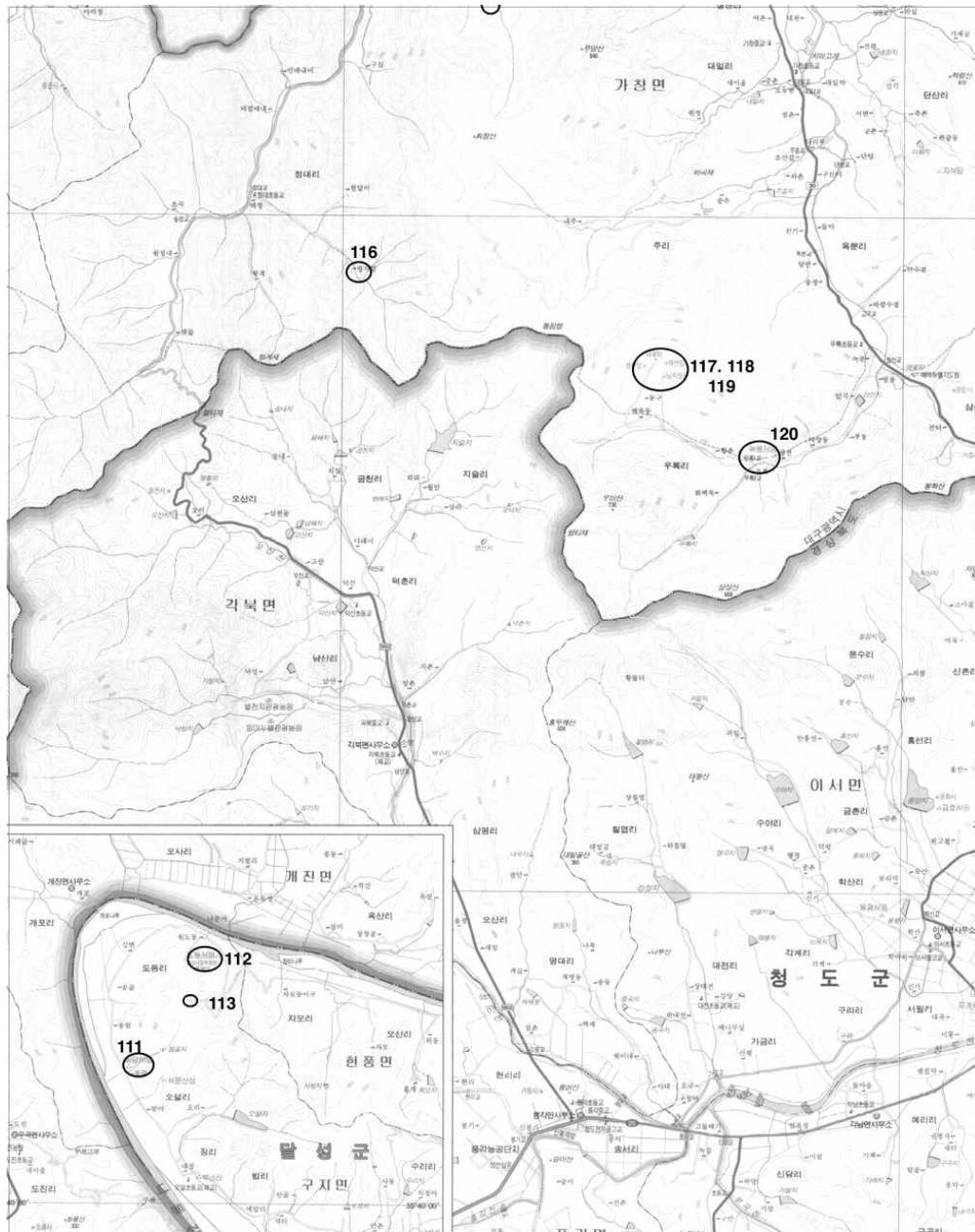
◀ Key Map



○ 달성군·달서구지역 조사대상 고 건축물 위치도 4



◀ Key Map



1. 이락서당 (伊洛書堂)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호동 46-1번지
- 건립년대 : 1765년(영조6년)
- 건축규모 : 일 곽(2동)
- ① 강 당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흠처마, 팔작지붕
- ② 일각문 - 정면 1칸, 흠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조선 정조(正祖) 때 대구(大邱), 달성(達城), 칠곡(漆谷) 등 인근 9문중의 선현(先賢)들이 금호강(琴湖江)과 낙동강(洛東江)의 합수지(合水地)인 속칭 강창(江倉)을 택하여 삼가현(三可軒) 박성수(朴聖洙)가 1765년(영조6) 9월에 착공하여 다음해 봄에 준공한 것으로 한강(寒崗) 정구(鄭述), 낙제(樂齊) 서사원(徐思遠) 등을 추모하고 도덕심의 함양과 교육을 위한 사숙(私塾)으로 사용되었다 한다.

서당은 급한 경사지에 터를 잡은 관계로 서당을 둘러싸는 담장은 층단(層段)을 이루고 있으며 서당 우측으로 난 일각문(一角門)을 통하여 서당으로 들게 된다.

서당은 경사지인 관계로 층단(層段)으로 기단을 쌓고 방 하부부분에 높게 축대를 조성한 후 건물을 세워 정면은 다락집 모양을 이루게 되었다. 평면은 정사나 재실 또는 강당건물에 자주 채택되는 중당협실형으로 가운데 2칸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이 배치되고 앞쪽으로 반칸 폭의 퇴칸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마루 뒤편과 우측방 측면에 툇마루를 첨가하여 출입의 편리함을 도모하였으며 방과 마루는 쌍여닫이 띠살문을 설치하였으나 문은 최근 개체되었다. 전면이 높은 다락집인 관계로 정면 부분은 기둥과 기둥사이 현함을 설치하였으며 퇴칸 양측에도 판벽과 골판문으로 막았다.

정면만 원기둥을 세우고 기둥머리는 초익공으로 장식하였으며 주칸사이에는 소로수장하였다. 그리고 상부는 제형판대공을 세운 5량가구로 결조하였으며 회벽마감하여 깨끗하다.



▲ 원 경



▲ 정 면



▲ 배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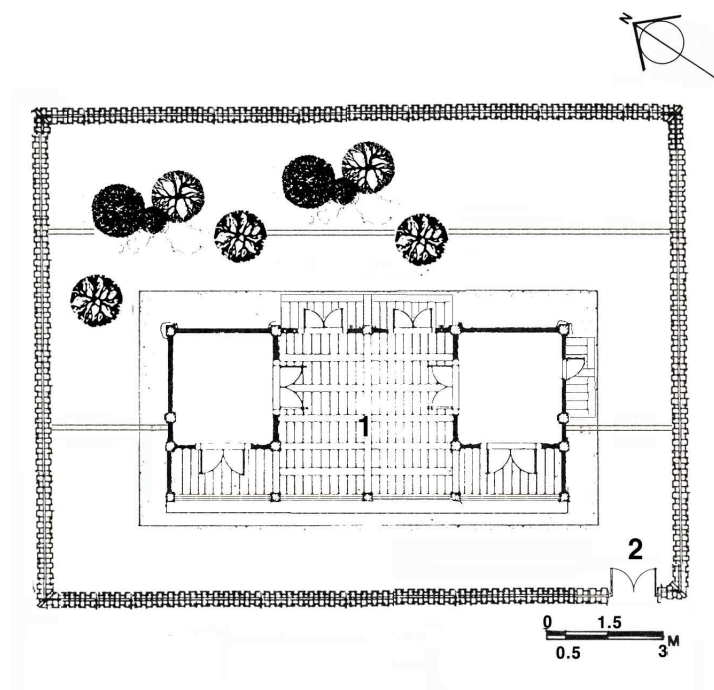
▲ 우측면



▲ 기둥머리



▲ 상부구조



이락서당 배치평면도

2. 달성서씨재실 (達城徐氏齋室)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산동 222번지
- 건립년대 : 1860년
- 건축규모 : 정면 4칸,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달성 서씨 낙제공(樂齊公) 서사원(徐思遠)의 묘소 관리를 위해 1860년경에 지은 것이다. 재실은 남서향으로 자리하고 여타 재실과 마찬가지로 1칸 마루를 중심으로 좌측에 1칸 온돌방과 우측에 2칸 온돌방이 배치되는 평면을 지니고 있으며 앞쪽으로 4칸에 걸쳐 퇴칸을 두고 있다. 온돌방 전면과 방과 마루사이에는 띠살문을 설치하고 마루 뒤편은 쌍여닫이 판장문과 심벽으로 마감하였다. 그러나 우측 온돌방 측면으로 쌍여닫이창문을 두어 전통적인 창호구성법과는 차이가 있으며 퇴칸의 양 측면은 개구부를 두지 않고 중방하부를 심벽으로 폐쇄하였으며 남도리에 동자대공을 세운 3량구조의 건물이다. 기와는 암수막새를 사용하였다.



▲ 전 경



▲ 정 면



▲ 좌측면



▲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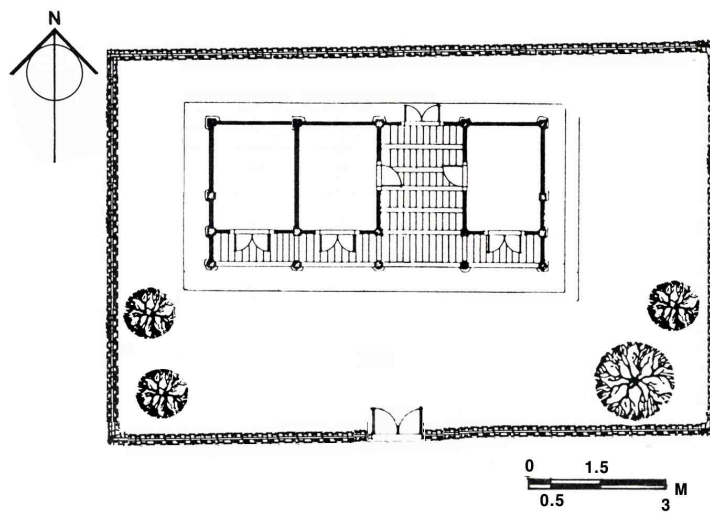
▲ 배 면



▲ 기둥머리



▲ 상부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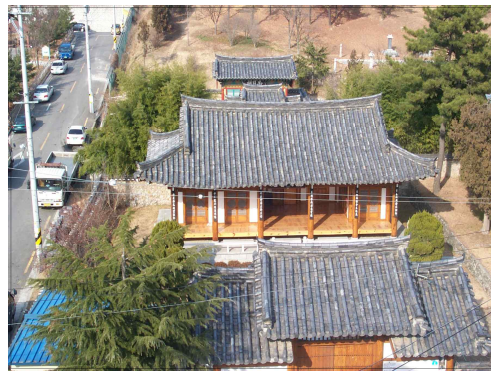
달성서씨재실 배치평면도

3. 용강사 (龍岡祠)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342-4번지
- 건립년대 : 1920년 중창
- 건축규모 : 일 괵(5동)
 - ① 사 당 - 정면 3칸,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② 강 당(新) - 정면 5칸,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③ 강 당(舊) - 정면 3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④ 내 삼 문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⑤ 외 삼 문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솟을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용강사는 허상무헌(許尙武軒: 贈 兵曹判書)과 허낙암(許洛庵: 贈 兵曹參判) 두 분을 모신 건물이다. 1630년경에 용강서원(龍岡書院)으로 건축하였으나, 대원군 서원 철폐시 훼손되어 1920년 중창하면서 용강사로 개칭하여 부르고 있다.

용강사의 배치는 일종의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따르고 있다. 외삼문(外三門)과 강당(講堂), 내삼문(內三門)과 사당(祠堂)이 전후로 자리하고 우측에 구 강당이 배치되어 있으나 지금의 배치는 근년에 개축하면서 이루어졌다.



▲ 전 경

신축된 강당은 화강석 기단 위에 돌난간을 세운 후 중당협실형(中堂夾室形)의 평면을 이루고 있는데 가운데 2칸 마루를 중심으로 좌측에 2칸 온돌방과 우측에 1칸 온돌방이 배치되고 전면 쪽으로 5칸에 걸쳐 퇴칸을 두었다. 방과 마루와는 4분합 들어열개문을 달았으며 방 전면 출입문은 불발기와 궁널을 끼운 쌍여닫이문을 달아 전통적인 창호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전면은 원기둥을 세우고 무익공 소로수장으로 처리하고 5량가구에 겹처마 팔작지붕을 올리고 기둥마다 주련(柱聯)을 달아 놓았다.



▲ 신축 강당

우측에 자리하고 있는 구 강당은 전퇴칸을 둔 중당협실 건물로 가운데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 1칸씩을 두었다. 방과 마루와는 4분합 들어열개문을 설치하여 공간의 활용성을 증대시켰고 방 정면 문은 하부에 머름을 설치하고 쌍여닫이 띠살문을 달았다. 그리고 측면에 광창(光窓)을 설치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기둥은 모두 네모기둥을 사용하였고 남도리 3량구조이다.



▲ 구 강당 정면



▲ 좌측면



▲ 우측면



▲ 배면



▲ 기둥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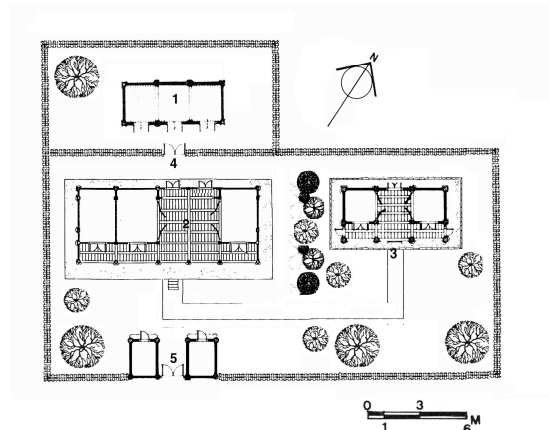


▲ 상부구조

신축된 강당 뒤편에 내삼문과 토장(土牆)으로 일곽을 구성하는 제향공간(祭享空間) 가운데 사당이 자리하고 있다. 사당의 기단도 전면의 강당과 동일하게 화강석으로 치장한 뒤 3칸 규모의 건물을 앉혔다. 내부는 3칸을 통으로 사용하고 3면을 심벽으로 마감하고 전면에만 매칸 쌍여닫이문을 달았다. 그리고 익공양식(翼工樣式)으로 기둥머리를 장식하고 주칸(柱間)에는 화반(花盤)을 넣었다. 겹처마에 풍판(風板)을 설치한 맞배지붕을 올렸으나 주고(柱高)가 높고 처마와 지붕의 구성이 구체부(構體部)와 비례가 맞지 않아 어색하다.



▲ 사 당



용강사 배치평면도

4. 월암재실 (月岩齋室)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681번지
- 건립년대 : 1830년
- 건축규모 : 일 괵(2동)
 - ① 재 실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홑처마, 우진각지붕
 - ② 비 각 - 정면 1칸,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월암 재실은 달서구 월암동 681번지에 있는 조선후기의 재실로 참봉(參奉) 최성희(崔聖禧), 임천군수(林川郡守) 조득도(趙得道), 참봉(參奉) 이언상(李彦祥) 등이 순조 30년(1830)에 건립한 것이며 괵내에 유허비(遺墟碑)가 있다.

재실은 남서향으로 자리하고 재실 전면 좌측 모퉁이에 단칸 비각이 위치하면서 주변은 방형 토장(土牆)을 돌렸다.

재실은 2칸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 1칸씩을 둔 평면이며 상부구조는 만곡도(彎曲度)가 심한 대량(大樑)을 걸고 제형판대공(梯形板臺工)으로 종도리(宗道里)를 받도록 한 3량가이다. 그리고 지붕은 재실건물에서는 잘 채택되지 않는 우진각지붕을 올렸다. 그러나 관리가 허술하여 건물이 도괴 직전에 있다.

비각은 단칸 건물로 전면은 홍살을 세워 내부의 비가 보이도록 하였고 그 외 부분의 하부는 중방 하부는 벽체로 폐쇄하고 상부에만 홍살을 세웠다. 그리고 원기둥에 익공양식으로 기둥머리를 장식하고 풍판(風板)을 둔 맞배지붕을 올렸으나 일식기와를 얹어 어색하다.



▲ 정 면



▲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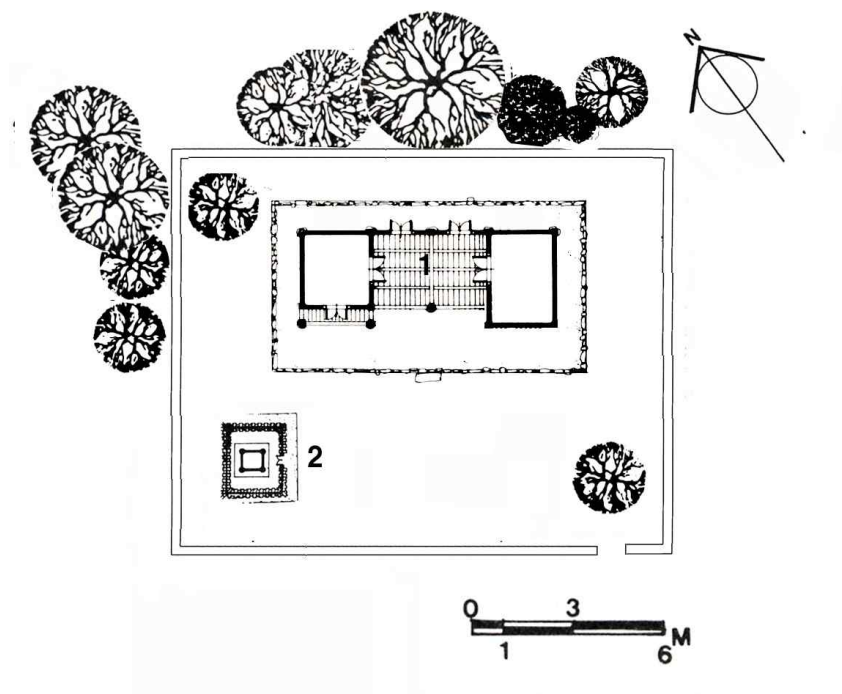
▲ 상부구조



▲ 비각



▲ 비석



월암재실 배치평면도

5. 인산정사 (仁山精舍)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833번지
- 건립년대 : 1905년
- 건축규모 : 일 괵(3동)
 - ① 정 사(新) - 정면 5칸,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② 정 사(舊) - 정면 4칸,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③ 외 삼 문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인산정사는 20세기초 건물로 조선조 철종(哲宗)때 8군의 군수(郡守)를 지낸 경재(景齋) 우성규(禹成圭)를 추모하여 제자들이 1905년에 건립한 것이다.

배치는 남서향으로 신축된 5칸 정사가 자리하고 강당 전면 좌측으로 남향하여 구(舊) 정사가 자리하고 있다. 과거 구 정사건물이 신축 정사자리에 위치하였으나 정사를 신축하면서 이축하였다고 한다.

신축된 강당은 높은 축대를 조성한 후 3칸의 널찍한 마루를 중심으로 하여 양측에 온돌방을 배치하고 5칸에 걸쳐 앞쪽으로 퇴칸을 설치한 중당협실형 평면을 지닌 건물을 앉혔다. 방과 마루사이에는 4분합 들어열개문을 설치하였고 퇴칸 전면에도 광창과 4짝 유리미서기문을 달아 전통적인 맛이 다소 감하여 졌다. 전면에만 원기둥을 세우고 기둥머리는 수서형의 살미를 얹은 초익공(初翼工)양식으로 장식하고 칸사이에는 소로(小累)를 넣었다. 상부구조는 5량가이나 마루 위를 지나는 큰 대량(大樑)부재를 구하지 못하였는지 마루에도 내진주(內陣柱)를 세워 퇴량(退樑)과 함보 시킨 결구법을 사용하여 넓은 마루가 다소 좁게 느껴진다.



▲ 신 정사 정 면



▲ 좌측면



▲ 우측면



▲ 상부구조



▲ 기둥머리

구 정사도 이축(移築)하면서 신부재로 많이 교체되었으나 평면은 과거의 형을 고수하였다 한다. 평면은 신축된 정사와 마찬가지로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이 배치되는 중당협실형이나 마루가 1칸 작고 문은 모두 유리미서기문으로 개체되었으며 무익공 굴도리 소로수장집이다.



▲ 구 정사 정면



▲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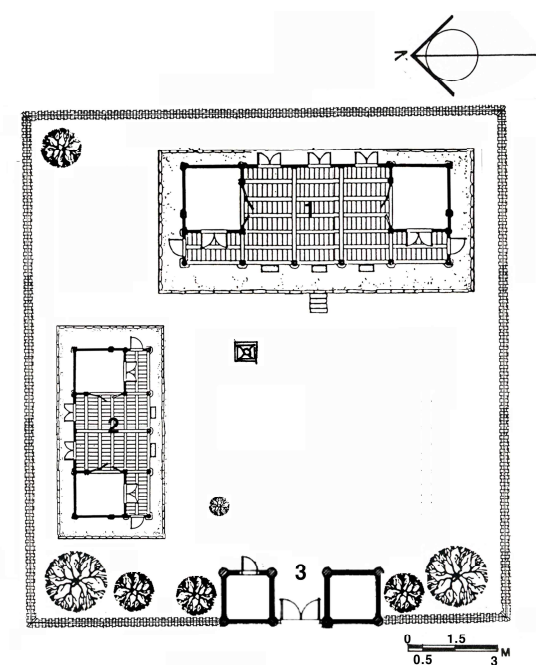
▲ 좌측면



▲ 우측면



▲ 기둥머리



인산정사 배치평면도

6. 경주최씨재실 (慶州崔氏齋室)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564번지
- 건립년대 : 1920년대
- 건축규모 : 일 괵(2동)

① 재 실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흙처마, 팔작지붕

② 일각문 - 정면 1칸, 흙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재실은 1920년에 경주 최씨 매영공(梅永公) 최효열(崔孝烈)을 모시기 위해 건립하였으며 재실에서 약200m 정도 떨어진 곳에 1969년 대곡영각(大谷影閣)을 건립하여 최치원(崔致遠)의 영정(影幀)을 봉안하였다.

재실은 방형 토장으로 둘러싸인 일괵 내에 남서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전면에 설치된 일각문을 통해서 출입한다.



▲ 원 경

재실은 여타 재실과 마찬가지로 가운데 2칸 마루를 두고 좌우에 방이 배치되는 평면형을 지니고 있으며 방과 마루는 팔각교살 불발기를 넣은 4분합 들어열개문을 달았다. 일반적으로 마루 뒤편 벽을 골판벽으로 마감하는 것이 통례이나 여기서는 심벽으로 마감하였고 마루 뒤편에 퇴를 첨가하였다. 온돌방 정면 창호는 문지방 하부에 머름을 설치하고 쌍여닫이 띠살문을 달았다. 그리고 마루 뒤편에는 쌍여닫이 널문을 설치하였으며 그 외 벽체는 모두 심벽에 회분벽 마감하였다.

정면에만 원기둥을 세우고 무익공 납도리 소로수장으로 기둥머리부분을 처리하고 제형판 대공을 세운 5량가구로 지붕의 골조를 마련하였다.



▲ 정 면



▲ 배 면



▲ 우측면



▲ 좌측면



▲ 기둥머리



▲ 상부구조

대곡영각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영각내부는 3칸통으로 사용하고 정면에만 매칸 쌍여단이 골판문을 두었으며 그 외는 심벽으로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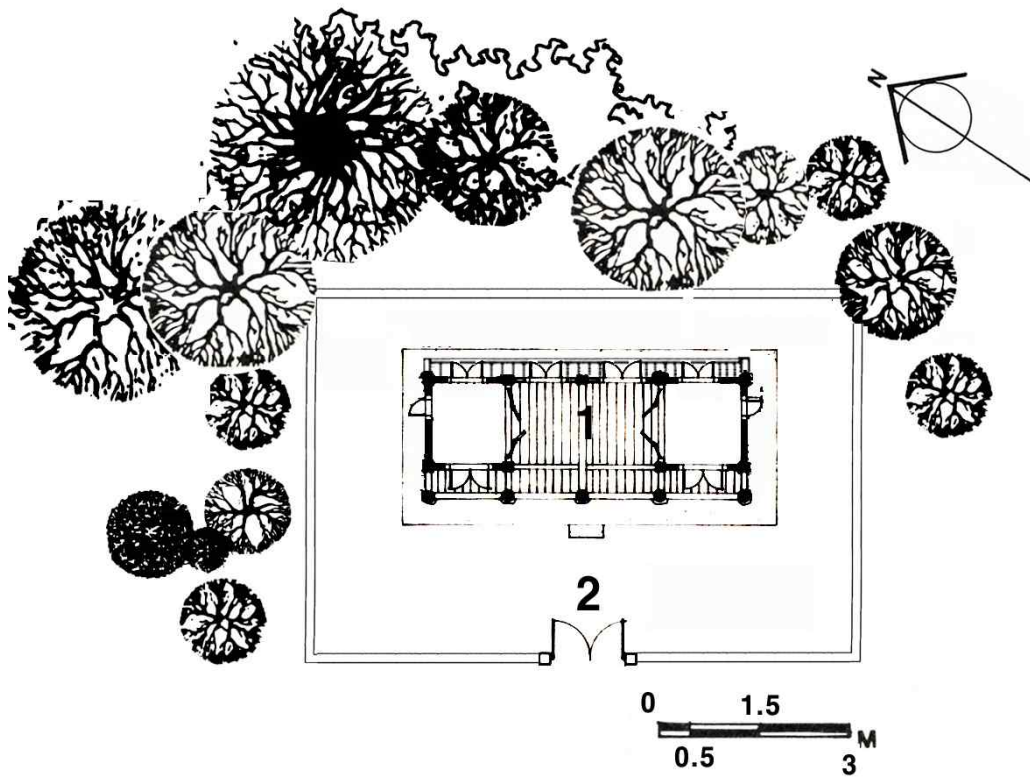
건축양식은 2익공양식으로 초익공은 양서형(仰舌形)이고 2익공은 수서형(垂舌形)으로 초각(初刻)하였으며 보머리에는 봉두(鳳頭)로 장식하였다. 그리고 주칸사이의 처리가 다소 이색적이다. 익공양식(翼工樣式)인 경우 창방(昌枋)과 장여(長舌) 사이에 화반(花盤)을 설치하는 것이 통례이나 여기서는 장여와 창방사이에는 소로수장하고 창방 아래에 창방과 동일 크기의 부재를 하나 더 덧댄 후 화반(花盤)을 설치하는 다소 이색적인 수법을 택하였다. 지붕은 겹처마에 풍판(風板)을 댄 맞배이고 모로단청을 올렸으나 지붕에 비해 구체부(構體部)가 높아 균제미가 다소 약하다.



▲ 대곡영당 정 면



▲ 익공상세



경주최씨 재실 배치평면도

7. 하목정 (霞鶯亭)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6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043번지
- 건립년대 : 1604년
- 건축규모 : 일 광(3동)
 - ① 하목정(霞鶯亭) - 정면 4칸, 측면 4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② 사 당(祠堂) - 정면 3칸, 측면 1칸반, 겹처마, 맞배지붕
 - ③ 관리사(管理舍)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일식기와)
- 건축연혁 및 현황 :

임진왜란때 의병장(義兵將)이었던 낙포(洛浦) 이종문(李宗文:1566-1638) 현감이 선조(1604)에 건립한 것으로 하목정은 원래 제택(第宅)의 사랑채였으나 안채가 없어진 후 정자로 사용하고 있다. 이 정자를 건립한 이종문은 자를 학가(學可)라 하였으며 본관은 진의(全義)이다. 공의 조부인 예산현감(禮山縣監) 이필(李泌)에 이르러 하빈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교위(校尉) 경두(慶斗)의 아들로 1588년(선조 21) 생원이 되고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직장(直長), 감찰(監察) 등과 군위(軍威), 비안(比安) 등 네 고을의 현감을 지냈다. 공의 나이 27세 때 임진난이 발발하자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 모당(慕堂) 손처눌(孫處訥), 총관(摠管) 박충후(朴忠後) 등과 함께 달성 팔공산에서 의병을 일으켜 서면대장(西面大將)이 되어 활약했으며 후에 좌승지(左承旨)에 증직(贈職)되었다.

낙동강을 조망할 수 있는 경승지에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하목정은 크게 3개영역으로 구분되어있다. 하목정이 자리하는 좌측영역과 하목정 우측 편에 자리하고 있는 관리사, 그리고 관리사 뒤편에 자리하면서 하목정에서 출입할 수 있는 사당영역으로 분할되어있으며 각 영역마다 토장으로 구획되어있다.



▲ 원 경

이 집은 인조(仁祖)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머문 적이 있어 이종문의 장자(長子)인 지영(之英)에게 하목정이라는 당호를 써 주었다 하는데 당시에는 사가(私家)에서 서까래 위에 부연(浮緣)을 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인조의 명으로 부연을 달았다고 한다.

하목정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이나 우측칸의 전면에 누 1칸을 달아내고 후면에는 온돌방 1칸을 두어 전체적인 형태는 丁자형으로 되었다.

대청은 6칸 규모로 전면은 개방시키고 측면과 배면에는 판벽과 판문으로 막아 놓았으며, 대청과 방 사이에는 각 2짝과 3짝의 들어열개문을 설치하여 필요시 8칸을 모두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기둥은 모두 원기둥을 사용하였는데 기둥 위는 초익공으로 장식하였으며 살미의 형상은 매우 날카롭고 활발하게 뻗어 있어 1600년대 건축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다. 상부구조는 5량가인데 가구수법 역시 넓은 대청에 걸맞게 대공의 키를 높여 높은 연등천장을 만들고 좌측 충량 상부는 외기반자를 만들어 섬세하고 당당한 기풍을 자랑하고 있으며, 대공의 수법도 포대공(包臺工)으로 쌓아 격식을 갖추었다.

처마의 형태는 이 건물의 특징 중 하나이다. 처마의 곡선은 일반적으로 안으로 오목하지만 이 집은 반대로 밖으로 약간 볼록한 느낌을 준다. 소위 처마를 방구매기수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예는 청도의 선암서당 정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희귀한 것이며 홀처마 팔작지붕의 건물이다. 정 내에는 김명석, 남용익 등 많은 명인들이 쓴 시액(詩額)이 걸려있다.



▲ 하목정 정면



▲ 배 면



▲ 익공 및 처마



▲ 상부구조

사당은 전면에 퇴칸이 있는 평면으로 퇴칸과 내부에는 마루를 시설하였는데, 퇴칸에 마루를 들인 것은 경남과 전라, 충청지방 등지에서는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경북지방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수법이다. 사당 전면은 매칸 하부에 궁판을 끼운 쌍여닫이 띠살문을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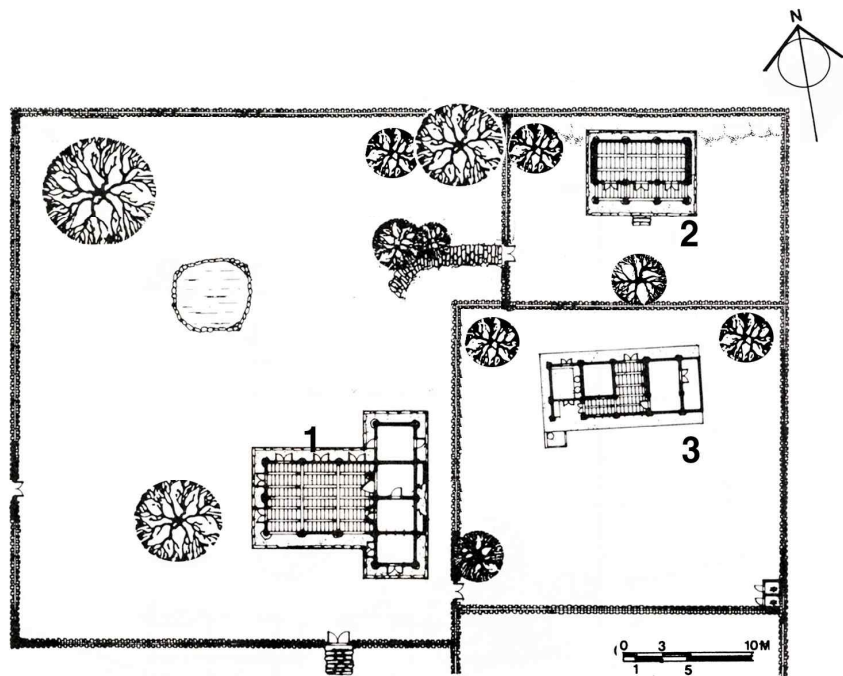
치하였고 양 측면은 부벽을 설치하고 퇴칸 부분도 심벽으로 막았다. 기둥머리는 초익공으로 장식하였는데 살미의 형상은 날카롭게 하고 윗부분에 연봉을 올렸으며 보머리는 메뚜기머리로 장식하여 하목정보다는 후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칸에는 소로를 3구씩 창방 위에 얹었다. 그리고 창방뿔목은 단부를 초각하고 소로를 얹어 마치 침차(檐遮) 모양으로 처리하였다. 상부구조는 종량(宗樑) 위에 파련대공(波蓮臺工)을 세운 5랑가이며 풍판을 둔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 사 당



▲ 익 공



하목정 배치평면도

8. 박황가옥 (朴滉家屋)

- 지정종별 : 중요민속자료 제104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묘1리 800번지
- 건립년대 : 정침 1809년, 사랑채 1826년, 별당 1874년
- 건축규모 : 일 괵(8동)
 - ① 정 침 - 정면 6칸, 측면 5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② 사랑채 - 정면 5칸, 측면 4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③ 별당채 - 정면 4칸, 측면 2칸반, 홑처마, 팔작+맞배지붕
 - ④ 고방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우진각지붕
 - ⑤ 대문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⑥ 중문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초가지붕
 - ⑦ 목욕탕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우진각지붕
 - ⑧ 도 장 - 정면 1칸, 측면 1칸, 홑처마, 우진각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묘골마을과 산 하나를 사이로 둔 파회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동안종가인 도곡재(陶谷齋)를 비롯하여 동안에 위치한 가옥들은 거의 일자나 ㄱ자집이 조합된 중부형의 주거형태를 띄고 있는데 반해 묘골마을과 산등성이 하나를 사이에 둔 파회에 자리잡은 삼가헌(三可軒)은 튼구형 배치를 하고 있다.

이 가옥은 현 주인인 박종원의 7대조인 박광석(朴光錫:1764-1845, 老圃公, 漢城府 右尹)공이 1783년 묘골에서 이 곳 파회로 분가(分家)하여 건립하였다. 그리고 현 주인의 8대조인 박성수(朴聖洙:1735-1810, 三可軒)는 1747년 정묘년에 현재의 정침터에 초가를 짓고 삼가헌(三可軒)이라 했는데 그의 아들 박광석이 1809년 기사년(己巳年)에 초가를 헐고 정침을 지었으며 18년 후인 1826년 병술년(丙戌年)에 사랑채를 건립하였다. 1869년 안채를 건립하고 1874년 파산서당(巴山書堂) 자리에 별당채인 하엽정을 신축했다.



▲ 전 경

이 집은 살림채인 삼가헌과 안채 그리고 별당채인 하엽정(荷葉亭)을 두고 볼 때 살림채

는 틈口자의 폐쇄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사랑채를 통한 안채의 출입은 몇 번의 꺾음을 두어 출입에 의도적인 단절을 두었고 협소한 공간배치를 하였는데 비해 사랑채는 전면에 안채보다는 다소 넓은 공간을 확보하였고 별당채는 사랑채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건축면적과는 반비례하는 공간을 확보하였고 각 채를 둘러싸고 있는 담들도 안채는 후면부까지 각각의 공간을 구획하고 있는데 반해 사랑채는 전체적인 경계부만 구획하고 별당채는 거의 트인 공간을 구성하는 점이 주목된다.

안채는 사랑채 양옆 중문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토록 하여 안채로의 출입에 의도적인 거리감을 주고 있다. 안채는 사랑채보다 기단부를 높여 협소한 안마당과 사랑채로 인하여 차단되는 시각적 협소함과 일조를 배려하였다. 평면은 전퇴칸을 둔 2칸 안방과 2칸 안대청을 가운데 두고 좌측으로 부엌을 두었는데 상부에는 다락을 설치하였다. 대청 우측은 보방향으로 2칸 온돌방을 두고 고방 1칸, 온돌방 1칸과 함실 1칸이 자리하여 우익사를 이루고 있다. 함실상부는 다락으로 사용하고 고방은 기능에 맞도록 바닥을 우물마루로 마감하였다. 그리고 정침 우측 온돌방 우측면에 퇴를 두어 출입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익사 온돌방 전면에도 퇴를 두었다. 상부구조는 납도리에 판대공을 세운 3량가이나 결구수법이 매우 건실하다.



▲ 정 면



▲ 우익사



▲ 좌익사



▲ 우익사



▲ 상부구조

사랑방은 2칸통으로 뒤로는 반칸의 수장공간을 두고 사랑방 아랫목 위에도 수납공간을 설치해 두었다. 사랑대청에서 안채 쪽으로 꺾어져 돌출된 1칸 마루와 연결된 방은 이 가옥의 책을 보관하는 공간이나 필요에 따라 상청을 차리는 공간으로도 이용된다. 사랑대청은 전면은 개방되고 좌측면은 판벽과 판문으로 막았다. 기둥머리는 주두만 얹고 살미를 설치하지 않은 무익공이며 주칸은 소로를 얹었다. 그리고 상부구조는 5량가이며 마루상부에 충량을 걸고 외기반자를 설치하였다.



▲ 사랑채 정면



▲ 좌측면



▲ 상부구조



▲ 외기부분

주거공간과 담장으로 구획되어 자리하고 있는 별당채는 ㄱ자형평면이다. 전면에 4분합 들어열개문을 설치한 마루방을 중심으로 우측편에 온돌방 1칸이 자리하고 좌측으로 1칸 온돌방이 배치된다. 그리고 온돌방 앞쪽으로 루마루 1칸이 첨가되어 앞쪽의 연당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루마루형식으로 만들기 위해 온돌방 보다 1자 정도 높혀 마루를 시설하고 전면과 측면으로 난간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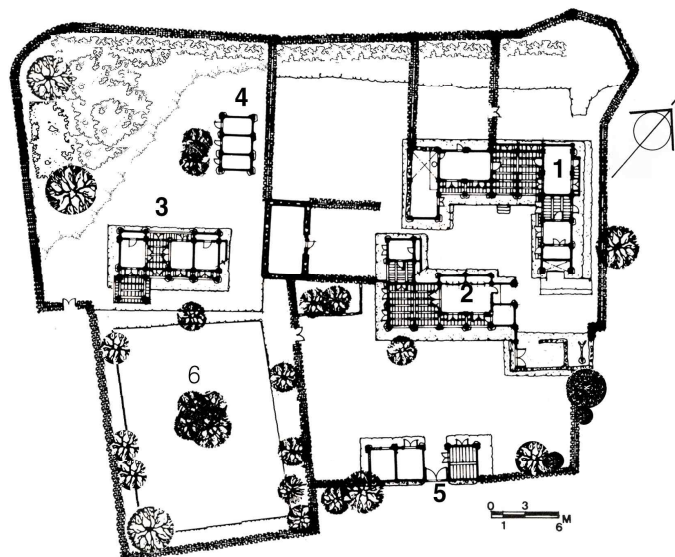
사랑채 좌측으로는 안채로의 출입을 위한 문간채를 겸한 마굿간이 있는 초가집이다. 초가집 좌측으로 별당채인 하엽정과 연당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은 원래 파산서당이 있던 자리로 현주인의 6대조인 박규현(朴奎鉉:1817-1875)이 원래의 자리에서 앞으로 약간 당겨 1874년에 건립했으며 하엽정 앞의 연당은 본채를 지을 당시 많은 흙이 필요하여 파인 자리에 연을 심어 연못으로 꾸몄으며 하엽정이란 당호도 여기서 유래한다.



▲ 별당채



▲ 상부구조



박향 가옥 배치평면도

9. 낙빈서원 (洛濱書院)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
- 건립년대 : 1924년
- 건축규모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대구읍지의 기록에 의하면 「부에서 서쪽으로 40리 떨어진 묘동(妙洞) 하빈에 있으니, 곧 박팽년(朴彭年)선생의 자손이 사는 곳이다. 병자년(1456)의 재앙에 선생의 며느리 이씨가 친정인 대구에 살기를 원하였고, 자손으로 인하여 여기에 살게 되었다. 선생의 현손(玄孫) 참봉 박계창(朴繼昌) 때에 이르러, 선생의 제삿날인 6월 7일 꿈에 사육신이 함께 이른 것을 보았다. 꿈에서 깨어나 느끼고 깨달은 바 있어 다섯 분의 신위를 더 설치해 함께 제사하였다. 한강(寒崗) 정구(鄭述)선생이 말하기를 “사가(私家)에서 다섯 신위를 함께 제향하는 것은 예가 아니니 마땅히 따로 사당을 지어 병향(并享)함이 옳다” 하였다. 그 후에 사림이 박 선생의 사당에서 멀지 않는 곳에 서원을 지어 봄, 가을로 제사 지내는 곳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곧 낙빈서원(洛濱書院)이다. 숙종 갑인년(1674)에 창건하고 기미년(1679)에 신위를 봉안하고 갑술년(1694)에 현액(顯額)을 하사 받았다.

박선생의 휘(諱)는 팽년(彭年)이고 자는 인수(仁叟), 호는 취금헌(聚琴軒)이다. 본관은 순천(順天)이고, 사신 곳은 회덕(懷德) 흥농촌(興農村)이고, 관직은 형조참판에 이르렀다. 숙종 신미년(1691)에 관작이 회복되고, 지금 임금님(英祖) 무인년(1758)에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충정공(忠正公)이란 시호를 하사 받았다.

성(成) 선생의 휘는 삼문(三問)이고, 자는 근보(謹甫), 호는 매죽헌(梅竹軒)이다. 본관은 창녕이고 사신 곳은 홍주(洪州) 노은동(魯恩洞)이고, 벼슬은 우승지에 이르렀다. 숙종 신미년에 관작이 회복되고, 영조 무인년(1758)에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충문공(忠文公)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하(河)선생은 휘가 위지(緯地)이고, 자는 천장(天章), 호는 단계(丹溪)이다.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은 사실을 기록할 때 선생을 선산사람이라 하였고,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은 선생의 묘지명을 지을 때 '선생의 관향은 진양(晉陽)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선생이 직접 쓴 글을 살펴보니, 관향이 단계(丹溪)라고 하고, 또 <삼각산연구(三角山聯句)>에서는 적촌(赤村)은 모두 단성(丹城)의 별칭이다.

아마도 선생의 본관은 실제로 단성이고 추강 남효온이 기록한 바는 거주하였던 곳을 지적하여 말한 것일 것이다. 사신 곳은 선산 영봉리(迎鳳里)이고 관직은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숙종 신미(1691)년에 관작이 회복되고 영조 무인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충렬공(忠烈公)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이(李)선생은 휘가 개(塏)이고 자가 청보(淸甫) 또는 백고(伯高)이다. 본관은 한산(韓山)이고 사신 곳은 서울이며 관직은 교리(校理)에 이르렀다. 숙종 신미년에 관작이 회복되고

영조 무인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충간공(忠簡公)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유(柳)선생은 휘가 성원(誠源)이고 자가 태초(太初)이다. 본관은 문화(文化)이고 사신 곳은 서울이다. 관직은 사예(司藝)에 이르렀다. 숙종 신미년에 관작이 회복되고 영조 무인년(1758)에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충경공(忠景公)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유(兪)선생은 휘가 응부(應浮)이고 자는 신지(信之)이다. 본관은 경주이고 사신 속은 포천이다. 관직은 도총관(都摠管)에 이르렀다. 숙종 신미년에 관작이 회복되고 영조 무인년 병조판서에 추증되고 충목공(忠穆公)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1866년 서원은 대원군의 칙령에 의해 훼철되었으나, 일제시인 1924년에 문중에서 지금의 터에 강당건물만 중건하였는데 원래 위치는 현재보다 아래쪽의 논들부근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서원이라기 보다는 문중재사와 유사해졌다.

서당 주변을 방형 토장(土牆)으로 구획한 후 전면 우측 편에 출입구를 내고 부지 한 가운데 남서향으로 서당을 앉혔다.



▲ 원 경

서당의 평면은 전퇴칸을 둔 정명 4칸 측면 1칸반 규모의 중당협실형이다. 가운데 마루 2칸의 칸살을 좌우 온돌방 보다 작게 잡았으며 좌우 온돌방과 마루 사이는 4분합들어열개문을 달았으며 온돌방 뒤편에 벽장을 만들고, 온돌방 전면 출입문 위에 환기창을 둔 것이 이색적이다.

자연석으로 기단을 낮게 조성한 후 정면 기둥만 원기둥을 사용하였고 상부구조는 5량구조에 홀처마 팔작지붕을 얹었으며 최근 옥개 번와 보수하여 깨끗하다.



▲ 정 면



▲ 배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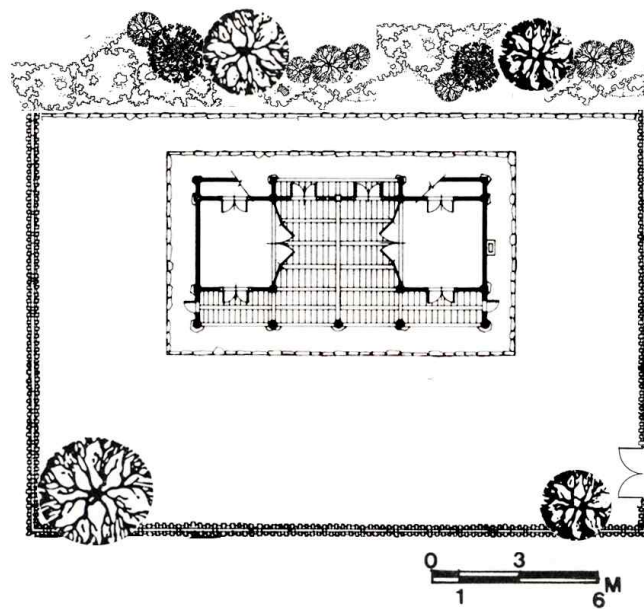
▲ 우측면



▲ 좌측면



▲ 상부구조



낙빈서원 배치평면도

10. 도곡재 (陶谷齋)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2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 692번지
- 건립년대 : 1850년
- 건축규모 : 일 광(6동)
 - ① 사랑채 - 정면 5칸, 측면 1칸반, 홑처마, 맞배지붕+가적지붕
 - ② 안채 - 정면 4칸, 측면 3칸, 홑처마, 팔작지붕+가적지붕
 - ③ 대문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④ 중문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⑤ 고방채 - 정면 4칸, 측면 1칸, 홑처마, 초가지붕
 - ⑥ 변소 - 정면 2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사육신(死六臣) 중 한 분인 박팽년(朴彭年)선생의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는 묘골 내에 자리하고 있는 도곡재는 대사성(大司成)을 지낸 서정공(西亭公) 박문현(朴文鉉)이 정조 2년(1778)에 주택으로 건립하였던 것을 19세기 중엽 도곡공(陶谷公) 박종우(朴宗佑)의 재실로 사용하면서 박선생의 호를 따 도곡재라 명명했다고 한다. 박종우는 호를 줄암(拙巖)이라 하였고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에게 사사하였고 한강(寒崗) 문하에 출입하였으며 문장과 행의가 세상에 추앙되었다고 「대구읍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병자호란 때 전사하였다.

배치를 보면 남부지방 반가(班家)의 배치와 동일하며 크게 3개 권역으로 분리되어있다. 사랑공간과 정침공간 및 가사노동 공간으로 분리되어있다. 좌측으로 낸 대문채를 들어서면 남향하여 사랑채에 해당하는 도곡재가 자리하고 사랑 우측에 연한 중문채를 들어서면 기자형 안채와 우측의 광채가 자리하여 튼구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 전 경

사랑채에 해당하는 도곡재를 보면 원래 정면 4칸 측면 1칸반 규모의 팔작지붕의 건물이었다. 우측으로부터 전퇴칸에서 연결된 골방과 2통칸의 온돌방, 4분합들어열개문을 단 마루방으로 구성되어있었으나 마루방 좌측으로 3면이 개방된 루마루 1칸을 증설하여 현재와 같

은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증설된 마루는 다락형으로 꾸몄으며 가적지붕을 얹었다. 각주에 납도리를 얹은 장식성이 없이 매우 소박한 5량구조의 홀처마집이다.



▲ 사랑채



▲ 좌측면



▲ 우측면



▲ 상부구조

안채는 정면 4칸 측면 3칸의 ㄱ자형 평면이다.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2통칸의 온돌방(큰방)과 부엌이 연결되고 우측은 온돌방 1칸(작은방)이 자리하고 있다. 우측 온돌방 앞쪽과 대청 뒤편에 퇴를 두었다. 그리고 광채는 고방 2칸과 헛칸 2칸으로 꾸며졌다. 고방은 수장기능에 적합토록 바닥은 마루를 깔았고 헛칸은 흙바닥이다.



▲ 안 채



▲ 정면 우측



▲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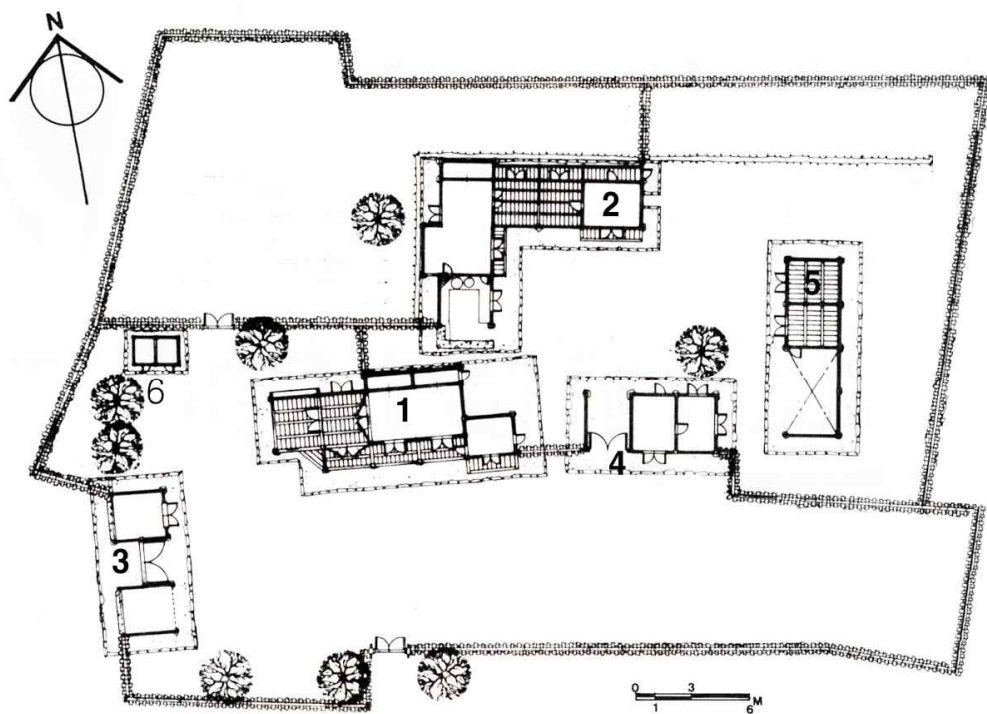
▲ 좌익사



▲ 상부구조



▲ 고방채



도곡재 배치평면도

11. 박우규가옥 (朴禹圭家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묘1리 693번지
- 건립년대 : 1916년 중수
- 건축규모 : 정면 5칸, 측면 5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마을에서는 참봉택(參奉宅)으로 불리어지나 소요각(逍遙閣)으로도 알려져 있다. 소요각은 사랑채의 당호(堂號)인데 최근에 대문채, 두지 등과 함께 모두 없어지고 현재는 안채만 남아 있다.

안채는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정면 5칸 측면 5칸 규모의 ㄱ자형 평면이다. 가운데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 온돌방 1칸과 함실이 연결되고 앞쪽 퇴칸은 마루와 방에 걸쳐 연결된다. 그리고 방 우측 전면은 루마루형식으로 꾸미고 앞쪽과 우측면에 현함을 세웠다.

대청 좌측으로 방 1칸을 연결시키고 아래부분으로 꺾어 온돌방 2칸을 연결하였다. 그리고 부엌 2칸이 더 연결되어 ㄱ자형 평면이 꾸며졌다. 좌익사의 온돌방은 전후로 뒗마루를 덧붙여 출입에 편하도록 하였으며 모서리 온돌방은 익사의 방에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부구조는 대량 위에 제형판대공을 세운 3량가이며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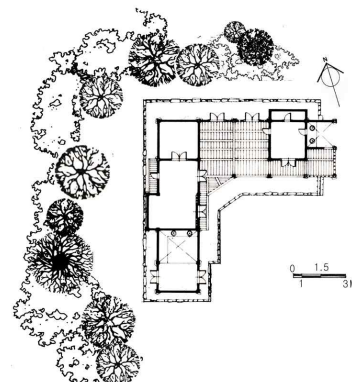
▲ 정 면



▲ 우측면



▲ 상부구조



박우규가옥 배치평면도

12. 박종대가옥 (朴鍾大家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 692번지
- 건립년대 : 1930년(안채), 1938년(사랑채)
- 건축규모 : 일 괵(4동)
 - ① 안 채 - 정면 5칸, 측면 1칸반, 흙처마, 팔작지붕
 - ② 사랑채 - 정면 3칸, 측면 2칸, 흙처마, 팔작지붕
 - ③ 사 당 - 정면 3칸, 측면 1칸반, 흙처마, 맞배지붕
 - ④ 고방채 - 정면 5칸, 측면 1칸, 흙처마, 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본 가옥은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안채의 위치가 이동되어 원래의 배치를 찾을 수 없으며 현재는 크게 2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안마당을 사이에 두고 전면에 곶간채와 사랑채를, 뒤편으로 안채가 자리하는 생활공간(生活空間)과 안채 우측 편으로 담장으로 구획된 제향공간(祭享空間)으로 구획된다. 20세기 초엽에 건립된 가옥이나 나름대로 반가(班家)의 격식을 갖추었다.



▲ 정 면



▲ 좌측면



▲ 우측면



▲ 상부구조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1칸반 규모이며, 좌측으로부터 정지, 안방, 2칸 대청, 작은방으

로 이어진다. 좌측 부엌 뒤편에 반칸 정도의 정지방을 두었고 마루와 건너방 앞쪽에 반칸 폭의 퇴칸을 두었다. 그리고 안방 전면과 건너방 우측에 뿔마루를 덧대었으며 방 뒤편에 벽장을 설치하였다. 기단은 자연석 기단은 다소 높으며 자연석 허튼층쌓기하였고 상부구조는 3량가에 홀처마 팔작지붕이다.

사랑채는 정면 3칸 측면 2칸 정도의 규모로 2칸의 온돌방과 1칸 마루로 구성되어있는데, 사랑방 전후에 퇴칸을 두어 혼하지 않은 전후퇴칸집이 되었으며 우측 마루 뒤편에 방1칸을 더 두었다. 구조는 2고주 5량가이며 홀처마에 팔작지붕을 올렸다. 그리고 안채 우측에 자리하고 있는 사당은 전퇴칸을 둔 3칸 규모이며 어칸에만 쌍여단이문을 두고 좌우협칸은 외여단이문을 설치하였고 정면만 원기둥을 사용한 장여수장이며, 3량가에 홀처마 맞배지붕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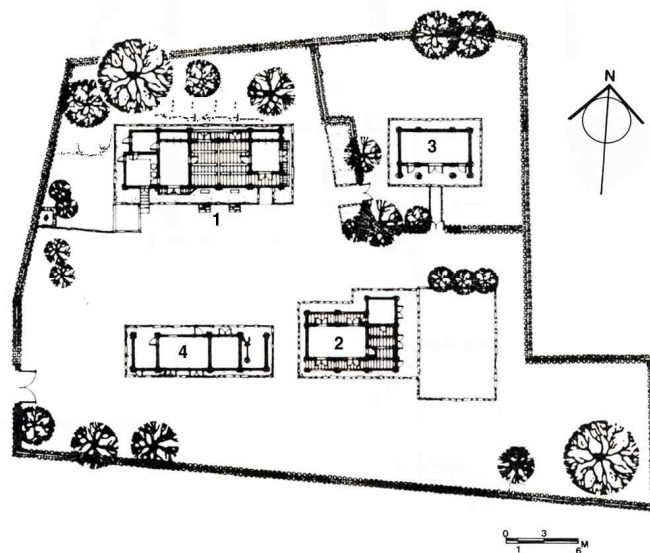
사당은 전퇴칸을 둔 3칸으로 내부는 통칸으로 사용한다. 어칸에만 쌍여단이 판장문을 설치하고 양 협칸은 외여단이 판장문을 달았다. 그리고 양 측면은 부벽을 설치하여 풍우에 대비하였으며 중방 위에 광창을 설치하였다.



▲ 사랑채 전경



▲ 사 당



박종대가옥 배치평면도

13. 삼충각 (三忠閣)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묘1리 689번지
- 건립년대 : 1920년대
- 건축규모 : 정면 1칸,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1755년 정려(旌閭)한 충정공(忠正公) 박팽년(朴彭年)의 충신지려(忠臣之間)와 1831년에 정려한 공의 아들 순(珣), 손자 일산(壹珊) 삼대에 걸친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각이다. 1834년 영남 관찰사이던 김양순(金陽淳)과 서희순(徐熹淳)이 경상도내 71주(州)의 수령(首領)들에게 경비를 거두어 기실비(記實碑)를 세워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비석의 전면에는 「순천박씨삼세정충기실비(順川朴氏三世旌忠記實碑)」라 쓰여있으며 비문은 후손인 박승현(朴升鉉)이 지었다.

정려비각은 광 중앙에 남동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비각의 평면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단칸이며 사면에 홍살을 세워 내부의 비가 잘 보이도록 배려하였다. 기둥 4개는 모두 원기둥을 사용하고 기둥상부는 3량가의 2익공양식으로 창방 사이에는 화반(花盤)을 얹어 도리를 받고 있는데 살미에는 만개한 연꽃과 연봉을 조각하고 보머리에는 조각한 봉두(鳳頭)를 끼워 후기의 장식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풍판(風板)을 둔 맞배지붕 건물이다.



▲ 정 면



▲ 우측면



▲ 기둥상부



▲ 상부구조



삼충각 배치평면도

14. 육신사 (六臣祠)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 637번지
- 건립년대 : 1981년
- 건축규모 : 일 괘(10동)
 - ① 숭정사(崇正祠) - 정면 5칸, 측면 3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② 숭절당(崇節堂) - 정면 5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③ 동재 - 정면 3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④ 서재 - 정면 3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⑤ 태고정(太古亭) - 정면 4칸,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눈섭지붕
 - ⑥ 태고정 안채 - 정면 4칸, 측면 3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⑦ 외삼문(外三門) - 정면 3칸,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⑧ 내삼문(內三門)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육신사는 조선 세조때 사육신(死六臣)을 봉안하기 위해 건립한 사당이다. 육신사의 전신은 낙빈사(洛濱祠)인데 1866년에 낙빈서원(洛濱書院)과 함께 훼손된 후 1924년 낙빈서원이 재건되면서 다시 이곳에 봉안하게 되었으며, 1974년 유적정비사업에 따라 구 종가(宗家)터 뒷산에 새롭게 단장하였다.



▲ 원 경



▲ 근 경

야트막한 산기슭에 자리잡은 관계로 대지의 경사를 이용한 대지조성을 하였다. 공간의 성격에 따른 위계를 두기 위해서 인지 대지를 3단으로 조성하여 성격에 따른 건물을 군으로 배치하였다. 숭정사(崇正祠)와 홍살문, 외삼문(外三門)을 잇는 남북축(南北軸)을 설정하고 가장 높은 곳에 제향공간(祭享空間)인 숭절사와 내삼문(內三門)을 둔 일곽을 두고 이 권역보다 한단 낮게 보물 554호 지정된 태고정(太古亭)과 관리사가 자리하여 기념적 성격을 지닌 권역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태고정 전면에 대지를 한단 낮추어 전사청과 제향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숭절당(崇節堂)이 ㄷ자형으로 자리하면서 주변에 방형의 토장(土牆)을 돌려 권역을 형성하고 있다.

숭정사는 정면 5칸 측면 3칸 겹처마 팔작지붕의 콘크리트 건물로서 전퇴칸을 둔 사당평면이다. 사당 내는 사육신의 위패와 더불어 박팽년(朴彭年)의 부친인 중림(仲林)선생의 위패를 함께 봉안하여 육신사라는 사호(祠號)를 사용하지 못하고 숭정사로 하게 되었다.

외삼문을 들면 우측 편에 숭절당 일곽이 자리하고 있다. 숭절당의 기능은 숭정사에서 열리는 제사때 사용하는 제기(祭器)를 보관하는 전사청(典祀廳)의 역할과 제관(祭官)들의 임시숙소로 사용되는데, 원래는 우측의 사랑채와 ㄱ자형을 이루고 있었으나 1981년에 숭정사를 건립할 때 좌측에 다시 1동의 건립하여 현재와 같은 ㄷ자형배치를 이루게 되었다.



▲ 숭절당



▲ 상부구조

숭절당의 평면은 좌로부터 온돌방, 2칸 대청, 2통칸 온돌방, 부엌이 연접되어 있는데 부엌 상부에는 다락을 두어 제향용 식기를 보관하고 있다. 가구는 종량(宗樑) 위에 원형판대공을 세워 마룻대와 장여를 받게 한 5량가의 건설한 구조이다.

우측 사랑채는 제수용품을 보관하기도 하고 제사 때는 숙소로 쓰이고 있는데 평면은 2칸 온돌방과 대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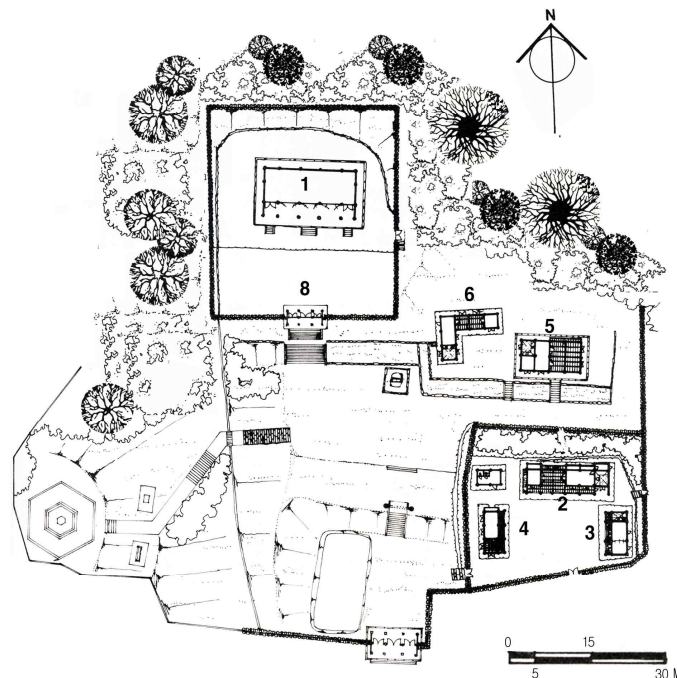
▲ 좌측면



▲ 서 재



▲ 좌측면



육신사 배치평면도

15. 태고정 (太古亭)

- 지정종별 : 보물 554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묘동 638번지
- 건립년대 : 1614경 재건
- 건축규모 : 일 괵(2동)
 - ① 태고정 - 정면 4칸,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눈섭지붕
 - ② 안 채 - 정면 4칸, 측면 3칸,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묘골마을 뒷산인 용산(龍山) 아래에 옛 종택(宗宅)의 일부인 태고정 일명 일시루(一是樓)가 있는데 한 때 태고정 서남쪽으로 세워져 있었던 흥(興)자 모양 99칸 중가의 정자였다.

박팽년의 유복손(有腹孫) 일산(壹珊)이 성종 10년(1592) 종택과 사우(祠宇), 정자(亭子)를 창건하였고 3대 후인 충후(忠後)때인 선조 25년(1592) 임진년 5월 18일 왜군들이 하빈현으로 쳐들어와 마을 및 모든 민가를 태워버렸으나 다행히 그때 큰비가 내려 충정공의 사당은 소실을 면하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광해 갑인년(1614)에 박종남(朴宗男)이 옛 터에 종택과 정자를 다시 짓고 그의 아들인 박숭고(朴崇古)때에 정자이름을 태고정이라 하였다. 태고정기(太古亭記)에는 종택의 규모를 묘사하고 있는데 현 승정사의 정문인 삼문자리 남쪽에 홍살문이 세워졌고 하마비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원 경

태고정의 평면은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면 4칸 가운데 왼쪽 2칸은 대청으로 꾸며지고 후면 쪽으로는 쪽마루를 내어 달았으며, 대청 서측으로 이어진 한 칸은 방으로, 서측 마지막 한 칸은 전후 두 칸을 나누어 전면은 방으로 후면의 한 칸은 부엌으로 꾸며 놓아 전체적으로 방, 마루, 부엌이 합성된 평면을 구성하고 있다.

태고정의 기단은 전체에 걸쳐 단차 없이 화강석 장대석으로 설치하였으며 정면은 세벌대이고 배면은 두벌대로 대지의 경사에 따라 기단의 높이를 결정하였다. 기둥은 좌측면 3개와 방 가운데 기둥만 각주(角柱)를 사용하였고 그 외는 모두 원기둥을 세우고 무익공 소로 수장하였다. 그리고 가구 구성을 보면 대청마루 중간을 제외한 내·외진 모두 칸마다 기둥

을 세우고 전후 평주(平柱) 사이에 대량을 걸었다. 양칸(梁間)을 사분(四分)과 삼분(三分)한 중간 정도의 위치에 동자주(童子柱)를 세우고 동자주 사이에 종량(宗樑)을 걸었다. 도리는 전후 평주 위에 처마도리를, 종량 양측 단부에는 중도리를 각각 걸고 종량 중앙부 상면에는 마루대공을 설치하고 중도리를 걸어 5량가로 구성해 놓았다.

마루대공은 하부에 수장폭 두께의 판재를 두 장 포개어 만든 제형판대공(梯形板臺工)을 사용하였으며 첩차를 삼입하여 중도리와 장여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태고정의 지붕은 동측은 팔작지붕으로 되어있으나 동쪽에서부터 세 칸을 한 몸으로 하여 서측에는 박공지붕을 꾸미고 이어진 서측 한 칸은 눈썹지붕의 형태로 만들었다. 눈썹지붕 하부의 처마는 박공처마형식으로 구성하였으나 지붕은 귀마루를 구성하여 마치 서측면 쪽이 함각지붕인 것처럼 꾸몄다. 지붕의 형태가 이처럼 변화 있게 형성된 것은 조성 당시부터의 의도적인 계획인지 아니면 서측의 한 칸을 후대에 부설하면서 꾸며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한쪽으로 치우친 입구부분에 중심성이 보다 확보되어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지붕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 있게 꾸며져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 태고정 정면



▲ 좌측면



▲ 우측면



▲ 외기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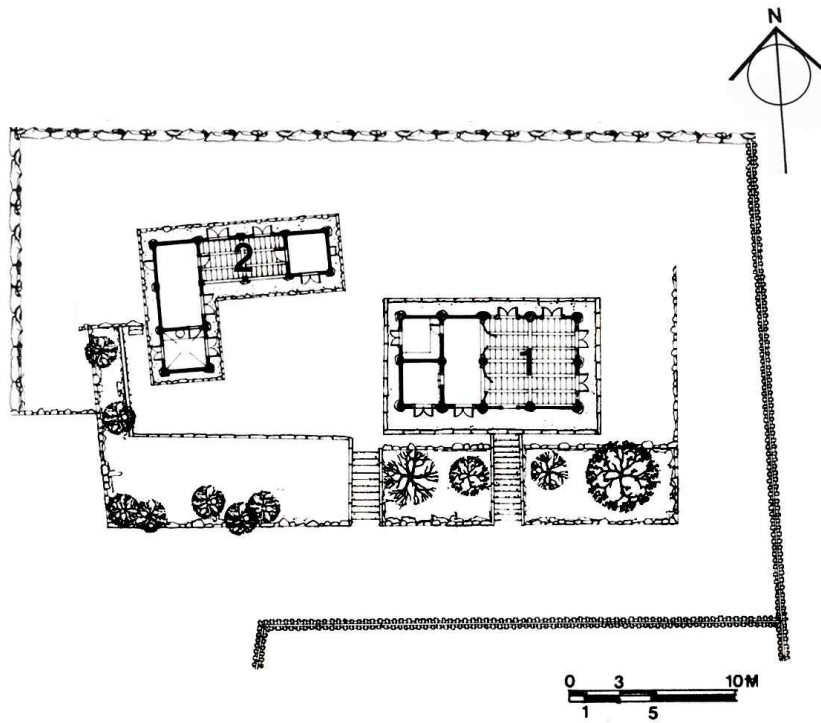
▲ 상부구조



▲ 현 판



▲ 안 채



태고정 배치평면도

16. 이강서원 (伊江書院)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이천리 277번지
- 건립년대 : 1636년
- 건축규모 : 일 광(2동)

- ① 강당(玩樂堂) - 정면 5칸, 측면 1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② 외삼문(二樂樓)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대구읍지」에 의하면 「나라로부터 현액을 하사 받지 못하였다. 선사암(仙槎菴)이 있었던 터에 건립하였는데,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 선생 한 분만을 제향한다. 숭정(崇禎) 병자년(1636)에 서원을 창건하였으나 병자호란을 만나 4년 뒤인 기묘년(1639)에 선생을 봉안하였다. 서원 이름은 홍문제학 오준(吳竣)이 썼다.

선생의 휘(諱)는 사원(思遠)이니, 한강 정구 선생의 문하에 들어가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선생과 더불어 도의로써 교류하였다. 이천동(伊川洞) 선사암 옛터에 집을 짓고 그 당명을 완락(玩樂)이라 하였다. 그 동쪽은 경재(敬齋)이고 서쪽은 의재(義齋)인데, 날마다 학도들과 더불어 성리서(性理書)를 강론하였다.

선조 갑신년(1584)에 예조정랑에 추천되어 제수되고 교정랑청(校正郎廳)에서 역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을미년(1595)에 조정의 신하에 의한 추천으로 청안현감(淸安縣監)에 제수되었다. 이 현은 전쟁을 겪은지 얼마 안 되어 문교(文教)가 인멸되어있었다. 그래서 먼저 공자의 사당을 만들고 재실을 수리하여, <소학>으로써 생도를 가르치고 무마해서 편히 모여 살게 되었다. 그 곳의 현감을 그만 두고 돌아왔을 때 사림이 구봉서원(龜峯書院)을 건립하여 제향했는데 후에 현액이 내려졌다.

강당인 「완락당(玩樂堂)」과 외삼문인 「이락루(二樂樓)」가 남북축선상에 자리하고 있으나 주변의 담장이나 여타건물은 남아있지 않고 관리 또한 허술하다.

강당인 완락당은 정면 5칸 측면 1칸반 규모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자연석 허튼층 쌓기한 다소 높은 기단 위에 중당협실형의 평면을 구성하였다. 어칸과 좌협칸을 통하여 2칸 마루를 중심으로 좌측으로 온돌방 1칸(대구읍지의 기록에 의하면 義齋)을 설치하고 우측으로 2칸 온돌방(敬齋)을 두었다.

그리고 온돌방 앞쪽에 퇴칸을 두어 마루와 연결하고 마루와 방 사이에는 4분합 들어열개 문을 달았다. 마루 뒤편에 퇴를 달고 온돌방 뒤편에도 퇴와 동일한 폭으로 벽장을 설치하였다. 정면에만 원기둥을 사용하였고 무익공 소로수장집이며 3량가구이다.

외삼문은 집의 모양과는 달리 「이락루」라는 다락집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편액하였다. 가운데 대문칸을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두었으며 대문칸부분의 지붕을 한단 높게 만든 솟을지붕을 모양을 지니고 있다.



▲ 원 경



▲ 서당 정 면



▲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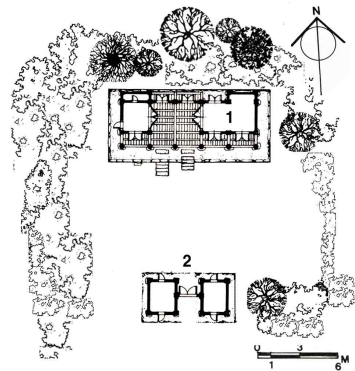
▲ 좌측면



▲ 틈간 결구



▲ 상부구조



이강서원 배치평면도

17. 묵정재 (默庭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달천리 69번지
- 건립년대 : 1890년
- 건축규모 : 일 괵(3동)
 - ① 재 실 - 정면 6칸, 측면 1칸반, 홑처마, 맞배지붕
 - ② 관리사 - 정면 3칸, 측면 1칸, 블록조
 - ③ 외삼문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솟을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묵재(默齋) 양찬(楊纘)을 기리기 위해 경주양씨(慶州楊氏)들이 건립한 재사로 달래마을(달천리) 앞에 서남향으로 자리잡았다. 재의 배치는 재의 출입문인 대문채를 들어서면 정면에 남서향으로 재가 자리하고 좌측 편에 블록조 관리사가 배치되어있다. 약간의 경사지에 터를 잡은 관계로 기단이 상당히 높으며 정면 7칸 측면 1칸반 규모에 홑처마 맞배지붕의 건물이다.



▲ 전 경

재의 평면은 주변의 재사건축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중당협실형 평면구성이란 점에서는 그 맥을 같이하고 있으나 양측 면에도 퇴칸을 둔 것과 우측 2칸 온돌방이 통칸으로 구성되지 않고 별실(別室)로 구획된 점, 그리고 우측 온돌방의 칸살은 동일하나 우퇴칸의 온돌방 전면 출입문이 외여단이라는 점등은 평면구성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청배면의 창호는 문틀 중간에 가운데 설주를 세워 띠장널문을 설치한 고식(古式)으로 1890년대의 건물에서는 그 예를 찾기가 어렵다. 그리고 양퇴칸의 상부구조를 보면 창방 뿔목 하부에 퇴칸처마도리가 결구되고 가적지붕 박공널에 목기연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후설(後設)된 듯 하다.

입면의 기본요소인 기둥은 정면과 양측면 외진주는 모두 원주를 사용한 무익공 소로수장 집이며 상부구조는 3량으로 처리되었다.

중도리 장여하단의 묵서명(光緒拾六年庚辰貳月拾八日午時立柱上樑)에 의하면 1890년 건

립되었으나 그 전에 있던 건축물을 확장하면서 현재와 같은 건물로 재구성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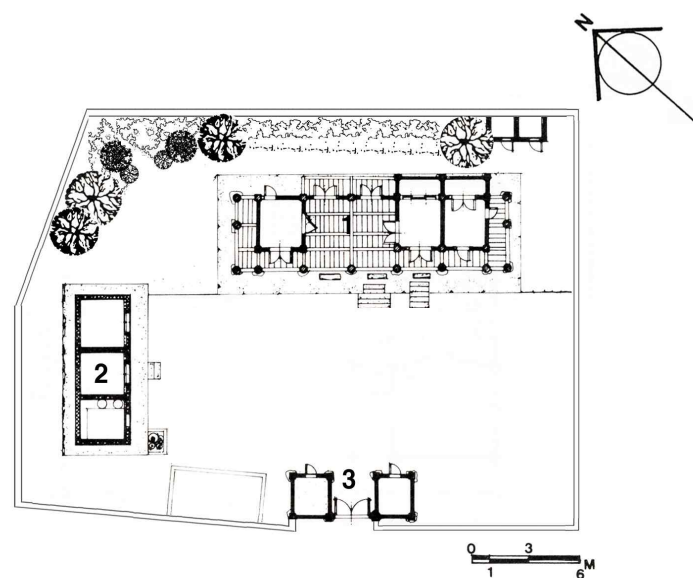
▲ 좌측면



▲ 상부구조



▲ 퇴칸 결구



목정재 배치평면도

18. 양치정가옥 (楊致亭家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달천리 114번지
- 건립년대 : 1855년
- 건축규모 : 일 괵(5동)
 - ① 안 채 - 정면 5칸, 측면 1칸반, 흙처마, 팔작지붕
 - ② 사랑채 - 정면 3칸, 측면 1칸반, 흙처마, 팔작지붕
 - ③ 고방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흙처마, 맞배지붕
 - ④ 대문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흙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조선 철종 6년(1855) 양응배(楊應培)가 건립한 가옥으로 달래마을 초입부에 남동향하여 튼 구자형으로 일괄을 이루고 있다. 안채를 중심으로 좌측에 조적조 건물이 배치되어 있으며 대향하여 고방채가 자리하고 대문채 좌측에 사랑채가 있어 전체적으로 튼구자를 이루고 있다. 사랑채는 대문채 기둥과 사랑채 우측기둥 사이에 토담을 설치하고 좌측 아래채와도 담장과 문을 두어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였다.

안채의 평면은 중당협실형으로 가운데 2칸마루를 중심으로 좌측에 온돌방 1칸과 부엌을 배치하고 우측으로는 온돌방 1칸을 두었다. 그리고 마루와 방 전면에 퇴칸을 두어 방과 마루사이의 동선을 연결하였으나 좌우측온돌방 전면 퇴칸에는 마루사이에 문을 두어 별도의 공간으로 구획하였다. 그리고 우측온돌방은 측면에 문을 두어 측입이 가능토록 하였고 마루 뒤편에 퇴를 두었다. 네모기둥에 납도리를 얹고 원형판대공을 얹은 3량구조이나 퇴칸 전면 에 유리미서기문을 후설하여 고대는 반감되었다.

사랑채는 전퇴칸을 둔 3칸 건물로 좌측으로부터 마루, 온돌방 2칸이 배치되어있다. 3칸에 걸쳐 퇴칸을 두었으며 방과 마루사이에는 4분합들문을 달았으며 온돌방은 미서기문으로 구획되어있다. 상부구조는 간결한 납도리 3량가구이며 팔작지붕을 올렸다.

안채 전면 우측에 자리하고 있는 고방채는 가운데 우물마루를 시설한 고방이 자리하고 우측에 방앗간이 좌측으로는 헛간이 있다.



▲ 안채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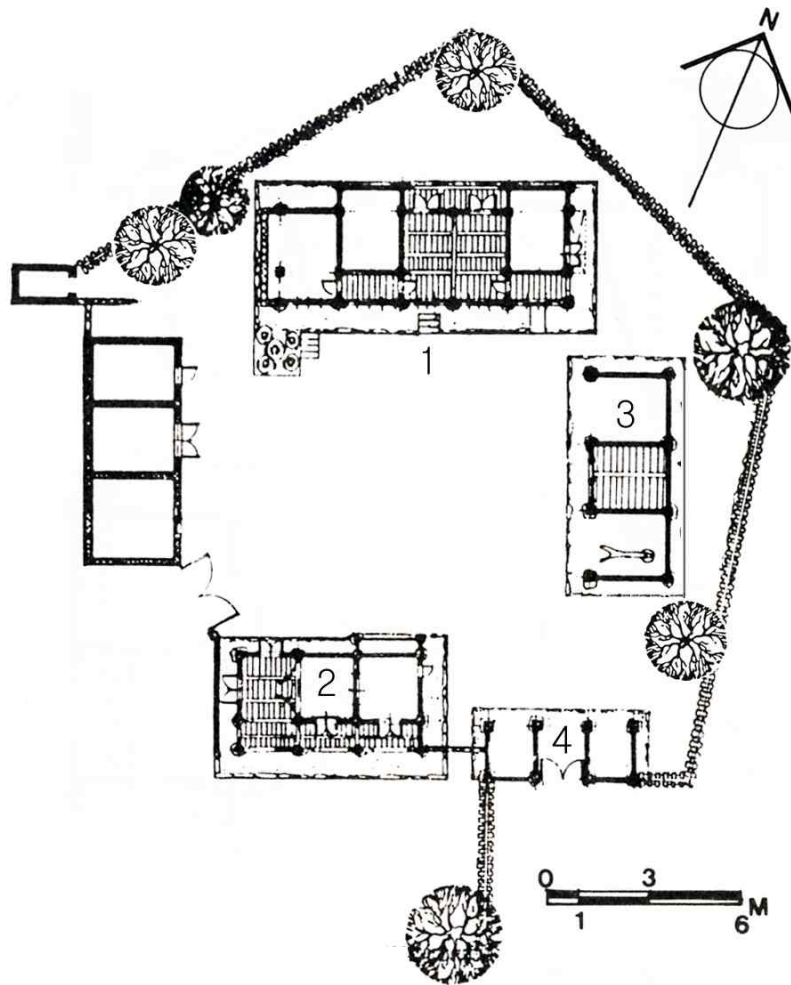
▲ 좌측면



▲ 기둥머리



▲ 상부구조



양치정가옥 배치평면도

19. 정지권가옥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박곡리 246-2번지
- 건립년대 : 1840년대
- 건축규모 : 일 괵(3동)
 - ① 안 채 - 정면 2칸, 측면 1칸, 흙처마, 초가지붕
 - ② 사랑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흙처마, 초가지붕
 - ③ 헛간채 - 정면 2칸, 측면 1칸, 흙처마, 초가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박곡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3동 모두 초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담장상부 역시 짚으로 덮여 전체적으로 초가의 멋이 깃들여 있다.

남향하고 있는 안채는 부엌과 안방으로만 구성된 2칸 규모의 토담집인데, 방문은 전면에만 내었고 부엌은 문짝을 두지 않고 부뚜막 쪽으로 살창만 내었다. 3량가구이나 결구수법은 원시적이다.



▲ 전 경

안채 전면 좌측에 동향하고 있는 사랑채는 좌측에서부터 방, 방, 방앗간으로 평면이 구성된 토담집인데, 안채와는 달리 기둥을 세웠다. 방의 출입문은 안채와 동일하게 내정에서 출입토록 하였으나 좌측 방은 측면에 문을 두어 외부에서 직접 방으로 들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방앗간은 개구부에 문은 설치하지 않았다. 상부구조는 안채와 같이 3량가구이다.

헛간채는 마구간과 헛간을 두었으며 토담에 초가지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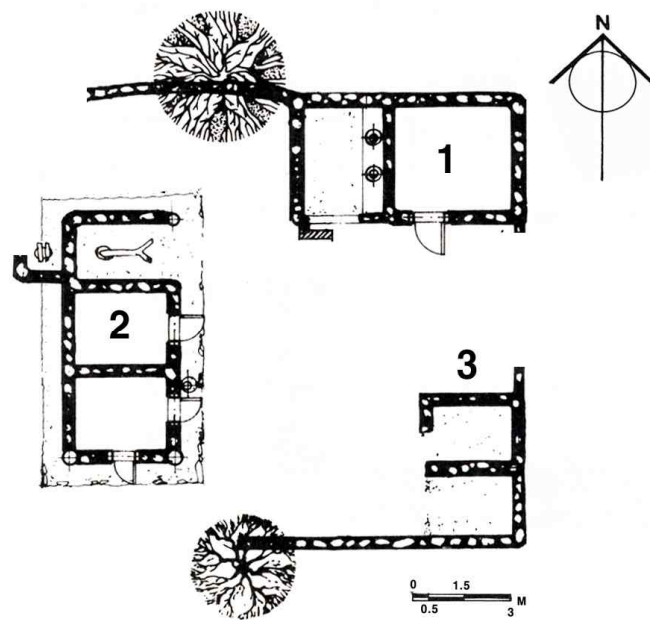
▲ 안 채



▲ 사랑채



▲ 헛간채



정지권가옥 배치평면도

20. 금회영정각 (琴回影幀閣)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세천리 168번지
- 건립년대 : 1964년
- 건축규모 : 일 괵(2등)

① 영정각 - 정면 3칸, 측면 1칸반, 흠처마, 맞배지붕

② 외삼문 - 정면 3칸, 측면 1칸, 흠처마, 솟을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백촌(白村) 김문기(金文起)의 영정을 모신 건물로 선생의 13세손인 중성(鍾成)과 15세손인 동건(東建)이 합의하여 문중의 힘을 모아 영정각을 건립하고 영정(影幀)을 봉안하였다.

백촌 김문기공(1399-1456)은 자를 여공(汝恭)이라 하였으며 1426년(세종 8년) 식년병과(式年丙科)에 급제하여 검열(檢閱), 정언(正言), 함길도 도관찰사(咸吉道 道觀察使)를 거쳐 이조판서에까지 이르렀다. 1456년 단종복위(端宗復位)에 가담하여 사사되었다. 지례(知禮)의 섬계서원(剡溪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충의(忠毅)라 내렸다.

영정각은 전면에 평삼문(平三門)을 두고 남향하여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은 방형토장으로 구획하였다. 영정각은 정면 3칸 측면 1칸반 규모로 낮은 기단 위에 막돌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정면에만 원기둥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네모기둥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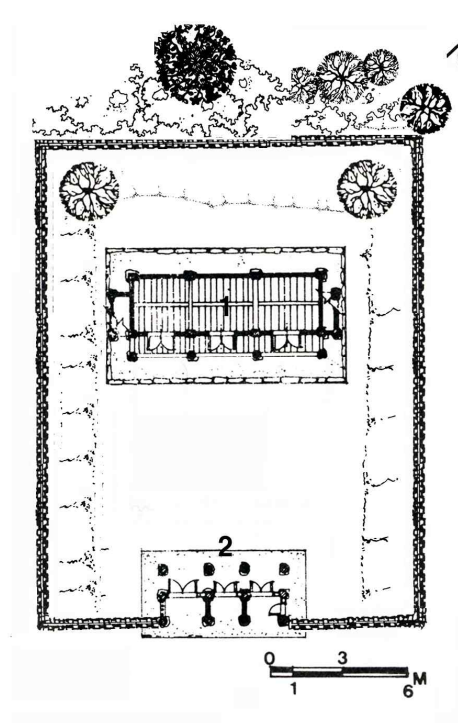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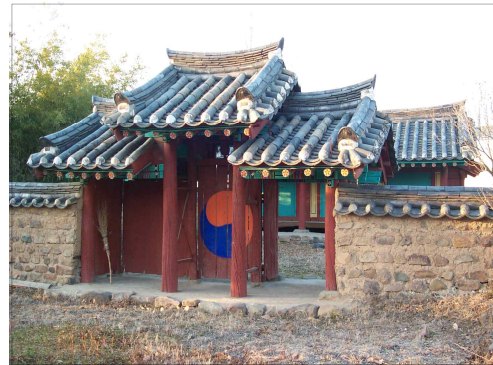
평면은 전면이 개방된 툇칸형인데 툇칸과 내부에는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벽체 양측에는 원주를 세워 벽장을 설치하고 그 위에 가적지붕을 만들어 정면에서 볼 때 입면 형상이 다소 특이하다. 그리고 매칸 쌍여닫이문을 설치하였고 납도리에 장여를 받추었다. 상부가구는 소박한 3량가이며 모로단청을 올렸다.



▲ 전 경



▲ 정 면



21. 하남정사 (河南精舍)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매곡리537번지
- 건립년대 : 1922년
- 건축규모 : 일 괵(2동)
 - ① 정 사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② 외삼문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솟을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하남정사는 임란직후 이곳으로 이주한 투암(投巖) 채몽연(蔡夢硯)이 세운 정사이다. 채선생(1561-1638)은 자는 정응(靜應), 호는 투암(投巖)이며 본관은 인천이다. 사헌부 집의 정국의 아들로써 한강(寒崗) 정구(鄭逋)에게 수학하였고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으며 효행으로도 이름이 났으며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추증되었다.

임진란이 발발하자 팔공산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북부장(北部將)이 되어 서사원(徐思遠), 손처눌(孫處訥)과 더불어 왜적을 물리치고 화왕산 전투에서 곽망우당을 도왔으며 하남정사에서 제자들에게 성리학을 강명했다. 선생 사후 인동 소암서원(嘯巖書院)에 배향되었다.

하남정사는 인조 18년(1640)에 화재를 당하여 전소되었고 그 후 효종 3년(1652)에 투암의 장남이 중건하였으나 11년 후 다시 소실되었으며, 현재의 건물은 1922년에 지방 유림과 후손들에 의해 중건된 것이다.



▲ 전 경

정면 4칸 측면 1칸반 규모에 홑처마 팔작지붕의 건물이며 평면구성은 어칸의 우물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들이고 전면에 퇴칸을 둔 중당협실형이다.

그리고 마루와 온돌방 사이에 4분합 들어열개문을 설치하여 공간의 확장성을 도모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측 온돌방 우측 편에 퇴를 두어 측면에서의 출입도 가능토록 하여 방의 이용자에 따른 접근성도 고려해 두었다.

가구는 대량 위에 원형판대공을 올려 마룻대와 장혀를 받게 한 3량가의 간결한 구조이다. 정사의 출입문인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솟을삼문이다.



▲ 정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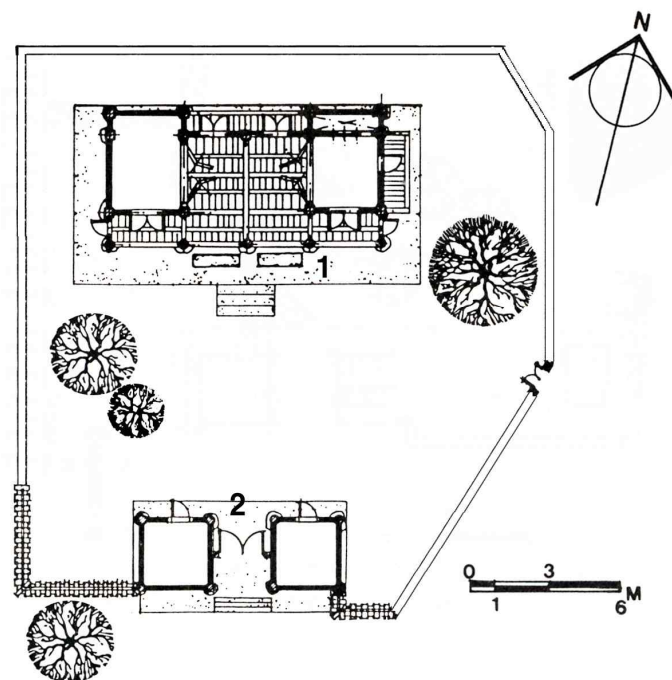
▲ 좌측면



▲ 우측면



▲ 상부구조



하남정사 배치평면도

22. 학화재 (鶴和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매곡리 500번지
- 건립년대 : 1934년, 1960년 개축, 2001년 보수
- 건축규모 : 일 괵(2동)
 - ① 재 실 - 정면 4칸, 측면 1칸반, 겹처마, 팔작지붕
 - ② 대문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솟을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일암(一庵) 김용호(金容鎬)를 위하여 세운 재사이다. 외삼문을 들어서면 정면 4칸 측면 1칸반 규모의 재사 건물이 남서향으로 자리잡고 우측편에 위패를 모신 양양묘가 2001년 신설되어있다.



▲ 정 면

재실은 가운데 2칸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이 1칸씩 배치되고 앞쪽에 퇴칸이 설치된 중당협실형 평면으로 좌측온돌방 뒤편에 벽장이 설치되고 마루 뒤편에 퇴를 두었다. 그리고 마루와 온돌방과는 4분합들어열개문을 달아 4칸을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쪽 기둥 옆에만 원기둥을 사용하고 무익공 소로수장으로 장식하였다. 상부구조는 대량 위에 제형판대공을 세운 간결한 3량가구이며 재사건축에서는 드물게 겹처마에 팔작지붕을 올렸다.

그러나 퇴칸 앞쪽에 미서기 유리창을 설치하고 배면에 알루미늄문을 설치하여 옛스런 맛이 반감되었다.



▲ 좌측면



▲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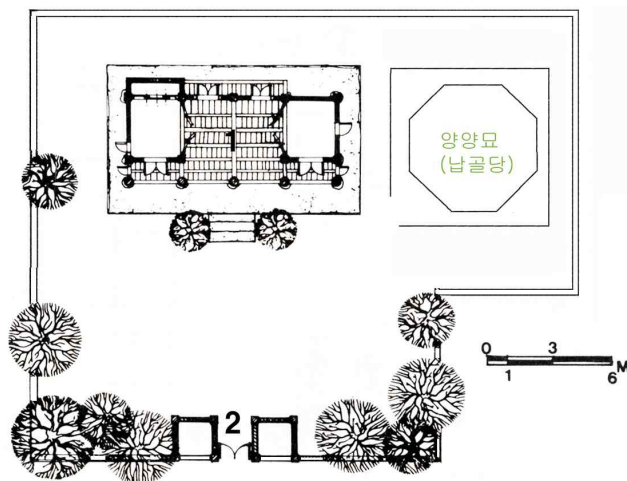
▲ 배면



▲ 추녀부분



▲ 상부구조



학화재 배치평면도

23. 정병규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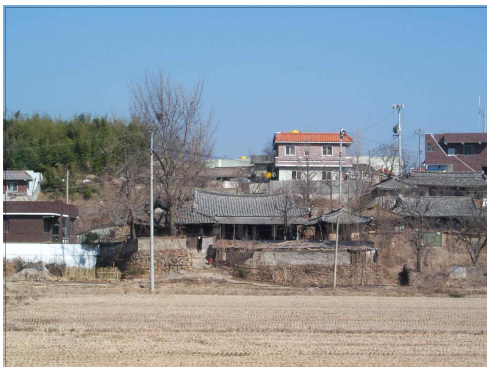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문양1리 620번지
- 건립년대 : 1916년
- 건축규모 : 일 곽(3동)
 - ① 안 채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흙처마, 팔작지붕
 - ② 사랑채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흙처마, 팔작지붕
 - ③ 고방채 - 정면 4칸, 측면 2칸, 흙처마, 우진각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현 소유자의 3대조가 건립하였다고 전하며 마을 한가운데에 남동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가옥의 배치는 안채를 중심으로 하여 안채 좌측편에 사랑채가 자리하고 대향하여 고방채가 있어 전체적으로 ㄷ자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채는 좌측으로부터 부엌, 안방, 마루, 건너방 순으로 실이 배치되고 안방과 마루에 걸쳐 반칸 폭의 퇴칸을 두어 동선이 연결된다. 그리고 건너방 앞쪽과 마루 뒤편에 툇마루를 덧대고 방 뒤편에 벽장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상부구조는 3량이며 무익공으로 기둥머리를 꾸몄다.

사랑채는 대문칸을 첨가하여 ㄷ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집으로 들 수 있는 대문칸을 사랑과 연결시키고 사랑방 2칸을 설치하였다. 사랑방의 정면은 안채 쪽이 아니고 남서향을 향하므로 남녀공간을 구획한 듯 하며 방 앞쪽과 측면 쪽에 퇴를 두어 안채를 통하지 않고 외부에서 직접 사랑으로 들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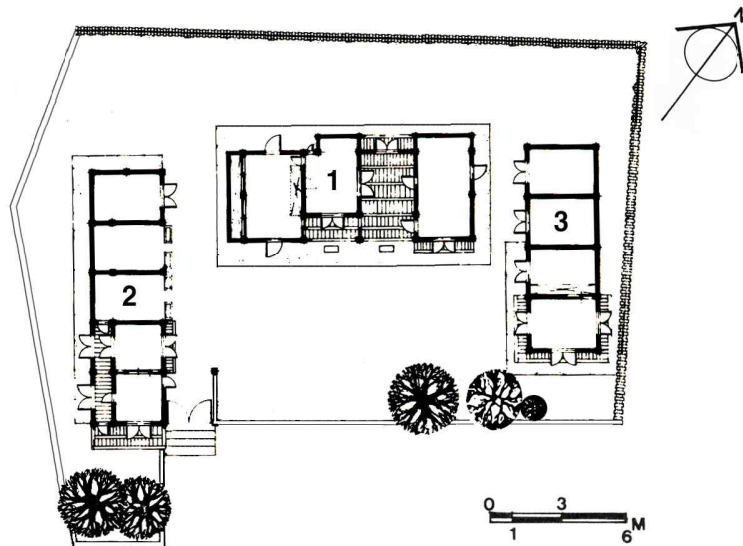
그러나 안채에서 활용하는 두지와 마굿간은 내정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을 내측으로 두어 실의 기능에 따른 출입동선의 분리가 눈에 띄며 안채와 마찬가지로 장여수장 3량구조에 대문칸 쪽으로 팔작지붕을 얹었다.



▲ 원 경



▲ 안 채



정병규가옥 배치평면도

24. 침모재 (瞻慕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문산리 270번지
- 건립년대 : 1900년대
- 건축규모 : 일 괵(2동)
 - ① 재 실 - 정면 3칸, 측면 1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② 일각문 - 정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파평윤씨의 재실로 마을 어귀에 동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재실은 주변을 방형의 블럭 담장으로 구획하고 앞쪽에 재사의 출입문인 일각문(一角門)을 세웠다.

일각문을 들어서면 정면 3칸 측면 1칸반 규모의 재실이 자리하고 있다. 시멘트마감한 낮은 기단 위에 넓적한 원형초석을 놓고 정면과 배면 컷기둥은 원기둥을 사용하였고, 배면과 내진주는 네모기둥을 사용하였다.

평면은 가운데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들이고 앞쪽에 퇴칸을 둔 중당협실형인데 마루와 방 사이에는 모두 4분합 들어열개문을 설치하여 공간의 확장성이 높다. 그리고 좌측 온돌방 뒤편에 수납공간을 두고 마루 뒤편에 퇴를 설치하였으며 온돌방 전면에 궁판을 끼운 쌍여닫이 띠살문을 두고 측면 중방 위에 창을 설치하여 전통적 창호와는 다소 이

질적인 느낌을 준다. 기둥머리는 무익공이며 주간에 소로를 엮었으며 상부구조는 마루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한 5량으로 처리하고 겹처마 팔작지붕을 엮었으나 근년에 개축된 건물이다.



▲ 재실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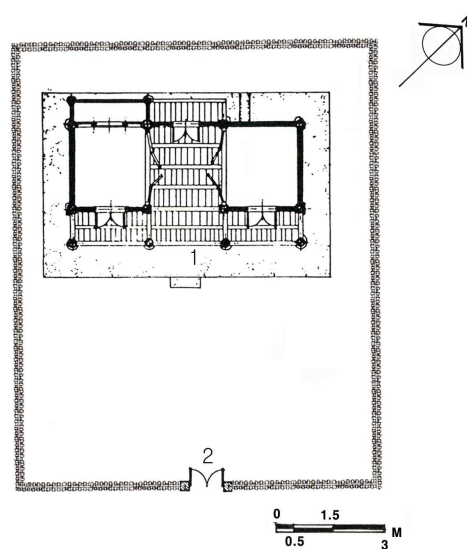
▲ 좌측면



▲ 기둥상부



▲ 상부구조



첨모재 배치평면도

25. 금암서당 (琴岩書堂)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매곡2리 1102번지
- 건립년대 : 1958년 중건
- 건축규모 : 정면 5칸, 측면 1칸,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본 서당은 임하(林下) 정사철(鄭師哲)과 그의 아들 낙애(洛涯) 정광천(鄭光天)을 향사(享祀)하기 위해 서원(書院)으로 영조 40년(1764)에 창건하였으나 고종 8년(1871)에 훼손된 후, 세손들이 1958년 서원의 자리에 현재의 건물을 지어 서당으로 그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

임하 정사철선생은 조선중기의 학자로 자는 계명(季明)이며 한강 정구의 문인이다. 1570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남부참봉(南部參奉)으로 임명되었으나 불취하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서사원(徐思遠), 주유(朱惟) 등과 교유했으며 1592년 임란 때 의병을 일으켰으며 대구 금호서원(琴湖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광천은 임란 때 경남 창녕의 화왕산성(火旺山城)싸움에서 곽재우장군을 도와 전공을 세웠으며 다사면 금암서원(琴岩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현재 서당은 과거 서원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고 일반 재사건축의 모양과 흡사하였다. 재의 우측으로 낸 일각문을 들어서면 남서향하여 정면 5칸 측면 1칸반 규모의 서당이 자리하고 있다. 서당 평면은 전퇴칸을 둔 중당협실형으로 어칸과 우협칸에 걸쳐 2칸 마루를 두고 좌우에 온돌방이 배치되어있다.

마루 한 가운데 기둥 1본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대량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라 보인다. 좌측온돌방은 2칸이 연결되고 방 사이는 2짝 미서기문으로 구획되어있다. 그리고 좌협칸 온돌방 뒤편에 벽장을 설치하였고 마루와는 분합들문을 설치해 두었다.

그러나 우측 온돌방은 쌍여닫이문을 달았으며 우측면에 퇴를 덧대었다. 상부구조는 대량 위에 제형판대공을 세운 3량가구이며 홑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 정 면



▲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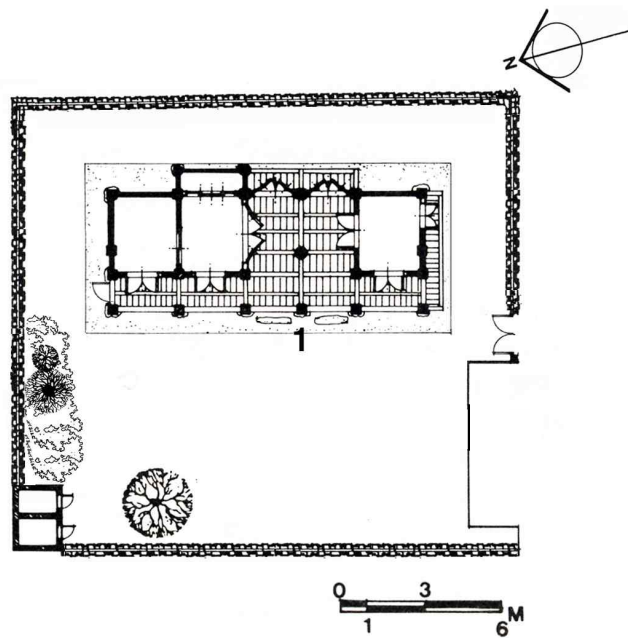
▲ 우측면



▲ 기둥상부



▲ 상부구조



금암서당 배치평면도

26. 영벽정 (映碧亭)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문산리 405번지
- 건립년대 : 1900년대
- 건축규모 : 일 괵(2등)

① 영벽정 - 정면 4칸,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② 대문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윤유우(尹攸宇)가 건립한 정자로 낙동강을 굽어보는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정자의 배치는 정자 전면에 삼문을 두어 정자 일곽 내에 들 수 있도록 하고 정자 앞마당을 삼문보다 많이 높혀 정자를 남서향으로 자리하여 전면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자 좌측 담장에 협문을 두었다.

다소 높은 자연석 기단 위에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을 앉혔다. 평면은 전퇴칸을 설치하고 가운데 2칸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들인 형식이다. 좌측온돌방은 뒤편에 벽장을 설치한 반면 우측온돌방은 벽장을 설치하지 않고 그 폭 만큼 방을 확대하였다.

방과 마루와는 4분합문을 설치해 두었으며 좌측온돌방 측면과 마루 뒤편에 출입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뒷마루를 두었으며 온돌방 전면 퇴칸에는 외진주(外陣柱)에 기대어 현함을 설치해 두었다.

정면만 원기둥을 사용하고 기둥 위에는 초익공(初翼工)양식으로 꾸몄는데 살미의 형상은 단부(端部)가 올라간 양서형(仰舌形)이며 살미(山彌) 하부에는 연봉을, 상부는 연화(蓮花)로 조각하였다. 그리고 상부구조는 종량(宗樑) 위에 원형판대공(圓形板臺工)을 세워 종도리(宗道里)를 받도록 한 5량가구이며 겹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좌측 협문은 초익공양식으로 양두에 봉머리를 끼워 매우 아담하다.



▲ 정 면



▲ 우측면



▲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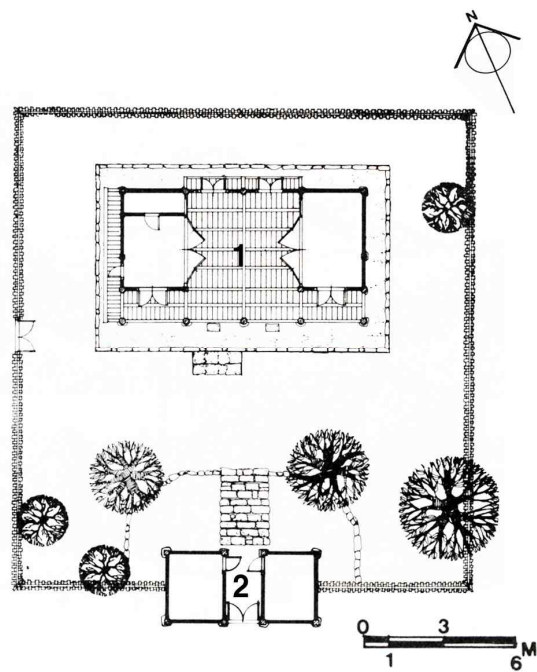
▲ 기둥상부



▲ 상부구조



▲ 헐 문



영벽정 배치평면도

27. 구목당 (九睦堂)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1391번지
- 건립년대 : 1959년
- 건축규모 : 일 괵(2등)

① 재 실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흙처마, 팔작지붕

② 대문채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흙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선전관(宣傳官) 김유원(金有元)의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청도김씨 재사이다.

남서향으로 자리하고있으며 재실인 구목당과 재실의 출입문인 대문채 2개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은 토석담장과 시멘트담장으로 둘러져 있다.

재사의 평면은 가운데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들이고 앞쪽에 반칸 폭의 퇴칸이 설치된 중당협실형이다. 그리고 우측면과 배면에 퇴를 두었으며 좌측면은 벽장을 설치하였다. 마루와 방 사이에는 쌍여닫이 띠살문을 두었고 방 전면문은 하부에 머름을 두고 문 상부에 광창을 설치하고 마루 뒤편도 골판벽에 쌍여닫이 골판문을 두고 상부에 교살창을 두어 전통적인 창호구성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면 기둥만 원기둥을 사용하였으며 기둥상부는 무익공에 소로수장하였다. 상부구조는 중량 위에 원형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한 5량가구에 회분벽하고 목부에 봐니쉬마감하였다.

대문채는 재실 쪽으로 반칸 폭의 퇴칸을 두면서 대문칸의 칸살을 좁게 잡았으며 온돌방 앞쪽에는 퇴를 두었다.



▲ 정 면



▲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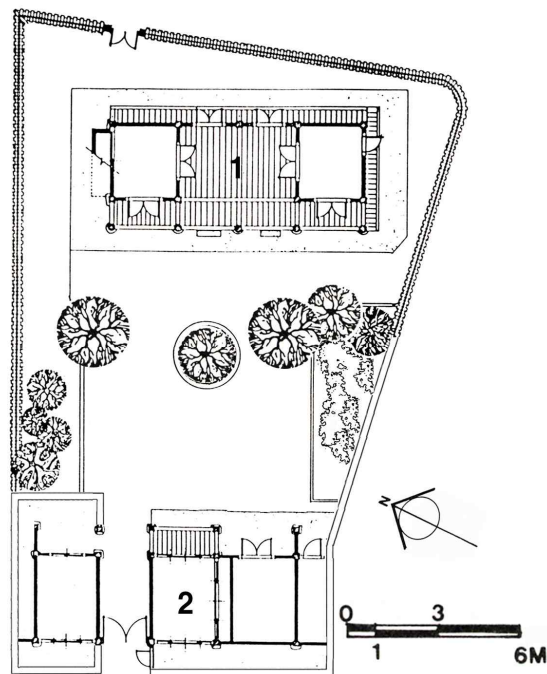
▲ 우측면



▲ 상부구조



▲ 기둥상부



구목당 배치평면도

28. 낙포재 (洛浦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신당리 1145번지
- 건립년대 : 1900년대
- 건축규모 : 일 괵(2동)

① 재 실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② 대문채 - 정면 5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본 재사는 평산신씨(平山申氏)의 재사이다. 남서향으로 자리한 재 우측 편에 대문채가 자리하여 ㄱ자형 배치를 이루고 있다.

재는 정면 4칸, 측면 1칸반 규모의 홑처마 팔작와가집이다. 평면은 일반적인 재의 평면과 대동소이한 전퇴칸을 둔 중당협실형이다.

가운데 2칸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들인 것은 일반적인 구성법이라 볼 수 있으나 가운데 마루를 개방하지 않고 전면에 3분합들문을 두어 폐쇄형으로 구성한 것은 대구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예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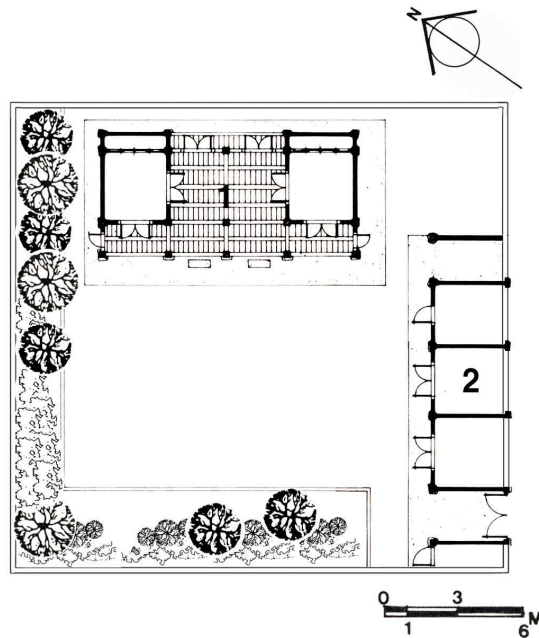
▲ 정 면



▲ 기둥머리

그리고 마루와 온돌방사이에는 쌍여닫이 불발기문을 설치하였고 전퇴칸과는 쌍여닫이 세 살문을 두었다. 상부가구는 대량 위에 원형판대공을 세워 마룻대와 장혀를 받게 한 간결한 3량가로 납도리를 사용하였으며 회분벽하고 목부에 니스마감을 하여 깨끗이 보존되고 있다.

대문채는 우측으로부터 대문칸이 자리하고 3칸 방이 연접되고 헛간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대문채 좌측편에 화장실을 최근에 신축하였다.



낙포재 배치평면도

29. 일우재 (逸友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신당리 1128번지
- 건립년대 : 20세기 초
- 건축규모 : 일 괵(2동)
 - ① 재 실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홀처마, 팔작지붕
 - ② 대문채 - 정면 4칸, 측면 1칸, 홀처마, 팔작지붕, 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과평윤씨(坡平尹氏) 시조 태사공(太師公)의 15세손인 대랑공(大郎公) 윤비(尹備)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재사이다.

서향하고 있는 대문채를 들어서면 남서향으로 재사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전면 우측 편에 관리사가 있어 전체적으로 ㄷ자형배치를 이루어 작으나마 내정이 만들어졌다.

재사는 정면 4칸 측면 1칸반 규모의 건물로 중당협실형 평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가운데 마루의 칸살을 좌우 온돌방보다 작게 잡아 다소 어색한 감을 준다. 온돌방과 마루와는 4분합문을 두어 공간의 융통성을 높였으며 우측 온돌방 측면에 퇴를 두었다.

입면은 정면에만 원주를 사용하였으며 원형판대공을 세워 종도리와 장여를 지지하게 만든 5량구조이며 홀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그러나 정면 마루하부를 타일로 마감하고 대문채를 조적조로 건립하여 전통적인 맛은 반감되었다.



▲ 전 경



▲ 정 면



▲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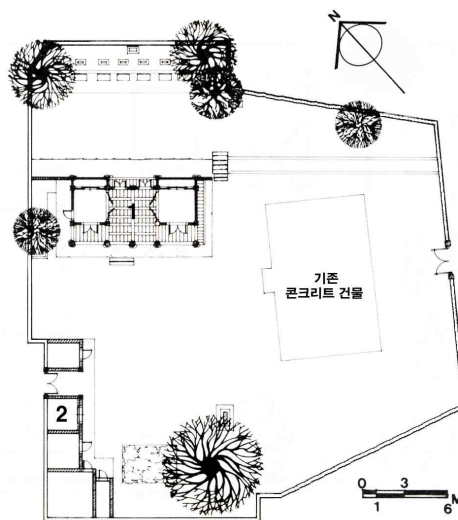
▲ 좌측면



▲ 상부구조



▲ 처마상세



일우재 배치평면도

30. 추모재 (追慕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1리 1121번지
- 건립년대 : 미 상
- 건축규모 : 일 괵(2등)

① 재 실 - 정면 4칸, 측면 3칸반, 겹처마, 팔작지붕

② 대문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평산신씨의 문중재실이다. 전면에 솟을삼문을 들어서면 정면 4칸, 측면 3칸 규모의 재실이 자리하고 있다. 정면 3칸에 측면 3칸이라고 하나 측면 칸살은 1칸반이라 함이 옳을 것이다.

앞쪽으로 전퇴칸을 두고 가운데 2칸에 마루를 두면서 좌우에 온돌방 1칸 씩 배치된 전형적인 중당협실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근년에 새로 개축된 관계로 옛 모습을 상실하였다. 전면 퇴칸부분에도 4분합 들문을 설치하여 전체가 폐쇄된 평면을 꾸몄다. 온돌방과 가운데 마루와는 좌우가 동일하게 4분합들문을 두어 4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루 배면 부분은 골판벽에 쌍여단이 골판문을 설치하였다.



▲ 원 경



▲ 정 면



▲ 배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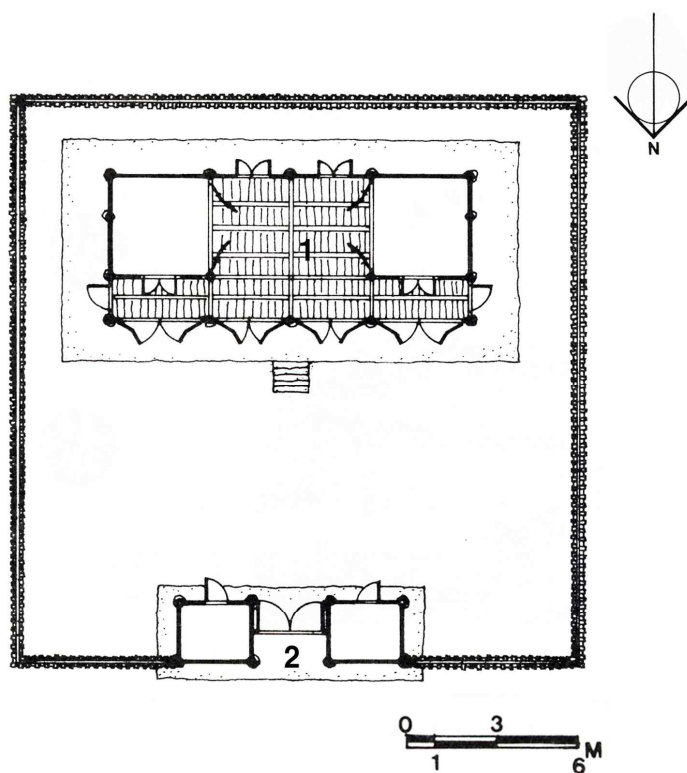
▲ 처마상세



▲ 우측면



▲ 좌측면



추모재 배치평면도

31. 망모재 (望慕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2리 337번지
- 건립년대 : 1947년, 1999년 중수
- 건축규모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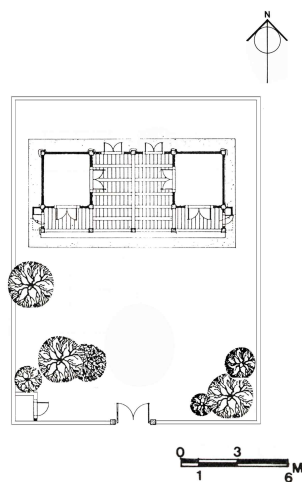
나주(羅州) 나(羅)씨의 위선재사(爲先齋舍)이다.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블록담장 내에 남향하여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정면 4칸 측면 1칸반 규모 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가운데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 우에 온돌방을 들이고 전면에 퇴칸을 둔 중당협실형이며, 마루와 방 사이에는 쌍여닫이 불발기문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온돌방 전면은 장마루를 깔고 대청은 우물마루를 깔았다. 그리고 퇴칸 양 측면은 문을 달아 폐쇄하였다. 상부가구는 만곡(彎曲)된 대량(大樑) 위에 원형판대공을 세워 마룻대와 장여를 받게 한 3량구조이다. 처마는 막새기와를 사용하였고 회벽마감하여 깨끗하다.



▲ 정 면



▲ 상부구조



망모재 배치평면도

32. 낙교재 (洛橋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1473번지
- 건립년대 : 20세기초
- 건축규모 : 정면 3칸,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야은(野隱) 김성로(金成魯) 선생의 강학지소(講學之所)이다. 재의 출입문인 우측의 철대문을 들어서면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낙교재가 서향하여 자리하고, 재 좌측 편에는 후설된 시멘트벽돌조의 관리사가 자리하고 있다.

낙교재는 얇은 시멘트몰탈로 마감된 기단을 마련한 위에 덩벙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다. 건물 정면 4개기둥만 원기둥을, 그 외는 네모기둥을 이용하였다. 평면구성은 반칸 정도의 전퇴칸을 설치하고 측면 칸살을 1칸반 정도의 중앙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배치하여 중당협실형의 평면을 시설하고 퇴칸 좌우는 심벽으로 폐쇄하였다. 상부구조는 무익공 소로 수장하여 납도리를 올린 후 5량가구를 결조하였다. 대량과 퇴량은 내진주 위에서 합보되고 그 위에 동자주를 세워 종량을 올렸다. 그리고 종량 위에 동자주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도록 하고 홑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그러나 건물 높이에 비해 부재가 약하고 내림마루의 길이를 짧게 잡아 지붕 집의 모양새가 어색하다.



▲ 원 경



▲ 정 면



▲ 우측면



▲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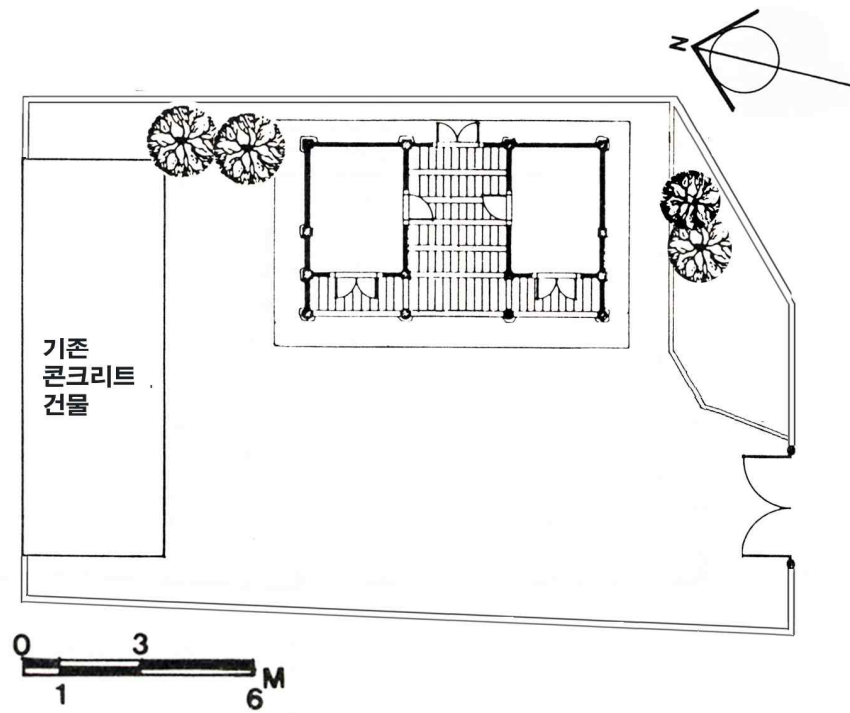
▲ 배 면



▲ 상부구조



▲ 기둥머리



낙교재 배치평면도

33. 망운재 (望雲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1리 846번지
- 건립년대 : 1900년대초
- 건축규모 : 일 곽(2동)

① 재 실 - 정면 3칸, 측면 1칸반, 흙처마, 팔작지붕

② 대문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흙처마, 스레이트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성주이씨(星州李氏)의 재사(齋舍)로 옥계(玉溪)마을의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 재사는 남서향으로 자리잡았고 대문채는 재사와 대향하고 있으며 주변은 블록담장으로 일곽을 구획하고 있다.

20세기 초, 중반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재사의 평면은 주변의 다른 재사건물과 동일한 중당협실형이나 양 측면과 배면에 퇴를 부설한 것과 마루와 방사이의 창호구성에서 약간의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좌측 온돌방 보다 우측 온돌방이 상위의 개념을 가지므로 좌측의 온돌방은 불발기 사분합들문을 달아 공간의 확장을 도모한 반면 우측 온돌방은 쌍여닫이문을 두어 공간의 위계성을 달리한 점에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시멘트로 마감한 기단 위에 어칸 양측 기둥만 자연석 주초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면 기둥만 원기둥을 사용하여 정면성을 부여한 듯하다. 상부구조는 대량 위에 제형판대공(梯形板臺工)을 세워 마룟대와 장여를 받게 한 3량가구법이며 굴도리에 소로수장하였다. 그리고 회벽으로 마감하고 목부에 파니쉬마감하여 깨끗하다.



▲ 원 경



▲ 정 면



▲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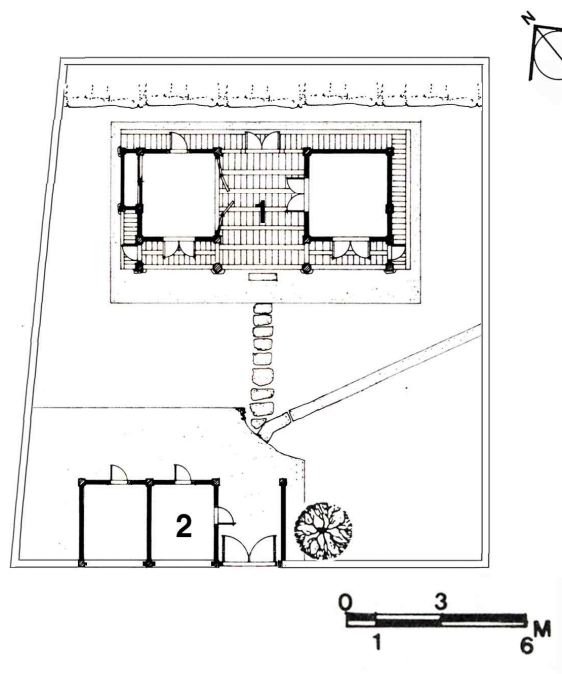
▲ 좌측면



▲ 배 면



▲ 상부구조



망운재 배치평면도

34. 김형규 정효각 (金炯圭 旌孝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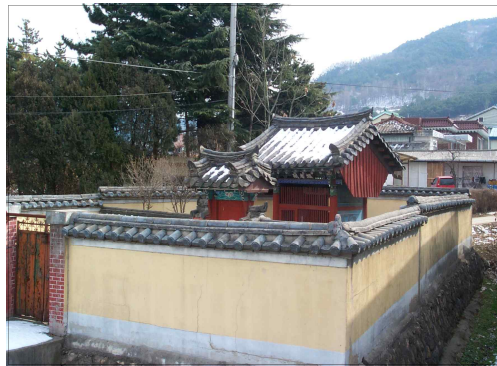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 2리 2256번지
- 건립년대 : 1851년
- 건축규모 : 일 곽(2동)

① 비 각 - 정면 1칸,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② 일각문 - 정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김형규의 자는 성장(聖章), 본관은 김녕(金寧)이다. 단종을 위해 죽은 사칠신(死七臣) 가운데 한 분인 김문기(金文起)의 후손으로 능참봉(陵參奉), 서판(敍判)을 지냈으며 그의 지극한 효성을 기리기 위해 비를 세우고 비각을 건립했던 것이다. 옥개형 비신에는 ‘효자참봉김공형규지려(孝子參奉金公炯圭之間)’라 새겨있다. 처음에는 이 비와 비각이 옥포면 간경리 국도변에 위치하였으나 1983년 소도읍(小都邑) 가꾸기 사업시 국도확장으로 현 장소로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 전 경

비각은 북향하고 있으며 비각 앞쪽은 2개 구역으로 분할시키고 일각문을 따로 설치하였다. 평면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단칸 규모인데 4분의 원주를 세운 후 전면만 홍살을 세우고 문을 만들어 내부의 비가 보이도록 하였으며 양 측면과 배면은 심벽으로 막고 상부만 홍살을 세웠다. 기둥은 4개 모두 원기둥을 세우고 기둥상부는 살미가 생략된 무익공 소로수장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목부는 모로단청을 올리고 3량구조에 박공면에는 풍판을 설치한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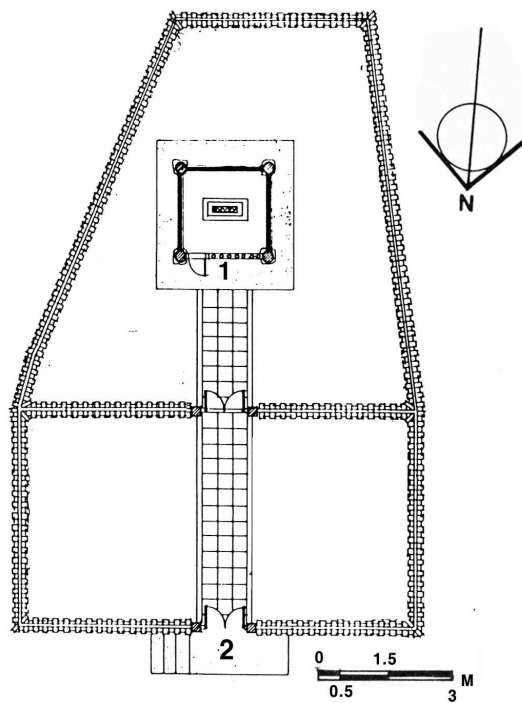
▲ 정 면



▲ 우측면



▲ 기둥머리



김형규 정효각 배치평면도

35. 첼모재 (瞻慕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송촌리 311번지
- 건립년대 : 1900년
- 건축규모 : 일 곽(2동)

① 재 실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홀처마, 팔작지붕

② 대문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홀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성주배씨(星州裴氏)의 재사(齋舍)로 송촌리 마을 한 가운데에 남동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재사의 주위는 블럭으로 방형담장을 둘렀으며, 재사의 출입은 재사 좌측도로변에 자리하고 있는 외삼문을 이용토록 하였다.

재사의 평면은 전퇴칸을 둔 정면 4칸 측면 1칸반 규모에 중앙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좌측면과 마루 뒤편에 퇴를 들이고 온돌방 뒤편으로도 수납공간을 두었다. 정면에만 원기둥을 사용하고 창방과 도리사이에는 소로수장을 하였다. 그리고 상부구조는 종량 위에 원형판대공을 세운 5량가구이며 홀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그러나 정면 퇴칸에 유리창문을 설치하여 고태(古態)를 잃은 것이 아쉽다.



▲ 원 경



▲ 정 면



▲ 좌측면



▲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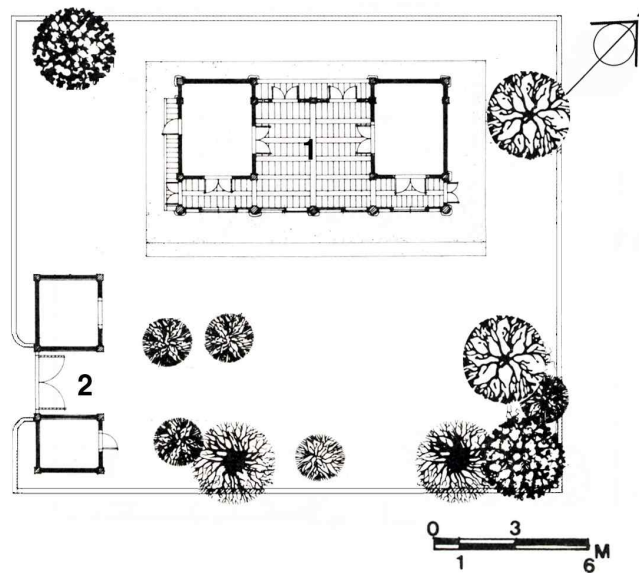
▲ 배 면



▲ 상부구조



▲ 기둥상부



첨모재 배치평면도

36. 모헌재 (慕軒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금흥1리 127번지
- 건립년대 : 1962년
- 건축규모 : 일 곽(2동)

① 재 실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② 대문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솟을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김해김씨(金海金氏)의 재실(齋室)로 금흥리 마을 뒷편 산기슭에 동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경사지에 자리잡아 2단으로 기단을 놓고 정면 4칸 측면 1칸반 규모의 홑처마 팔작지붕의 건물을 앉혔다. 건물의 평면은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들인 평범한 구성이나 장마루를 깔고 주고(柱高)가 높으며 중방이 노출된 점등으로 보아 건립년대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걸로 생각된다. 다만 마루와 온돌방 사이에 분합문을 설치할 경우 대부분 좌측 편 방에 설치하는 것이 상례인데 반해 여기서는 우측방에 분합들문을 달았다. 상부구조는 원형판대공을 세워 마룟대와 장여를 받게 한 5량가구로 장식성이 없는 견실한 구조이며 정면 기둥만 원기둥을 사용하였다. 대문채는 가운데 대문을 두고 좌우에 방이 배치되어있으며 3량구조에 맞배지붕 건물이나 지붕은 어칸을 놓인 솟을산문이며 일식기와를 얹어 어색하다.



▲ 원 경



▲ 정 면



▲ 배 면



▲ 상부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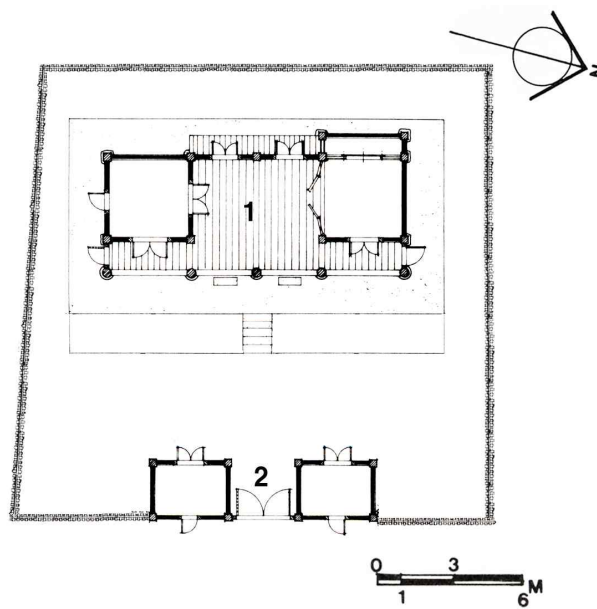
▲ 우측면



▲ 좌측면



▲ 기둥상부



모헌재 배치평면도

37. 김광부가옥 (金光富 家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금흥1리 135번지
- 건립년대 : 1954년
- 건축규모 : 일 괵(2동)
 - ① 안 채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② 사랑채 - 정면 4칸, 측면 1칸, 홑처마, 우진각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금흥리 마을안쪽 산기슭에 동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가옥의 배치를 살펴보면 집으로의 출입할 수 있는 문은 측사로 사용하는 넓은 공지 좌측 편에 떨어져 있으며 가옥은 우측 편에 안채와 사랑채가 전후로 자리하는 두이자형으로 배치되어있다.

사랑채는 4칸 규모의 일자형 건물인데 개조가 많이 되었으나 독자적인 사랑마당을 두고 있으며 온돌방 앞쪽에 퇴칸을 두고 마당으로의 출입은 우측의 문을 이용토록 한 점등은 아직도 전통적인 공간구성법은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상부가구는 대량 위에 동자주를 세운 3량가구이며 일식기와를 얹은 우진각 지붕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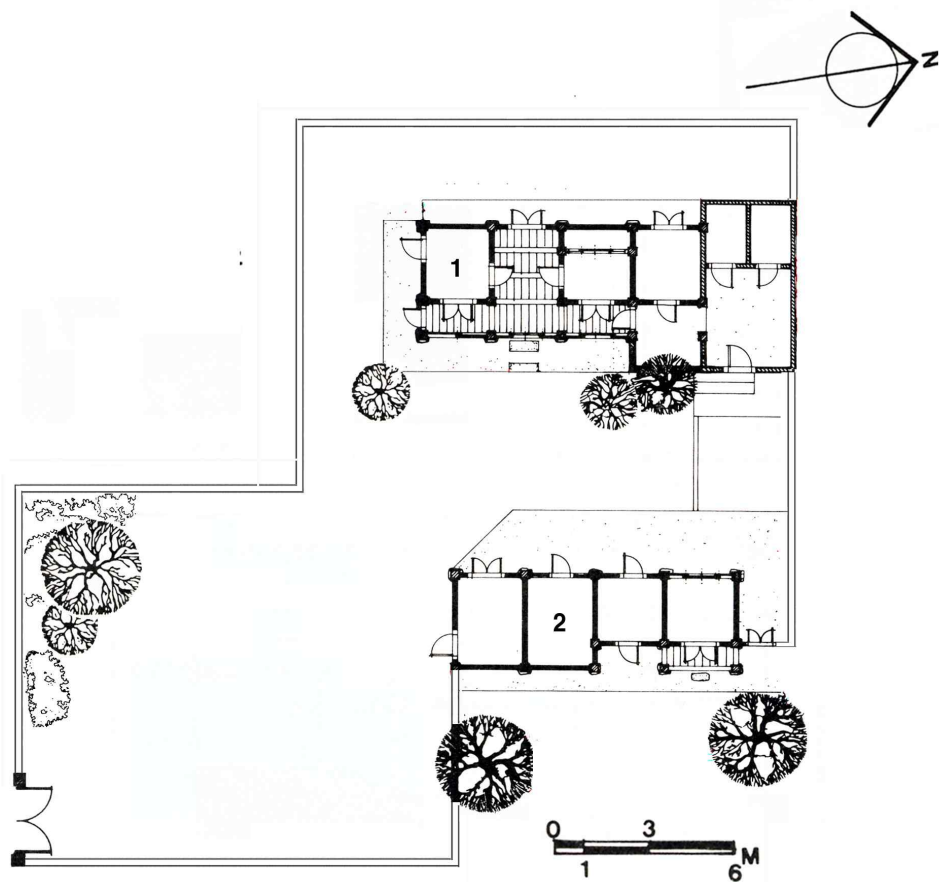
안채의 평면구성은 좌측으로부터 건너방, 대청 안방, 부엌을 연결시키고 부엌을 제외한 3칸의 전면에는 반칸 폭의 퇴칸을 두었다. 그러나 1990년에 부엌이 입식으로 변경되고 마루 앞쪽에 알루미늄미서기문을 설치하는 등 많은 개조가 이루어졌으며 우측으로 조적조로 1칸을 덧붙였다. 그러나 전면 기둥 상부는 무익공 소로수장으로 처리하면서 주심침차와 유사한 부재를 장여와 동일방향으로 보내고 소로를 삼입한 것은 민가에서는 찾기 쉬운 예는 아니다. 상부구조는 대량 위에 동자주를 세운 3량가구에 홑처마집이다.



▲ 정 면



▲ 주두상세



김광부가옥 배치평면도

38. 비슬정 (琵琶亭)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기세리 698번지
- 건립년대 : 1886년
- 건축규모 : 일 곽(2동)

① 정 자 - 정면 3칸, 측면 2칸반, 홀처마, 팔작지붕

② 일각문 - 정면 1칸, 홀처마, 맞배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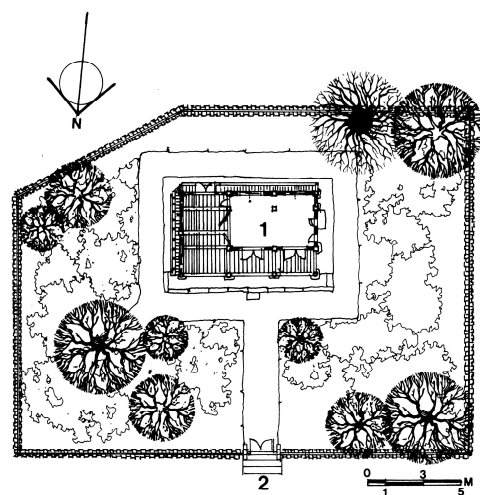
- 건축연혁 및 현황 :

원래는 재실(追慕齋)로 건립되었으나 1986년 현 소유자가 전면 해체보수한 후 비슬정이라 개칭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재실에서 정자로 기능이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정자건물의 분위기에 맞도록 정원을 잘 꾸몄다. 정의 앞쪽에는 현 소유자가 거주하는 현대식 주택이 자리하고 있다. 정의 주변환경을 살펴보면 정의 뒤편은 절벽이 병풍처럼 가리고 앞쪽은 개울이 흐르고 있어 과거 주변 풍광은 매우 좋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 개울은 복개가 되면서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과거의 풍광은 없어졌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반 규모이며 어칸과 우협칸에 걸쳐 2칸온돌방을 두고 좌협칸에 측면과 배면을 판벽과 골판문으로 폐쇄한 마루를 배치하고 앞쪽으로 퇴칸을 두었다. 그리고 마루좌측면은 퇴를 내어 계자난간을 설치하였고 배면은 툇마루를 덧대었으며 방과 마루와는 3분합 들문과 외여닫이문을 두어 용도에 따라 공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배려도 이색적이다. 상부구조는 3량가의 홀처마 팔작지붕이나 해체 보수하면서 평면도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 전 경



비슬정 배치평면도

39. 인산당 (仁山堂)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705번지
- 건립년대: 1952년
- 건축규모 : 일 괵(2동)

① 재 실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홀처마, 팔작지붕

② 대문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홀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기세리 마을 가장 안쪽에 서향으로 자리하고 있는 인산당은 충주석씨(忠州石氏) 선조인 인산공(仁山公)을 위하여 건립한 사당이다.

출입문인 대문채와 재실이 남서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재실의 평면은 가운데 2칸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방을 들이고 앞쪽으로 퇴칸을 둔 평범한 중당협실형 구성이며 우측방 측면과 배면 쪽에 뒷마루를 두었다. 그리고 마루와 방과는 4분합 들문을 두어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온돌방 뒤편에 벽장을 두었다.

건물의 모양은 정면만 원기둥을 세운 무익공 소로수장이며 상부구조는 원형관대공을 세운 5량가에 홀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망와(望瓦)는 인면와(人面瓦)이며 꼭대기는 산형(山形)으로 만들고 막새기와는 태극문양(太極紋樣)을 음각(陰刻)하고 아자(亞字)문양을 돌려두었다. 대문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에 홀처마 맞배지붕의 건물이나 좌측 1칸은 조적조로 후에 부설한 것으로 원래는 3칸 평삼문이다.



▲ 원 경



▲ 정 면



▲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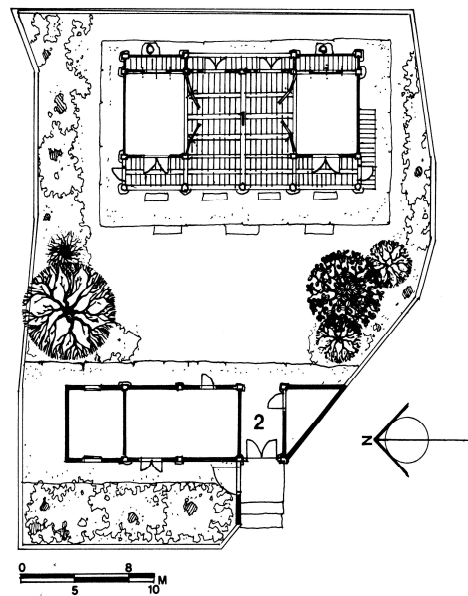
▲ 우측면



▲ 좌측면



▲ 상부구조



인산당 배치평면도

40. 소계정 (小溪亭)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1호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698번지
- 건립년대 : 1923년
- 건축규모 : 일 괵(2동)

① 재 실 - 정면 3칸, 측면 1칸반, 흙처마, 팔작지붕

② 대문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흙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소계(小溪) 석재준(石載俊:1866-1945)의 제자들이 건립하여 선생의 호를 따서 소계정이라 하였다.

석재준은 지지당(知止堂) 치규(致奎)의 아들로 1866년 기세리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가숙(家塾)에서 지지당에게서 수업하고 15세가 되어서는 만궁와(晩競窩) 윤태로(尹泰老)에게 가서 수학했으나 당시에 과거제도의 혼탁함을 보고 공명학은 단념하고 임재 서찬규에게 사사 받고 강마하였다. 1908년 학행으로 장릉참봉에게 제수되었으나 불취하였다. 1921년 문하의 제생들이 달도산(達道山) 아래에 소계정을 건립하고 강학지소(講學之所)로 삼았다.

정자는 기세리 마을 안쪽에 서향하여 자리잡고 있는데 경사진 지형에 대지를 조성한 관계로 축대를 다소 높이 쌓았다.

소계정은 달도산(達道山) 아래의 기세리 마을 안쪽에 서향하여 자리잡고 있는데 경사진 지형에 대지를 조성한 관계로 축대를 다소 높이 쌓았고 가운데 계단을 두고 평삼문을 세웠다. 그리고 주변에 방형토장을 둘러고 3칸 규모의 정자를 앉혔다. 정자의 평면은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배치시키고 앞쪽으로 반칸 폭의 퇴칸을 두었다. 온돌방 뒤편으로 벽장을 두었으며 우측방의 벽장은 선생의 영정을 보관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정면 기둥만 원주를 사용하였으며 무익공 소로수장으로 꾸며 정면성을 강조한 듯하며 상부구조는 마룻대공을 세운 3량가구에 흙처마 팔작지붕을 올렸으며 종도리 장혀하부에 “上元 癸亥九月八日戊豈堅柱上樑”이라는 묵서명이 있다.



▲ 정 면



▲ 우측면



▲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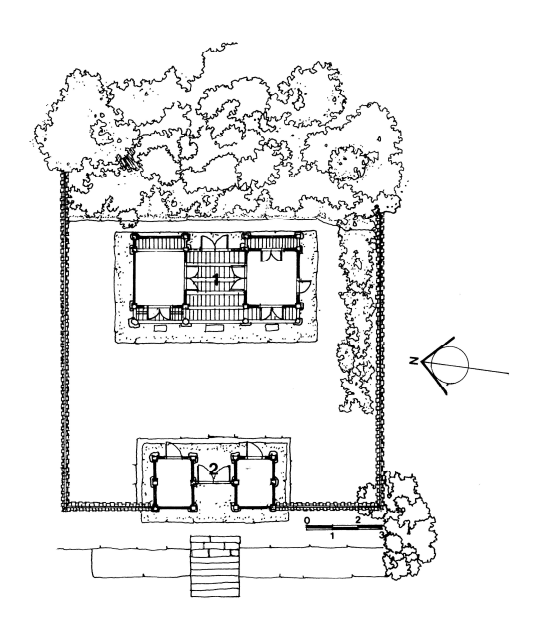
▲ 상부구조



▲ 기둥머리



▲ 외삼문



소계정 배치평면도

41. 진주강씨 모열각 (晉州姜氏 慕烈閣)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671-5번지
- 건립년대 : 1945년
- 건축규모 : 일 괵(2동)

① 비 각 - 정면 1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② 사각문 - 정면 1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열부 전주강씨의 효행을 표창하여 건립한 비각이다. 40년전 은열공의 맏딸인 강씨부인이 이웃마을 기세리로 시집을 갔는데 출가한지 한달 만에 남편을 여의고 말았다. 부인은 죽기 전 친척들에게 자기가 죽은 후 꼭 남편과 함께 묻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 말에 따르지 않고 별장(別葬)하였다.

그 후 마을에 흉한 일들이 일어나고 흉년이 들어 마을사람들은 강씨부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때문이라 단정하고 합장한 후 성대히 제사를 지냈다. 그 후 마을에 풍년이 들어 1945년 기세리 입구에 열녀비를 세워 부인의 정렬을 기념하고 있다.

비각은 기세리 도로변에 서향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담장으로 2개 영역으로 분할하였다. 우측은 비각을 세우고 ‘열부진양강씨효행비(烈婦晉陽姜氏孝行碑)’를 안치하였으며 좌측은 비각은 건립하지 않고 ‘효부고령신씨지비(孝婦高靈申氏之碑)’만 세워져 있다.



▲ 전 경

비각은 정, 측면 1칸 규모이며 정면에만 홍살을 세워 내부의 비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둥은 모두 원기둥을 사용하였고 기둥상부는 살미없이 주심첨차만 얹은 무익공으로 처리하였으나 주간에는 화반을 얹었다. 상부구조는 3량에 겹처마 맞배지붕을 올리고 양 측면에 풍판을 설치하였으며 금모로단청을 시채하였다.



▲ 정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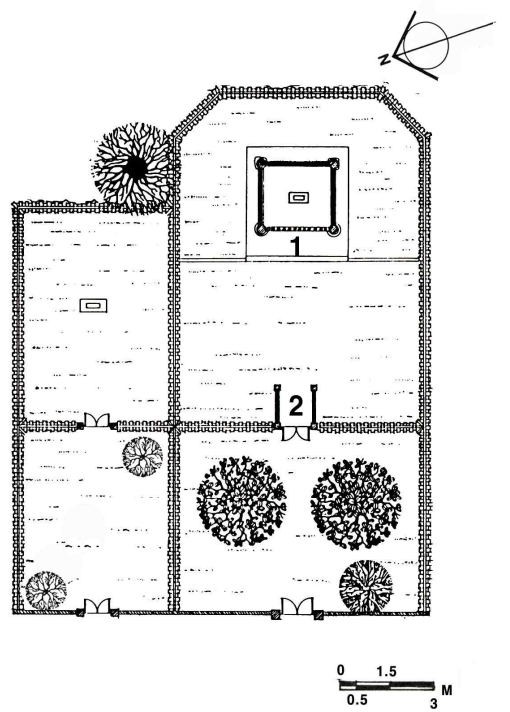
▲ 좌측면



▲ 우측면



▲ 기둥상부



진주강씨 모열각 배치평면도

42. 배명근가옥 (裴命根 家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2리 301번지
- 건립년대 : 1936년
- 건축규모 : 일 괵(4동)
 - ① 안 채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② 사랑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③ 아래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우진각지붕
 - ④ 대문채 - 정면 4칸, 측면 1칸, 홑처마, 우진각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용연사 입구인 반송마을 한가운데 북서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우측으로 난 대문칸을 들어 서면 안마당을 사이에 두고 안채가 북서향하여 자리잡고 좌우측에 아래채와 대문채를, 앞쪽에 사랑채를 배치하여 튼구자형의 배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출입동선은 사랑채와 안채를 분리시켰다. 즉 안채는 우측 대문칸을 통하고 사랑은 우측 담장 전면 쪽에 별도의 출입문을 두어 출입케 하였다.

사랑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반 규모로 전퇴칸을 두고 우측에서부터 마루, 방, 방이 연접된다. 양 측면에 툇마루를 덧대고 온돌방 뒤편에는 벽장을 설치했다. 상부구조는 마루대공을 세운 간결한 3량가구이며 홑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안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반 규모로 좌로부터 부엌, 안방, 마루, 건너방 순으로 실을 배치하고 앞쪽에 퇴칸을 둔 평면이다. 근년에 뒤편에 방을 증축하고 앞쪽에는 창호를 설치하는 등 개조가 있었다. 그리고 상부가구는 사랑과 동일한 3량구조에 홑처마 팔작지붕이나 청색 시멘트기와를 올려 고택을 상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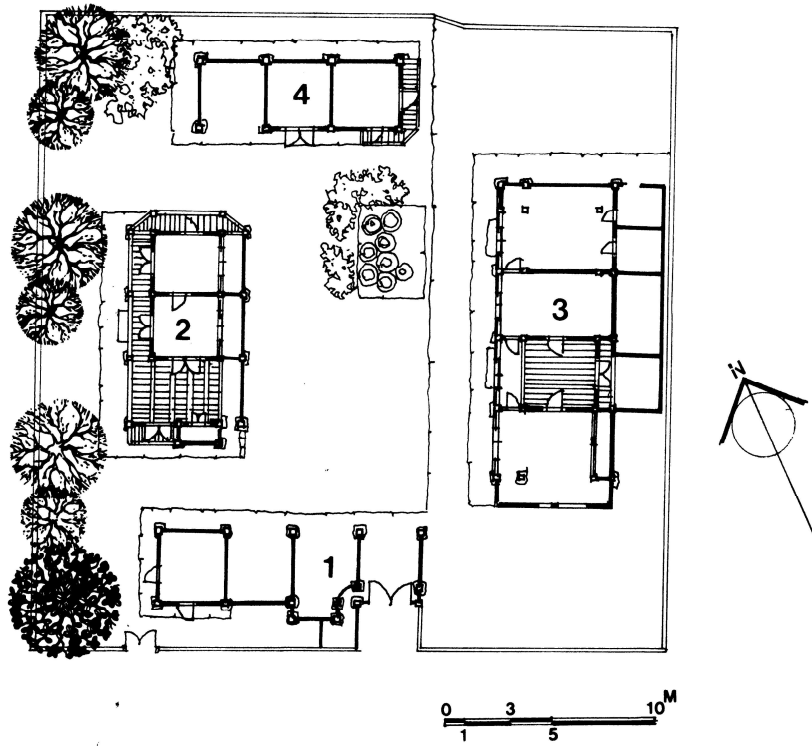
대문채는 좌측으로부터 대문칸, 마구, 방앗간, 온돌방순으로 배치하고 마구 뒤편으로 좁은 통로를 두고 측간과 연결하였다. 그리고 아래채는 좌측 2칸에 고방을 두고 우측칸은 방을 들이고 앞쪽과 측면에 퇴를 내었으며 홑처마 우진각지붕이다.



▲ 안 채



▲ 사랑채



배명근가옥 배치평면도

43. 용연사 (龍淵寺)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 41호(극락전)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1리 882번지
- 건립년대 : 1728년 중건
- 건축규모 : 일 괵(12동)
 - ① 극락전(極樂殿) - 정면 3칸, 측면 3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② 범종루(梵鐘樓) - 정면 3칸, 측면 3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③ 영산전(靈山殿) - 정면 3칸, 측면 2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④ 삼성각(三聖閣) - 정면 3칸,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⑤ 일주문(一柱門) - 정면 3칸, 측면 1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⑥ 사천왕문(四天王門) - 정면 3칸, 측면 2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⑦ 좌측요사채(左側寮舍) - 정면 7칸,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⑧ 우측요사채(右側寮舍) - 정면 5칸, 측면 2칸반, 겹처마, 맞배지붕
 - ⑨ 명부전(冥府殿) - 정면 3칸, 측면 3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⑩ 적멸보궁(寂滅寶宮) - 정면 3칸,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⑪ 사명당(四溟堂) - 정면 3칸, 측면 3칸
 - ⑫ 향로전(香爐殿) - 정면 4칸, 측면 2칸,
- 건축연혁 및 현황 :

옛날 이 절터의 하구에 있던 용추(龍楸)에서 용이 등천했다 하여 이름하게 된 용연사는 신라 신덕왕때(912년:신덕왕 1년) 보양국사(寶壤國師)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세종 1년(1419)에 해운당 천일대사(海雲堂 天日大師)가 중건하였다. 그 후 임진왜란 때 완전히 소실하게 되어 선조 36년(1603) 흥제존자(興濟尊者)가 청운당 인잠(印岑), 탄옥(坦玉) 경천(敬天) 등에게 명하여 재건한바 있으나, 다시 효종 1년(1650)에 종각만 남기고 소실하게 되었다. 그 후 노숙,(老宿) 홍묵(弘默), 계홍(戒弘) 등 24인과 함께 10년이 걸려 재건하고(1668년 범종과 법고 완성, 1670년 천왕문 앞 석교(石橋) 완성, 1672년 법고(法鼓) 완성, 1673년 세존부도(世尊浮屠)와 비석 건립), 경종 2년(1722)에 장노 찬화(贊和)가 단청을 한 바 있으나 영조 2년(1726) 다시 화재로 대웅전, 동서별당, 좌·우승방(左·右僧房)이 소실되었다.

지금의 건물은 영조 4년(1728)에 세워진 것으로서 현재 경내에 극락전을 비롯한 17동의 건물과 치악산 각림사(覺林寺)에서 옮겨온 사리가 보관되어있는 금강계단(보물 제539호)과 고려시대의 삼층석탑 등의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다.

용연사의 가람배치는 크게 2개 부분으로 구획된다. 극락전을 중심으로 한 중정식 산지가람 배치구역과 좌측 골짜기 내에 적멸보궁(寂滅寶宮)과 향로전(香爐殿)이 자리하는 구역으로 양분된다. 그리고 극락전을 중심으로 한 구역 내에서도 명부전(冥府殿)과 사명당(四溟堂)은 별도의 구역으로 분리되어 배치되고 있어 일반적인 산지가람배치법과는 달리 독특한 성격을 지닌 사찰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경사진 대지에 건물을 세운 까닭에 전면이 높은 기단을 축조하고 정면 3칸, 측면 3칸의 전을 조성하였다. 어칸의 폭을 양 협칸보다 1자 정도 더 넓게 잡았다. 이는 어칸의 중심성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불단을 조성하기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한 배려도 배여있다. 전 내부는 내진고주(內陣高柱)를 세우고 고주사이를 후불벽(後佛壁)으로 하여 앞쪽에 불단(佛壇)을 조성했다. 바닥은 우물마루이나 마루를 깎 수법이 독특하다. 어칸은 동귀틀의 수를 줄여 청판의 길이를 길게 잡았고 협칸은 귀틀의 수를 많이 두어 청판의 길이를 짧게 하였다. 창호는 전면 3칸 모두 동일하게 궁판을 둔 교살문양 4분합문을 달고 주선을 세워 돌저귀를 달았다. 그러나 측면은 전면 협칸에만 외여단이 문을 달아 출입케하고 그 외는 주선을 세우고 심벽으로 마감하였다. 또한 배면은 어칸에 쌍여단이문을 내어 후불벽 뒤쪽으로 출입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 기둥 모양은 원형이며 흘림을 두었다. 그리고 한국 전통적인 목조수법인 안솔림을 두고 있으며 측면 어칸 기둥과 내진주는 고주를 사용하였다. 주간포(柱間包)는 2구씩 설치하였고 살미의 형태는 길이가 짧고 직절(直切)된 양서형(仰舌形)으로 하고 살미상부에는 운공(雲工)과 용두(龍頭)로 장식하였고 침차의 형태는 단부(端部)가 직절된 취두형(鷺頭形)으로 외삼출목(外三出目) 내사출목(內四出目)으로 공포를 겹조하였다. 내부천정은 다포계(多包系)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층단반자(層段反子)로 하부는 우물반자로 상부는 소란반자로 구성되었다. 불단 상부는 보개(寶蓋)를 얹고 전면에 운각(雲刻)과 용(龍)을 설치하여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부 천장은 가운데는 평반자에 용 문양을 시채하였고 주변은 소란반자로 꾸몄다. 풍판(風板) 하부는 빗반자로 막고 별지화(別枝畵)를 그려두고 배면 기둥과 대량에 시주한 사람의 이름을 음각해 두었다.

전체적으로 단청의 화려함과 불화의 섬세한 수법이 돋보이는 건물이다.

극락전 내에는 불기이천오삼이년(佛紀二千五三二年)작 탕화 2점과 건륭9년(1744)작 탕화1점, 사천왕상 4기가 있는데 이 사천왕상(四天王像)은 용연사 석조계단 네귀통이에 있던 것으로 망실의 우려로 이곳에 보관하고 있다.

적멸보궁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 금강계단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다. 석가여래부도비문(釋迦如來浮屠碑文)을 살펴보면 원주 치악산 각림사(覺林寺)에 봉안된 사리를 청진(淸辰)스님이 비슬산 용연사에 옮겨 봉안케 되어 1673년(숙종 2년) 5월 5일에 용연사 북쪽에 사리탑을 건조하고 안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계단은 돌난간으로 탑구(塔區)를 마련한 안에 조성되어있다. 전면에 배례석(拜禮石)과 석등(石燈) 등 장엄물(莊嚴物)을 세웠고 그 앞쪽에 법당인 적멸보궁을 두었다. 계단의 형태는 석조로 된 방형의 이중기단을 만들고 그 상부에 석종형(石鐘形) 탑신(塔身)을 중앙에 안치하였다. 그리고 하층기단 밖 네모서리에 각 1구씩의 신장상(추정 사천왕상)을 배치하였으나 신장상(神將像)이 소형이고 별석(別石)으로 제작된 관계로 망실의 우려가 있어 현재 극락전 내에 안치해 두고 있다. 기단부(基壇部)는 여러 개의 장대석과 판석을 조립하여 상, 하층에 면석(面石)과 갑석(甲石)을 형성하고 있는데 상층의 면석에는 중앙에 탕주(撐柱) 하나로써 양쪽을 나누어 1구간에 1구씩, 각 면 2구씩 총 8구의 팔부신중(八部神衆)을 조각하였다. 두툼하고 널찍한 상층갑석 중앙에는 1석으로 조성한 높직한 방형의 기단석을 놓고 그 윗면에 높고 낮은 원형의 2단괴임을 각출하여 탑신부

를 받고 있다. 탑신은 조선후기에 크게 유행한 일반적인 석종형으로 하단부가 약간 좁아지고 중앙부가 넓으며 상단부에 이르면서 점차 좁아지고 있다. 상단에는 세장형의 복판연화문(複瓣蓮花紋)이 양각(陽刻)되어 있고 정상부에는 1단의 괴임을 각출하여 돌출 시킨 보주(寶珠)를 장식하였는데 괴임 위에는 낮은 입상형의 단판연화문(單瓣蓮花紋)을 돌렸고 그 안쪽으로 2중의 양연(仰蓮) 봉오리를 조식하고 연봉오리형으로 보주를 삼고 있다.



▲ 극락전 정면



▲ 극락전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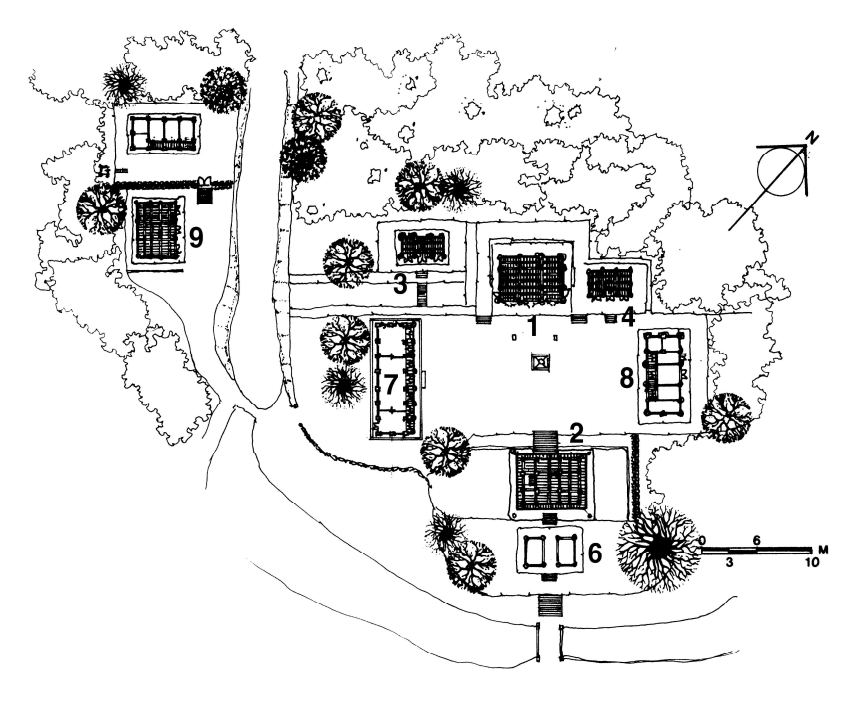
▲ 극락전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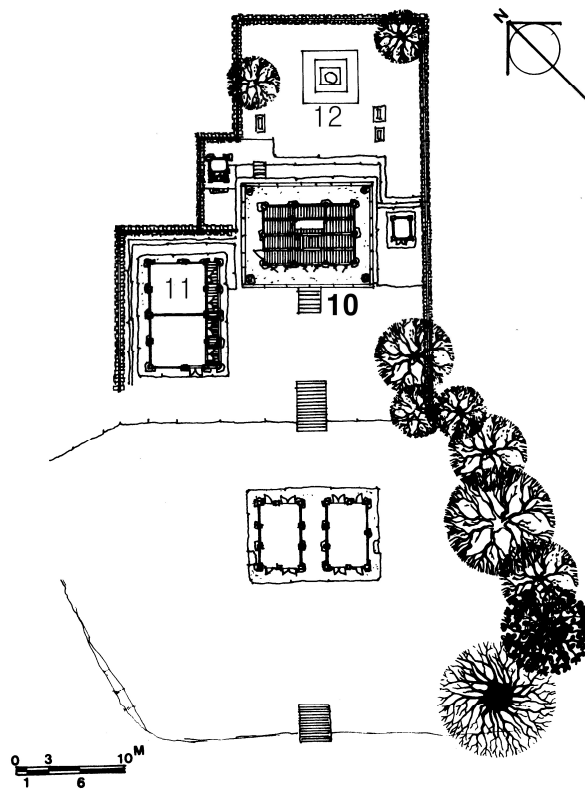
▲ 극락전 공포



▲ 삼층석탑



용연사 배치평면도



용연사 적멸보궁부분 배치평면도

44. 임호재 (臨湖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 165번지
- 건립년대 : 1917년
- 건축규모 : 정면 3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광영(李光英)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재사이며 종도리 장여하부의 목서명(丁巳閏二月十七日 立柱二十一日 上樑)에 의하면 1917년에 건립된 건물로 생각된다.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는 재는 주변에 방형으로 토장을 돌리고 출입문인 일각문을 두었으나 담장은 많이 허물어졌다.

재실은 정면 전퇴칸을 둔 일반적인 중당협실형 평면으로 가운데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들었다. 좌측 온돌방은 좌측면에 벽장을 두어 다소 이색적인 면을 보이고 있으며 마루 뒤편에 퇴를 설치하고 우측방은 뒤편에 벽장을 두었다. 방과 마루사이의 쌍여닫이 띠살문을 두었고 상부구조는 3량가에 무익공 소로수장하였다.



▲ 원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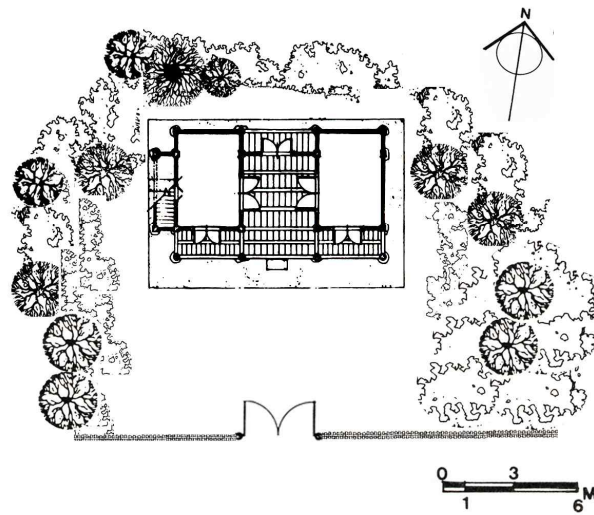
▲ 정 면



▲ 좌측면



▲ 기둥상부



임호재 배치평면도

45. 승호서당 (承湖書堂)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 136번지
- 건립년대 : 1963년
- 건축규모 : 일 괵(1동)
 - ① 서 당 - 정면 4칸, 측면 1칸반, 겹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양촌(陽村) 이란미(李蘭美) 선생을 추모하고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 조선 정조 19년(1795)에 서당으로 건립되었으나 쇠락하여 1963년에 재축하였고 근래에 보수하여 깨끗이 보존되고 있다.

서당은 양촌고택 뒤편 높은 대지 위에 남서향하여 자리잡고 있으며 서당으로 진입은 고택 뒤쪽 담장사이에 난 협문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서당의 평면구성은 가운데 2칸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이 자리하는 중당협실형이며 온돌방과 마루 사이는 4분합들문을 두어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 정면쪽은 궁널을 둔 띠살문을 설치하여 재실건축의 일반 창호와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다만 우물마루를 깔고 목부에 와니쉬마감하는 등 옛스런 맛은 다소 반감되다.

정면과 마루 배면 가운데 기둥만 원기둥을 사용하고 정면과 퇴칸 양측면까지만 무익공 소로수장하여 정면성을 나타냈다. 상부구조는 대량 위에 원형판대공을 세운 3량가구이며 겹처마 팔작지붕을 올렸으나 처마길이가 짧고 후림과 조로가 없어 한옥의 고유미가 감소되

었다.



▲ 정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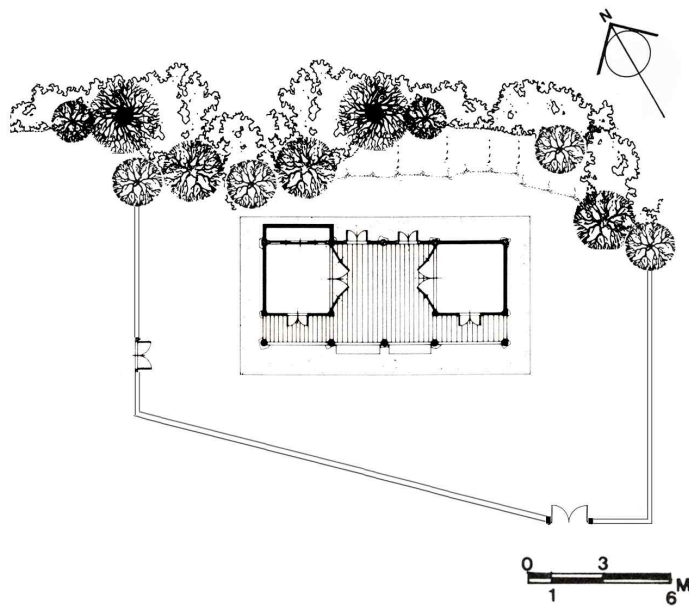
▲ 우측면



▲ 좌측면



▲ 상부구조



승호서당 배치평면도

46. 양촌고택 (梁村古宅)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 136번지
- 건립년대 : 1610년
- 건축규모 : 일 괵(4동)
 - ① 안 채 - 정면 5칸, 측면 1칸, 홀처마, 우진각지붕
 - ② 사랑채 - 정면 3칸반, 측면 1칸반, 홀처마, 맞배지붕+가적지붕
 - ③ 중문채 - 정면 3칸, 측면 2칸, 홀처마, ㄱ자형지붕
 - ④ 대문채 - 벽돌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양촌(梁村) 이란미(李蘭美:1592~1661)가 광해군 2년(1610)에 건립한 것으로, 대구에서 고향으로 가는 국도변(國道邊)의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대문채를 들어서면 넓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일자형의 사랑채와 ‘ㄱ자’형의 중문채가 경사진 대지 위에 일자로 자리잡고 있으며, 중문을 들어서면 안마당을 사이에 두고 안채가 자리잡아 전체적으로는 남동향의 튼 ‘ㄷ자’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사랑채는 전면에 8자 정도 높이의 축대를 쌓은 후 정면 3칸반, 측면 1칸반 규모의 건물을 앉혔다. 실질적으로는 정면 3칸, 측면 1칸에 전면과 좌측면에 반칸 폭의 툇칸을 두었다. 어칸과 우협칸(右夾間)에 걸쳐 2칸 온돌방을 두고 좌협칸(左夾間)에 전면이 개방된 마루 1칸을 둔 홑집형태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 특히 좌측면에 툇칸마루를 둔 것과 마루 외벽을 심벽으로 마감한 것은 남부지방 평면에서 흔치 않는 예이며 온돌방 전면에 시설된 쌍여단이 세살문은 문의 높이가 높다. 그리고 뒷부분의 안채와 연결되게 온돌방 뒤편에 조그마한 문을 하나 두었다.

건물 형상은 외진주(外陣柱)를 모두 두리기둥으로 세웠으며 기둥머리는 초익공(初翼工)으로 장식하였다. 익공의 형상은 살미의 길이가 짧은 앙서형(仰舌形)이나 초각 수법에 힘이 있어 초기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살미 뒷뿌리는 선각(線刻)이나 초각(草刻)을 생략하여 대량(大樑)의 전단보강에만 충실하다. 좌측면은 가적지붕을 얹은 관계로 툇칸의 기둥의 내진주고(內陣柱高)보다 낮아 퇴량(退樑)이 내진주(內陣柱) 몸체에 결구(結構)되며 창방(昌榜) 뒷뿌리가 가적지붕의 박공판(朴工板)을 지지하게 하였으며 판대공(板臺工)을 세운 3량가구 홀처마지붕이다.

사랑채와 연결된 중문채는 블록조로 건립되었다. 평면은 사랑채와 연결된 정면에 중문칸과 툇칸, 화장실을 두고 회침하여 부엌과, 온돌방을 두어 전체적으로는 ‘ㄱ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일식기와를 올려 사랑채와 안채와는 다소 어색하게 구성되어있다.

안채는 중정(中庭)보다 다소 높게 기반을 조성한 후 정면 5칸 측면 1칸 규모의 일자형 건물을 세웠다. 평면은 좌로부터 부엌, 안방, 2통칸 대청, 건너방을 연결시켰으며 안방과 건너방까지 툇칸을 두어 동선이 원활하다. 그러나 툇칸 앞쪽에 유리를 넣은 4짝 미서기문을

시설하고 마루도 장마루로 교체되어 옛 모습을 상실한 것이 아쉽다. 상부가구는 3량이며
홀처마 우진각지붕이다.



▲ 사랑채 정 면



▲ 우측면



▲ 좌측면



▲ 배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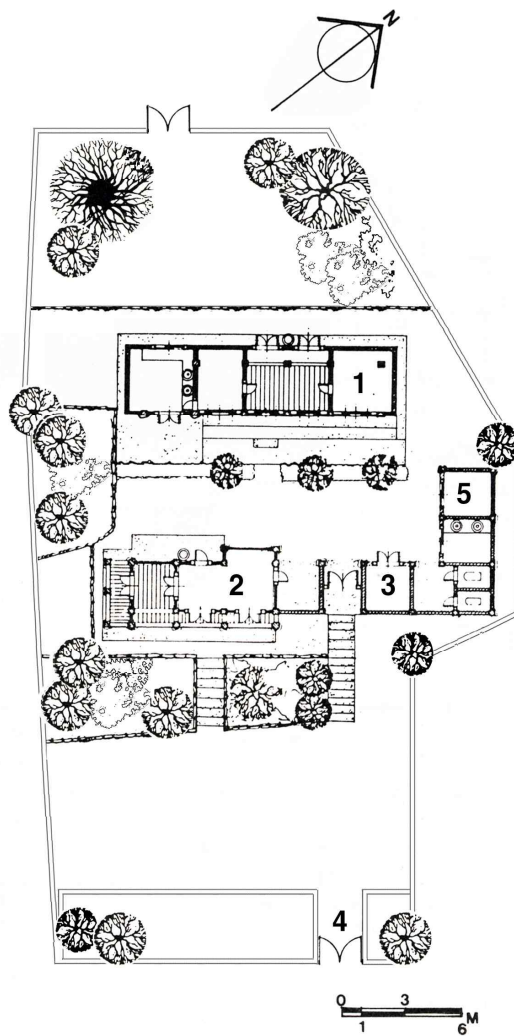
▲ 기둥상부



▲ 상부구조



▲ 안채 정면



양촌고택 배치평면도

47. 영사재 (永思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 2리 1006번지
- 건립년대 : 1924년
- 건축규모 : 일 괵(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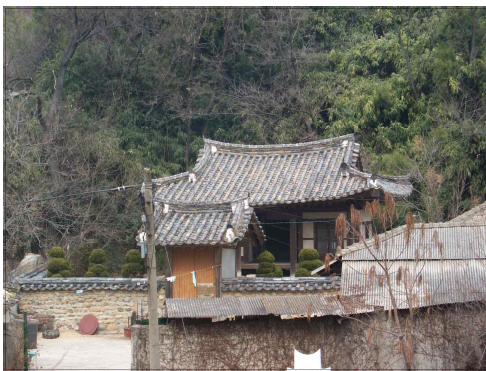
① 재 실 - 정면 3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② 사각문 - 정면 1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경주김씨의 재실로 노이리 마을 가운데에 남서향하여 자리하고 있다. 재의 출입문인 사각문을 들어서면 다소 높직한 기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1칸반 규모의 홑처마 팔작지붕의 건물을 맞이한다. 칸살을 다소 작게 잡은 중당협실형 평면으로 가운데 우물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두고 앞쪽에 반 칸 정도 폭의 퇴칸을 두었다. 좌측온돌방 뒤편으로 벽장을 설치하고 마루 뒤편에 퇴를 두었다. 그리고 방과 마루사이에는 쌍여닫이문을 두었고 정면에도 머름을 두고 쌍여닫이 띠살문을 달았다.

정면에만 원기둥을 세우고 무익공 소로수장으로 치장하였으며 배면은 주두(柱頭)없이 주칸(柱間)에만 소로를 삽입하고 대량하부는 뿔목으로 보강하였다. 상부구조는 높은 동자대공으로 종도리를 받게 한 3량가구법이나 추녀를 많이 빼내어 안정감이 높은 입면을 지니고 있다.



▲ 전 경



▲ 정 면



▲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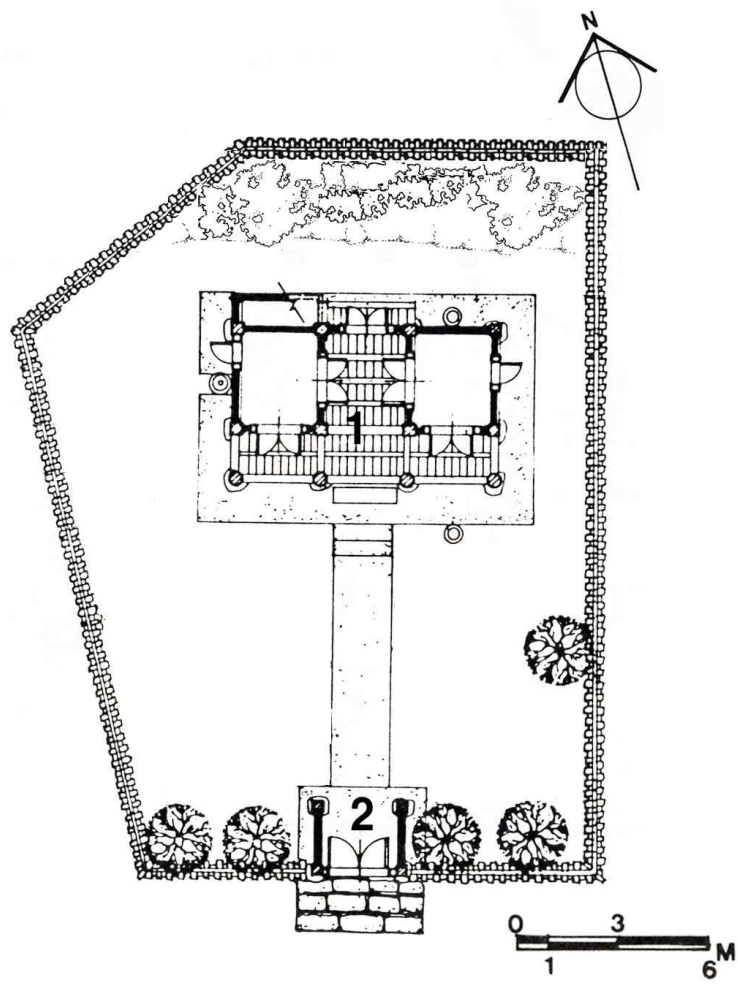
▲ 우측면



▲ 처 마



▲ 상부구조



영사재 배치평면도

48. 경목재 (敬睦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522번지
- 건립년대 : 1955년
- 건축규모 : 일 괵(2동)

① 재 실 - 정면 3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② 대문채 - 정면 2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숭애처사(崇崖處士) 최흥의(崔興義)를 기리기 위하여 세운 경주(慶州) 최씨(崔氏)의 문중 재실로, 상리(上里) 마을의 한가운데에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는데 1910년에 건립되었으며 1955년에 중건하였다.

재실은 정면 3칸 측면 1칸반 규모의 홑처마 팔작기와집인데 일식기와를 얹어 전통적인 맛은 다소 감해진다. 평면구성은 앞쪽으로 3칸에 걸쳐 퇴칸을 두고 뒤편 3칸에 온돌방을 두었다. 어칸과 좌협칸에 2칸 온돌방을 두고 벽장과 퇴를 두었으며 우협칸에도 온돌방 1칸을 설치하였으나 벽장을 배면 쪽에 두지 않고 우측면에 설치하여 일반적인 수납공간 배치 방법과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앞쪽의 퇴칸은 장마루를 깔고 4짝 미서기 유리문을 설치하고 일식기와를 올려 고대는 반감되었다. 상부가구는 3량구조에 장여수장하였으나 서까래의 직경과 간격 등 사용된 부재들이 전반적으로 와가집 구조로는 약한 느낌을 주고 있다.

대문채는 우측에 대문칸을 두고 좌측에 온돌방을 1칸 둔 3량가 건물로 일식기와를 올렸으나 관리가 허술하여 거의 허물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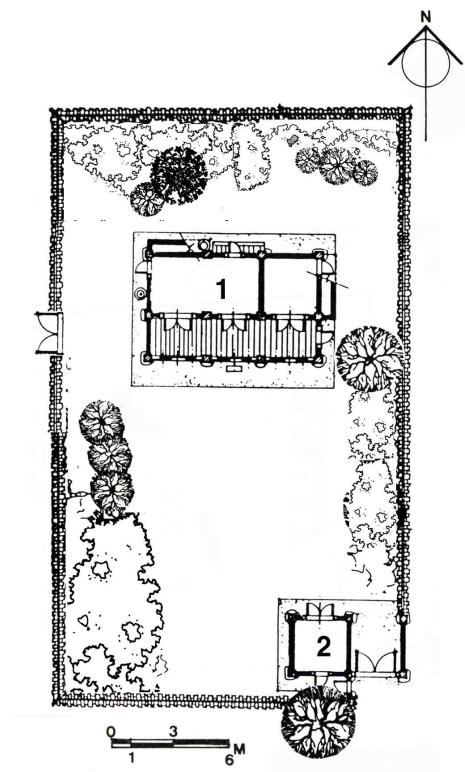
▲ 정 면



▲ 우 측 면



▲ 처마부분



경목재 배치평면도

49. 나호재 (螺湖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540번지
- 건립년대 : 1720년
- 건축규모 : 일 괵(2동)

① 재 실 - 정면 4칸, 측면 1칸반, 겹처마, 팔작지붕지붕

② 대문채(소실) - 정면 2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나호(螺湖) 김정(金定)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재실로 상리 마을 한가운데에 남향하여 자리하고 외삼문을 통하여 재실로 출입케 하였다.

나호재기문(螺湖齋記文)에 의하면 김정선생(1680-1751)은 자를 가술(可述), 호를 나호(螺湖)라 하였으며 본관은 김해라 한다. 어릴 때부터 천품이 뛰어나고 총명하였고 성장하면서 학문과 실천에 힘썼다 한다. 만년에 현풍 결산(傑山)에 서실(書室)을 짓고 늘 글을 읽으면서 지냈다고 한다..

재는 이 부근에 산재하고 있는 재실건물과 거의 대동소이한 양식과 평면을 지니고 있다.

재는 정면 4칸 측면 1칸반 규모의 중당협실형 건물이다. 가운데 2칸에 걸쳐 마루를 두고 좌우에 온돌방 1칸씩을 두고 뒤편에 벽장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마루 뒤쪽에 퇴를 부설하고 앞쪽 4칸에 걸쳐 퇴칸마루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온돌방과 마루사이에는 쌍여닫이문을 두었으며 퇴칸 좌우에도 문을 두었으나 개체되었으며 퇴칸에 2짝미서기 유리창문을 설치하여 고대가 반감되었다. 처마를 많이 내민 까닭인지 추녀하부 네 귀둥이에 활주(活柱)를 세웠고 무익공 소로수장에 원형판대공을 세운 5량구조이나 서까래와 부연은 하부 부재와 비교해 볼 때 크기가 작아 다소 어색하다. 외삼문은 과거 3칸이었으나 2002년 도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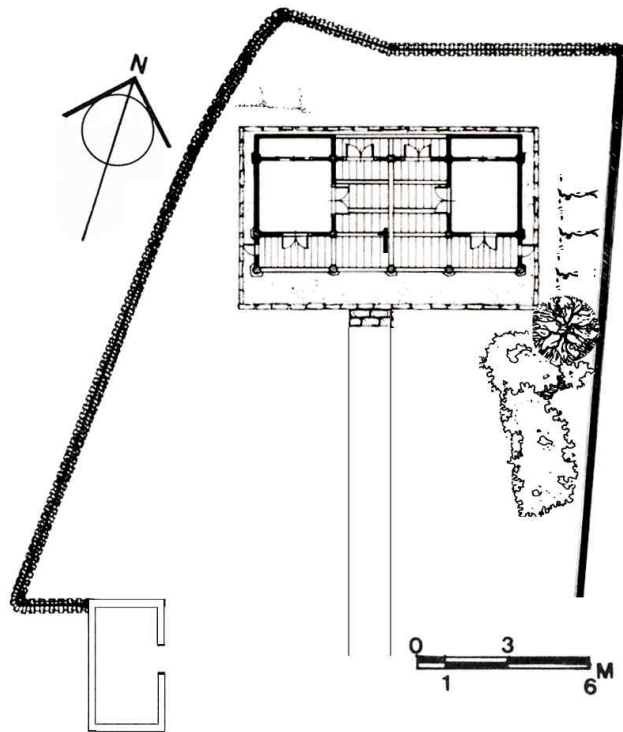
▲ 정 면



▲ 좌측면



▲ 처 마



나호재 배치평면도

50. 김특수가옥 (金特秀家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536번지
- 건립년대 : 1955년
- 건축규모 : 일 괵(3동)
 - ① 안 채 - 정면 5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② 사랑채 - 정면 3칸, 측면 2칸, 홑처마, 우진각지붕
 - ③ 사각문 - 정면 1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가옥의 배치는 일자 홑집의 안채와 사랑채가 전후로 자리하는 일종의 두이자형 배치라 할 수 있다. 가옥의 출입은 전면 좌측 모퉁이에 설치된 사각문을 통할 수 있으며 안채 우측에 난 통로를 이용하여 안채로 직접 출입도 가능하다.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1칸반 규모이며 평면구성은 좌측으로부터 부엌, 안방, 2칸 대청, 건넌방이 연결되어 있으며 부엌을 포함한 전면에는 반칸 폭 정도의 퇴칸을 두어 동선 연결이 양호하도록 하였으며 부엌은 측면에서 출입하도록 하고 상부에 다락을 설치하였다.

주좌(柱座)가 있는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대량 위에 원형판대공을 세운 3량가로 상부구조를 결조하고 홑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사랑채는 삼겹집형태의 평면을 이루고 있는데 서향하고 있다. 정면 2칸 측면 3칸반으로 앞쪽에 퇴칸을 두고 전면열에는 마루 1칸과 온돌방이 연결되고 후면열은 2칸통의 온돌방이 배치되어있다. 그리고 우측편 2칸 통으로 헛칸이 배치되어있다.

상부구조는 칸살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3량으로 결조하여 우진각지붕을 올렸으나 일식기와를 올려 전통적인 맛은 덜하다.



▲ 전 경



▲ 안채 정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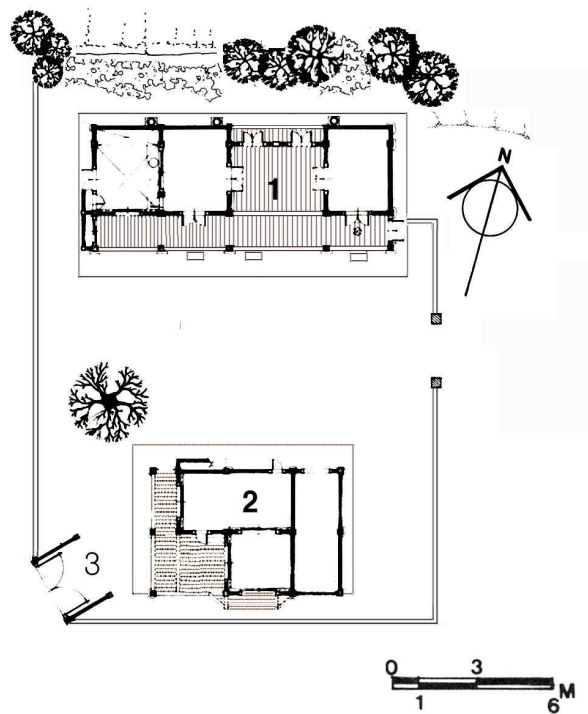
▲ 우측면



▲ 처마부분



▲ 상부구조



김득수가옥 배치평면도

51. 윤재훈효행비각 (尹載勳孝行碑閣)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하리 570번지
- 건립년대 : 1936년
- 건축규모 : 일 괵(1동)

① 비 각 - 정면 1칸, 측면 1칸, 겹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윤재훈은 효자로 명성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서 500년의 터전을 자랑하는 파평윤씨의 문중으로 조선 철종 4년(1853)에 태어났으며 호를 사성당(四省堂), 자는 문로라 하였다.

고종 36년(1898)에 소릉참봉(昭陵參奉)을 제수받았다. 그 효행과 정성이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으므로 이를 찬양하기 위하여 1936년 효가 모든 행동의 근원이라는 글에서 취하여 백원각(百源閣)이라는 효행각을 건립하였으며 매년 음력 3월 16일에 제일을 정하여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 원 경

하리 마을 어귀에 자리잡고 있는 효행비각은 방형 토석담장 내에 남동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비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단칸 건물로 전·후면은 홍살을 세워 비의 전후를 살필 수 있게 배려하였고 양 측면은 평방(平枋) 하부에 적벽돌로 막았다. 원형 주초 위에 원기둥을 세우고 2익공양식으로 상부를 장식하였는데 익공양식(翼工樣式)에는 없는 평방부재를 엮고 주칸에도 익공을 1구 넣어 다포(多包)와 익공양식의 절충적(折衷的) 수법을 보이고 있다. 익공은 3익공으로 결조되고 초익공은 앙서형(仰舌形)이나 3익공은 봉두(鳳頭)로 조각하여 흡사 양두(樑頭) 장식과 유사하게 처리하였다. 그리고 단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겹처마 팔작지붕을 올린 상부구조의 수법이 이색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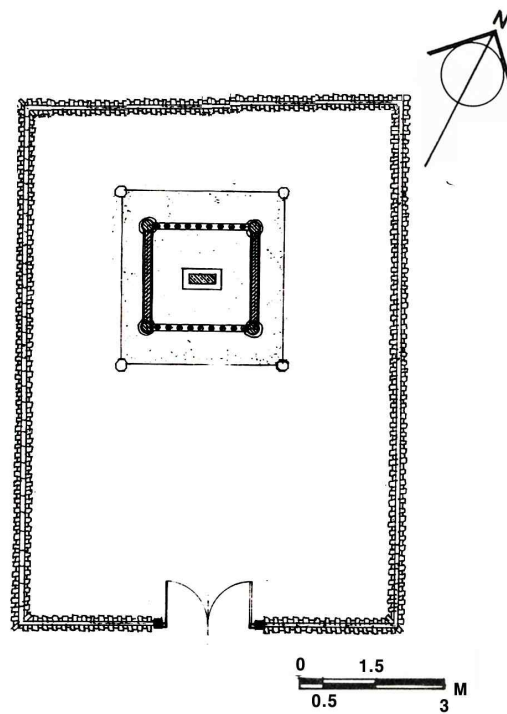
▲ 정면



▲ 우측면



▲ 익공상세



윤재훈호행비각 배치평면도

52. 응산재 (鷹山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하리 457번지
- 건립년대 : 1928년
- 건축규모 : 일 괵(3등)
 - ① 재 실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② 관리사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우진각지붕
 - ③ 사각문 - 정면 1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운강(雲江) 윤홍(尹弘)의 재사로 약산마을 뒤편 약산천변에 자리하고 있다. 재호(齋號)는 윤홍의 묘소가 있는 산이름이라 한다. 재의 배치는 출입문인 사각문(四角門)을 들어서면 우측에 3칸 규모의 관리사가 자리하고 사각문과 축을 같이한 곳에 북향으로 재사가 배치되어 있다.



▲ 원 경

재실은 중당협실형 평면으로 가운데 2칸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이 배치된 모양은 주변의 재사건물과 유사하나 양 퇴칸 전면과 측면에 헌함을 세운 것은 다소 멋을 부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면에만 원기둥을 사용하였고 무익공(無翼工) 소로수장집이나 뿔목의 내측부분을 초각(草刻)하였으며 원형주초를 사용하여 정면성을 높였다.

상부구조는 5량가구이며 마루 상부를 건너는 대량(大樑)만 통재(通材)를 사용하고 온돌방 부분은 내진주(內陣柱) 위에서 퇴량(退樑)과 합보 시켰다. 그리고 목부는 니스로 마감하였고 회분벽하여 깨끗하다. 재실 우측에 동향하고 있는 관리사는 2칸 온돌방과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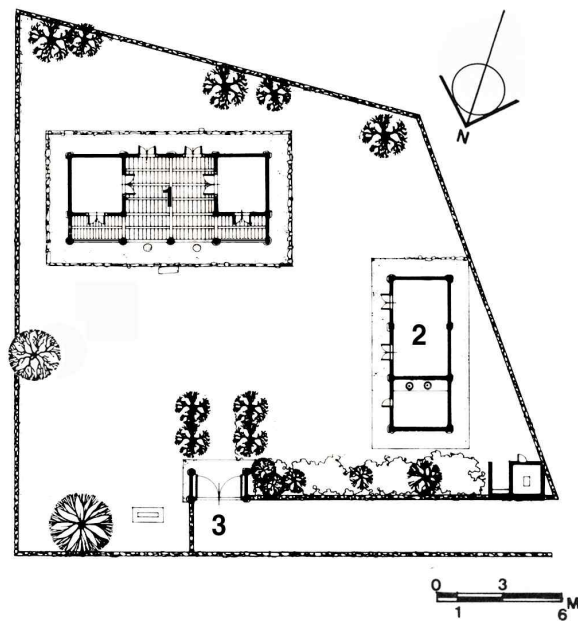
▲ 좌측면



▲ 우측면



▲ 상부구조



응산재 배치평면도

53. 부강정 (浮江亭)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하리 160번지
- 건립년대 : 1947년 이건
- 건축규모 : 일 괵(2동)

① 부강정 - 정면 3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② 대문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우진각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약 400여년전 윤대승(尹大乘)이 향리(鄉里) 선비들과 학문을 연마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건립한 정자로 성주군(星州郡) 상곡(上谷)에 건립하였으나, 1947년에 현 위치로 이건하면서 파평윤씨(坡平尹氏)의 재실로 전용되었다.

정의 배치는 남서향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반 규모의 재실이 자리하고 재실 전면 좌측 편에 동향으로 대문채가 위치하고 있다.

재실은 앞쪽으로 반칸 폭의 퇴칸을 둔 중당협실형의 건물로 가운데 1칸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방을 들였다. 방 양 측면과 마루 뒤편에 툇마루를 설치하고 퇴칸 좌우는 외여닫이 판장문으로 폐쇄하였다. 그리고 정면만 원기둥을 사용하여 주두를 두었으나 살미는 생략된 무익공이며 도리도 정면과 양 측면은 굴도리를, 배면은 납도리를 사용하고 장여수장하여 정면성을 높였다. 그리고 상부구조는 5량가에 홑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대문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대문칸을 우협칸에 두고 좌로 대문칸, 온돌방, 부엌을 두어 출입과 관리의 용도가 복합된 기능을 지닌 건물이다.



▲ 원 경



▲ 정 면



▲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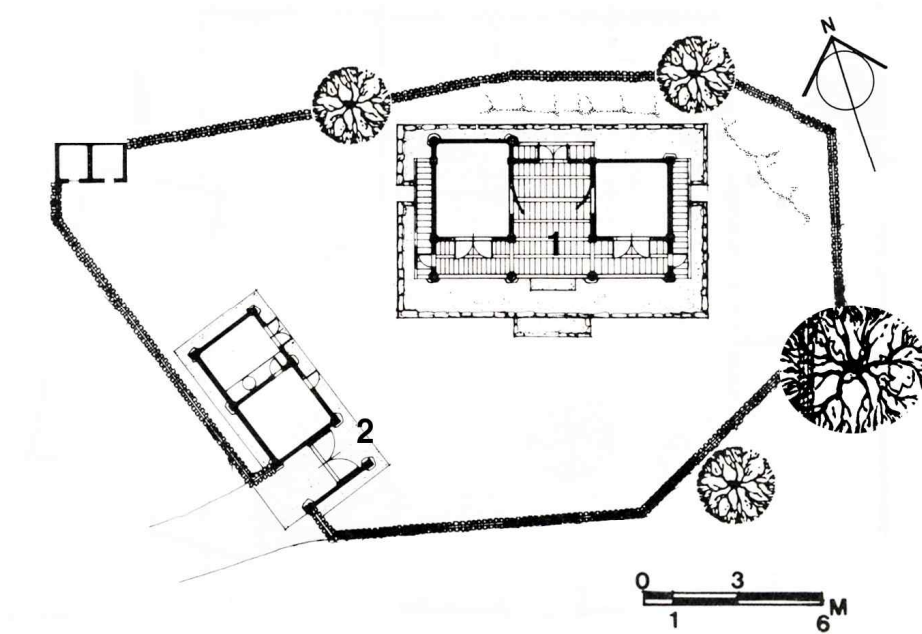
▲ 우측면



▲ 기둥머리



▲ 상부구조



부강정 배치평면도

54. 무후사 · 숙청당 (武厚祠 · 肅淸堂)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1080번지
- 건립년대 : 1981년 중건
- 건축규모 : 일 괵(3동)

- ① 숙청당 - 정면 4칸, 측면 1칸반, 겹처마, 팔작지붕
- ② 무후사 - 정면 3칸, 측면 1칸반, 홑처마, 맞배지붕
- ③ 대문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솟을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남리 마을 한가운데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9년 제갈씨들이 제갈공명(諸葛孔明)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하였으며 1981년에 중건하였다.

근래에 중건한 관계인지 아니면 부지가 협소하여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전통적인 배치법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삼각형 부지에 강당인 숙청당은 남향하여 자리하고 사당인 무후사는 숙청당 우측 편에 남서향하여 자리한다. 그리고 건물 뒤편에서 출입이 되도록 출입문인 솟을삼문은 사당 우측에 자리하여 전체적으로 일자형으로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다.

● 숙청당(肅淸堂)

숙청당은 정면 4칸 측면 1칸반 규모의 건물로 가운데 2칸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이 자리하고 있다. 온돌방 앞쪽으로 반칸 폭의 퇴칸을 두고 온돌방 뒤편으로 벽장을 설치했다. 그리고 우측 온돌방 측면과 마루 뒤편에 퇴를 달았고 마루와 방과는 4분합 들어열개문을 달았다. 정면만 원기둥을 세우고 무익공 소장수장하고, 상부구조는 원형판대공을 세운 5량가에 겹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그러나 퇴칸 전면에 4짝 미서기유리문을 설치하고 장마루를 깔아 옛 맛은 없다. 좌측칸 정면 상부에 「화수헌(花樹軒)」이란 편액이 걸려있다.



▲ 정 면



▲ 우측면



▲ 좌측면



▲ 기둥상부

● 무후사(武厚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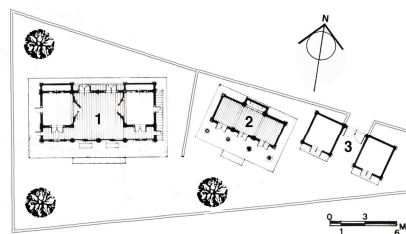
제갈공명(諸葛孔明)을 모시는 사당인 무후사는 숙청당과는 가림벽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1칸반의 전퇴칸을 둔 평면이다. 퇴칸 뒤편 3칸을 통칸(通間)으로 하여 위패를 배설하였는데 어칸 부분 뒤편을 조금 물려 위패를 설치하였으며 바닥은 장마루를 깔았으며 전면에 매칸 쌍여닫이 띠장골판문을 달았다. 그리고 정면만 원기둥을 사용하고 초익공양식으로 기둥머리를 장식하고 창방머리는 양 측면에서 침차(檐遮)형으로 선각(線刻)하고 소로를 올렸다. 그리고 양두장식을 하였으며 퇴량은 내진주 몸에 결구하였으며 주칸에는 화반 대신 소로를 넣었다. 상부구조는 3량가이고 홀처마 맞배지붕을 올리고 양 측면에 배가 부른 풍판(風板)을 설치하였으며 모로단청을 시채하였다.



▲ 정면



▲ 익공상세



무후사 숙청당 배치평면도

55. 천왕당 (天王堂)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 건립년대 : 1924년 이건
- 건축규모 : 정면 1칸,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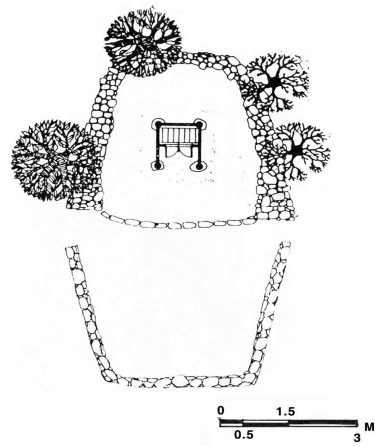
남리(南里)와 북리(北里) 두 마을의 안녕(安寧)을 기원하기 위해 세운 산신당(山神堂)으로 남리 동쪽 산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천왕당의 양측면과 북면은 돌담을 돌렸으며 주위에는 노송(老松)들이 에워싸고 있다.

천왕당의 건립년대는 알 수 없고 1924년에 현 위치로 이건 하였다 한다.

천왕당은 막돌 초석 위에 정면 1칸 측면 1칸의 단칸건물이나 반칸 폭 정도 뒤로 물려 감실을 설치하여 다락집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감실바닥은 마루를 깔았고 쌍여닫이 정자살문을 설치하여 벽감(壁龕)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기둥머리는 주두(柱頭)만 없고 살미(山彌)를 끼우지 않은 무익공으로 처리하고 겹처마 맞배지붕을 올려 나름대로 격식을 갖추었다.



▲ 전 경



천왕당 배치 평면도

56. 인흥서원 (仁興書院)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1리 730번지
- 건립년대 : 1825년
- 건물규모 : 일 괵(9동)
 - ① 사 당(祠 堂) - 정면 3칸, 측면 2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② 강 당(講 堂) - 정면 5칸,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③ 동 재(東 齋) - 정면 3칸, 측면 1칸반, 홑처마, 맞배지붕
 - ④ 서 재(西 齋) - 정면 3칸, 측면 1칸반, 홑처마, 맞배지붕
 - ⑤ 장판각(藏板閣) - 정면 3칸, 측면 1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⑥ 신도비각(神道碑閣) - 정면 1칸, 측면 1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⑦ 추모문(追慕門)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⑧ 숭봉문(崇奉門)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우진각지붕
 - ⑨ 일각문(一角門) - 정면 1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고려 충렬왕 때의 문신(文臣)으로 명심보감(明心寶鑑)을 편저(編著)한 노당(露堂) 추적(秋適) 선생을 봉안한 서원으로, 조선 세조 25년인 1825년 10월에 선생의 20대 손인 추세문(秋世文)이 창건하였다. 노당(1246-1317)은 고려후기의 문신(文臣)으로 자는 관중(慣中)이고 본관은 추계(秋溪)이다. 충렬왕 때 관직에 나가 안동서기(安東書記)에서 직사관(直史館)을 거쳐 좌시간(佐司諫)에 올랐다. 그 뒤 민부상서(民部尙書)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에 이르고 충선왕 때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에 제수되고 밀성백(密城伯)에 봉해졌다. 후에 문헌(文憲)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현재 서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명심보감 판본은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되어 있다.



▲ 원 경

남평문씨(南平文氏) 본리세거지(本里世居地) 앞쪽 개울 건너편 산자락에 동향으로 자리하고 있는 서원은 그 배치법이 도산서원(陶山書院)과 유사하다. 즉 강당과 외삼문을 축으로 구

성된 강학공간과 배면 우측으로 높게 대지를 조성한 후 내삼문과 동서측으로 사당인 문현사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사당 우측에 토석 담장으로 일곽을 이룬 장판각(藏板閣)이 위치하고 있어 서원이 3개구역으로 분할되어 있다. 그리고 서원 외삼문 밖 우측 편에 노당선생을 기리는 신도비각(神道碑閣)이 자리하고 있다

● 사 당

사당인 문현사(文顯祠)는 다소 높은 화강석 기단 위에 6칸 규모의 건물을 앉혔다. 6칸을 전통간으로 하여 우물마루를 깔고 위패를 배설하였다. 전면에만 쌍여닫이 판장문을 매칸 설치하고 양 측면과 배면은 심벽에 회분벽하였다. 그리고 익공양식으로 기둥상부를 장식하였으나 주고가 높아 다소 어색한 감이 있고 상부구조는 3량가구조로 사당건물의 일반적 양식에 따랐다.



▲ 정 면

● 강 당

강당은 정다듬한 화강석 기단 위에 10칸 규모의 건물을 세웠다. 강당의 평면은 가운데 3칸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이 배치되는 중당협실형 평면을 지니고 있다. 방 앞쪽으로 반칸 폭의 퇴간을 두고 온돌방도 측면 1칸반 정도의 칸살을 정했다. 그리고 정면만 원기둥을 사용하였으며 건물양식은 익공계열이다. 연화를 엮은 양서형 살미를 끼운 초익공에 보머리에는 봉두를 끼우고 주칸은 창방 위에 소로를 끼운 소로수장이다. 상부구조는 제형판대공을 엮은 간결한 5량구조이다.



▲ 정 면



▲ 배 면



▲ 좌측면



▲ 우측면



▲ 상부구조



▲ 익공살미

장판각은 외벌대 자연석 기단 위에 3칸 규모로 건물을 앉혔다. 내부는 우물마루를 깔고 외벽은 판벽으로 마감하여 판각이나 서책의 보관이 용이 하도록 환기와 습기에 대비하였으며 정면은 판벽에 쌍여닫이 판장문을 설치하였다. 모두 원기둥을 사용하였으며 기둥 위는 초익공에 소로수장으로 마감하고 3량구조에 박공지붕으로 양측면에 풍판을 설치한 백골집이다.

외삼문인 숭봉문(崇奉門)은 산형대문(山形大門)인데, 어칸은 맞배로, 양협칸에는 우진각으로 독특한 지붕모양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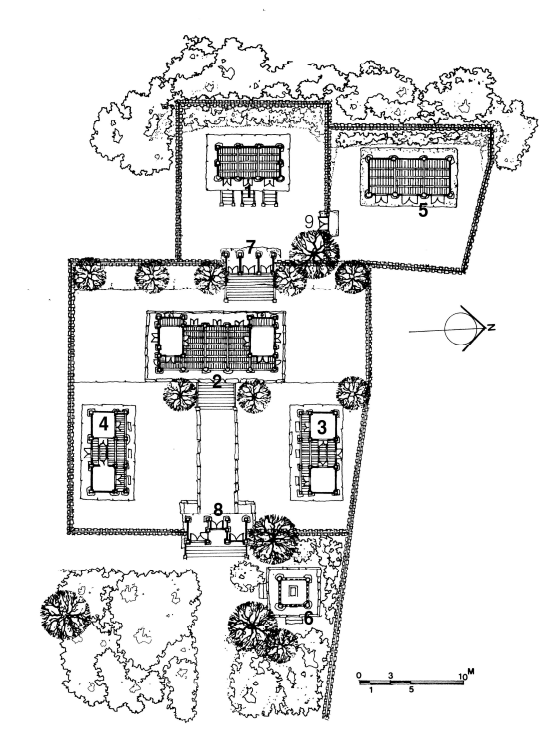
▲ 장판각



▲ 외삼문



▲ 신도비각



인흥서원 배치평면도

57.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南平文氏 本里世居地)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민속자료 제3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401-25외 14필
- 건립년대 : 19세기 초~20세기 중반
- 건축연혁 및 현황 :

화원읍에서 남으로 2km 떨어진 본리동은 남평문씨 일족이 살고 있는 소규모의 동족마을로 인흥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곳은 본래 인흥사 절터가 있던 곳으로 절골, 탑골, 등 절과 관련된 골짜기 명칭이 많다.

이 마을의 성립은 19세기 초반에 인산재 문경호(1812~1874)가 용호제를 지금의 광거당 자리에 지음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남평문씨 대소가의 주택이 용호재 주위에 지어졌으며, 1940년경에는 거의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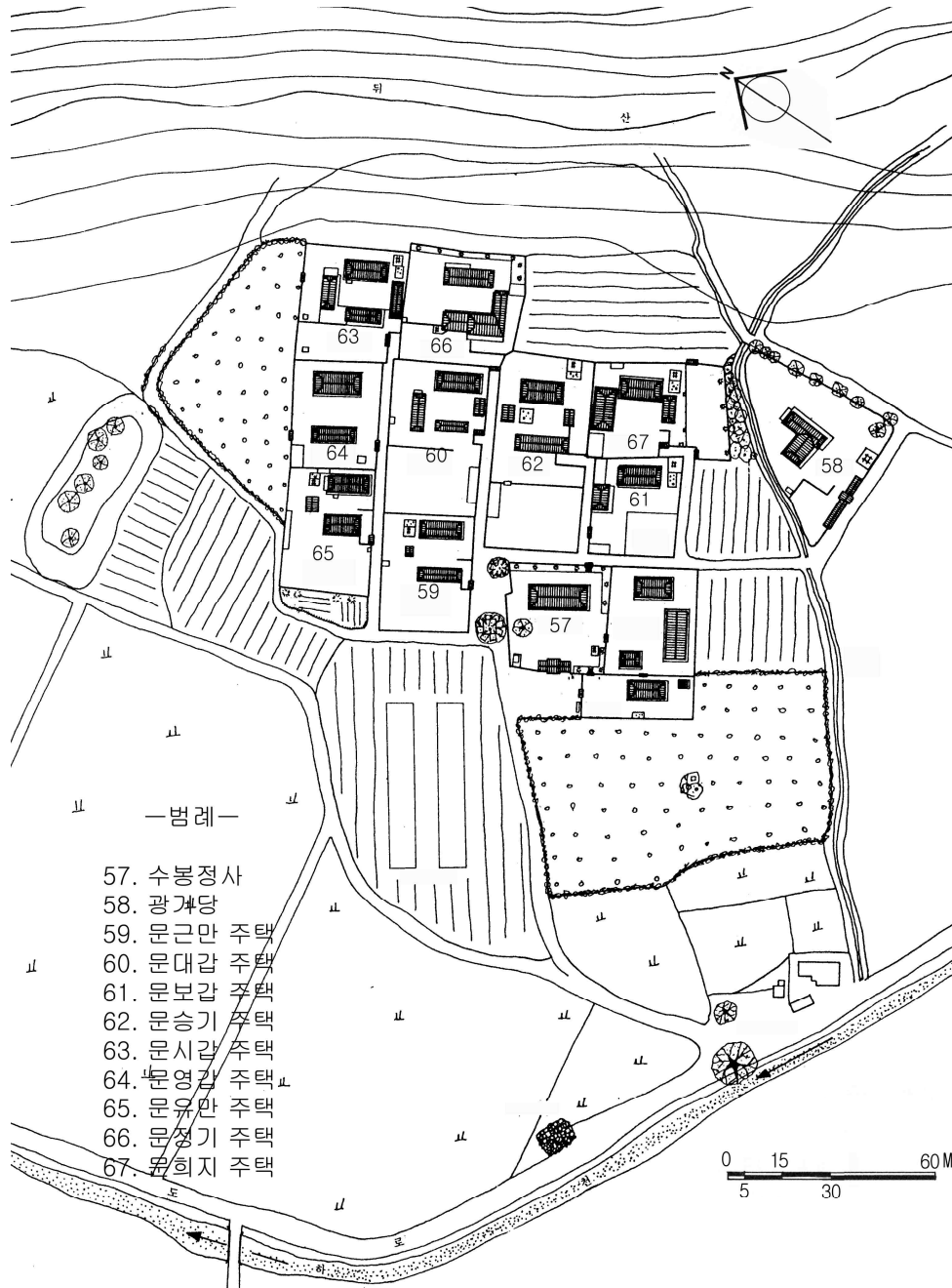
이곳의 남평문씨들은 조선후기에 발달한 광작농업을 통해 축적한 경제적인 부를 바탕으로 짧은 기간에 세거지를 완성하였다. 마을 초기 성립부터 이 마을 남평문씨들은 1만여평의 세거지에 일족이 세거를 위하여 정전법에 따라 집터를 구획 정리하고 채실과 살림집, 마을 안길을 정연하게 계획했다.

지금의 세거지에는 9동의 살림집과 채실 2동(광거당, 수봉정사), 문고 2동, 관리사 1동이 있다. 수봉정사는 이곳의 대표적인 건물로 마을 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찾아오는 손님을 맞기도 하고, 일족의 모임을 열던 큰 건물이며 정원의 꾸밈이 아름답다.

광거당은 제자들의 학문과 교양을 쌓던 수학 장소이며, 인수문고는 1만여권을 도서를 보존하던 건물이다. 처음에는 소규모이던 인수문고의 서고를 후에 크게 지었다. 무엇보다도 남평문씨 본리세거지는 조선후기에서 근대초기에 걸쳐 성립한 일족의 세거지로 마을의 공간구성 및 근대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 원 경



남평문씨본리세거지 가옥배치도

58. 수봉정사 (壽峰精舍)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 401-2번지
- 건립년대 : 1936년
- 건축규모 : 일 괵(2동)

① 수봉정사 - 정면 6칸,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② 대문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솟을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수봉정사는 세거지의 중앙 전면에 위치하여 진입로를 따라 마을로 진입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건물로 일제기인 1936년에 수봉 문영박(壽峰 文永樸:1880~1930)의 인격과 학식을 기리고 세손들의 학문과 교양을 쌓기 위한 교육장소로, 문중의 행사 및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건립된 정사라 한다.

정사는 대문채와 평행하여 서향으로 배치하고 정사 좌측에는 정원을 예쁘게 꾸며 놓고 마당에서 우측담장에 인수문고(仁壽文庫), 중곡서고(中谷書庫), 거경서사(居敬書舍)로 가는 일각문(一角門)을 두고 뒷편 담장 우측에도 마을 안길로 통하는 일각문을 세웠다.

정사의 규모를 정면 6칸 측면 3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운데 2칸 마루방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들인 중당협실형 평면으로 우측으로 2칸 마루를 첨가하고 전후퇴칸을 두었다. 그리고 좌우측면과 배면에 뒷마루를 덧대어 전체적으로 마루가 차지하는 면적이 매우 크다. 방과 방사이에는 4짝미서기문을 두고 마루와 퇴칸과는 4분합 들어열개문을 두어 공간의 개방성이 높이 높다. 또한 우측면의 마루는 배면 쪽 1칸을 앞쪽마루보다 1자정도 높게 만들고 측면과 배면에 계자난간을 돌려 루마루형식을 취했으며 좌측면과 배면 쪽은 퇴에 계자난간을 두어 우측과는 그 분위기를 달리하였다.

기단은 바깥쪽을 정다듬한 화강석 장대석을 두벌대로 쌓고, 배면의 중앙부에만 외벌대로 쌓았다. 기단 위에는 화강암을 정형으로 가공한 주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외진주는 모두 원기둥을, 내진주는 모두 네모기둥을 사용하였으며 외진주 상부는 살미를 두지 않고 주두만 올린 무익공 소로수장 굴도리이다. 상부구조는 7량가인 관계로 종중보가 건너고 그 위에 중보를 얹은 다음 대공으로 종도리를 받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식이라면 여기서는 종량(宗樑) 대신 상중도리(上中道里)를 건너지르는 받침목을 대고 그 위에 파련대공(波蓮臺工)을 세운 법식을 보이고 있다.

20세기 초엽에 건립된 한옥이지만 그 수법이 매우 짜임새가 있는 건물이다.



▲ 정 면



▲ 좌측면



▲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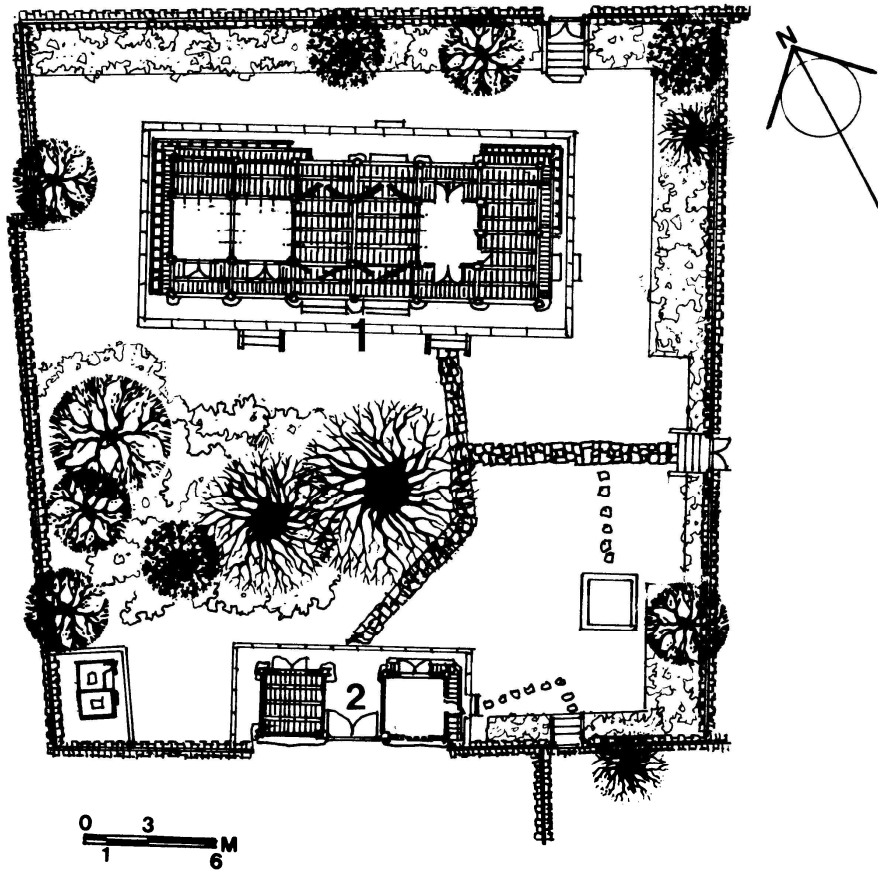
▲ 배 면



▲ 마루 상부구조



▲ 퇴칸 상부구조



수봉정사 배치평면도

59. 광거당 (廣居堂)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 410번지
- 건립년대 : 1910년
- 건축규모 : 일 괵(2동)

- ① 광거당 - 정면 4칸반, 측면 5칸반, 겹처마, 팔작지붕
- ② 대문채 - 정면 9칸반, 측면 1칸, 홑처마, 솟을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화원읍 남평문씨세거지 맨 우측 편에 동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원래 문익점의 18세손인 인산재 문경호(文敬鎬)가 인흥사지에 현재의 문씨 세거지를 개터한 이래 1834년 재실인 용호재(龍湖齋)가 건립되었으나 없어지고 구지(舊地)에 후은공(後隱公)과 문봉성(文鳳成)이 후손들의 강학(講學)장소로 1910년에 건립한 것이다.

‘광거(廣居)’라 함은 『맹자』 「등문공장구하(騰文公章句下)」의 ‘천하의 넓은 땅에 살며,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큰 도리를 행한다(居天下之廣居,立天下之正位,行天下之大道)’에서의 ‘광거’를 딴 것이다.

관리사와 솟을대문이 합해진 대문채를 들어서면 먼저 차면담이 앞을 막는다. 차면담 우측으로 돌아들면 높직한 기단 위에 당이 자리하고 있고, 좌측으로 들면 관리사영역이 자리하고 당과는 담장으로 영역이 구획된다.

광거당은 정면 4칸반 측면 5칸반 규모의 T자형 평면을 취하고 있다. 가운데 4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2칸 온돌방이 배치되고 앞쪽으로 퇴칸마루가 설치된 중당협실형 평면을 기본으로 우측 온돌방(而親寮) 뒤편으로 2칸 온돌방(萬卷堂, 歲寒齋)을 첨가하였고 앞쪽으로는 퇴칸마루보다 높게 2칸 정도의 루마루를 설치하고 전, 측면에 계자난간을 돌려 다락집 형상으로 꾸몄다. 뿐만 아니라 우측온돌방 우측 쪽으로도 퇴칸마루와 뒤편마루를 두었으며 좌측 온돌방 측면에도 퇴를 두어 접근성이 매우 좋다.

정면과 우측면 외진주만 원기둥을 사용하여 무익공 소로수장집으로 꾸몄다. 그리고 정면 부분의 상부구조는 5량으로 처리하고 우측부분은 3량으로 결조하고 서까래와 부연을 얹은 겹으로 처마를 만들었다. 루마루 상부지붕은 팔작이며 그 외의 지붕은 丁자지붕으로 처리하였다. 광거당에 사용된 기단과 초석은 ‘인흥사지(仁興寺址)’에서 가져온 것들이라 하며, 목재는 춘양목으로 봉화에서 낙동강을 따라 뗏목으로 옮겨온 것이라 한다.

비록 관리사 기능과 복합된 용도의 대문채이지만 규모가 상당하다. 대문간을 중심으로 좌측 편이 관리사로 사용되는 5칸(창고, 부엌, 방, 마루, 방)이며, 우측 편은 외양간, 고방, 방의 순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체가 9칸의 긴 일자집이다. 온돌방 전면은 퇴를 두었으나 관리사 부분은 뒤편으로도 퇴를 두어 외부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독립성도 고려한 듯하다. 구조는 전체적으로 3량이나 대문간 상부 지붕만 높은 산형대문형식을 취하고 그 외 부분은 우진각형으로 처리하였다.



▲ 정 면



▲ 좌측면



▲ 배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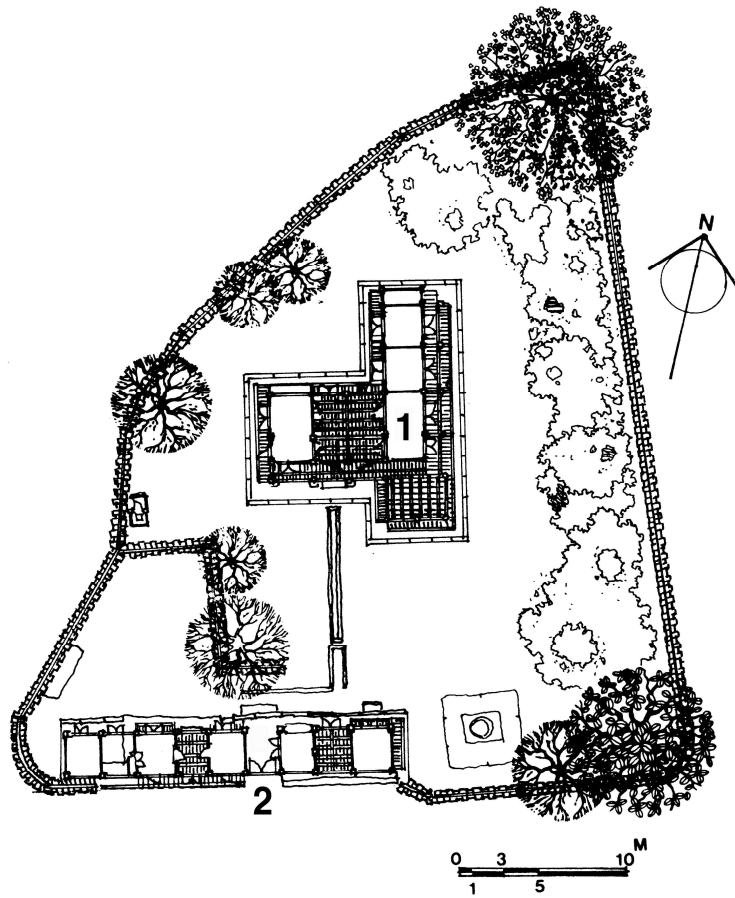
▲ 마루 상부구조



▲ 기둥상부



▲ 회첨부분



광거당 배치평면도

60. 문근만가옥 (文瑾萬家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 376-2번지
- 건립년대 : 1935년경
- 건축규모 : 일 괵(4동)

① 안 채 - 정면 4칸, 측면 3칸, 홀처마, 팔작지붕

② 사랑채 - 정면 4칸, 측면 1칸, 홀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집주인 문근만씨가 결혼하여 분가(分家)하던 1935년경에 지은 근대한옥(近代韓屋)으로 현채가(玄采家)라 부르기도 한다. 이 집은 동서로 긴 장방형의 대지에 ‘一자’형의 안채와 사랑채가 안마당을 가운데 두고 병렬로 배치되고, 안마당 서편에 고상식(高床式)의 두지가 별도로 배치되어 ‘ㄷ자’를 이룬다. 좌향은 안채와 사랑채 모두 남서향하였다. 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앞의 사랑채로 통하는 중문이 나오고, 이 문을 통해 곧장 사랑채로 연결된다. 또한 대문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 사랑채 옆을 지나 안마당을 거쳐 안채로 통한다. 안마당 남측 담과 큰 사랑방 사이에는 내외벽(内外壁)이 있다.

안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전후퇴(前後退)가 달린 와가(瓦家)로 겹집화의 경향을 보인다. 평면은 좌측부터 각 1칸 규모의 부엌·큰방·마루·작은방이 차례로 자리하고 있다. 부엌은 내진주열(內陣柱列)에 맞추어 자리하고 상부는 다락이다. 따라서 전퇴칸은 큰방에서 작은방까지 3칸에 걸쳐 시설되었고 주로 며느리가 사용한다는 작은방 우측 편에 퇴를 덧붙였다. 안채의 평면에서 다른 가옥들과 마찬가지로 수납공간(收納空間)이 요소요소에 적절히 배치되어있다. 구조는 각주(角柱)를 사용하여 납도리를 엮은 3량구법(樑構法)이며 홀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 사랑채 정면

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규모로 앞뒤에 쪽마루가 달려있다. 평면구성은 사랑마루를 사이에 두고 큰 사랑방과 작은 사랑방이 놓이고, 작은 사랑방에서부터 광이 놓였다. 작은 사랑방 좌측으로 도장방 1칸과 뒤횥이 연결되어 있다. 좌측의 뒤횥은 곡물을 보관하기 좋게 바닥에 마루를 깔았고 문은 빈지이다. 전퇴칸을 두지 않은 관계로 출입에 불편하였던지 방 전

면과 마루 뒤쪽에 퇴를 두었으며 뒤편의 안채와 연락하기 용이하게 뒤편에 출입문을 하나씩 두었다. 그리고 사랑공간 3칸은 분합문을 달아 3칸을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함도 잊지 않았다. 상부가구는 안채와 마찬가지로 대량 위에 동자주(童子柱)를 세운 3량가(3樑架)이며 홀처마 팔작지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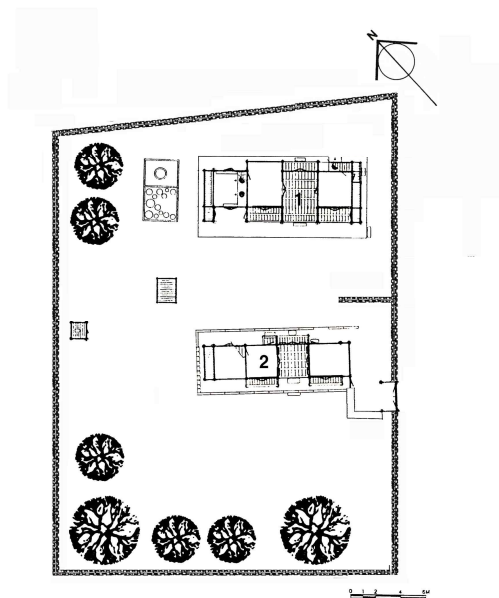
▲ 안채 정면



▲ 좌측면



▲ 상부구조



문근만가옥 배치평면도

61. 문대갑가옥 (文大甲家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 375-1번지
- 건립년대 : 1936건립
- 건축규모 : 일 곶(6동)
 - ① 안 채 - 정면 5칸, 측면 1칸반, 흙처마, 팔작지붕
 - ② 사랑채 - 정면 4칸, 측면 1칸, 흙처마, 우진각지붕
 - ③ 아래채(소실) - 정면 5칸, 측면 1칸, 흙처마, 우진각지붕
 - ④ 방앗간채 - 정면 2칸, 측면 1칸, 흙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가옥은 이 마을 입향조인 인산재(仁山齋) 문경호(文敬鎬)의 3세손인 보당(報堂) 문영환(文永桓)이 그의 장자 복채(석만)을 위해 1873년에 지은 초가를 헐고 그 자리에 현재와 같이 건립하였다고 한다. 본 가옥과 근만, 유만가옥을 건립한 목수는 논공 기새골 사람인 정원식이 중심이 되어 옥포의 최목수와 본리 김목수등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가옥은 종택 바로 앞에 위치하며 장방형 부지에 남서 향하여 튼 口형으로 가옥들이 배치되어있다. 집 가장 깊은 곳에 안채가 자리하고 전면에 아래채와 방앗간채가 마주보고 있다. 그리고 가옥에 가장 앞쪽에 안채와 동향으로 사랑채가 자리하여 포근한 중정마당이 형성되고 사랑채 앞에도 널찍한 사랑마당이 있어 크게 2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특히 사랑채와 연결되어 자리하고 있는 대문채는 출입방법과 공간의 분리방법을 고려한 문 배치가 이채롭다. 약 20년전 丁자형 사랑채가 화재를 입어 一자형으로 변화된 외는 거의 원형에 가까우나 부분적으로는 현대 주생활에 맞게 개조된 부분들도 있다.

안채는 전퇴칸을 둔 정면 5칸, 측면 1칸반 규모의 가옥으로 일자형 홑집이다. 실의 배치는 좌로부터 부엌과 고방에 전, 후로 배치되고 큰방, 2칸 대청, 작은방이 자리한다. 전퇴칸은 큰방 앞에서부터 작은방에 걸쳐 설치되었고 대청 뒷부분 2칸에도 두었다. 일반적인 방법은 전퇴칸까지 부엌이 확장되는데 반해 여기서는 부엌이 내진주열(內陣柱列)에 물려 시설되었으며 뒤편에 부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수장할 수 있는 고방이 설치된 점은 남부지방 홑집 평면에서는 보기 드문 실 배치법이라 할 수 있다. 큰방은 뒤쪽 뒤통까지 실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실의 출입은 주로 대청 쪽으로 난 쌍여닫이 굽널 띠살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작은방 역시 동일하다. 대청 배면은 머름 위에 심벽과 쌍여닫이 골판문으로 막아놓았다. 특히 본 가옥은 부엌부분 등에서 다채로운 수장공간의 확보, 부분적인 겹의 평면구성 등에서 여타 집과는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안채의 구조는 제형판대공(梯形板臺工)과 원형판대공(圓形板臺工)을 혼용한 5량가구에 흙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사랑채는 丁자형 사랑채가 20여년전 화재로 소실되어 2-3년 후 현재의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일자형 건물로 축소되어 재건하였으나 2002년 철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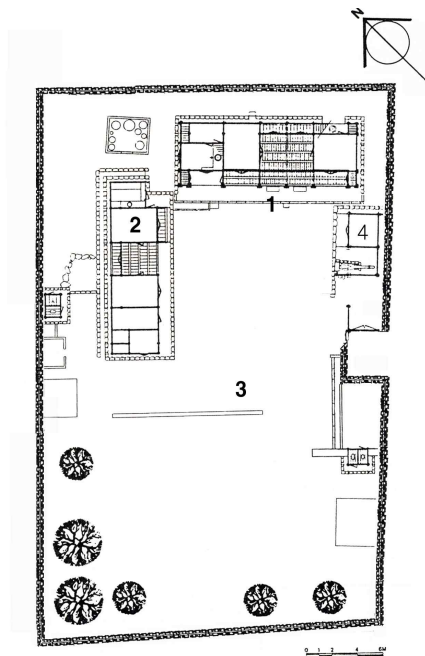
▲ 안채 정면



▲ 좌측면



▲ 처마부분



문대갑가옥 배치평면도

62. 문보갑가옥 (文보甲家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 398-2번지
- 건립년대 : 1933건립
- 건축규모 : 일 괵(3동)

① 안 채 - 정면 5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② 아래 채 - 정면 5칸, 측면 1칸, 홑처마, 우진각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일명 춘정가(春庭家)라고도 불리는 본 가옥은 1933년 인산재 문경호의 3세손인 수봉(壽峯) 문영복(文永僕)의 막내아들 기채가 건립한 것이다. 정방형에 가까운 대지에 남서 향으로 안채를 두고 전면 좌측에 동남향으로 아래채가 위치하여 ㄱ자형 배치를 취하고 있다. 1986년에 아래채와 1992년 안채를 개조하였으며 대문채는 10여년전 신축하였다고 한다.

안채는 전, 후퇴칸을 둔 정면 4칸, 측면 1칸반 규모로 실은 좌측에서부터 부엌, 큰방, 대청, 작은방 순으로 배열되어있다. 전퇴칸은 부엌을 제외한 3칸에 걸쳐 시설되었으며 부엌은 입식으로 개조하면서 뒤쪽에 욕실과 보일러실을 첨가하였다. 그러나 상부의 다락은 그대로 두었으며 다락은 큰방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계단을 두었다. 그리고 욕실은 부엌에서 바로 보일러실과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욕실은 큰방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출입문을 두었다. 큰방은 뒤편 퇴부분에 벽장을 두었으며 전면에 이중문인 쌍여닫이 띠살문과 용자살 미닫이문을 두었고 대청과는 쌍여닫이 굽널 띠살문을 달았다. 그리고 부엌 쪽으로 벽장을 두어 큰방의 수장공간이 넉넉하다. 대청은 1칸으로 그리 크지 않으며 전면은 개방되고 뒤쪽은 쌍여닫이 골판문과 심벽으로 막아두었다. 작은방은 다른 가옥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며느리가 거처한다고 하며 출입문과 동선은 큰방과 같으나 우측 편에 문을 하나 더 두어 독립적으로 출입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리고 뒤쪽으로 4짝 미닫이문을 단 반침을 두었으며 우측도 공간을 확장 시켰다. 안채의 구조는 마을의 다른 가옥과 마찬가지로 납도리에 3량가구이며 홑처마에 팔작지붕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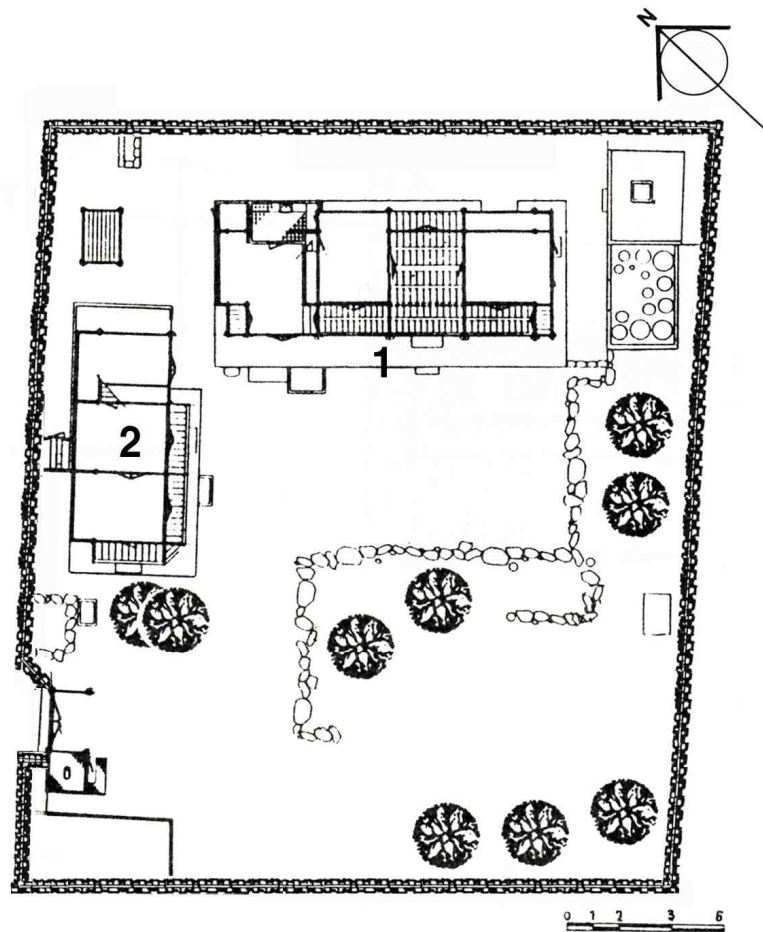
아래채는 건립 당시와 규모는 동일하나 1986년 개,보수(改,補修)시 실의 용도가 변경되었다. 원래는 좌로부터 사랑방, 도장, 헛칸 순으로 실이 배열되어 있었으나 도장이 작은방으로, 헛칸이 도장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현재의 평면을 살펴보면 사랑방과 작은방에 걸쳐 앞쪽과 좌측면에 퇴를 달았고 뒤편으로 반칸 정도 실을 확장 시켰다. 사랑채가 없는 가옥에서 아래채가 사랑채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도장은 토상(土床)에 판벽으로 마감되었다. 상부구조는 3량에 홑처마 우진각지붕이다.



▲ 안 채



▲ 아래 채



문보갑가옥 배치평면도

63. 문승기가옥 (文丞基家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 397-1번지
- 건립년대 : 1910년 건축
- 건축규모 : 일 곽(4동)
 - ① 안 채 - 정면 5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② 사랑채 - 정면 6칸,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③ 아래채 - 정면 2칸, 측면 1칸, 홑처마, 우진각지붕
 - ④ 방앗간채 - 정면 2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집은 광거당(廣居堂)과 함께 1910년에 건립한 주택으로 수봉고택(壽峯古宅)이라 불리우며 수봉정사(壽峯精舍) 뒤편에 남서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450여평의 넓은 대지에 안마당을 중심으로 ‘一자형’의 안채와 사랑채, 아래채와 방앗간채가 서로 마주보며 ‘ㄷ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마을 안길에서 직각으로 꺾어 만든 짧은 고살을 지나 대문간에 이르도록 했다. 대문간에는 사랑채로 통하는 협문과 안채로 출입하는 문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출입동선은 전통한옥의 배치법과는 다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안채는 전퇴칸을 둔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가운데 2칸 규모의 대청을 두고 좌측에 안방과 부엌, 우측에 건넌방과 툇마루를 앞뒤로 배치된 부분적으로 겹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부엌 내부 좌측에는 작은 찬장과 근년에 만든 입식 작업대가 놓여있고, 배면에는 최근에 증축한 서양식욕실이 있다. 부엌 상부는 다락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부엌에서 욕실로의 출입도 가능하다. 안대청은 마을의 다른 가옥들보다 2칸으로 넓으며 배면은 판벽과 쌍여닫이 골판문으로 폐쇄하고 퇴를 두었다. 그리고 우측 편에 겹집으로 자리하고 있는 건넌방은 과거 4짝 미서기문으로 구획된 방이었으나 약 30년전 자녀들을 위해 문을 맹장지로 폐쇄하여 독립된 2칸방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녀들의 출입의 편리함과 독립성을 주기 위한 방편인지 전면과 우측 편에 퇴를 달았다. 상부가구는 5량가로 대들보 위에 종보를 올려놓고 대공으로 마루도리를 받게 하였으며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사랑채는 대문간의 좌측 협문에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다. 평면은 좌측부터 도장과 부엌, 침모방과 새방, 작은 사랑방과 진사랑방, 큰 사랑방과 사랑대청을 앞뒤 두 줄로 배열한 겹집으로 이 마을 평면에서는 자주 접할 수 없는 평면을 하고 있다. 과거 도장과 부엌이 구획되지 않은 2칸 도장이었다고 한다. 뒤편 침모방과 작은 사랑방 사이의 함실은 상부에 다락을 두어 진사랑방에서 이용토록 하였다. 그리고 침모방과 작은사랑방 뒤편에 퇴를 두고 출입문을 설치하여 안채와 동선이 원활하다. 사랑의 역할을 하는 간은 모두 5칸으로 진사랑방 2칸은 4짝미서기문으로 구획되어있으며 뒤편 작은사랑방과 큰사랑방 역시 4짝 미서기문으로 구획되어 있다. 따라서 미서기문을 개방할 경우 큰 방 2개가 만들어지며 사랑대청과는 4분합들문과 3분합들문을 달아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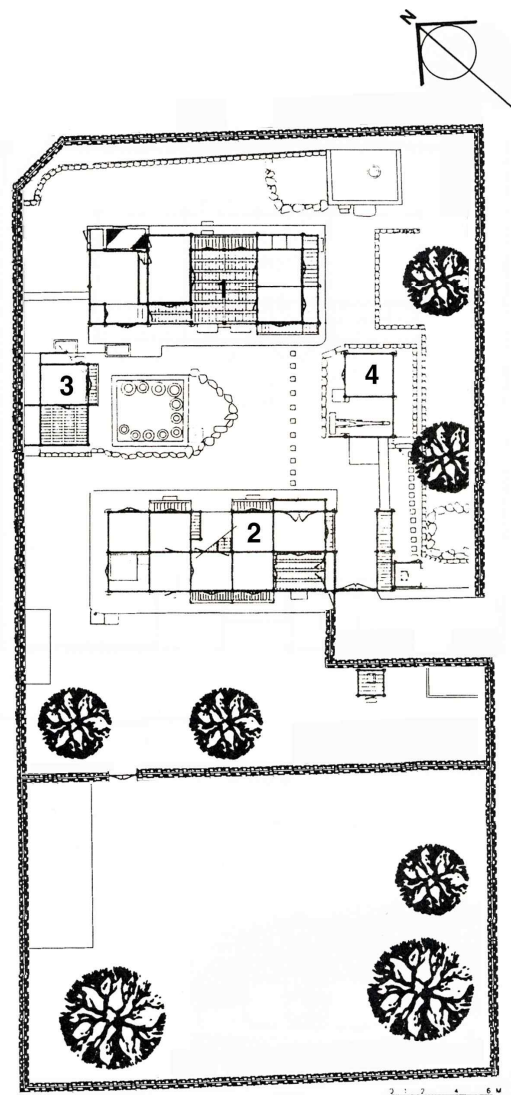
리고 사랑대청 우측벽 상부에 벽감(壁龕)을 두었다. 상부가구는 납도리 반침한 3량가이며 홀 처마 팔작지붕건물이다.



▲ 안 채



▲ 사랑채



문승기가옥 배치평면도

64. 문시갑가옥 (文始甲家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 374-2번지
- 건립년대 : 1924년
- 건축규모 : 일곽(7동)
 - ① 안채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② 사랑채 - 정면 4칸, 측면 1칸, 홑처마, 팔작각지붕
 - ③ 아래채 - 정면 5칸, 측면 1칸, 홑처마, 우진각지붕
 - ④ 고방채 - 정면 4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본 가옥은 본리세거지 좌측 가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우측에 종가인 문정기 가옥이 자리하고 있으며 앞쪽에는 문영갑 가옥이 이웃하고 있다. 가옥의 배치는 안채가 남서 향으로 자리하고 전면 좌, 우에 아래채와 고방채가 대향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안채 앞쪽에 사랑채가 자리하여 안채의 중정마당이 마련되었고 사랑채 전면 좌측으로 가림담장을 만들어 사랑공간과 안공간을 분리하면서 사랑 전면에 제법 넓은 사랑마당을 두었다. 그리고 가옥의 출입은 사랑 전면 우측으로 대문채를 두어 우측에서 들어 축이 꺾이면서 사랑채와 고방채 사이를 지나 안채에 이르도록 하여 내외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배치되어있으나 안채의 출입이 반드시 사랑마루부분을 지나 출입토록 되어 전통적 출입동선과는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안채는 전퇴칸을 둔 정면 4칸, 측면 1칸반 규모의 홑집으로 좌측에서부터 부엌, 큰방(안방), 마루, 건넌방 순으로 실들이 배치되어있으며 안방과 건넌방까지 전퇴칸을 두었다. 그리고 건넌방 우측 편에 퇴를 설치하여 실의 용도에 맞춘 출입동선을 배려했다. 그러나 좌측의 부엌은 근년에 입식부엌으로 개조되었으며 부엌 뒤편으로 욕실까지 들였다. 하지만 부엌 상부부분에 있던 다락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나마 옛 모습이 남아있다. 온돌방 전면 창호는 삼중문으로 시설되었는데 쌍여닫이 띠살덧문과 두짝 미닫이의 흑창과 영창 순이다. 그리고 대청과는 굽넬 띠살문을 달았는데 전면문과는 달리 문의 높이가 높다. 대청 뒤편 창호는 판문이나 골판문으로 마감되는 일반적인 법식과는 달리 쌍여닫이 맹장지문을 달았으며 상부 벽장은 4짝 미서기 완자살유리문을 달았다. 건물의 구조는 각주(角柱) 위에 납도리 3량가구에 홑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건물로서 좌측에서부터 광(욕실과 창고로 개조), 2칸 사랑방, 사랑대청 순으로 자리하고 있다. 사랑방 2칸과 사랑대청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 가운데 4짝 미서기문과 4짝 굽넬 띠살문을 두었다. 그리고 방 뒤편에 수장기능을 가진 벽장을 설치하였으며 앞쪽에 퇴를 두어 출입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사랑대청은 뒤편에 중정 쪽과 안채로 연결되는 통로인 우측 편은 판벽과 두짝 여닫이 골판문을 폐쇄하였고 전면만 개방하였다. 그러나 우측 편과 배면에 퇴를 부설하여 접근은

용이하도록 배려하였다. 좌측편의 광은 반으로 나누어 앞쪽에는 욕실을, 뒤편에는 안채에서 사용하는 창고로 개조하였으며 광 상부의 다락은 그대로 두었다. 기둥은 모두 각주를 사용하였으며 납도리에 동자주를 세운 3량가구에 홀처마 팔작지붕을 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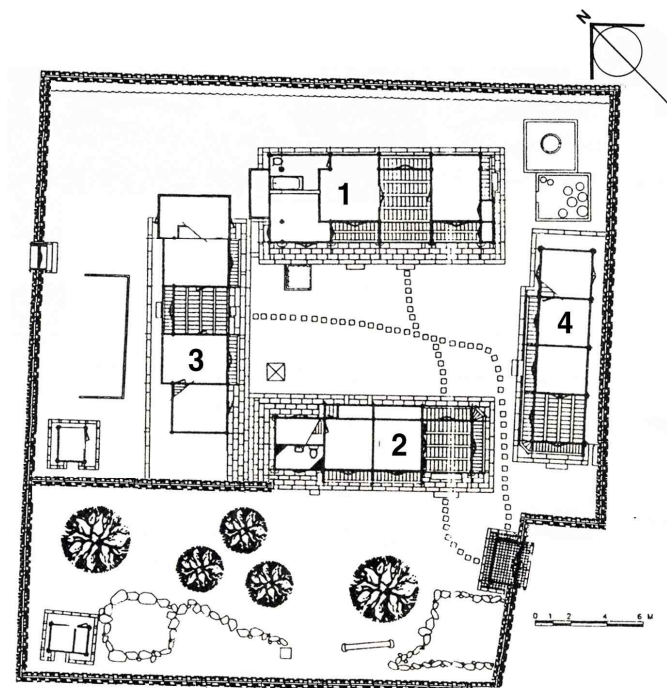
아래채는 정면 5칸, 측면 1칸 규모로 좌측 편에서부터 창고, 온돌방, 대청, 온돌방, 부엌의 순으로 실들이 배치되어있으나 원래는 창고, 마구, 광, 온돌방이 배열된 4칸 건물이었으며 1987년 우측 부엌을 부설하면서 현재와 같이 개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고방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로 좌측에서부터 창고, 온돌방 2칸 그리고 마루방으로 배설되어있으나 건립 당시는 3칸 헛칸과 방앗칸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 안 채



▲ 사랑채



문시갑가옥 배치평면도

65. 문영갑가옥 (文榮甲家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 376-3번지
- 건립년대 : 1925건립, 사랑채 1964년 중건, 안채 1984년 재축
- 건축규모 : 일 곽(5동)

- ① 안 채 - 정면 4칸, 측면 3칸, 홀처마, 팔작지붕
- ② 사랑채 - 정면 5칸, 측면 1칸, 홀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가옥은 수봉(壽峯)의 셋째아들의 살림집으로 1925년에 건립된 건물로 현재는 장자인 문영갑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가옥은 1957-8년경 화재로 전소된 후 사랑채는 1964-5년경에 중건(重建)하였고, 안채는 1984년 당시의 규모보다 확장하여 건립된 것이다.

본 가옥은 문유만가옥과 문시갑가옥의 중간에 자리하고 있으며 일자형 안채와 사랑채가 안마당을 사이에 두고 두드러진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사랑채 전면 좌측 구석에 창고채가 자리하고 우측에는 변소와 대문채가 위치한다.

안채는 전, 후퇴간을 둔 정면 4칸, 측면 3칸 규모로 평면의 구성은 문시갑의 안채 평면과 대동소이하다. 실의 배치는 좌로부터 부엌과 욕실이 전, 후 겹으로 자리하고 큰방, 대청, 작은방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좌측의 부엌과 욕실은 동일 칸살이며 욕실은 큰방에서 사용하도록 문을 내었으며 부엌으로의 출입은 좌측면에 설치한 문을 이용토록 하였으며 정면 쪽은 쌍여닫이창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큰방은 뒤쪽 툇간까지 실을 확장하였으며 마루와는 두짝 여닫이문을 달았고 앞쪽 툇간 쪽은 두짝 여닫이와 미닫이문 이중문을 달았다. 그러나 작은방은 큰방과는 달리 전면 툇간까지 실을 확장하여 실의 크기가 오히려 큰방보다 더 컸으며 뒤편 툇간은 벽장을 두었다. 그리고 작은방 전면에 퇴를 두어 직접 방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였으나 툇간 전면에도 유리를 끼운 미서기문을 달아 안대청은 현재 거실과 같은 기능을 지니게 되었다. 방과 부엌, 마루전면 창호 상부에 고창(高窓)을 설치하여 시대적 한옥의 변화양상을 살필 수 있는 요소들이 남아있다. 안채가구는 1고주(高柱) 5량으로 대량은 고주 몸에 걸구 되고 고주 상부는 종량(宗樑)을 받고 한쪽은 대량 위에 동자주(童子柱)를 얹어 종량 한끝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위에 운두가 높은 제형판대공(梯形板臺工)을 세워 종도리(宗道里)를 받도록 하였다. 기둥머리는 무익공 소로수장(小累修粧)으로 장식하고 홀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사랑채는 좌로부터 창고, 부엌, 작은사랑방, 큰사랑방 그리고 사랑마루의 순으로 배열된 정면 5칸, 측면 1칸 규모의 건물이다. 창고는 곡물수장에 맞도록 장마루를 깔았으며 안채에서 이용하기 편하도록 뒤쪽으로 문을 내었다. 연결한 부엌은 앞쪽으로 출입문을 두고 상부는 다락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랑방 2칸은 4짝 미서기문을 두어 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앞쪽으로 퇴를 두어 동선과 출입에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우측의 사랑마루는 배면과 우측 쪽은 쌍여닫이 골판문을 달아 안채와 대문 쪽에서의 시선을 차단하였으나 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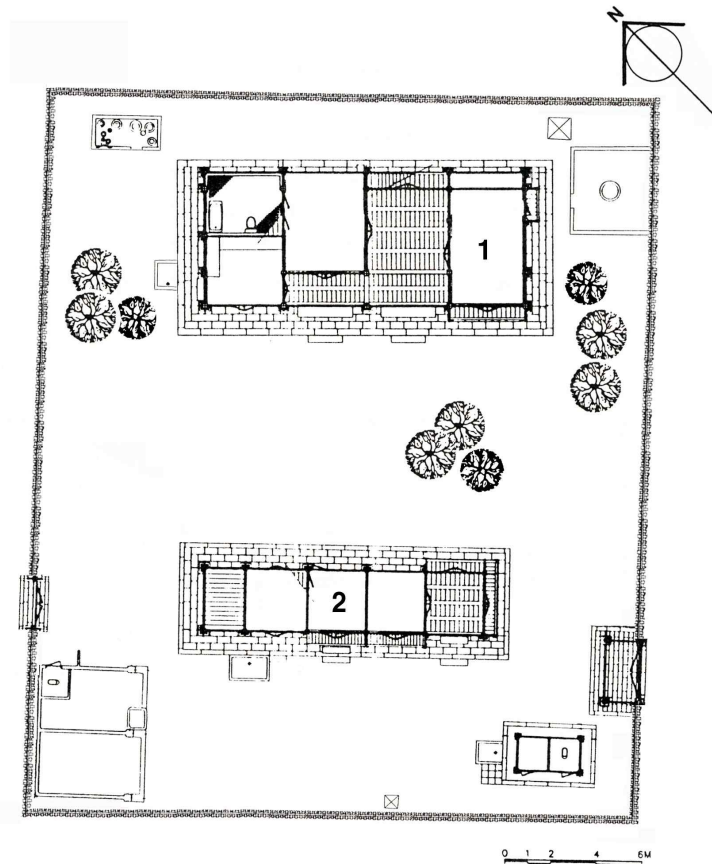
과 접근은 용이하도록 퇴를 부설한 점은 개방과 폐쇄 양면을 염두에 둔 배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에 납도리를 얹은 3량가구이며 홀처마에 팔작지붕을 올렸다.



▲ 안 채



▲ 사랑채



문영갑가옥 배치평면도

66. 문유만가옥 (文瑜萬家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 376-4번지
- 건립년대 : 1936년
- 건축규모 : 일 괵(4동)

① 안채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② 사랑채 - 정면 4칸, 측면 1칸,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집은 수봉(壽峯) 문봉성(1854~1923)의 셋째아들 영환(永桓, 1893~1951)의 셋째 유만의 주택으로, 가형(家兄)인 문대갑, 문근만가옥과 같은 시기인 1936년에 건축된 근대한옥이며 혁채가(赫采家)라 부르기도 한다.

집의 배치는 안채와 사랑채가 앞뒤로 놓이고 그 서쪽에 고방채가 놓여 전체적으로 튼‘ㄷ’자 형을 이루는데, 이러한 배치형식은 문근만 가옥과 같은 것이다. 좌향은 안채와 사랑채 모두 남서향하여 앞에 있는 조산(朝山)을 바라보고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앞에 사랑채로 들어서는 헐문이 있고, 이 문을 통해 사랑채 툇마루로 연결된다. 대문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 안마당을 지나 안채로 연결된다. 안마당 남측의 담고 큰사랑방 사이에는 문근만가옥과 같은 형식의 내외담이 있다. 일제시기 주거에서 여전히 남녀 생활공간에 격리가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안채 주위에는 부엌 좌측에 장독대와 우물을 두어 부엌을 중심으로 가사노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안채는 전퇴칸을 둔 정면 4칸, 측면 1칸반 규모로 좌측부터 부엌·큰방·마루·작은방이 차례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안채의 평면구성은 이 마을 문근만 가옥과 거의 같은 형식이었으나, 부엌 뒤쪽에 욕실과 다용도실을 증축하면서 부엌문을 전퇴 앞쪽으로 설치한 것이 다르다. 이 마을 대부분 가옥의 정침 평면은 안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이 자리하는 중당협실형 홑집평면이며 부엌의 위치가 항상 좌측, 즉 서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안채는 전체적으로 툇간이 발달하였으며, 거기에 전면 툇마루와 반침·벽장 등의 다양한 수장공간을 시설했다. 이는 근대한옥에서 주공간의 확장과 분화가 주로 툇간의 발달에 의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상부가구법은 3량에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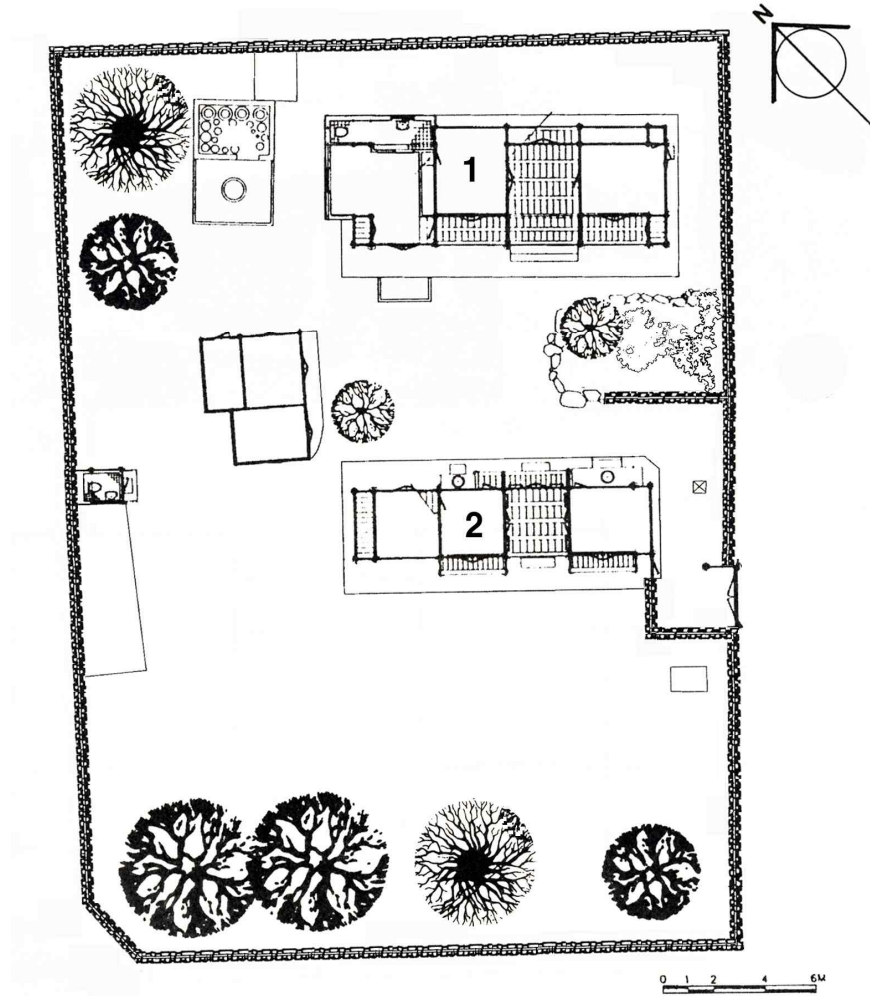
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로 문근만씨 가옥의 사랑채와 같은 뒤주, 도장, 작은사랑방, 마루, 큰사랑방 순으로 실이 배치되어있으며 구조와 형태도 동일하다. 이 집의 사랑채는 상징적이고 권위적인 공간보다는 사랑채에 아래채의 기능을 결합한 형식으로, 이 마을 주거의 지역성과 계층성을 보여준다.



▲ 안 채



▲ 사랑채



문유만가옥 배치평면도

67. 문정기가옥 (文定基家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 373번지
- 건립년대 : 1927년
- 건축규모 : 일 괵(5동)
 - ① 사랑채 - 정면 7칸반, 측면 4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② 안 채 - 정면 5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③ 대문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본 가옥은 남평문씨종택으로 마을의 주산인 천수봉과 안산인 함박간을 바라보면서 남서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마을 입향조인 인산재 문경호의 아들인 죽헌 문달규가 철종 7년(1856)에 초가로 건립한 것을 1927년 죽헌의 손자인 수봉 문영복이 그의 장조타인 백채와 함께 현재와 같은 와가로 재축하였다. 재축 당시의 모습에서 3칸반 규모의 초가 바깥채가 1950년 후반 헐리었고 4칸 규모의 아래채가 1964년경 해체되었으며 사랑채는 1976년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으나 그해 원형대로 재건하였다 한다.

가옥의 배치는 대문을 들어서면 사랑채의 가림담장으로 사랑채와 통로를 분할시키고 좌측으로 돌아 중문채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중문채를 들어서면 일자홀집의 정침채와 만나게 된다. 전면의 사랑채는 중문채와 동으로 분할되지 않고 ㄱ자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문채 좌측으로 토담장을 쌓아 바깥마당과 안마당을 구획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과거 정침 좌측에 4칸 일자형의 아래채가 있어 전체적으로 남부지방 민가형식인 튼ㄱ자형 배치를 취하였으나 지금은 아래채가 없어 ㄷ자형을 이루고 있다.

안채는 가운데 2칸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배치하고 좌퇴간에 부엌을 둔 일반적인 정침평면형이며 근래 현대생활에 적합하도록 부엌과 다용도실, 욕실을 덧대거나 증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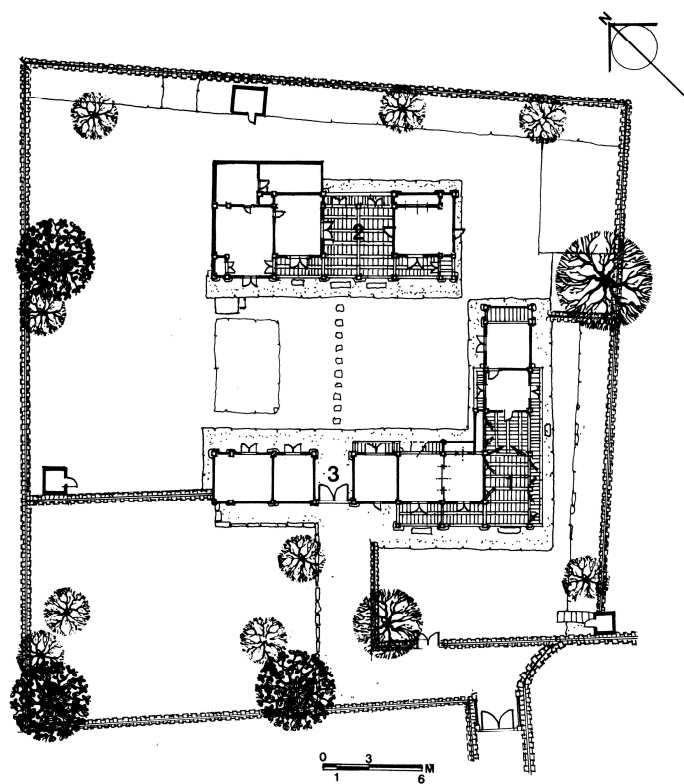
입면은 각주를 사용하여 납도리를 얹은 후 홑처마 팔작지붕을 얹은 건실한 구조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중문간을 중심으로 도장과 문간방으로 구성된 중문채부분과 사랑대청을 중심으로 큰사랑부분과 작은사랑으로 구성된 사랑부분이 ㄱ자형으로 평면이 꾸며져 있다. 큰사랑은 앞쪽으로 개방되어있으나 작은사랑은 우측에 퇴를 두고 우측으로 출입토록 하고 내부공간 역시 문으로 공간을 구획했다. 입면은 중문채부분을 3량으로, 사랑부분은 5량으로 결조된 까닭에 지붕의 형태가 다르다. 외부에서 볼 때 두 개부분이 분리된 듯한 모양을 취하고 있다. 중문부분은 우진각으로, 사랑부분은 한단 높게 팔작지붕으로 구성되었다. 큰사랑부분 전면은 원기둥에 무익공 소로수장으로 장식하였다.



▲ 안 채



▲ 사랑채



문정기가옥 배치평면도

68. 문희지가옥 (文熙志家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399-1번지
- 건립년대 : 1940년경 건립
- 건축규모 : 일 괵(5동)
 - ① 사랑채 - 정면 2칸, 측면 1칸, 홑처마, 우진각지붕
 - ② 안채 - 정면 4칸, 측면 1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③ 아래채 - 정면 4칸, 측면 1칸, 홑처마, 우진각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본 가옥은 수봉의 넷째 아들 노채가 분가(分家)할 때인 1940년경에 건립한 근대한옥이다. 마을 최남단에 위치하며 광거당(廣居堂)과 근접하고 있으며 대목 황사익이 조영하였다 한다.

대지가 남동으로 긴 장방형이나 가옥은 남서 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가옥의 배치는 안채를 중심으로 전면 좌측에 아래채가 자리하고 대향하여 사랑채가 마주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튼 口자형 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채는 남동 향으로 자리를 잡아 안채와는 자연적으로 격리되게 되며 사랑전면에 넓은 사랑마당이 만들어졌고 안채는 ㄷ자형 배치로 인해 자연스레 안마당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사랑 좌측 앞쪽으로 대문채를 두면서 가림담장을 설치하여 시선의 차단하였다. 사랑채로 직접 출입하기 위해 대문 앞에 별도의 일각문을 두었다. 전체적으로 남녀공간구분이 확연한 배치법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안채는 전, 후퇴를 둔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로 평면구성은 좌로부터 부엌과 욕실이 전, 후로 자리하고 연결하여 큰방, 마루 그리고 작은방 순으로 배치되어 전술한 가옥과 평면구성은 대동소이하다. 좌측의 부엌은 전퇴칸까지 확장하였고 뒤쪽의 욕실은 부엌을 거쳐 사용토록 문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큰방에서 부엌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을 두었고 방은 전퇴칸을 두고 뒤편 텃칸까지 실을 확장 시켰다. 우측의 마루와는 쌍여단이 띠살여단이문을 달았고 전면 쪽으로는 띠살창과 미서기문을 이중으로 시설하였다. 대청 뒤쪽은 심벽과 골판문으로 막았으며 텃칸 상부는 벽장을 두었다. 그리고 주로 며느리가 거처한 작은방은 문승기 가옥이나 문근만 가옥과 동일하게 대청과 전면문을 사용하여 출입할 수 있으나 우측면에 퇴를 부설하고 출입문 하나를 더 내어 직접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가옥의 평면에서 부분 부분 벽장 등 수장공간을 많이 두었으며 욕실, 부엌 등 현대 주거생활에 적합토록 개조된 부분들도 있으나 근대 한옥평면을 잘 보존하고 있다. 남도리 받침한 5량가구로 목재의 재질이나 치목수법이 고급이다.

사랑으로의 동선은 대문 및 사랑출입을 위한 일각문을 통해 연결되며 마당에서 전면에 부설된 퇴를 통하도록 하였다. 사랑채 평면은 전퇴를 둔 정면 2칸, 측면1칸 규모로 좌로부터 큰사랑방, 작은사랑방 2칸으로 사랑마루는 없다. 큰사랑방과 작은사랑방은 4짝 미서기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나 필요시 하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한 창호구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큰사랑 뒤쪽에 문을 두고 퇴를 달아 안채와의 연결을 도모하였고 작은방은 뒤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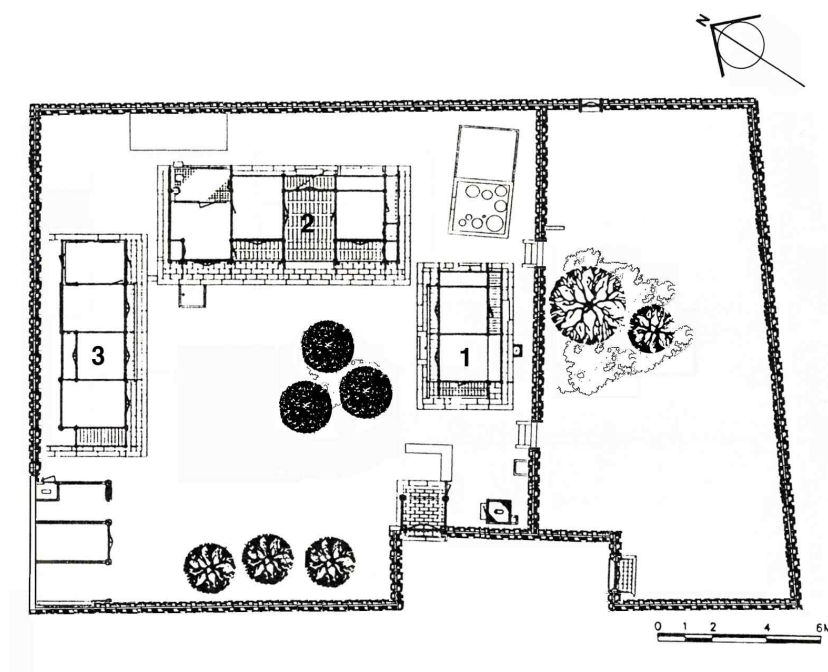
실을 다소 확장 시켰다. 그리고 작은사랑 우측에도 퇴를 두어 독립성을 높이고 있다. 이 사랑채를 영구당(永求堂)이라 부르기도 하며 사랑의 평면구성은 이 마을의 일반적인 사랑채 평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상부는 남도리 위에 3량구조이며 홀처마 우진각지붕이다.



▲ 안 채



▲ 사랑채



문희지가옥 배치평면도

69. 공진정 (拱辰亭)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665번지
- 건립년대 : 1978년 중건, 1989년 중수
- 건축규모 : 일 괵(3등)
 - ① 재 실 - 정면 3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② 관리사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③ 대문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솟을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영월(寧越) 엄씨(嚴氏)의 재사이다. 현풍에 입향한 엄씨의 시조는 엄계(嚴誠)이며, 엄계의 부친(父親)인 통정대부행이조참의(通政大夫行吏曹參議) 엄산수(嚴山壽)가 성종 때 폐비사건에 연루되어 연산군에 의해 유배될 때 장남인 계(誠)도 현풍으로 낙남(落南)하게 된다. 현풍 성하 수문리(水門里)에 살면서 현 공진정 자리에 설단(設壇)하여 조석으로 북향재배(北向再拜)하다가 연산군 말년인 병인년(丙寅年)에 사사되었다.

그 유지에 후손들이 약 400년 전에 공진정을 건립하였으나 없어지고 1978년에 중건하고 1989년에 중수한 바 있다.

육각형 대지 위에 공진정이 가운데 북동향으로 자리하고 전면 우측에 관리사가 동향하고 있다. 그리고 정과 대향하여 출입문이 있는 대문채가 위치하고 있다.



▲ 원 경

얇은 자연석 기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1칸반 규모의 아담한 건물이다. 평면은 앞쪽에 퇴칸을 두고 가운데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방이 배치된 형식이며 마루와는 분합문을 설치하였고 마루뒤편에 뒤탈마루를 달아두었다. 정면만 원기둥을 사용하고 소로수장한 굴도리집이며 동자주와 동자주형대공을 세운 5량가구에 홑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목부에는 가칠단청(석간주)하였고 벽체는 회분벽하여 깨끗하다.

관리사는 주구조체는 목조이나 조적조로 일부 개조되었으며 대문채는 어칸의 지붕을 한단 높은 솟을산문으로 건립하였다.



▲ 정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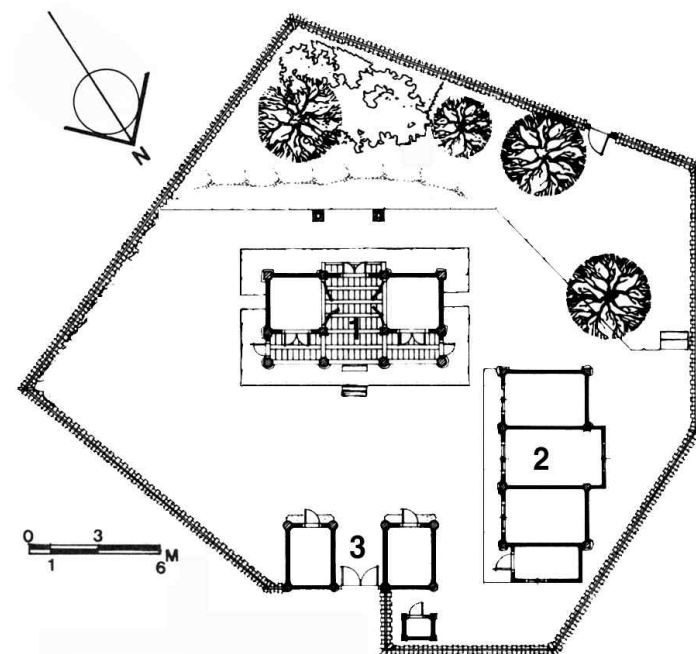
▲ 좌측면



▲ 우측면



▲ 상부구조



공진정 배치평면도

70. 현풍향교 대성전 (玄風鄉校 大成殿)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7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상리 326-1번지
- 건립년대 : 초건 미상, 1785년 이건
- 건축규모 : 일 괵(8동)
 - ① 대성전(大成殿) - 정면 3칸, 측면 3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② 동 무(東 廡)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③ 서 무(西 廡)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④ 내삼문(內三門)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⑤ 명륜당(明倫堂) - 정면 5칸, 측면 2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⑥ 동 재(東 齋)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⑦ 서 재(西 齋)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⑧ 외삼문(外三門)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창건연대는 미상이나 임진왜란때 소실되었으며, 전후 현감 이영도(李詠道)가 구 교동(校洞)에 중건하였던 것을 영조 34년(1758)에 현감 김광태(金光泰)가 현 위치로 이건하였다. 그 후 고종 광무(光武) 5년(1901)에 현감 허길(許估)이 중수하고, 1931년 군수 신현구(申鉉求)가 대성전, 명륜당, 동·서무를 중수하였고 명륜당 앞에는 김광태기적비(金光泰記績碑)가 있다.

향교는 상리 마을 뒤쪽의 나지막한 산기슭에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는데, 배치는 외삼문과 명륜당, 내삼문, 대성전을 동일축선상에 두고 명륜당과 대성전이 좌, 우에서 동, 서재와 동, 서무를 각각 배치시킨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형식이다.



▲ 원 경

● 대성전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의 건물이다. 기단(基壇)은 하부에 굽 높인 장대석을 한단 놓고 양각(陽刻)된 연화문(蓮花紋)이 조각된 판석(板石)과 조각한 흔적이

있는 판석(板石)으로 기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연화문(蓮花紋)을 양각(陽刻)한 초석(礎石)과 파탑부재(破塔部材) 등 사찰 등에서 사용된 듯한 석재들이 초석으로 사용되었다. 전 내부 바닥은 방전으로 마감되었으나 원형인지는 알 수 없으며 정면의 창호는 교체되었다. 건물의 양식은 주심포계(柱心包系)이며 공포는 외1출목이다. 2제공형식으로 살미(山彌)의 모양은 모두 양서형(仰舌形)이며 연꽃과 연봉우리를 초각(草刻)하였다. 그리고 단부(端部)는 사절(斜截)하였고 양두(樑頭)는 봉두(鳳頭)로 장식하였다. 주심첨차(柱心檐遮)는 초각이나 선각(線刻)을 하지 않았으나 출목첨차(出目檐遮)는 단부를 45도 정도 사절하고 연화문을 초각해 두었다. 용마루 구성법이 경북지방의 일반적인 쌓기 방법과는 달리 마루장 아래 부고를 한단 보내고 그 아래 솟기와와 암기와를 용마루와 직각방향으로 한 줄 끼우고 다시 부고와 착고를 보내는 기법을 보이고 있다.

중수상량문(歲戊寅九月十三日 太守 金光太:1758년)과 성묘이건기(時己卯孟夏丁浣太守 金光太:1759년)에 기록으로 보아 1750년대의 건물임은 확실하다.



▲ 정 면



▲ 좌 측 면

● 명륜당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중당협실형(中堂夾室形)으로 가운데 3칸에 걸쳐 널찍한 마루를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좌퇴칸의 칸살보다 우퇴칸의 칸살을 더 넓게 잡은 것이 특이하다. 건물의 양식은 익공양식(翼工樣式)이나 전면은 2익공이고 배면은 주두(柱頭)만 얹은 무익공 소로수장형이다. 상부가구는 장식이 없는 건실한 5량가로 판대공(板臺工)을 세우고 뜬 창방을 보낸 건실한 구조이다. 명륜당에 퇴계(退溪)선생의 쓴 편액에 「崇禎癸酉5月」이란 명문이 남아있다.



▲ 정 면



▲ 상 부 구 조

● 동 · 서무

동 · 서무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와가이며 3칸 통칸의 평면이다. 기둥은 흘림이 있는 원기둥을 사용하였다. 내부바닥은 대성전과 같이 방전을 깔았고 정면 매 칸마다 쌍여닫이 판장문을 달았다. 상부가구는 3량가의 초익공(初翼工) 건물로 살미의 형상은 앙서(仰舌)로 하여 연화로 장식하고 보머리에는 봉두를 첨가하였으며 모루단청을 올려 깨끗하다. .



▲ 동 무



▲ 서 무

● 동 · 서재

재의 기능은 학생들이 기거하는 장소로 명륜당과 함께 강학공간의 주구성요소가 되는 건물이며 일반적으로 동 · 서재는 대향하여 배치되는 것이 서원배치의 일반적인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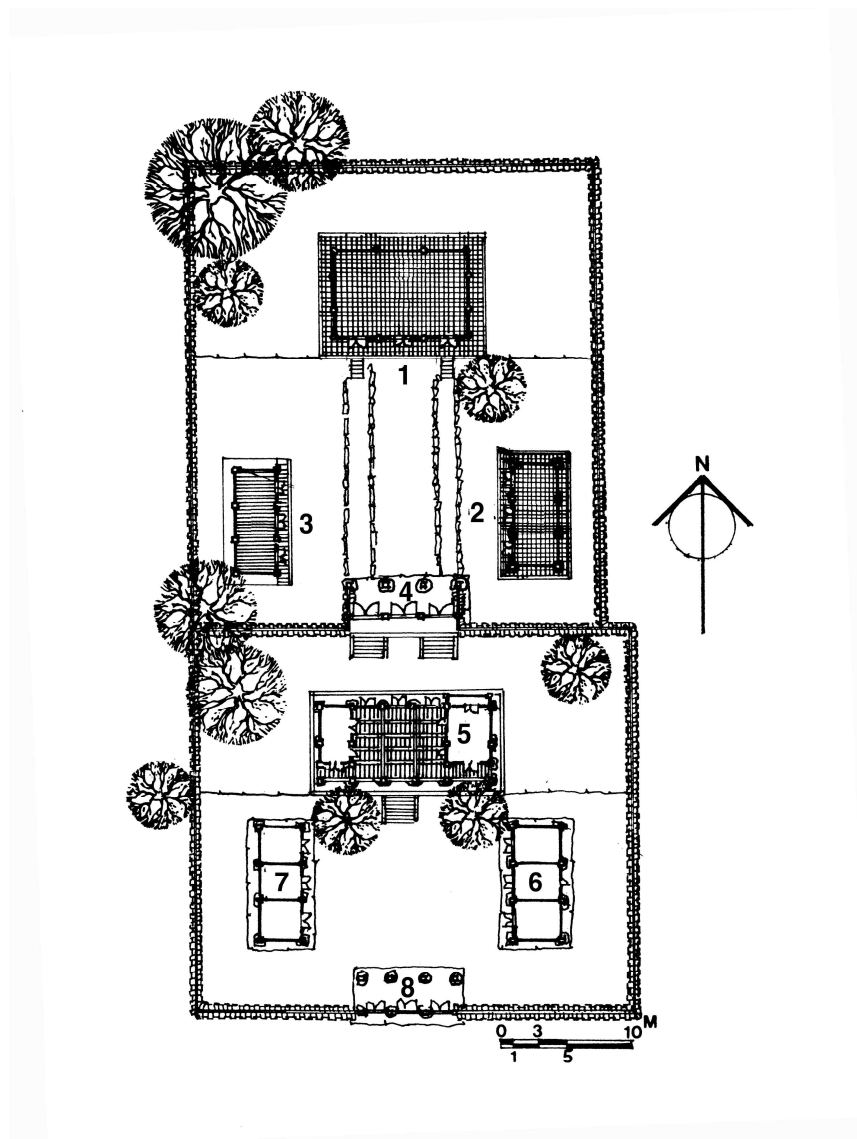
동 · 서재는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맞배기와집으로 평면은 서재 좌협칸에 설치된 부엌외는 모두 3칸 온돌방을 두었다. 상부구조는 3량이며 간결한 모양새를 지니고 있다.



▲ 동 재



▲ 서 재



현풍향교 배치평면도

71. 이경순가옥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부1리 326번지
- 건립년대 : 1875년
- 건축규모 : 정면 5칸, 측면 1칸반, 흙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가옥은 고종 12년 이인룡(李寅龍)이 건립하였으나 현 소유자의 모친이 구입하였다고 한다. 본 가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도시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주변건물들이 현대화되었으며 본 가옥도 안채만 남겨놓고 여타 건물들은 조적조로 개조되거나 철거된 상태여서 원형을 찾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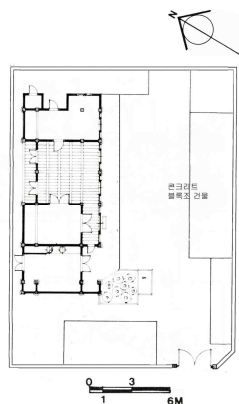
건물의 평면은 중당협실형의 홑집으로 가운데 마루를 중심으로 하여 좌측에 온돌방 1칸과 부엌이 연결되고 우측으로 온돌방 1칸이 배치 되어있다. 그리고 마루와 방 전면에 퇴칸을 설치하였으나 우측 온돌방은 퇴칸까지 온돌방으로 개조한 듯하다. 그리고 부엌은 측면 칸살을 퇴칸을 포함하여 칸살을 정하는 일반적인 평면법과는 달리 퇴칸은 개방하여두면서 좌측으로 반칸 폭 정도를 확장하였다. 대청 뒤편에 툇마루를 부설하였고 방 뒤편에는 벽장을 설치하였으나 퇴칸 전면에 유리미서기문을 달아 두었다. 상부구조는 매우 건실한 5량가구조 치목이나 결구법이 매우 정연하다.



▲ 정 면



▲ 상부구조



이경순가옥 배치평면도

72. 광두식가옥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산2리 618-2번지
- 건립년대 : 1892년
- 건축규모 : 일 광(5동)
 - ① 안채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홀처마, 팔작지붕
 - ② 사랑채 - 정면 4칸, 측면 4칸, 홀처마, 팔작지붕
 - ③ 대문채 - 정면 4칸, 측면 1칸, 홀처마, 맞배지붕
 - ④ 고방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홀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현 소유자의 조부인 광종열(郭宗烈)이 고종 5년인 1892년에 건립한 가옥이라 한다. 원래의 가옥배치는 대문채, ㄱ자형의 사랑채, 고방채가 남서향하여 튼口자형으로 자리하고 사랑채 뒤편에 안채가 위치하였는데 소유자가 사랑채를 서한수(徐漢秀)씨에게 매각을 한 후 원래의 배치형태가 많이 변형되었다. 현재의 배치를 보면 안채와 사랑채는 분리된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사랑채는 사랑채와 고방채 좌측의 창고채로 구성되면서 전면의 대문을 두었으며 사랑채 뒤편 좌측 담장에 협문을 두어 안채와 연결시켰으며 안채는 사랑채와 담장으로 완전히 분리되면서 안채와 안채 전면 좌측 편에 동향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출입은 사랑과 분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관리가 허술하다.

안채는 일자홀집으로 정면 5칸 측면 1칸반이다. 가운데 2칸 안대청을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들이고 앞쪽으로 퇴칸을 두었으며 우퇴칸에 부엌을 둔 전형적인 중당협실형(中堂夾室形) 평면이다. 좌측 온돌방 앞쪽 퇴칸 마루하부에 아궁이를 설치하기 위해 대청보다 1자 정도 높였으며 우퇴칸의 부엌의 외벽은 조적조로 개조하였다. 온돌방 전면문은 쌍여닫이 띠살문이나 머름은 두지 않았다. 그리고 온돌방 뒤편과 부엌 쪽으로 수납공간을 두었으며 남도리에 홀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안채 앞쪽에 자리하고 있는 사랑채는 ㄱ자형 평면으로 정면 4칸 측면 4칸 규모로 실의 구성이 다소 복잡하다. 가운데 마루방을 중심으로 좌측에 온돌방 2칸을 연결시켰다. 측면 칸살은 1칸반으로 맨 좌측 방은 전후 2칸 겹으로 배치되고 방 앞쪽과 측면에 뒗마루를 두었으며 마루와 연결된 방은 전퇴칸을 두고 1칸 온돌방으로 만들어졌다. 마루방 우측온돌방 역시 맨 좌측 온돌방과 같이 2칸 겹으로 자리하고 앞쪽으로 1칸 더 온돌방을 들었다. 그리고 온돌방과 연하여 측면과 배면에 골판문으로 폐쇄된 마루 1칸을 더 두면서 퇴칸을 연결하여 동선이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배면 쪽에도 뒗마루를 두었다. 그러나 퇴칸 전면에 유리 미서기문으로 개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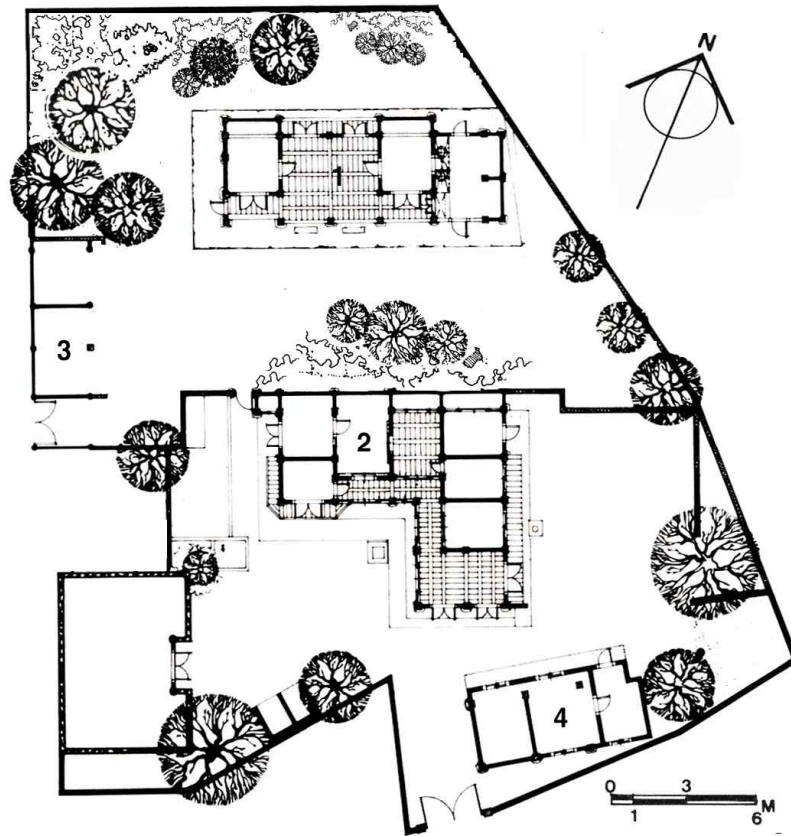
안채 대문채는 4칸홀집이나 일반적인 예와는 달리 우측편에 대문칸을 두었으며 현재 마당쪽으로는 개방하여 헛간으로 사용된 듯하다



▲ 사랑채



▲ 안 채



곽두식가옥 배치평면도

73. 여재당 (如在堂)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상리 596번지
- 건립년대 : 1925년
- 건축규모 : 일 괵(2동)

- ① 여재당 - 정면 4칸,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② 관리사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곽승문(郭承文)을 향사하는 재사로 1925년에 건립되었다. 대문 좌측 도로에 면해 있는 비각(碑閣) 내에는 곽공종래시혜불망비(郭公鍾來施惠不忘碑), 곽공종래시식송덕비(郭公鍾來施息頌德碑), 참서곽공성한송덕비(參書郭公星寒頌德碑)가 세워져 있으며, 남서향으로 자리하고 있는 대문을 들어서면 좌측에 남동향으로 관리사(管理舍)가 자리하고 관리사 우측 앞쪽에 여재당이 동일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 원 경

여재당은 정면 4칸 측면 1칸반 규모의 중당협실형 평면을 지닌 건물로 가운데 2칸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이 자리하고 있다. 온돌방 앞쪽으로 반칸 퇴칸을 두고 양측면에 뒷마루를 덧대었다. 온돌방 뒷편으로 벽장을 설치하고 마루 뒷편에도 퇴를 두었다. 그리고 마루와 방사이에는 분합들문을 설치하였으며 소로를 끼운 원형판대공을 세운 3량구조에 홑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그러나 처마 와곡의 천연스러움과 장마루 등 전통적인 한옥의 맛은 반감되었다.



▲ 정 면



▲ 좌측면



▲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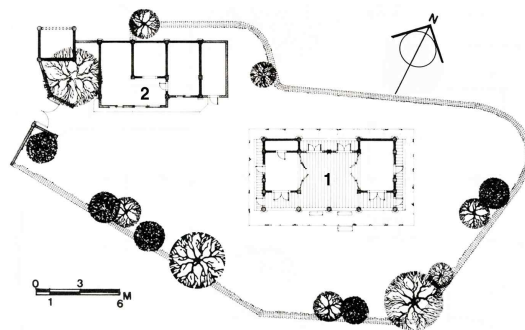
▲ 상부구조



▲ 비 각



▲ 처 마



여재당 배치평면도

74. 현풍 석빙고 (玄風 石氷庫)

- 지정종별 : 보물 제673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상리 632번지
- 건립년대 : 1730년 건립
- 건축연혁 및 현황 :

석빙고는 화강암 석재를 사용하여 남북방향으로 길게 축조되어 있다. 입구에는 장대석을 다듬어 석주(石柱)를 세우고 상부에 미석(楣石)을 걸쳐 방형의 문틀을 만들고 외기(外氣)를 막기 위하여 강돌로 뒷벽을 채우고 외부는 돌을 쌓고 점토로 마감하였다. 문을 들어서 석계(石階)를 내려가면 포석(鋪石)바닥이 된다. 바닥은 편평한 돌로 마감하고 중앙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내부에 괴인 물이 바깥쪽으로 흘러 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면벽(四面壁)은 벽석으로 축조하였다. 그러나 벽석(壁石)이 다른 석빙고에 비해 낮아 석실 전체가 홍예로 이루어진 듯 보인다. 내부 천장과 벽에는 4개의 잘 다듬어진 돌로 무지개 모양의 홍예(虹霓)를 들어올리고 그 사이 사이에 길고 큰돌을 얹어 덧홍예를 만들어 내부공간을 만들었다. 또 천장 두 군데에 환기구를 설치하여 통풍이 가능하게 하였고 그 위에 지붕을 씌워 비가 세어 들지 않게 하였다. 석빙고의 축조방법이나 시설 등에서 경주·안동·창녕 등에 있는 조선후기 석빙고와 같은 형식을 보인다. 건축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1982년 석빙고 주위의 보수작업 때 ‘숭정기원이경술십이월(崇情紀元二庚戌十二月)’이라 쓰여진 건성비(建城碑)가 발견되어 1730년에 축조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현풍현지(玄風縣誌)」에 석빙고가 현(縣)의 동일리(東一里)에 있다고 기록되어있다. 따라서 규모는 작지만 경주 석빙고(1738년)와 안동 석빙고(1737~40년)보다 시대가 앞서고 현풍이라는 조그만 고을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 전 경



▲ 입 구

75. 모원재 (慕遠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자모리 268번지
- 건립년대 : 1985년
- 건축규모 : 일 괵(2동)

① 재 실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② 대문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증(贈) 가선대부(嘉善大夫) 차순라(車順羅)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재사이다. 대부분 연안차씨(延安車氏)들이 모여 사는 자모리 회나무 옆 이 마을의 구심점이 되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서향한 대문채를 들어서면 마당을 사이에 두고 모원재는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다. 재는 가운데 2칸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 1칸씩을 들인 평면으로 앞쪽으로 퇴칸을 설치하고 양 측면과 배면에 퇴를 덧 붙였다. 그리고 온돌방 뒤편에 벽장을 설치하고 마루와 온돌방과는 모두 4분합 들어열개문을 달아 4칸을 하나의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돌방 전면은 문지방 아래에 머름을 두고 쌍여단이 띠살문을, 마루 뒤편 역시 온돌방과 마찬가지로 머름을 두고 골판벽에 쌍여단이 골판문을 설치하였다. 기단은 외부노출면을 다듬질한 돌로 축조한 후 정형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정면에만 원기둥을 사용하고 그 외는 모두 네모기둥을 사용하였다.

상부구조는 대량(大樑) 위에 동자주(童子柱)를 세워 종량(宗樑)을 받게 한 후 원형판대공(圓形板臺工)을 세운 건실한 5량가구이며 주간사이에는 창방(昌枋) 위에 소로(小累)를 넣어 처마도리 장여를 받게 한 소로수장 굴도리집이다. 벽체는 회분벽하고 목부에 니스칠하여 깨끗하다.

대문채는 가운데 대문간을 두고 좌우에 방을 넣은 3량구조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 정 면



▲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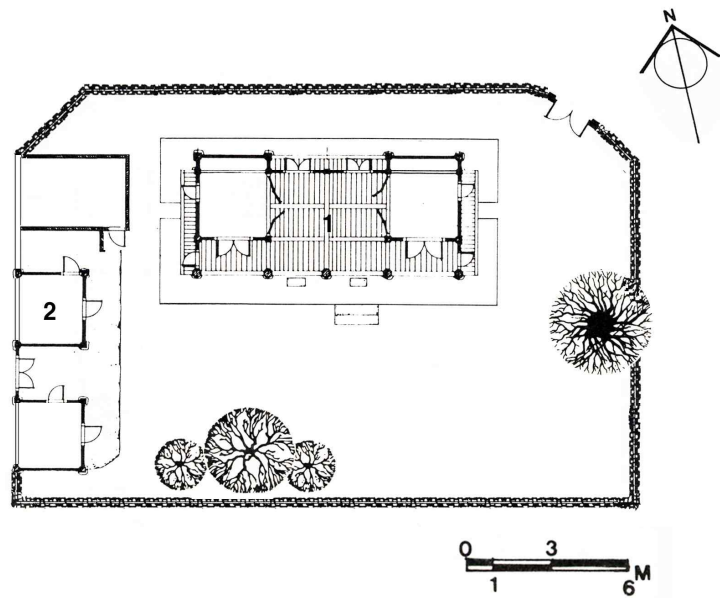
▲ 좌측면



▲ 상부구조



▲ 처 마



모원재 배치평면도

76. 포산사 (苞山祠)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지리 751번지
- 건립년대 : 1959년
- 건축규모 : 일 괵(2동)

① 포산사 - 정면 3칸,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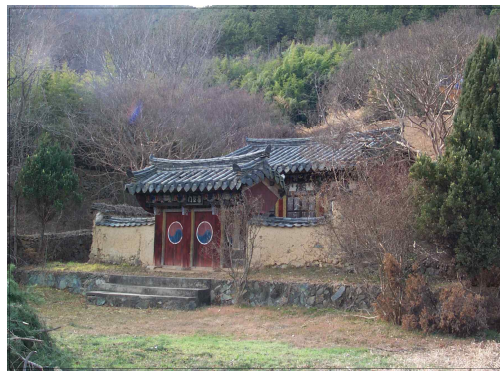
② 숙연문 - 정면 3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포산사는 원당(院塘)마을 뒷산인 대니산(戴尼山)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배향인물은 1123년(인종 1) 송나라에서 고려에 귀화하여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를 지낸 시조 정의공(正懿公) 광경(郭鏡:1117-1179)을 비롯하여 이부상서 포산백 광기정(郭基正), 병부상서 정간공 광한정(郭漢正), 교위공 광자의(郭子義), 진주·안주목사 및 훈원원판사를 역임한 목사공 광순종(郭順宗) 등 5위를 봉안하고 매년 음력 정월 초엿새날 유림봉사(儒林奉事)하고 있다.

정의공 광경은 호를 암곡(巖谷)이라 하며 송나라 관서(關西)인 홍농인(弘農人)으로 문연각(文淵閣)의 한림학사로서 7명의 학사들과 함께 고려 인종 11년(1133) 고려에 입국하였다. 인종 16년(1138)에 과거에 급제하여 문하성의 최고관직인 문하시중평장사에 이르렀고,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의 작위와 포산군(苞山君)에 봉해짐에 따라 본관을 포산으로 하였다. 조선조에 이르러 포산현이 현풍현으로 개편됨에 따라 현풍으로 부르게 되었다.

포산사의 주위에는 방형의 토석담장을 둘렀으며 정면에는 삼간인 숙연문(肅然門)을 세웠다.



▲ 전 경

정당(正堂)인 포산사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기와집인데, 얇게 축조한 기단 위에 원주를 세워 3통칸의 평면을 형성하였다. 가구는 3량가이며 주두 상부에는 2익공으로 장식하였다.



▲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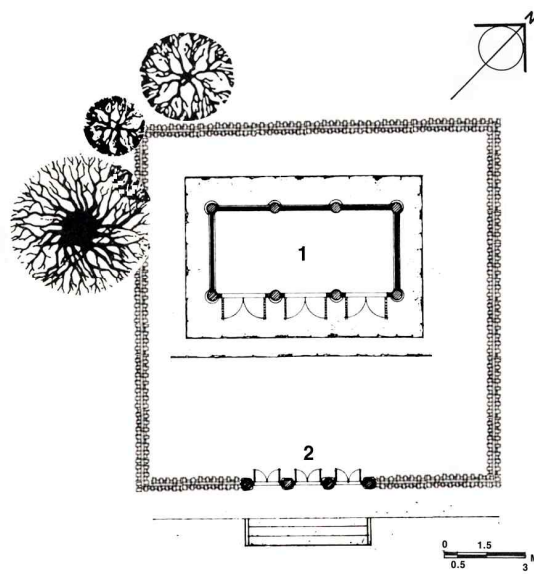
▲ 좌측면



▲ 익공상세



▲ 상부구조



포산사 배치평면도

77. 추원당 (追遠堂)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지리 722-1번지
- 건립년대 : 1955년
- 건축규모 : 일 괵
- ① 재 실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흙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곽순종(郭順宗)을 위한 재사로 포산사(苞山祠)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곽순종(1438-1458)은 자를 이원(而源)이라 하고 1454년(단종 2) 무과에 급제하였다. 세종 때 진주 목사, 안주 목사 등을 거쳐 훈련원판사(訓練院判事)가 되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가던 중 개령역관에서 죽었고 포산사에 배향되어 있다.

곽안방을 모신 추보당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당으로 들 수 있는 대문채는 별도로 두지 않고 계단을 두고 담장을 둘러 방형 대지 안에 남동향으로 당이 자리하고 있다.



▲ 원 경

추보당보다 1칸이 적은 정면 4칸 측면 1칸반 규모의 건물이며 평면은 중당협실형이다. 다만 추보당과의 차이점은 마루와 방사이에 분합문을 설치한 점과 상부구조가 3량이며 종도리 하부에 뜯장여를 설치한 점 외에는 동일하나 일식기와를 얹고 회분벽하여 전통적인 맛은 약하다.



▲ 정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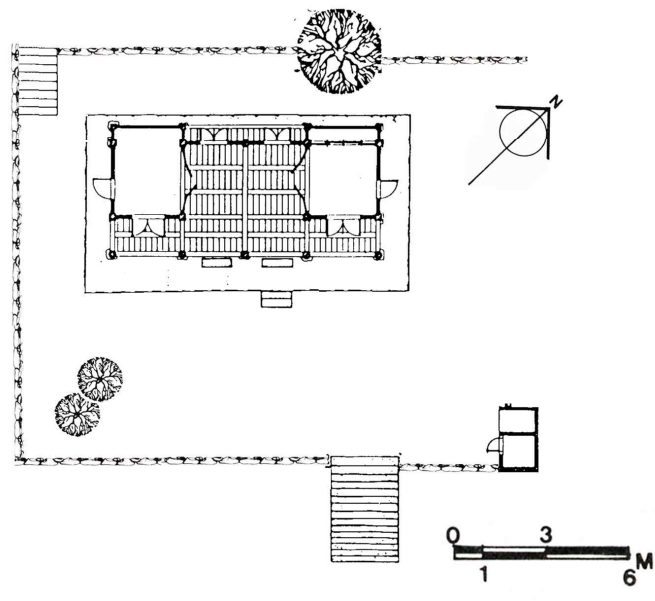
▲ 좌측면



▲ 상부구조



▲ 기둥머리



추원당 배치평면도

78. 김병순가옥 (金秉淳家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지1리 1280번지
- 건립년대 : 1857년
- 건축규모 : 정면 7칸, 측면 1칸반, 흙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본 가옥은 현재 정침만 남아있으며 정침의 규모로 미루어 보아 여러 채의 건물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 규모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가옥은 정침이 남향으로 자리하고 우측 편에 허물어진 헛간채가 있으나 주변에 담장이나 다른 건물은 없으며 현재 사람이 살지 않아 건물이 매우 쇠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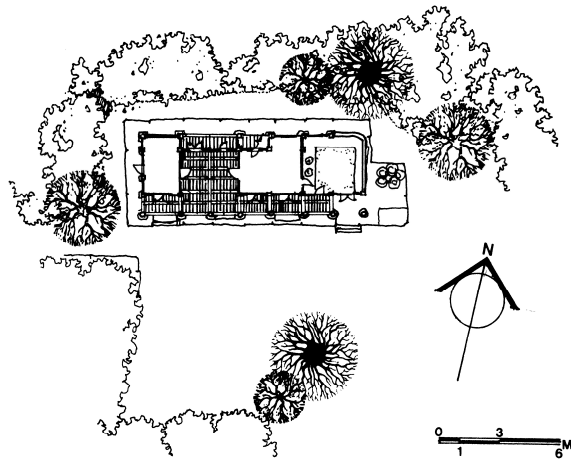
정침은 홑집 7칸이나 되는 제법 규모가 큰 건물이다. 평면은 좌측으로부터 건너방, 2칸 대청, 2칸 안방 그리고 2칸 부엌이 연결되어 있다. 좌측온돌방 전면에 현함을 설치하고 퇴칸이 부엌까지 확대되어 있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아마 좌측 온돌방은 우측 온돌방과는 사용자의 격이 다른 듯하며 부엌과 퇴칸을 막고 있는 벽체와 문의 구성법 그리고 부엌 우측 벽과 배면 벽을 흙벽으로 쌓고 상부를 개방시킨 점등을 살펴볼 때 환기에 매우 신경을 쓴 듯하다.

건물의 입면구성은 정면만 원기둥을 사용하고 납도리에 원형판대공을 세운 3량 맞배지붕을 올렸다. 그리고 앞쪽 기둥에 기대어 설치된 시렁이 매우 토속적인 맛을 느끼게 한다.



▲ 정 면



김병순가옥 배치평면도

79. 이양서원 (尼陽書院)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2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대리 907-4번지
- 건립년대 : 숙종 33년(1707)창건, 1954년 중건
- 건축규모 : 일 괵(8동)
 - ① 강 당(景 堂) - 정면 7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② 사 당(淸白祠) - 정면 3칸, 측면 2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③ 동 재 - 정면 3칸, 측면 1칸반, 홑처마, 맞배지붕
 - ④ 서 재 - 정면 3칸, 측면 1칸반, 홑처마, 맞배지붕
 - ⑤ 외삼문(尊道門)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팔작+숫을지붕
 - ⑥ 내삼문 - 정면 2칸반,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⑦ 고직사 - 정면 4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⑧ 대문채 - 정면 4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세조 때 이시애난(李施愛亂)을 평정한 공으로 좌익공신(佐翼功臣)이 되었으며 세조 9년에 청백리(淸白吏)에 녹선(祿選)된 7인 중 한 분인 곽안방(郭安邦) 선생을 배향하기 위해 조선 숙종 33년(1707)에 건립된 서원이다. 그러나 대원군(大院君) 서원철폐령(書院撤廢令)에 의해 강당(講堂), 외삼문(外三門) 및 관리사(管理舍)만 남기고 훼손되었던 것을 1954년에 사당을 복원하고 1982년에는 동·서재를 건립하여 지금에 이른다.

곽안방공은 세종말 문신으로 자는 여주(汝柱)이고 본관은 현풍이다. 1467년(세조 13) 이시애난에 공으로 원종에 녹하고 해남군수 때 생사당이 세워졌다.



▲ 원 경

서원의 배치는 강당과 외삼문이 강학공간의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강당 우측으로 대지를 한단 높여 내삼문과 사당이 자리하는 제향공간을 두어 전체적으로 좌학우묘(左廟右學)의 배치법을 지니고 있으며 동남향하고 있다. 그리고 사당 우측 편으로 관리사와 장판고(藏板庫) 그리고 관리사 출입을 위한 대문채를 배치시켜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사당인 청백사(淸白祠)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6칸을 모두 하나의 공간으로 하여 바닥에 우물마루를 깔고 위패를 배설하였다. 정면에만 매칸 쌍여닫이 골판문을 달고 그외는 모두 심벽으로 마감하였다. 정면 기둥만 원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는 주두만 얹고 살미가 생략된 무익공형식이며 주칸은 소로를 삽입한 3량가구의 건물이다.

위패는 곽안방을 주향(主享)으로 연일당(燕日堂) 곽지운(郭之雲), 만주재(晩籌齋) 곽규(郭 尙), 탁청헌(濯淸軒) 곽황(郭 晃)을 모시고 있으며 춘추향사(春秋享祀)를 지내고 있다.



▲ 사 당

강당인 경무당은 화강석 견치석을 3단으로 쌓은 기단 위에 정면 7칸 측면 1칸반 규모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나 주변 서원의 강당들 보다 칸수(間數)를 많이 두었다. 평면의 모양은 가운데 마루가 자리하고 좌우에 온돌방이 자리하는 중당협실형이며 앞쪽에 퇴칸을 두었다. 그리고 방과 마루사이에는 4분합들문을 두어 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방 전면문과 마루 뒤편문은 하부에 머름을 설치하였다. 단지 좌우 1칸은 후설(後設)된 느낌도 있으나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며 상부구조는 대량 위에 소로가 삽입된 원형판대공을 세운 3량가구로 장식성이 없는 간결한 모양새를 지니고 있으나 양퇴칸의 처마도리는 양협칸의 처마도리보다 한단 낮게 설치하여 기둥의 몸에 결구시키고 가적지붕을 올렸다.



▲ 강 당 정 면



▲ 우측면



▲ 좌측면 기둥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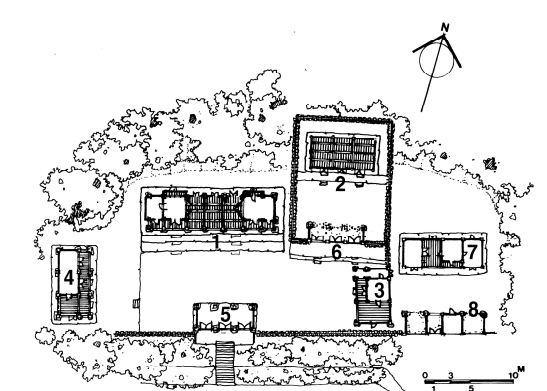
▲ 상부구조

1982년 복원된 동·서재는 전통적인 평면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동·서재의 평면이 가운데 마루를 두고 좌우에 온돌방이 배치되는 중당협실형이며 규모와 형식이 동일한데 비해 여기서는 동·서재의 평면과 형식이 같지 않아 산만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 서원에서 독특한 모양새를 지니고 있는 외삼문은 일상의 법식과는 차이를 지니고 있다. 보통의 향교나 서원의 외삼문은 어칸의 주고(柱高)를 양협칸보다 높은 솟을삼문이나 지붕의 높이가 동일한 평삼문(平三門)으로 만드는 것이 상례이나 여기서는 어칸(대문칸)을 중층으로 처리하여 상부에 루(樓)를 만들고 팔작지붕을 올렸고 좌우협칸은 단층으로 꾸미고 지붕을 한단 낮춘 후 합각을 설치한 그 예를 찾기가 쉽지 않는 독특한 모양새를 지니고 있다.



▲ 외삼문



이양서원 배치평면도

80. 추보당 (追報堂)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대리 667-2번지
- 건립년대 : 조선 후기 건립, 1982년 중수
- 건축규모 : 정면 5칸,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추보당은 청백리(淸白吏) 곽안방(郭安邦)의 제청(祭廳)으로 솔예마을의 뒤편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곽안방의 자는 여주(汝柱)이고 본관은 포산(苞山)이다. 시조 곽경(郭鏡)의 12대손으로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과 함께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좌익공신(佐翼功臣) 원종이등훈(原從二等勳)에 녹선(祿選)되었고 청백리로서 국승(國乘)에 올랐다. 추보당 정면에 「포산고가(苞山古家)」라는 편액이 걸려있고 대청에는 「추보당(追報堂)」이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솔예마을 뒤편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본 당은 주변에 담장이나 출입문을 두지 않고 당으로 오르는 계단만 설치되어있다.

추보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중당협실형 평면을 지니고 있다. 가운데 널찍한 3칸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측면 폭이 1칸반 정도 폭의 온돌방을 배치하고 앞쪽으로 반칸 폭의 퇴칸을 두었다. 그리고 방 뒤편에 반칸 폭의 벽장을 설치하고 마루 뒤편에도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방과 마루사이에는 분합문을 두지 않고 외여단이문을 설치한 것은 아마도 마루공간이 넉넉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온돌방 전면창호는 머름을 설치한 쌍여단이 떠살문을 달고 마루 뒤편 역시 머름을 두고 관벽에 떠장을 둔 쌍여단이 골판문을 달았다.

상부구조는 5량가이나 온돌방부분은 내진주 위에서 함보형식을 취하고 마루부분은 통재(通材)를 전후로 건너질렀으며 만곡이 심한 자연재를 사용하여 매우 천연스럽다. 마루상부는 제형판대공을 세우고 방부분은 동자주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고 있으나 뜬장여를 첨가하였으며 창방 위에는 소로를 얹고 홑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 정 면



▲ 좌측면



▲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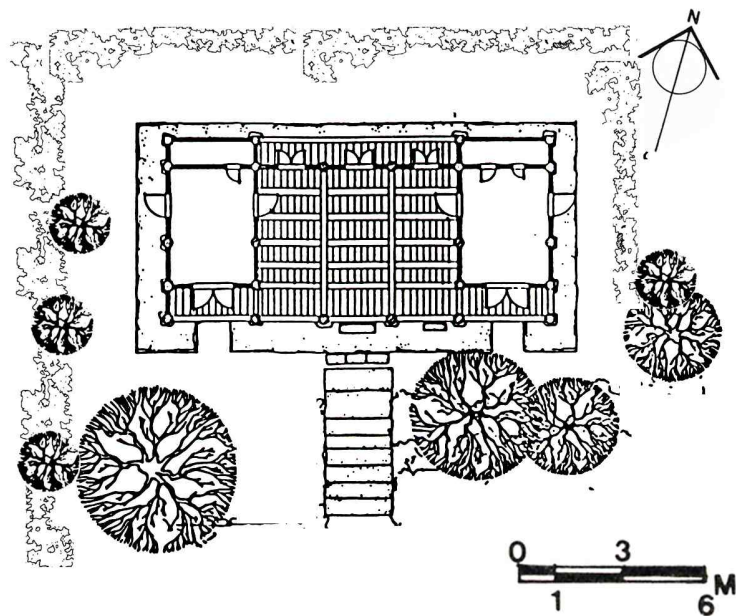
▲ 기둥머리



▲ 상부구조 1(마루상부)



▲ 상부구조 2(온돌방상부)



추보당 배치평면도

81. 현풍곽씨12정려각 (玄風郭氏12旌閭閣)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9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대1리 1348-2번지
- 건립년대 : 1963년 중창
- 건축규모 : 일 광(2동)
 - ① 정여각 - 정면 12칸,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② 삼강문 - 정면 1칸, 겹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건물은 1598년(선조 31)부터 영조 때까지 솔례촌(率禮村)의 곽씨 일문(一門)에 정려를 받은 28인 12정려를 한 곳에 모신 정려각으로서 조선 영조때 한곳에 모아 세웠으나 6.25전란으로 4동의 여각이 소실되고 비석 1기가 파손된 것을 1963년에 현재와 같은 1동의 여각으로 중건하였다.

효자 곽이상(郭履常), 곽이후(郭履厚), 열부(烈婦) 거창 신씨(居昌 愼氏), 곽씨(郭氏)등은 1598년(선조 31)에 정려를 받았고, 사효자 곽결(郭潔), 곽청(郭淸), 곽동(郭洞), 곽호(郭浩)와 열부 광주이씨(廣州李氏)는 선조때, 열부 밀양 박씨(密陽朴氏)는 중종때에, 열부 안동 권씨(安東權氏)는 인조때에, 열부 전의이씨(全義李氏)는 영조때 정려를 받았다.

12정려각은 정면 12칸, 측면 2칸 규모의 매우 긴 건물로 남동향으로 자리를 정하고 출입문인 삼강문(三綱門)을 두어 여각내부에 들 수 있도록 하면서 주변은 방형의 토장을 둘렀다.

외별대 화강석 기단 위에 세워진 여각은 매칸 정면에만 홍살을 세우고 상부에는 아자살창을 넣어 내부의 정여와 비석이 잘 보이도록 하였다. 건축양식은 외1출목 3제공의 주심포계열이며 주칸에는 화반을 넣은 주심포계열이며 5량구조에 팔작지붕을 덮었다.

건물과 현관은 최근의 것이나 12정려각은 전국에서도 그 유례가 흔치 않은 것 중의 하나로써 그 역사성과 정신적인 의의를 고려한다면 중요한 민족사적 유산이 되고 있다.



▲ 전 경



▲ 정 면



▲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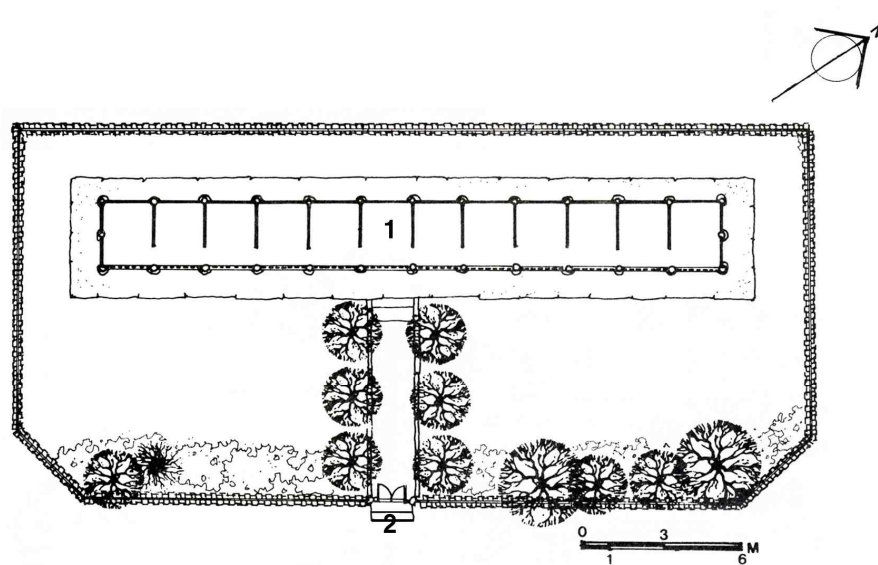
▲ 좌측면



▲ 공포상세



▲ 삼강문 익공상세



현풍곽씨12정려각 배치평면도

82. 김석영가옥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지1리 1287번지
- 건립년대 : 1956년 중수
- 건축규모 : 정면 5칸, 측면 2칸, 흙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서흥(瑞興) 김씨 집성촌(集性村)인 지1리, 즉 못골 뒷산기슭에 남향으로 자리한 본 가옥은 6.25 이후 정침부분만 중건하다가 중단된 가옥이다. 원래의 가옥은 튼튼자형배치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정침 전면에 대문채와 고방채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 뒤편에 사랑채와 중사랑채가 위치하였다. 그리고 사랑채 뒤편 좌우에 아래채와 광채가 자리하였으며 정침채가 가장 뒤편에 자리한 대택(大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모두 소실되었고 전후 정침만이라도 복원할 요량으로 골조를 세우고 겨우 방을 들였을 때 바깥어른이 사망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마을 가장 안쪽 산기슭 경사지에 서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안채 전면에 사랑채를 복원할 요량으로 안채의 기단을 높여 축조한 모양이다. 평면구성은 전통한옥과는 달리 전면에 퇴칸을 두어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온돌방의 동선을 좀 더 원활히 하고자 하였던 모양이다. 중앙 1칸 마루를 만들기 위해 배면 쪽 머름을 들인 문틀과 심벽까지 공사를 마쳤으며 하방에 청판을 끼울 요량으로 흙까지 만들어 두었다. 그리고 우협칸 온돌방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현재 판재로 막아 두었다. 좌협칸 온돌방도 전면에 퇴칸을 만들지 못한 채 평상을 놓아 마루를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 기둥 상부는 모양을 갖추려고 노력한 듯 납도리형식에 침차 모양 부재 위에 소로를 끼워 장여를 받게 하였다. 그리고 마루대공을 세우고 3량구조로 상부구조를 결조하고 팔작지붕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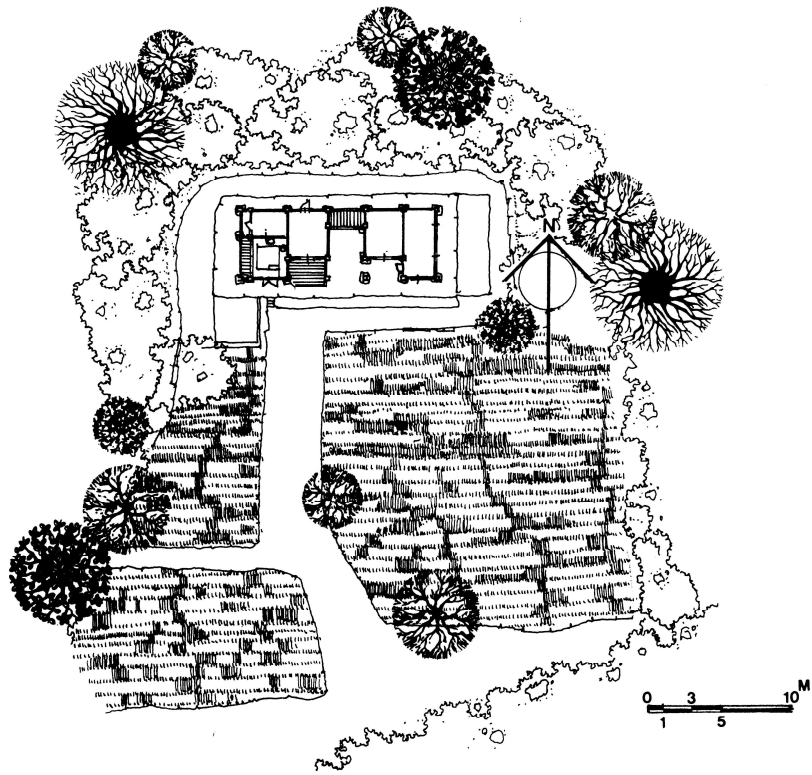
종도리 장여하부에 “中元丙申十月初二日卯時立柱同年三月上樑”이라는 목서명이 남아 있다.



▲ 정 면



▲ 상부구조



김석영가옥 배치평면도

83. 유연재 (油然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대1리 713번지
- 건립년대 : 1932년 초건, 1999년 개축
- 건축규모 : 일 괵(3동)

① 재 실 - 정면 4칸,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② 관리사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③ 대문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솟을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현풍곽씨(玄風郭氏) 곽삼길(郭三吉)선생과 곽수(郭樹)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재사(齋舍)로 솔레마을 뒷편 산기슭에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다.



▲ 원 경

재실의 배치는 남향으로 자리한 재실과 대향하여 출입문인 솟을삼문이 자리하고 재실 전면 우측에 관리사를 두면서 주변은 한식 토석담장을 둘러 일괵을 형성하고 있다.

기단은 99년 개축하면서 화강석 판석(板石)과 탕주(撐柱)를 세우고 상부에 얇은 갑석(甲石)을 두른 후 난간을 세운 일중 가구식(架構式) 기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가운데에 석계(石階)를 설치한 후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중당협실형의 평면을 앉혔다. 가운데 2칸 마루를 두고 좌우에 정면 1칸 측면 1칸반 정도의 온돌방을 배치하고 앞쪽에 4칸에 걸친 퇴칸을 두었다. 또한 양쪽 온돌방 뒤편에 벽장을 두었고 마루 뒤편에는 퇴를 두었다.

정면에만 원기둥을 세우고 마루 상부 대량은 전후를 건너지르는 통재(通材)를 얹었고 온돌방 부분은 퇴량(退樑)과 대량이 내진주(內陣柱) 위에서 합보시켰다. 상부구조는 장식하지 않은 납도리 3량가구이며 마루부분은 제형판대공을 세우고 방 부분은 동자주대공(童子柱臺工)을 세웠다. 그러나 정면에 4짝 유리미서기문과 목부에 파니쉬로 마감하여 전통적인 맛은 다소 감소되었다.

대문채는 어칸부분의 지붕을 한단 높인 솟을지붕이며 3량가구의 납도리집이다.

배치 및 평면이 재의 전면 좌측에 관리사 용도의 삼간 홑집을 제외하면 유가면 상리의 우

남재(雲南齋)와 거의 흡사하다.



▲ 정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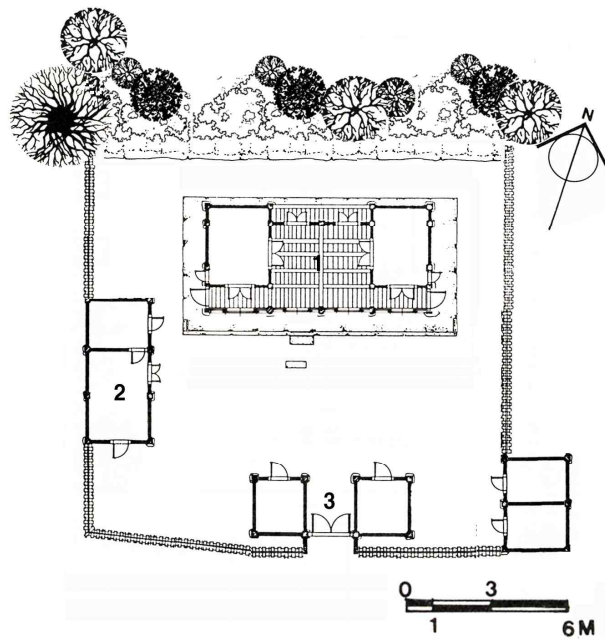
▲ 우측면



▲ 처마상세



▲ 상부구조



유연재 배치평면도

84. 용연재 (龍淵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지리 1251번지
- 건립년대 : 1983년
- 건축규모 : 일 괵(2동)

① 재 실 - 정면 5칸, 측면 1칸반, 흙처마, 팔작지붕

② 평삼문 - 정면 3칸, 측면 1칸, 흙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서흥(瑞興) 김용제(金用濟)와 김영운(金永運) 양대(兩代)를 추모하기 위한 재사이나 원래 정면 5칸 측면 1칸반 규모로 전퇴칸을 둔 중당협실형 평면에 박공지붕 건물이었으나 최근 현재와 같이 개축되었다.

마을 초입부에 남동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재의 출입문인 평삼문을 두고 주변은 방형 시멘트담장을 돌렸다.



▲ 원 경

어칸과 좌협칸에 걸쳐 마루를 두고 좌측에 1칸 온돌방을, 우측으로 별실로 구획된 온돌방 2칸을 설치하였으며 전퇴칸을 둔 중당협실형의 평면을 지니고 있다. 온돌방 정면문은 하부에 궁판을 끼운 띠살문을 설치하고 마루 뒤편에는 쌍여닫이 골판문을 두었다.

그러나 문의 높이가 높고 벽체도 시멘트몰탈로 마감되어 옛 맛은 반감되었다. 정면만 원주를 사용하였고 기둥상부는 살미를 두지 않은 무익공 소로수장으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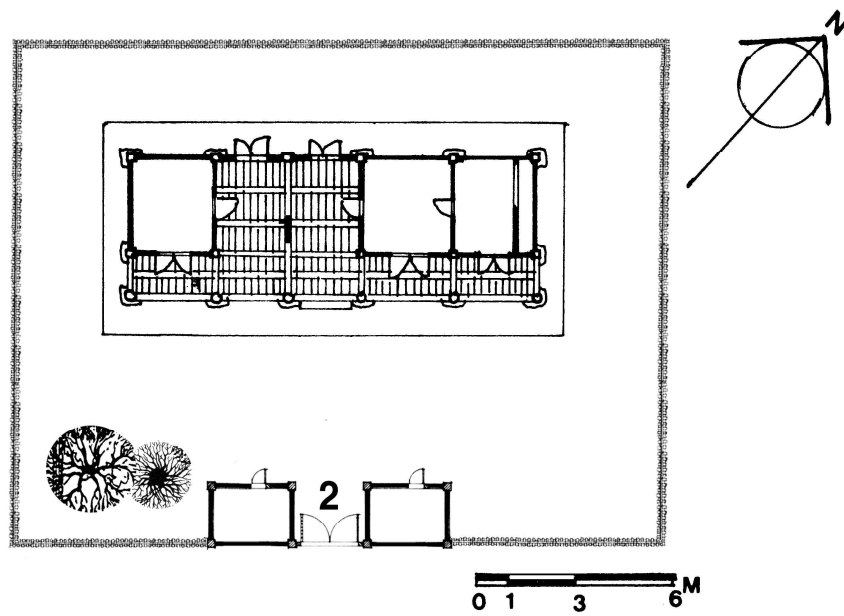
그리고 상부구조는 원형판대공으로 종도리를 받게 한 간결한 5량가구이며 지붕은 양 측면에 합각을 둔 팔작지붕이다.



▲ 정 면



▲ 상부구조



용연재 배치평면도

85. 한훤당고택 (寒暄堂古宅)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지리 1143번지
- 건립년대 : 미상, 1951년 중건
- 건축규모 : 일 괵(8동)
 - ① 광재헌(光齋軒) - 정면 6칸, 측면 1칸반, 흙처마, 팔작지붕
 - ② 정 침(正 寢) - 정면 7칸, 측면 2칸반, 흙처마, 팔작지붕
 - ③ 사 당(祠 堂) - 정면 3칸, 측면 1칸반, 겹처마, 맞배지붕
 - ④ 아래채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흙처마, 맞배지붕
 - ⑤ 고방채 - 정면 4칸, 측면 1칸, 흙처마, 맞배지붕
 - ⑥ 대문채 - 정면 5칸, 측면 1칸, 흙처마, 맞배지붕
 - ⑦ 내삼문 - 정면 3칸, 측면 1칸, 흙처마, 맞배지붕
 - ⑧ 일각문 - 정면 1칸, 흙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의 11대손인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한 김정재(金鼎濟)가 1719년 구지면(求智面) 도동(道洞)에서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지리는 서흥김씨(瑞興金氏)의 동족부락(同族部落)이 형성되었다. 이 마을명칭은 마을의 형국이 나비처럼 생겨서 마을 앞에 못을 파면 세거할 곳이 되겠다는 말에서 유래하여 못을 파고 못골 또는 지리이라 하였다한다.

마을의 가장 중앙부 우측 산기슭에 남동향으로 자리하고 있는 고택은 서흥 김씨 대종가이며 일명 김굉필의 재청이 있다하여 못골입청(入廳)이라고도 한다.

본 고택의 공간은 크게 3개영역으로 구분된다. 전면 우측으로 일각문(一角門)을 낸 김굉필 선생의 부조위재청(不祧位齋廳)인 광재헌(光齋軒)이 자리하고 있으며 우측 뒤편으로 조금 물러 솟을대문을 내고 주거공간이 펼쳐지며 주거공간 뒤편 높은 곳에 사당이 자리하고 있는 제향공간(祭享空間)을 펼쳤다.



▲ 원 경

고택의 사랑채 기능을 하고 있는 광재헌은 바깥에서 제청으로 직접 들 수 있도록 일각문을 두고 전퇴칸을 둔 6칸의 큰 건물을 세웠다. 중앙 3칸 마루를 중심으로 좌측에 온돌방 1칸을 두고 우측에 2칸통의 온돌방을 둔 중당협실형의 평면을 꾸몄다. 그리고 온돌방 뒤편에 벽장을 두고 온돌방 측면에 뿔마루를 들였다. 뿐만 아니라 마루와 방은 4분합들문을 설치하여 6칸을 모두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었다.

제법 높은 자연석 기단을 축조한 후 정면에만 원기둥을 세우고 기둥상부는 살미를 생략한 무익공으로 꾸미고 주칸은 창방 위에 소로를 얹은 소로수장이다. 그리고 마루 상부는 천연스런 자연곡재인 대량과 종량을 얹고 제형판대공을 세웠으며 온돌방부분은 내진주 위에서 대량과 퇴량을 합보시켰다. 그리고 중도리와 종도리로 5량가구로 상부구조를 결조하고 뽕나무와 회벽으로 마감하여 깨끗하나 앞쪽에 4짝 유리미서기문과 고창을 두어 전통적 한옥의 느낌은 반감되었다.

제청 정면에 「한원고택(寒暄古宅)」이라는 편액이 걸려있고 마루 뒤편 상벽에 대원군(大院君)의 친필이라는 「소학세가(小學世家)」라는 편액이 걸려 있어 세가의 당당함을 엿볼 수 있다.

광헌재의 우측에 펼쳐진 주거부분은 동향하고 자리하는 정침을 중심으로 전면 좌우에 아래채와 고방채가 서로 마주보고 자리하고 주거공간의 출입문인 5칸규모의 솟을대문을 정침과 마주하여 전체적으로 튼구자형의 배치가 이루어졌으며 정침 뒤편에 산기슭의 경사를 이용하여 내삼문과 사당이 일곽을 이루고 있다.

정침은 제청의 평면과 유사한 중당협실형이나 남부지방에서는 찾기가 힘든 겹집형이다. 가운데 2칸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2칸온돌방이 겹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온돌방 앞쪽에 한 칸폭의 넓은 퇴칸을 6칸에 걸쳐 설치해 두고 우측편에 부엌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뒤편 1칸은 후설한 듯하며 건물의 모양이나 구조는 제청과 유사하다.

정침 뒤편 제향공간의 중심건물인 사당은 전퇴칸을 둔 3칸 규모의 건물이나 주거건축이나 제청보다는 격을 높인 겹처마에 맞배지붕을 올리고 단청을 시채하였다. 정침 앞쪽 좌측에 자리하고 있는 아래채는 전퇴칸을 둔 중당협실형 건물이며 대향하고 있는 고방채는 기능에 맞게 흙바닥이다.



▲ 제청 정 면



▲ 우측면



▲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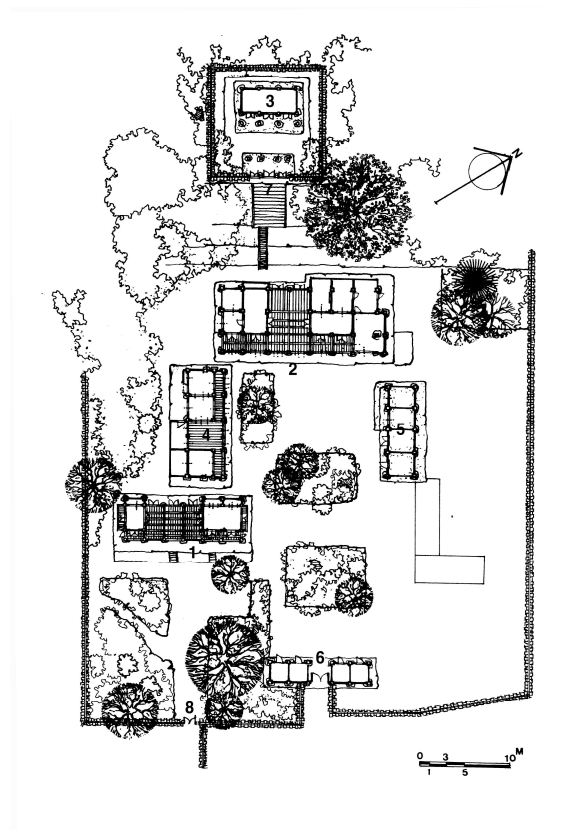
▲ 기둥상부 및 편액



▲ 마루상부구조



▲ 외삼문 상부양식



한원당고택 배치평면도

86. 해옹정 (海翁亭)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번계리
- 건립년대 : 1884년
- 건축규모 : 일 괵(2동)
 - ① 정 자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홀처마, 팔작지붕
 - ② 일각문 - 정면 1칸, 홀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정자는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지낸 도해정(蹈海亭) 채팔개(蔡八凱)를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것이다. 그는 조선시대 제3대 현풍현감을 지낸 채석견(蔡石堅)의 5세손이며, 효자 감무(監務) 채안(蔡安)의 아들이다. 병자호란 때는 오랑캐에 맞서 싸울 것을 주장한 주전론자였으며 난이 끝난 후 한성주부(漢城主簿),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參判) 등의 벼슬이 내려졌으나 불취하고 고향인 현풍으로 돌아왔다. 스스로 도해(蹈海)라고 호를 지었으나 사람들은 율리처사(栗里處士)라 불렀다. 그를 위하여 형성된 유림계는 현풍유림계의 효시이다.

앞쪽의 개울을 바라보면서 남서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개울 쪽을 향하여 경사진 대지를 이용하여 정자를 출입할 수 있는 일각문을 내고 주변에 계단식 한식토장을 돌렸다. 경사진 대지에 기단을 축조한 관계로 앞쪽은 매우 높으며 평면은 가운데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둔 중당협실형이다. 온돌방과 마루와는 4분합 들어열개문을 달았고 좌측온돌방 뒤편에 벽장을 두었다. 그리고 마루 뒤편에 퇴를 두었고 방 앞쪽은 퇴칸을 두고 양협칸 마루 앞쪽에 현함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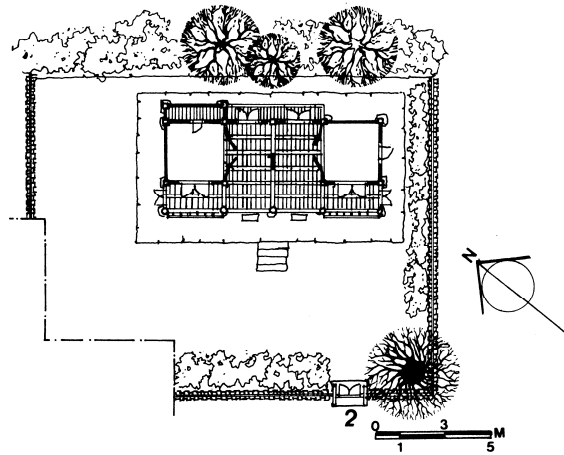
정면에만 원기둥을 사용하고 무익공 소로수장으로 장식하고 상부는 간결한 5량구조에 홀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용마루쌓기법은 이 지역에서 독특하게 볼 수 있는 외장기법을 지니고 있다. 마루상부에 “中元甲申崇禎一日甲子豈立柱上樑”이라는 묵서명이 있다.



▲ 전 경



▲ 근 경



해옹정 배치평면도

87. 우남재 (雲南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상리 139번지
- 건립년대 : 1917년 건립, 1987년 중건
- 건축규모 : 일 괵(2동)
 - ① 재 실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② 외삼문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솟을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고려말의 문신인 총부상서(摠部尙書) 성준득(成準得)과 성연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재사이다.

성준득공은 호를 동고(東皐)라 하고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1368년(공민왕 17) 총부상서(摠部尙書) 때 명나라 사신으로 경사(京師:南京)로부터 돌아오는데 황제가 손수 쓴 글을 주어 훈계(訓戒)하고 관복(冠服), 악기(樂器), 배신제복(陪臣祭服), 사서(四書), 육경(六經), 통감(統監), 한서(漢書)등의 서책을 가지고 돌아와 고려조의 대성악(大晟樂) 줄거리를 이룩했던 분이다.

건물의 격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산형대문(山形大門)을 들어서면 우남재가 남향하여 자리잡았으나 재의 전면에 알루미늄새시 창문을 설치하여 매우 어색하다.

정면 4칸 측면 1칸반 규모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로 평면구성은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이 자리하고 앞쪽으로 반간 폭의 퇴간이 마련된 중당협실형이다. 마루와 방사이에는 미서기문을 두어 전통적인 창호구성과는 차이를 보이고 마루 뒤편에 뒷마루를 부설해 두었

다. 그리고 초익공양식에 제형판대공을 세운 5량가구이나 퇴량을 사용치 않고 통재 대량을 엮고 주칸은 소를수장하고 목부는 바니쉬마감하고 회벽처리하였다.



▲ 원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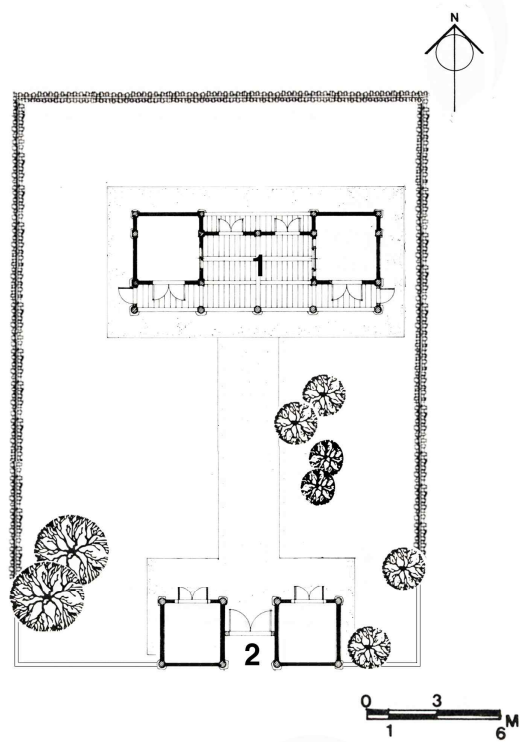
▲ 정 면



▲ 상부구조



▲ 익공상세



우남재 배치평면도

88. 경모당 (景慕堂)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1리 821번지
- 건립년대 : 1910년
- 건축규모 : 정면 4칸, 측면 1칸,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평후공(平厚公) 김겸(金謙), 양평공(良平公) 김세민(金世民), 별제공(別提公) 김정손(金貞孫)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경주 김씨의 재사인데, 원래 서원으로 건립하기 위해 넓은 대지를 확보한 관계로 강당 전면에 넓은 마당이 조성되었다.

재사는 북서향이고 있으며 주변은 블록으로 담장을 세우고 앞쪽에 출입문을 두었다.

재사는 정면 4칸 측면 1칸반 규모에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며 평면은 가운데 2칸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1칸 온돌방이 배치되고 앞쪽에 반칸 폭의 퇴칸이 설치된 중당협실형이다. 그리고 좌우 온돌방 측면에 퇴를 덧대었고 온돌방 뒤편에 벽장을 설치하였다.

상부구조는 자연스러움이 있는 만곡된 대량을 얹고 제형판대공을 세운 간결한 3량가구이다.



▲ 정 면



▲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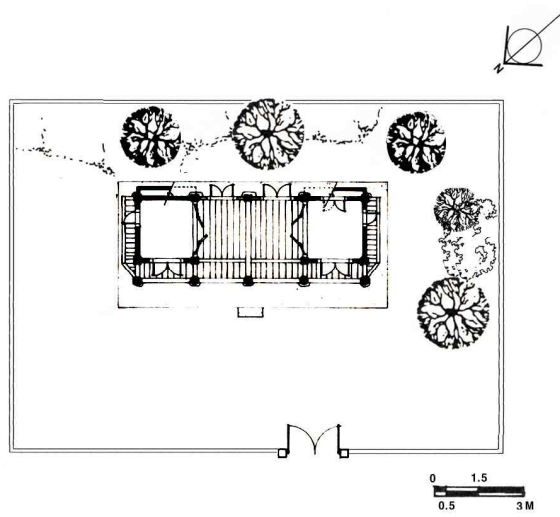
▲ 우측면



▲ 기둥상부



▲ 상부구조



경모당 배치평면도

89. 경제당 (景在堂)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1리 920번지
- 건립년대 : 1966년
- 건축규모 : 정면 5칸, 측면 1칸반, 홑처마, 우진각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상재헌(相在軒) 김여진(金汝振)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청도 김씨 재실이다. 재실 좌측에 난 일각문을 들어서면 우측으로 남서향하고 있는 관리사가 있으면 좌측으로 재실이 자리하고 있다.

경제당은 전통적인 재사건축물과는 모양새가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재사건축의 평면이 중당협실형 평면을 취하는 것이 통례인데 여기서는 정면 3칸 측면 2칸반 규모의 ㄱ자형 평면을 지니고 있다. 어칸과 우협칸에 걸쳐 2통칸의 온돌방을 두고 앞쪽에 반칸 폭의 퇴칸을 두었다. 그리고 좌협칸과 앞쪽으로 1칸 정도 더 확대하여 2칸 반 정도의 마루를 두었다. 앞쪽 1칸은 삼면을 개방하여 정자마루와 같은 모양새를 지니고 뒤편 마루는 측면과 배면을 막았다. 그러나 마루바닥에 장마루를 깔고 3량가에 홑처마 우진각지붕을 올렸으나 전통적인 건축미는 반감되었다.



▲ 전 경



▲ 정 면



▲ 좌측면



▲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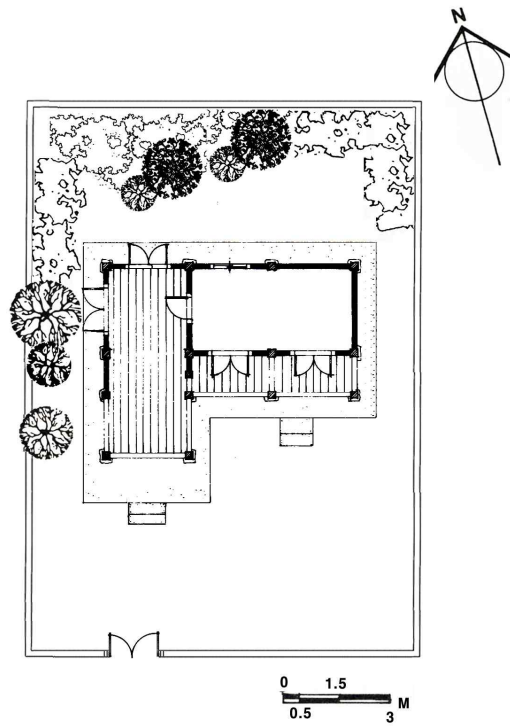


▲ 기둥머리



▲ 상부구조

재사와 대향하고 있는 관리사는 정면 5칸 측면 1칸반 규모의 건물로 온돌방 2칸과 광, 헛칸 등으로 평면이 구성되었다.



경제당 배치평면도

90. 김처정 · 재령이씨 효열각 (金處精 · 載寧李氏 孝烈閣)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유곡2리 739번지
- 건립년대 : 1699년
- 건축규모 : 일 괵(2동)

① 비 각 - 정면 2칸,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② 일각문 - 정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효자(孝子) 증(贈) 별검(別檢) 김처정(金處精) 별검공(別檢公)의 손자 여택(汝澤)의 처인 열녀(烈女) 재령이씨(載寧李氏)를 위해 세운 효열각으로 도로변 언덕배기에 자리잡고 있다.

효자 청도인(淸道人) 김처정은 재질이 탁월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세인들의 칭송을 받아왔다. 부친이 불치의 병으로 30년간 신음하였으나 하루같이 지성으로 봉양하였는데 병세가 악화되어 20년간 사람의 젖만을 먹고살았다. 그는 인근마을 유모를 찾아다니며 사람의 젖을 얻어 봉양하였는데 하루는 메추리를 먹고 싶다 하여 그것을 구하려 할 때 매가 메추리를 잡아 집 앞에 던져주어 그는 기뻐하며 봉양하였다. 이를 나라에서 알고 정려를 내렸다.

열녀 재령이씨는 김처정의 손자 김여택의 처로 평소 효성이 지극하고 부덕을 검비하였다. 그런데 남편이 우연히 병을 얻어 신음하자 극진히 치료하였으나 마침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에 그녀는 뒤따라 죽으려 하였으나 상중에 아이가 있어 참아오다가 출산 후 식음을 전폐하고 자진하여 뒤를 따랐다. 그 후 효심이 지극한 효자와 열녀의 깊은 뜻을 헤아려 나라에서 효열각을 세웠다.



▲ 전 경

효열각은 전면에 설치된 계단을 오르면 일각문과 방형토장으로 둘러싸인 안에 서향하여 자리하고 있다.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인데 좌측칸에는 「효자증별검김처정지각(孝子贈別檢金處精之閣)」, 우측칸에는 「열부학생김여탁처유인재령이씨지각(烈婦學生金汝澤妻儒人載寧李氏之閣)」이란 정려편액을 각각 걸어 두었다. 정면만 내부 정여가 보이도록 홍살을 세웠으며 양측면 배면은 벽체로 폐쇄하였다. 상부구조는 3량가이며 정면 기둥만 원기둥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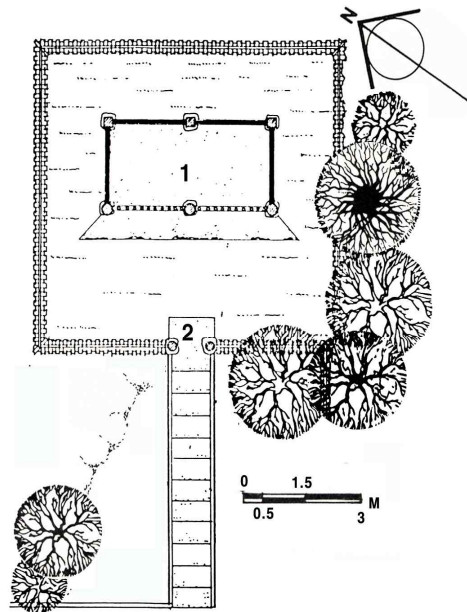
용하였으며 기둥 위에는 장식하고 겹치마 맞배지붕을 올리고 모로단청하였다.



▲ 정 면



▲ 익공상세



김처정 재령이씨효열각 배치평면도

91. 경모재 (景慕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양리 495번지
- 건립년대 : 1922년
- 건축규모 : 정면4 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1920년에 곽종민(郭鐘敏)이 건립한 곽씨 문중재실이며 재의 출입문이나 담장은 없다. 남서향으로 자리한 재는 정면 4칸 측면 1칸 반 규모에 홑처마 팔작지붕의 건물이다. 평면은 가운데 2칸 우물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들인 중당협실형으로 재실건축에 자주 채택되는 평면형이다. 전면에는 반 칸 규모의 퇴칸을 두었으며 마루와 방 사이에는 각기 4분합 들어열개문을 설치하였다. 가구는 대청 위에 원형판대공을 세워 마룟대와 장혀를 받게 한 3량가의 견실한 구조이다.



▲ 정 면



▲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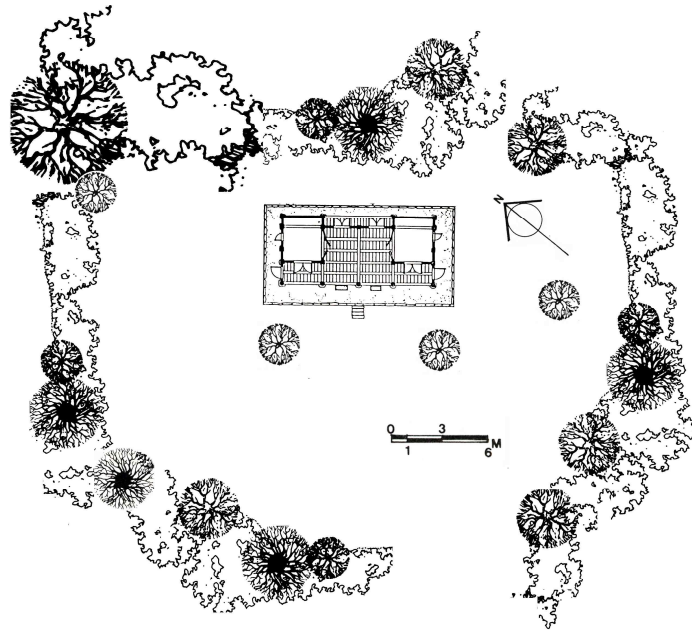
▲ 우측면



▲ 상부구조



▲ 기둥머리



경모재 배치평면도

92. 이애정 (二愛亭)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음리 631-1번지
- 건립년대 : 1932년
- 건축규모 : 정면 3칸, 측면 2칸, 홑처마, 우진각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계암(溪菴) 성기덕(成耆德:1884-1974)이 건립하였다. 성기덕은 애국지사였으며, 교육자이자 사상가이기도 했다. 창녕 학산리가 고향이었던 그는 ‘인심 좋은 곳에 가서 학문에 진념하라’는 부친의 유지에 따라 1920년 유가면 본말리에 계암서당(溪菴書堂)을 열고 학문을 강토하였다고 한다. 성선생은 한말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심재(深齋) 조궁섭(曹兢燮)과 소눌(所訥) 노상직(盧相稷)에게서 성리학을 수학했다.

돌담사이로 난 쪽문을 들어서면 우진각지붕을 한 정자가 우곡을 바라보면서 서향하여 자리잡고 있다.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좌측 협칸은 온돌방과 부엌이 겹으로 배치되고 어칸과 우협칸은 2온돌방을 배치하고 앞쪽에 한칸 폭의 퇴칸을 두었다. 또한 부엌 상부는 다락을 두었으며 3량구조에 홑처마 우진각지붕을 올렸으나 일식기와를 얹어 고태는 반감되었다.



▲ 전 경



▲ 정 면



▲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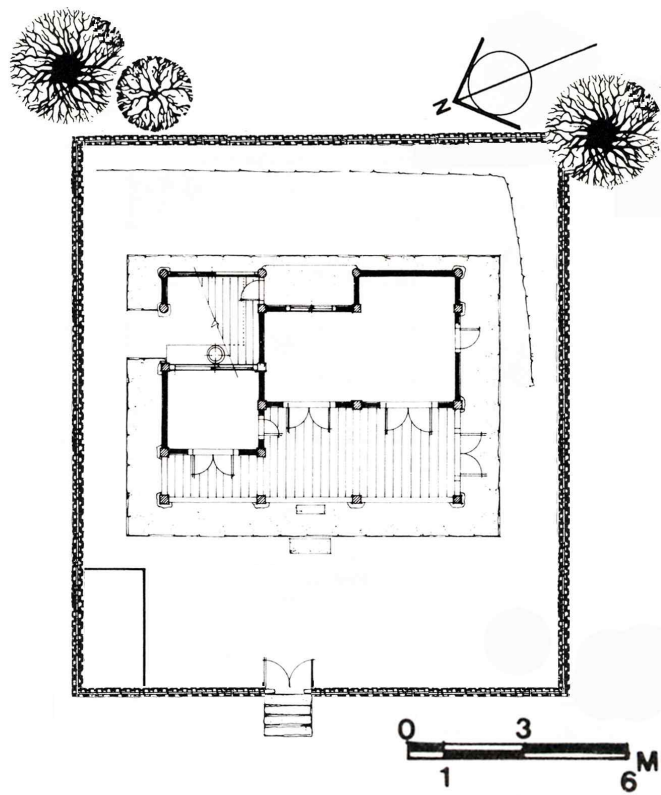
▲ 좌측면



▲ 기둥상부



▲ 마루 상부구조



이애정 배치평면도

93. 유가사 (瑜伽寺)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양리 144번지
- 건립년대 : 1772년 중건
- 건축규모 : 일 괵(8동)
 - ① 대웅전(大雄殿) - 정면 3칸, 측면 2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② 나한전(羅漢殿) - 정면 3칸,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③ 취적루(翠適樓) - 정면 3칸,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④ 산령각(山靈閣) - 정면 1칸,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⑤ 백화당(白華堂) - 정면 6칸,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⑥ 동산실(東山室)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⑦ 천왕문(天王門) - 정면 3칸, 측면 2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⑧ 용화전(龍華殿) - 정면 1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동화사의 말사인 유가사의 창건은 혜공왕(765~780)때의 창건설과 흥덕왕 2년(827)의 창건설이 있으나 분명하지 않다.

흥덕왕 때의 창건설(827년)로는 당시 도성국사(道成國師)가 창건에 주력하였다고 전해오고 있다. 그 후 진성여왕 3년(889)에 원잠(垣岑)국사가 중건하였고, 고려 문종 원년(1047)에 학변선사(學卞禪師)가 중수, 조선 문종 2년(1452)에 일행선사(逸行禪師)가 중수, 숙종 8년(1682)에 도경화상(道瓊和尚)이 대웅전 보수, 영조 48년(1772)에 낙암선사(洛巖禪師)가 중수하였다.

비슬산 천왕봉 아래 터를 잡은 유가사는 전형적인 산지중정식(山地中庭式)배치법을 지니고 있다. 산중턱 경사지에 터를 잡은 관계로 부지를 자연경사에 맞도록 삼단(三段)으로 조성하여 대웅전과 취적루(翠適樓)를 중심축으로 하여 좌우에 백화당(白華堂)과 동산실(東山室)을 둠으로 구자형(口字形) 가람배치가 이루어졌다. 중정 가운데 삼층석탑을 두었으며 취적루 전면 한단 낮게 사천왕문(四天王門)을 얹었으며 대웅전 좌측에 나한전(羅漢殿), 용화전(龍華殿)과 산령각(山靈閣)을 배치하여 일괵을 이루고 있다.

● 대웅전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맞배기와집인데 장대석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柱礎)를 놓고 원주를 세웠다. 기둥사이에 창방(昌枋)을 끼우고 평방(平枋)을 얹었으며 그 위에는 공포를 얹었는데 주간(柱間)에도 1구씩의 공포를 얹은 내, 외2출목의 다포계(多包系) 건물이나 살미(山彌)구성법은 일반적인 다포건물과는 상이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앞쪽은 3계공형식의 살미를 만든 반면 내측은 출목(出目)만 있을 뿐 살미를 생략하고 곡반자로 상부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배면은 전면과는 달리 살미단은 출목장여(出目長舌)부분에서 직절되고 하

부는 단부(端部)를 궁글린 취두형(鷲頭形)으로 처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측면 가운데 기둥을 고주(高柱)로 처리하는 일반적인 법식과는 달리 평방하부에 지름이 다소 큰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하나 더 세워 상부 구조체가 다소 허약함을 보이고 있다. 상부구조는 2고주 5량가이며 내부는 통칸으로 처리하여 우물마루를 깔았다.



▲ 정면



▲ 좌측면



▲ 공포

● 나한전

나한전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주심포계열의 익공(翼工)집인데 첨차(檐遮)상부에 단장여(短長舌)를 끼웠고 내부는 장마루를 깔아 통칸으로 처리하였다.



▲ 나한전

취적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중층루각형 건물로 주심포계의 팔작기와집인데, 하부는 팔각형의 석주(石柱)를 사용하였으며 중정으로 오르는 계단을 두었다. 그리고 상부는 사면이 개방된 우물마루를 깎 루를 만들고 사물(四物)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건축양식은 외일출목 주심포계열(柱心包系列)이며 상부구조는 5량이다.

부속암자로는 도성암(道成庵)과 청신암, 그리고 비구니들의 수도처인 수도암이 있다.



▲ 취적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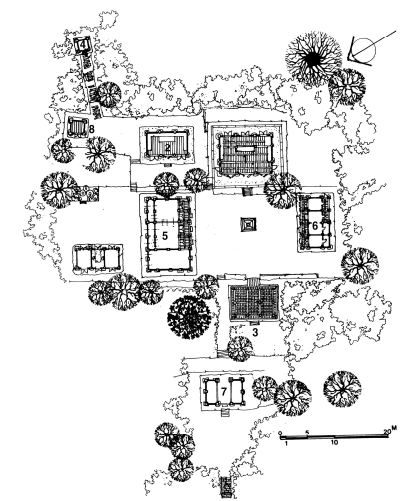
▲ 사천왕문



▲ 우측 요사채



▲ 좌측 요사채



유가사 배치평면도

94. 도성암 (道成庵)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양리 155번지
- 건립년대 : 전 신라 혜공왕
- 건축규모 : 일 괵(8동)
 - ① 대웅전 - 정면 3칸,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② 산신각 - 정면 3칸,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③ 요사채 - 정면 4칸, 측면 4칸,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양리 비슬산 정상부근에 자리잡고 있는 유가사의 부속암자이다. 유가사에서 북동향으로 난 산길을 따라 약 1,2Km 정도 올라가면 경상북도 3대 참선도장 중 한 곳인 도성암에 이른다. 신라 혜공왕(惠恭王) 때 도성(道成)이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암자 서편 산위에 도성이 수도하여 득도하였다는 ‘도성암(도성바위)’이 있다. 고려 성종 1년(982) 성범(成梵)선사가 중창하여 만일미타도장(萬日彌陀道場)을 개설하여 약 50여년간 계속되었으나 고려 초기 이후의 역사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1975년 증축불사를 시작하여 선원 등을 신축하였으며 일연이 지은 <玄風瑜伽寺道成庵事蹟>에는 개창주(開倉主)인 도성대사와 관기(觀機)대사칸의 기록이 남아있어 도성암의 사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있다.

도성암은 비슬산 정상부분에 남서향으로 자리한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좌측에 산신각이 위치하고 우측 승방과 대웅보전 전면에 자리하고 있는 삼층석탑이 암자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다. 참선도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관계로 규모 확장이 요구되었는지 현대식 조적조 건물이 무질서하게 건립되어 산사의 아름다움이 다소 상실되었으나 옛 맛은 그런 대로 남아있다.

대웅보전은 다포식건물로 매우 아담하고 균제미가 뛰어난 건물외관을 지니고 있다. 평면은 일반적인 법당의 법식에 따라 전통간에 우물마루를 시설하였으며 어칸 뒤편에 불단을 안치하였다. 건축양식은 외2출목 내3출목의 다포양식으로 어칸에만 2구의 주칸포(柱間包)를 설치하고 양협칸은 1구씩 주칸포를 설치하였다. 살미는 날카롭고 길게 빼내었으며 살미 상부에 연화(蓮花)를 얹은 앙서형(仰舌形)이다. 그리고 광두의 장식은 주칸포인 경우 용(龍)머리를, 주심포인 경우 봉(鳳)머리를 삽입하였다. 그리고 전 내부천장은 외진반자는 빗반자로, 내진반자는 소란반자로 처리하였으며 외기(外幾)부분은 충량(衝樑)과 더불어 매우 화려하다. 그리고 불단 상부의 중층 닻집은 다포식으로 보기 드문 수작이다.

대웅보전 앞에 있는 석탑은 높이가 246cm 기단의 폭이 184cm이며 탱석이 1개 있고 하대갑석은 2개로 구성되었으며 물당을 2개 두었다. 상대중석은 4개로 구성되었고 탱주를 세웠다. 갑석부연이 있으며 3층 이상은 마모가 심하여 정확한 모습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현존하는 옥개석의 체감비율로 볼 때 삼층석탑으로 추정되며 조성년대는 도성암의 개창년대와 동일한 신라 혜공왕(8세기) 때로 생각된다.



▲ 대웅보전 정면



▲ 우측면



▲ 좌측면



▲ 공포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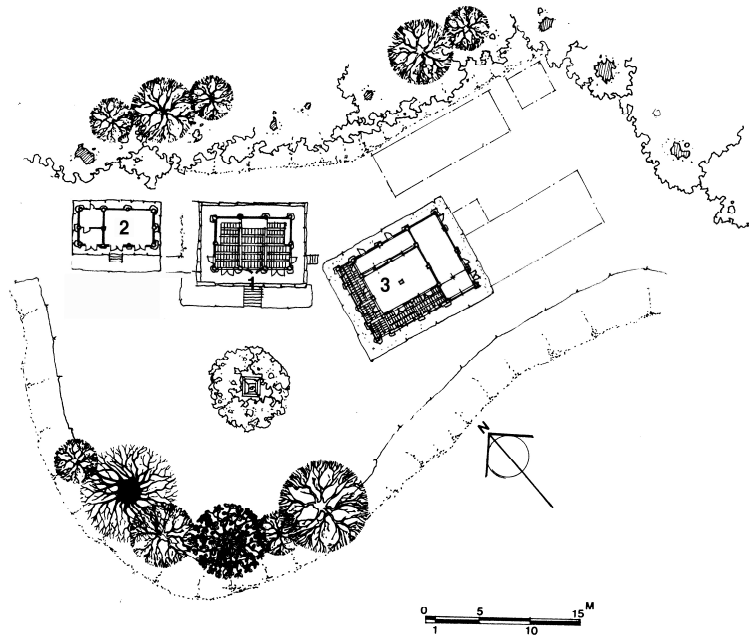
▲ 산신각



▲ 요사채



▲ 요사채 처마



도성암 배치평면도

95. 소재사 (消災寺)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용리 산4번지
- 건립년대 : 고려 공민왕 7년(1358)중창, 1875년 중건
- 건축규모 : 일 광(3동)
 - ① 대웅전(大雄殿) - 정면 3칸, 측면 3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② 명부전(冥府殿) - 정면 3칸, 측면 2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③ 산령각(山靈閣) - 정면 1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전해지나, 창건년대 및 창건자는 미상이다. 고려 공민왕 7년(1358)에 진보법사(眞寶法師)가 중창하였고 조선 세조 3년(1457)에 활윤선사(活輪禪師)가 중건하였으며, 중종 5년(1510)에는 외암선사(外巖禪師)가, 철종 8년(1857)에는 법노화상(法盧和尚)이 각각 중수하였으며 1976년 해체 복원된 바 있다. 그리고 사찰 주변에는 부도가, 최근에 조성된 자연휴양림내에는 석탑 3기, 사지(寺址) 3개소, 석불입상 등 불교 유적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소재사는 비슬산 남편 중턱에 서향하여 자리잡았는데 경내에는 서향한 대웅전 우측에 북서향으로 명부전(冥府殿)이 자리하고 대웅전과 명부전 사이로 산신각(山神閣)이 자리하여 정형적인 배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 전 경

● 대웅전

대웅전은 정, 측면 어칸 칸살을 험칸보다 넓게 잡고 어칸 뒷편에 불단을 배치한 일반적인 법당 평면이다. 외2출목 내3출목의 다포양식의 공포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배면 쪽 살미는 정면과는 달리 살미를 만들지 않고 단부를 직절하거나 3분변작(三分變作)하여 선각(線刻)이나 초각(草刻)은 생략하였다. 양측면의 가운데 2개 기둥은 고주를 사용하였고 상부구조는 5량가구이며 맞배지붕을 올렸다.



▲ 정 면



▲ 좌측면



▲ 우측면



▲ 천 정



▲ 공 포

● 명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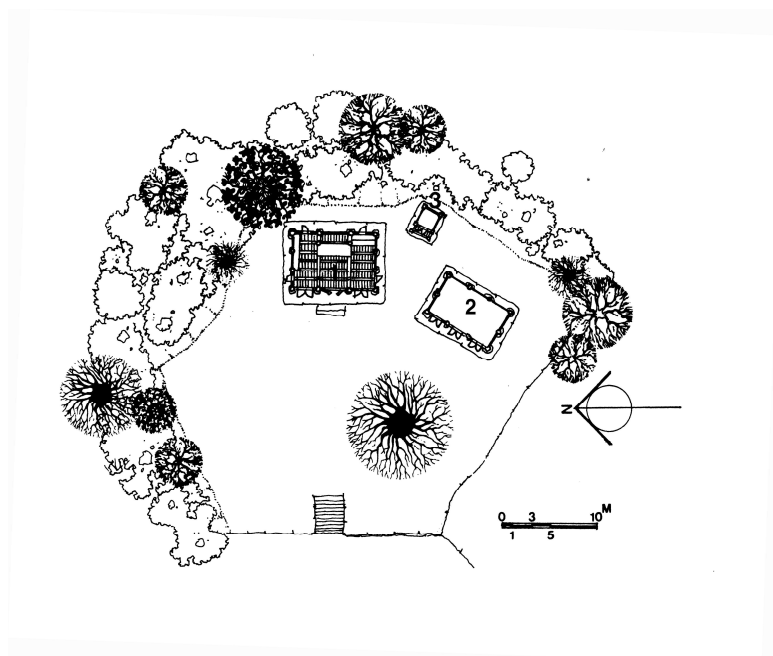
명부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전의 바닥은 시멘트몰탈로 마감되어 예스런 맛은 반감되었다. 건축양식은 주심포계열로 2계공을 만들고 주심첨차(柱心檐遮) 하단은 운궁형(雲宮形)으로 선각(線刻)하였고 주칸(柱間)에는 선각된 화반(花盤)을 끼웠다.



▲ 명부전



▲ 산령각



소재사 배치평면도

96. 추모재 (追慕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용2리 31번지
- 건립년대 : 1934년
- 건축규모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명종조(明宗朝)의 문신(文臣)인 김윤인(金潤仁)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경주 김씨의 재사(齋舍)인데 산기슭에 터를 마련하여 재사를 건립하기 위해 앞쪽에 상당한 높이의 축대를 조성한 후 남향으로 건물을 앉혔으며 주변에 담장이나 출입문은 생략하였다.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1칸반 규모이며 가운데 2칸 마루를 두고 좌우에 온돌방이 자리한 평면이다. 방 앞쪽으로 반칸 정도의 퇴칸을 두고 방 뒤편에 수납공간을 설치하였으며 방과 마루사이에는 쌍여닫이문을 두고 마루뒤편은 판벽에 골판문을 설치하였다.

건물의 입면은 시멘트 몰탈로 마감된 기단 위에 덩벙주초를 놓고 정면만 원기둥을 세우고 그 외는 네모기둥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상부구조는 대량 위에 동자대공을 세워 중도리를 받게 한 3량가구인데 동자대공에 뿔목과 소로를 끼워 첨차 모양을 만들어 멋을 부렸으며 홑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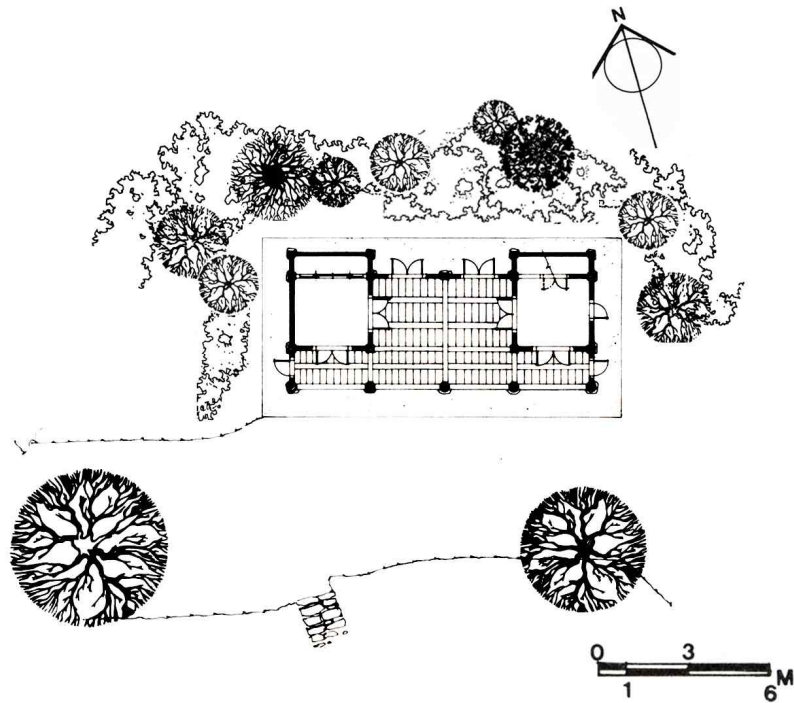
▲ 좌측면



▲ 처마상세



▲ 상부구조



추모재 배치평면도

97. 태양재 (泰陽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 건립년대 : 1956년중건, 1990년대 이건 신축
- 건축규모 : 일 곽(2동)
 - ① 재 실 - 정면 5칸, 측면 1칸반, 홀처마, 팔작지붕
 - ② 외삼문 - 정면 3칸, 측면 1칸, 홀처마, 솟을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통훈대부(通訓大夫) 밀양 박창숙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12세손인 박용옥이 1956년에 건립하였고 한다. 본 재사는 전면에 흐르는 개울을 바라보며 가태리 마을 가장 안쪽에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사의 입지가 배산하여 경사지를 선택하는 것이 통례라면 여기서는 평지에 입지한 관계로 다소 생소한 감을 준다.

정면에 솟을 삼문을 두고 대향하여 정면 5칸 측면 1칸반 규모의 재가 건립되었으며 평면 구성은 어칸과 우협칸에 걸쳐 마루를 배치하고 좌우에 온돌방을 들인 퇴칸을 둔 중당협실형이다. 좌측온돌방 2칸이 연접되고 사이에는 4짝미서기문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마루와 온돌

방 사이는 양쪽 모두 4분합들어열개문을 설치하여 공간의 확장을 기하였으며 방 뒤편은 벽장을 설치하고 마루 뒤편과 우측온돌방 우측면에 퇴를 달았다.

좌측 방에는 「사고실(思考室)」란 편액이 걸려있고 우측 온돌방에는 「귀래헌(歸來軒)」이라 편액되어있다.

건축양식은 제주두를 엮은 익공양식이며 살미는 연화와 연봉을 조각하였다. 그리고 상부구조는 3량가로 판대공을 세워 중도리를 받게 하였는데 판대공에 중도리 방향으로 살미모양과 흡사한 부재를 2단으로 끼워 장식하였으나 조잡하다.



▲ 원 경



▲ 정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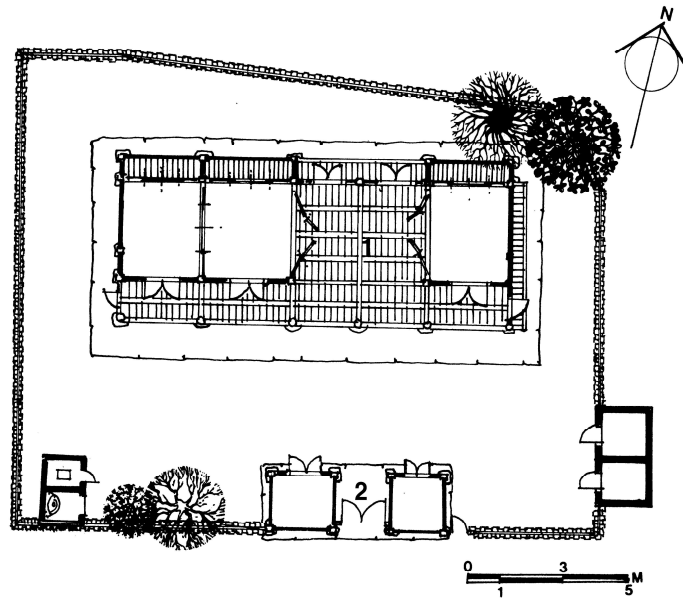
▲ 상부구조



▲ 익공 양식



▲ 외삼문



태양재 배치평면도

98. 예연서원 (禮淵書院)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11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539번지
- 건립년대 : 숙종 41년(1715)이건, 1977복원
- 건축규모 : 일곽(7동)
 - ① 충현사(忠賢祠) - 정면 3칸, 측면 1칸반, 겹처마, 맞배지붕
 - ② 경의당(景義堂) - 정면 5칸,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③ 숭의문(崇義門)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④ 전사청(典祀廳) - 정면 4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⑤ 장판각(藏板閣)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⑥ 충의문(忠義門)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⑦ 측간(廁間) - 정면 2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임란 때 선무원종일등공신(宣武原從一等功臣)인 의병장군(義兵將軍) 충익공(忠翼公) 망우당(忘憂堂) 곽재우(郭再祐) 선생과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안음현감(安陰縣監)으로 황석산성(黃石山城)의 수성장(守城將)을 제수받고 최후를 맞이한 존재(存齋) 곽준(郭遵) 선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광해군 10년인 1618년 영남사림(嶺南士林)에 의해 솔예리에 충현사(忠賢祠)로

건립되었다.

그 후 현종 15년(1674)에 당시 현감(縣監)이던 유천지(柳千之)가 규모를 확장하여 중건하였고, 숙종 3년(1677)에는 예연서원으로 사액(賜額)을 받았으며 숙종 41년(1715) 현 위치로 이건 하였다.

그러나 1950년 6.25 전란으로 장판각(藏板閣) 및 전사청(典祀廳)만 남겨두고 나머지 건물은 모두 소실되었으나 1977년 강당(講堂)인 경의당(景義堂)과 외삼문(外三門)인 숭의문(崇義門)을 복원하고 1984년에는 사당(祠堂)인 충현사를 복원하여 지금에 이른다.

배향된 망우당 광재우(1552~1617)선생은 의병장으로 자는 계수(季綏), 호는 망우당, 본관은 현풍(玄風)이다. 관찰사 월(越)의 아들로써 의령출신인데, 남명 조식(曹植)의 문인이다. 문무에 모두 뛰어났으며, 선조 18년(1585)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했으나, 왕의 뜻에 거슬린 글귀 때문에 파방(罷榜)되었다.

1592년 임란이 발발하자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켜 천강홍의장군(天降紅衣將軍)이라 불리며, 이 해 유곡도(幽谷道) 찰방(察訪), 조방장(助防將)을 거쳐 이듬해 성주목사로 임명되어 조방장을 겸임했으며, 1597년 정유재란 때에 경상좌도 방어사(防禦使)에 승진, 화왕성(火旺城)을 수성했다.

광해군 5년(1613) 영창대군을 신구(伸救)하는 상소문을 올리고 사직, 낙향했다. 한 때 자기의 경륜을 펴 볼 생각으로 부총관 한성좌부윤, 함경도 관찰사로 나갔으나 조야가 혼탁하고 기강이 문란함을 개탄하여 은둔생활을 했다. 필체가 웅건 활달했으며 시문에도 능하였다. 숙종 35년(1709) 병조판서겸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에 추증되고 시호는 충익공(忠翼公)이다.

존재 광준(1551~1597)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양정(養靜), 호는 존재(存齋)이다. 부친은 지완(之完)이며 임진란이 발발하자 의병장 김면이 의병을 규합하니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교분으로 참가하여 공을 세웠다. 관찰사 김성일이 그의 현명함을 듣고 자여도찰방에 임명하였다.

1594년 조정에서 재능이 뛰어난 자를 발탁할 때 안음현감으로 함양군수 조종도와 함께 호남의 길목인 황석산성을 지키던 중 가토 기요마사 휘하의 왜군과 격전을 벌이다가 아들 이상, 이후와 함께 전사하였다. 병조참의에 추증되었고, 안의의 황암사에 제향되어 있으며 시호는 충렬이다.

서원의 배치를 보면 크게 3개 영역으로 분리된다. 외삼문과 경의당이 자리하는 강학공간(講學空間)과 내삼문인 숭의문과 사당인 충현사가 위치하는 제향공간(祭享空間)이 남북일직선축상에 배치하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강당 우측에 서원의 지원시설인 전사청과 장판각이 전면에 외부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사각문(四角門)을 두고 별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 강 당

1977년 복원된 강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다소 높은

기단 위에 가운데 3칸 넓은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이 배치된 중당협실형의 평면을 지니고 있다. 좌우에 들인 온돌방은 앞쪽으로 반칸 정도 칸살을 확대하여 방이 측면으로 1칸반 정도가 되며 앞쪽에 반칸 정도의 퇴칸이 설치되어 가운데 마루와 연결된다.

그리고 마루와 방 사이에 4분합들문을 두어 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온돌방 전면 쌍여닫이 세살문을 머름 위에 설치하였으며 마루 배면 쪽에 쌍여닫이 판장문을 두었다. 정면에만 원기둥을 세우고 주두(柱頭)를 얹었으나 익공살미는 설치하지 않은 무익공양식이며 주칸은 소로수장하였다. 그리고 상부구조는 공아를 삼입한 제형판대공(梯形板臺工)을 세운 건실한 5량가구이다.



▲ 정 면



▲ 우측면



▲ 좌측면



▲ 기둥상부



▲ 상부구조

● 사 당

강당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반 규모의 겹처마 맞배지붕의 건물이다. 앞쪽에 반칸 폭의 퇴칸을 두고 뒤편 삼칸을 통칸으로 하여 위패를 배설하였다. 사당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았고 기둥은 정면만 원기둥을 세운 익공양식이며 3량구조에 양측면 박공(朴工)에 풍판(風板)을 설치한 맞배지붕의 건물이다.



▲ 정 면

강당 우측에 별도로 구획된 공간 내에 설치된 전사청은 정면 4칸 측면 1칸의 건물로 평면은 강당과 같은 중당협실형이다. 가운데 2칸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이 설치되고 온돌방 앞쪽에 퇴를 부설하였다. 그리고 중앙마루 뒤편에도 퇴를 설치하였으며 3량가구에 홀처마 맞배지붕을 올린 건물로 향사(享祀)시 지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사청 전면 우측 편에 서향으로 자리하고 있는 장판각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홀처마 맞배지붕을 올린 건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원에 설치되는 장판각과는 평면구성이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장판각인 경우 서책과 판본을 보관하기 위하여 바닥과 벽체가 환기와 습해에 유리한 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예이나 여기서는 온돌방 2칸과 마루방 1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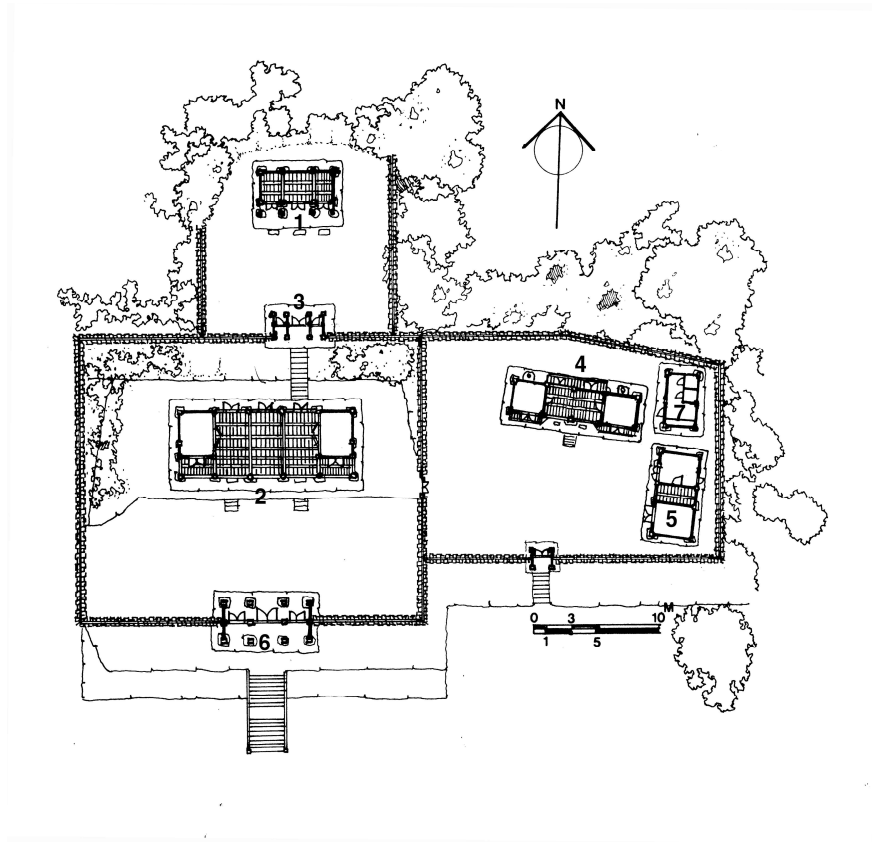
특히 마루방인 경우 칸살을 작게 잡으며 좌측온돌방에서 출입이 가능토록 한 점은 일반적인 예와는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 동 재



▲ 외삼문



예연서원 배치평면도

99. 남계서당 (濫溪書堂)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376번지
- 건립년대 : 1860년
- 건축규모 : 정면 3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원래는 정암공(定庵公) 곽월(郭越:1518-1586)을 추모하기 위한 서원으로 출발하였으나 서원이 훼손된 후 후손들이 서당으로 중건하여 지금에 이른다.

정암공은 조선조 문신으로 자를 시정(時靜)이라 한다. 1546(명종 1)년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556(명종 11)년 별시병과(別試丙科)에 급제하였으며 사간을 거쳐 동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호조참의를 거쳐 1579년(선조 12)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뒤에 청송 남원 등지의 부사를 역임했다.

서당은 마을 동쪽 산기슭에 서향하여 자리잡고 있는데 관리가 부실하여 주변 담장은 거의 도괴되고 건물도 훼손이 심하다.

자연석 외벌대 기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1칸반 정도의 규모이며 우협칸의 마루와 어칸과 좌협칸에 배치된 온돌방으로 평면이 짜여있다.

온돌방은 4짝미서기문으로 구획되어있으며 앞쪽으로 반칸 폭의 퇴칸을 두어 우측 마루와 연결 시켰다. 그리고 우측 마루는 배면과 우측면을 판벽과 판문으로 폐쇄하였으며 문 상부에 창을 둔 것이 독특하다.

정면 기둥은 원기둥을 사용하였으며 온돌방 전면 퇴칸 상부는 퇴량을 두어 내진주 위에서 대량과 합보시키고 마루 쪽 대량 위에는 충량이 걸쳐지고 원형판대공을 세웠다. 상부구조는 3량가구이며 홀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 원 경



▲ 정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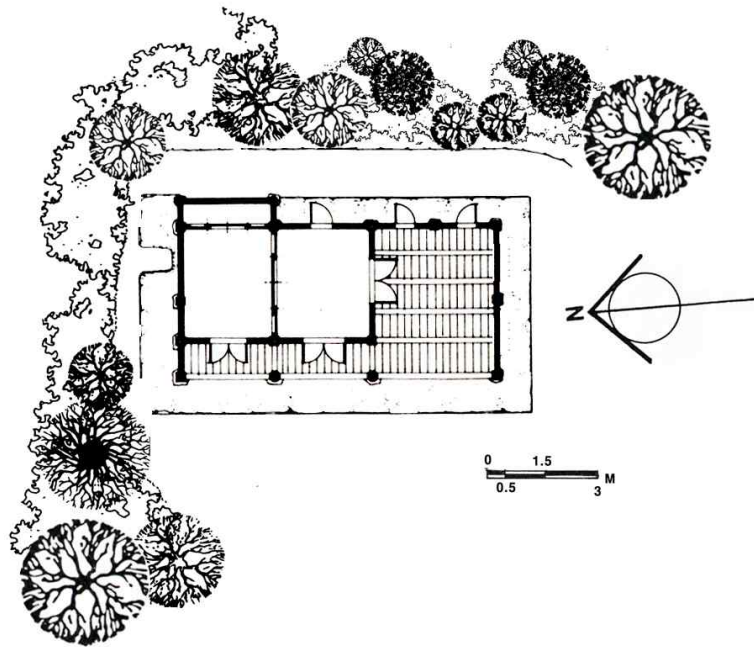
▲ 상부구조



▲ 좌측면



▲ 기둥머리



남계서당 배치평면도

100. 경충재 (景忠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539번지
- 건립년대 : 1918년
- 건축규모 : 일 곽(5동)
 - ① 외삼문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솟을지붕
 - ② 강 당 - 정면 5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③ 사각문 - 정면 1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④ 사 당 - 정면 3칸, 측면 1칸반, 겹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충익공(忠翼公) 곽재우(郭再祐) 부조위제청(不祧位祭廳)으로 1918년에 건립되었으며, 1992년 건물이 쇠락하고 부제가 약해 전면 해체 보수하면서 부재를 키우고 와가로 제대로 격식을 갖추어 과거의 건물과는 평면구성만 동일할 뿐 부재들은 모두 교체되었다.

경충재는 예언서원(禮淵書院)의 좌측에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재의 배치를 보면 크게 2개영역으로 구획되어있다. 사당, 신문, 경충재, 외삼문이 남북축선상에 배치되어있으나 제향

공간의 중심건물인 사당은 우측으로 약간 비켜 배치되어있다. 외삼문과 경충재가 일곽을 이루고 신문과 사당이 일곽을 형성하고 있다.

재는 정면 5칸 측면 1칸반 규모의 홑처마 팔작지붕의 건물이다. 평면구성은 중당협실의 기본틀을 지니고 있다. 앞쪽으로 5칸에 걸쳐 퇴칸을 설치하고 어칸과 우협칸에 걸쳐 마루를 두고 우측에 2칸통의 온돌방을 두고 좌퇴칸에 1칸 온돌방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온돌방 뒤편과 측면으로 수납공간을 첨가하고 마루 뒤편 및 우측온돌방 우측 편에 접근과 입, 출입이 용이하도록 퇴를 부설하였다. 입면은 전면기둥만 원주를 사용하고 그 외는 각주를 세웠다. 기둥 상부의 장식은 전면만 무익공 소로수장으로 처리하였고 배면은 그냥 기둥에 도리만 걸쳤으며, 상부가구는 3량구조이다.

사당은 전퇴칸을 둔 정면 3칸 측면 1칸반 규모의 건물이다. 3칸을 하나의 공간으로 하여 위패를 배설하였으며 전면 기둥을 원주로 세우고 겹처마에 맞배지붕을 올려 격을 높였다.

사당의 출입문인 신문은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사각문으로 홑처마 맞배지붕이며 재의 출입문인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나 어칸을 높인 솟을산문이다.



▲ 사 당



▲ 강당 정 ·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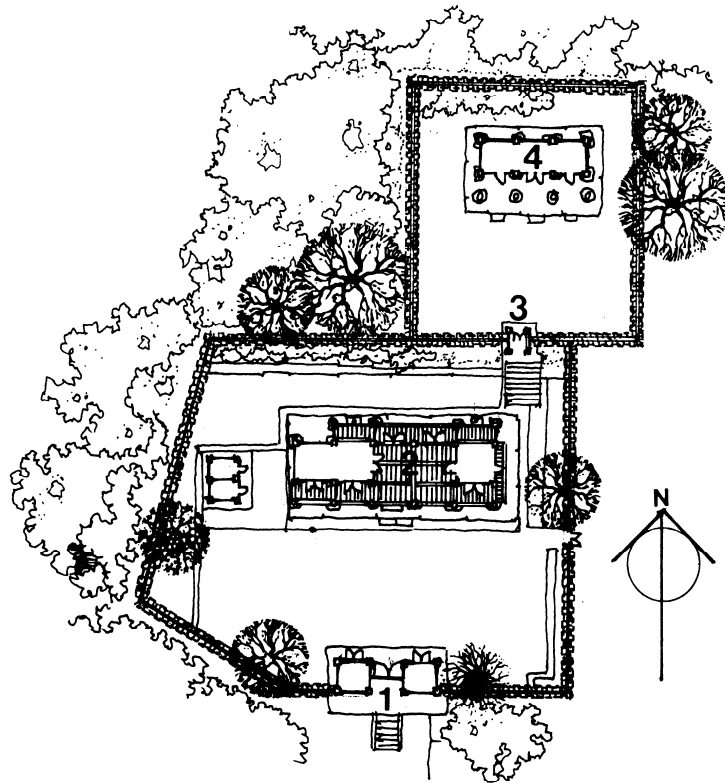
▲ 강당 정 · 좌측면



▲ 상부구조



▲ 강당 처마



경총재 배치평면도

101. 홍의장군 및 충렬공비각 (紅衣將軍碑閣)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584번지
- 건립년대 : 조선 숙종 17년(1691)
- 건축규모 : 일 곽(2동)
 - ① 비 곽 - 정면 2칸, 측면 1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② 일각문 - 정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본 비각은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큰공을 세운바 있는 홍의장군(紅衣將軍) 망우당(忘憂堂) 곽재우(郭再祐)공의 신도비와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안음현감(安陰縣監)으로 호남의 황석산성(黃石山城)을 지키다 순절한 충렬공(忠烈公) 곽준(郭遵)공의 신도비(神道碑)가 안치되어있다.

숙종 17년(1691) 망우당선생의 신도비를 이 곳에 건립하면서 이 보다 앞서 현종 4년(1663)에 현풍 대동에 건립된 바 있는 곽준선생의 신도비를 옮겨와 함께 모시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태리 마을을 들어서는 입구, 즉 당산나무 우측에 자리하고 있는 비각은 전면에 일각문을 내고 방형토담을 둘러 일곽을 이루고 있다.

비각평면은 정면 2칸에 측면 1칸 규모로 설정되어있다. 두 분의 신도비를 모시기 위하여 2칸으로 구획하였으며 정면은 쌍여단이문을 달고 문상부에 홍살을 세워 품격을 나타내었다. 정면의 문은 내부의 비를 볼 수 있도록 문살만 세웠으며 측면과 배면은 심벽으로 마감하여 폐쇄하였다.

신도비의 비신이 높은 관계로 건물고를 높게 잡았다. 건물고를 높이기 위하여 주초를 매우 높이고 상부에 기둥을 얹은 관계로 인한 목구조의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측면에 대각선으로 가새를 넣어 보강하였다. 기둥 상부의 양식은 외1출목 2제공형의 주심포 양식이나 17세기 건축양식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듯하며 팔작지붕을 얹기 위하여 층량을 걸쳤다.



▲ 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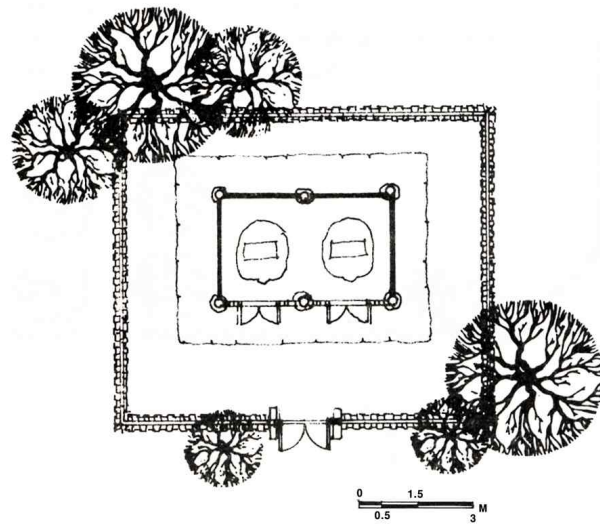
▲ 상부구조



▲ 익공상세



▲ 측면처마



홍의장군 및 충렬공비각 배치평면도

102. 광원순가옥 (郭元淳家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한정2리 132번지
- 건립년대 : 1860년
- 건축규모 : 일 광(4동)
 - ① 사랑채 - 정면 3칸,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② 안채 - 정면 5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③ 문간채 - 정면 4칸, 측면 1칸, 홑처마, 우진각지붕
 - ④ 고방채 - 정면 2칸, 측면 1칸, 홑처마, 슬레이트 우진각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가옥의 배치는 안마당을 사이에 두고 안채와 사랑채를 전후로 배치하고 안마당의 우측에 문간채와 고방채를 나란히 자리잡아 전체적으로 튼튼자형의 배치형태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랑채와 안채로 접근하는 출입동선을 분리하여 남녀공간 구분을 확연히 하였다. 사랑채로의 출입은 사랑마당 우측 편에 설치된 일각문을 이용토록 하였고 안채로의 출입은 사랑채 우측 대문채를 이용토록 분리하여 두었다.

사랑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반 규모의 팔작와가인데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우측 편에 슬레이트를 얹은 한 칸을 증설하였다. 평면은 좌측칸에 1칸반의 마루를 배치하고 어칸과 우협칸에 2칸 온돌방을 따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앞쪽에 퇴칸을 두어 좌측 마루와 연결하였으나 마루앞에 4짝 알루미늄 미서기문을 달았으며 홑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1칸반 규모의 전퇴를 둔 중당협실형 평면을 지니고 있다. 좌측으로부터 부엌, 안방, 2칸 대청, 건넌방이 연결되어 있는데 안방과 건넌방 전면에는 반 칸 규모의 퇴칸을 두었으며, 부엌 뒤편에는 정지방을 두었다. 안방 전면에 퇴칸 상부에는 시렁을 걸어 두었으며, 건넌방 전면의 퇴칸은 하부에 아궁이를 시설한 관계로 단을 조금 높여 설치하였다. 상부가구는 대량 위에 원형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한 3량구조이며 홑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문간채는 토담으로 구조체를 쌓은 후 슬레이트 지붕을 이었는데, 평면은 좌측칸을 대문칸으로 고치고 3칸은 모두 헛칸으로 구성하였다.

고방채는 문간채와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문간채와 마찬가지로 토담으로 벽체를 쌓아 올려 슬레이트로 우진각지붕을 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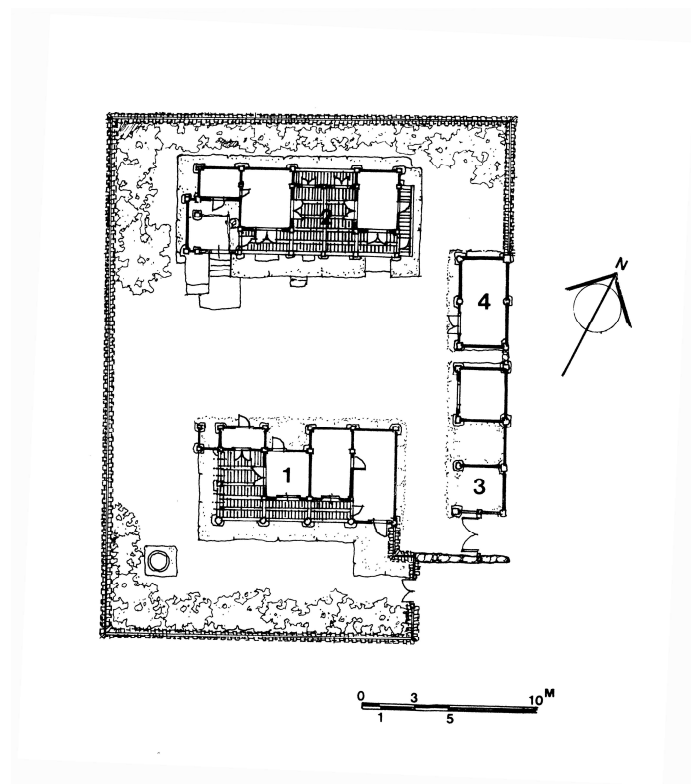
▲ 안채 정면



▲ 기둥상부



▲ 사랑채



각원순가옥 배치평면도

103. 곽재옥가옥 (郭載沃家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한정2리 97번지
- 건립년대 : 1800년 말 건립, 1944년 이건
- 건축규모 : 일 곽(5동)
 - ① 사랑채 - 정면 4칸,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② 정침채 - 정면 5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③ 중문채 - 정면 3칸, 측면 2칸반, 홑처마, 우진각지붕
 - ④ 고방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⑤ 대문채 - 정면 2칸, 측면 1칸, 홑처마, 우진각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본 가옥은 원래 가태리에 건립되었으나 1944년에 현 위치로 이건 하였다 한다. 가옥의 배치를 살펴보면 우측으로 난 2칸 대문을 들어서면 먼저 토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당이 나타나며 마당 우측 편에 흙벽돌로 만든 측간이 자리잡고 있다. 안채로의 진입은 행랑채 좌측간에 난 통로를 이용하여 안마당에 이르면 남향으로 안채가 자리잡고 있다. 안채를 중심으로 하여 좌측에는 방앗간채가, 우측에는 행랑채가 자리하며 안채 전면에 사랑채를 배치시켜 안마당을 중심으로 ㄷ자형의 배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사랑채로의 출입은 대문칸 좌측벽에 두쌍의 판장문을 내어 사랑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남녀공간 구분이 확연하다. 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이며 평면은 남부지역 민가에서는 보기 드문 겹집형 평면이다. 전면 칸은 좌측으로부터 온돌방, 마루 2칸, 온돌방이 배치되고, 후면 칸은 함실, 2통칸 온돌방, 1칸 마루를 각각 배치하였다. 그리고 우측 후면의 마루를 통하여 온돌방과 연결되도록 문을 두었으며 앞쪽 온돌방 전면에 뒷마루를 두어 방으로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상부가구는 대량 위에 운두가 높은 동자주를 세운 3량가의 구조이며 홑처마 팔작지붕을 올렸으나 일식기와를 덮어 다소 전통적인 느낌이 감소되었다.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1칸반 규모로 전퇴칸을 둔 중당협실형 평면유형이다. 좌측으로부터 부엌, 안방 2칸, 마루방, 건넌방 연결되어 있으며, 앞쪽으로 반 칸 폭의 퇴칸을 두었다. 앞쪽에 퇴칸을 두어 각 실칸의 동선을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가운데 마루는 전후에 문을 달아 폐쇄형으로 만들었고 부엌은 전퇴가 연결되고 출입문은 좌측에 두고 상부는 안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락을 두었다. 상부가구는 대량 위에 동자주를 세운 3량구조이며 홑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방앗간채는 3칸 규모의 일식기와를 얹은 맞배집인데 현재는 좌측 2칸을 고방으로 사용하고, 우측은 화장실로 개조되었다.

행랑채는 대문에서 마주 보이는 담장에 쪽문을 내어 별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동선을 만들고 평면 역시 독립된 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평면을 ㄱ자형으로 구성하였다. 좌측으로부터 통래칸, 안채에서 이용하는 헛칸, 고방이 연결되고, 고방 뒤편으로 온돌방과 방에 따르는 퇴칸마루를 두어 안채와 분리되는 독립된 공간을 이루고 있다. 상부구조는 3량에 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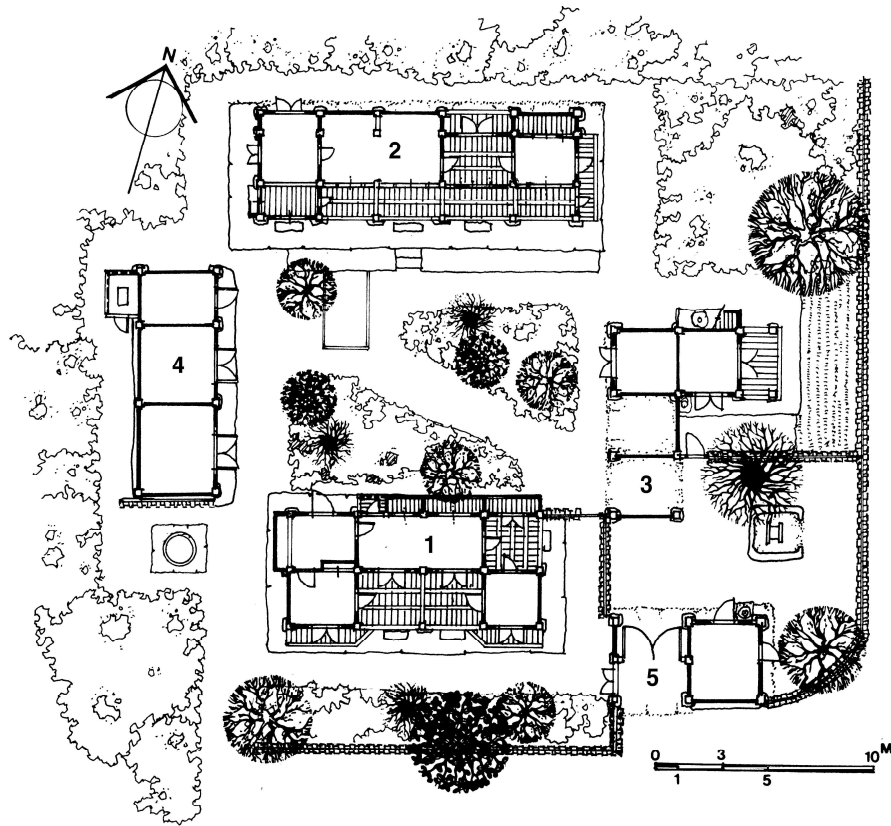
처마 우진각지붕이다.



▲ 안채 정면



▲ 사랑채



곽재옥가옥 배치평면도

104. 도산재 (道山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도의리
- 건립년대 : 미 상
- 건축규모 : 일 괵(2동)

① 재 실 - 정면 3칸,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② 사각문 - 정면 1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산미공(山眉公) 곽진(郭趁;1511-?)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재사(齋舍)로 도의리 마을 입구의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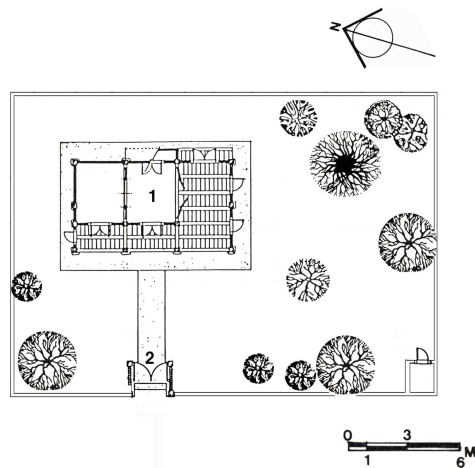
곽선생은 청백리 곽안방(郭安邦)의 현손으로 벼슬은 명종때 성균진사(成均進士) 장사랑(장사랑)에 이르렀고 정한강선생을 사우로 삼았다.

방형으로 불럭담장을 돌리고 전면에 사각문을 두어 재로 출입케 했다. 사각문을 들어서면 서향하여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재의 평면은 주변의 다른 재실의 평면이 대부분 중당협실형인데 반해 도산재는 그 평면형을 달리하고 있다. 우협칸에 마루를 두고 어칸과 좌협칸에 걸쳐 2통칸의 온돌방을 둔 평면이다. 2칸 온돌방은 가운데 4짝 미서기문과 마루와 4짝 들어열개문을 두어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루 뒤편에 퇴를 두었다. 상부가구는 3량 구조이며 퇴량(退樑)은 내진주(內陣柱) 위에서 합보형식을 취했고 홑처마에 팔작지붕을 올렸다.



▲ 전 경



도산재 배치평면도

105. 추원재 (追遠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화산1리 467번지
- 건립년대 : 1876년
- 건축규모 : 일 괵(2동)

① 재 실 - 정면 5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② 사각문 - 정면 1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본 재는 화산리 마을 안쪽에 남서향하여 자리잡고 있다. 재의 출입문인 사각문을 들어서면 정면 5칸 측면 1칸의 추원재가 자연석 허튼층쌓기한 다소 높은 기단 위에 건립되어있다. 전퇴를 두지 않은 중당협실형 평면으로 가운데 2칸 마루를 중심으로 좌측에 온돌방 2칸이 연결되고 우측에 1칸 온돌방이 자리하고 있다. 앞쪽에 퇴칸을 두지 않은 대신 온돌방 앞쪽으로만 퇴를 내었고 방 뒤편에 수납공간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좌측 온돌방 2칸은 가운데 4짝미서기문을 설치하여 방을 구획하였다. 상부구조는 만곡이 심한 대량 위에 제형(梯形)판대공을 세운 3량가구에 양측에 풍판을 내린 홑처마 맞배지붕을 올렸으나 전반적으로 부재가 약하다.



▲ 정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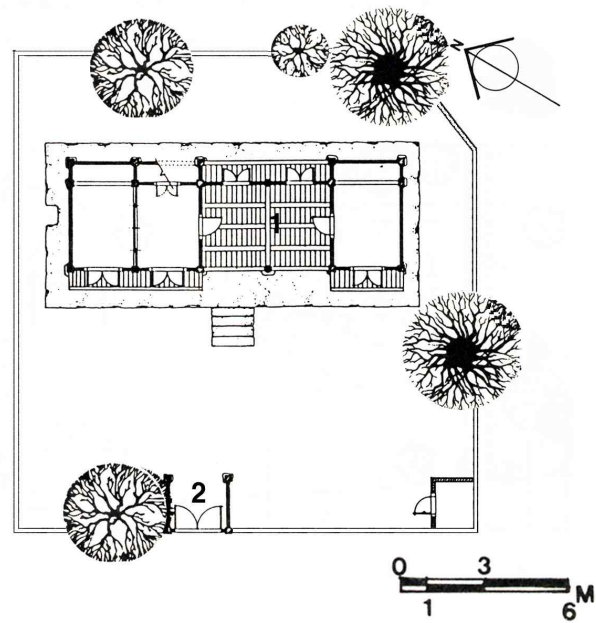
▲ 우측면



▲ 좌측면



▲ 상부구조



추원재 배치평면도

106. 화산리 공가 (花山里 空家)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화산리 467번지
- 건립년대 : 1900년
- 건축규모 : 일 괵(1동)
 - ① 안 채 - 정면 2칸, 측면 1칸반, 홑처마, 우진각 슬레이트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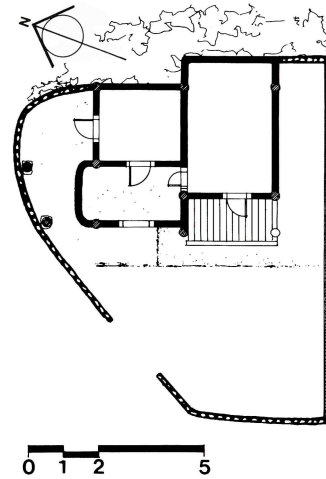
추원재 좌측에 서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공가로 방치되어 있으나 추원재에 부속된 가람 집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토담으로 축조된 막살이집으로 평면은 좌측은 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쪽에 부엌을 설치하고 뒤편에 찬방을 두었다.

그리고 우측은 안방으로 꾸몄는데 전면 벽체를 좌측칸 보다 조금 뒤로 물리고 방 앞에 퇴를 설치하였다. 원래는 초가지붕이었으나 현재는 슬레이트지붕으로 개량되었다.



▲ 전 경



화산리 공가 배치평면도

107. 제갈남학 효자비각 (諸葛南鶴 孝子碑閣)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1리 산 14-1번지
- 건립년대 : 1937년
- 건축규모 : 일 괵(2동)
 - ① 비 각 - 정면 1칸,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② 일각문 -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제갈남학은 호가 필암(必庵)이요, 자는 성옥(成玉)이며 문효공(文孝公) 화오(花塢)선생의 8세손이다. 그는 부모를 봉양함에 하루도 빠짐없이 식사를 손수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식사를 마칠 때까지 무릎을 꿇고 지켜보았다 한다. 모친상을 당하여 3년간 시 묘살이를 하였으며 양효문을 세워 놓고 주야로 호곡(號哭)하였다. 이 같은 제갈남학의 효성을 기리기 위하여 1937년 비각을 건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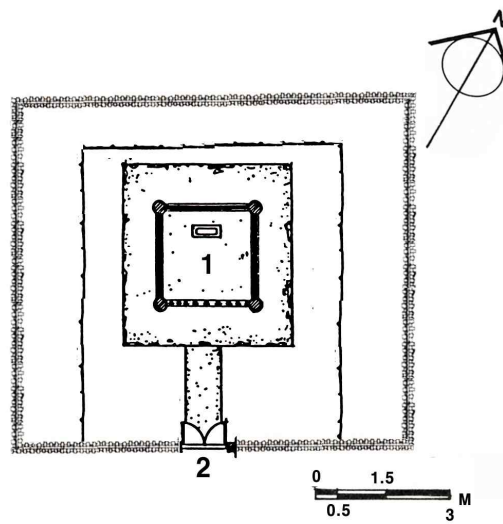
마을 입구의 도로변에 남동향으로 자리잡고 있는 비각은 주변을 블록담장으로 구획하고 비각 전면에 일각문을 세워 괵내로 출입케 하였다. 비각은 정, 측면 1칸 규모의 단칸건물로 비석은 뒤편에 치우쳐 자리하고 있다. 정면에만 홍살을 세워 내부를 볼 수 있게 하였으며 그 외 사면은 벽체로 막았다. 기둥은 모두 원기둥을 사용하였고 기둥 위는 이익공양식으로 장식하였다. 상부구조는 대공을 세운 3량가에 겹처마 맞배지붕을 올리고 지붕 양측면에 풍판을 설치하였다.



▲ 전 경



▲ 비 각



제갈남학호자비각 배치평면도

108. 이노정 (二老亭)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0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443번지
- 건립년대 : 1885년 개축, 1904년 중수, 1993년 보수
- 건축규모 : 일 광(5동)
 - ① 이로정 - 정면 4칸, 측면 2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② 대문채 - 정면 4칸,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정자는 구지면사무소에서 1Km 정도 떨어진 속칭 성담이라는 산성 아래에 터를 잡았으며 앞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강 건너는 고령의 평야가 한 눈에 들어오는 풍광이 수려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조선 성종 때 대학자였던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선생과 일두(一簫) 정여창(鄭汝昌) 선생이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화를 입은 후 1504년(연산군 10) 이곳에서 상봉하여 시를 읊고 풍류를 즐기면서 후학에게 강학하였던 곳으로 일명 「제일강산(第一江山)」이라고도 한다.

「이노정」이라는 당호는 김굉필선생과 정여창선생 두 분을 칭하여 붙인 이름이라 한다. 그 후 1885년(고종 22) 영남 유림에서 선현을 추모하기 위해 개축하였고 1904년 중수하였고 1993년 지붕과 자연석 기단, 창호를 보수했다.

정자 앞쪽에 일각문을 세우고 주변은 방형토장을 돌린 후 정자는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집을 앉혔다. 정자의 평면은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로 각 1칸의 온돌방을 두었으며 우물마루 뒤로 2칸의 온돌방을 두었다.

정면 4칸, 측면 2칸만으로 모두 8칸 건물로 사면에 계자난간을 돌린 고상식 누각형이다. 그러나 평면구성방법이 특이하다. 전면칸의 구성은 일종의 중당협실형으로 가운데 2칸 마루를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두었으며 뒤편칸의 구성은 전면칸의 구성과는 반대로 가운데 2칸, 즉 전면 마루 뒤편 2칸은 온돌방이 되고 좌우 온돌방 뒤편은 마루를 두었다.

따라서 8칸 가운데 온돌방이 4칸이고 마루가 4칸이다. 가운데 마루와 연결하는 뒤편 온돌방 2칸은 3분합들문을 달아 필요시 4칸을 하나의 널찍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온돌방들은 마루와의 연결성이 양호하면서도 독립성이 매우 높다.

건물의 외진주는 원형기둥을 사용하였고 내진주는 방형기둥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전면과 배면 마루부분만 무익공 소로수장으로 처리하여 다소 격을 높인 듯하다. 마루 천장에 井자 모양의 통풍구를 두어 바람의 유통을 도와 실내의 환기와 온도 조절에도 세심한 배려를 한 재치가 넘치는 독특한 정자건물이며 5량가구의 홀처마 팔작지붕이다.

마루부분에 「이로정」이란 편액과 「제일강상」이라는 편액이 건물의 내력과 주변의 풍광을 말해주는 듯하며 두분 선생이 지은 ‘유악양(留岳陽)’이라는 시를 주련(柱聯)에 음각하여 운치와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있다.



▲ 전 경



▲ 근 경



▲ 정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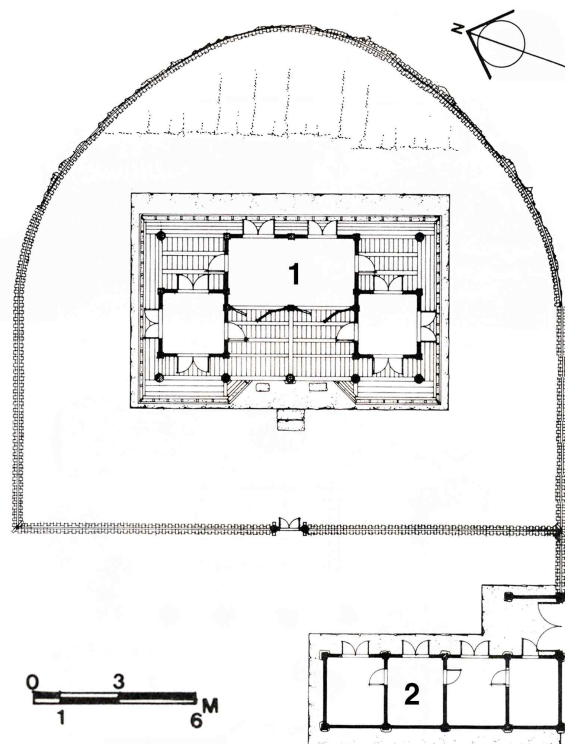
▲ 우측면



▲ 좌측면



▲ 기둥머리



이노정 배치평면도

109. 추원재 (追遠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202번지
- 건립년대 : 1903년 이건
- 건축규모 : 일 괵(3동)
 - ① 재 실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홑처마, 팔작지붕
 - ② 동 재 - 정면 4칸, 측면 1칸반, 홑처마, 맞배지붕
 - ③ 외삼문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밀성(密城) 박성우(朴聖遇), 박문성(朴文星), 박두성(朴斗星)을 추모하기 위한 밀성박씨 재사이다. 조선중기의 문신인 박성우(1587-1654)는 자를 군석(君錫), 호를 도곡(陶谷) 또는 하빈조수(河濱釣叟)라 하였다. 달성 10현 가운데 한 분이며 문음(門蔭)으로 부사과(副司果)가 되었고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에 추증되었다.

초건(初建)은 미상이나 고종7년(1903)에 사당등(祠堂燈)에서 현 위치로 이건(移建)하였으며, 1947년에 중수(重修)하였다. 재사의 배치는 외삼문을 들어서면 정면으로 재실이 남서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전면 우측에 정면 4칸 규모의 동재(東齋)가 앉아있어 주변의 다른 재실보다는 다소 격을 갖춘 듯하다.

재실은 정면 4칸 측면 1칸반 규모의 중당협실평면이다. 가운데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이 배치되고 좌측 방에는 대청 쪽으로 3분합 들어열개문을, 우측 방에서 대청 쪽에는 2짝 세살문을 설치한 것은 타 재실과 흡사하나 마루 가운데 기둥 1본이 더 세워져 있는 것은 특이한 경우이다. 이는 대량부재의 크기가 상부하중을 받기에 부족하였던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둥을 세워 대량을 지지하게 한 특이한 예라 할 수 있다. 상부구조는 만곡된 대량 위에 동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하였으며 홑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동재는 정면 4칸 측면 1칸 반 규모이며 우측에서부터 방, 마루 온돌방 2칸으로 구성되고 마루와 마루 좌측 온돌방 앞쪽으로 퇴칸마루를 두었으나 좌측 온돌방과 우측방 전면에는 마루를 설치하지 않았다.



▲ 정 면



▲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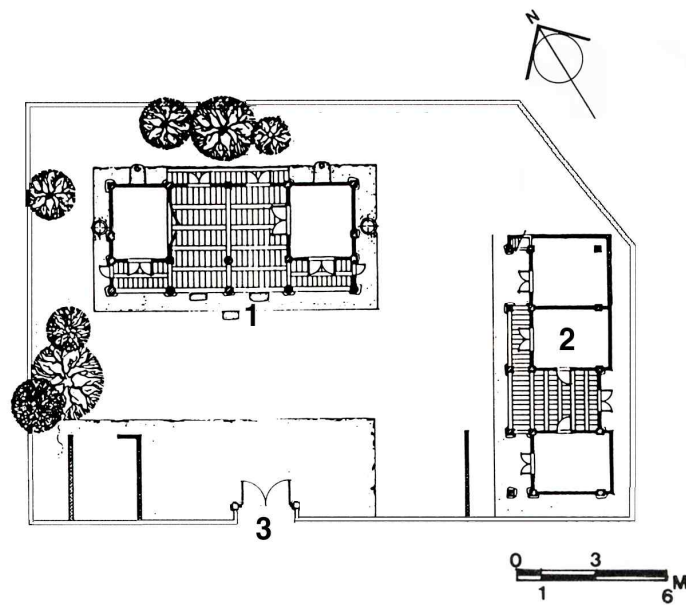
▲ 좌측면



▲ 상부구조



▲ 기둥상부



추원재 배치평면도

110. 김차남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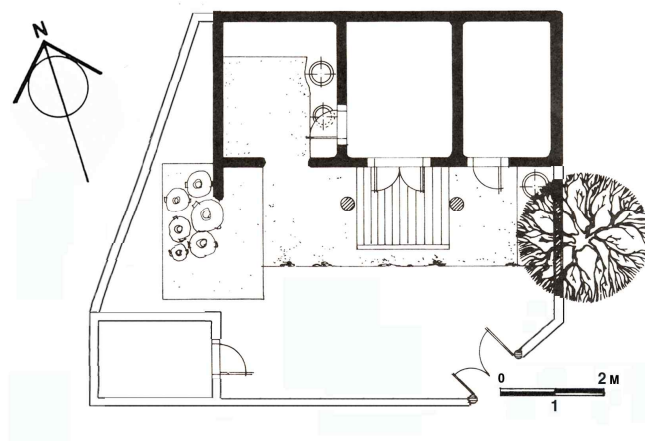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201번지
- 건립년대 : 1900년
- 건축규모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우진각 스테이트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추원제 우측 담장에 기대어 자리하고 있으며, 전면의 도로 쪽으로는 블록담장을 쌓고 철대문을 설치하였는데, 대문을 들어서면 좁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3칸 규모의 토담집이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다. 원래는 초가 막살이집이 었으나 현재 슬레이트로 개조하였다.

토담으로 구축하였는데 평면은 좌로부터 부엌과 온돌방 2칸이 연결되어 있으며 앞쪽으로 봉당을 설치하고 가운데 온돌방 앞쪽에 기둥 2분을 세워 처마를 다소 길게 내었으며, 안방 앞으로 평상을 놓아두었다.



▲ 정 면



김차남가옥 배치평면도

111. 송담서원 (送潭書院)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231번지
- 건립년대 : 1990년대 초
- 건축규모 : 일 괵(2동)
 - ① 강 당 - 정면 5칸,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② 외삼문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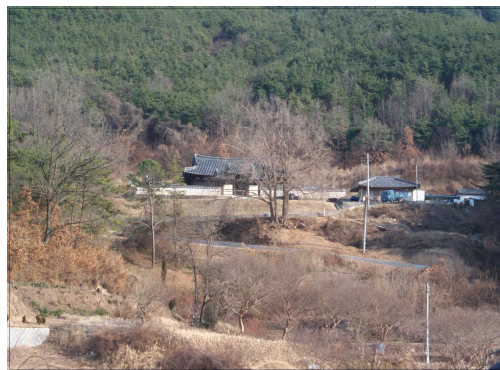
송담서원은 임진왜란 때 종군하여 큰공을 세웠으며, 정유재란 때 의병대장으로 활약한 대암(大庵) 박성(朴惺; 1549-1606) 선생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서원이다.

박성은 생원 사눌(思訥)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자는 덕응(德凝)이며 본관은 밀양인데 솔례리에서 태어났다. 선조 2년(1569)에 낙천(洛川) 배신(裵紳)에게 대학을 배웠고 한강 정구에게 수학하기도 하였다.

1592년 임란이 일어나자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의 참모로 종사하였고 정유재란 때에는 월천(月川) 조목(趙穆)과 상의하여 의병을 일으킨 이원익(李元翼)의 막하에 들어가 활약하였다.

그러나 한일합방(韓日合邦) 후 친일파(親日派)의 방화로 소실되었던 것을 근년에 후손들에 의해 복원되었는데 당시의 모습으로는 복원치 못하고 강당(講堂)과 비각(碑閣)만을 복원하였다.

넓은 대지 위에 북서향하여 방형 한식 토석담장을 두르고 전면에 출입문인 덕양문을 세웠다. 그리고 삼문을 지나면 정면으로 자연석 쌓기 한 기단 위에 화강석 월대를 두른 기단을 조성한 후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강당이 자리잡고 있다.



▲ 원 경

강당의 평면은 어칸과 양협칸에 걸친 널찍한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이 배치되어 있으며 앞쪽에 반칸 폭의 퇴칸이 자리한다.

좌측 온돌방은 마루와 4분합 들어열개문을 달아 두었고 우측온돌방은 뒤편에 벽장을 설치하고 마루와는 쌍여닫이문을 두었다. 그리고 정면 주칸 사이에는 분합문을 매칸 달아 폐쇄형 마루방이 조성되었다.

기둥은 모두 원기둥을 사용하였으며 기둥상부는 이익공양식이다. 초익공은 양서형이며 이익공은 수서형으로 초각 수법은 후기수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주칸 사이에는 화반을 1구씩 넣었으며 상부구조는 제형판대공을 세운 5량가구이다.

다만 마루 상부를 건너지르는 대량 하부에 내진주열에 맞춰 기둥 2분을 세우고 기둥 위에 주두를 얹고 보아지를 삽입하여 대량의 무게를 감당케 한 것은 일반적인 예와는 법식을 달리하고 있다.

겉처마 팔작지붕 건물로 근년에 건립하여 깨끗하나 전통적인 법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 강 당 정 면



▲ 배 면



▲ 우 측면



▲ 좌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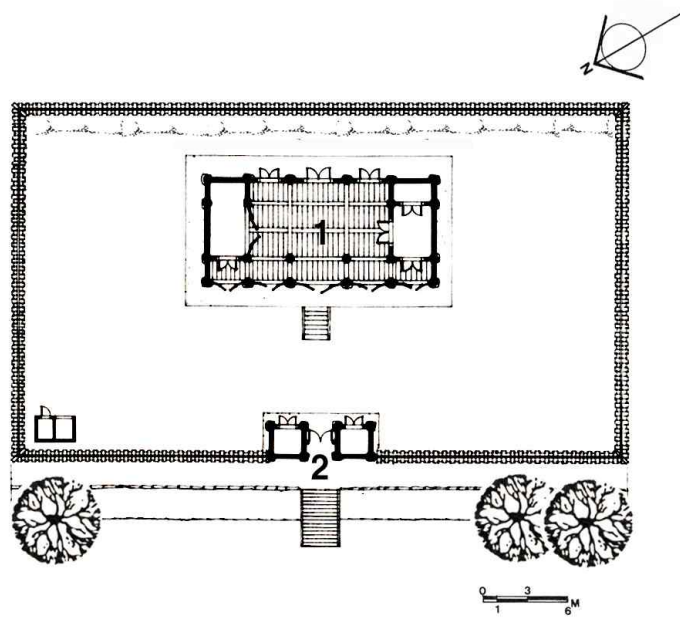
▲ 기둥머리



▲ 상부구조



▲ 비 각



송담서원 배치평면도

112. 도동서원 (道東書院)

- 지정종별 : 보물 제350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번지
- 건립년대 : 1605년 창건, 1964년, 1973년 보수
- 건축규모 : 일 괵(16동)
 - ① 수월루(水月樓) - 정면 3칸,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② 강당(中正堂) - 정면 5칸, 측면 2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③ 사당(祠堂) - 정면 3칸, 측면 3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④ 거의재(居義齋;東齋)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⑤ 거인재(居仁齋;西齋)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⑥ 장판각(藏板閣) - 정면 2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⑦ 증반소(蒸飯所) - 정면 2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⑧ 내삼문(內三門)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⑨ 환주문(喚主門) - 정면 1칸, 측면 1칸, 홑처마, 모임지붕
 - ⑩ 사주문(四柱門) - 정면 1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⑪ 전사청(典祀廳) - 정면 5칸, 측면 4칸, 홑처마, 우진각+맞배지붕
 - ⑫ 문간채 - 정면 4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⑬ 곽간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⑭ 비각 - 정면 1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조선시대 유학자인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선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서원으로 1605년(선조 38)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창건하였다. 1607년 ‘도동’(道東)이라는 사액(賜額)을 받아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으며, 1678년(숙종 4)에 정구(鄭逋)를 배향하였다. 대원군의 서원 철폐 때에도 훼손되지 않았다. 서원의 규모와 가치로 볼 때 영주의 소수서원(紹修書院), 안동의 도산서원(陶山書院)·병산서원(屏山書院), 경주의 옥산서원(玉山書院)과 함께 5대 서원에 속한다.

서원의 배치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법식에 의해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다. 서원의 축은 사당, 강당 그리고 출입문인 수월루가 남북축을 이루면서 자리하고 있으며 대지도 크게 3개영역으로 구성하여 건물들을 앉혔다. 먼저 진입공간에 해당하는 수월루가 서원의 전면부분에 자리하고 수월루를 들어서면 진입공간보다 대지가 높게 조성된 강학공간(講學空間)이 나타난다. 환주문을 통하여 공간을 연결하고 강학공간은 강당인 중정당을 중심으로 동서계가 펼쳐진다. 그리고 강학공간 뒤편, 즉 서원에서 가장 높고 깊숙한 곳에 제향공간(祭享空間)이 별도의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중심공간의 보조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지원시설들은 우측편에 배치시켜 각 영역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 강 당

건물 기단(基壇)은 지대석(址臺石)과 면석(面石), 그리고 갑석(甲石)으로 구성되어있다. 바닥에 지대석을 한단 놓고 기단면석을 설치했다. 기단면석은 외부면을 평평하게 다듬고 허튼층 쌓기 하였는데 부재끼리 물리는 부분은 모서리부분을 짜맞추어 마치 성곽의 돌쌓기와 유사하게 축조하였다. 그리고 석축 면석 상부면은 일자로 맞춘 후 갑석을 면석보다 조금 돌출되도록 덮었다. 그러나 배면은 전면과 좌우측면과는 달리 면석으로만 축조되어 있으나 변형된 듯 여겨진다. 전면 기단에는 갑석 아래 면석 사이에 장식 조각물을 삽입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갑석하부에 용머리 4개는 각기 독특한 형상을 취하고 있다. 계단 바깥쪽의 용머리는 여의주를 물고 있고 계단사이에 설치된 용두는 물고기를 물고 있다. 그리고 우측 계단 바깥쪽 용두와 계단사이에는 위로 올라가는 다람쥐가, 좌측 계단 바깥쪽 용두와 계단사이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다람쥐가 조각되어있다. 기단바닥은 갑석 위에 한단 올려 방형의 판석을 깔았다. 기단 위에 덩벙주초를 놓고 원기둥을 세운 강당의 평면은 전형적인 중당협실형이다. 가운데 6칸 넓은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1칸반 정도의 온돌방을 설치하고 앞쪽으로 5칸에 걸쳐 퇴칸을 두었다. 우측 온돌방 뒤편에 수납공간인 벽장을 두었고 방 양 측면에는 쪽마루를 깎 듯 석재로 가공한 퇴를 만들고 정면 퇴칸 하부에 함실아궁이를 설치했다. 창호의 설치는 마루 전면은 개방하였으나 배면은 머름 위에 둔테를 둔 쌍여닫이 판문을 달았고 온돌방과 마루사이에는 맹장지문을 설치했다. 그리고 온돌방 전면과 측면에는 궁판이 없는 띠살문으로 온돌방 전면에는 쌍여닫이에 내측으로 미닫이문을 둔 겹차의 구조이다. 공포는 외1출목 2익공으로 결조하였고 주칸사이에는 화반을 1구씩 두었다. 마루상부의 대들보는 통재를 사용하였고 온돌방부분은 가운데 주열에 고주를 세우고 맞보를 설치하였다. 보위에는 동자주를 세우고 그 위에 종량을 걸었고 마루상부는 파련대공을, 온돌방 상부는 판대공을 세운 5량구조이다.

처마는 전후면 모두 겹처마이고 지붕은 맞배이나 측면으로 도리뿔목을 내밀어 박공부를 형성하여 건물 규모에 걸맞은 중후한 모양이다. 기와는 막새를 사용하였고 귀면망와(鬼面望瓦)를 마루 끝에 설치하였으며 막새에 「만력삼삼년(萬曆三三年:1605)」이란 명문이 있다.

● 사 당

강당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 사당은 서원내에서 가장 높고 깊은 곳이며 주변은 담장을 쌓아 독립된 공간을 이루고 있다. 사당과 내삼문 사이에는 석등이 있고 우측으로 증반소로 들 수 있는 협문이 있으며 좌측에는 제향 후 제문을 태우는 감(坎)이 설치되어있다.

사당은 넓은 판석을 세워 면석으로 삼고 그 위에 얇은 갑석을 덮은 후 바닥에는 방전을 깔았으며 화강석 원형주초 위에 원기둥을 세워 건물을 앉혔다. 건물은 전퇴칸을 두지 않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장방형으로 내부는 우물마루를 깔고 전통칸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전면에만 쌍여닫이 골판문을 매칸 설치하고 그 외는 모두 심벽으로 폐쇄하였다.

기둥상부의 모양은 강당과 같은 외1출목 2익공양식이며 가구는 양측면의 가운데 2개기

등을 고주로 하여 중보를 받도록 하고 가운데 2개주열에는 대량을 건넜다. 그리고 그 위에 동자주를 세워 중량을 받게 한 후 파련대공을 얹어 중도리를 받게 한 5량가구이며 양측면에 풍판이 설치된 맞배지붕 건물이다. 그러나 사당은 강당과 함께 임란 이후 건립되었다고 하나 건축기법에서는 강당보다 다소 격이 떨어지는 느낌을 준다.

● 동 재(居仁齋)

재는 강당 전면에 좌측에 자리하고 있으며 원생들이 숙식과 독서를 하던 집이다. 정면부분은 외벌대의 낮은 기단을 만들고 배면은 석축을 기단으로 활용하여 건물을 앉혔다. 평면은 환주문쪽으로 1칸 마루를 두고 2칸 온돌방을 연결하였다. 그리고 온돌방 앞쪽으로 퇴를 두었으며 마루 우측벽은 판벽으로 마감하였다. 온돌방 전면과 배면에는 매칸 외여단이 세살문을 달았고 방과 마루와는 궁판을 끼운 외여단이 세살문을 두었다.

기둥머리는 온돌방부분은 대량하부에 보아지를 끼웠으나 마루부분은 창방을 건너지르고 주두를 얹은 다음 초익공을 만들고 주칸에는 소로를 넣었다. 그러나 익공이 돌출되지 않고 살미는 보머리에 맞추어 직절하였고 보아지는 내측으로 단차를 두어 치목하였다. 또한 마루부분 대량의 기둥상부 부분에는 기둥의 화통가지가 결구되었던 보의 턱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온돌방 상부와 마찬가지로 각 기둥이 주두 없이 바로 보머리에 결구되어 있었던 듯하다. 상부구조는 대량 위에 판대공을 얹어 중도리를 받게 한 간결한 3량구조이며 풍판을 두지 않은 맞배지붕을 올렸다.

● 서 재(居義齋)

동재와 대향하여 자리하고 있으며 온돌방 앞에 퇴를 두지 않은 것이 동재와 다를 뿐 평면은 동일하다. 가구구성 역시도 동재와 동일하나 환주문쪽 측면에 대량을 받게 한 보조기둥을 하나 더 둔 것이 상이하다.

● 장판각(藏板閣)

강당 서편에 대지를 한단 낮게 조성한 후 건립된 장판각은 경판을 보관하는 용도의 건물이다. 내부는 2칸통으로 처리하여 우물마루를 시설하고 전면 좌측칸에만 쌍여단이 판문을 달아 출입케 하고 측면과 배면은 재사벽을 치고 전면은 판벽으로 마감하였다. 판벽 상부에는 장여와 상인방사이를 일부 개방하여 환기가 좋도록하였고 전면은 고맥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측벽은 X자형으로 가새를 뒀고 배면은 중방을 두고 가새로 보강하였다. 기둥상부는 창방없이 보아지를 끼운 후 대들보를 얹어 기둥에 직접 하중이 전달되게 하였고 대량 위에 판대공을 얹은 3량가이며 풍판을 설치한 맞배지붕이다.

● 증반소(蒸飯所)

증반소는 제기고(祭器庫)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원래의 기능은 향사(享祀)때 제상(祭床)에 올리는 젓메를 짓고 기물(器物)을 보관, 준비하는 곳으로 일종의 독립된 제사 준비공간이라

할 수 있다.

평면은 온돌방 1칸과 폐쇄형 마루방 1칸으로 구성되어있다. 온돌방은 외부에서 출입할 수 없고 마루방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며 사당 쪽으로 쌍여닫이창을 두었다. 그리고 마루방은 측면에 외여닫이 골판문을 두었을 뿐 여타의 개구부는 설치하지 않았고 바닥에는 장마루를 깔았다. 상부구조는 굴도리에 판대공을 얹은 3량가구이며 맞배지붕을 올렸다.

● 수월루(水月樓)

원래 수월루는 1888년 화재로 소실되어 1973년 복원된 건물로 중층다락집으로 하층은 서원의 출입문이며 외담과 연결되고 상층은 사면을 개방하여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하층은 매칸 대문을 설치하였으며 기둥머리에는 창방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창방 뿔목은 초각이 되어 있어 상부 우물마루 귀틀의 보아지 역할을 하고 있다. 상층바닥은 모두 우물마루로 되어있는데 우물마루 귀틀을 기둥 바깥쪽으로 빼내어 귀틀 뿔목 마구리에 치마널을 달아 계자난간을 설치하였다. 상층 기둥은 우물마루 귀틀 위에 세웠고 기둥 상부에는 창방을 돌리고 공포를 기둥 위에만 두었다. 공포의 모양은 중정당과 동일하게 하였고 킷기둥 위에는 귀공포를 얹었으며 공포와 공포사이에는 화반을 설치하였다. 상부구조는 외목도리를 둔 5량가구이며 파련대공을 얹은 팔작지붕이다.

● 환주문(喚主門)

환주란 주인을 부른다는 뜻으로 마음을 수양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향하여 「주인은 깨어 있는가」 하고 반문하는 뜻으로 주인이란 마음을 의미한다. 환주문은 수월루와 중정당 사이에 자리하는 한칸의 작은 일각문이지만 공간 구성상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쪽의 진입공간과 강학공간을 구별짓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다.

높다란 석축 위에 길고 넓은 화강석에 원형주좌를 초각한 주초 위에 민흘림이 강한 기둥을 세우고 창방을 건너질렀다. 창방과 직교하여 기둥머리에 창방을 다시 걸어 뜬창방과 결구시켰다. 뜬창방과 직교된 창방 위에 소로를 놓고 기둥상부에는 주두를 창방이 직교되는 곳에는 주두형 부재를 얹어 원형보를 얹었고 뜬 창방 위에는 장여와 납도리를 얹었다. 뜬창방이 결구된 주두형 부재 하부에는 원통형 부재를 마구리에 연꽃 모양을 초각하여 거꾸로 끼워 놓았고 주두와 주두 사이에 걸려있는 휘어진 보위에는 부재를 첨가하여 추녀와 서까래를 걸었다. 지붕은 사모 모임지붕이며 가운데 절병통을 올려놓았다.

● 전사청(典祀廳)

현재 서원을 관리하는 교직인(校直人)이 거주하는 ㄷ자형 민가건물이지만 건물의 평면구성으로 볼 때 향사때 참례객의 집회와 음식을 준비하고 학인들의 뒷바라지를 해오던 전사청인 듯하다. 본채부분의 가운데 3칸 마루를 중심으로 우측에 2칸 부엌이 익사와 연결되고 부엌과 연접하여 2칸 온돌방이 자리한다. 그리고 마루 좌측은 온돌방 1칸과 익사로 꺾이면서 부엌, 방, 마루방으로 연결된다. 건물구조는 간단한 3량이며 기둥상부에 창방없이 보아

지를 끼우고 기둥이 직접 보와 도리, 장여를 받게 하였고 대량 위에 판대공을 얹어 중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전면에서 보면 양쪽 익사는 맞배지붕으로 박공부분이 노출되고 지붕이 연결되는 곳은 우진각지붕이며 용마루의 높이는 동일하다.

● 비 각(碑閣)

비각은 서원 전면 수월루 서편에 별도로 대지를 조성하여 건립되어 있는데 문경공비를 보호하기 위해 1977년에 건립하였다. 비각 전면에 일각문을 두고 주위는 토장을 돌려 독립된 공간을 이루고 있다.

평면은 내부의 비(碑)에 맞추어 간살을 잡을 관계로 정면보다 측면 칸살이 더 넓다. 비각 전면에 2짝문을 설치하고 4면에 홍살을 세워 내부의 비가 잘 보이도록 하였다. 건축양식은 출목이 없는 2익공양식이며 판대공을 세운 3량가구에 풍판을 설치한 겹처마 맞배지붕의 건물이다.

● 담 장

도동서원의 담장은 전후면으로는 직선형의 수평담장이 배치되고 좌우측면 담장은 대지의 고저차에 순응하여 층단을 지어 담장이 설치되었다. 담장의 구조는 자연석 석축이나 큰 돌을 모아 정열 시킨 지대석 위에 하부에는 자연석막돌을 쌓고 상부에는 암기와를 바른층 쌓기하면서 사이에 진흙을 넣었다. 그리고 담장 위에는 한식기와 잇기로 마감하였다. 사당이 있는 제향공간 서편담장 내측에는 제문을 태우던 감이 설치되어있는 등 도동서원의 담장은 보물로 지정될 만큼 건물과 함께 독특한 구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 원 경



▲ 근 경



▲ 수월루



▲ 내부전경



▲ 강당 전경



▲ 배면



▲ 우측면



▲ 좌측면



▲ 상부구조



▲ 기둥머리



▲ 사당 정면



▲ 사당 우측면



▲ 좌측면



▲ 기둥머리



▲ 동재



▲ 서재



▲ 환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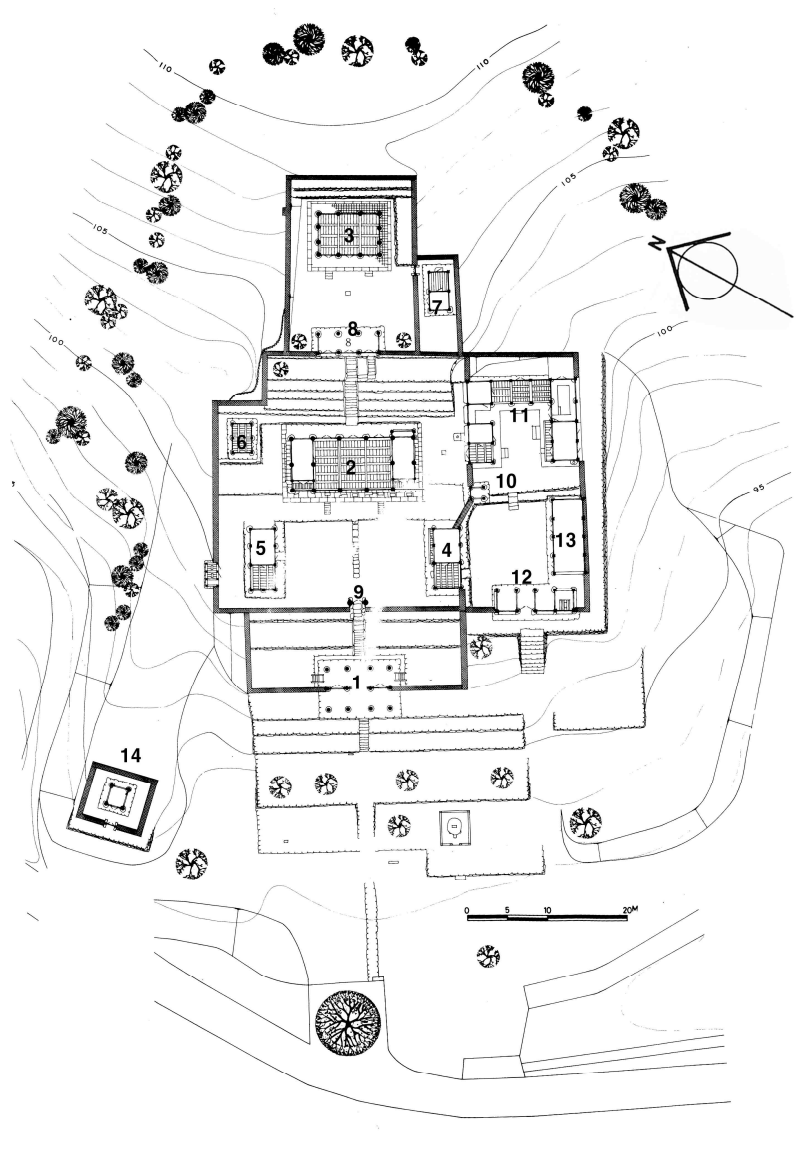
▲ 내삼문



▲ 기단 용머리장식



▲ 담 장



도동서원 배치평면도

113. 정수암 (淨水庵)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1번지
- 건립년대 : 1956년
- 건축규모 : 일 괵(2동)

① 법 당 - 정면 4칸, 측면 1칸, 흘처마, 맞배지붕

② 요사채 - 정면 4칸, 측면 1칸, 흘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이 돌아가신 후 여묘(廬墓)하던 장소에 선생의 후손들이 독서당(讀書堂)으로 세웠고 현재 불교 조계종 소속 대니산 기도처로 사용하였다.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1칸의 팔작기와집으로 가구는 5량가이다. 평면은 좌로부터 온돌방 3칸과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칸 2칸은 반칸 가량을 뒤로 물려 전면에는 퇴칸을 형성하였다. 우측의 부엌은 중방하부는 판벽으로 마감하고 상부는 심벽으로 처리하면서 측면 쪽으로 쌓여달이 판문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좌측방 뒤편으로 부엌을 1칸 후설하였다.

기둥은 모두 원기둥을 사용하였으며 납도리 5량구조이다. 현재 이 건물은 용도가 바뀐 관계로 어칸 2칸은 법당으로, 좌측 방은 주지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지실 뒤편에는 부엌을 증설하는 등 변형이 심하다.

정수암 전면 우측에서 남향하고 있는 요사채는 가운데 함실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설치하고 우측칸에 마루1칸을 두었으나 실과 창호 등 개조가 되었다.



▲ 정수암 원경



▲ 정수암



▲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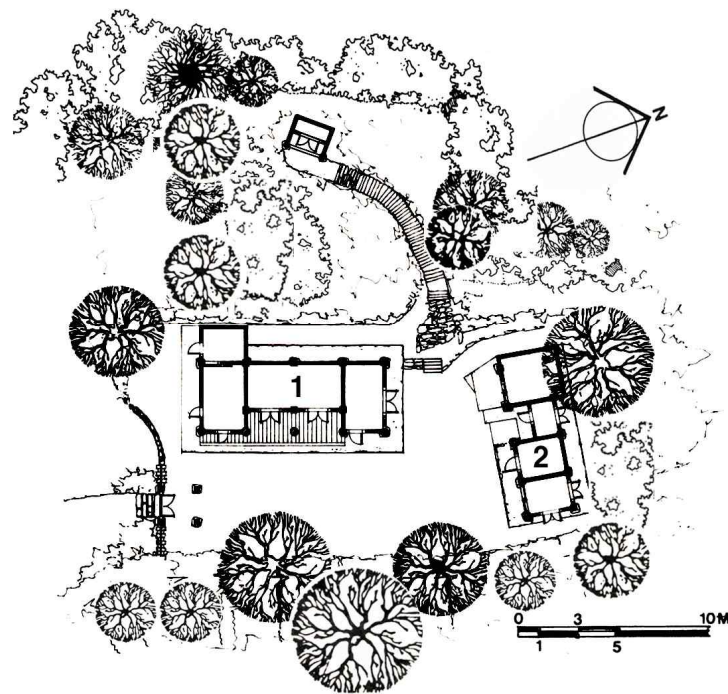
▲ 좌측면



▲ 기둥상부



▲ 요사채



정수암 배치평면도

114. 운흥사 (雲興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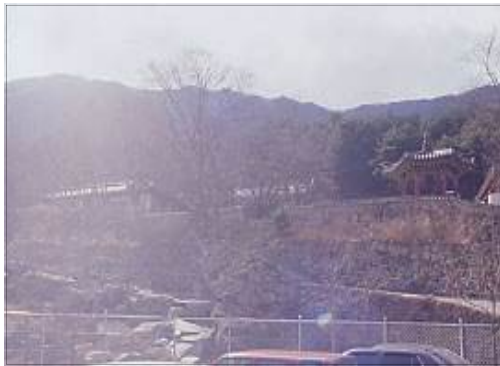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151번지
- 건립년대 : 1757년 재건
- 건축규모 : 일 괘(5동)
 - ① 대웅전(大雄殿) - 정면 3칸, 측면 2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② 종무소(宗務所) - 정면 6칸, 측면 5칸, 홑처마, 팔작지붕
 - ③ 요사채(寮 舍) - 정면 4칸, 측면 3칸, 홑처마, 우진각지붕
 - ④ 삼성각(三聖閣) - 정면 1칸, 측면 1칸, 겹처마, 우진각지붕
 - ⑤ 종 각(鐘 閣) - 홑처마, 모임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가창면(嘉昌面) 최정산(最頂山)에 자리하고 있는 운흥사는 팔공산 동화사(桐華寺)의 말사(末寺)이다. 신라 흥덕왕(興德王) 때 창건하여 동림사(桐林寺)라 하였는데 초창(初創)시의 위치는 지금의 자리가 아니고 산 정상부에 위치하였다고 한다. 그 후 곡산(谷山)으로 옮겨 수암사(燧巖寺)라 이름하였고 지금의 위치로 옮기면서 운흥사라 하였다. 조선 광해군 12년(1620) 무념대사(無念大師)가 중창하였고 영조 27년(1757)에 치화대사(致和大師)가 중건하였다.

비슬산 북동사면에 북동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정형적인 산지가람이면서도 산지중정식 가람배치와는 그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대웅전(大雄殿)을 중심으로 앞쪽 좌우에 종무소(宗務所)와 요사채(寮舍)가 대향하고 있으며 대웅전 배면에 삼성각(三聖閣)이 배치된 ㄷ자형 배치이며 근년에 전면 축대와 육각정(六角亭)을 건립하여 전반적으로 고태(古態)가 많이 상실되었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아담한 규모의 건물로 외2출목 내3출목의 다포계(多包系) 양식을 지니고 있으며 살미의 모양은 양서(仰舌)형으로 단부가 사절(斜截)된 조선후기의 수법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을 모시는데 여기서는 독특하게 아미타삼존불(阿彌陀三尊佛)을 모시고 있는데 아미타불을 주불(主佛)로,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과 관세음보살(觀音菩薩)을 협시불(挾侍佛)로 하고 있다. 그리고 대웅전 배면에 있는 삼성각은 단칸(單間)건물로 납도리 팔작지붕을 올려 앙증스럽다.



▲ 원 경



▲ 대웅전 정 면



▲ 좌측면



▲ 우측면



▲ 배 면



▲ 공포상세



▲ 삼성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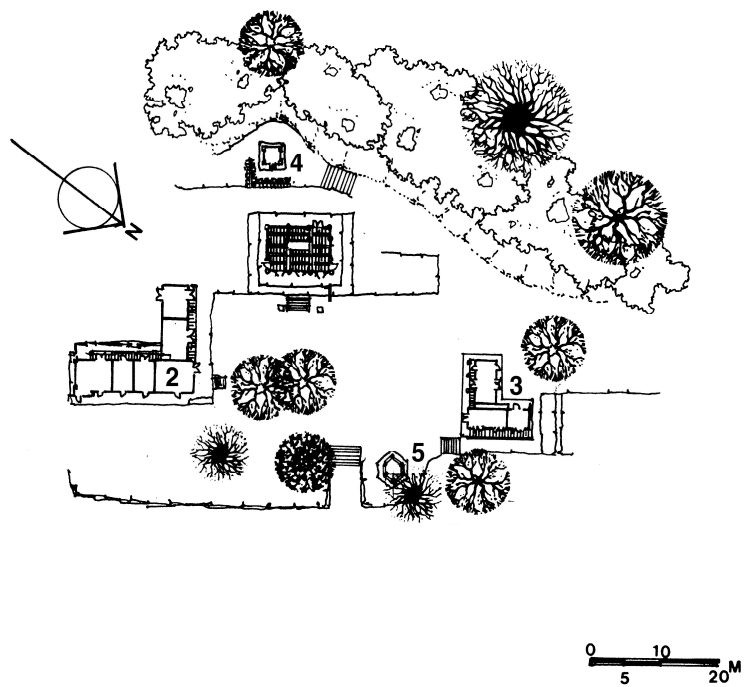
▲ 종무소



▲ 요사채



▲ 종각



운흥사 배치평면도

115. 이잠봉가옥 (李岑奉家屋)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행정2리 188번지
- 건립년대 : 미상
- 건축규모 : 일곽(2동)
 - ① 안채 - 정면 4칸, 측면 1칸, 홑처마, 우진각지붕
 - ② 아랫채 - 정면 5칸, 측면 1칸, 홑처마, 우진각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토담으로 둘러쳐진 입구를 들어서면 안채가 남향하여 자리하고 안채 전면 좌측 편에 동향하여 아랫채가 배치되어있다.

안채는 3량가의 민도리집으로 평면은 좌측으로부터 부엌, 안방, 마루, 건넌방이 연결되어 있다. 부엌은 좌측과 뒤쪽으로 반칸 정도 확대하였으며 좌측 온돌방 앞쪽으로 퇴를 설치하였다. 상부구조는 3량으로 원래는 초가이었으나 20여년 전에 시멘트 기와로 교체하였는데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아랫채는 사랑공간과 헛간이 복합된 듯하다. 평면은 좌측에서부터 마루, 방, 방, 마굿간, 헛간이 연결되어 있으며 3량구조에 민도리집이다. 아랫채 역시 초가이었던 것을 새마을사업 때 시멘트 기와로 개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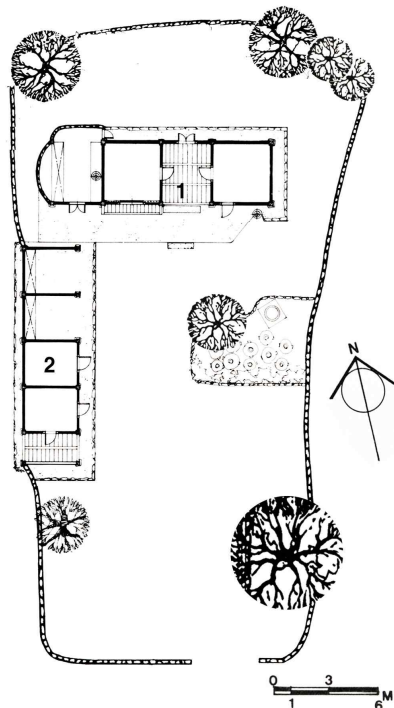
▲ 전 경



▲ 안채 정 면



▲ 상부구조



이잠봉가옥 배치평면도

116. 조길방가옥 (趙吉芳家屋)

- 지정종별 : 중요민속자료 제200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정대1리 350번지
- 건립년대 : 1784년
- 건축규모 : 일 괵(3동)
 - ① 안채 - 정면 4칸, 측면 1칸, 홀처마, 초가지붕
 - ② 사랑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홀처마, 초가지붕
 - ③ 아래채 - 정면 3칸, 측면 1칸, 홀처마, 초가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함안 조씨가 11대째 살아오고 있는 초가로 조선 중기에 난리를 피해 이곳으로 들어와 정착하면서 지은 건물로 전한다. 안채 종도리 장여하부에 “성상재위구년갑진이월십구일 묘시견주미시상량(聖上在位九年甲辰二月十九日 卯時堅柱未時上樑)”이라는 묵서명이 있다.

갑진년이던 1784년에 해당하며 조선 정조 8년이다. 따라서 간지와 1년의 시차를 보인다. 때로 재위년과 간지(干支)가 1년의 오차가 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할 때 1784-5년에 건립되었음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발 800m의 고지에 경사가 급한 비슬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이 마을은 과거 15호 가량 살았으나 현재는 6호만 남아있고 이 가옥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며 안채를 제외한 사랑채와 아래채는 후에 개축되었다 한다.

가옥배치는 안채를 중심으로 우측에 사랑채가 자리하고 대향하여 아래채가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튼구자형을 이루고 있다.

서향으로 자리잡은 안채는 산자락에 터를 잡은 관계로 기단을 높이 쌓고 그 위에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건물을 앉혔다. 남부형 민가 평면형에 속하는 평면구성으로 2칸 마루의 왼쪽에 큰방과 부엌을, 오른쪽에 건너방을 배치하고 있다. 마루에서 큰방과 건너방으로 출입하는 외여단이 골판 세살문은 높이 매우 낮아서 몸을 구부려야 드나들 수 있고, 특히 안방 전면 벽에 낸 외여단이 세살창문은 그 크기가 매우 작아서 출입보다는 채광과 통풍에 뜻을 두고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왼쪽으로 축대를 연장하여 부엌 곁에 장독대를 갖추었다. 축대 앞의 낮은 마당에는 좌우에 아래채와 사랑채가 마당을 가운데 두고 부속건물처럼 낮게 마주보고 배치하여 상대적으로 안채의 비중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안채는 남부형에 속하는 평면구성으로 2칸 마루의 왼쪽에 큰방과 부엌을, 오른쪽에 건너방을 배치하고 있다. 마루에서 큰방과 건너방으로 출입하는 외여단이 골판 세살문은 높이 매우 낮아서 몸을 구부려야 드나들 수 있고, 특히 안방 전면 벽에 낸 외여단이 살창문은 그 크기가 매우 작아서 출입보다는 채광과 통풍에 뜻을 두고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인 구법인 3량구조로 결조되었으나 초가에서는 보기 드물게 마루 정면 기둥만 특별히 원기둥을 사용하였으며 대량과는 원초적인 상투걸이 수법으로 결구되어 이색적이며

짜리기둥에 칠기붓장(칠기나무로 된 보)집 임을 자랑으로 여겼다고 한다. 이 집은 초가로는 드물게 보는 오래된 건물이며 특히 안채의 개구부의 규모와 성격은 한국주택발달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사랑채는 초가3칸으로 우측에서부터 방 2칸을 두고 헛칸 1칸을 넣었다. 사랑채인 까닭에 외부에서 출입이 용이하도록 배면에 퇴를 설치하였고 내측으로도 퇴를 두었다. 또한 아래채는 좌측에 마루바닥의 고방을 두고 연하여 온돌방을 배치하였으나 과거 이곳은 방앗간이 있었다고 하며 우측으로 마구 1칸을 첨가하였다.



▲ 안 채



▲ 방구매기



▲ 기둥상부



▲ 상부구조



▲ 부엌문



▲ 아래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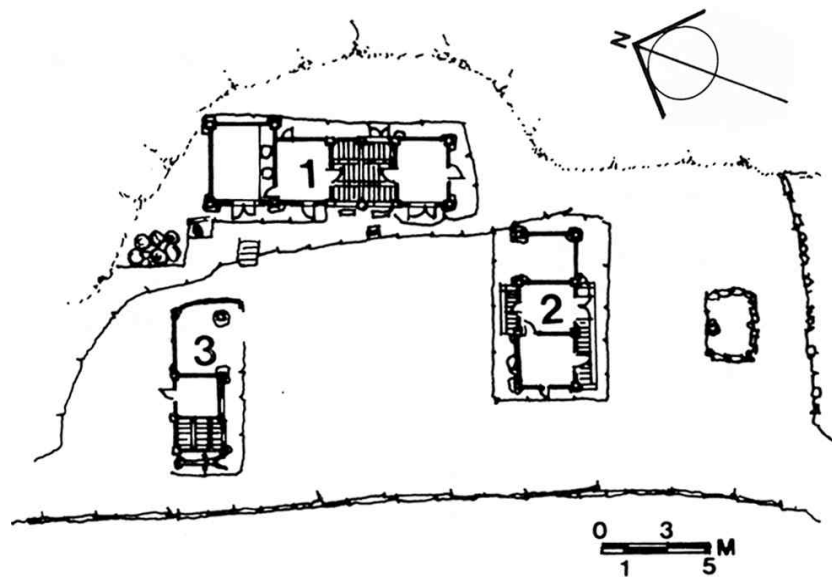
▲ 사랑채 정 면



▲ 배 면



▲ 처 마



조길방가옥 배치평면도

117. 남지장사 (南地藏寺)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865번지
- 건립년대 : 신라 신문왕 4년(684), 1769년 중건
- 건축규모 : 일 광(5동)
 - ① 대웅전(大雄殿) - 정면 3칸, 측면 2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② 심검당(尋劍堂) - 정면 4칸, 측면 3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③ 요사채(寮 舍) - 정면 3칸, 측면 2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④ 광명루(光明樓)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⑤ 삼성각(三聖閣) - 정면 1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남지장사는 684년(신라 신문왕 4년) 량개조사(良介祖師)에 의하여 창건되었다고 하며 창건당시에는 대웅전(大雄殿), 극락전(極樂殿), 명부전(冥府殿), 만세루(萬歲樓), 사천왕문(四天王門) 등의 건물과 8개의 암자를 거느린 매우 규모가 큰 사찰이었고 전하며 3,000여명의 승려가 수도하기도 했다고 전한다.

1263년(원종 2년) 일연(一然)이 중창한 바 있으며 또한 이곳은 조선조에 고승 무학대사(無學大師)가 수도한 곳이며, 임란 때는 사명대사(四溟大師)가 거느린 승병과 의병들이 우록동계곡에서 왜병과 전투를 벌리기 전 승병들의 훈련기지로 이용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병화로 사찰의 대부분 건물이 소실되어 효종 4년(1653) 인쇄(印惠)가 중창하고 영조 43년(1767) 모계(慕溪)가 중창한 후 팔공산 내의 북지장사(北地藏寺)와 서로 대칭 되는 곳에 위치한 절이라 하여 ‘남지장사’라 이름하였다 한다. 그리고 대구읍지(大丘邑誌)에 의하면 「부에서 남쪽으로 40리 되는 최정산(最頂山)에 자리하고 있다. 방사(房舍)는 승당(僧堂), 선당(禪堂)이 있고, 부속암자는 청련암(靑蓮菴)이 있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철종 2년(1851)에도 중수가 되었으며, 남지장사에 대항하여 팔공산 자락에 북지장사(北地藏寺)가 있다.

지장사(地藏寺)는 지장보살(地藏菩薩)을 신앙의 중심으로 모시는 도량으로 지장이란 땅은 여러 가지 보배를 간직하고 종자를 양육하는 것과 같이 중생을 장양(長養)한다는 의미로, 지장보살은 미륵불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까지 무불(無佛)의 세계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을 말한다.

우록리 가장 깊은 산골짜기에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는 본 사찰은 부지를 2단으로 조성한 후 상단에 대웅전을 앉히고 전면 하단에 대항하여 심검당과 요사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사찰 출입문인 광명루(光明樓)를 대웅전과 대항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ㄱ자형인 중정식(中庭式) 산지가람배치(山地伽藍配置)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사찰의 출입문인 광명루는 내정(內庭) 쪽으로는 “광명루”라는 편액이 붙어있고 외측으로는 “최정산남지장사사문(最頂山南地藏寺沙門)”이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일반적으로 루(樓)라 하면 중층의 건물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단층건물이어서 의문이 남는다.

대웅전은 어칸을 험칸보다 크게 잡은 정면 3칸 측면 2칸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기단은 과거 사찰에 사용된 듯한 장대석 판석 부재가 군데군데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양식은 사찰의 주전에서는 자주 채택되지 않는 익공양식이다. 익공모양은 살미 길이가 짧고 단부가 사절되었으며 살미 위에 연화를 얹고 대량머리는 봉두를 끼워 처리하였다. 그리고 심검당은 겹집평면에 5량 맞배지붕 건물이며 우측 요사채는 심검당과는 달리 홑집평면에 3량 맞배지붕 건물이다. 또한 전면에 자리하고 있는 광명루는 초익공에 3량구조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 전 경



▲ 대웅전 정 면



▲ 배 면



▲ 좌측면



▲ 우측면



▲ 익공상세



▲ 심검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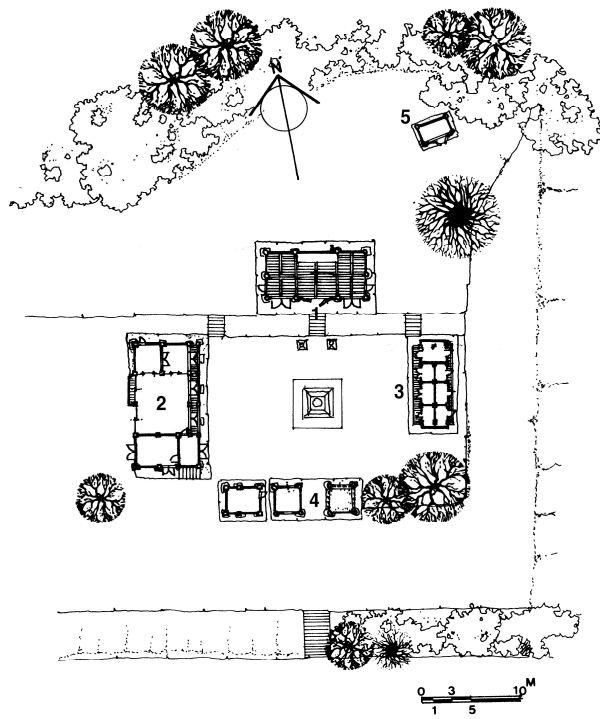
▲ 요사채



▲ 광명루 기둥상부



▲ 광명루 상부구조



남지장사 배치평면도

118. 남지장사 청련암 (南地藏寺 靑連菴)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4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856번지
- 건립년대 : 1808년
- 건축규모 : 일 괘(3동)
 - ① 인법당 - 정면 7칸, 측면 7칸, 홑처마, 맞배+팔작+T자지붕
 - ② 삼성각(三聖閣)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③ 삼문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남지장사의 부속암자로서 남지장사의 동편 350m 거리에 위치한다. 684년(신문왕 4)에 랑개조사(良介祖師)가 창건한 사찰로 조선시대의 고승 무학대사(無學大師)가 수도한 곳이며, 임진왜란 때는 사명대사(泗溟大師)가 승병들의 훈련장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당시 병화로 소실되었다 한다.

1653년(효종 4)에 인쇄대사(印惠大師)가 중건하였으나 1806년(순조 6)에 화재를 당하여 2년 뒤인 1808년에 재건하였다.

암자의 배치는 전면에 매우 높은 석축을 조성한 관계로 정면에서 인법당으로 바로 출입하기가 곤란하여 우측으로 문을 낸 후 남서향으로 법당을 앉혔다. 그리고 배면에 낮게 축대를 만들고 삼성각을 남향으로 축을 틀어 배치하였다.

법당인 인법당은 청련암의 중심건물로 법당의 기능과 요사의 기능이 혼합되어있다. 따라서 평면의 구성이 사찰건축의 일반적인 예와는 달리 가운데 3칸통의 법당을 중심으로 좌측에 방 2칸이 연결되고 우측으로 부엌이 자리한다.

그리고 전후에 퇴칸을 내고 좌측 전면으로 방 1칸과 마루 1칸을 덧대어 일견 민가의 사랑부분을 연상시키며 부엌 뒤편으로도 방 2칸을 더 두었다. 또한 우측방 측면에 퇴를 내면서 전면 쪽으로 가림벽을 설치하여 시선을 차단하였다.

건물의 양식은 무익공 소로수장으로 정면과 배면 외진주는 원기둥을 사용하였으며 동자대공을 세운 3량구조에 정자형, 팔작형, 맞배형을 혼합하여 지붕을 꾸몄다. 또한 삼성각은 3칸 규모 건물로 내부는 우물마루를 깔고 전 통칸으로 사용하면서 삼면은 심벽으로 폐쇄하고 전면에만 출입문을 두었다.

어칸은 궁널을 끼운 쌍여닫이 띠살문을 설치하고 양협칸은 외여닫이문을 달았다. 근면에 보수하여 부분적으로 부재들이 교체되었고 모로단청을 올린 흔적이 역력하다. 그리고 홑처마 맞배지붕에 풍판을 두었으나 건립년대는 그리 오래지 않다.



▲ 청련암 전경



▲ 인법당



▲ 좌측면



▲ 배면



▲ 우측 배면



▲ 기둥상부



▲ 상부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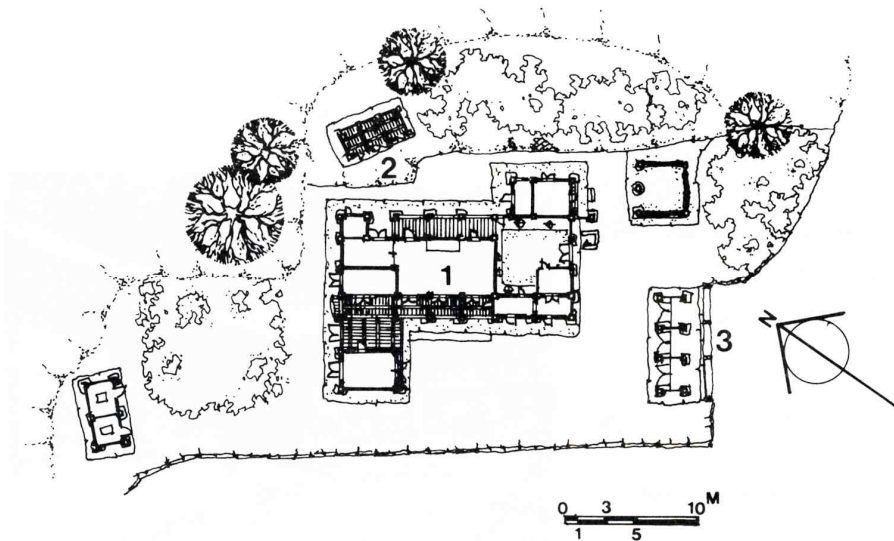
▲ 외삼문 기둥상부



▲ 삼성각



▲ 삼성각 기둥상부



남지장사 청련암 배치평면도

119. 백련암 (白蓮庵)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856번지
- 건립년대 : 1950년경 이건
- 건축규모 : 일 괵(3동)
 - ① 관음전(觀音殿) - 정면 3칸,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
 - ② 산신각(山神閣) - 정면 1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③ 요사채(寮 舍) - 정면 5칸,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남지장사 전면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암자로서 초창(初創)이나 암자 유래에 대해서 알

수 없으며, 과거 백련암은 우측 산록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약 50년 전 현 위치로 이건 하였다고 한다.

주전(主殿)을 관음전으로 하여 동향으로 좌정시키고 우측에 요사 한 동을 두었으며 두 건물사이 뒤쪽으로 산신각을 두었다. 주전인 관음전은 2익공양식의 건물로서 원형판대공을 세운 3랑가구에 팔작지붕을 얹었으나 반자를 하지 않아 상부가구가 모두 노출 되어있다.

전체적으로 관음전은 부재가 약하고 조각수법이나 치목수법이 조악하고 균제미를 잃고 있다. 그러나 관음전과 요사채 뒤쪽에 자리하고 있는 산신각은 단칸 건물에 박공지붕을 얹어 아담하다.



▲ 원 경



▲ 관음전 정 면



▲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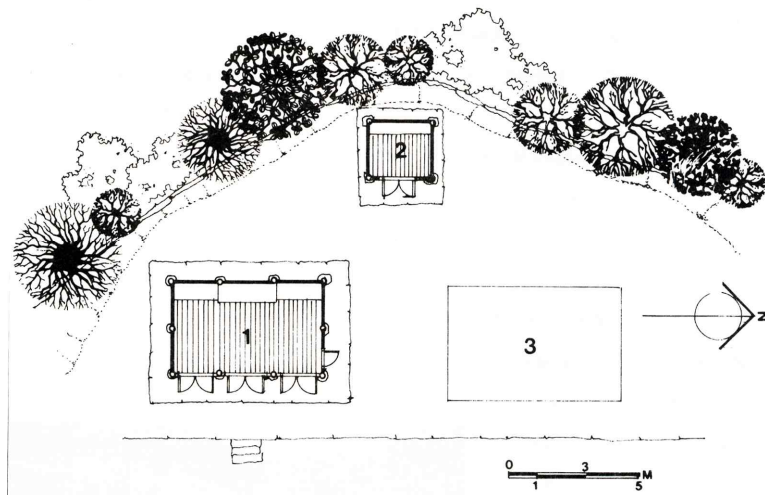
▲ 배 면



▲ 익공상세



▲ 추녀 용머리장식



백련암 배치평면도

120. 녹동서원 (鹿洞書院)

- 지정종별 : 비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558번지
- 건립년대 : 1914년 중건, 1971년 이건
- 건축규모 : 일 광(4동)
 - ① 녹동사(鹿洞祠) - 정면 5칸,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② 강당(講堂) - 정면 5칸, 측면 1칸반, 겹처마, 팔작지붕
 - ③ 내삼문(向陽門)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④ 외삼문(外三門)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솟을지붕
- 건축연혁 및 현황 :

임진왜란 때 귀화(歸化)한 왜장(倭將) 모화당(慕華堂) 김충선(일본명:沙也可)을 모신 서원이다. 김충선(金忠善)은 가등청정(加藤清正)의 좌선봉장(左先鋒將)이었으나, 경상병사(慶尙兵使) 박진(朴晉)에게 강화(講和)를 청하고 귀화하였다. 임란 이후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었고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 어사(御使) 한준겸(韓浚謙) 등의 주청으로 김충선이라는 성명을 하사 받고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랐으며, 광해군때는 여진족(女眞族)을 물리친 공으로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올랐으며, 정조 13년(1789) 유림(儒林)의 공의(公義)로 녹동사(鹿洞祠)를 건립하였다.

그러나 대원군(大院君) 금령(禁令)에 의해 고종 21년(1884)에 훼철(毀撤)되어 1914년 중건한 바 있다. 그 후 1971년 현 위치로 이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남향으로 자리잡은 서원의 배치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법식에 따랐다. 외삼문과 동일 축선상에 자리한 강당을 중심으로 강학공간(講學空間)이 형성되고 우측 뒤쪽으로 대지를

한단 높게 조성한 후 내삼문과 사당을 동일축선상에 위치시킨 제향공간(祭享空間)을 두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매우 간소하고 간결하다. 정면과 양 측면 기둥은 원주를 세웠으나 배면 가운데 2개 기둥은 각주를 세웠고 정면 부분은 초익공(初翼工) 양식을 지니고 있으나 배면은 정면과는 달리 무익공(無翼工) 소로수장(小累修粧)으로 처리하여 정면성이 강한 입면을 지닌 건물이며 「녹동사(鹿洞祠)」란 편액이 걸려있다.

강당은 정면 5칸 측면 1칸반 규모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건물로서 강당평면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채택되는 중당협실형(中堂夾室形)의 평면을 가지고 있다. 어칸과 우협칸에 걸친 마루를 중심으로 좌, 우에 온돌방을 배치하고 앞쪽으로 퇴칸을 두었다. 온돌방과 마루 사이에 사분합들문을 달아 공간의 확대가 필요시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었다. 정면기둥은 원주를 사용하고 그 외 기둥은 모두 각주를 사용하였고 건축양식은 무익공 소로수장형이다. 상부구조는 건물규모와는 조금 걸맞지 않는 3량가(三樑架)이다. 종도리 장여 하부에 「단기사천삼백사년신해팔월이십일(1971년)」이란 묵서명이 있다.

외삼문은 「향양문(向陽門)」이란 현판이 걸려 있으며 가운데 대문칸을 두고 좌우에 방과 창고를 둔 삼칸이나 대문칸 상부에 다락을 설치하고 지붕을 한단 높인 솟을대문으로 모양새가 독특하다.



▲ 정 면



▲ 강 당 정 면



▲ 좌측면



▲ 우측면



▲ 상부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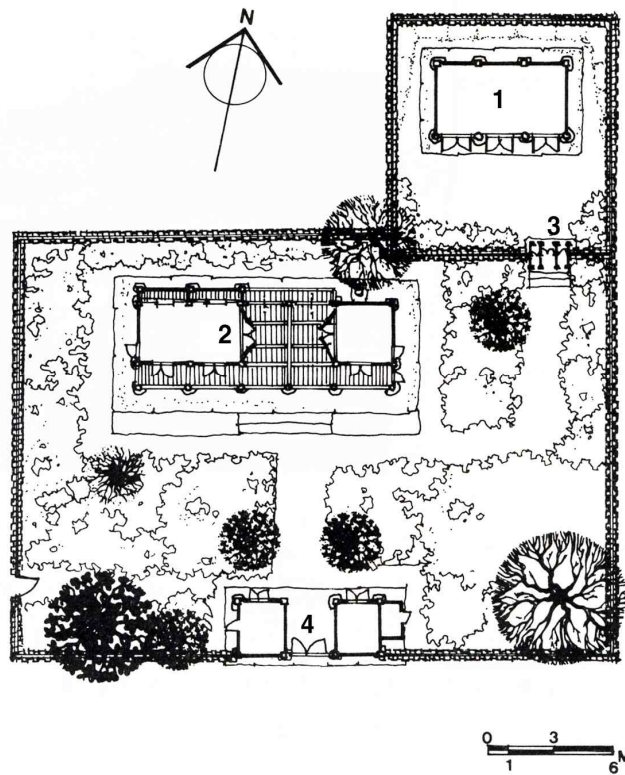
▲ 기둥상부



▲ 사당 정면



▲ 익공상세



녹동서원 배치평면도

제4장 대구지역의 근대건축물

대구지역에 근대건축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부터이다. 그 유입경로는 ○구미종교단체에 의한 종교 및 산하공공시설과 주거건축, ○일본인에 의한 관청 및 공공건축과 상업건축, ○기타 한국인에 의한 문화시설 및 상업건축이다.

○ **구미종교단체** - 개화기 이후 대구에 들어온 종교단체는 프랑스 신부들의 천주교와 미국인 선교사들의 개신교로 나누어진다. 천주교는 현 계산동과 남산동 두 거점을 중심으로 성당, 학교, 수녀원, 사제관, 병원 등의 종교, 교육, 의료시설을 건축해 나갔으며, 개신교는 남성로에 선교거점을 마련하고, 서문 동산(현 동산동) 일관(一廓)을 선교 본부로 정하고 주택, 학교, 병원, 교회당 등을 건립하여 선교기반을 구축하였다.

○ **일본인** - 일본인들은 대구에 식민지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성곽을 철거하고, 성내(城內)의 중심지역으로 밀고 들어와 구 성곽 내부의 주요 가로변에는 관청, 은행, 상점을 건축하였고, 구 성곽 밖의 여러 지역에는 주택, 학교, 도서관 등을 건축하여 그들의 세력을 대구부(大邱府) 전지역으로 확장시켜 나갔다.

○ **한국인** - 3.1운동 후 대구의 민족주의자들은 사회, 문화운동과 더불어 신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일본인들의 건축에 대항하여 교육·문화·상업건축 등을 서구식(西歐式)으로 건축하였다.

○ 대구지역 근대건축물 조사 목록

	건물 명		건축 년대	소 재 지	현존 유무	구조, 양식	규 모	비 고
	현재 명	원 명						
1	-	성모성당	1899	중구 계산동 2가 71	무	한식 목조	지상 1층	1900, 소실
2	대구계산동 성당	대구계산동 성당	1902	중구 계산동 2가 71	유	벽돌조, 고딕식	지상 1층	
3	구, 대구교구 평의회	계산성당 사제관	1929	중구 계산동 2가 71	무	벽돌조, 조지안양식	지상 2층	1995. 철거
4	-	교구청 주교관	1913	중구 남산동 225 - 1	무	벽돌조 고딕식		1958, 소실
5	성모당	성모당	1918	중구 남산동 225 -1	유	벽돌조, 고딕식	지상 1층	
6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성유스티노신학교	1914	중구 남산 225-1	유	벽돌조, 고딕식	지상 2층	
7	샬트르 성바오르 수녀원 코미넛관	샬트르 성바오르 수녀원 코미넛관	1915	중구 남산 3동 191-1	유	벽돌조, 고딕식	지상 2층, 지하 1층	
8	샬트르성바오르 수녀원 성당	샬트르성바오르 수녀원 성당	1926	중구 남산 3동 191-1	유	벽돌조, 고딕식	지상 1층	
9	샬트르 성바오르 수녀원 수련원	샬트르 성바오르 수녀원 수련원	1927	중구 남산 3동 191-1	유	벽돌조	지상 5층, 반 지하	
10	성요셉 병원	성요셉 병원	1931	중구 남산 3동 190-1	유			
11	장해숙씨주택	募文錦 주택	1937	중구 남산동 232-8	유	벽돌조	지상 2층	
12	구, 장석조 주택	姜義寬 주택	1923	중구 남산동 232	무	벽돌조	지상 1층	1998. 철거
13	천지기업사	嶠南學敎	1924	중구 남산동 657	유	목조, 벽돌조	지상 1층	

○ 대구지역 근대건축물 조사 목록 (계속)

	건물 명		건축 년대	소 재 지	현존 유무	구조, 양식	규 모	비 고
	현재 명	원 명						
14	구, 남산초등학교 본관	대구남산정 공립 보통학교 본관	1935	중구 남산동 2-122	무	벽돌조	지상 2층	1988, 철거
15	구, 남산초등학교 중관	대구남산정 공립 보통학교 중관	1936	중구 남산동 2-122	무	벽돌조	지상 2층	1988, 철거
16	구, 남산초등학교 강당	대구남산정 공립 보통학교 강당	1936	중구 남산동 2-122	유	벽돌조	지상 1층	
17	구, 경북여자 고등학교 강당	대구공립여자 고등학교 강당	1929	중구 남산동 710	무	목조	지상 1층	1993, 철거
18	구, 폴라드기념관	존슨 주택	1901	중구 동산동 206	무	벽돌조, 한양절충식	지상 1층, 지하 1층	1988, 철거
19	구, 신명학교 사임당의 집	맥파랜드 주택	1910	중구 동산동 206	무	벽돌조 한양절충식	지상 1층, 지하 1층	1988, 철거
20	구, 신명학교 에스터의 집	어드만 주택	1910	중구 동산동 206	무	벽돌조 한양절충식	지상 2층, 지하 1층	1988, 철거
21	스윙즈주택	스윙즈 주택	1910	중구 동산동 194-211	유	벽돌조 한양절충식	지상 2층, 지하 1층	
22	챌니스주택	챌니스 주택	1910	중구 동산동 424	유	벽돌조	지상 2층 지하 1층	
23	블레이주택	블레이 주택	1910	중구 동산동 194-310	유	벽돌조	지상 2층, 지하 1층	
24	구, 영남신학교 본관	동산성서학원 본관	1913	중구 동산동 230	무	벽돌조, 한양절충식	지상 2층, 지하 1층	1991. 철거
25	구, 영남신학교 여자기숙사	동산성서학원 여자기숙사	1933	중구 동산동 230	무	벽돌조 고딕풍	지상 2층 지하 1층	1991. 철거
26	동산의료원 구관	동산병원	1931	중구 동산동 194	유	벽돌조	지상 3층	
27	-	長屋	1910	중구 대신동	무	목조	지상 1층	
28	계성학교 아담스관	아담스관	1908	중구 대신동 277-1	유	벽돌조, 한양절충식	지상 2층, 지하 1층	
29	계성학교 맥퍼슨관	맥퍼슨관	1913	중구 대신동 277-1	유	벽돌조, 한양절충식	지상 2층, 지하 1층	
30	계성학교 본관	헨더슨관	1931	중구 대신동 277-1	유	벽돌조, 고딕식	지상 3층, 지하 1층	
31	남산교회	남산교회	1932	중구 남산동 941-22	유	벽돌조, 고딕식	지상 2층, 지하 1층	
32	구, 대구역	대구역	1913	중구 태평로 1가 1	무	목조 일,양절충형	지상 1층	1978. 철거
33	구, 대구공회당	대구공회당	1931	중구 태평로 1가 1	무	철근콘크리트 조,	지상 5층	1972. 철거
34	구, 한일극장	키네마 구락부	1938	중구 동성로 2가 88-22	무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3층, 지하 1층	1997. 철거
35	구, 대구경찰서	대구경찰서	1929	중구 서문로 1가 1-4	무	철근콘크리트 조	지상 3층	1984. 철거
36	구, 영남일보사	한성은행 대구지점	1920	중구 서문로 1가	무	벽돌조	지상 1층	1992. 철거
37	부산비닐상회	무영당	1937	중구 서문로 1가 58	유	철근콘크리트 조	지상 5층, 지하 1층	
38	제일교회	제일교회	1933	중구 남성로 20	유	벽돌조, 고딕식	지상 2층	
39	경북자동차매매사 업조합	朝一湯	1920	중구 북성로 1가 30-1	유	벽돌조	지상 2층	
40	구, 미나카이 백화점	三中井	1934	중구 북성로 1가 30	무	철근콘크리트 조	지상 5층, 지하 1층	1984, 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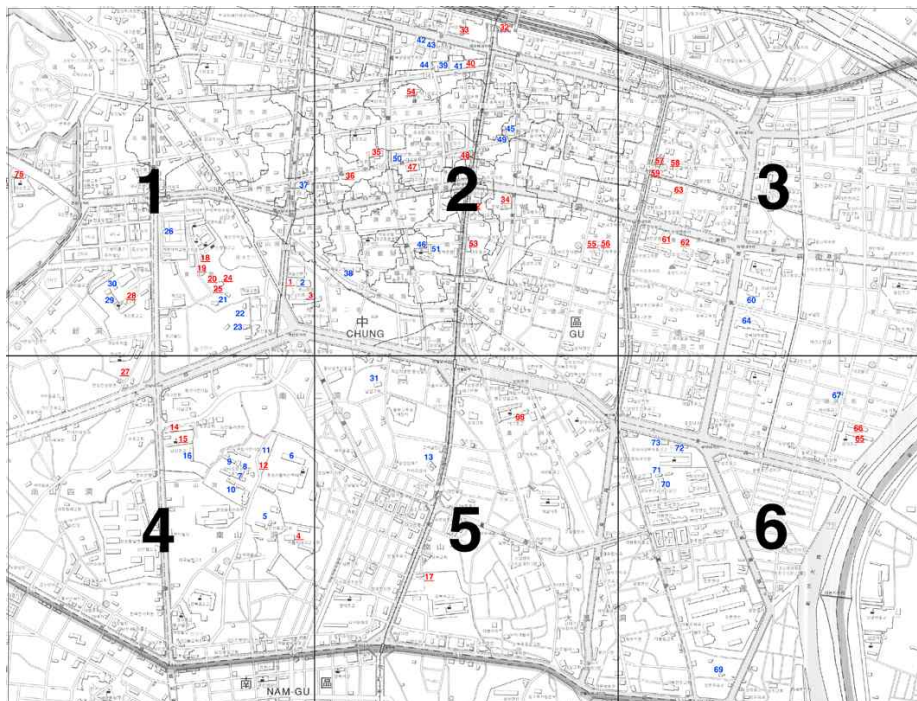
○ 대구지역 근대건축물 조사 목록 (계속)

	건 물 명		건축 년대	소 재 지	현존 여부	구조, 양식	규 모	비 고
	현재 명	원 명						
41	광명페인트사	상점병용주택(町家)	1937	중구 북성로 1가	유	목골조	지상 2층	
42	태성주방	九星運	1935	중구 북성로 2가 28	유	벽돌조	지상 2층	
43	대원석유직영 주유소	三國商會	1936?	중구 북성로 2가 27	유	竹筋콘크리트조	지상 2층	
44	김현석 주택	기무라(木村) 주택	1930?	중구 북성로 2가 30	유	목조, 일본식	지상 2층	
45	(주)엘지상사	이비시아 백화점	1932	중구 동성로 1가 34	유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4층	
46	대구화교소학교	徐炳國 주택	1925	중구 종로 2가 31	유	벽돌조	지상 2층	
47	-	대구우편국	1912	중구 포정동 35	무	목조, 일양절충식	지상 2층	
48	구,서울신탁은행 대구지점	조선은행 대구지점	1920	중구 포정동 58	무	벽돌조	지상 2층	1990. 철거
49	장기신용은행 대구지점	대구금융조합	1925	중구 포정동 5	유	벽돌조	지상 2층	
50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	1918	중구 포정동 33	유	철근콘크리트조 , 르네상스식,	지상 2층, 지하1층	
51	정소아과 의원	서병직 주택	1937	중구 남일동 141	유	목조	지상 2층	
52	구,한일은행 대구지점	조선신탁회사 대구지점	1932	중구 남일동 50-1	무	벽돌조	지상 2층	1992. 철거
53	구, 대우증권	금융조합 연합회 경북지부	1925	중구 남일동 115-1	무	벽돌조	지상 4층, 지하 1층	1987. 철거
54	구, 대안성당	東本願寺	1922	중구 대안동 31	무	목조, 일본식	지상 1층	1995. 철거
55	-	대구공소원	1923	중구 공평동 58-1	무	벽돌조,	지상 3층	1923. 철거
56	구, 대구백화점 별관	대구복심법원	1928	중구 공평동 58-1	무	벽돌조	지상 3층	1999. 철거
57	-	대구일본이사청	1914	중구 동인동 1가 1	무	목조,일양절충식	지상 2층	
58	-	武德會館	1923	중구 동인동 1가 1	무	목조, 일본식	지상 1층	1987. 철거
59	-	대구 부림도서관	1924	중구 동인동 2가 2-3	무	벽돌조	지상 2층	1993. 철거
60	경북대의과대학 본관	대구의학전문학교	1933	중구 동인동 2가 101	유	벽돌조	지상 4층	
61	구,경북도지사 관사	경상북도지사 관사	1920	중구 동인동 2가 50-1	무	목조, 일본식	지상 2층	1987.철거
62	구, 전매청 관사	대구지방전매국 관사	1924	중구 동인동 2가 48-7	무	목조, 일본식	지상 1층	1988.철거
63	구, 대구시장 관사	대구부윤 관사	1923	중구 동인동 2가 2-4	무	목조, 일본식	지상 1층	1987.철거
64	정재규주택	은행원사택	1930	중구 동인동 4가 37-2	유	목조, 일양절충식	지상 1층	
65	경북의대 병원 본관	도립대구의원	1928	중구 삼덕동 2가 50	유	벽돌조, 르네상스식	지상 2층	
66	구 ,대구삼덕 초등학교 본관	대구삼립정공립 보통학교 본관	1939	중구 삼덕동 3-316	무	벽돌조	지상 2층	1982. 철거
67	구, 대구삼덕 초등학교 남관	대구삼립정공립 보통학교 남관	1942	중구 삼덕동 3-316	무	벽돌조	지상 2층	1982. 철거
68	박정문주택	은행원사택	1930	중구 삼덕3가 122	유	목조, 일양절충식	지상 1층	
69	구, 대구삼덕초등 학교장 관사	대구삼립정공립 보통학교장 관사	-	중구 삼덕3가 221	유	목조 일양절충식	지상 1층	
70	구, 대구초등학교 본관	대구공립보통학교 본관	1921	중구 봉산동 57	무	벽돌조	지상 2층	1989. 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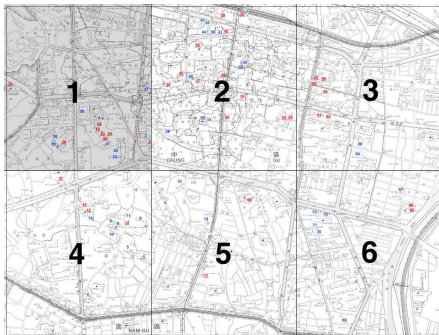
○ 대구지역 근대건축물 조사 목록 (계속)

	건물 명		건축 년대	소 재 지	현존 여부	구조, 양식	규 모	비 고
	현재 명	원 명						
71	배재법 주택	대구공립상업학교 관사	1935	중구 대봉 1동 130 -6	유	목조, 일양절충식	지상 1층	
72	공무원연금관리 공단	대구공립상업학교 본관	1923	중구 대봉동 60-10	유	벽돌조	지상 2층 지하 1층	
73	공무원연금관리 공단대구사무소 창고2	대구공립상업학교 강당	1924	중구 대봉동 60-10	유	벽돌조	지상 1층	
74	경북대사범대학 부속중학교 본관	대구사범학교 본관	1923	중구 대봉동 60-18	유	벽돌조	지상 2층	
75	경북대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강당	대구사범학교 강당	1925	중구 대봉동 60-18	유	벽돌조	지상 1층	
76	구, 이용선 주택	육군장교관사	1935	중구 대봉2동 7342	무	목조 일양절충식	지상 1층	철거
77	구, 대구측후소	대구측후소	1936	동구 신암동 716-4	무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5층	1997. 철거
78	광복회 대구경북 연합지구	朝陽會館	1922	동구 효목동 산 234-33	유	벽돌조	지상 2층 지하 1층	
79	고모역철도관사	고모역철도관사	1930	수성구 고모4동 384-1	유	목조, 일양절충식	지상 1층	
80	구, 대성초등학교	대구남명보통학교		서구 비산 4동 169-1	무	벽돌조	지상 2층	1998. 철거
81	대구애락보건 병원 병동	애락원 병동	1920	서구 내당1동 12-37	유	벽돌조, 일양절충식	지상 2층	
82	애락교회	애락교회	1928	서구 내동 1동 12-37	유	벽돌조, 일양절충식	지상 2층	
83	대구애락보건 병원 식당	애락원 식당	1920	서구 내당 1동 12-37	유	벽돌조, 일양절충식	지하 1층 지상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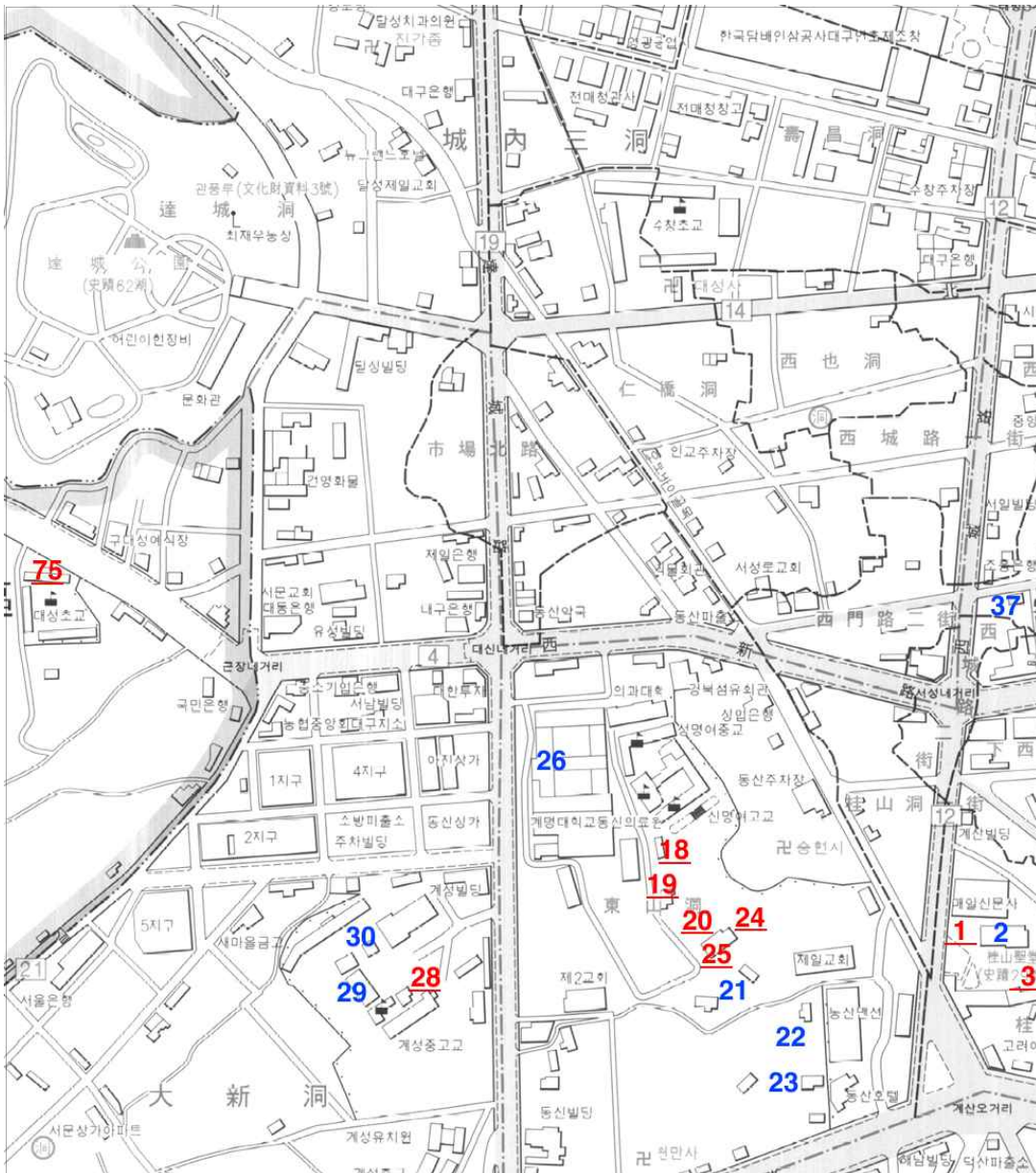
○ 대구지역 근대건축물 전체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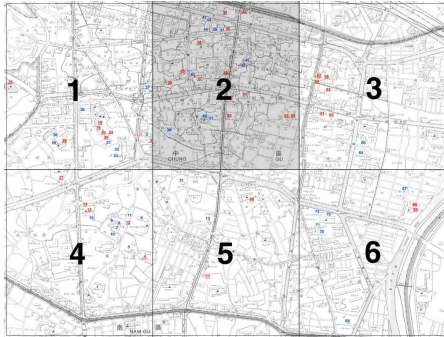
○ 대구지역 근대건축물 위치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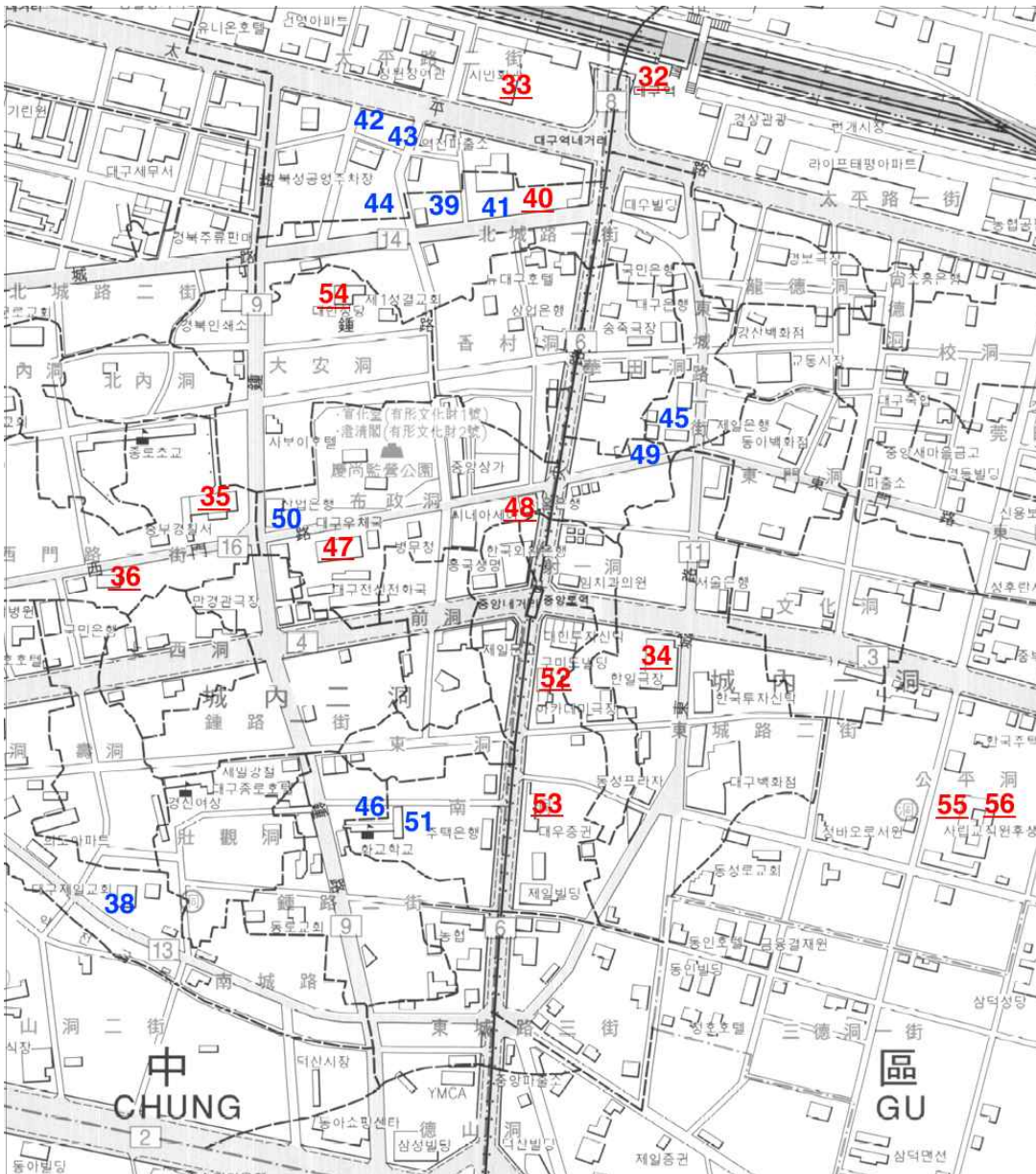
◀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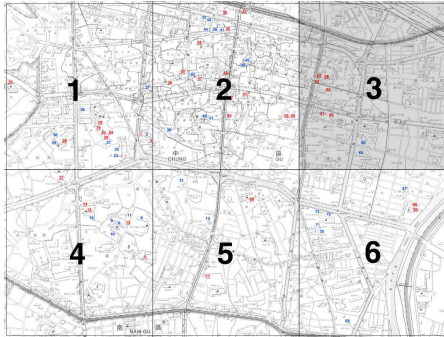
○ 대구지역 근대건축물 위치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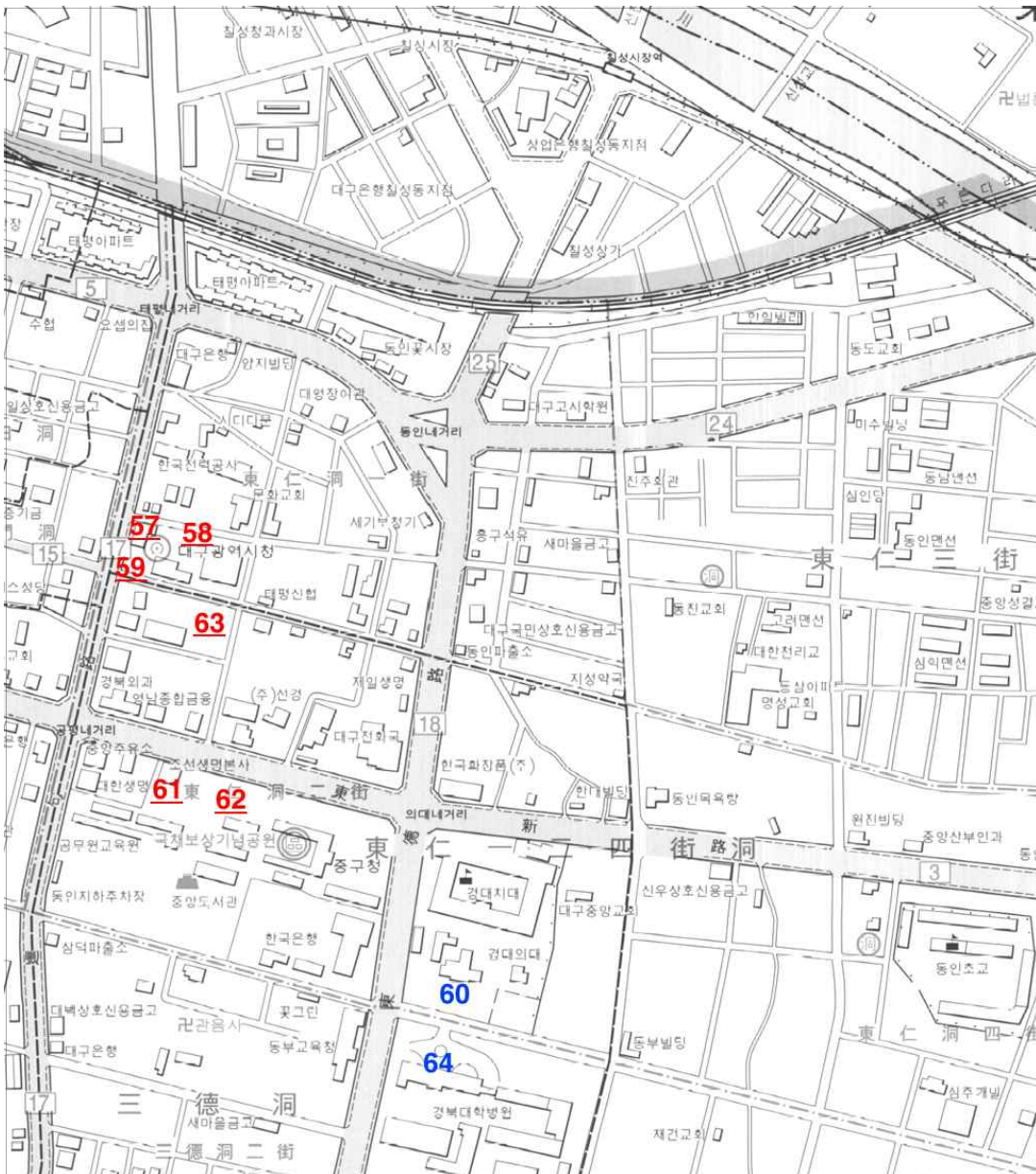
◀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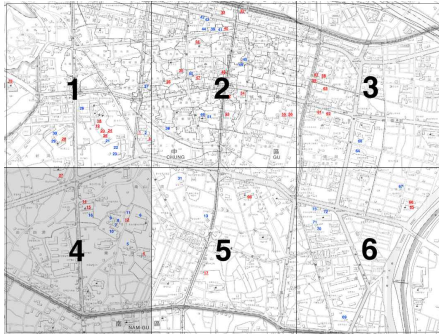
○ 대구지역 근대건축물 위치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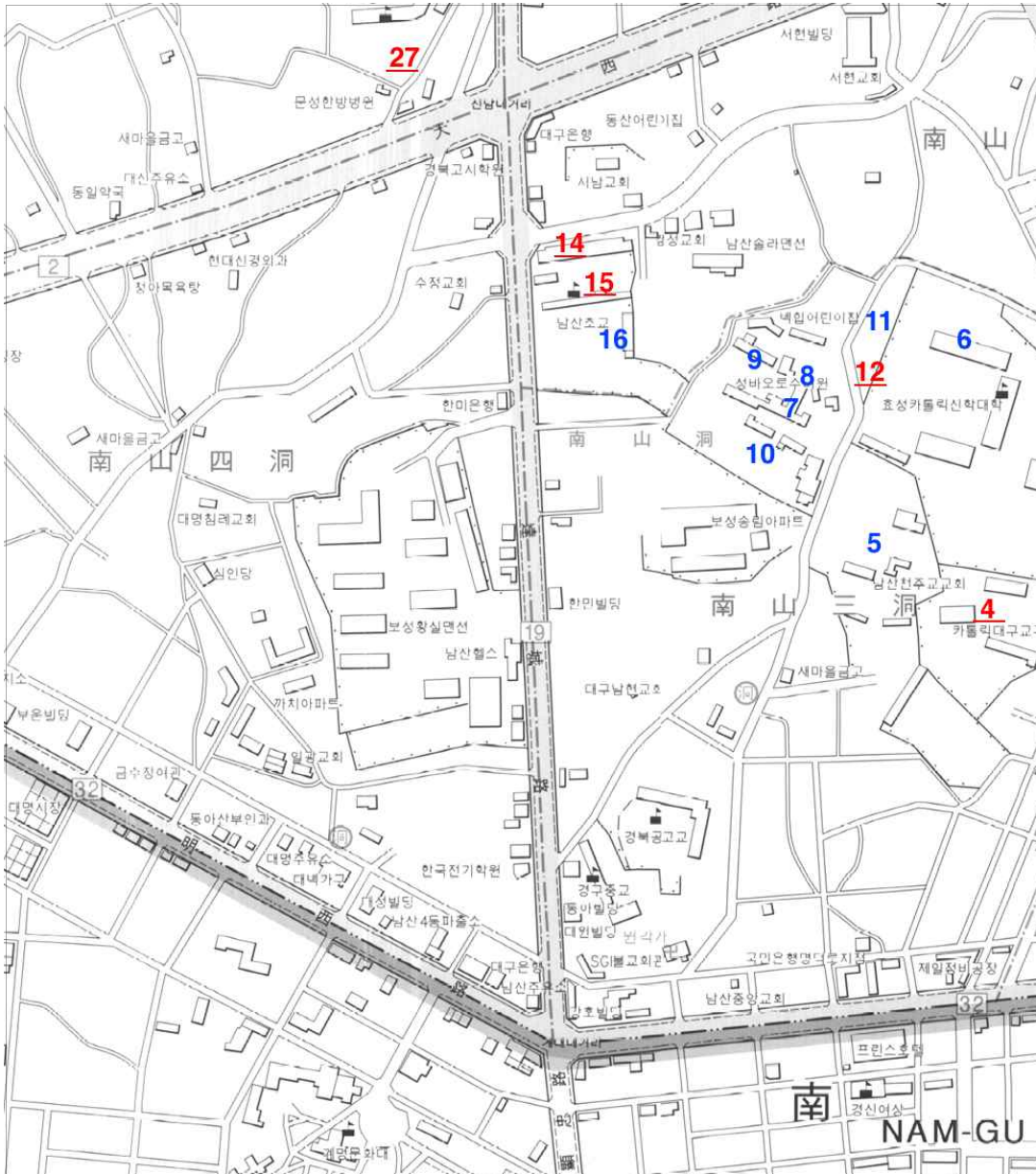
◀ Key Map



○ 대구지역 근대건축물 위치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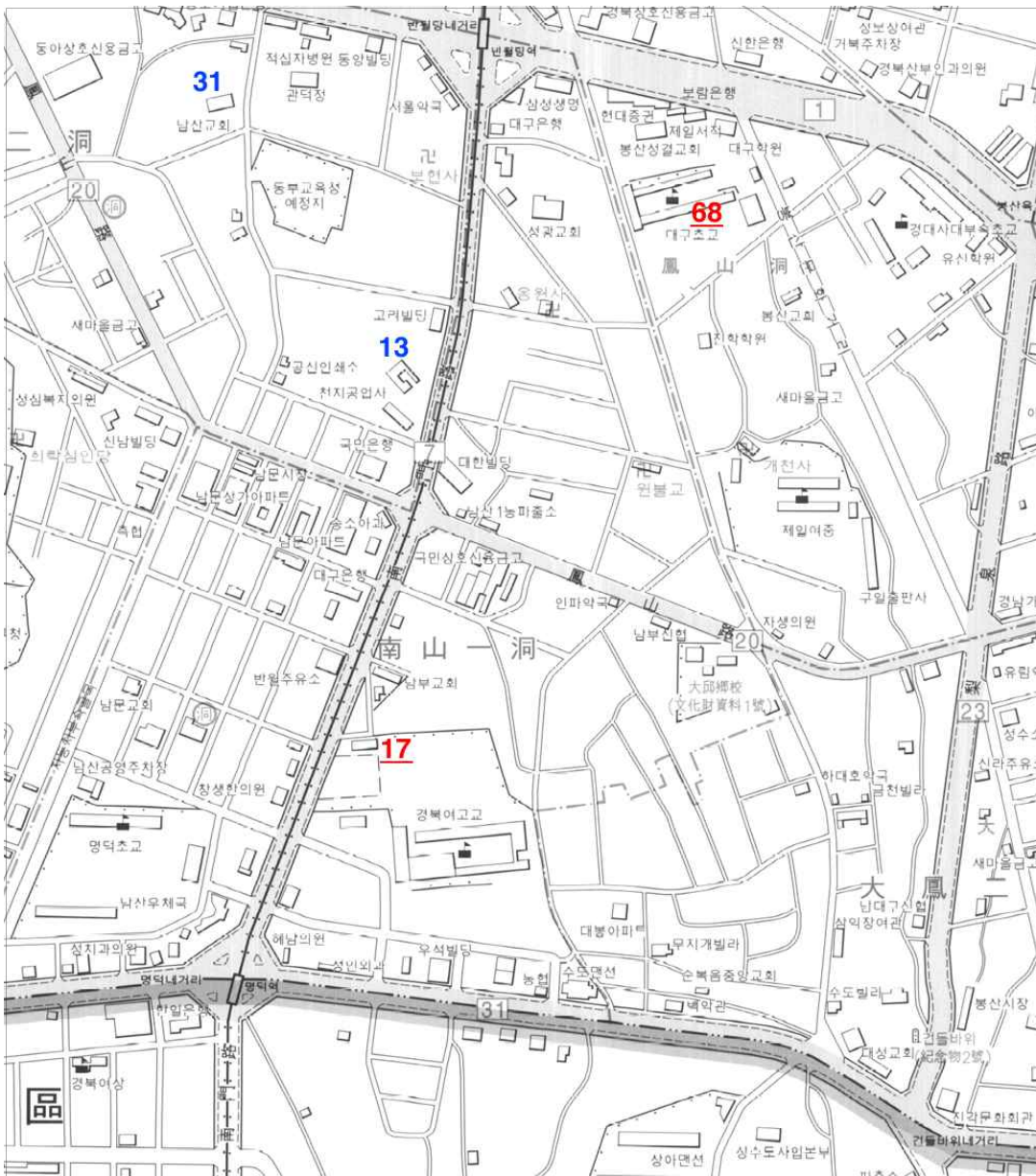
◀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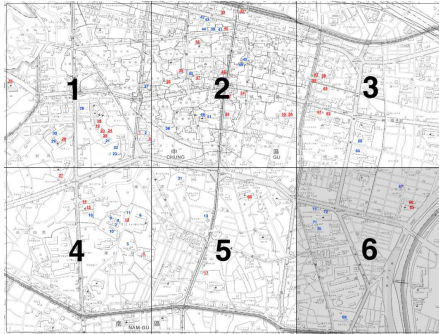
○ 대구지역 근대건축물 위치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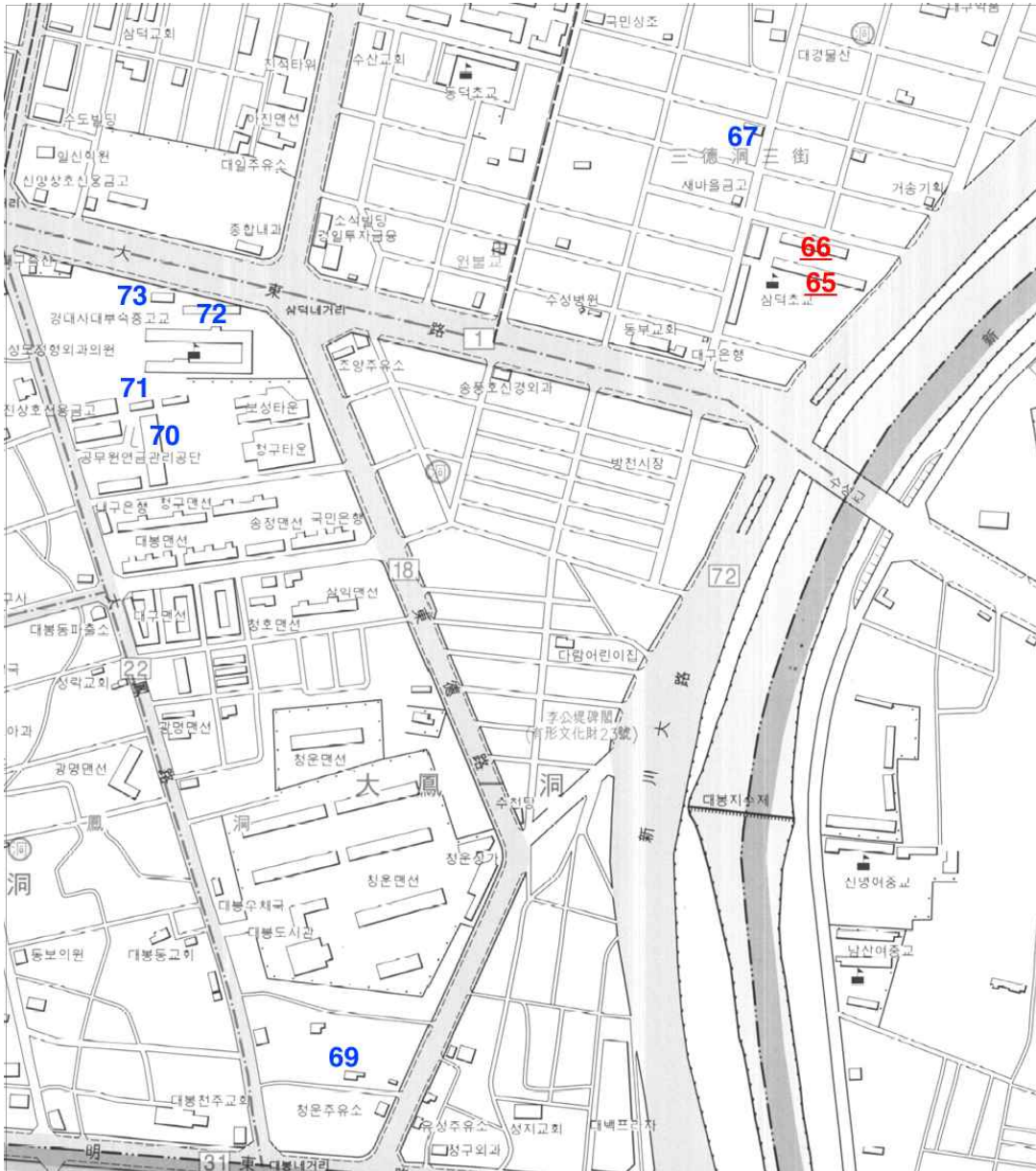
◀ Key Map



○ 대구지역 근대건축물 위치도 6



◀ Key Map



1. 성모성당 (聖母聖堂)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 2가 71번지
- 건축유형 : 종교건축(성당)
- 건축년대 : 1899년 완공, 1900년 소실
- 설 계 자 : 金保錄(Achille Paul Robert)신부
- 시 공 자 : 한국인 목수
- 규 모 : 45間
- 구조 및 양식 : 목조 한옥
- 건축연혁 및 현황 :

한불조약(韓佛條約)이 체결된 1886년 대구에는 천주교 본당이 설정되고, 초대 본당 주임 신부로 프랑스인 Achille Paul Robert(金保錄)신부가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는 당시 경상도 관찰사 민정식(閔正植)의 포교금압(布教禁壓)으로 신나무골(현, 왜관 연화동)과 새방골(현, 대구 상리동)에서 6년 간 은거생활을 하고, 1891년 대구부 대어벌(현, 수창동)에 있던 신도 정규옥(鄭圭鉦)의 집 한 채를 임시 성당으로 정하여 포교활동을 하면서 본당 건축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였다. 처음에는 계산동 서쪽의 동산(銅山) 전체를 150兩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몇몇 노인 신도들의 완강한 반대로 평지인 계산동 현재의 자리를 잡게되었다¹⁾. 金保錄 신부는 1897년 봄 대어벌의 임시성당에서 앞박걸(현, 계산동)로 거처를 옮기고, 그곳에 있던 초가 몇 동을 성당과 신부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새 성당 건축에 착수, 1899년 봄 대구 최초의 서구식 종교건물인 성모성당과 사제관을 신축하였다. 성모성당은 그리스 十字形(Greek Cross)평면에 팔작 기와지붕을 이은 한옥성당으로 각 날개부의 전면과 측면이 9尺씩 3間, 모두 9尺 9間씩 인 총 45間 규모의 단청까지 한 건물로 대구의 근대 건축물 유입에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으나 완공된 지 1년이 채 못되는 1900년 2월 화재로 소실되었다²⁾.



▲ 전경

1) 대구대교구사 편찬위원회 : 大邱本堂百年史, 1987.

2) 대구대교구사 편찬위원회 : 앞책

2. 대구 계산동 성당 (大邱 桂山洞 聖堂)

- 지정종별 : 사적 제 290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 2가 71번지
- 건축년대 : 1901년 착공, 1902년 완공
- 건축유형 : 종교(성당)
- 설계자 : 金保錄(Achille Paul Robert)신부
- 시공자 : 중국인 기술자
- 규모 : 지상 1층(연면적, 991.98㎡)
- 구조 및 양식 : 벽돌 조적조, 로마네스크와 고딕양식의 혼합
- 건축연혁 및 현황 :

1900년 3월 金保錄(Achille Paul Robert)신부가 서상돈, 김중학, 정규옥 등 신자 중진들의 도움을 받아 성당 재건에 착수, 1902년 5월 준공하였다. Robert(金保錄)신부는 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전주 전동성당의 건축설계도를 입수하고, 1901년 5월 서울 명동성당을 건축했던 중국인 기술자들(벽돌공 9명, 석공 14명, 목수 3명, 요리사 2명)을 초청해 왔으며, 색유리, 창호철물 등의 건축재료는 프랑스, 홍콩 등지에 주문하였다 한다³⁾.

1911년에는 천주교 대구교구가 설정되어 주교좌 성당이 되면서 종각을 두 배로 높이고, 성당 뒤쪽을 확장하는 등의 증축을 거쳐 1918년 12월 현재의 성당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1981년 9월 25일에는 문화재 사적 제 290호로 지정되었다.



▲ 전경



▲ 앱스부

3) 尹光宣翁 증언

현, 대구계산동 성당은 金保錄(Achille Paul Robert)신부가 1901년 화재로 소실된 성모성당의 재건에 착수하여 1902년 5월에 완공한 고딕식 벽돌조 건물이다.

이 건물의 설계는 金保錄(Achille Paul Robert)신부가 직접 하였고, 공사는 서울 명동성당의 건축에 참여하였던 중국인 기술자들이 맡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건립된 고딕양식의 성당으로는 서울, 평양에 이어 세 번째이고, 영남지방에서는 최초의 것이다.

1911년 천주교 대구교구의 설정과 함께 주교좌 성당이 되면서 종각을 두 배로 높이고, 성당 뒤쪽을 확장하는 등의 증축을 거쳐 1918년 12월에 현재의 성당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건물의 구조는 사력암의 기초 위에 붉은 벽돌과 회색 벽돌로 쌓았는데, 부축벽(Buttress), 출입구 아치, 처마의 코니스(Cornice), 층 사이 돌립띠, 내부 열주(列柱)와 천장의 리브(Rib) 등은 회색 벽돌로, 나머지는 붉은 벽돌로 쌓아 장식하였으며, 지붕은 골함석을 이었다.

평면은 수랑(袖廊, transept)을 가진 라틴 크로스(Latin Cross)형 삼랑식(三廊式)으로, 서쪽에 세운 두 개의 종탑부에는 8각형의 뿔족탑을, 박공부에는 장미창을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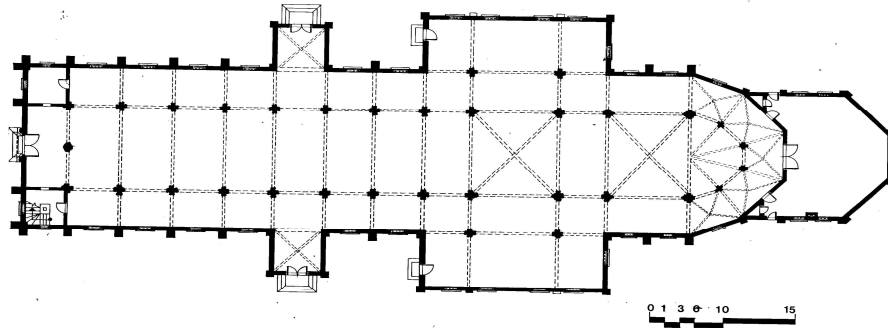
▲ 출입구



▲ 내부

내부는 열주(列柱)의 아케이드(Arcade)와 천장에 의해 네이브(Nave)와 아일(Aisle)의 구별이 뚜렷하며, 천장은 베릴 볼트(Barrel Vault)로 네이브부는 뿔족 아치형, 아일(Aisle)부는 반원형으로 제대(祭臺) 뒤쪽은 5각형의 평면을 이룬 반원아치의 아케이드(Arcade)가 5각형의 후진(後陣, Apse)과 연결되어 있다.

이 성당은 대구지방에 천주교가 토착화되는 과정에서의 고충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서양의 건축양식이 도입된 표본이기도 하다.



대구 계산동 성당 평면도

3. 구, 대구교구평의회 (계산동성당 사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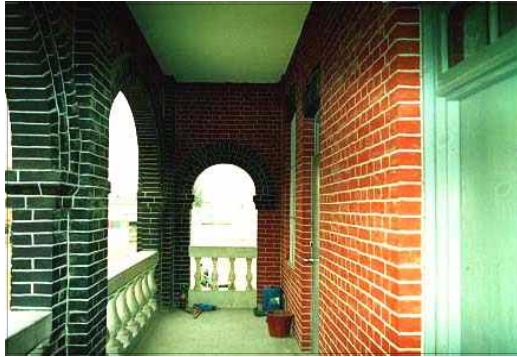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 2가 71번지
- 건축년대 : 1929년 건립, 1995년 철거
- 건축유형 : 종교(주거용)
- 설 계 자 : 베르모렐(Vermorel) 신부
- 규 모 : 지상 1층(연면적. 112.32㎡)
- 구조 및 양식 : 조지안(Georgian)풍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건물은 대구계산동 성당의 제 2대 주임신부인 베르모렐(Vermorel)신부가 1929년 7월 말 사제관으로 건축⁴⁾, 1975년 7월부터는 대구대교구 평의회 사무실, 경로실, 도서실, 레지오마리에 모임실 등으로 사용해오다 1995년 관리상의 문제로 철거하였다.

이 건물은 1929년 7월 베르모렐(Vermorel) 신부가 그의 사제관으로 지은 건물이다. 계산동 성당 남쪽에 북향으로 배치된 조지안(Georgian)풍의 붉은 벽돌조 2층 건물로 모임지붕에 골함석을 이었고, 지붕 양측에는 도머(Dormer)창과 굴뚝이 돌출해 있다. 평면은 장방형이며, 건물의 정면 중앙에 있는 주 출입구를 따라 복도와 계단을 두고, 이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각 실을 배치하여 외관과 함께 대칭을 이루게 하였다.

외관은 화강석 다듬돌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였는데 정면 아케이드(Arcade)의 필라스터(pilaster)와 아치 및 층 사이 코니스(Cornice), 모서리기둥, 창인방 등은 흑색 벽돌, 나머지 벽면은 붉은 벽돌로 쌓았다. 창문은 튜더(Tudor)풍의 아치를 달았으며, 처마와 층 사이에는 흑색 벽돌로 코니스(Cornice)를 돌려 수평성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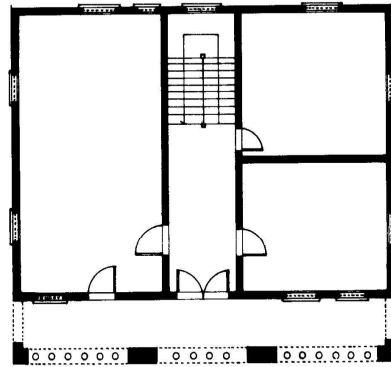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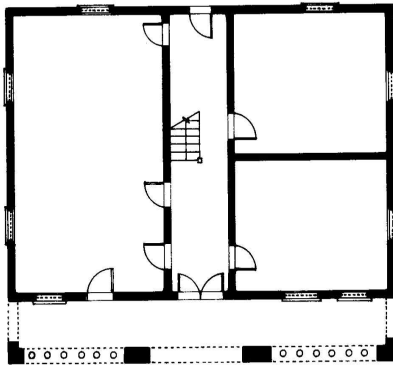
4) 대구대교구사 편찬위원회 : 앞책



▲ 정면 아케이드부



▲ 정면



0 1 3 6 10

구 대구교구평의회 1·2층 평면도

4. 대구대교구청 주교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5-1번지
- 건축년대 : 1912년 건립, 1958년 소실
- 건축유형 : 종교(사무실)
- 설계자 : 드망즈(F, Demange)주교
- 시공자 : 중국인 기술자
- 구조 및 양식 : 조지안(Georgian)풍
- 건축연혁 및 현황 :

1912년 드망즈(F, Demange)주교가 대구 남산동 산기슭에 건축한 조지안(Georgian)양식의 벽돌조 3층 건물이다. 외관은 정면 중앙의 현관 포치(Porch)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으로 벽면은 화강석 컷돌(Quoin)위에 회색 벽돌과 붉은 벽돌을 쌓았으며, 각 층 사이에는 회색 벽돌로 코니스(Cornice)를 장식하였다.



▲ 전경

창문은 오르내리창과 미서기창을 설치하였는데, 창인방은 회색 벽돌로 쌓은 결원아치형, 창선대는 리아스식(齒形)쌓기 하였다. 지붕은 모임지붕형으로 지붕의 각 면은 페디먼트(Pediment), 도머(Domer)창, 굴뚝으로 장식하였다. 이 건물은 1958년 현, 주교관을 신축하기 위해 철거하였다

5. 성모당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 29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5-1번지
- 건축년대 : 1917년 7월 착공, 1918년 준공
- 건축유형 : 종교(참배용)
- 설계자 : 안세화(F, Demange)주교
- 규모 : 지상 1층(연면적, 125.4㎡)
- 구조 및 양식 : 벽돌조적조, 로마네스크와 고딕양식의 혼합
- 건축연혁 및 현황 :

1911년 7월 안세화(F, Demange) 주교가 초대 대구교구장으로 부임하였다. 안세화(F, Demange) 주교는 부임 직후 대구교구의 주교관 대지에 주교 및 신부들이 거처할 집과 신학교를 건축해 주시고, 성모성당을 증축할 방도를 마련해 주시면 주교관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루르드의 성모굴을 본 따서 비슷한 굴을 마련하고 모든 신자들이 이곳에 순례

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서원(誓願)하였다⁵⁾.



▲ 전경

성모당(聖母堂)은 1918년 안세화 주교가 1917년 7월 ~ 1918년에 걸쳐 「루르드」의 성모굴을 모방하여 대구 교구청 구내에 건립한 건물이다. 이 건물의 설계와 모형은 「루르드 성모굴」의 크기와 바위의 세부적인 형상까지 그대로 모방하여 지은 전국에서 유일한 것이다. 평면은 오른쪽의 뒷면이 약간 꺾여 들어간 장방형으로 내부는 암굴처럼 꾸미고, 그 위에 마리아상을 모시고 있다. 외관은 화강석 기초 위에 흑색 벽돌로 각 모서리의 버팀벽과 수평띠(Cornice)를 구성하고 나머지 벽면에는 붉은 벽돌로 쌓았는데, 각 부의 비례 구성이 아름답고, 벽돌 짜임이 정교한 건물로 지금까지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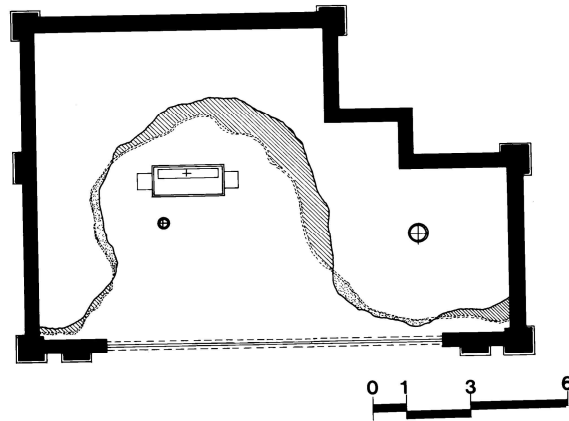


▲ 암굴부 상세

성모당의 동굴 윗면에는 「1911EX VOTO IMMACULATAE CONCEPTIONI 1918」이라고 쓰여 있는데, 1911은 대구 대교구가 처음 생긴 해를 가리키고, 1918은 안세화 주교가 교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청한 3가지 소원이 모두 이루어진 해를 가리킨다. 그리고 「EX VOTO IMMACULATAE CONCEPTIONI」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바친 허원

5) 대구매일신문 : 1983년 3.1. 「성모굴 건립 허원서」

에서」 라는 뜻이다. 성모당은 대구지역 천주교의 이름난 성지(聖地)중의 하나로 알려져 하루도 빠짐없이 많은 신자들의 기도순례가 이어지고 있다.



성모당 평면도

6.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구관 (성 유스티노신학교)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 23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19-3번지
- 건축년대 : 1913년 착공, 1914년 준공⁶⁾
- 건축유형 : 종교(학교)
- 설계자 : 프와넬(Poisnel)신부
- 시공자 : 중국인 기술자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로마네스크와 고딕양식의 혼합
- 건축연혁 및 현황 :

프랑스인 안세화(Florian Demange)주교가 1911년 6월 대구 교구장으로 부임하여 계산동 성당에 임시 교구청을 설치하였다. 그는 그 해 7월 2일 프랑스 「루르드」 聖母 발현을 기려, 루르드 성모를 대구교구의 주보(主保)로 모시고, 성모가 주교관과 신학교 건축 및 성모성당(현, 계산동 성당)의 증축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주교관내에 루르드의 성모굴을 본 따서 비슷한 굴을 지어 비치겠다는 허원서를 작성하였다⁷⁾.

안세화(Florian Demange)주교는 1912년 신학교 건립을 위하여 서울 명동성당의 건축에

6) 대구대교구사 편찬위원회 : 앞책

7) 대구대교구사 편찬위원회 : 앞책

참여했던 프와넬(Poisnel)신부를 초청하여 건립계획을 세우고, 세계 각 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1913년 9월 중국 상해에서 익명의 신자가 신학교의 주보로 성 유스티노를 모시는 조건으로 거액의 현금을 보내옴으로써 1913년 9월 대구 국채보상운동의 주역이었던 신도 서상돈이 기증한 대지 [종묘원 약 1만 여평] 에 신학교를 건축하고 이어 1914년에는 성당 건축에 착수하였다.

공사는 중국인 기술자들이 담당하였으며, 책임목수는 프랑스 영사관을 건축할 때 참여한 사람이었다 한다⁸⁾. 이 건물은 1914년 건축 이후 성 유스티노신학교로 개교, 성직자를 배출해오다 1946년 9월 대건학교에 인수되었다. 1969년 대건학교에서는 건물 좌측 익부(翼部)의 교실들을 전면(前面) 브라인드 아케이드(Blind Arcade)부 까지 확장하여 도서관으로 만들고, 우측 익부(翼部)는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철거함으로써 ㄱ자형으로 변형되었다.



▲ 전경

1991년에는 가톨릭신학대학이 사용하면서 성당을 포함한 건물의 중앙 일부만을 남기고 철거하였으며, 남아 있는 부분은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3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건물은 ㄱ자형의 벽돌조 2층집으로 정면 중앙에 위치한 성당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평면은 ㄷ字形으로 1층 전면(前面)부에는 로마네스크 건축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브라인드 아케이드(Blind Arcade)로 구성된 통로를 두고, 1층 아케이드의 뒷면과 2층에는 각각 사무실, 교실 등을 배치하였다.

외관구성은 화강석 컷돌(Quoin)위에 회색 벽돌로 브라인드 아케이드(Blind Arcade)의 필라스터(Pilaster)와 아치를 만들고, 그 사이에는 붉은 벽돌을 쌓았으며, 층 사이에는 회색 벽돌로 코니스(Cornice)를 장식하였다. 창문은 오르내리창과 미서기창 두 가지를 설치하였는데, 창인방은 회색 벽돌로 쌓은 결원 아치형으로, 창선대는 리아스식(齒形)쌓기로 하였으며, 건물 양쪽 날개부의 창문은 필라스터(Pilaster)에 붙여 주두(柱頭)가 있는 창선대로 장

8) 대구대교구사 편찬위원회 : 앞책

식하였다. 지붕은 모임지붕에 아연즙이며, 지붕 각 면에는 도머(Domer)창을 설치하였다.

건물의 중앙에 위치한 성당부는 일랑식(一廊式) 평면형으로 주 현관이 서쪽 정면의 종탑부에 위치해 있다. 종탑은 4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은 반원 아치형, 2층은 쌍 아치형, 3층은 원형창, 4층은 쌍 아치형 창에 갤러리를 설치하였으며, 종각부 위에는 계산성당의 종탑과 같이 8각형의 높은 첨탑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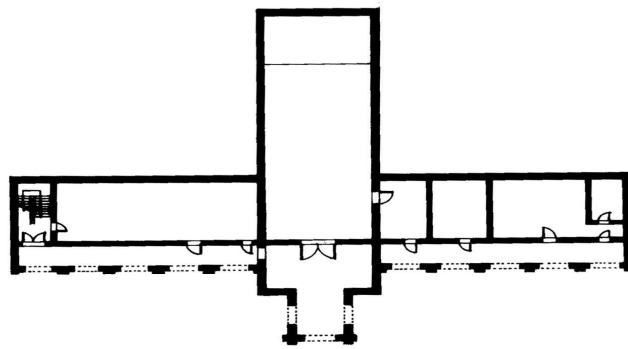
성 유스티노신학교 건물은 프랑스 신부들이 1914년에 건립한 로마네스크와 고딕양식에 준하는 비교적 순수한 서구식 건물로 근대 건축양식과 함께 벽돌제조 및 조적 기술을 대구 부민(府民)에게 소개한 의미뿐만 아니라 대구의 천주교사(天主教史)를 담고 있는 건물이다.



▲ 정면부 아케이드



▲ 창문 상세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구관 1층 평면도

7. 샬트르 성바오르 수녀원 코미넛관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 24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3동 191 - 1번지
- 건축년대 : 1914년 착공, 1915년 준공
- 건축유형 : 종교(주거용)
- 설계자 : 안세화(Florian Demange) 주교
- 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연면적, 894.3㎡)
- 구조 및 양식 : 벽돌조적조, 로마네스크와 고딕양식의 혼합
- 건축연혁 및 현황 :

안세화(Florian Demange) 주교가 대구교구장으로 부임하던 1911년 7월까지 만해도 계산동 성당의 김보록(金保錄, Achille Paul Robert) 신부는 신자들의 집에 고아를 분산수용하고, 환자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돌보고 있었다. 안세화 주교는 1912년 신부를 보좌하면서 고아와 노인을 돌보고, 의료, 교육사업을 담당할 수녀의 파견을 프랑스 샬트르 성바오르 수녀원에 요청하고, 1914년 6월 샬트르 성바오르 수녀회와 대구수도원 설립에 관한 계약 체결에 이어 Vag de Vaya 주교의 재정지원을 받아 수도원 건축에 착수하면서 샬트르 성바오르 수녀회 총장에게도 서한을 보내 수녀원 설립에 따른 교구의 배려를 알렸다.

그리하여 1915년 9월 23일 Vincent de Paul 수녀가 샬트르 성바오르 수녀회 대구 분원장에 임명되고, 한국인 오루시아, 임안나마리, 최막달레나 수녀 등의 파견이 확정되자 그 해 10월 15일 안세화 주교는 무세, 투르너 두 신부의 조례로 코미넛관을 축성하고, 대구 샬트르 성바오르 수녀회를 설립하였다. 샬트르 성바오르 수녀원 코미넛관의 대지(垞地)는 대구 국채보상운동의 주역이었던 신자 서상돈이 기증하였고, 건물 설계는 안세화 주교, 건축공사는 중국인 기술자들이 담당하였다⁹⁾.



▲ 정면



▲ 창문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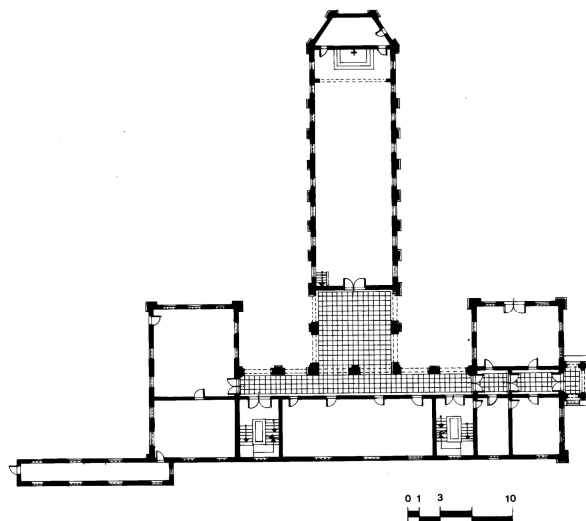
9) 대구대교구사 편찬위원회 : 앞책

이 건물은 2차 대전 말기에 일본군의 군수공장으로 징발되었다가 해방 후 수녀원으로 복귀되었으며, 건립 당시 1층은 예배실과 유아원, 2층은 침실, 지하는 식당, 창고로 사용되었으나 현재 수녀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

샬트르 성바오르 수녀원 코미넛관은 1915년 안세화(Florian Demange) 주교가 김보록(金保錄, Achille Paul Robert) 신부의 도움을 받아 건립한 붉은 벽돌조 2층 건물로 서쪽 경사면을 따라 동서로 길게 배치된 벽돌조 2층 건물이다. 평면은 ㄷ字形으로 정면 중앙에 위치한 포치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루고, 우측면에 블라인드 아케이드(Blind Arcade)를 설치하여 복도처럼 구성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블라인드 아케이드의 양쪽 끝에는 계단실과 연결되는 출입구를 두었다.

외관은 화강석 기초 위에 흑색벽돌로 모서리 기둥과 창인방, 수평띠 등을 구성하고, 나머지 벽면에는 붉은 벽돌을 쌓았다. 창문은 목재 오르내리창이고, 우측면의 아케이드 위에는 고창(高窓)을 둔 미서기창을 설치하였는데 창인방은 결원아치형, 창선대는 리아스식 쌓기로 하였다. 우측면의 아케이드 위의 창은 필라스터(Pilaster)에 붙여 양쪽에 주두(柱頭)가 있는 창선대를 세웠고, 밑인방은 벽돌을 내쌓기하여 치형(齒形)으로 장식하였다. 처마는 흑색벽돌을 3단 내쌓기하여 코니스(Cornice)처럼 장식하였다. 지붕은 골함석을 이은 모임지붕이고 지붕 위에는 돔(Domer)창과 굴뚝이 돌출해있다. 내부 바닥은 목재 장마루판, 벽은 회반죽, 천장은 합판으로 마감하였다.

이 건물은 로마네스크와 고딕풍에 준하는 서구식 건물로 서구의 건축양식과 함께 벽돌조적 기술을 대구 부민에게 소개한 의미 외에도 대구천주교회사와 건축의 변천사를 담고 있다는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1991년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4호로 지정되었다.



샬트로 성바오르 수녀원 코미넛관 1층 평면도

8. 샬트르 성바오르 수녀원 성당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3동 191 - 1번지
- 건축년대 : 1927년
- 건축유형 : 종교(성당)
- 설계자 : 안세화(Florian Demange) 주교
- 규모 : 지상 1층(연면적 : 23.403㎡)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조적조, 고딕(Gothic)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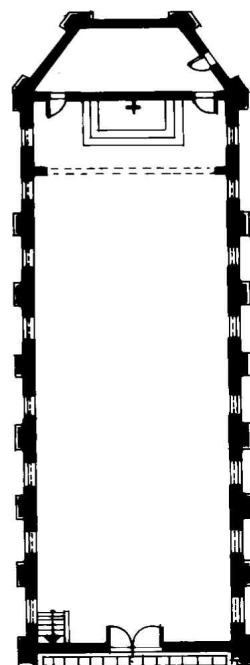
1927년 안세화(Florian Demange) 주교가 샬트르 성바오르 수녀원 코미넛관의 우측 아케이드(Arcade)에 붙여 북쪽으로 증축한 고딕풍의 성당으로 1984년 4월부터 수녀원의 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평면구성은 일랑식(一廊式)의 남북이 긴 장방형이며, 남쪽의 아케이드(Arcade)부에 주 출입구를 두고 그 맞은편에 사다리형의 제단을 두었다.

외관은 화강석 기초 위에 붉은 벽돌과 회색 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였는데 버팀벽(Buttress)과 창아치, 처마부 코니스, 내부 천장의 리브(Rib) 등은 회색 벽돌, 나머지 벽면은 붉은 벽돌로 쌓았다. 버팀벽 위는 첨탑(Pinnacle), 버팀벽 사이에는 수직으로 긴 뾰족아치(Pointed arch)창을 설치하여 고딕적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지붕은 아연접 박공지붕이고, 내부의 천장은 뾰족 아치형의 베릴 볼틀(pointed barrel vault)로 구성하였다. 이 성당은 서구의 건축양식과 벽돌 조적 기술을 대구부민들에게 소개한 의미 외에도 대구의 천주교 역사와 건축의 변천사를 담고 있는 중요한 건물이다.



▲우측면



샬트르 성바오르 수녀원 성당 평면도

9. 샬트르 성바오르 수녀원 수련원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3동 191 - 1번지
- 건축년대 : 1938년
- 건축유형 : 종교(수련원)
- 설 계 자 : 안세화(Florian Demange) 주교
- 규 모 : 지상 5층, 반 지하 (연면적, 1,431.036㎡)
- 구조 및 양식 : 벽돌 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1938년 11월 안세화(Florian Demange) 주교가 수련원으로 건축, 1980년 10월부터 바오로 관, 수련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안세화 주교가 1938년 프랑스의 샬트르 바오르 수련원의 건축형식을 모델로 하여 지은 수련원으로 코미넛관의 서쪽 경사면을 따라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평면은 동서가 긴 장방형(長方形)으로 북측에 편복도를 두고 남측을 통간(通間)으로 구성하였다. 외관은 콘크리트 기초 위에 붉은 벽돌과 회색 벽돌을 쌓아 벽면을 구성하였는데 벽면의 결원아치와 네 모서리 기둥, 3층과 4층의 층간 돌림띠(Cornice) 등은 회색 벽돌, 나머지는 붉은 벽돌로 쌓아 정면성과 수평성을 강조하였다. 지붕은 모임지붕형에 아연주이며, 지붕면에는 도머(Domer)창을 설치하였다.



▲ 남측면



▲ 창문 상세

이 수련원은 프랑스 수련원의 건축형식을 모델로 지어진 역사적 건물이었으나 건립 후 증축공사에 이어 내부공간 확장을 위한 북측 벽면의 철골 구조물과 알루미늄 세시창 설치(1990), 2층 바닥 보강 및 보수공사(1999) 등 여러 차례의 공사를 거치면서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었다.

10. 성요셉 병원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3동 191 - 1번지
- 건축년대 : 1931년
- 건축유형 : 종교(병원)
- 설 계 자 : 안세화(Florian Demange) 주교
- 규 모 : 지상 1층(연면적, 221.25m)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건물은 1931년 안세화(Florian Demange) 주교가 성직자와 수녀들을 위해 샬트르 성 바오르 수녀원 남쪽에 인접하여 건립한 무료진료소로 1933년 6월 대구중앙병원에 부속되어 성요셉 무료진료소로 개칭되었다.

성요셉 무료진료소는 1955년 성요셉의원으로 정식인가를 받았으나 1973년 운영난으로 폐원하고, 지금은 꽃꽂이 교실 및 성소자의 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평면은 ㄱ字形으로 가운데 복도를 따라 각 실을 배치하였으나 1934년 우측으로 진료실, 치료실을 증축함으로써 T字形의 좌우대칭형이 되었다. 외관은 정면 주 출입구 포치(Porch)를 중심으로 대칭형이며, 벽체는 붉은 벽돌을 쌓아 구성하였다.

지붕은 모임지붕형에 합석을 이었으며, 정면 중앙과 좌우 지붕에는 같은 모양의 도머(Domer)창을 설치하였는데 현재 슬라브(Slab)지붕으로 개조되어 원형을 잃었다.



▲ 서 측면



▲ 남 측면

이 건물은 대구의 천주교 역사와 건축의 변천사를 담고 있는 역사적 건물이었으나 여러 차례의 증, 개축공사를 거치면서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었다.

11. 장해숙 주택 (모문금 주택)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32-8번지
- 건축년대 : 1937년 건립
- 건축유형 : 주택
- 설 계 자 : 모문금(慕文錦, 中國人)
- 시 공 자 : 모문금(慕文錦, 中國人)
- 규 모 : 지상 2층(연면적, 137.28㎡)
- 구조 및 양식 : 벽돌 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주택은 1912년 안세화(Florian Demange) 주교의 요청으로 강의관(姜義寬)과 함께 대구에 온 중국인 건축기술자 모문금(慕文錦)이 1937년에 지은 살림집이다. 모문금은 1912년부터 강의관과 함께 주로 대구의 종교계통 건물을 맡아 시공해 오다가 1930년대 초 강의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쌍흥호(雙興號)라는 건축시공단체를 설립하여 대구의 많은 건축공사를 맡아 시공하면서 군방각이라는 중국 요리집도 경영하였다 한다. 군방각은 당시 대구에서 이름난 요리집으로 독립투사들의 모임이 잦았고, 이 곳에서 대구의 인사들로부터 독립자금을 모금해 가기도 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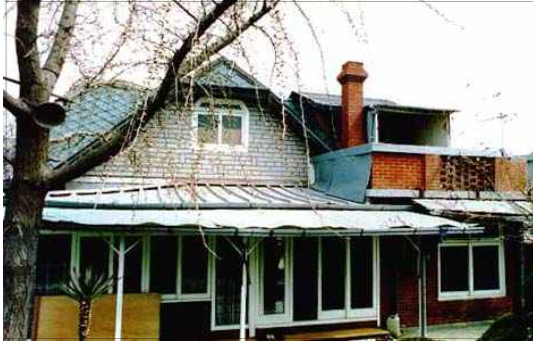


▲ 도로에서 본 모습

이 집은 모문금 이후 1963년에는 한국인 윤종린, 1970년 김인배의 소유가 되었으며, 현재 장해숙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집은 서쪽도로에 면하여 남향 배치된 붉은 벽돌조 2층 건물이다. 평면구성은 장방형의 서쪽 중앙부에 주 출입구를 두어 중북도와 연결하고, 이 복도를 중심으로 응접실, 욕실, 변소, 부엌, 침실 등을 두었으며, 2층에는 十字形의 계단 홀 3면에 각 실을 배치하였다.

외관은 콘크리트 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고, 창문은 인방을 평아치와 빗아치형으로 꾸며 목재 오르내리창과 미서기창 두 가지를 달았다. 지붕은 4면에 박공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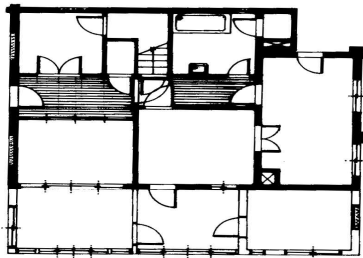
둔 十字形으로 구성하여 동판(銅版)을 이었으나, 근년에 석면슬레이트로 바꾸었다.



▲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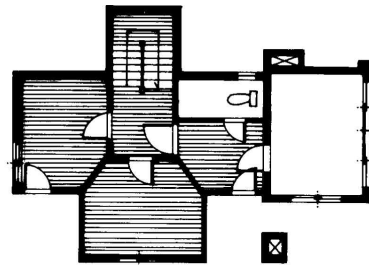


▲ 내부



0 1 3 6

장해숙 주택 1층 평면도



0 1 3 6

장해숙 주택 2층 평면도

12. 구, 장석조 주택 (강의관 주택)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32번지
- 건축년대 : 1923년 1998년 철거
- 건축유형 : 주택
- 설계자 : 강의관(姜義寬, 中國人)
- 규모 : 지상 1층(연면적: 61.7㎡)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1911년 대구 초대 교구장 안세화((Florian Demange)주교는 주교관과 신학교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북경관구에 서양식 건축에 경험이 있는 건축기술자를 요청하였다. 1912년 안세화주교의 요청으로 강의관, 모문금 등의 중국인 기술자들이 대구에 와 남산동(현, 교

구청 근처)의 한옥에 거주하면서 주로 종교계통의 건물을 맡아 시공해 왔는데, 이 집은 당시 대구에 온 중국인 기술자들의 대표였던 강의관이 1923년경 그의 주택으로 지은 건물이라 한다. 1930년에는 한국인 이계찬씨가 인수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으며 장석조씨가 거주하다 1998년 철거하였다.

이 주택은 남산동의 교구청과 연결되는 서쪽 도로변에 남향 배치된 붉은 벽돌조 단층 건물로 지붕은 모임지붕형에 기와를 이었다. 평면형은 동서가 약간 긴 장방형으로 정면 중앙부에 벽면에서 약간 돌출된 현관 포치를 두어 마루와 연결하고, 이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각 실을 배치하였는데 우측 전면(前面)에는 부엌으로 연결되는 복도를 두었다. 외관은 건물 각 모서리에 화강석 주초(柱礎)를 놓고 그 위에 각형(角形)의 나무기둥을 세웠으며, 기둥 사이에는 화강석 다듬돌로 징두리벽을 만들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 시멘트 뽕칠로 마감하였다. 정면부의 지붕은 벽면에서 약 60cm정도 내밀어 처마를 두었는데, 처마 밑에는 반자를 구성하였다. 창문은 평 아치형에 정면은 미서기창, 측면은 오르내리창을 설치하였고, 측면의 옷인방은 벽돌 빗아치쌓기로 하였다. 양 측면은 붉은 벽돌을 길이쌓기하여 벽면을 구성하였으며, 처마부는 벽돌 내쌓기하여 처마홈통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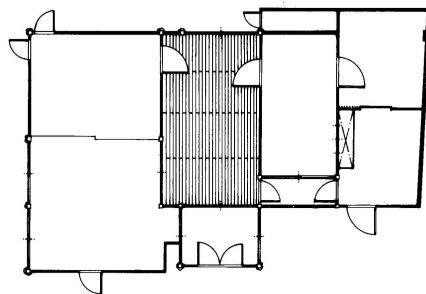
내부 마루에는 장마루를 깔았고, 벽과 천정은 원래 회반죽 마감이었으나 현재 벽지를 발랐다. 문은 징두리 양판문을 외여닫이와 미서기로 설치하였다.



▲ 정면



▲ 내부



0 1 2 3 5

구 장석조 주택 평면도

13. 천지기업사 (교남학교)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57번지
- 건축년대 : 1924년 건립
- 건축유형 : 교육(학교)
- 규 모 : 지상 1층(연면적, 612.15㎡)
- 구조 및 양식 : 목조, 붉은 벽돌조적조 혼용
- 건축연혁 및 현황 :

1919년 3.1운동 후 우리의 민족운동은 격렬했던 3.1운동의 감정에서 방향을 돌려 먼 안목으로 실력을 배양하는 문화, 사회운동으로 지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족운동은 필연적으로 새 교육운동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3.1운동 후 민족적 자각에 의한 교육열은 급격하게 고조되어 교육은 곧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고, 이와 같은 시대적 추세는 진정한 민족의 인재를 길러내는 사학의 설립을 가져오게 하였다.

1921년 9월 15일 대구의 유지 홍주일(洪宙一), 김영서(金永瑞), 정운기(鄭雲騏) 등은 부민들의 뜻을 받들어 大邱府 八雲町(현, 북성로)에 있었던 우현서루(友弦書樓)를 가교사(假校舍)로 빌려 대구 교남학원을 개교하였다.¹⁾

그 후 교남학교로의 승격을 추진해 오던 중 1923년 12월 홍주일, 김영서 두 선생이 일본 淨土宗 大邱布教所の 日語學敎를²⁾ 인수함으로써 당시 까다로웠던 학교 인가의 절차 없이 교남학교로 승격되어 1924년 5월 21일 大邱府 南山町 657번지의 신 교사로 이전하여 개교하였다. 남산동의 신 교사는 당시 서만달씨가 학원설립을 목적으로 건축해 놓은 一자형의 목조 단층건물이었으나 교남학교에서 인수하여 口자형으로 증, 개축하였다.



▲ 전경



▲ 교무실부 정면

1925년에는 고등과내에 여자부를 개설하였다가 1926년 대구여자고등보통학교(현. 경북여

1) 大倫五十年史 출판위원회 : 大倫 50年史

2) 이 학교는 1905년 일본의 종토종 대구포교소의 일인 僧侶가 한국인의 일어 소통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나 이 일본학교에서 일어 교육 받겠다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어 학교인가장만 가지고 있던 무실한 존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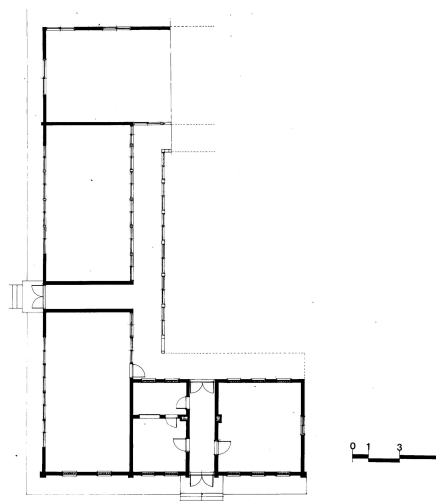
자고등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여자부 학생 전원을 그곳으로 편입시켰고, 1928년 3월부터는 정규의 고등보통학교 과정을 설치하였다. 1929년 5월 1일에는 김도균(金燾均)이 설립자 겸 교장으로 부임하고 이상화(李相和), 김상열(金相悅), 서동진(徐東辰), 이효상(李孝祥) 등이 해외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무보수로 교편을 잡으면서 후진교육에 몰두하였다.

이에 일제로부터 재단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1939년 폐교 통고를 받기도 하였으나, 1942년 4월 9일 대륜중학교의 인가를 받아 그 해 5월 20일 수성동 현 교사로 이전하였다. 1945년 해방 후 이 건물은 능인중학교에서 교사로 사용하였으며, 1953년부터는 차완용(車完鎔)이 인수, 전선 및 전기기기를 제조하는 천지기업사(天池企業社)로 사용하고 있다.

1979년부터는 주변이 도심화됨에 따라 천지기업사에서 공장을 외곽지로 이전하고, 사무실과 주택으로 사용해오다가 1981년 건물의 북쪽과 서쪽부분을 철거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현재 남아 있는 남쪽과 동쪽부분의 ㄴ자형 건물은 주택과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데 관리가 소홀하여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다. 교남학교(嶠南學校)는 1924년 민족의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한 고등보통학교이다. 1929년 김도균(金燾均)교장이 부임하면서부터 대구교남학원으로 개교, 1924년 교남학교로 승격되면서 남산동 신 교사로 옮겨왔으며, 1924년 다시 대륜중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수성동으로 이전하였다.

남산동 교사는 당시 서만달(徐萬達)이 학원설립을 위해 지은 一字形의 단층 목조건물이었으나, 교남학교에서 인수하여 ‘口’字形으로 증, 개축하였다. 이 건물은 교장실과 교무실로 사용하던 동쪽 一字形 부분은 붉은 벽돌조에 아치형의 창문과 파라пет(Prapet)의 형태요소를 채용하여 서구적 외관을 구성하고, 일반교실로 사용한 ‘ㄷ’字形 부분은 막돌 기단 위에 각형 기둥을 세워 기둥사이를 흙벽치기하여 가로판을 붙였으며 창은 목재 미서기창을 설치하였다.

교장실과 교무실내부는 목재 장마루판 바닥에 벽과 천장을 회로 마감하고, 교실 내부는 흙바닥, 벽은 판재와 회반죽으로 마감하였으며, 천장은 지붕틀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구 교남학교 평면도

14. 구, 남산초등학교 본관 (대구남산정공립보통학교 본관)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가 122번지 14필지
- 건축년대 : 1935년 건립, 1987년 철거
- 건축유형 : 교육(학교)
- 규 모 : 지상 2층(연면적, 1,947.4㎡)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구, 남산초등학교 본관은 일제가 1935년 9월 대구남산정공립보통학교로 건립하였으며, 해방 후 남산국민학교로 개칭, 1963년 9월 내,외부 도장공사, 1975년 1월 마루판 개수공사를 하여 사용해오다 1987년 7월 철거하고, 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건물은 운동장의 북쪽 중관 뒤편에 一字로 배치된 붉은 벽돌쌓기 2층 건물로 교사(校舍)의 양 측면에 각각 1개씩의 특별교실을 단층(單層)으로 배치하였고, 지붕은 모임지붕에 기와를 이었다. 정면 중앙의 주 출입구에는 큰 4각형 기둥을 세워 현관 포치(Porch)를 만들고 페디먼트(Pediment)로 장식한 지붕을 얹었다.



▲ 위에서 본 모습

평면은 一字形으로 건물의 정면에 편복도를 두고 일반교실을 남향하여 배열하였으며, 양쪽에는 각각 1개씩의 특별교실을 두어 주 출입구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외관은 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고 교실 1칸을 단위로 붙임기둥을 설치하여 벽면을 수직분할 하였으며, 창문은 붉은 벽돌을 쌓아 만든 평아치형으로 밑인방에 물흘림 경사를 두고 목재 오르내리창을 설치하였다. 1층 전후면(前後面) 창문의 밑인방은 몰탈 마감으로 돌출 연결시켜 수평띠를 형성하였으며, 벽 상부의 코니스(Cornice)는 5단의 몰딩으로 내쌓기 하였고 하부벽은 몰탈로 마감하였다.

벽 상부 몰딩(Moulding)부의 아랫단에는 정4각형으로 치형(齒形, Dentil) 장식을 하여 수평선을 강조하였다. 현관의 주 출입구 문은 목재 쌍여닫이 정두리 양관문이고 교실의 출입

문은 미서기 양판문이다. 내부 바닥은 목재 장마루판을 깔았고, 벽체는 세로판벽으로 마감하여 정두리벽을 만들었으며, 상벽(上壁)은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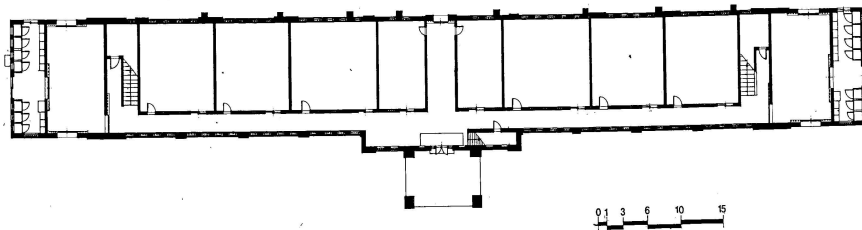
천정은 1층은 콘크리트 스라브에 회반죽 마감이고 2층은 긴 널판재를 붙였으며, 계단은 목조계단을 설치하였다. 일반교실에는 굴뚝과 환기창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난로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 정면



▲ 내부



구 남산초등학교 본관 1층 평면도

15. 구, 남산초등학교 중관 (대구남산정공립보통학교 중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가 122번지 14필지
- 건축년대 : 1936년 건립, 1987년 철거
- 건축유형 : 교육(학교)
- 규모 : 지상 2층(연면적, 1,675.58㎡)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구, 남산초등학교 중관(中館)은 일제가 1936년 6월 대구남산정공립보통학교 중관으로 건립하였으며, 해방 후 남산국민학교로 개칭, 1963년 9월 내,외부 도장공사, 1975년 1월 마루판 개수공사를 하여 사용해오다 1987년 7월 본관 건물과 함께 철거하고, 3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신축하였다.



▲ 정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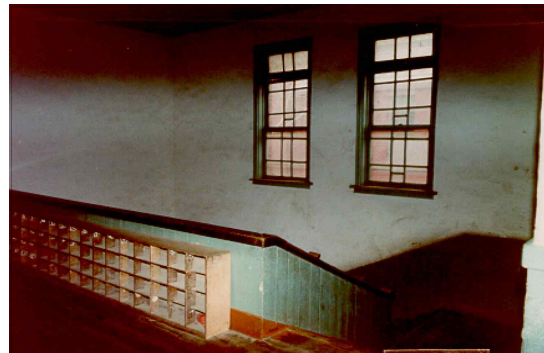
이 건물은 붉은 벽돌쌓기 2층 건물로 지붕은 모임지붕에 기와를 이었으며, 중앙의 주 출입구는 본관 주 출입구와 옥외 복도로 연결된다. 건물은 북쪽에 주 출입구, 남쪽에 운동장을 두고 동서로 길게 배치되어 있다. 평면은 一字形으로 건물의 북쪽에 편복도를 두고, 일반교실을 남쪽에 반복 배열되었으며, 건물의 양끝에 계단실을 두었다.

외관은 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고, 교실 1칸을 단위로 불임기둥을 설치하여 벽면을 수직분할 하였으며, 창문은 붉은 벽돌을 쌓아 만든 평아치형으로 물흘림 경사를 두고 목재 오르내리창을 설치하였다. 창틀 하부는 본관과 같이 처리하였고, 처마부는 다섯 단(段)의 몰딩(Moulding)으로 장식하여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는데 둘째 단에는 정사각형의 돌출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붙여 수직성과 반복성을 느끼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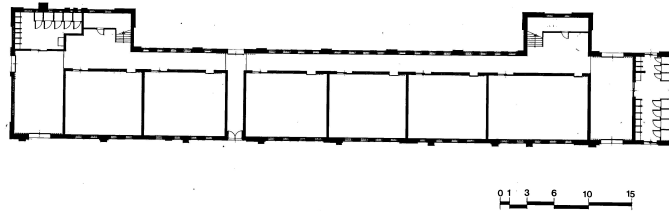
내부 바닥은 본관과 같이 목재 장마루판을 깔았으며, 벽체는 징두리벽을 세로판벽으로 하였고, 상벽(上壁)은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다. 천정은 1층이 콘크리트 스라브 위 회반죽 마감이고, 2층은 긴 널판재를 붙였다. 일반교실에는 굴뚝과 환기창(換氣窓)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난로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 내부 복도



▲ 내부 계단실



구 남산초등학교 중관 1층 평면도

16. 구, 남산초등학교 강당 (대구남산정공립보통학교 강당)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가 122번지 14필지
- 건축년대 : 1936년 건립
- 건축유형 : 교육(학교)
- 규모 : 지상 1층(연면적 : 402.78㎡)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구, 남산초등학교 강당은 1936년 6월 일제가 대구남산공립보통학교 강당으로 건립한 것으로 현재 남산초등학교 강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평면은 동서로 약간 긴 장방형(長方形)으로 4면에 각각 출입구를 두고, 서쪽에 무대 [강단] 과 준비실이 있다.



▲ 전경

외관은 남쪽 정면 중앙부에 현관 포치(Porch)를 두어 좌우대칭을 구성하였으며, 지붕은 맨사드지붕에 석면슬레이트를 마름모꼴로 이었다. 벽면은 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았는데, 출입구와 창문이 설치된 부분에는 벽돌을 들여쌓기하여 벽면을 수직 분할하였고 창 의 밑인방과 하부벽(下部壁)은 몰탈로 마감하였다.

벽 상부(上部)의 코니스(Cornice)에는 2단 몰딩(Moulding)하여 회반죽 마감하고, 몰딩부에는 네모난 서까래 모양의 돌출 장식을 일정한 간격으로 붙여 리듬감을 느끼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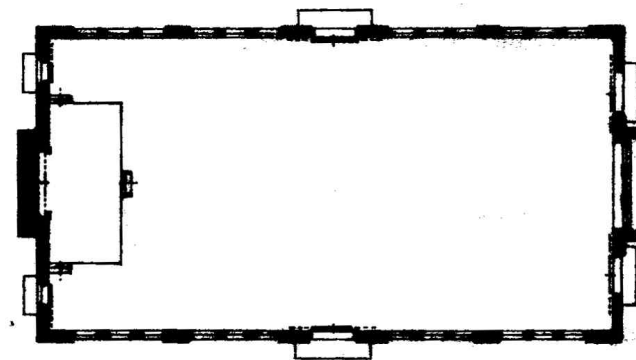


▲ 배면부



▲ 내부

일제가 대구의 식민지교육을 위해 1935~1936년에 걸쳐 건립한 남산공립보통학교에는 본관과 중관, 강당이 있었으나 본관과 중관은 근년에 철거되고 현재 강당만 남아 있다. 이 강당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방침과 당시의 건축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담고 있다.



구 남산초등학교 강당 평면도

17. 구, 경북여자고등학교 강당 (대구공립여자고등학교 강당)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719번지
- 건축년대 : 1929년 건립 1993년 철거
- 건축유형 : 교육(학교)
- 규 모 : 지상 1층(연면적, 373.38㎡)
- 구조 및 양식 : 목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대구공립여자고등학교는 1925년 3월 27일 설립 허가를 받아 그 해 4월 25일 대구교남학원의 여학생을 인수하여 西千代田町(현, 장관동)의 가교사(假校舍)에서 개교하였다.

1927년 11월 26일 현재의 위치인 남산동에 본관을 준공하여 이전하고, 1928년에는 남관을 신축하였으며, 강당은 1929년 11월 28일에 건축되었다. 1938년 4월 1일에는 교육령이 개정됨으로써 교명(校名)이 경북공립고등여자학교로 변경되고, 1951년 8월 20일에는 경북여자고등학교로 개칭되었다.

학교설립 초기의 건물 중 강당은 1968년 9월 구 본관 서쪽에서 운동장의 북서쪽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다. 본관은 1970년 노후로 철거하고 현대식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지었으며, 남관은 1986년 11월 11일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강당만이 남아 있었으나, 근년 교사 증축을 위해 철거하였다.



▲ 정면

이 건물은 운동장의 북서쪽에 동서로 길게 배치된 목조 건물로 지붕은 반 박공에 기와를 이었으며, 동쪽 박공면의 중앙에 현관 포치(Porch)를 두고 그 위에 2개의 갤러리창을 설치하였다. 평면은 동서로 긴 장방형으로 동쪽에 주 출입구를 두었으며 맞은편(서쪽)에는 강단(무대)을 설치하고 그 양측에 각각 출입구를 두었다.

외관은 콘크리트 줄기초(당시, 초석)위에 각재기둥을 세우고 하부벽은 세로판벽, 중간벽은 비늘판벽이며, 상부벽은 기둥과 횡가재를 井字形으로 구성하여 노출시키고 그 사이를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다. 창문은 측면에만 설치하였는데 목재 창틀에 고창(高窓)을 두고, 바깥쪽에는 목재의 여닫이창을, 안쪽에는 오르내리창을 달아 2중창으로 구성하였다. 출입문은 정면과 배면(背面)에만 설치하였는데 정면에는 4짝의 징두리 양판문으로 가운데 쌍여닫이문을 두고 양쪽에 외여닫이문을 설치하였으며 강단 쪽에는 좌, 우측에 각각 여닫이 양판문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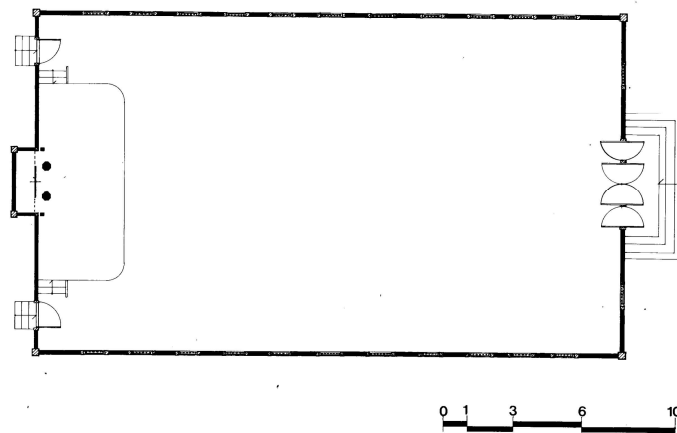


▲ 내부



▲ 좌측면

내부 바닥은 목재 장마루판, 벽은 징두리벽을 세로판벽으로 하고 상벽은 회반죽으로 마감하였으며, 벽과 천정의 연결부는 오목하게 몰딩(moulding)하였다. 천정은 목재 줄대를 井字形으로 구성하고, 그 사이는 함석을 붙였으며, 갓 둘레는 목재 돌림띠를 돌렸다.



구 경북여자고등학교 강당 평면도

18. 신명학교 폴라드 기념관 (존슨 주택)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206번지
- 건축년대 : 1901년 건립, 1989년 철거
- 건축유형 : 종교(주택)
- 설 계 자 : 아담스, 존슨(Adams, Johnson) 선교사
- 규 모 : 지상 2층, 지하 1층(연면적, 479㎡)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대구의 기독교는 1898년 아담스 선교사에 이어 대구에 온 존슨(Johnson) 선교사가 남성정교회 구내에 제중원(濟衆院)을 설립하여 의료사업에 착수하면서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1889년 아담스와 존슨 선교사는 동산의 산야(山野) 일부를 구입하여 그들의 주택을 건축하고, 이 거점(據點)을 중심으로 종교, 교육사업을 펴 나가기로 하였다. 존슨 주택은 1898년 대구에 처음으로 서양 의술을 베푼 미국 북장로교 의사 존슨(Johnson)의 주택으로 1901년 9월 아담스 주택과 함께 건축된 대구 최초의 서구식 건물이다.³⁾



▲ 정면

이 건물에 사용한 목재는 대구로부터 25마일(약40km) 떨어진 지방에서 벌목하여 낙동강의 수운(水運)에 의해 대구근교 10mile(약 16km)까지 운반한 다음 인부에 의해 공사장까지 운반하였고, 문은 미국 시카고(Chicago)에서, 철물과 설비류는 샌프란시스코(Sanfransisco)로부터 수입하였다 한다.⁴⁾ 건물의 설계는 선교사 자신들이 본국 [美國] 에서 보아오던 주택을 바탕으로 그들의 기호와 대구지방의 환경적 요구에 적응하는 계획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건축공사는 서울에서 온 중국 산둥성(山東省) 출신의 벽돌공과 부산에서 온 일본인 목수들이 담당했다고 한다. 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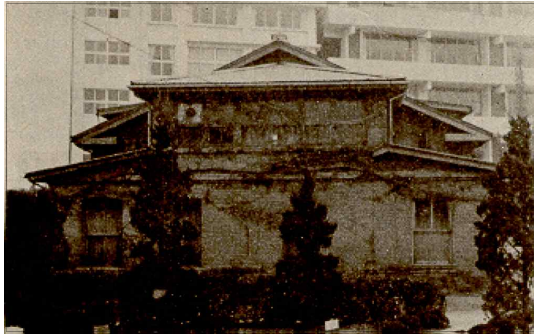
3) Harry A. Rhodes, A.M.D.D 편, History of the Kore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p.178

4) Harry A. Rhodes, A.M.D.D 편, 앞책, p.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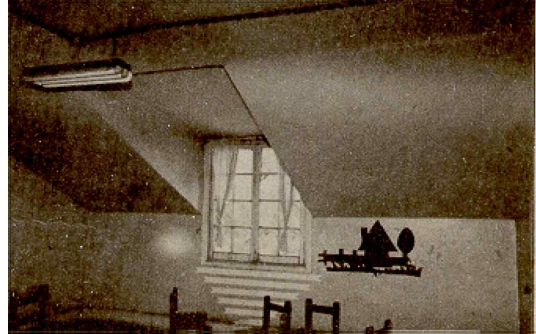
5) 벽돌공은 1901년 5월 계산성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온 중국인과 동일인으로 추측됨

이 건물은 건축 당시 단층으로 한식 기와지붕이었으나⁶⁾ 신명학교의 제 2대 교장이었던 폴라드(H.F Pollard)와 동료이면서 협력자였던 그리미(E.B. Grime)의 두 독신여성 교육자를 위해 1926년 2층으로 증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건물은 1964년 10월에는 폴라드기념관으로 개관되어 신명여고 생활관으로 사용되었고, 1969년 9월부터 1층은 교사휴게실과 양호실로, 2층은 문예실, 학생활동실로 사용해 오다가 1988년 5월 철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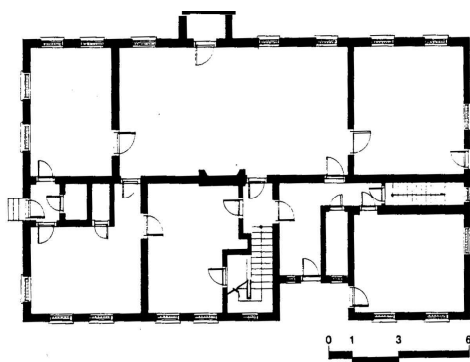


▲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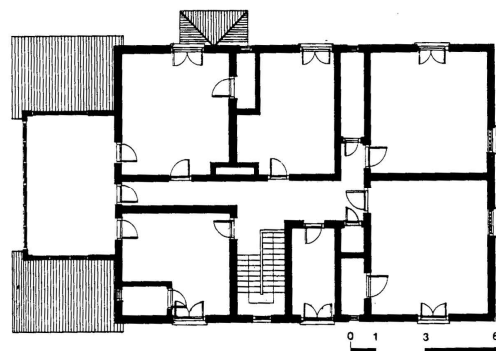


▲ 내부

이 주택은 미국인 아담스와 존슨(Adams, Johnson) 두 선교사가 1901년경 동산동의 동산 위에 지은 주택으로 존슨 이후 여러 선교사들이 거주하였다. 평면은 동쪽 우측부의 현관 홀을 통하여 거실과 응접실, 계단실을 직접 연결하고, 거실을 중심으로 침실, 욕실, 부엌, 식당 등을 배치하였다. 2층에는 계단실과 연결되는 중복도 양쪽에 침실, 서재, 욕실 등을 두고, 남쪽에 면하여 선룸(Sun Room)을 설치하였다. 외관은 안산암의 성돌(대구성곽을 철거한 돌)을 바른층쌓기 한 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한식기와를 이은 단 층집이었으나 1926년에 2층으로 증축하였다. 지붕은 박공지붕에 석면슬레이트를 이었으며, 지붕의 전·후면에 각각 3개의 세드(Shed)형 지붕 창을 부가하였다.



구 존슨 주택 1층 평면도



구 존슨 주택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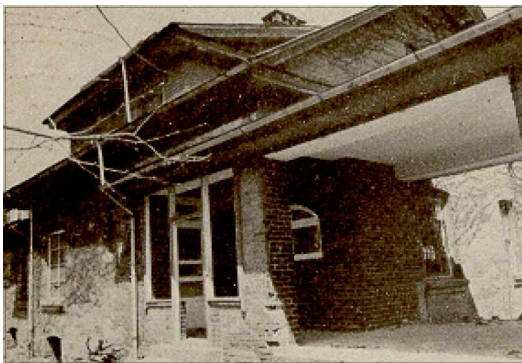
6) 權純業, 大邱地域 初期 洋式住居建築에 관한 研究(嶺南大, 碩士 1984)

19. 구, 신명학교 사임당의 집 (맥파랜드주택)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206번지
- 건축년대 : 1910년경 건립, 1989년 철거
- 건축유형 : 종교(주택)
- 설계 : 미국인 선교사
- 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연면적, 423.4㎡)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방갈로(Bungalow) 풍
- 건축연혁 및 현황 :

1899년 블루옌(H.M. Bruen)이 대구에 옴으로써 존슨(Johnson)은 의료사업을 담당하고, 아담스(Adams)와 블루옌(Bruen)은 근대학교를 설립하여 선교사업을 펴나가기로 하고, 1902년 아담스(Adams) 선교사는 남성정교회 구내에 대남남자소학교를, 블루옌(Bruen)여사는 신명여자소학교를 설립하였다. 그 후 1906년에는 아담스(Adams)가 남성정교회의 사택에 계성중학교를, 블루옌(Bruen)여사는 동산동 선교사 주택에 신명여자중학교를 설립하여 선교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맥파랜드(Mcfarland) 주택은 1904년에 대구에 온 맥파랜드(E.F. Mcfarland) 선교사의 주택으로 1906~1910년경에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맥파랜드 이후 1923년부터는 라이온(W.B. Lyon)이, 1952~1962년에는 프로보스트(R.C. Provost)가 거주하였다. 이 건물은 선교사 자신들이 중국인 조적공과 일본인 목수들을 동원하여 지은 집으로 건물의 기초에 사용한 돌은 1906년 대구 성곽을 철거한 성곽돌을 주워다 사용하였고, 창호 철물 및 양변기, 세면기 등은 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정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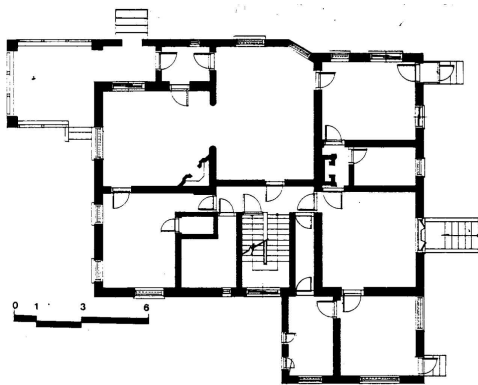


▲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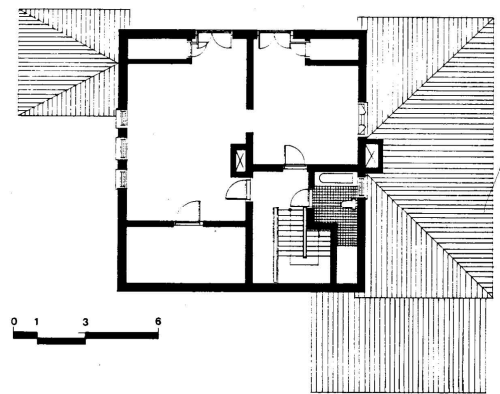
이 건물은 1969년 7월 어드만(Erdman) 주택과 함께 미국 예수교 북장로교과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신명학교에서 인수하였다. 1964년 존슨 주택에서 개관된 생활관을 1970년 3월 이곳으로 이전하여 “사임당의 집”이라고 명명하고 생활관으로 사용해오다 1988년 철거하였다.

존슨 주택은 1910년경 미국인 선교사들이 지은 방갈로(Bungalow)풍의 주택으로 맥파랜드(Mcfarland), 라이온(Lyon) 등이 기거하였다. 평면은 남북으로 약간 긴 장방형으로 1층은 서쪽 주 출입구 우측에 목조 베란다를 설치하여 좌측 현관 홀과 응접실, 거실, 부엌 등을 ㄱ자형 중복도와 직접 연결하고, 이 복도를 따라 침실, 계단실, 창고 등을 배치하였다. 2층에는 계단실과 연결된 ㄱ자형 복도를 따라 침실과 서재, 화장실을 배치하였다.

외관은 서쪽 우측부에 현관 포치(Porch)를 두고, 그 우측에 목조 베란다를 설치하였다. 벽면은 안산암의 성돌 [대구읍성을 철거한 돌]을 바른층쌓기 한 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고, 층간(層間) 돌림띠(Cornice), 결원아치 창 등으로 꾸몄으며, 지붕은 박공형으로 지붕면에 셰드(Shed) 창을 부가하였다.



구 맥파랜드 주택 1층 평면도



구 맥파랜드 주택 2층 평면도

20. 구, 신명학교 에스더의 집 (어드만주택)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206번지
- 건축년대 : 1910년경?, 1989년 철거
- 건축유형 : 종교(주택)
- 설계자 : 미국인 선교사
- 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연면적, 400.73㎡)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어드만 주택은 1906~1910년경 미국인 선교사들이 어드만(W.C. Erdman)선교사의 주택으로 건립, 선교사들이 거주해왔으며, 1969년부터는 성명여자중학교에서 생활관, 연혁관(1972)등으로 사용해오다 1988년 철거하였다.

7) 鄭淳在 : 사진으로 보는 舊韓末, 每日觀光文化社, 1980

이 주택은 1910년경 미국인 선교사들이 지은 붉은 벽돌조 2층집이다. 평면구성은 서쪽에 설치된 목조 베란다와 연결된 현관 홀을 통하여 거실, 응접실, 계단실을 직접 연결하고, 거실을 중심으로 침실, 욕실, 욕실, 주방 등을 배치하였다. 2층에는 계단 홀을 중심으로 침실, 서재, 욕실 등을 두고, 남쪽에 면하여 선룸(Sun Room)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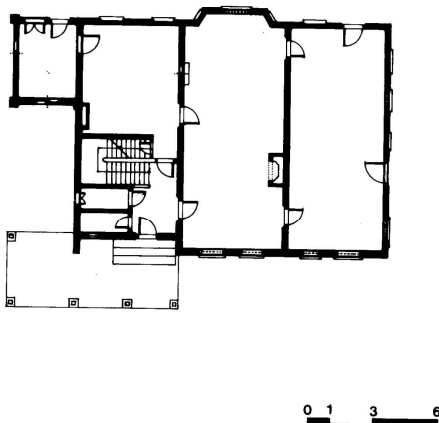


▲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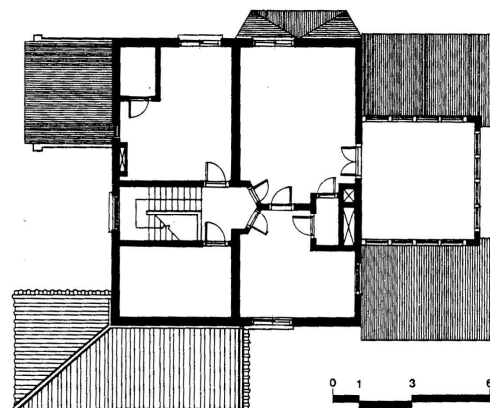


▲ 내부 계단실

외관은 안산암의 성돌 [대구성곽을 철거한 돌] 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고, 층 사이에는 벽돌로 돌림띠 장식을 하였으며, 지붕은 박공지붕에 한식기와를 이었다. 이 집은 개신교 선교 초기 미국인 선교사들의 건축이념과 그들의 주생활양식을 잘 보여 주었던 건물이다.



구 어드만 주택 1층 평면도



구 어드만 주택 2층 평면도

21. 스윗츠(Switzer)주택

- 지정종별 :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4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194번지
- 건축년대 : 1910년경¹⁾
- 건축유형 : 종교(주택)
- 설계자 : 미국인 선교사
- 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연면적, 342㎡)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주택은 1906~1910년경 스윗츠(M.M. Switzer), 핸드슨(H.H. Henderson), 아키베드 캠벨(Archibad Campbell) 등의 선교사들이 거주해왔다.

1981년 8월 동산병원에서 인수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한식기와를 함석으로 교체하고²⁾ 내부마감재 일부를 교체하였다. 1999년 10월 1일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개원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 건물을 선교박물관으로 설립하였다.



▲ 전경

이 주택은 1910년경 미국인 선교사들이 그들의 주택으로 지은 것으로 스윗츠 선교사 등이 거주하였다. 평면구성은 남쪽 우측부에 현관으로 이어지는 베란다를 두고 현관 홀을 통하여 거실과 응접실을 직접 연결하였으며, 거실을 중심으로 침실, 계단실, 욕실, 부엌, 식당 등을 배치하였다.

외관은 안산암의 성돌 [대구 읍성을 철거한 돌] 을 바른층 쌓기 한 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았다. 지붕은 한식기와를 이은 박공지붕이었으나 함석으로 개조(改造)되었다. 이 집은 지붕재료와 마감재료의 일부가 바뀌었지만 건물 전체의 형태 및 내부구조는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1) 鄭淳在 : 앞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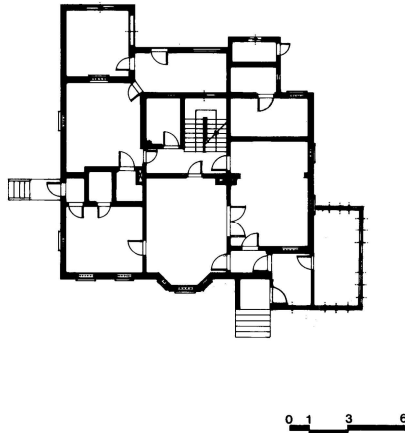
2) 信明七十年史 編纂委員會 : 信明七十年史,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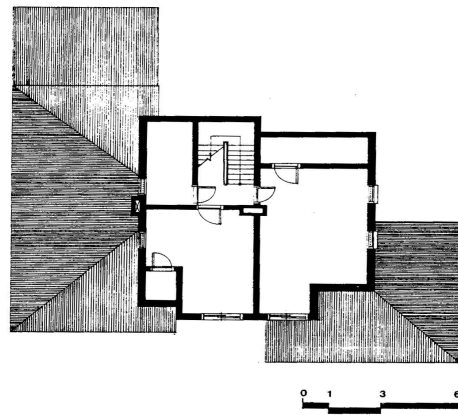
▲ 우측면



▲ 우측 벽면 상세



스윙츠 주택 1층 평면도



스윙츠 주택 2층 평면도

22. 챔니스(Chamness)주택

- 지정종별 : 유형문화재 제25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424번지
- 건축년대 : 1910년경³⁾
- 건축유형 : 종교(주택)
- 설계자 : 미국인 선교사
- 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연면적, 482.75㎡)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3) 鄭淳在 : 앞책

이 주택은 1906~1910년경에 건축되어 라이너(R.O.Reiner), 챔니스(O.V.Chamness), 소우텔(Sawtel) 등의 선교사들이 거주하였다⁴⁾. 1984년 이후 동산병원 의료원장인 모팻(H.F.Moffett)이 거주하였으나 1981년부터는 동산병원 사택으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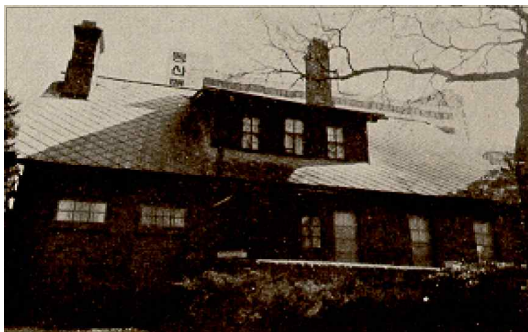
1999년 10월 1일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개원 100주년을 맞이하여 의료박물관으로 설립하였다.



▲ 전경

현 챔니스 주택은 1910년경 미국인 선교사들이 그들의 주택으로 지은 집이다. 평면은 남북으로 약간 긴 장방형으로 1층은 서쪽 중앙에 있는 주 출입구에서 계단실이 있는 홀과 연결되고, 이 홀을 중심으로 거실, 서재, 부엌, 식당 등이 배치되어 있다. 2층에는 계단실을 중심으로 남쪽과 서쪽에 각각 침실을 배치하였다. 외관은 서쪽 정면 중앙부에 목조로 된 현관 포치(Porch)를 두고, 동남쪽에는 목조 베란다가 설치했으며, 벽면은 콘크리트 기초 위에 벽돌 쌓기 하였다.

이 집은 미국인들의 건축·주거양식과 생활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대구의 개신교 선교사와 당시의 건축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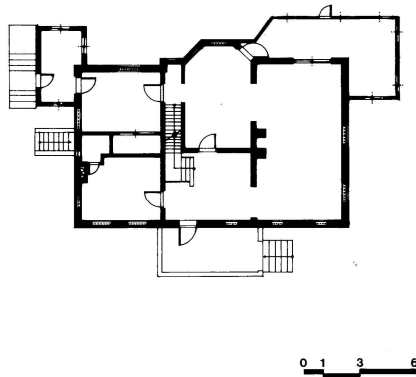


▲ 정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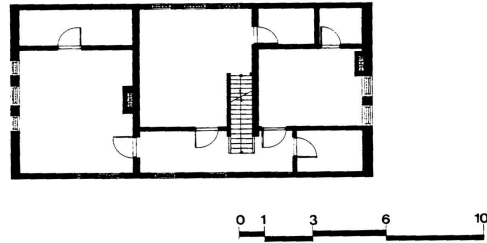


▲ 우측면

4) 權純業：앞책



챔니스 주택 1층 평면도



챔니스 주택 2층 평면도

23. 블레어(Blair)주택

- 지정종별 : 유형문화재 제26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424번지
- 건축년대 : 1910년경⁵⁾
- 건축유형 : 종교(주택)
- 설계자 : 블레어(H.E. Blair), 라이스(R.F. Rice) 선교사
- 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연면적, 482.75㎡)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방갈로(Bungalow)풍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주택은 1910년경 건축되어 블레어(H.E. Blair), 라이스(R.F. Rice) 선교사가 거주해왔으며⁶⁾, 1981년 8월 동산병원에서 인수하여 사택으로 사용해오다 1999년 10월 1일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개원 10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역사박물관으로 설립하였다.

블레어 주택은 1910년경 미국인 선교사들이 그들의 주택으로 지은 집이다. 평면은 남북이 약간 긴 장방형으로 1층은 서쪽 현관 홀을 통하여 응접실과 거실. 계단실을 직접 연결하고, 거실을 중심으로 침실, 부엌, 식당 등을 배치하였다.

2층은 口字形의 계단 홀을 중심으로 침실과 욕실을 두었으며, 서쪽 현관의 베란다 상부는 선룸(Sun Room)을 설치하였다.

5) 鄭淳在 : 앞책

6) 權淳業 : 앞책



▲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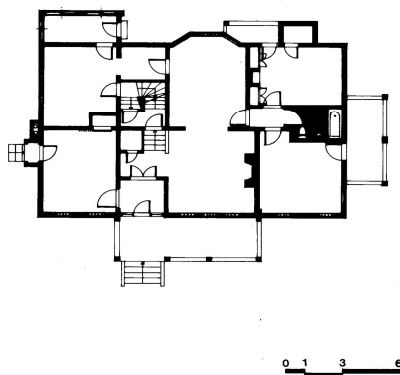
외관은 남측과 서쪽에 목조 베란다가 설치하고, 벽면은 콘크리트 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았다. 지붕은 박공면을 남쪽과 북쪽, 서쪽에 두고, 동쪽과 서쪽의 지붕면을 셰드(Shed)형으로 꾸몄다. 이 집은 외관상 같은 시기 미국의 방가로(Bungalow)풍에 가까운 주거 건물로서 지금까지 건축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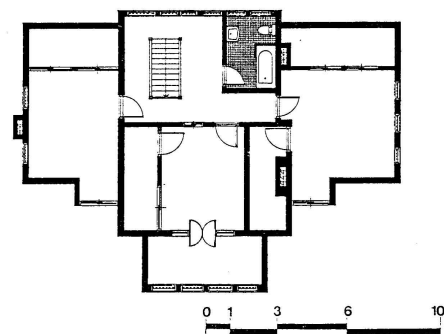
▲ 거실



▲ 계단실



블레어 주택 1층 평면도



블레어 주택 2층 평면도

24. 구, 영남신학교 본관 (동산성서학원 본관)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230번지
- 건축년대 : 1913년 건립, 1991년 철거
- 건축유형 : 종교(학교)
- 설 계 자 : 아담스 선교사
- 규 모 : 지상 2층, 지하 1층(연면적, 709.5㎡)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한,양절충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1913년 이전까지 성경은 교회내의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왔으나 미국인 아담스(Adams)선교사는 1913년 성경을 전문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교인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개교하여 1년에 2개월씩 단기로 수업을 하였다고 한다⁷⁾. 이 기록으로 미루어 동산성경학교 본관은 1913년 경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학교는 1940년 5월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되었는데 당시 동산 위에 우뚝 솟은 성경학교의 창문을 폐쇄했던 판자는 대구 시민들에게 무언(無言)의 항일정신을 고취시켰다고 한다. 동산성경학교는 1946년 4월 3년제 고등성경학교로 재건되어 제일교회 1층을 교사로 사용하였으나 1955년 이상근 목사가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이곳으로 옮겨왔다.



▲ 전경

1979년 8월 1일에는 영남신학교가 미국연합장로회 선교사의 소유로 되어있는 성경학교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사용해오다 1991년 철거하였다.

구 영남신학교 본관은 동산의 가장 높은 곳에 동향으로 배치된 붉은 벽돌조 2층 건물로 계산성당과 동일 축선상(軸線上)에 있었다.

평면은 십자형(十字形)이며, 좌우대칭을 고려하여 좌우에 각 실을 균등하게 배치함으로써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건물 정면의 좌우 양측에 현관 포치(Porch)를 두고, 현관 포치에

7) 이상근 : 앞책

서 내부 복도와 계단실로 연결된다. 2층에는 가운데 예배실을 두고, 예배실의 양측에 동형(同形)의 강의실을 배치하였다. 외관은 화강석 다듬돌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벽면을 구성하고, 벽면에는 반원 아치창과 층간 돌림띠(Cornice), 아치창 등으로 꾸몄으며, 지붕은 모임지붕에 한식기와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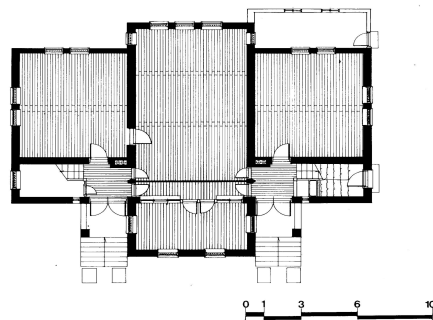
창문은 목재 오르내리창을 설치하였는데 창인방은 반원 아치형, 밑인방은 벽돌 내쌓기로 물흘림 경사를 두었으며, 층 사이에는 돌림띠를 돌렸다. 내부 벽면은 회반죽, 바닥은 목재 장마루판, 천장은 합판으로 반자를 구성하여 반자돌림띠를 돌렸다.



▲ 배면부



▲ 내부 강의실



구 영남신학교 본관 1층 평면도

25. 구, 영남신학교 여자기숙사 (동산성서학원 여자기숙사)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230번지
- 건축년대 : 1933년 건립, 1991년 철거
- 건축유형 : 종교(기숙사)
- 설계자 : 블루엔(Bruen). 헨드슨(Henderson) 선교사
- 시공자 : 중국인 기술자
- 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연면적, 891㎡)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고딕(Gothic)풍
- 건축연혁 및 현황 :

1913년 동산성경학교 개교 후 아담스(Adams)주택을 학생 기숙사로 사용해 왔으나 1933년 학생수의 증가로 협소하게 되자 선교사들은 본관 서쪽 경사지에 붉은 벽돌조 3층 기숙사를 신축하였다. 이 건물의 설계는 미국인 선교사 블루엔(Bruen)과 헨더슨(Henderson)등이 하고, 건축공사는 중국인 기술자들이 담당하였다고 한다. 이 건물은 1940년 5월 성경학교와 함께 폐쇄되었다가 1955년 고등성경학교가 이전해 오면서부터 여자기숙사로 사용되었으며, 1979년 8월 1일에는 영남신학교가 인수하여 강의실, 도서실, 교수연구실 등으로 사용해 오다. 1991년 본관과 함께 철거하였다.



▲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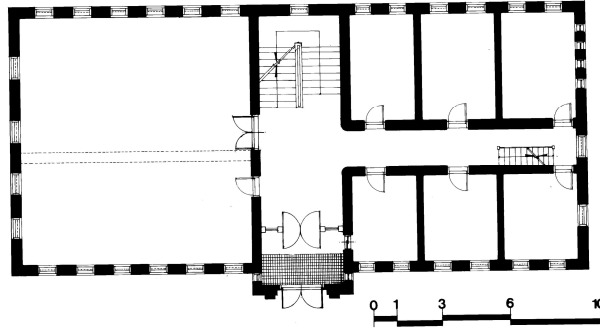
구 영남신학교 여자기숙사는 본관의 서쪽 경사면에 남향 배치된 붉은 벽돌조 3층 건물로 정면 중앙부에 퍼빌리온(Pavillion)을 구성하였다. 평면은 장방형의 중복도식으로 중앙의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각 실을 균등하게 배치함으로써 외관과 함께 좌·우 대칭을 이루었다. 외관은 화강석 다듬돌을 쌓은 하부벽(下部壁) 위에 붉은 벽돌로 상부벽(上部壁)을 구성하여 목재 오르내리창을 달았다. 정면 중앙의 주 출입구에는 튜더(Tudor)풍의 아치로 꾸민 퍼빌리온을 설치하여 정면성을 강조하였고, 벽면에는 창인방을 돌출시켜 수평 돌림띠처럼 구성하였다. 지붕은 모임지붕에 슬레이트를 이었으며, 지붕의 각 면에는 도머(Domer)창을 설치하였다. 내부 바닥은 목재 장마루판, 벽면은 회반죽 마감에 수성페인트로 마감하였다.



▲ 계단실



▲ 2층 다락방



구 영남신학교 여자기숙사 1층 평면도

26. 동산의료원 구관 (동산병원)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194번지
- 건축년대 : 1931년 건립
- 건축유형 : 종교(병원)
- 설 계 자 : 프렛츠(A.G. fletchr)선교사
- 시 공 자 : 중국인 기술자
- 규 모 : 지상 3층(연면적, 990㎡)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동산병원은 1898년 존슨(W.B Johnson) 선교사가 남성정교회 [현, 제일교회] 구내의 초가에 세운 대구 최초의 서양 의학병원인 제중원(濟中院)으로 발족하였다⁸⁾. 제중원은 1899년 10월 1일 동산동의 초가로 옮겨오면서 동산병원으로 개칭되었다⁹⁾.

1903년 봄 존슨 선교사가 미국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장로교회의 자금 지원을 받아 새 병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1905년 태풍으로 무너져 1906년에 재건하였다 한다. 존슨 선교사는 1910년 건강상의 이유로 복음전도의 일을 맡고, 프렛처(A.G. Fletcher) 선교사가 병원을 맡아 보게되면서 1914년, 1928년 두 차례 새 건물을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현, 동산병원 구관은 1931년에 프렛츠(A.G.fletchr) 선교사가 3만 5천 달러의 자금을 들여 건축하였다고 한다¹⁰⁾.

이 건물은 1941년 태평양전쟁 때는 일본군에 징발되어 경찰병원으로, 1950년 6, 25시는 한국군에 징발되어 국립경찰병원 대구분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953년 이후부터는 이 건물의 우측과 뒤편으로 소아과 병동, 외래진료소, 입원실 등이 현대식으로 증축되고, 내부

8) HARRY A. Rhodes : 앞책

9) 대구동산기독병원 沿革志

10) HARRY A. Rhodes : 앞책

간막이, 창문 등의 변경 및 개체가 이루어지면서 다소 변형되었다.



▲ 전경

동산병원 구관은 서문시장과 마주보며, 서향하는 붉은 벽돌조 3층 건물로 정면 중앙에 돌출한 현관 포치(Porch)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평면구성은 가운데 복도를 설치한 중복도식으로 서쪽 정면 중앙에 주 출입구를 두고 위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실을 복도 양쪽 끝에 배치하였다.

외관은 콘크리트 기초 위에 벽돌을 쌓아 구성하고, 지붕을 슬라브로 이어 파라페트(Parapet)를 설치하였는데 파라페트는 여러 단의 물딩으로 장식하였다. 창문은 평아치형에 목조 오르내리창을 설치하였으며, 2층과 3층의 밀인방은 화강석 다듬돌을 벽면보다 약간 돌출시켰으나, 1층 창문의 옷인방은 상호 연결시켜 수평 돌림띠(Cornice)처럼 구성하였다.

내부 바닥은 인조석 물갈기 이고, 벽과 천장은 회반죽 마감인데 보와 천장의 갓 둘레는 정교한 물딩을 넣어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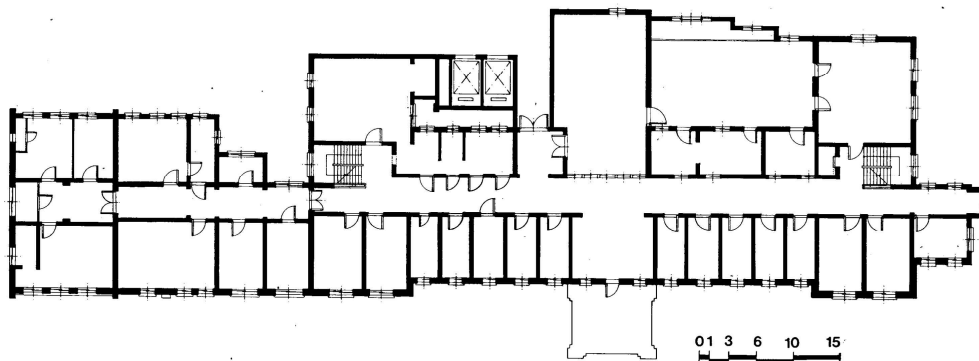


▲ 정면 출입구 포치



▲ 복도 · 계단실

이 건물은 대구의 근대기 병원건축으로 대구 향토사와 의료사(醫療史) 뿐만 아니라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기념적인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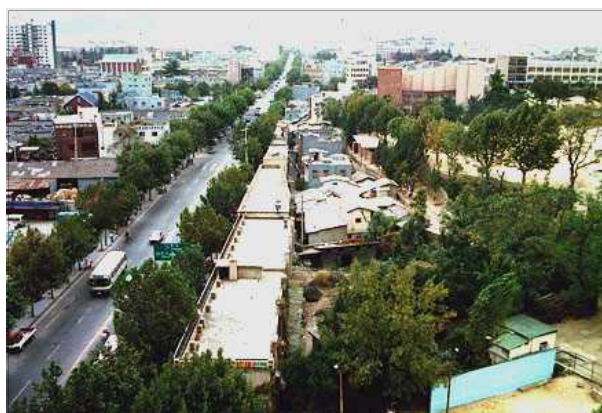


동산의료원 구관 1층 평면도

27. 장옥 (長屋, 노동자 숙소)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79번지
- 건축년대 : 1912년 건립
- 건축유형 : 주택(연립주택)
- 규모 : 지상 1층(연면적, 300㎡, 1棟 = 2m×2.5m 크기의 방 20개)
- 구조 및 양식 : 목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장옥(長屋, 나가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건물은 대구역사를 건축하기 위해 외지에서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숙소로, 한국인 도목수와 일반노동자들이 당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돌, 흙, 짚, 기와 등을 사용하여 지은 집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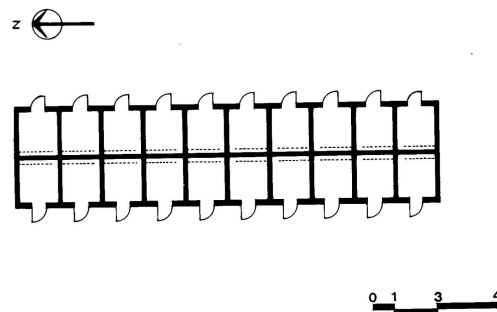


▲ 위에서 본 모습

이 건물은 해방 후 대구시의 소유가 되었다가 무단 점유한 주민들에게 불하되었는데 그 동안 흙벽을 블록으로 개조하거나 2~3집을 헐어 한 집으로 하는 등 여러 차례 집을 개조 또는 개수하였다. 일부는 몇 집을 완전히 헐고 2~3층의 콘크리트조 건물을 신축하여 여관으로 사용하는 등, 지금은 많은 부분이 원형을 알아볼 수 없게 변형되어 단지 몇 집의 지붕이나 실내의 일부 부분에서 당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장옥(長屋)은 1912년경 일제가 대구역 건축을 위해 여러 지방에서 동원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숙소로 지은 대구 최초의 연립형 주택이다. 이 건물은 도로에 인접하여 남북으로 길게 배치된 목조 단층으로 정면과 뒷면의 구분이 없다.

평면은 앞·뒷면에 각각 10칸씩 모두 20개의 방을 같은 크기로 구획하고, 출입문 밑에 아궁이를 설치하여 난방과 취사를 겸할 수 있게 하였는데, 방 한 칸의 크기는 2m×2.5m로 구성되어 있다. 외관은 막돌기단 위에 주춧돌을 놓아 그 위에 각형의 나무기둥을 세우고, 기둥 사이를 짚과 대나무로 외를 엮어 댄 다음 진흙을 발라 벽체를 구성하였다. 지붕은 목조 지붕틀을 걸고 기와를 이었다. 이 건물은 해방 후 대구시에서 무단 점유한 주민들에게 불하하였는데 그 동안 개조, 신축 등이 이루어져 지금은 많은 부분이 원형을 알아 볼 수 없게 변형되었다.



장옥 평면도

28. 계성학교 Adams관 (아담스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77 - 1 외 2 필지
- 건축년대 : 1908년 가을¹¹⁾
- 건축유형 : 종교(학교)
- 설계자 : 아담스(J. E Adams) 선교사
- 시공자 : 중국인 기술자, 일본인 목수
- 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연면적, 392.85㎡)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한·양 절충식

11) 이상근 : 대구제일교회 90년사, p,63

• 건축연혁 및 현황 :

미국인 아담스(J. E Adams)선교사는 1906년 5월 학생 27명으로 남성정교회 구내의 사택에 계성중학교를 창설하고, 1907년에는 현재의 계성학교 부지 2,000여 평을 매입하고, 1908년 미국 선교부에서 5,000불의 자금을 지원 받아 1908년 가을 영남 최초의 서양식 학교인 아담스관을 건립하였다.

건물 설계는 아담스 선교사가 직접 하고, 건축공사는 그의 감독 하에 중국인 벽돌공과 일본인 목수들이 담당하였다¹²⁾ 한다. 이 건물에 사용된 창호재료, 유리, 위생, 난방설비 등은 모두 미국에서 가져 왔고, 석재는 대구 읍성(邑城)을 철거한 성돌을 사용하였다.

아담스관은 붉은 벽돌조 2층 건물로 정면 중앙에 돌출 된 종탑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이며, 지붕은 박공형에 한식기와를 이은 영남 최초의 양옥교사이다. 이 건물은 건립 당시 정면에 계단실이 있었고, 내부 바닥은 목재 장마루판 이었으나 1964년에 건물 내부에 콘크리트 기둥을 세워 바닥을 콘크리트브로 바꾸고, 정면 계단은 철거하여 건물 뒤편으로 옮겨 철근콘크리트 계단으로 설치하였다¹³⁾.



▲ 정면

평면은 장방형으로 동쪽 정면에 종탑, 서쪽에 주 출입구를 마련하고, 현관 홀과 연결되는 중북도의 양쪽으로 교실을 배치하였으며, 2층은 모두 개방하여 예배실로 구성하였다. 외관은 정면 중앙에 종탑을 두어 대칭을 이루게 하였다.

기초와 지하실은 대구 읍성(邑城)을 철거한 돌로, 나머지 벽체는 붉은 벽돌과 함께 안산암으로 조적하고, 종탑(鐘塔)의 하단부(下端部)는 인조석 버팀기둥(Buttress)과 반원 아치의 아케이드(Arcade)를 설치하였으며, 지붕은 박공지붕에 한식기와를 이었다. 창문은, 종탑부는 3심원 아치, 교실부는 결원아치로 구성하여 목재 오르내리창을 달았다. 전체적으로 이 건물은 지붕형태에서는 한국 전통적인 요소가 느껴지나 벽면 구성은 서구의 고딕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한·양절충형이다.

계성학교 아담스관은 영남 최초의 양옥교사(洋屋校舍)라는 역사적 의미 외에도 한·양의

12) 啓聖五十年史 編纂委員會：啓聖五十年史, 1956.

13) 啓聖學校 沿革志：啓聖學校 庶務室 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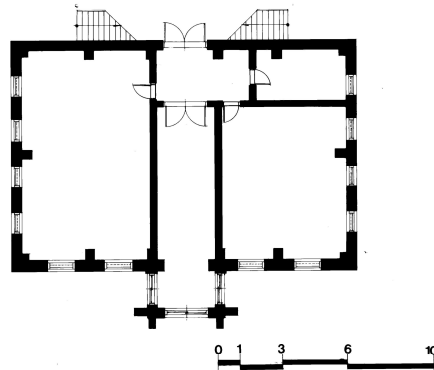
절충수법, 외관구성 및 벽돌 조적법 등 건축사 연구(建築史 研究)의 자료적 가치를 담고 있는 귀중한 건물이다.



▲ 우측면



▲ 창문부 상세



계성학교 아담스관 1층 평면도

29. 계성학교 맥퍼슨관 (맥퍼슨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77 -1
- 건축년대 : 1913년 건립
- 건축유형 : 종교(학교)
- 설계자 : 라이너(Riner) 선교사
- 시공자 : 중국인 기술자, 일본인 목수
- 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연면적, 455.4㎡)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한·양 절충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계성학교는 1912년 조선총독부로부터 사립 계성학교 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사의 협소함을 느끼게 된 계성학교 제 2대 교장이었던 라이너(Riner) 선교사는 미국에 있던 아담스 선교사의 부친인 맥퍼슨(Mcpherson)으로부터 교사 건립기금 6,000불을 기부 받아 1913년 9월 벽돌조 2층 건물을 세워 맥퍼슨(Mcpherson)관이라 명명하였다¹⁴⁾. 건물의 설계는 아담스·라이너 두 선교사가 하고, 건축공사는 중국인 기술자와 일본인 목수들이 담당하였다 한다.

이 건물에 사용된 창호재료, 유리, 위생, 난방설비 등은 모두 미국에서 가져 왔고, 기초와 지하실의 석재는 대구 읍성을 철거한 돌을 사용하였다. 맥퍼슨관은 아담스관의 북쪽에 동향으로 배치된 붉은 벽돌조 2층 건물로 정면 중앙의 주 출입구에 설치된 사각탑(Pavillion)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 전경



▲ 배면부

평면은 정방형으로 동쪽 정면에 현관 홀을 두고, 이 홀과 연결된 一字形의 긴 복도에 연결하여 1층과 2층에 같은 모양의 교실을 배치하였다. 외관은 동쪽 정면 중앙의 주 출입구에 설치된 탑을 중심으로 대칭이고, 벽면은 안산암의 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층간 돌림띠(Cornice), 결원 아치창 등으로 장식하였으며, 지붕은 모임지붕에 한식기와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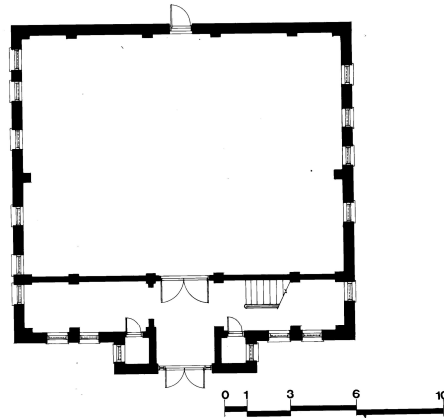
▲ 창문부 상세



▲ 내부

14) 계성50년사 편찬위원회 : 앞책

이 건물은 한·양 절충의 양옥교사로 지금까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고 건물이 갖는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한·양의 절충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어 건축사 연구의 자료적 가치를 담고 있다.



계성학교 맥퍼슨관 1층 평면도

30. 계성학교 본관 (헨더슨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77 - 1 외 2 필지
- 건축년대 : 1931년 건립, 1964년 증축
- 건축유형 : 종교(학교)
- 설계자 : 헨더슨(H.H. Henderson) 선교사
- 시공자 : 중국인 조적공, 일본인 목수
- 규모 : 지상 3층, 지하 1층(연면적, 2,639㎡)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고딕(Gothic)풍
- 건축연혁 및 현황 :

1920년 10월 30일 헨더슨(H.H. Henderson) 선교사가 계성학교 제4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헨더슨 교장은 취임 당시부터 학교내의 시설을 정비하고, 미국의 교사들과 같은 훌륭한 교사를 지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1928년 10월 블레어(H.E. Blair)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 본국(美國)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블레어 선교사는 귀국의 기회에 헨더슨 교장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기 위하여 세밀한 기금 염출 계획을 세우고, 친지들을 설득, 강요, 간청하기도 하여 오백원이란 거액을 염출(捻出)하게 되었다.¹⁵⁾

15) 계성 50년사 편찬위원회 : 앞책



▲ 정면

1931년 3월 헨더슨 교장은 이 사실을 서신(書信)으로 전해 듣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그리고, 꿈꾸던 설계 중에서 고전미(古典美)가 풍기는 현대적 학교건축 계획안으로 본관 건축에 착수하였다. 이 건물에 사용한 문과 문틀의 목재 및 난방, 위생설비 등은 미국에서 가져왔으며, 건축공사는 헨더슨 교장의 감독 하에 학생들이 기초 공사를 했고, 상부공사는 중국인 조적공과 일본인 목수들이 담당하였다고 한다.

공사 진행 중 본교의 양태승 선생의 건의를 받아들여 3층 계획을 2층으로 변경하고, 그 경비로 내부 시설을 충실히 하였다. 한다. 건물은 1931년 11월에 완성되었으나 어려운 여건에서의 공사 진행으로 인한 물심양면의 과중한 소모로 낙성식은 1933년 5월 4일에 이루어졌다.¹⁶⁾

이 건물은 건축 당시 붉은 벽돌 조적조 2층이었으나 1964년 4월 30일 3층으로 증축하였으며, 건물 내부에 철근콘크리트 기둥을 세우고, 바닥을 슬라브 구조로 변경하였다.

현재 이 건물의 1층은 교장실, 서무실, 교무실 등 관리부분을 두고 있으며, 2층은 일반교실, 물리실험실, 3층은 도서실로 사용하고 있다.

계성학교 헨더슨관은 1931년 11월 헨더슨 교장이 건립한 고딕(Gothic)풍의 서구식 건물이다. 이 건물의 설계는 헨더슨 교장이, 건축공사는 헨더슨 교장의 감독 하에 학생들이 기초공사를 하고, 상부공사는 중국인 조적공과 일본인 목수들이 맡았다.

평면은 장방형의 중복도식으로 정면 중앙의 현관을 중심으로 각 실을 균등하게 배치함으로써 외관과 함께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외관은 정면 중앙의 현관 포치(Porch) 위에 좌우 2개의 탑 [Turret] 을 설치하고, 옥상 파라펫(Parapet)과 탑 [Turret] 위에는 면류관을 상징하는 여장 [西洋의 中世 성곽형] 을 설치하여 벽면의 수직창과 함께 고딕(Gothic)적 요소인 수직선을 강조하고, 벽면의 층 사이 수평 돌림띠(Cornice)가 수평적 요소를 표출함으로써 르네상스적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다. 내부 모서리벽은 둥글게 몰딩하였으며, 온풍난방에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었다.

16) 계성 50년사 편찬위원회 : 앞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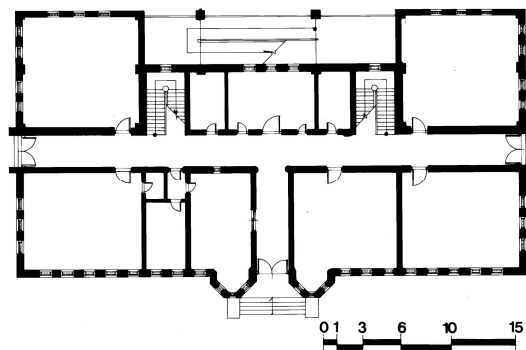


▲ 현관 포치부



▲ 내부 복도

계성학교 헨더슨관은 르네상스적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고딕(Gothic)풍의 건물로 지금까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고, 건물이 갖는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공간구성, 특히 외관구성의 시대적 변화 과정 등을 살필 수 있어 건축사 연구의 자료적 가치를 담고 있는 귀중한 건물이다.



계성학교 본관 1층 평면도

31. 남산교회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41-22번지
- 건축년대 : 1932년 건립, 1937년 중수, 1972년 개축
- 건축유형 : 종교(학교)
- 설 계 자 : 백남채(白南採)
- 시 공 자 : 중국인 기술자
- 규 모 : 지상 3층, 지하 1층(연면적, 2,042.3㎡)
- 구조 및 양식 : 철근콘크리트조, 붉은 벽돌 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1914년 7월 1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경상노회(慶尙老會)에서는 남성정교회(현, 제일교회)의 교세 확장에 따라 교회의 분립을 논의하고, 그 해 12월 30일 남교회(현, 남산교회)의 분립을 결정하였다. 1915년 블루엔(H.M. Bruen) 선교사는 선교회의 보조금 1천원과 교인들의 연보금 1천원 등 약 2천원의 자금으로 현재의 위치인 중구 남산동 941-22의 교회부지를 구입하여, 그 해 7월 18일 건평 50평의 목조단층 교회당을 신축하여 남산교회라 하였다¹⁾.



▲ 1970년대의 모습

교회당 신축 초기의 교인은 200명 정도였으나 1921년에는 교세의 확장으로 교인이 증가되어 공간의 협소함을 느끼고 교회당 동편으로 10평을 증축하여 총 60평을 확보하였다.²⁾ 1927년 11월 6일에는 계속되는 교세의 확장으로 60평의 공간으로서는 증가되는 교인을 수용할 수 없게 되어 교회당 신축을 위한 기성회를 조직하고 3년 안에 새 교회당을 짓기로 결의하였다.³⁾

그리하여 1930년 4월 6일 새 교회당의 신축을 위하여 예배 장소를 동산성서학원(현, 동

1) 남산교회 : 南山教會 70年史, 1988.

2) 남산교회 : 앞책

3) 남산교회 : 앞책

산동 제일교회 자리) 강당으로 옮기고, 그 해 5월 4일 신축 교회당의 정초식을 거행, 1932년 6월 15일에 완공하였다.⁴⁾ 1972년에는 동쪽 정면 우측부에 4각형의 종탑을 건립하고, 좌측부로는 벽면에서 슬라브를 돌출 시켜 온실로 개조하였으며, 2층 예배실내에 있는 원기둥 8개를 제거하여 실내 공간 이용 면적을 넓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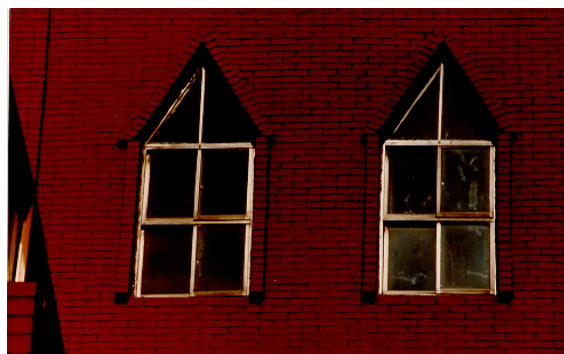
남산교회는 1932년 예수교 장로회 경상노회에서 교세의 확장에 대비하여 남산동 언덕 위에 세운 지상 2층의 예배당으로 1930년 4월에 착공하여 1932년 6월에 완공하였다. 이 건물의 기본설계는 당시 북경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대구에 벽돌공장 [조선요업] 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백남채(白南採)가 했으며, 건물에 사용한 벽돌도 그의 공장에서 생산한 것이라 한다.⁵⁾ 평면은 장방형으로 1층에는 동쪽 주 출입구와 연결하여 계단실, 사무실, 소 예배실, 회의실을 두고, 2층에는 대 예배실, 친교실, 성가대 연습실 등을 배치하였는데 설교대와 제대는 서쪽에 있다.

외관은 정면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에 란세트(Lancet)형 아치창을 균등하게 배치하여 대칭을 이룬 붉은 벽돌조 2층 건물이었으나 1972년 우측에 4각형의 종탑을 세우고 좌측 지붕을 슬라브로 돌출시켜 온실로 개조하고, 1996년에는 2층 일부와 3층을 증축함으로써 원래의 모양과 많이 달라졌다. 2층 박공벽의 가운데는 원형창, 좌,우측 벽 위는 먼류관을 상징하는 여장을 설치하였다.

창문은 란세트(Lancet)형 아치창으로 구성하여 트래서리(Tracery)로 장식하였으며, 창문은 목재 오르내리창이었으나 알루미늄 새시창으로 개조되었으나 전체적인 윤곽은 남아 있다. 현재 이 건물의 1층은 사무실, 회의실, 유치부실, 장년부실 등을 두고, 2층은 예배실과 친교실, 성가대 연습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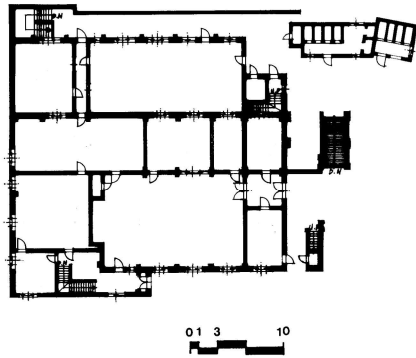
▲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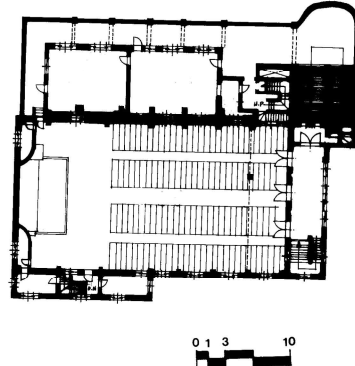
▲ 창문 상세

4) Harry A. Rhodes : 앞책

5) 남산교회 : 앞책



남산교회 1층 평면도



남산교회 2층 평면도

32. 구, 대구역 (대구역)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가 1번지
- 건축년대 : 1913년 건립, 1978년 철거
- 건축유형 : 공공(철도역사)
- 설 계 자 : 탁지부 건축소
- 규 모 : 지상 2층
- 구조 및 양식 : 목조, 르네상스풍, 일·양절충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1913년 12월 일본인 기술자들에 의해 건축된 목조 2층의 르네상스양식에 준하는 일·양절충식(日·洋折衷式, 擬洋風) 건물이다. 이 건물은 당시 지방 철도역으로는 부산, 신의주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 격식을 갖춘 역사(驛舍)로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1978년 12월 철거되고, 현재의 건물이 들어섰다.



▲ 전경

33. 구, 대구공회당 (대구공회당)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 건축년대 : 1931년 건립, 1972년 철거
- 건축유형 : 공공(문화시설)
- 설 계 자 : 笹慶一, 일본인
- 규 모 : 지상 5층
- 구조 및 양식 : 철근콘크리트조. 근대주의 양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1931년 대구부(大邱府)에서 대전기념사업(大戦記念事業)의 일환으로 금정(錦町) 철도역 구내(현, 시민회관)에 건립한 근대적 문화시설이다. 건물의 설계는 조선총독부 기사(技師)였던 笹慶一이 하고, 공사는 대구의 여러 업체들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 전경

이 건물은 외관을 붉은 벽돌로 장식한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로 평면 및 외관구성에서 실용성을 추구한 기능주의 양식의 건물이다.

평면은 장방형(長方形)으로 동쪽 정면 출입구에는 수직선이 강조된 대형 반원아치를 두고, 남쪽의 일부 벽은 유리블록으로 장식하였다. 건물 내부에는 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 집회실과 귀빈실, 식당, 오락실 등과 옥상정원을 두었다. 이 건물은 1972년 9월 현재의 건물을 짓기 위해 철거하였다.

34. 구, 한일극장 (키네마 구락부)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2가 88-22번지
- 건축년대 : 1938년 건립, 1997년 철거
- 건축유형 : 공공(문화시설)
- 설 계 자 : 玉團建築事務所, 일본인 경영
- 시 공 자 : 야시로꾸미(屋代組), 일본인
- 규 모 : 지상 3층, 지하 1층(연면적, 2,037.8㎡)
- 구조 및 양식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표현주의 양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1938년 일본인 경영의 조선흥업주식회사(朝鮮興業株式會社)에서 동성로에 건축한 영화관으로 대구 최초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다. 당시 최신의 구조와 공법을 사용하여 지은 건물로서 외관과 함께 내부공간이 웅장하고, 형태면에서는 서구의 표현주의 양식의 건물이라 하여 상영되는 영화만큼이나 구경거리였다고 한다.

건물의 설계는 일본에 있던 玉團 建築事務所에서 했고, 건축공사는 대구에 근거를 두고 있던 야시로꾸미(屋代組)에서 맡았으며, 재료는 대부분 일본에서 가져온 최신의 것이었다 한다.

해방 후에는 한일기업에서 인수, 한일극장으로 이름을 바꾸어 영화관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뒤편 무대부를 증축하고, 내부 객석의 벽면에 음향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하고는 원형을 잘 보존해 왔으나 1997년 대규모 상가를 조성하기 위해 철거하였다.



▲ 전경

이 건물의 평면구성은 영화관의 일반적 평면형식인 사다리형으로 정면 주 출입구와 홀, 그 양쪽으로 계단실과 복도를 두고 중앙부에 객석과 무대를 배치하였으며, 2층에는 홀과 매점, 객석, 3층과 4층에는 영사실, 기계실 등을 두었다. 외관은 비대칭형으로 정면의 좌측부를 드럼(drum)형 탑으로 구성하고, 외벽에 곡면(曲面)창, 원형창 등의 형태 요소들을 부

가하여 표현주의적 색채를 느끼게 하였다. 벽면은 각형(角形)타일로 마감하였고, 지붕은 슬라브 지붕으로 구성하였는데 지붕의 파라펫부를 처마처럼 구성하였다.



▲ 내부 객석



▲ 계단실

구 한일극장은 서구의 표현주의적 색채를 띤 대구 최초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건축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의 랜드마크적 역할을 수행해온 역사적 건물이었으나 철거되어 아쉽다.

35. 구, 대구경찰서 (대구경찰서)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서문로 1가 1-4번지
- 건축년대 : 1929년 건립, 1984년 철거
- 건축유형 : 관청
- 설계자 : 경상북도 영선계
- 시공자 : 야시로꾸미(屋代組)
- 규모 : 지상 3층
- 구조 및 양식 : 철근콘크리트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대구에는 1893년부터 일본 상인들이 이주해 오기 시작하였으며, 1901년 경부선 철도공사의 착공을 계기로 그 수가 증가되고, 1904년에는 대구 일본인거류민회(大邱 日本人居留民會)가 조직되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⁶⁾.

1905년에는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의 체결과 함께 외교권을 장악하고, 통감부를 설치하게된 일제는 1909년 거류지의 보호와 식민지 전초기지로서 대구경찰서, 통감부 산하기관인 대구이사청 등을 의양풍(擬洋風)⁷⁾으로 건축하였다.

6) 金一鎭 : 대구시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인 근대건축물에 관하여(대구건축, 1987)



▲ 옛 대구경찰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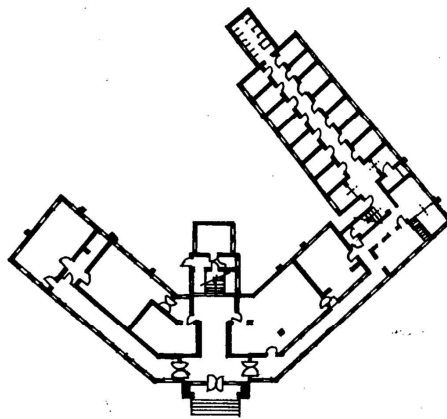


▲ 전경

구 대구경찰서는 일제가 1929년에 의양풍(擬洋風)의 목조 2층 청사를 헐고 그 자리에 새로 건축한 철근 콘크리트조 3층 건물로 해방 후 대구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등으로 사용되어오다 1984년 현재의 청사를 짓기 위해 철거하였다.

건물의 설계는 경상북도 영선계에서 하고, 건축공사는 야시로꾸미(屋代組)에서 하였다. 평면은 山字形으로 정면 중앙에 현관 홀을 두고 좌·우측으로 긴 복도를 설치한 편복도식이다.

외관은 정면 중앙의 현관 포치(Porch)를 중심으로 대칭이며, 벽면은 시멘트 몰탈 마감이다. 주 현관의 포치(Porch) 위에는 창 사이 벽을 돌출시켜 기둥처럼 구성하고, 옥상 파라펫(Parapet)부는 3단 코니스(Cornice)로 장식하여 대칭성과 정면성을 강조하였다.



구 대구경찰서 1층 평면도

7) 석조(石造)나 벽돌조의 르네상스양식을 모방한 일,양절충식(日洋折衷式) 건물로 정면이 좌우대칭을 이루어 엄격함과 정면성을 강조한다.

36. 구, 영남일보사 (한성은행 대구지점)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서문로 1가 71번지
- 건축년대 : 1920년 건립⁸⁾, 1992년 철거
- 건축유형 : 상업(은행)
- 설 계 자 : 나가무라 요시헤이(中村與資平)
- 시 공 자 : 야시로꾸미(屋代組)
- 규 모 : 지상 1층(연면적, 147.84㎡)
- 구조 및 양식 : 벽돌 조적조, 르네상스풍
- 건축연혁 및 현황 :

대구에 은행이 개설된 것은 1905년 6월 일본계 제일은행 부산지점 출장소가 효시(嚆矢)이다. 제일은행은 1906년 8월에 창설된 대구농공은행과 함께 대구 일대의 경제권을 일본인들의 수중에 넣어주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 제일은행은 한국 국고취급사무와 화폐정리사무를 담당하며, 한국은행이 개설될 때까지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대구농공은행은 지방 농공업(農工業)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종래 한성창고주식회사(漢城倉庫株式會社)가 맡고 있던 대일 수출미(對日 輸出米)를 수집하는 특수임무와 수형조합(手形組合)이 맡았던 어음 통제 및 신화(新貨)의 보급이라는 특수임무를 인계 받은 것에 불과 하였다.⁹⁾

이후 한국 수탈을 위한 정지작업이 완료되자 제일은행은 1909년에 창립된 한국은행에 업무를 이양하여 한국은행 대구지점이 되고, 대구농공은행은 1908년 경산농공은행으로 개칭되었다. 1910년에 들어 모든 경제제도가 정돈되자 대구에는 일본계(日本係)의 선남상업은행(1912), 한인계(韓人係)의 대구은행(1913) 등 지방금융기관이 개설되었다.

1920년에 접어들어서는 일제가 문화정치를 가장하여 가일층 수탈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한데다가 제1차 대전에 따르는 경제적 호경기가 대구에까지 영향을 미쳐 지방은행, 금융조합이 신설되고 이어 서울에 본점을 둔 각 은행이 지점을 설치하는 등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¹⁰⁾

구 영남일보사 사옥은 1920년 한성은행 대구지점으로 건립된 건물로 대구금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건물의 설계는 일본인 나가무라 요시헤이(中村與資平)가 하고¹¹⁾, 건축공사는 야시로꾸미(屋代組)에서 맡았다.

한성은행 대구지점은 1914년 경상은행을 흡수하여 영업을 계속해 오다 해방 후 영남일보사에 매각(1947, 8)되어 사옥으로 사용되었으나 1980년 영남일보사가 대구매일신문사와 통합되면서 중앙일보 광고지국이 되었다가 1992년 철거되었다.

이 건물은 서문로(西門路)에 면하여 북향 배치된 벽돌조 단층 건물로 현관 포치를 중심

8) 川端貢, 富井正憲 : 앞책

9) 대구시 : 대구시사, 2권

10) 대구시 : 앞책

11) 尹一柱 : 한국양식건축 80년사, 1966.

으로 대청을 이루고 있으며, 팬사드 지붕에 석면 슬레이트를 이었고, 현관부의 코브 볼트(Cove Vault)에는 동판(銅版)을 이었다.



▲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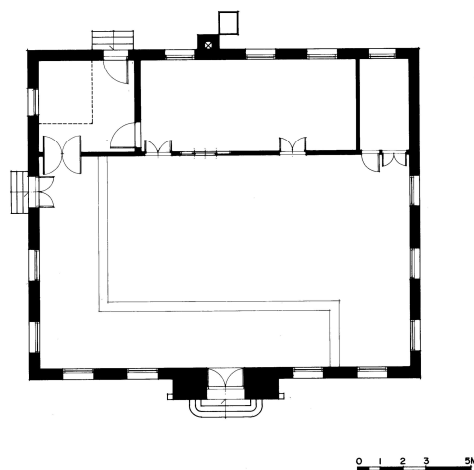


▲ 포치부

평면은 정방형으로 정면 중앙에 위치한 현관 홀과 직접 연결하여 영업실을 두고, 그 뒤쪽으로 지점장실, 금고실 등을 배치하였다. 외관은 주 현관을 중심으로 양쪽에 수직탑을 구성하고, 클로이스트 볼트(Cloister Vault)형 지붕을 덮었다. 현관의 출입문은 목재 쌍여닫이문을 달았고, 그 좌우에는 한 쌍의 오르내리창을 설치하였는데 창상부(上部)와 처마부에는 원형 장식물을 붙여 대칭성과 수직성을 강조하였다.

외벽은 화강석 기초 위에 벽돌을 쌓아 몰탈로 마감하였으며, 벽면에는 수직으로 긴 큰 창을 내고, 창인방 위에는 원형 장식물을 붙였다. 내부 바닥은 목재 장마루판, 벽은 회반죽으로 마감하였으며, 하부벽(下部壁)은 타일을 붙였다.

천장은 목재 줄대반자 위에 회반죽을 발라 마감하였는데 천정의 중앙부는 井자형으로 구획하고, 갓 둘레를 물딩으로 오목하게 장식하였다. 내부의 창과 문, 벽 윗 부분에는 띠 모양과 초롱꽃 문양을 넣어 장식하였다.



구 한성은행 대구지점 평면도

37. 부산비닐 상사 (茂英堂)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서문로 1가 58번지
- 건축년대 : 1937년 건립
- 건축유형 : 상업
- 규 모 : 지상 5층, 지하 1층(연면적, 857.1㎡)
- 구조 및 양식 : 철근 콘크리트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부산비닐상회는 1937년 일본 상권(商圈)의 침투에 자극을 받은 한국인 상업자본가 이근무(李根茂)가 일본 상권에 대항하여 서문로에 세운 무영당이란 일반상점 건물이다.

이근무는 현재의 건물이 있는 자리에서 개성 출신의 여 종업원을 고용하여 “茂英堂 洋品店”을 경영하였는데 여 종업원이 뛰어난 상술(商術)을 발휘하여 일본인 경영의 미나카이(三井), 이비시야 백화점들과 경쟁해서 많은 돈을 벌어 현재의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무영당”이라는 상호(商號)가 당시 연합국이던 영국의 번성을 뜻한다는 이유로 일본 형사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다고 한다.



▲ 전경

이 건물은 1946년에는 동흥상공주식회사의 소유가 되었고 1960년에는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이 관리하다가 1969년 임재진, 양재원 2인이 인수하여 부산비닐상회로 사용해 왔는데 최근 건물 소유권 문제로 현재 건물의 1/2을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

무영당은 서문로에 면하여 북향 배치된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로 지붕은 슬라브로 구성하였다.

평면은 정방형으로 정면 중앙에 주 출입구를 두고, 양쪽에 쇼윈도우를 설치하였으며, 각 층마다 간막이 벽으로 실을 구획하였다. 외관은 철근콘크리트 기둥 사이에 붉은 벽돌을 쌓고 그 위에 타일을 붙여 마감하였는데 정면은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었으나 4층과 5층은 각각 옥탑(屋塔과) 계단 탑으로 구성하여 변형을 이루었다.

정면은 창 사이 벽을 들여쌓기하여 기둥을 돌출 시키고 창의 위에는 가로로 긴 장식판을 붙였으며, 1층 차양부분과 3·4층의 파라펫(Parapet)부에는 섬세한 장식화판, 5층 벽면에는 2개의 원형창을 설치하여 건물의 수평성과 정면성을 강조하였다. 1층 현관에는 화강석 문지방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실을 두고, 목재 고창이 설치된 출입문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창은 평 아치형으로 미서기창을 설치하였으며, 창과 창틀의 2·3층은 철재, 4·5층은 목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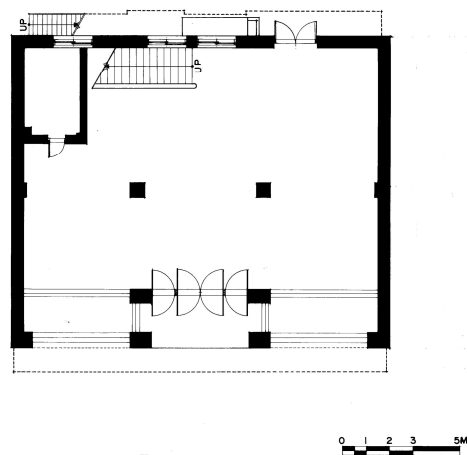
내부 바닥은 슬라브, 벽은 붉은 벽돌 위 몰탈 마감이고, 천장은 건물 규모에 비해 단면이 비교적 큰 보가 촘촘히 배치되어 있으며, 보의 양끝에는 헌치(Haunch)를 붙이고 각 모서리를 몰딩하였다. 계단은 철근콘크리트조로 난간과 바닥은 인조석 물갈기, 천정은 회반죽 마감이다.



▲ 정면 출입구



▲ 내부 천정



부산비닐 상사 1층 평면도

38. 제일교회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50번지
- 건축년대 : 1933년 건립
- 건축유형 : 종교(교회)
- 설 계 자 : 建平社
- 규 모 : 지상 2층(연면적, 1,412.4㎡)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고딕(Gothic)풍
- 건축연혁 및 현황 :

개신교(改新敎)의 미국인 선교사들이 대구에서 본격적으로 선교활동을 시작한 것은 1897년 아담스(J.E Adams)선교사가 경북 최초의 교회인 남성정교회(南城町敎會)를 창립하면서 부터였다. 남성정교회는 당시 대구 남성 근처에 있던 신도 정완식(鄭完植)의 집 [현, 제일교회 자리] 와가(瓦家) 4채를 교회당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경북 최초의 기독교 교회인 남성정교회가 창립되었다.¹²⁾

또한 이곳에 있었던 초가에서는 1989년 의사인 존슨(Johnson) 선교사가 대구 최초의 서양 의학병원이며 동산교회의 전신인 제중원(濟衆院)을 세워 서양 의술을 소개하였고, 1900년에는 아담스(Adams) 선교사가 대구 최초의 근대학교인 회도학교(喜道學校)를 개교한데 이어 마르타(Mrs Martha), 블루엔(S.Bruen)이 대남학교와 신명학교를 설립한 곳이기도 하다. 그 후 교세(敎勢)가 왕성해지면서 큰 예배당의 필요성을 느낀 신자들이 1908년 한국인 목수들을 동원하여 기와집 4채를 헐고 그 자리에 아연죽 단층의 교회당, 남성정 교회를 신축하였다.

이 건물은 한국 재래양식과 그 동안 유입된 서구건축을 본 딴 한·양 절충형으로 주 구조체인 기둥은 목조로 하고, 기둥사이에는 토벽(土壁)으로 하여 회로 마감하였으며, 지붕은 한식(韓式) 합각지붕 형태에 함석을 이었다. 외관은 정면 중앙의 주 출입구를 겸한 종탑(鐘塔)을 중심으로 대칭이며, 벽면은 반원 아치(arch), 평아치, 돌림띠(Cornice) 등으로 꾸며, 지붕 형태에서는 토착적인 요소가 강하게 느껴지나, 벽면구성은 서구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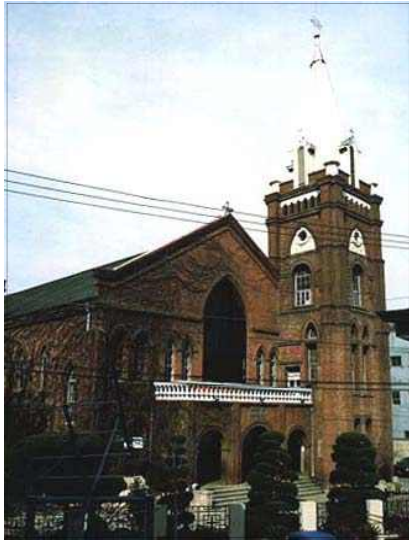
남성정교회는 1918년에 접어들면서 시작된 자치파동으로 창립 이래 최대의 시련을 겪게 되었다. 최재화(崔載華) 목사는 자치파동의 종식기인 1931년 4월 20일에 부임하여 피폐된 교회를 재건하고, 교회의 정신을 쇄신하기 위하여 1932년 1월 23일 당 회원과 제 직원 연석회의에서 총 공사비 3만원으로 새 예배당을 신축할 것을 결의하고, 1933년 9월 신도들의 헌금(獻金)과 최재화 목사가 지방교회에서 모금한 헌금 1만 5천원으로 고딕(Gothic)식의 벽돌조 2층 교회당을 신축하고, 제일교회로 개명(改名)하였다.¹³⁾

건물의 설계와 공사는 평양의 건평사(建坪社)에서 맡았고, 공사 감독은 김종수씨가 담당

12) 이상근 : 앞책

13) 이상근 : 앞책

하였다고 한다. 그 후 1937년에 이 건물은 이주열(李主悅) 권사가 회사한 수성들의 논 10두락으로 벽돌조 5층 [높이 33m] 연 13평의 종탑부를 증축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하였다.



▲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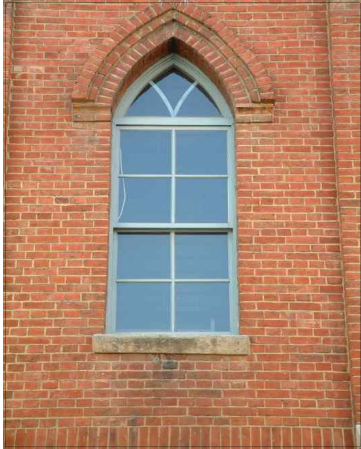
▲ 배면

현 제일교회는 1969년에 내부 중수공사를 하였고, 1981년 6월 성전(聖殿)이 협소하여 건물의 뒤편 [북쪽] 으로 이어 붙여 156평을 증축하여 교회당으로 사용해오다 1955년 4월 불의의 화재로 내부가 많이 훼손되었다. 그 후 (1997, 7 ~ 1998, 4)에는 교회당 뒤편으로 소방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증축부분을 철거하고, 지붕과 내부를 보수하여 현재 교회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구제일교회는 남성로에 있는 약전골목에 면하여 남향 배치된 붉은 벽돌조 2층의 고딕(Gothic)양식 건물이다. 평면은 정면 우측에 종탑을 배치한 장방형의 일랑식(一廊式)으로 정면에 포치(Porch)와 연결되는 나텍스(Narthex)를 두었다.

외관은 정면 우측에 종탑을 두고, 그 좌측에 3개의 반원 아치로 구성된 현관 포치(Porch)를 두었는데 포치부의 2층에는 트레서리(Tracery)로 장식한 대형 포인티드 아치(Pointed Arch)창을 중심으로 좌, 우에 각각 2쌍의 란세트 아치(Lancet Arch)창을 배치하여 대칭을 이루었다.

종탑은 네 귀에 각각 2개씩의 버트레스(Buttress)를 세우고, 그 위에 피나클(Pinnacle)을 설치하였으며, 각 층 사이에는 벽돌 내쌓기로 수평띠를 돌리고 그 밑에 벽돌을 리아스식[齒形] 쌓기 하였다. 종탑의 각 층 사이에는 6가지 모양의 창을 설치하였는데 1층은 반원 아치창, 2층은 포인티드 아치(Pointed Arch)창, 3층은 창선대를 리아스식[齒形] 쌓기 한 반원 아치창, 4층은 포인티드 아치(Pointed Arch) 창 가운데 원형 창을 뚫었고, 5층은 반원 아치 창을 연속시켜 아케이드(Arcade)처럼 구성하였으며, 종탑 상부는 8각형의 첨탑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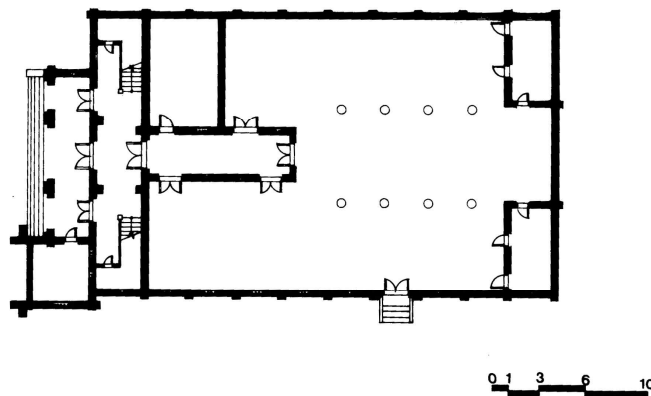
▲ 창문 상세



▲ 예배실

건물의 측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버트레스(Buttress)를 설치하고, 그 사이에 상, 하로 창을 배열하였는데 1층은 반원 아치, 2층은 포인티드 아치(Pointed Arch)창을 배열하였으며, 처마부에는 벽돌을 내쌓기하여 처마 돌림띠를 장식하였다. 내부 바닥은 목재 장마루판, 벽면은 회반죽 마감이었으며, 천장은 합판을 붙이고, 그 위에 각재를 井자살 모양으로 붙여 마감하였다.

이 건물은 벽돌 조적조 이기는 하나 외관 구성에서 고딕(Gothic)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각부 비례와 조적 수법 등이 정교하여 대구지역 근대건축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며, 교회가 자리한 이곳은 대구·경북 최초의 기독교회인 남성정교회가 창설되어 선교사들이 근대적 의료활동과 교육을 전개하였던 장소로 더 한층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제일교회 1층 평면도

39. 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朝一湯)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30-1번지
- 건축년대 : 1924년 건립
- 건축유형 : 상업(근린생활시설)
- 설 계 자 : 隅川, 日本人
- 시 공 자 : 야시로꾸미(屋代組)
- 규 모 : 지상 2층(연면적, 254.16㎡)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조일탕(朝一湯)은 1920년경 일본인이 공중목욕탕으로 건축한 건물로서 설계는 일본인 隅川이 하고, 건축 공사는 야시로꾸미(屋代組)에서 맡았으며 당시 원정통〔현, 북성로〕 일대의 상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업(盛業)하였다 한다.

해방 후에는 한국인 민씨가 인수하여 1층은 목욕탕, 2층은 주점(酒店)으로 영업해 왔으나 1965년 공중목욕탕으로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할 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가 밀집 상업지역으로 변함에 따라 상품 창고로 용도를 바꾸었다.

1977년 말에는 벽산 대구(주)에서 인수하여 사무실, 상품 창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를 크게 개조하고, 1990년에는 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구조체는 그대로 두고 정면 창호, 1층 중앙부 현관 포치 부설(附設), 외벽의 드라이비트 마감 등으로 외관을 크게 훼손하여 건립 당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되었다.



▲ 변형 전 모습



▲ 변형 후 모습

이 건물은 서쪽 도로에 면한 벽돌조 2층 건물로 정면의 2층에는 세로로 긴 창을 설치하고, 우측부는 벽면보다 돌출 시켜 사각탑 [Turret] 처럼 구성하였다. 평면은 장방형으로 1층은 목욕탕과 보일러실, 2층은 살림집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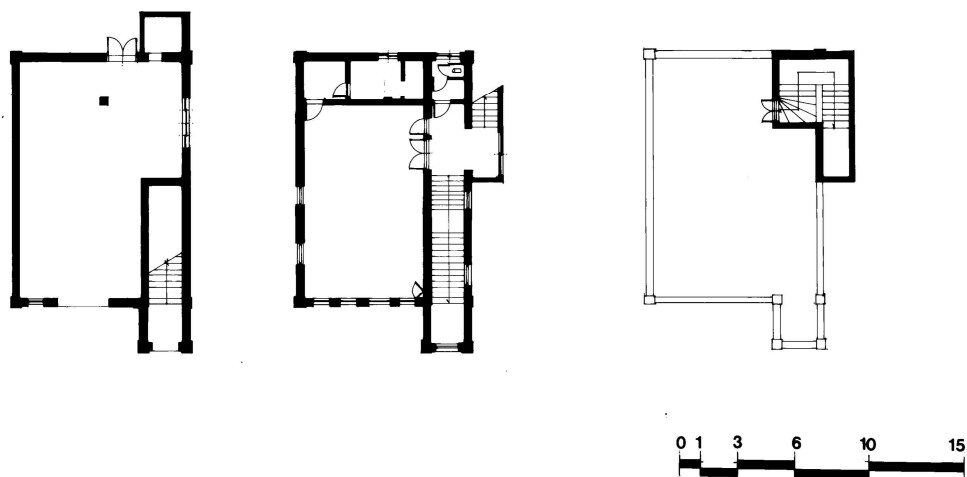
▲ 창문 상세



▲ 2층 내부

외관은 화강석 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고, 지붕은 슬라브지붕으로 구성하였는데 창문의 사이 벽은 한 단 들여쌓기하여 벽면을 수직분할 하고, 창 상, 하 인방을 인조석 깎아내기로 마감하였다. 1층 목욕탕의 바닥은 타일, 탈의실은 장마루판 이고, 2층 바닥은 시멘트 몰탈, 벽은 타일과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수직 창에 의한 벽의 분할과 파라펫(Parapet)의 장식적 구성 등 외관 구성에서 근대적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일탕은 대구 최초의 공중 목욕탕으로 역사적, 건축사적 가치를 지닌 건물이었으나 여러 차례의 개·보수로 원형을 크게 상실하였다.



조일탕 1층, 2층, 욕탑층 평면도

40. 구, 미나카이백화점 (三中井)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3
- 건축년대 : 1934년 건립, 1984년 철거
- 건축유형 : 상업(백화점)
- 규 모 : 지상 5층, 지하 1층(연면적, 2,316.84㎡)
- 구조 및 양식 : 철근콘크리트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미나카이(三中井) 백화점은 1905년 대구부(大邱府) 서문 밖에서 한국인과 일본인들을 상대로 잡화상을 경영해 오던 4명의 일본인(中江五郎平, 中村富次郎, 中村平四郎, 奥井和平)이 대구부민(大邱府民)과 지방 상인들에게 일용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건립한 공동출자회사였다. 이 회사는 1930년대 후반 본점을 서울로 옮겨 전국 각지에 지점을 설치하는 한편 만주까지 그들의 상권(商圈)을 확장하였다.

당시 이 건물은 동성정(東城町, 東城路)의 이비시야 백화점과 함께 대구부내의 최고층 건물로써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고 있었으며, 대구부민(大邱府民)들이 이 엘리베이터를 타 보기 위해 연일 초만원을 이루었다고 한다¹⁴⁾.



▲ 전경



▲ 구조부 상세

해방 후에는 미군 및 여러 군사기관에서 사용해오다. 1969년 4월 국유재산(國有財産)으로 이관되어 서대구 세무서에서 사용하였고, 1984년 10월에는 대우그룹에서 인수하여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철거하였다.

미나카이 백화점은 대구의 일본 상인들이 1934년에 북성정(北城町, 北城路)에 건립한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이다. 평면은 장방형이며, 정면 주 출입구의 좌, 우측에 쇼윈도우를

14) 이성해 씨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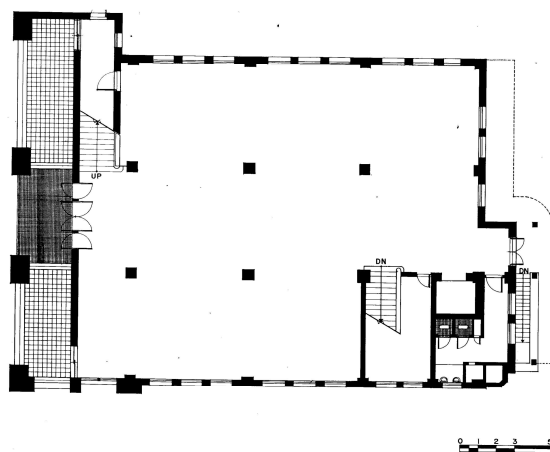
설치하고, 우측 뒤편에는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을 두었다.

외관은 철근콘크리트조의 기둥 사이에 붉은 벽돌을 쌓아 타일을 붙였고, 지붕은 슬라브 지붕으로 구성하였다. 벽면은 창 사이 벽을 들여쌓기 하여 기둥을 돌출 시키고 그 사이에 창을 설치함으로써 1층 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며, 4층의 창문 위에는 장식 화판, 파라펫(Parapet)부에는 테라코타 장식물을 붙이고, 5층 벽면에는 그들의 상표(商標)을 넣어 장식하였다. 창은 평 아치형으로 1층과 5층은 목재 오르내리창, 2층에서 4층까지는 철재여닫이창, 5층의 기계실에는 철재 미들창을 설치하였다.

내부 바닥은, 1층은 인조석 물갈기, 그 외의 층은 슬라브 위에 목재 장마루판, 벽은 몰탈, 천장은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다. 건물 설비는 지하에 보일러실,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내부에는 분전반, 소화전, 방열기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옥상에는 물탱크, 기계실, 피뢰침, 굴뚝, 옥상 파라펫 위 보호철망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 창문부 상세



구 미나카이백화점 1층 평면도

41. 광명페인트사 (상점병용 주택)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 건축년대 : 1937년
- 건축유형 : 상업(상점)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및 양식 : 목골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1920년대 이후 일본자본의 한국 진출이 활발해지고, 일제가 경제수탈정책을 강화해 나감에 따라 대구역과 서문시장을 연결하는 주요 가로변에는 일용품을 도매하는 일반 상설점포들이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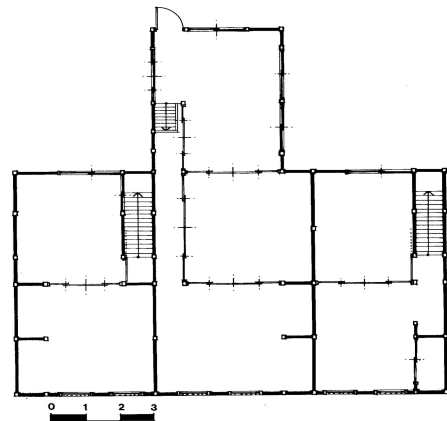
당시 대구의 일본 상인들이 건립한 상점 병용주택들은 1층에 상점을 두고, 2층에 살림집을 구성한 형과, 가로에 면하여 앞쪽에 점포를 두고, 그 뒤편으로 살림집을 배치한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1층에 점포, 2층에 주거를 배치한 상점병용주택들은 대부분 2-3호의 연립형이다.

이들 건물은 대부분 일본식 목조 2층으로 모임지붕에 일식기와를 이었고, 벽체는 심벽(心壁)에 시멘트 몰탈과 가로판벽으로 마감하였다.

평면은 가로에 면한 앞쪽이 좁고, 뒤쪽으로 긴 장방형이다. 외관은 불임기둥, 수평돌림띠, 파라펫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창문은 목재 오르내리창을 달았다.



▲ 정면



광명페인트사 2층 평면도

42. 태성주방 (九星運)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2가 28-1번지
- 건축년대 : 1934년경
- 건축유형 : 공공(운송시설)
- 규 모 : 지상 2층(연면적, 842.36㎡)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태성주방기기 백화점은 일제가 1934년 3월 대구지역의 물류수송을 위해 대구역 앞 동서간 도로변에 건립한 구성운(九星運)으로 1960년 3월 대한통운주식회사에서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해 오다 1993년 3월 태성주방기기 백화점에서 1층은 소매점, 2층은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하고 있다

이 건물은 북측 도로에 면하여 북향 배치된 붉은 벽돌조 2층 건물로 정면 출입구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었다. 평면은 동서로 긴 장방형으로 사무실과 창고 등을 두었다. 외관은 콘크리트 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하고, 정면 출입구를 중심으로 수직창을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였는데 창 의 상, 하 인방을 상호 연결하여 돌림띠(Cornice)처럼 구성하였다. 이 건물은 정면 출입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원형을 간직하고 있으나 역사적 건축사적 측면에서의 특징은 찾아 볼 수 없다.



▲ 전경



▲ 창문 상세

43. 대원석유직영주유소 (三國商會)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2가 27번지
- 건축년대 : 1938년 건립
- 건축유형 : 상업(상점)
- 설 계 자 : 隅川, 일본인

- 규 모 : 지상 2층(연면적, 260㎡)
- 구조 및 양식 : 죽근(竹筋) 콘크리트조, 표현주의양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대원석유주식회사 건물은 1938년 일본 상인이 석탄상회인 삼국상회로 건립한 콘크리트조의 3층 건물로 전 시기의 다른 건물들에 비해 외관을 단순하게 처리한 근대적 건물이다.

이 건물은 1976년 4월부터 현재까지 대원석유주식회사에서 사무실로 사용해 오고 있다. 1920년대 후반부터 대구에는 일본내의 상업자본이 유입되면서 대규모 백화점을 비롯한 중소상설점포들이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제가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화정책을 강화해 나감에 따라 민간 건축에서는 철근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건물에는 철근대신 대나무를 사용한 죽근(竹筋)콘크리트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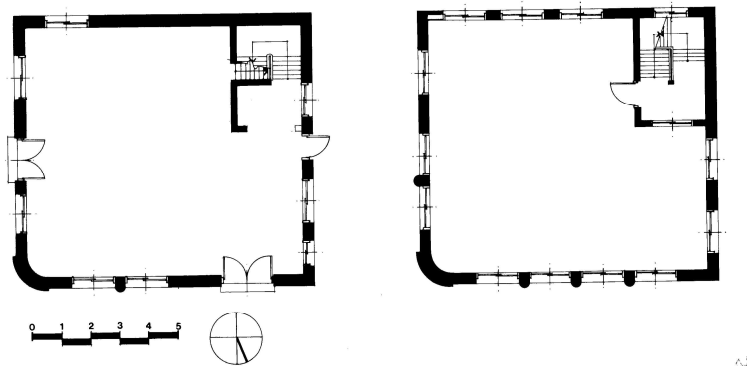


▲ 전경



▲ 우측부

이 건물의 평면은 정방형으로 주 출입구를 2곳에 설치하였으며, 각 출입구 위의 처마는 약간 돌출 시켰으며, 벽면에는 장방형에 가까운 창을 설치하여 단순하게 처리하는 대신 정면부의 모서리벽과 현관 위의 돌출처마를 곡면으로 장식하고, 옥탑부는 원형창을 설치하였고, 지붕은 슬라브로 구성하였다.



대원석유직영주유소 1, 2층 평면도

44. 김현석 주택 (기무라 住宅)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2가 30번지
- 건축년대 : 1934년경
- 건축유형 : 주택
- 규모 : 지상 2층(연면적, 329.07㎡)
- 구조 및 양식 : 목조, 콘크리트조, 일, 양절충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김현석 주택은 일본인 기무라(木村)가 1934년에 대구보천병원으로 지은 목조와 콘크리트조의 일·양절충식 건물로 1970년 3월 손월생이 거주해 왔으나, 2000년 9월 김현석이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이 건물은 전(前) 시기의 일·양절충식(日·洋折衷式)의 관사나 주거용 건물들과는 달리 목조와 콘크리트조를 혼용하여 외관을 단순하게 처리하였으며, 지붕은 일본풍을 느끼게 한다.

이 건물은 동측 도로에 면한 대지의 동쪽에 대문을 두어 현관과 연결하고, 동쪽과 북쪽 정면에 넓은 일본식 정원을 꾸몄다. 평면은 요철(凹凸)이 많은 부정형(不定形)이며, 외관은 동쪽에 콘크리트조의 현관 포치를 두고 높이가 서로 다른 여러 단의 박공형 지붕에 일식(日式)기와를 이었다.

벽체는, 하부벽은 인조석, 상부벽은 시멘트 뿔칠로 마감하였으며, 지붕은 건립당시의 모습대로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현 소유주는 이 건물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정면부



▲ 현관부

45. (주) 엘지상사 (이비시아 백화점)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1가 34번지
- 건축년대 : 1932년 건립
- 건축유형 : 상업(백화점)
- 규 모 : 지상 4층(연면적, 1,617㎡)
- 구조 및 양식 : 철근콘크리트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대구는 조선시대 관찰사(觀察使)가 주재(駐在)하던 조선 굴지의 대도읍(大都邑)이었던 만큼 일찍부터 정기시장(定期市場)이 크게 발달하는 한편 상설점포도 뜸뜸이 개설을 보게 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 후부터는 일본인 내주자(來住者)가 급증하게 되고 대구가 종전의 정치 도시에서 농산물을 집산(集散)하는 상업도시로 변모함에 따라 부민(府民)들에게 생필품(生必品)을 공급하는 새로운 상설점포가 급증하여 대구의 상업조직은 구태(舊態)를 일신(一新)하게 되었다.¹⁾

당시의 상가(商街) 형성은 상설점포 중에서 일본인 경영의 잡화상이 중앙통(중앙로), 동성정(동성로), 원정(북성로), 본정(서문로)에 자리잡는 한편 지방 소매상을 상대로 하는 일용품 도매상이 서문시장과 거리가 가까운 시장정(동산동 일부), 본정(서문로), 원정(북성로) 일대(一帶)에 밀집하여 당시 전국 최대의 규모를 가졌던 서문시장을 출입하는 행상이나 지방 소매상을 흡수하기에 알맞는 위치에 있었다.

한편 한국인 경영의 상설점포는 주로 본정(서문로), 경정(종로)에 자리잡아 한국인 전용의 포목을 비롯하여 잡화를 취급하고 있었다.



▲ 1980년대의 모습



▲ 2001년의 변형된 모습

이비시아 백화점은 1932년 대구의 일본인 상업자본가(商業資本家)가 대구부민(大邱府民)과 지방 상인들에게 일용품을 공급하기 위해 건립한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로 당시 대구

1) 대구시 : 전게서

에서는 최고층의 근대적 건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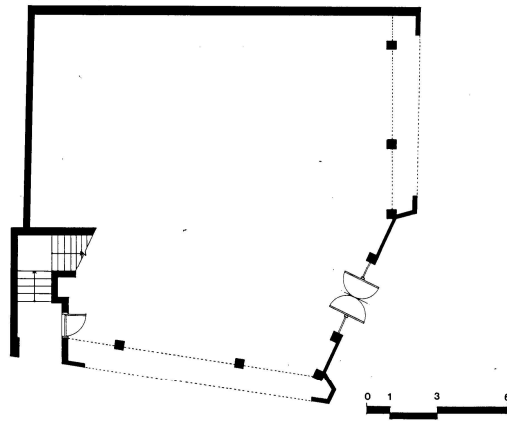
1945년 해방 후에는 대구시에서 인수하여 숙소로 개조하였고, 1950년 6.25때는 한국군에 징발되어 헌병대 사령부가 되었다. 1961년에는 백영진씨가 대구시로부터 불하(拂下) 받아 점포로 사용해왔으나²⁾ 근년 엘지상사가 인수하여 의류판매장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비시야 백화점은 대구역의 맞은편 동성로와 중앙로에서 동아백화점으로 이어지는 동·서간 도로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동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평면은 여러 차례 개조되어 원형을 알 수 없으나 좌측면에 계단실을 두고, 각층은 판매장(販賣場)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외관은 남측 정면을 곡면(曲面)으로 오목하게 하고 양 단부(段部)는 기둥처럼 약간 돌출시켜 대칭성과 정면성을 강조하였고, 벽면은 창 사이 벽을 벽면에 붙여 기둥처럼 세웠으며, 각 기둥의 표면은 플루팅(fluting)으로 장식하여 수직선을 강조하였는데 양 측면의 창 사이 벽도 동일한 방법으로 꾸몄다.

창문은 평아치형에 철재 오르내리창을 설치하였으며, 3, 4층의 창문 옷인방에는 꽃잎 모양을 양각한 반원형의 장식판을 붙였다. 파리펫(Parapet)의 상단(上段)은 몰딩(moulding)을 두어 수평돌림띠(cornice)처럼 꾸몄고, 그 위에는 철 파이프를 난간을 설치하였다. 외부 바닥은 인조석 물갈기이고, 벽은 벽돌 위에 회반죽을 발라 마감하였으며, 천장은 회를 발라 마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은 대구 최초의 근대 백화점으로 건축사적, 기념적 가치를 지닌 건물이었으나 원형(原型)을 찾아볼 수 없게 변형되어 건축물의 가치를 잃고있다.



구 이비시야 백화점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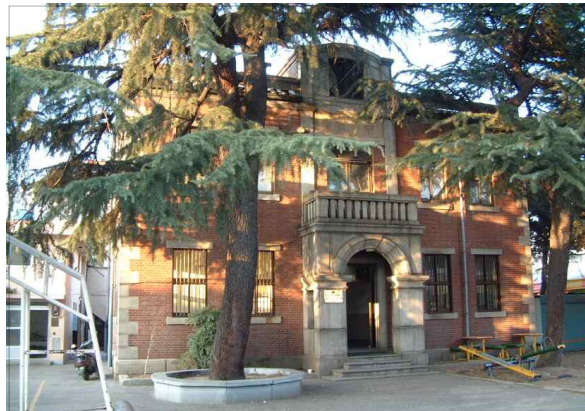
2) 강성옥씨 증언(대구 명지건축소장)

46. 대구화교 소학교 (徐炳國住宅)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 2가 31번지
- 건축년대 : 1925년경 건립
- 건축유형 : 주택
- 설계자 : 모문금, 중국인
- 시공자 : 중국인 기술자
- 규모 : 지상 2층(연면적, 230㎡)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일·양절충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대구화교소학교는 1925년경 대구의 서 부자(徐 富者)로 알려진 서병국(徐炳國)이 지은 그의 살림집으로³⁾, 1949년에 대구화교협회에서 인수하여 지금까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 집의 설계와 시공은 대구의 종교계통 건물을 주로 맡아 지어오던 중국인 모문금(募文錦)이 하였다. 평면은 장방형으로 정면 주 출입구와 연결되는 중복도의 양쪽에 각 실을 배치하였는데 계단실은 2층의 다락방까지 이어진다. 외관은 정면부의 현관 포치(porch)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어 남향 배치되어 있다.



▲ 정면부

벽체는 화강석 다듬돌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구성하고, 모임지붕에 기와를 이었는데 화강석 다듬돌의 벽면 모서리부 컷돌쌓기(Quin)와 돌림띠(Cornice) 구성, 현관 포치부의 기둥 장식과 컷돌(Key Ston)을 끼운 아치쌓기 수법 등이 특이하다.

창문은 상, 하 인방에 화강석 다듬돌 설치한 평아치형으로 목재 오르내리창을 설치하였다. 내부의 바닥은 몰탈 마감이고, 천장은 콘크리트 보를 격자형으로 설치하여 몰딩(Moulding)으로 장식하였다. 이 집은 평면과 외관구성이 특이하고, 지금까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어 건축사적, 문화재적 가치를 담고 있는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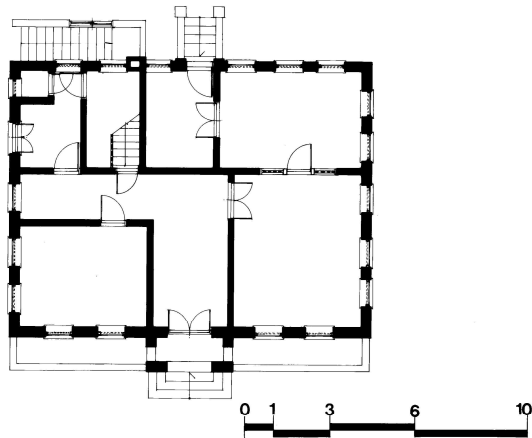
3) 대구화교협회, 형성문씨 증언



▲ 주 출입구 포치부



▲ 창문부 상세



대구화교 소학교 1층 평면도

47. 대구우편국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35번지
- 건축년대 : 1912년 건립, 1974년 철거
- 건축유형 : 공공(우체국)
- 구조 및 양식 : 목조, 일·양절충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구 대구우편국(大邱郵便局)은 1912년 탁지부 건축소에서 서문로에 인접하여 건립한 르네상스풍의 목조 2층 일·양절충형(日·洋折衷形) 건물이었다.

정면 중앙의 현관 포치(Porch)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이고, 정면성과 수평선을 강조하고

있으며, 벽면은 비늘판벽으로 마감하였다.

이 건물은 1974년 현재의 건물을 짓기 위해 철거하였다.



▲ 전경

48. 구, 서울신탁은행 대구지점(조선은행 대구지점)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58번지
- 건축년대 : 1920년 건립, 1990년 철거
- 건축유형 : 상업(은행)
- 설 계 자 : 나까무라 요시헤이(中村興資平)
- 규 모 : 지상 2층(연면적, 1,356.4㎡)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르네상스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1910년 일제가 부심(腐心)했던 화폐제(貨幣制)가 통일되고 1918년 6월에는 토지조사사업도 완료되는 동시에 토지의 자금화(資金化)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의 기초가 확립되어 농촌이 상품경제의 굴레 속에 말려 들어가게 되었다.⁴⁾

1919년 3.1운동 후 일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력하게 된 한국민(韓國民)에 대해서 더 이상 무단정치를 계속하여 민심을 무의미하게 동요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고, 한편 3.1 운동을 계기로 세계 여론을 두려워한 나머지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의 일대 전환을 행하게 되었다.⁵⁾

1920년에 접어들면서 일제는 종전의 무단정치를 통한 수탈방법을 버리고 문화정치를 강조하여 가일층 수탈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한데다가 제1차 세계대전에 따르는

4) 대구시 : 앞책

5) 강만길 :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6

경제적 호경기가 대구에도 영향을 미쳐 지방은행이나 금융조합이 잇달아 신설되거나 서울에 본점을 갖는 각 은행이 지점을 설치하게 되었다.

대구에 있어서 은행의 개설은 1905년 6월 일본계 제일은행 부산지점 출장소(현, 서울신탁은행 자리)가 그 효시다. 다음해 1906년 8월 대구농공은행이 창립되어 이들 두 은행은 대구 일대의 경제권을 일본인들의 수중에 넣어주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제일은행은 한국 국고취급사무와 화폐정리사무를 담당하였고 한국은행이 설치될 때까지 중앙은행으로서 구실을 하였다. 대구농공은행은 지방 농공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실은 종래 한성창고주식회사가 맡고 있던 대일 수출미(輸出米)를 수집하는 특수임무와 수형조합(手形組合)이 맡았던 어음의 통제 및 신화(新貨)의 보급이라는 특수임무를 인계 받은 것에 불과했다.⁶⁾

이와 같이 설립 당시부터 국책은행의 성격을 띠고 발족한 양 은행은 그 후 한국 수탈을 위한 정지작업이 완료되자 1909년 제일은행은 한국은행이 창립됨으로써 이들 은행에 완전히 업무를 이양하여 명실공히 중앙은행 대구지점으로 되었다. 1908년 대구농공은행은 경산농공은행으로 개칭되고, 1918년에는 조선식산은행이 설치됨에 따라 지방금융기관이 개설되었다.

1912년 9월 일본인계의 선남상업은행이 개업하였다가 그 명칭을 이듬해에 선남은행으로 변경하였으며 한인계(韓人系)로는 대구은행이 창립되어 1913년 7월에 개업하였다. 이어 1920년 2월에는 한성은행이 대구지점을 설치하였고 그 해 5월에는 경일은행, 8월에는 경상공립은행이 개업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에 따른 호경기가 활기를 잃게 되자 지방 군소은행(群小銀行), 특히 한인계(韓人系) 은행이 타격을 입게되어 각 은행간의 통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28년 대구은행이 경남은행과 합동하여 경상합동은행으로, 1930년 경상공립은행(慶尙公立銀行)이 경일은행으로, 1933년 경상은행이 한성은행에, 대구상공은행이 선남상업은행에 흡수됨에 따라 대구의 은행 정비는 일단락을 보게 되었다.

1905년 대구에 설치되었던 제일은행 부산지점 출장소는 1909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창립됨으로써 그 업무를 한국은행에 이양하였으며, 그 해 대구에는 한국은행 대구지점이 개설되었고, 1911년에는 조선은행 대구지점으로 개칭되었다.

조선은행 대구지점은 1920년 일제가 중앙로에 건립한 르네상스풍의 벽돌조 2층 건물이다. 이 건물의 설계는 일본인 中村興資平이 하고, 건축공사는 대구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屋代組에서 맡았다고 한다.

해방 후 한국신탁은행에 이어 1976년 8월 서울신탁은행에서 사용해 오다가 1990년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철거하였다. 이 건물은 벽돌조 2층에 변형 맨사드형 지붕을 이었으며, 중앙로에 면하여 동향 배치되었다.

6) 대구시 : 앞책



▲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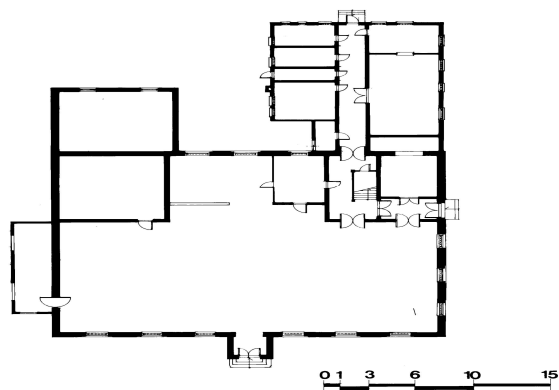
▲ 2층 내부

평면은 동서(東西)로 약간 긴 장방형으로 1층에는 영업장과 사무실·금고실, 2층에는 회의실과 사무실 등을 배치하였다.

외관은 정면 중앙의 현관 포치(Porch)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었으며, 외벽은 문양을 넣은 화강석 다듬돌 쌓기로 하부벽(下部壁)을 구성하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 타일을 붙였으며, 벽면 모서리와 창 사이 벽은 기둥 모양으로 꾸몄다. 창문은 평아치형에 오르내리창을 설치하였고, 기둥보다 들여쌓은 층 사이 벽에는 3단으로 몰딩(Moulding)된 오목한 면을 만들고 그 위쪽에 장식판을 붙였다. 처마에는 동판(銅版)으로 2단 몰딩을 하여 돌림띠(Cornice)를 구성하였으며, 정면 중앙부의 지붕에는 도머(Domer)창을 설치하고 동판(銅版)으로 돌림띠(Cornice)처럼 장식하였다. 내부의 바닥은 인조석 물갈기, 벽은 회벽 마감인데 계단실은 몰탈 위에 수성페인트를 발라 마감하였다.



▲ 주 출입구 포치



구 조선은행 대구지점 1층 평면도

49. 장기신용은행 대구지점 (대구금융조합)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5번지
- 건축년대 : 1925년 건립
- 건축유형 : 상업(은행)
- 설 계 자 : 封塚八次
- 시 공 자 : 屋代組
- 규 모 : 지상 2층(연면적, 609.51 m²)
- 구조 및 양식 : 벽돌 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우리나라에서 지방 금융조합이 처음 발족된 것은 1907년 5월 30일이었다. 당시 지방 금융조합에 부과된 사명은 한국정부가 재정고문(財政顧問) 메가다(目賀田種太郎)의 지도 하에 신경제정책(新經濟政策)을 실시함에 있어서 금융경색(金融梗塞)의 완화 및 농법(農法)의 개량촉진, 토지의 자금화(資金化) 및 농산물의 상품화 등에 관한 사업을 보조하게 하여 한국의 농촌경제를 지배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관이었다.

이와 같이 지방 금융조합은 당시 농공은행의 보조기관으로 설치된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후 정부에 의한 무이자(無利子) 내지 저리자금(低利資金)의 교부 및 정부가 임명하는 일본인 이사의 파견을 통한 감독 등으로 농공은행과는 무관하게 정부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또한 금융조합 역시 각종의 정부사업을 맡게 됨으로써 그 부속기관 혹은 별동대(別動隊)로서의 기능을 하여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되었다.⁷⁾ 1914년 5월에는 구한국정부(舊韓國政府)의 칙령인 농공은행령을 폐지하고 부령으로 은행령을 제정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기능을 확충, 정비하였으며, 금융조합을 종래의 준 관영에서 점차 민영으로 옮기기 위하여 지방 금융조합 규칙을 폐지하고, 지방 금융조합령을 제정(制定)하는 한편, 농공은행과 금융조합의 관계를 긴밀히 하였다.

여기에는 농공은행을 통하여 일본의 자금을 한국에 진출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⁸⁾ 1918년 6월 조선총독부는 농공업자의 금융을 완화한다는 미명아래 한국인 농민을 고차적으로 수탈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재정비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조선총독부는 금융조합을 도시조합과 촌락조합으로 이원화하는 한편 촌락조합으로 하여금 지방조합의 기능을 맡게 하고, 도시조합은 도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자금 융통의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도 단위로 연합회를 설치하여 도시조합과 촌락조합과의 유대를 긴밀하게 하고 자금의 조달 기타 조합 상호간의 이익과 업무의 연락, 통일을 기하였다.

대구에는 국내의 주요 도시들과 함께 일반 금융기관이 잇달아 설치되어 성황을 이루었고, 지방에는 지방금융조합이 설치되어 성업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금융조합은

7) 대구시 : 앞책

8) 제일은행 : 제일은행 사십년지, 1969

뒤늦게 1919년에 이르러 창립되었다. 대구에 금융조합이 창립된 후 다시 3개의 조합(도시 조합 1개, 촌락조합 2개)이 증설됨으로써 대구는 남한(南韓) 일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금융상의 중추지로 등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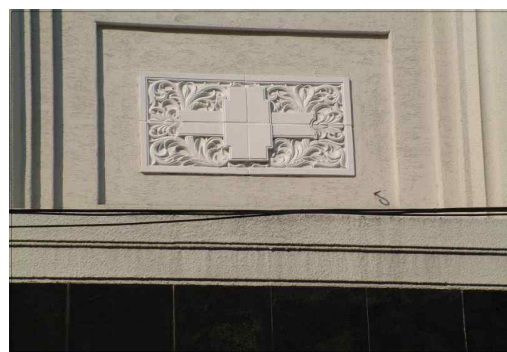
▲ 정면부

구, 대구금융조합 건물은 1925년에 건축 해방 후 중소기업은행이 인수하여 사용하면서 건물 뒤쪽으로 숙직실과 부속실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증축하였고, 1981년 10월부터는 장기 신용은행에서 인수하여 2층을 회의실, 식당, 주방 등을 새로 꾸미고, 옥상 동편에 있는 화강석 파라펫(Parapet)는 철 파이프로 교체하여 사용해 오다 2001년 김천동씨 소유가 되었다.

대구금융조합은 1925년 일제가 도시 중소기업자들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 건립한 벽돌조 2층 건물이다. 이 건물의 정면은 좌측부를 약간 후퇴시킨 비대칭형이며, 지붕은 슬라브로 구성하였다. 평면은 동서로 약간 긴 장방형이고, 주 출입구는 남쪽 정면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포치(Porch)로 장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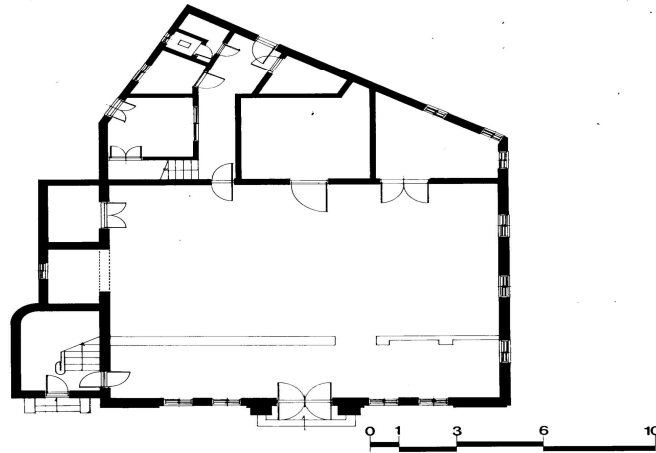
▲ 정면 주 출입구



▲ 벽면의 장식판

외관은 화강석 다듬돌로 쌓은 하부벽(下部壁)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타일을 붙이고, 벽 모서리와 창 사이 벽은 기둥처럼 구성하여 주두(柱頭)를 장식하였으며, 창 아래 벽에는 十字形 윤곽에 화판(花板)이 양각된 석고판을 붙였다. 내부 벽은 모두 회반죽 마감이나 계단

실의 정두리벽은 타일로 마감하였다.



구 대구금융조합 1층 평면도

50.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33번지
- 건축년대 : 1931년 건립
- 건축유형 : 상업(은행)
- 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연면적, 1,971.07㎡)
- 구조 및 양식 : 철근콘크리트조, 르네상스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1906년 8월 대구에는 지방 농공업(農工業)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구농공은행(大邱農工銀行)이 창립되었다. 대구농공은행은 1908년 8월 진주농공은행(晋州農工銀行)과 병합하여 경상농공은행(慶尙農工銀行)으로 개칭되고 1918년 10월에는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의 창립과 함께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으로 개편되었다.⁹⁾

이 건물은 일제가 1931년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으로 건립하였으며, 1954년 4월부터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이 사용해 오면서 내부 간막이, 마감재 등을 개조하긴 하였으나 건물 전체의 형태는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은 르네상스풍의 철근콘크리트조 2층 건물로 남쪽과 서쪽에 설치한 출입구 포치(Porch)를 중심으로 각각 좌, 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9) 조선식산은행 : 조선식산은행 2십년지, 1938.



▲ 전경

평면은 남북(南北)으로 약간 긴 장방형이며, 1층에는 영업장, 지점장실, 금고, 계단실 등을 두었고, 2층에는 계단실과 연결되는 ㄱ자형의 중복도를 따라 실(室)을 배치하였다.

외관은 화강석 다듬돌로 하부벽(下部壁)을 구성하고, 상부벽(上部壁)은 당시 독일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흰색 타일을 붙였다. 도로에 면하는 남쪽과 서쪽의 창간벽(窓間壁)은 벽면에서 약간 돌출시켜 기둥처럼 만들었고, 건물의 양 모서리와 각 기둥의 주두(柱頭)는 몰딩(Moulding)으로 장식하였으며, 기둥 상부(上部)는 나뭇잎 모양을 양각한 4각형의 장식판을 붙였다.

창은, 1층은 반원 아치형, 2층은 평 아치형으로 각각 고창(高窓)을 둔 철재 오르내리창을 설치하였는데 창과 출입문의 인방에는 장식용 타일, 1층 창과 현관 포치 위에는 4각형 장식판으로 꾸몄으며, 2층의 창 위에는 치형(齒形, Dentil)장식물을 붙여 수평 돌림띠처럼 구성하였다.



▲ 창문 상세



▲ 옥상 파라펫부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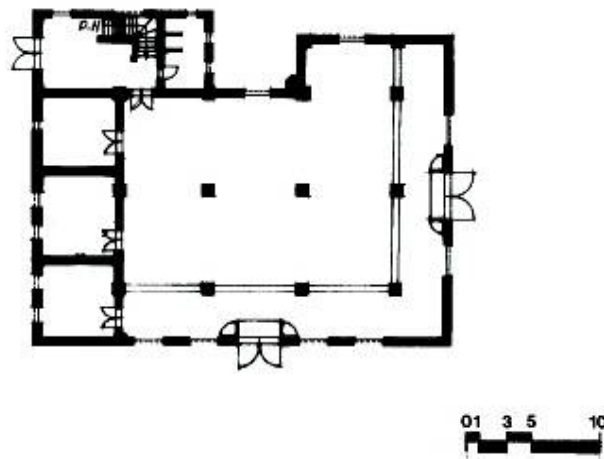
파라펫(Parpet) 위에는 세로로 긴 3각뿔 모양의 장식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붙이고, 그 사이에 특수한 장식타일을 붙여 울동감과 함께 수평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내부는 각 실과 계단, 복도의 바닥이 모두 인조석 물갈기와 타일로 마감되었고, 1층 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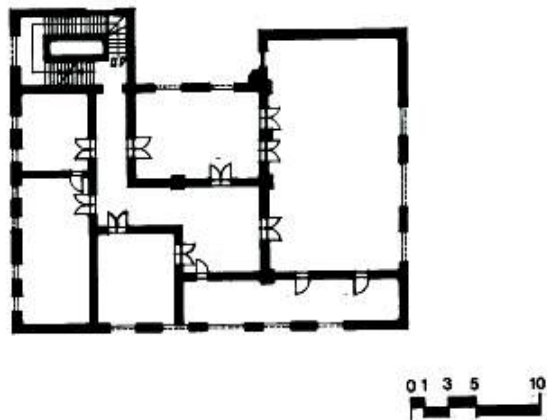
장은 콘크리트 위에 장마루판을 깔았다. 벽은 정두리벽이 타일이고 상부벽은 회반죽 마감이며, 천장은 2방향 장선 바닥판 구조로 구성하여 회반죽 마감하였다. 난방은 라지에타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아 중앙집중식 증기난방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건물은 슬라브지붕의 난간벽과 처마부의 수평돌림띠, 창·인방부 등을 타일로 섬세하게 장식하는 등 전 시기(前時期)의 건물들과는 달리 정면부의 장식이 비교적 단순해지고, 지붕을 슬라브로 처리하여 수평선을 강조함으로써 르네상스적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은 내부 간막이, 마감재 등이 바뀌긴 하였으나 건물 전체의 형태는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역사적, 건축사적 가치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의 랜드마크적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는 건물이다.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 1층 평면도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 2층 평면도

51. 정소아과 의원 (서병직 주택)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141번지
- 건축년대 : 1937년 건립
- 건축유형 : 주택
- 규모 : 지상 2층(연면적, 251.6㎡)
- 구조 및 양식 : 벽돌조, 日·洋 절충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일제시대 대구의 서부자(徐富者)로 알려진 서병직이 1937년에 건립한 벽돌조 2층 주택으로 1947년 정익수씨가 인수하여 지금까지 소아과 의원 겸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평면은 장방형에 가까운 부정형(不定形)으로 1층에는 서쪽 현관 홀을 중심으로 공적공간을, 2층에는 침실, 서재 등의 사적공간을 배치하였는데 공적공간의 바닥에는 다다미를 깔고, 생활공간에는 온돌을 시설한 것으로 보아 공간 성격에 따라 바닥 마감이 달랐던 것으로 짐작된다. 외관은 벽돌 벽에 시멘트 몰탈 뿔칠로 마감하고, 창은 목재 미서기창을 달았으며, 지붕은 모임지붕형에 슬레이트를 이었다. 이 집은 1937년에 건립된 일·양절충식 주택으로 일제기(日帝期) 일·양절충식(日·洋折衷式) 주거의 유입 과정과 상류층의 주거문화 연구를 위한 자료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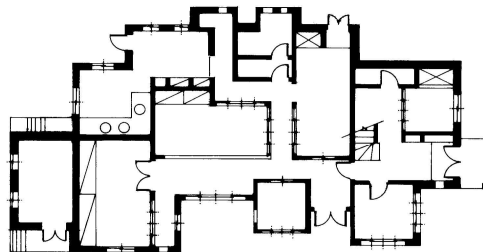
▲ 위에서 바라 본 전경



▲ 전경



▲ 현관



정소아과의원 1층 평면도

52. 구, 한일은행 대구지점 (조선신탁회사 대구지점)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50-1번지
- 건축년대 : 1932년 건립, 1992년 철거
- 건축유형 : 상업(은행)
- 규모 : 지상 2층(연면적, 806.42㎡)
- 구조 및 양식 : 벽돌 조적조, 르네상스풍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건물은 1932년 일제가 조선신탁회사 대구지점으로 지은 건물로 1950년 4월 한국신탁회사 대구지점에 이어 1962년부터는 조선은행 대구지점으로 사용되었다. 1960년 1월 한일은행에서 인수하여 한일은행 대구지점으로 사용하면서 1962년 수평방향으로 증축할 때 내부 수장공사를 하고, 1977년과 1985년 두 차례에 걸쳐 창, 문, 내벽 등을 개수하여¹⁾ 사용해 오다 1992년 철거하였다.

구 한일은행 대구지점은 중앙로에 면하여 서향 배치된 건물로 정면의 현관 포치(Porch)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었으며, 창 사이 벽과 처마부, 인방부의 몰딩(Moulding)과 수평띠(Cornice) 구성수법 등 건물의 전체적 분위기는 르네상스풍을 느끼게 하였다.



▲ 전경



▲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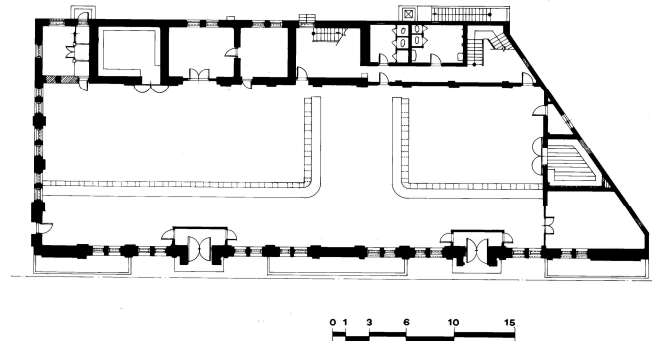
평면은 남북이 긴 장방형으로, 1층에는 영업실과 사무실, 금고실, 2층에는 회의실, 서고(書庫) 등을 두었는데 영업실의 천장은 2층까지 열린 보이드(Void)형으로 구성되었다.

외관은 화강석 다듬돌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인조석으로 마감하고, 창 사이 벽은 벽돌을 들여쌓기 하여 기둥처럼 구성하였으며, 창문은 평아치형에 오르내리창을 달았다. 벽면보다 들여쌓기 한 층간벽(層間壁)에는 수평 돌림띠를 돌리고 긴 사각형 장식판(裝飾版)을 붙였으며, 2층의 창문 위에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듯한 원형(圓形) 장식물을 규칙적으로 배열하였다.

내부는 원래 목재의 긴 마루판을 깔았으나 이후 인조석 물갈기로 개조되었고, 벽면은 몰

1) 한일은행 : 한일은행 50년사, 1982

탈 위에 수성페인트 마감, 천장은 각재(角材)로 井字살을 짜고 그 사이에 석고보드를 끼워 마감하였다.



구 한일은행 대구지점 1층 평면도

53. 구, 대우증권 (금융조합연합회 경북지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115 - 1번지
- 건축년대 : 1925년, 1987년 철거
- 건축유형 : 상업(은행)
- 규모 :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068.57㎡)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지방 금융조합은 1908년에 설립된 이래 상당한 발전을 보았으나 조합간(組合間)의 자금 조정불능, 조합 및 조합원수의 부족 등으로 정체를 면치 못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저리자금(低利資金)을 대출하고 업무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금융업무 외 농사개량(農事改良), 부업장려(副業獎勵) 등의 권농임무(勸農任務)를 행정관청에 위양(委讓)하도록 하였다²⁾.

1918년 6월에는 종래의 지방금융조합령(地方金融組合令)을 폐지하고 금융조합령(金融組合令)을 공포하여 금융조합연합회(金融組合聯合會)를 창설하고 각 지역 소속의 금융조합을 회원으로 하였다. 이 금융조합회는 각 도단위(道單位)로 설립되었으며, 그 주요 임무는 소속 금융조합의 지도와 조합 상호간의 연락 및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금을 조절하는 것이었다.

1933년에는 조선금융조합연합회가 창설되어 금융조합연합회의 업무를 승계 받고 각 도연합회(道聯合會) 상호간의 자금유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금계통(資金系統)의 정비, 금리(金利)의 통일, 금융채권발행 등을 담당하였다³⁾.

2) 제일은행 : 제일은행 사십년지, 1969.



▲ 정면부

이 건물은 1925년 2월 금융조합연합회 대구지점으로 건축되어 1933년 조선금융조합연합회의 창설과 함께 조선금융조합연합회 대구지점으로 개칭되었다.

해방 후에는 농협중앙회 경북도지회가 건물 뒤편〔동쪽〕으로 이어 붙여 철근콘크리트조 4층을 증축하여 사용해 오다 1973년 6월 공간이 협소로 신암동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移轉)해 가고, 삼보증권에서 인수하여 사용하였다. 1983년 12월 18일에는 대우증권에서 인수, 내부를 개수하여 사용해오다 1987년 8월 공간 협소를 느껴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옥을 신축하였다.

구, 대우증권 대구지점은 중앙로에 면하여 서향으로 배치된 붉은 벽돌조 4층 건물로 정면과 측면은 갈색 타일을 붙여 마감하고, 정면 출입구 현관 포치(Porch)에는 사각탑(Turret)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각탑(Turret)을 중심으로 좌측부는 슬라브 지붕이고, 우측부는 모임지붕에 슬레이트를 이었다.



▲ 정면 포치



▲ 하부벽

3) 한국상업은행 : 한국상업은행 70년사, 1969.

평면은 장방형으로, 1층에는 영업실과 사무실, 계단실, 변소 등을 두고, 2층과 3층에는 사무실, 문서고, 창고 등을 설치하였으며, 우측의 사각탑에는 3층까지 연결되는 돌음계단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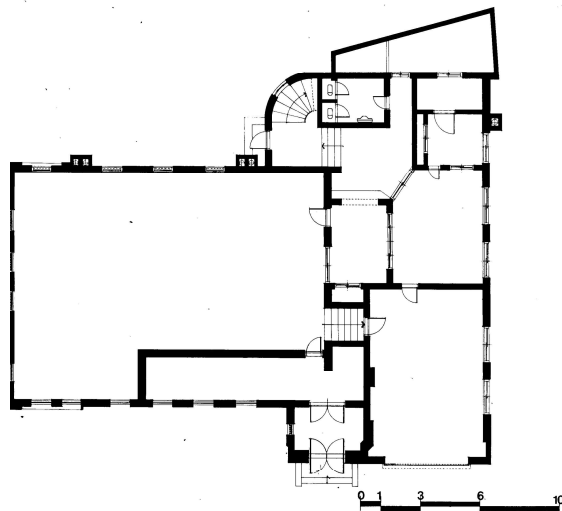
외관은 화강석 다듬돌 바른층쌓기 한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고, 화강석 인방돌을 설치하여 목재 오르내리창을 달았으며, 2층 창문의 웃인방은 화강석 다듬돌을 연결시켜 수평띠(Cornice)처럼 구성하였다.

벽면 모서리부는 물딩된 화강석으로 코너비드(Corner bead)를 붙였고, 1, 2층의 창간벽(窓間壁)과 상부벽(上部壁)에 세로로 긴 화강석 장식판을 붙였는데, 창간벽에는 양각(陽刻), 상부벽은 화강석 돌림띠로 장식하였다.

옥상 파라펫(Parapet)은 붉은 벽돌을 쌓아 그 위에 화강석 다듬돌을 얹어 돌림띠처럼 구성하였다. 정면 출입구는 붉은 벽돌과 화강석 붙임기둥을 이중(二重)으로 세워 현관 포치(Porch)를 만들고, 포치의 지붕은 화강석으로 페디먼트(Pediment)를 구성하였다. 옥상 위에 돌출된 사각탑 정면에는 매 층마다 오르내리창을 설치하고, 지붕은 방형지붕에 슬레이트를 一자형으로 이었다. 문은 양판문과 징두리 양판문이며, 내부 각 출입문은 징두리양판문의 외여단으로 하였다.

내부 바닥은 인조석 물갈기, 벽은 홍송(紅松)으로 징두리판벽을 붙였으며, 천장은 보를 설치하여 상부벽(上部壁)과 함께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다.

사각탑부의 계단실에는 목조 돌음계단을 설치하였는데 벽면에는 목재 걸레받이를 붙이고 회반죽 마감하였으며, 천장에는 모딜리언(Modillion, 코린트양식의 까치발) 장식을 한 목재 보를 걸고, 그 위에 긴 널판재를 붙였다. 난방은 증기난방을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구 대우증권 1층 평면도

54. 구, 대안성당 (東本院寺)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대안동 31번지
- 건축년대 : 1922년 건립, 1995년 철거
- 건축유형 : 종교(사찰)
- 규 모 : 지상 1층(연면적, 425.78㎡)
- 구조 및 양식 : 목조, 일본전통양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구, 대안성당(大安聖堂)은 1922년 일본인이 동본원사(東本院寺)로 건립한 일본 전통사찰(傳統寺刹)이다. 1945년 해방 후에는 주변의 난민(難民)들이 거주하였으며, 1950년 6.25후에는 피난민 수용소가 되었다. 1965년 7월 1일 대안성당에서 동본원사 서남쪽에 있는 서본원사(西本院寺)를 매입하여 임시성당으로 사용하면서 난민들을 연차적으로 이주시키고, 1971년 동본원사를 인수하였다. 1972년 이판석 신부는 교우들의 협조를 받아 동본원사 본당(本堂)의 내·외부를 개조하고 그 해 9월 성전을 이곳으로 옮겼으며, 1973년에는 서본원사를 개수하여 그 해 3월 대안성당 부속유치원으로 개원하였다.



▲ 정면



▲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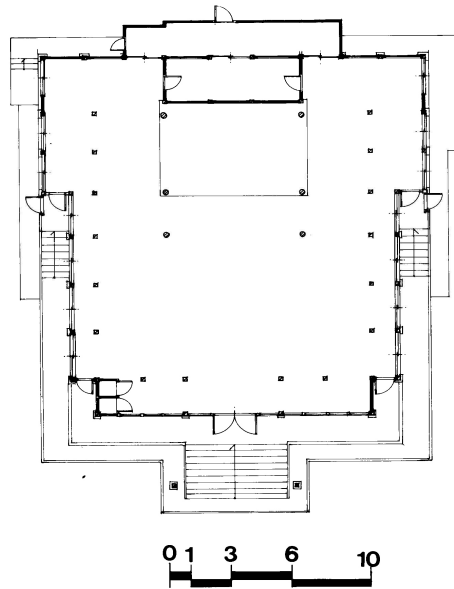
이 건물은 대안동의 편평한 대지에 남향 배치된 목조 단층집으로 팔작지붕에 일식(日式) 기와를 이었는데 육중한 지붕과 정면 지붕의 처마 구성이 특이하다.

평면은 앞쪽에 ㄷ자형 복도를 둔 장방형으로 정면 중앙부 계단 위의 지붕 처마 끝을 앞쪽으로 돌출 시켜 차양처럼 구성하였다. 내부는 열주(列柱)와 층단형(層段形) 천장으로 신랑(身廊)과 측랑(側廊)을 구별하고, 북쪽에 불단(佛壇)을 배치하였다.

외관은 화강석 기단 위에 주초(柱礎)를 놓고 그 위에 각형(角形)기둥을 세워 벽체를 구성하였는데 하부벽(下部壁)은 인조석 셋어내기, 상부벽(上部壁)은 회반죽으로 마감하고, 징두리 양판문과 미서기창을 달았다.

정면의 기둥 위에는 창방의 뿔목을 용두형(龍頭形)으로 장식하였으며, 창방과 평방 사이

에는 화반(花盤)을 설치하여 이익공(二翼工)처럼 꾸몄고 좌·측 기둥에는 귀포를 구성하였다. 내부 바닥은 목재 장마루판, 벽은 회반죽마감이다. 이 건물은 1995년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철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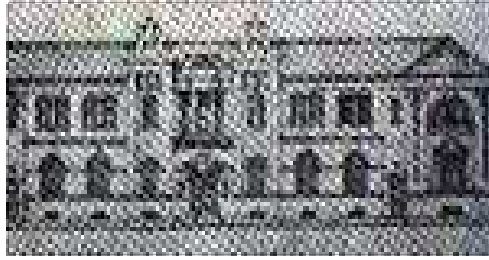


구 대안성당 평면도

55. 대구공소원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58-1번지
- 건축년대 : 1910년 건립, 1923년 철거
- 건축유형 : 공공(관청)
- 설계 : 탁지부 건축소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및 양식 : 목조, 일·양절충식(클래식, 르네상스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1908년 개정된 재판소 구성법 및 동 시행법이 실시됨으로써 그 해 7월 대구에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3심제 4계급의 대구공소원(大邱公訴院)이 설치되었다. 대구공소원은 1910년 6월 탁지부 건축소에서 설계한 목조 2층의 청사를 신축하여 개원하였다가 1912년에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으로 개칭되었는데 당시의 청사는 1923년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철거하였다.



▲ 정면

탁지부 건축소에서 1910년에 지은 대구공소원 청사는 목조 2층의 일·양절충식(日·洋折衷式) 건물이었다. 건물의 양식은 클래식과 르네상스식의 절충형이었으며, 당시 평양공소원 청사와 같이 사용토록 계획하였으나 대구에서 먼저 실현되었다.

이 건물의 평면은 ㄷ字形이며, 정면 중앙의 주 출입구 양쪽에 2개의 탑을 설치하여 좌·우대칭으로 구성하였다. 외벽의 층 사이는 코니스(Cornice), 건물의 양 날개부는 페디먼트(Pediment)로 장식되었다.

56. 구, 대구백화점 별관 (대구복심법원)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58-1번지
- 건축년대 : 1921년 건립⁴⁾, 1999년 철거
- 건축유형 : 공공(관청)
- 설 계 자 : 조선총독부
- 시 공 자 : 야시로꾸미(屋代組)
- 규 모 : 지상 3층(연면적, 4,499.22㎡)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구 대구백화점 별관은 1923년에 일제가 대구공소원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새로 지은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 청사이다. 건물의 설계는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하고, 건축공사는 야시로꾸미(屋代組)에서 맡았다고 한다⁵⁾.

이 건물은 1948년 6월 대구고등법원으로 개칭되었고, 1966년 3층으로 증축되어 법원 청사로 사용되었다. 1975년에는 대구직할시에서 시립도서관, 1986년 9월에는 대구백화점에서 대구백화점 별관으로 사용해 오다 1999년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철거하였다.

대구복심법원 청사는 서쪽 도로에 인접하여 서향 배치된 붉은 벽돌조 3층 건물로 지붕은

4) 川端貢, 富井正憲 : 1922년부터 1945년까지 韓半島의 建築活動에 관한 調査報告.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8권 1호, 1988.4

5) 이성해 증언(1987년, 中央建築事務所長)

박공지붕에 기와를 이었다.

평면은 日자형으로 중앙부의 현관 홀 좌,우에 각각 같은 모양의 중정(中庭)을 두고, 건물의 안쪽에는 口자형으로 중복도를 설치하였으며, 정면의 현관 홀(Hall)을 중심으로 외관과 함께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 전경



▲ 배면부

외관은 정면 중앙의 현관 포치(Porch)를 중심으로 대칭이며, 포치 위에는 4각형의 탑(Turret)을 세우고, 탑부에는 4개의 화강석기둥을 붙임기둥(Buttress)처럼 세워 정면성과 위엄을 강조하고 있다.

현관 포치의 정면 좌우에는 원기둥을 세워 평 아치형으로 구성하였는데 아치에는 연꽃무늬를 장식하였고, 원기둥의 상하(上下)에는 세로로 줄무늬 장식을 하였다. 정면의 벽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벽면을 들여쌓아 수직분할하고 그 사이에 목재 오르내리창을 설치하였는데 창이 웃인방은 1층이 평아치, 2, 3층은 반원 아치이며, 1층의 하인방은 수평으로 길게 연결하여 수평 돌림띠처럼 구성하였다.



▲ 정면 포치



▲ 계단실

건물의 배면은 중앙부를 약간 돌출 시켜 이것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게 하고, 좌우측 벽면에 1층은 평아치, 2, 3층은 반원 아치창을 설치하였다. 처마에는 화강석 다듬돌로 수평돌림띠를 돌렸고, 지붕은 원래 도머(Domer)창이 있는 기와지붕이었으나 증축 시 각기 일자형으로 연결된 박공지붕으로 바꾸었다.

내부 바닥은 인조석 물갈기, 벽면과 천장은 회반죽 마감이었으나 몰탈 위에 수성페인트를 발랐다. 계단은 건물형태와 같은 ㄷ자형 돌음계단으로 바닥은 인조석 물갈기, 난간벽은 벽돌을 쌓아 만들었으며 계단의 디딤판 끝에는 황동의 미끄럼막이(Non Slip)를 붙였다.

57. 대구일본이사청 (大邱日本理事廳)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가 1번지
- 건축년대 : 1908년 착공, 1909년 준공
- 건축유형 : 공공(관청)
- 설 계 자 : 탁지부 건축소
- 시 공 자 : 일본인 기술자
- 규 모 : 지상 2층
- 구조 및 양식 : 목조, 일·양절충식, 르네상스풍
- 건축연혁 및 현황 :

구 대구일본이사청은 1909년 일제가 대구의 일본인 거류지 보호와 식민지 전초기지 확보를 위해 지은 건물로 설계는 탁지부 건축소, 공사는 일본인 기술자들이 담당하였다.

이 건물은 당시 부산, 원산에 세워진 청사(廳舍)들과 매우 흡사한 목조 2층의 일·양절충식(日·洋折衷式)이었다.

외관은 정면 중앙의 돌출탑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룬 르네상스풍이었으며, 비늘판 벽에 오르내리창을 설치하였다. 합방 후 대구부청(大邱府廳)으로 사용되었으나 해방 후 철거되었다.



▲ 전경

58. 무덕회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가 1번지
- 건축년대 : 1923년 건립, 1987년 철거
- 건축유형 : 공공(문화, 체육)
- 규모 : 지상 1층(연면적, 394.2㎡)
- 구조 및 양식 : 목조, 일본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구 무덕회관은 1923년 경북무덕회(慶北武德會)가 경상도민(慶尙道民)의 성금을 받아 건립한 건물이다. 이 건물은 1945년에는 조선무술회(朝鮮武術會), 1950년에는 대한무술회(大韓武術會), 1955년에는 경북유도회(慶北柔道會)로 개칭되어 사용되어 오다 1960년 경상북도로 이관되어 경찰기동대 무술장(武術場), 1977년에는 대구시에서 내부를 개조하여 회의실로 사용해 오다 1987년 10월 민원실과 주차장 건설을 위해 철거하였다.



▲ 정면

이 건물은 건축 당시 서향이였으나 1942년 시청에서 동인 로타리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남향으로 배치하였다. 팔작지붕에 일본식 기와를 이은 목조 단층으로 정면 중앙의 지붕면에 함각지붕을 돌출시키고, 아래쪽 처마부를 당파풍양식(唐破風樣式)으로 솟구쳐 올려 처마 끝을 장식하였다.



▲ 배면



▲ 정면부 지붕

평면은 장방형의 통칸(通間)으로 3면에 출입구를 두고, 양 측면과 배면(背面)에는 목조 뒷마루를 부설하였다. 외관은 화강석 기단에 각형(角形) 초석을 놓아 네모기둥을 세우고 중방과 상방 등을 기둥과 직교시켜 벽면을 구성하였다.

창문은 중방의 아래위에 井字살의 고창과 중창으로 된 유리창문을 끼웠다. 벽면은 회반죽 마감이고 기둥 위에 단장혀 형식의 짧은 목재를 놓아 처마도리를 얹었다. 서까래는 단면이 각형이며, 귀서까래는 평행연으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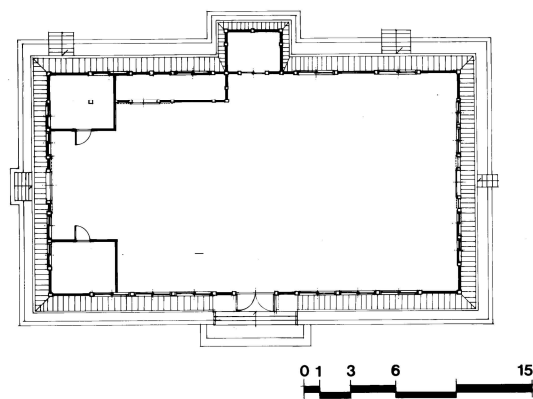
내부의 바닥은 목재 장마루판이었으나 인조석 물갈기로 개조되었고, 벽은 징두리벽은 긴 널판재, 상부벽은 회반죽 위에 삼목(杉木)을 덧붙였다. 천정은 층단반자로 우물반자 형식을 취했으며, 층단반자에 솟아오르는 수직부분은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다. 이 건물은 정면 처마부의 당파풍 양식(唐破風 樣式)과 건물 4면의 뒷마루, 천정의 반자 구성수법 등에서 일본풍을 느끼게 하였다.



▲ 측면부 지붕



▲ 내부 천장 상세



무덕회관 평면도

59. 대구부립도서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3번지
- 건립년대 : 1924년 건립, 1993년 철거
- 건축유형 : 공공(문화)
- 규모 : 지상 2층(연면적, 200.5㎡)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일제(日帝)는 1910년 한일합병(韓日合併) 이후 식민통치방법(植民統治方法)으로 폭력에 의한 강압적 지배와 문화, 교육을 통한 점진적 회유책(懷柔策)을 병행하였다. 1919년 일제는 대구의 인구가 한국인 약 3만에, 일본인 약 1만에 달하게 되자 도서관이 사회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인식하고 부립도서관(府立圖書館) 건립을 서둘렀다.⁶⁾

도서관은 일본인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그들의 정치, 문화, 사상을 직접, 간접으로 한국인에게 선전, 교화하는 역할까지 기대하였던 것이다. 1919년 7월 29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대구부립도서관의 설치인가를 받아 그 해 8월 10일 경상북도청 구내의 나경관 상층(上層)을 빌려 개관하였다.

1920년 1월 24일에는 현, 포정동에 있는 영남관(嶺南館)으로 이전하였으나 건물이 도서관으로는 부적합하여 1924년 4월 대구부청(大邱府廳) 구내에 새 건물을 준공하여 5월 20일에 개관하였다. 1938년 11월 1일부터는 도서관 건물의 일부가 대구시 직할출장소로, 1949년 6월에는 대구시 청사가 화재를 당하자 임시 청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 전경



▲ 내부

1955년에는 대구시가 신 청사로 이전해 감에 따라 그 해 10월부터 다시 대구시립도서관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1961년 12월 11일에는 시립도서관이 대구시 교육청으로 이전해 감으로써 대구시 중구청 청사로 전용되었고, 1980년 4월 1일 대구시의 직할시 승격과 함께

6) 대구시 : 앞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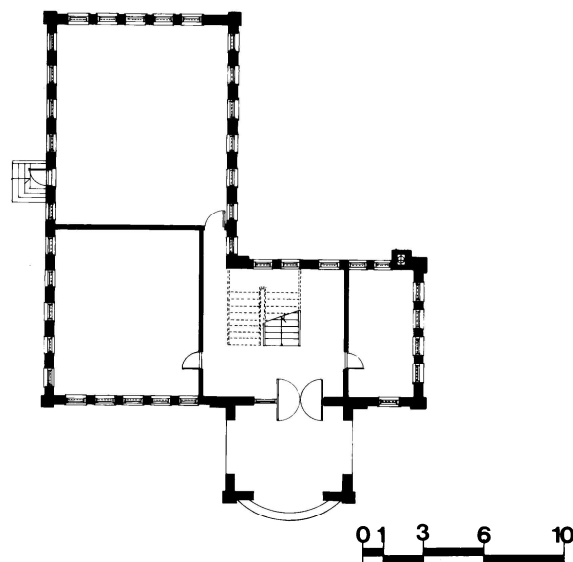
대구직할시 보건사회국에서 사용해오다 1993년 민원인 주차장 설치를 위해 철거하였다.

대구부립도서관은 일제가 1924년 4월 현 대구광역시청 민원인 주차장 자리에 세웠던 붉은 벽돌조 2층 건물로 맨사드 지붕에 슬레이트를 이었으며, 정면 출입구 현관부를 3층으로 구성하여 정면성과 수직성을 강조하였다. 평면은 ㄴ자형으로 정면 주 출입구와 연결된 계단 홀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 실을 배치하였다.

외관은 화강석 다듬돌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였는데 벽면은 창문부의 벽돌 들어쌓기로 수직분할하고, 창문은 평아치형 인방에 목재 오르내리창을 설치하였다.

창문의 하인방은 벽돌 세워쌓기, 상인방은 화강석 머릿돌(Key stone)을 중심에 두고 양쪽으로 붉은 벽돌을 빗쌓기 하였으며, 그 양끝에는 화강석 다듬돌을 끼워 장식하였다. 벽의 각 모서리는 인조석 씻어내기로 마감하여 기둥처럼 표현하였으며, 나머지 벽면은 수직 돌출벽, 코니스, 화강석 머릿돌(Key Stone) 등으로 다양하게 장식하였다.

특히 정면 모서리 벽의 상부와 창 아래 작은 벽에는 “學”을 상징하는 듯한 반딧불 모양을 양각하였다. 지붕은 변형 맨사드형에 마름모꼴의 슬레이트를 이었다. 내부의 바닥은 목재 장마루판, 천장은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다.



대구부립도서관 1층 평면도

60. 경북대학교의과대학 본관 (대구의학전문학교)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101번지
- 건축년대 : 1933년 건립
- 건축유형 : 교육(학교)
- 설 계 자 : 시라이(百井)
- 시 공 자 : 야시로꾸미(屋代組)
- 규 모 : 지상 4층(연면적, 3,618.96㎡)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표현주의 양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은 1923년 관립(官立) 대구자혜의원(大邱慈惠醫院)⁷⁾안에 사립(私立) 의학강습(醫學講習所)로 설립되었다. 의학강습소는 1924년에 독립 대구의학강습소로 개칭되었으며, 1926년 3월 동문정(東門町)에 있던 자혜의원이 화재로 소실됨에 따라 1927년 현재의 위치인 동인동으로 이전하였다⁸⁾. 그 후 조선공립학교 관계의 개정으로 1933년 3월 8일 공립 대구의학전문학교로 개교되었고, 1945년 10월 1일에는 독립대구의학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1951년 10월 6일 국립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이관, 개편되었다.



▲ 전경



▲ 배면

이 건물은 1933년 3월 일제가 대구지역 의료인 양성을 위해 건립한 대구 최초의 의학전문학교로 당시의 일반적인 학교 유형(類型)들과는 달리 평면 및 외관 구성에서 표현주의 양식적 색채를 띠고 있다.

평면은 ㄷ字形으로 중복도식이며, 현관을 중심으로 외관과 함께 좌우대칭(左右對稱)이다. 정면 중앙 돌출부(Turret)부에는 관리부, 그 좌 우측으로 실험실과 연구실을 두고, 양쪽 날개부의 매 층에는 큰 강의실을 배치였다. 외관은 정면 중앙에 현관 포치(Porch)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었는데 현관 포치의 위의 사각탑(Turret)과 옥탑(屋塔)이 대칭성과 정면

7) 大邱慈惠醫院은 1910년 大邱府 東門町에 設立되었다(河井朝雄 : 大邱 物語)

8) 대구시 : 앞책

성을 더욱 강조해 주고 있다. 벽체는 화강석 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구성하고, 벽면에는 평아치형의 스틸 세시창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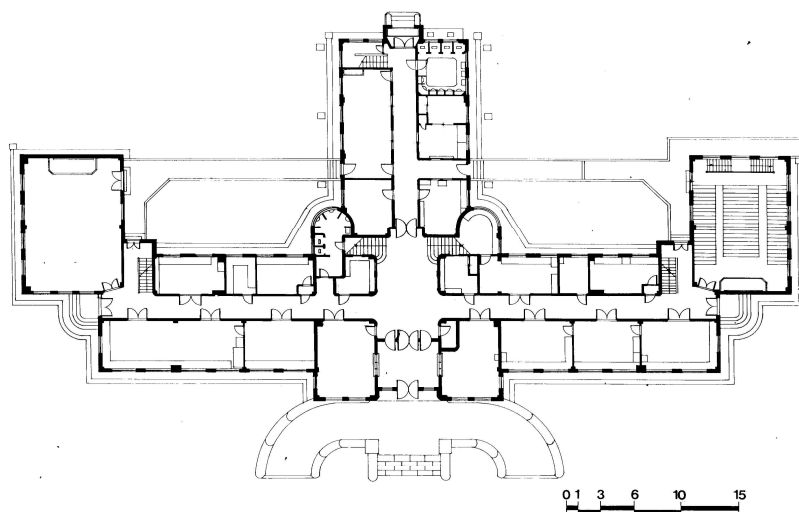
정면 현관부는 사각탑(Turret)에서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을 돌출 시켜 포치를 구성하고, 포치 지붕의 난간벽과 사각탑(Turret)부의 옥상 파라펫을 벽돌 내쌓기하여 수평돌림띠, ㄷ자형 문양 등을 새겨 넣어 수평성을 강조하였다. 사각탑(Turret)의 중앙부는 반원형으로 돌출시켜 전체 면을 스틸 세시(Steel sash) 창으로 구성하고, 옥탑부는 3개의 돌출기둥을 세워 수직선을 강조함으로써 안정감과 웅장함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1층과 2층 전후면(前後面) 창문의 인방은 몰탈 마감으로 돌출 연결시켜 수평돌림띠(Cornice)처럼 구성하였으며, 옥상 파라펫(Parapet)부에는 벽돌 내쌓기로 4개의 수평돌림띠를 만들고, 그 위를 화강석 다듬돌로 마감하였다. 내부의 바닥은 인조석 물갈기, 벽과 천장은 회반죽 마감이다.

이 건물은 평면 및 외관구성에서 표현주의의 양식적 색채를 띄며, 건물 각부의 비례와 공간구성 수법 등이 치밀하고 특이하여 대구지역 근대건축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적 가치가 인정된다.



▲ 내부



경북대학의과대학 본관 1층 평면도

61. 구, 경북도지사관사 (경상북도지사 관사)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50-1번지
- 건축년대 : 1920년 건립, 1987년 철거
- 건축유형 : 주택(관사)
- 규모 : 지상 2층(연면적, 416.82㎡)
- 구조 및 양식 : 목조, 일본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건물은 일제가 1920년 경상북도지사 관사로 건립한 목조 2층집이다. 해방 후 도지사(道知事) 관사로 사용해 오다 1980년 관사로서 기능과 구조가 부적합하고, 건물 유지,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경상북도 치산사업소 사무실로 사용해오다 1982년 주변 일대가 대구시 공원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1984년 2월 대구직할시에서 매수하였다. 1985년부터 한국청소년연맹 대구지부에서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나 1997년 대구광역시에서 시민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철거하였다.

구 경상북도지사 관사는 북쪽 도로에 면한 대지의 가운데 건물을 배치하고 남쪽과 북쪽에 각각 정원을 구성하였다. 평면구성은 부정형(不定形)의 중복도식으로 남쪽 방들의 앞쪽에 긴 복도를 두고, 공적영역(公的領域)과 사적영역(私的領域)을 분리 구성하였는데 각 영역으로의 출입 현관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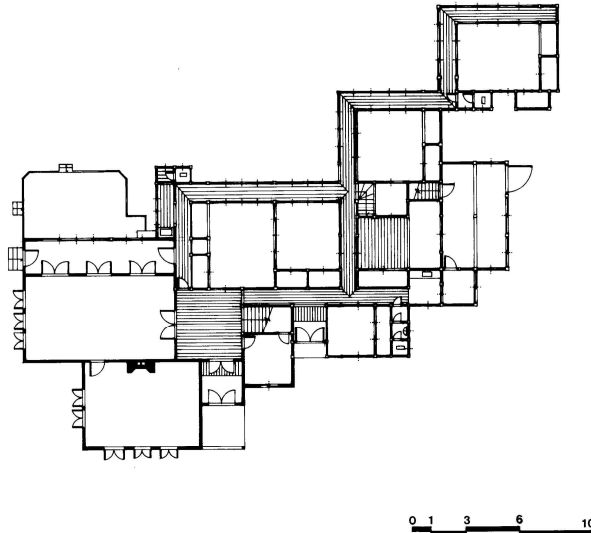


▲ 내부 복도

1층의 공적영역은 서양식의 사무실과 회의실, 화장실을 두고, 사적영역은 일본 전통양식으로 중복도를 따라 거실, 방, 부엌, 식당, 욕실, 변소 등을 배치하였는데 사적영역의 거주실 바닥은 다다미를 깔고, 문은 후스마를 달았다.

2층에는 통칸(通間)으로 된 큰방과 벽장, 광(오시레, 모노이레) 등을 두었다. 외관은 북쪽 정면과 측면을 목조 평벽(平壁)으로 구성하여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고, 벽면에는 목재 문틀을 끼워 오르내리창과 미서기창을 설치하였으며, 2층의 벽은 누름대 비늘판벽을 구성하였다. 정면 좌측의 사무실부는 단층으로 구성하여 박공지붕을 이었는데 박공면은 판재로 마감하고, 박공면 아래 부분은 수평으로 치형(齒形)의 장식띠를 붙였다.

내부의 복도는 장마루판, 그 외 실의 바닥은 시멘트 몰탈 위에 다다미를 깔았으며, 벽은 흙벽 위에 벽지를 발랐으나 공적공간인 사무실, 회의실 등에는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다. 사무실과 회의실의 출입문 위 벽면에는 아치형으로 띠를 만들어 그 안에 벼이삭 모양의 문양으로 장식하였으며, 벽면 상부(上部)에도 같은 모양의 문양을 사면(四面)에 돌리고, 그 위를 불록하게 물딩하여 반자돌림띠처럼 장식하였다. 천장은, 사무실과 회의실은 회반죽, 가족실은 종이벽지, 복도, 욕실, 변소는 널판재로 마감하였다.



구 경북도지사관사 1층 평면도

62. 구, 전매청 관사 (대구지방전매국 관사)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48-7번지
- 건축년대 : 1923년 건립, 1988년 철거
- 건축유형 : 주택(관사)
- 규모 : 지상 1층(연면적, 176.9㎡)
- 구조 및 양식 : 목조, 일, 양절충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대구에서 연초(煙草)를 제조하기 시작한 것은 1909년 10월 인천 전원상회(前園商會)가 동인동에 연초제조시설을 옮겨오면서부터다. 그 후 1910년 3월 대석상회(大石商會)가 태평로에 연초제조공장을 설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연초제조공장의 설립은 연초 과잉생산에 허덕이는 일본인 경작자들을 구제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한국인의 연초 자급체계를 와해시켜 상품경제의 굴레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일제의 이러한 의도가 한국인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됨으로써 전원상회와 대석상회는 경영난으로 폐업하고, 동아연초주식회사(東亞煙草株式會社)가 이들 두 공장을 인수하였으나 경영은 부진하였다. 이후 조선총독부에서는 세수(稅收)와 부실업체(不實業體)의 구제를 목적으로 조선연초제조령(朝鮮煙草製造令)을 공포하여 지방전매국을 설립하였다¹⁾.

대구지방전매국은 1921년 7월 조선총독부 탁지부 전매과 대구출장소와 동아연초주식회사 대구공장을 인수하여 그해 7월 1일부터 권연(卷煙) 제조를 시작하였다. 1922년 동인동의 청사와 공장이 좁고, 기계, 설비 등이 부족하여 현재의 전매청 자리에 부지를 매입, 청사와 공장을 신축하여 1923년 11월에 이전하였다.

구 대구연초제조창(大邱煙草製造廠) 관사는 1910년에 대지를 매입하여 1922년 수도와 조명시설을 하고, 1923년 12월에 하수도 시설을 하였으며, 1924년 4월 창장(廠長)의 관사와 빈사의 숙식을 목적으로 이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²⁾. 이 건물은 1924년 건축되어 1980년까지 전매청 관사로 사용해 오다 1968년부터는 전매청 직원이 관리하며 거주해 왔으나 1988년 대구시에서 민원인들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철거하였다.



▲ 정면



▲ 내부 복도

구 전매국 관사는 북쪽 도로에 면한 대지에 건물을 동서로 길게 배치하고 동쪽과 남쪽에 넓은 정원을 구성하였다. 평면은 ‘ㄱ’자형으로 중복도형이며, 정면 좌측의 현관을 중심으로 회의, 접객을 위한 공적부분과 가족생활을 위한 사적부분으로 구분하고 출입 현관도 따로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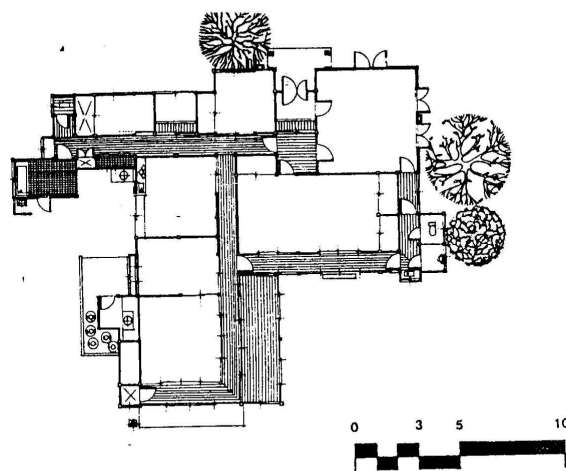
사적부분의 각 방들은 중복도와 후스마에 의해 구획 연결되고 있으며, 남쪽에는 정원에 면하여 긴 복도를 설치하였다. 외관은 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심벽(心壁)을 구성하여 시멘트 몰탈과 비늘판벽으로 마감하고, 지붕은 일식기와를 이었다.

1) 대구시 : 앞책

2) 대구연초제조창 : 연혁지,

정면 좌측의 현관 포치(porch)는 붉은 벽돌기둥을 세우고 슬라브 지붕을 덮었으며, 좌측 응접실 부분은 한 층 높은 박공지붕을 구성하여 공간의 중요도를 표현하였다. 집의 남쪽에는 긴 마루를 설치하고, 기둥 사이에는 굽도리 유리문을 설치하여 전형적인 일본전통건축의 공간구성과 입면형식을 나타내었다.

내부의 복도는 장마루판, 그 외 실의 바닥은 시멘트 몰탈 위에 다다미를 깔았으며, 벽은 흙벽 위에 벽지를 발랐으나 공적공간인 사무실, 회의실 등에는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다. 천장은, 사무실과 회의실은 회반죽, 가족실은 종이벽지, 복도, 욕실, 변소는 널판재로 마감하였다.



구 전매청관사 평면도

63. 구, 대구시장관사 (대구부윤 관사)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4번지
- 건축년대 : 1923년 건립, 1987년 철거
- 건축유형 : 주택(관사)
- 규모 : 지상 1층(연면적, 355.8㎡)
- 구조 및 양식 : 목조, 일,양절충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구, 대구시장 관사는 1933년 대구부윤(大邱府尹) 관사로 건축되어 해방 후부터는 대구시장 관사로 사용해오다 관사로서 기능과 구조가 불합리하고, 유지관리에 어려움 많아 1987년 10월 철거하고 그 자리에 민원실과 주차장을 건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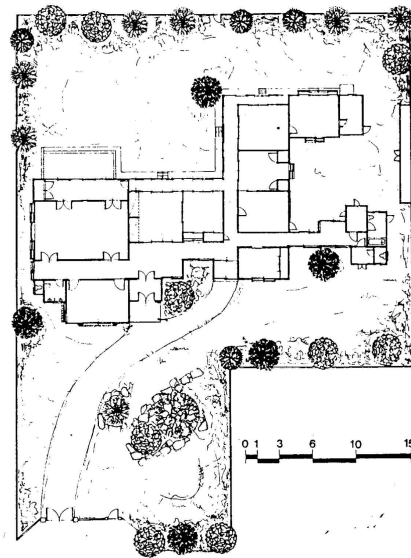
이 건물은 북측 도로에 면한 대지에 남쪽과 북쪽에 정원을 두고, 건물을 동서로 길게 배

치한 목조 단층집으로 지붕은 박공과 모임지붕형에 일본식(日本式) 기와를 이었다.

평면은 부정형(不定形)의 중복도식으로 남쪽 방들의 앞쪽에 긴 복도를 두고, 공적영역(公的領域)과 사적영역(私的領域)을 분리 구성하였는데 각 영역으로의 출입을 위한 현관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좌측 현관과 연결되는 공적영역(公的領域)에는 서양식의 사무실과 회의실, 화장실을 두고, 우측의 사적영역(私的領域)에는 일본 전통양식으로 중복도를 따라 거실, 방, 부엌, 식당, 욕실, 변소 등을 배치하였으며, 남쪽 면에는 ㄱ자형으로 길게 복도를 설치하여 각 방들과 연결하였다.



▲ 정면



평면도

외관은 정면에 2개의 현관을 두고, 정면과 좌측은 목조 평벽(平壁)에 적색 타일로, 우측은 누름대 비늘판벽으로 마감하였는데 좌측부의 현관 포치(Porch)는 각형(角形) 기둥을 세워 슬라브지붕을 덮었고, 우측 출입구는 벽면에서 직접 슬라브를 돌출 시켜 포치(Porch)를 구성하였다.

창문은 건물의 좌측 날개부에는 오르내리창, 우측에는 미서기창으로 설치하였으며, 정면 좌측의 돌출부 지붕은 박공형으로 구성하여 박공면을 판재로 마감하고, 합각부에는 △각형의 판재를 끼워 장식하였으며, 그 아래 벽면에는 한 쌍의 내민창을 설치하였다.

내부의 복도는 장마루판, 그 외 실의 바닥은 시멘트 몰탈 위에 다다미를 깔았으며, 벽은 흙벽 위에 벽지를 발랐으나 공적공간인 사무실, 회의실 등에는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는데 각 실의 한쪽 벽면은 벽장, 중복도 쪽에는 도드문을 설치하였다.

천장은, 회의실과 사무실에는 각재(角材)로 井자살을 부설하고 그 안에 합판을 끼워 넣었으며, 갓돌레를 합판으로 오목하게 장식하였다. 문은 징두리 양판문과 도드문, 플러쉬문 등을 혼용하였으며, 난방은 사무실 부분에 라지에타가 설치된 것으로 보아 사무실과 회의실 등의 공적부분은 증기난방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64. 정재규 주택 (은행원 사택)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4가 37-2번지
- 건축년대 : 1930년대 중반
- 건축유형 : 주택(사택)
- 규 모 : 지상 1층
- 구조 및 양식 : 목조, 일·양절충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우리나라에는 1920년대에 들어와 서울의 조선은행 사택을 시초로 지방의 여러 도시에 관사·사택이 널리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관사나 사택은 격증하는 도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권장되었으며, 그에 따라 1923년에는 3,212호가 건립되었다.

대구에는 1920년대 후반부터 학교, 관청, 은행 등의 종사자들을 위한 관사와 사택이 구성곽의 동·남부지역인 삼덕동과 동인동, 대봉동 일대에 집단적으로 건립되었다. 이들 주택들은 1960년대 이후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철거되거나 개조, 변용되어 현재 남아 있는 주택들은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었다.



▲ 정면부

이 집은 1930년경 일제가 대구부 동인동 일대에 건립한 은행원들의 사택으로 목조 1층의 일·양 절충형이다. 원래의 평면구성은 각 실을 후스마로 구획, 상호 개방이 가능한 겹집형으로 2열의 실과 실 사이에 복도를 설치한 중복도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집은 북쪽 현관을 중심으로 좌측에 양풍(洋風)객실, 우측에는 하녀실(女中室)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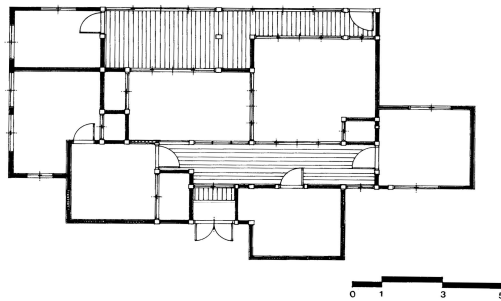
서양풍의 객실은 손님 접대를 위한 응접공간으로 입식가구를 놓았으며, 중복도 남쪽에는 자시키(座敷)와 차노마(茶の間)를, 우측끝에는 욕실과 부엌을 배치하였다. 자시키(座敷) 앞쪽에는 긴 복도를 부가하여 실내에서 후정(後庭)으로 출입할 때 하나의 매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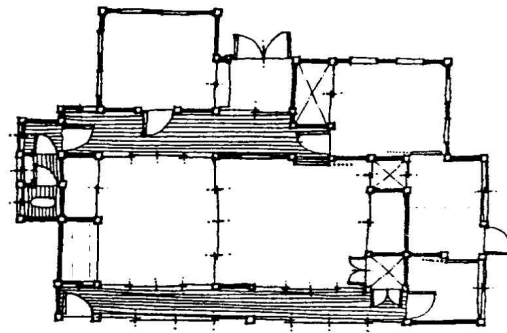
▲ 현관부



▲ 남쪽 복도



정재규 주택 실측 평면도



정재규 주택 복원 평면도

65. 경북의대 병원 본관 (도립 대구의원)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 2가 50번지
- 건축년대 : 1928년 건립
- 건축유형 : 공공(병원)
- 시공자 : 야시로꾸미(屋代組)
- 규모 : 지상 2층(연면적, 294.76㎡)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르네상스 風
- 건축연혁 및 현황 :

도립대구의원(道立大邱醫院)은 1910년 9월 관립 대구자혜의원(大邱慈惠醫院)이라는 이름

으로 대구부(大邱府) 동문정(東門町)에 창립되었다. 자혜의원은 1925년 4월 경상북도립 대구의원(慶尙北道立 大邱醫院)으로 개칭(改稱)되었고, 1926년 3월 대구자혜의원이 불의의 화재로 소실되어 1928년에 현재의 위치인 삼덕동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³⁾. 1945년 10월에는 대구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이관되었고, 1952년부터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 경북의대 병원 본관은 북향하여 동서로 길게 배치된 르네상스풍의 벽돌조 2층 건물로 정면 중앙부의 현관 포치(Porch)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 전경

평면은 L字形의 중복도식으로 각 실을 남쪽과 북쪽에 배치하였으나 우측 날개부는 서쪽에 편복도를 설치하여 동향으로 실을 배치하였다. 외관은 정면 중앙에 현관 포치를 두고, 그 위에 사각탑(Turret)을 설치하였으며, 벽면은 화강석 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창문 한 쌍을 단위로 불임기둥을 세워 벽면을 수직분할 하였다.



▲ 정면



▲ 창문부 상세

창문은 1층은 평아치, 2층은 반원아치형으로 구성하여 각각 목재 오르내리창을 설치하였고, 지붕은 모임지붕에 기와를 이었는데, 지붕면에는 사각형 탑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3

3) 大邱市 : 앞책

개씩의 도머(domer)창을 설치하였다. 내부 바닥은 인조석 물갈기, 벽은 회반죽, 천장은 흰치가 있는 격자형 보를 설치하였는데 천장 갓 둘레는 몰딩하고 내벽과 함께 회반죽으로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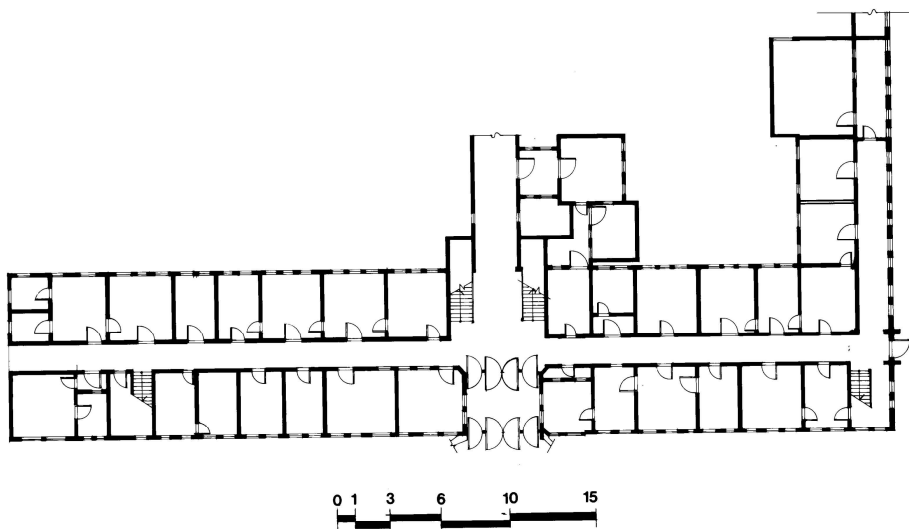
이 건물의 특징은 방형(方形)지붕을 이은 사각탑(Turret)과 반원아치(Arch)형 수직창, 페디먼트(Pediment), 지붕면의 도머(Domer)창, 난간벽의 치형(齒形) 장식수법, 화강석 다듬돌로 구성된 수평돌림띠(Cornice) 등의 형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정면성과 대칭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이 건물은 역사적, 건축사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의 랜드마크적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 현관



▲ 복도, 계단실



경북의대병원 본관 1층 평면도

66. 구, 대구삼덕초등학교 본관 (대구삼립정공립보통학교 본관)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3-316번지
- 건축년대 : 1939년 건립, 1982년 철거
- 건축유형 : 교육(학교)
- 설 계 자 : 경상북도 영선계
- 시 공 자 : 아사로꾸미(屋代組)
- 규 모 : 지상 2층(연면적, 1,602㎡)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현 대구삼덕초등학교는 1938년 3월 12일 설립인가(設立認可)를 받아 그 해 4월 6일 대구 덕산공립심상소학교(大邱德山公立尋常小學校)로 개교하여 1939년 8월 본관, 1942년 12월에 남관(南館)을 건축하였다. 1946년 3월 29일에는 삼덕국민학교로 개칭되었으며,⁴⁾ 1950년 6, 25 때는 육군병원으로 징발되었다가 1955년 2월부터 삼덕국민학교에서 교사로 사용하다 1982년 새 교사를 짓기 위해 철거하였다.

대구삼덕초등학교 본관은 1939년 일제가 대구의 식민지 교육을 위해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남쪽 운동장을 향하여 동서(東西)로 길게 배치된 벽돌쌓기 2층 건물로 지붕은 모임 지붕에 일본식 기와를 이었다.



▲ 정면부



▲ 배면

평면은 一字形으로 북쪽에 편복도를 두고, 남향하여 관리실과 일반교실을 줄지어 배열하였다. 구조는 콘크리트 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벽을 구성하고, 교실 한 칸을 단위로 불임기둥을 설치하여 벽면을 수직 분할하였다. 창문은 평 아치형에 미서기창을 달았는데 1층 밀인방은 상호 연결시켜 수평 돌림띠처럼 구성하고, 하부 벽과 함께 몰탈로 마감하였으며, 2층의 창 상부(上部)는 치형(齒形) 장식물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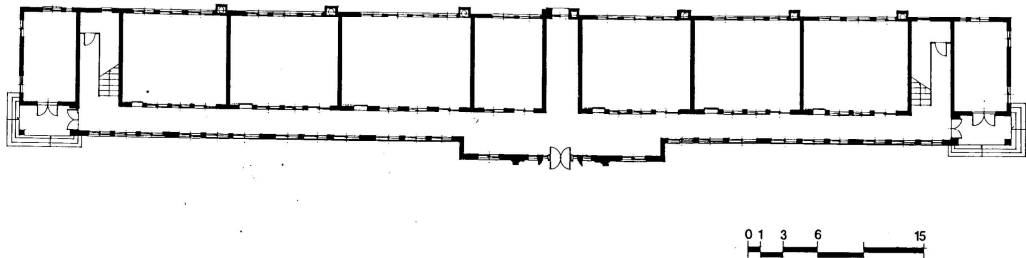
외관 구성에서는 현관 포치(Porch)부의 페디먼트(Pediment) 장식, 벽면의 수직분할, 창인방의 수평 돌림띠 구성과 치형(齒形) 장식, 처마부의 몰딩 등으로 정면을 수직적이거나 장

4) 三德國民學校 沿革誌, 閱覽(庶務課)

식적으로 처리한 것이 특징이다. 내부 바닥은 목재 장마루판, 징두리벽은 널판재를 세로로 붙였고, 나머지 벽은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다.



▲ 내부 복도



구 대구삼덕초등학교 본관 1층 평면도

67. 구, 대구삼덕초등학교 남관 (대구삼립정공립보통학교 남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3-316번지
- 건축년대 : 1942년 건립, 1982년 철거
- 건축유형 : 교육(학교)
- 설계자 : 경상북도 영선계
- 시공자 : 야시로꾸미(屋代組)
- 규모 : 지상 2층(연면적, 1,591.15㎡)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현 대구삼덕초등학교 남관(南館)은 1942년 12월에 건축되어 1950년 6, 25 때는 육군병원으로 징발되었다가 1955년 2월부터 삼덕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사용하다 1982년 새 교사를 짓기 위해 철거하였다.

삼덕초등학교 운동장의 북쪽에 본관과 나란하게 배치된 벽돌쌓기 2층 건물로 모임지붕에 골함석을 이었으며, 정면 중앙에 현관을 두어 본관의 현관과 직접 연결하였다. 평면은 一字形으로 북쪽에 편복도를 두고, 남향하여 일반교실을 배열하였다.

외관은 본관과 같이 콘크리트 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벽을 구성하고, 교실 한 칸을 단위로 붙임기둥을 설치하여 벽면을 수직 분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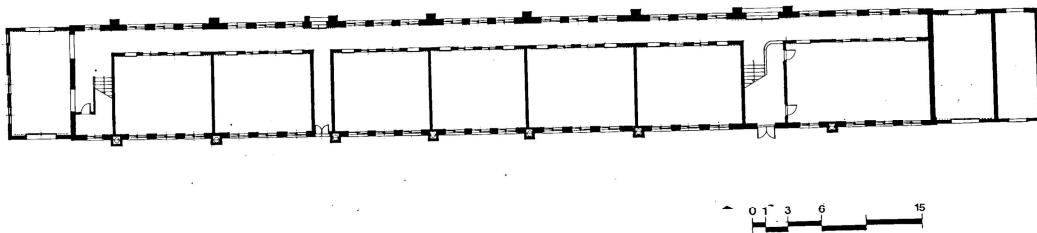
창문은 평 아치형에 미서기창을 달았는데 1층 밑인방은 상호 연결시켜 수평 돌림띠처럼 구성하고, 하부 벽과 함께 몰탈로 마감하였으며, 2층의 창 상부(上部)는 치형(齒形) 장식물을 붙였다. 내부 바닥은 목재 장마루판, 징두리벽은 널판재를 세로로 붙였고, 나머지 벽은 몰탈로 마감하였다.



▲ 배면



▲ 창문, 처마부 상세



구 대구삼덕초등학교 남관 1층 평면도

68. 박정문 주택 (은행원 사택)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 3가 122번지
- 건축년대 : 1930년대 중반
- 건축유형 : 주거(사택)
- 규 모 : 지상 1층
- 구조 및 양식 : 목조, 일·양절충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사택은 일제가 1935년경 학교, 은행 종사자들을 위해 건립한 목조의 일·양절충식 주택이다. 해방 후 한국인이 거주해 오면서 여러 차례의 증·개축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었다.

이 집의 외관은 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목조 심벽(心壁)을 구성하고, 시멘트 뿔칠로 마감하였으며, 지붕은 박공지붕에 일식(日式)기와를 이었다.



▲ 전경

평면은 북쪽 중앙의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하녀방(女中室)과 가족 생활공간인 차노마(茶の間)를 두고, 후정(後庭)에 면한 남쪽으로 집객 및 가장(家長)의 거주공간으로 사용되는 자시키(座敷)와 자시키의 보조공간인 쓰기노마(次の間)를 연결 배치한 쓰즈끼마(續の間)로 구성되어 있다.

자시키(座敷)의 앞쪽에는 후정(後庭)과 좌측 끝에 위치한 변소로의 출입을 위해 엔가와(縁側)를 부설(附設)하였으며, 우측 끝에는 욕실, 부엌 등 설비공간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거주실 바닥에는 모두 다다미를 깔았으며, 자시키(座敷)의 내부에는 도코노마(床の間)와 찌가이다나(違の柵), 나게시(長押) 등을 설치하여 격식을 갖추었다.

차노마(茶の間)와 쓰기노마(次の間)에는 오시이레(挿入れ)를 설치하였고, 실 사이는 4짝 후스마로 처리하여 공간의 개방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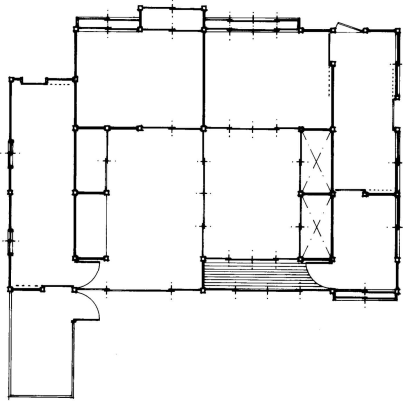
욕실에는 가마솥 모양의 철제 욕조를 시설하였고, 부엌은 취사기능만을 수행하는 공간의 특성상 거주실과 같은 높이로 처리하여 바닥에는 목재 마루판을 깔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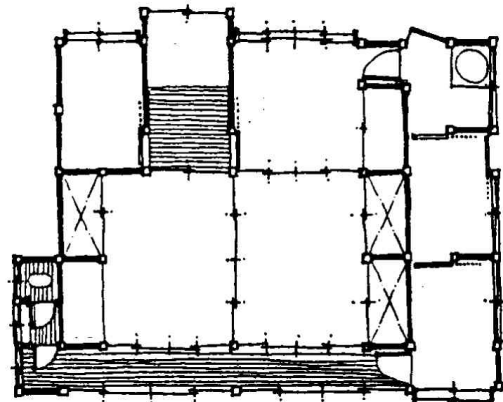
▲ 지붕



▲ 내부



박정문 주택 실측도



박정문 주택 복원 평면도

69. 구, 대구삼덕초등학교장 관사 (대구삼립정공립보통 학교장 관사)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3가 221번지
- 건축년대 : 1939년경
- 건축유형 : 교육(학교)
- 규모 : 지상 1층
- 구조 및 양식 : 목조, 일·양절충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집은 1943년경에 건립된 대구삼립정공립보통학교 교장 관사로 대지의 북쪽에 건물을 배치하고, 남쪽에 넓은 정원을 구성하였다.

이 관사는 목조 1층의 일·양절충형(日·洋折衷形)으로 북쪽에 현관을 둔 중북도형이다. 북쪽 중앙의 현관과 연결되는 중북도를 중심으로 좌측에 응접실, 자시키(座敷), 우측에는

자녀실(子供室), 하녀방(女中室), 욕실과 부엌을 배치하였다. 자시키(座敷)의 앞쪽에는 긴 복도(縁側)를 부가하여 실내(室内)에서 남쪽 정원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

외관은 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목조 심벽(心壁)을 구성하고, 시멘트 뿔칠로 마감하였으며, 지붕은 박공지붕에 일식(日式)기와를 이었다.

거주실 바닥에는 모두 다다미, 자시키에는 도꼬노마(床の間)⁵⁾와 찌가이다나(違い柵)⁶⁾, 나가시(長押)⁷⁾ 등을 설치하여 격식을 갖추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차노마(茶の間)와 쓰기노마(次の間)에는 오시이레(挿入れ)⁸⁾를 설치하였고, 실 사이에는 4짝 후스마로 처리하여 공간의 개방성과 융통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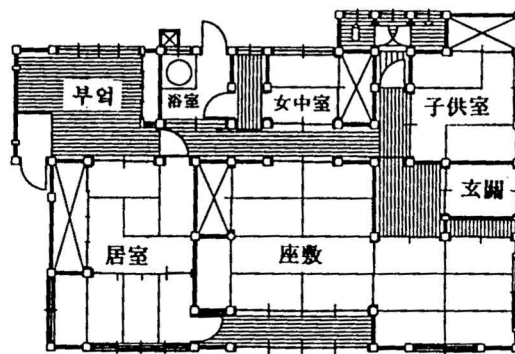
내부의 바닥은 다다미와 마루판을 깔았고, 벽은 회반죽, 천장은 井字살을 짜고 그 사이에 판재를 끼워 넣었다. 욕실에는 가마솥 모양의 철재 욕조를 시설하였고, 부엌 바닥은 거주실과 거의 같은 높이로 처리하여 목재 마루판을 깔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 전경



▲ 정면



구 대구삼덕초등학교장 관사 평면도

- 5) 家長의 거주공간인 자시키(座敷)의 일부에 바닥을 한 단 높여 만든 격식을 갖춘 장식공간으로 족자나 꽃, 장식품등으로 꾸밈.
- 6) 자시키의 도꼬노마 옆에 설치한 장식선반
- 7) 집의 격을 높이기 위해 장식한 중인방
- 8) 생활용품의 수납을 위해 방의 한쪽 벽면에 설치한 반침.

70. 구, 대구초등학교 본관 (대구공립보통학교 본관)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57번지
- 건축년대 ; 1921년 건립, 1989년 철거
- 건축유형 : 교육(학교)
- 규 모 : 지상 2층(연면적, 1,492.48㎡)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 근대교육이 시작될 무렵까지 조선의 교육제도는 중앙의 성균관(成均館), 사학(四學)과 지방의 향교(鄕校), 서원 및 서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⁹⁾ 교육 및 문화의 도시로 알려진 大邱郡內(大邱府 管轄內)에는 당시 24개의 서원이 있었는데 1871년(高宗 8年)에 대부분 철폐되었으나 서당(書堂), 서관(書館)의 이름으로 존재하면서 천문학(天文學), 소학(小學), 통감 외 사서삼경(四書三經) 등을 강술해 왔다.¹⁰⁾

이러한 한학(漢學)과 유학(儒學) 중심의 교육제도는 1876년 개항 이후 서구의 신문화(新文化)를 섭취하려는 신교육에 대한 열망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되었다.

대구에서 신교육의 호시(嚆矢)는 1899년 경상도 관찰 영내에 설립한 사립 달성학교(達成學校)이며 뒤이어 1902년부터는 선교사들에 의한 미션(Mission)계 대남남자소학교(大南男子小學校)와 신명여자소학교(信明女子小學校, 1902), 계성학교(啓聖學校, 1906)¹¹⁾ 등과 일본인에 의한 대구공립보통학교(大邱公立普通學校, 1906),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大邱公立高等普通學校, 1906) 등이 설립되었다.

1908년 일제는 사립학교령(私立學校令)을 공포하여 사학(私學)에 대하여 규제를 가한 후에 1911년 “조선교육령(朝鮮教育令)”을 시행하면서 중학교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사학의 설립을 억제하고, 관학(官學)을 중심으로 보통학교 교육을 확대해 나갔다.

이 교육령의 내용은 첫째, 일본어를 국어로 하여 가장 큰 역점을 두었고, 둘째, 일본화(日本化)의 도덕교육강화, 셋째, 민족문화의 말살, 넷째, 식민지 경영에 맞는 실업교육의 강화였으며, 일반중등교육을 거의 불허함으로써¹²⁾ 대구공립농림학교(大邱公立農林學校, 1910), 대구명신학교(大邱明信學校, 1910), 대구공립수창보통학교(1914), 대구공립고등학교(1910), 대구여자보통학교(1919), 대구교남학원(1921) 등이 설립되었다.

1921년 3.1운동 후에는 문민정책의 일환으로 1922년 “개정조선교육령”을 마련하여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구에 식민지교육을 위한 대구공립중학교(1921), 대구공립상업학교(1923), 관립 대구사범학교(1923), 대구공업학교(1925), 경북공립고등여학교(1925) 등이 설립되었다.

현 대구초등학교는 1899년 7월에 설립된 사립 달성학교의 심상파를 인수하여 1906년 9월

9) 이광선 외 : 근대 한국 초등학교의 건축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건축학회 논문집 3권 4호 (87.12월호)

10) 대구시 : 앞책, p.97

11) 대구시 : 앞책

12) 대구시 : 앞책

설립되어 1911년 “조선교육령”의 시행으로 대구공립보통학교로 개칭되고 1921년 7월에는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46년 대구국민학교로 개칭되었으며, 6·25동란 중 한때 육군 병참실로 사용된 적이 있었으나 대구국민학교에서 낡은 지붕과 내부 바닥 및 천장 등을 수리하여 사용해오다. 1989년 6월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철거하였다.



▲ 정면

구 대구초등학교 본관은 1921년에 일제가 대구의 식민지 교육을 위해 지은 건물이다. 건물의 설계는 경상북도 영선계 소속의 일본인 기사가 하고 건축공사는 당시 대구에 있던 일본인 민간건설업체에서 하였다. 이 건물은 남쪽 운동장을 향하여 동서로 길게 배치된 일자형의 벽돌조 2층 건물로 정면 중앙의 현관 포치(Porch)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었다.

평면은 一字形으로 북쪽에 편복도를 두고, 남향하여 교실의 한 단위를 일차원적으로 반복 배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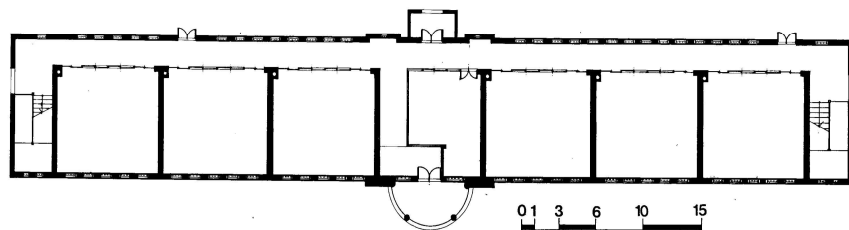
▲ 정면 돔



▲ 내부 복도

외관은 콘크리트 기초 위에 벽돌을 쌓아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였고 벽면에는 목재 오르내리창을 설치하였는데 정면 중앙의 현관 포치와 동판(銅版)을 이은 대형 돔(Dome), 세로로 긴 창과 붙임벽(Buttress), 굴뚝 등이 대칭성과 수직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주 출입구가 위치하는 중앙부는 다른 부분보다 수직적이거나 장식적인 처리를 하여 식민지 통치이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듯하였다.

내부 바닥은 장마루판, 벽은 회반죽 마감이고, 천장은 널판재 마감이며, 난방은 굴뚝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난로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 대구초등학교 본관 1층 평면도

71. 배재범 주택 (대구공립상업학교 관사)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 1동 130 -6번지
- 건축년대 : 1935년경
- 건축유형 : 주택(학교)
- 규모 : 지상 1층
- 구조 및 양식 : 목조, 일·양절충식
- 건축연혁 및 현황

이 집은 1935년경 일제가 대구공립상업학교 교사들의 관사로 건립한 목조의 1층의 일·양절충형(日·洋折衷形) 주택으로 대지의 북쪽에 건물을 배치하고 남쪽으로 정원을 구성하였다.

외관은 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목조 심벽(心壁)을 구성하고, 벽은 시멘트 뽕칠로 마감하였으며, 지붕은 모임지붕에 일식(日式)기와를 이었다.

평면구성은 남쪽의 중앙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에 접객 및 가장의 거주공간으로 사용되는 자시키(座敷)와 자시키의 보조공간인 쓰기노마(次の間)를 연결 배치하고, 그 뒤쪽에 가족의 생활공간인 차노마(茶の間)와 욕실, 부엌 등을 배치하였으며 자시키 뒤쪽에는 변소와의 출

입을 위해 엔가와(緣側)¹³⁾을 부가하였다. 거주실 바닥에는 모두 다다미, 자시키에는 도꼬노마(床の間)¹⁴⁾와 찌가이다나(違い柵)¹⁵⁾, 나게시(長押)¹⁶⁾ 등을 설치하여 격식을 갖추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차노마(茶の間)와 쓰기노마(次の間)에는 오시이레(挿入れ)¹⁷⁾를 설치하였고, 실 사이에는 4짝 후스마로 처리하여 공간의 개방성과 융통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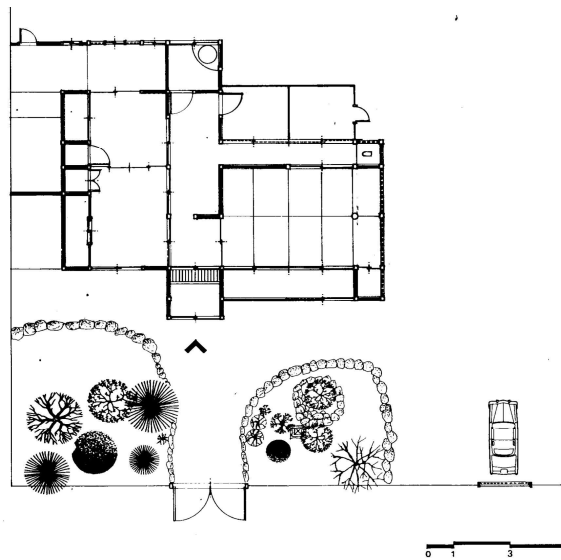


▲ 전경



▲ 정면 현관

내부의 바닥은 다다미와 마루판을 깔았고, 벽은 회반죽, 천장은 井字살을 짜고 그 사이에 판재를 끼워 넣었다. 욕실에는 가마솥 모양의 철재 욕조를 시설하였고, 부엌 바닥은 거주실과 거의 같은 높이로 처리하여 목재 마루판을 깔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배재범 주택 평면도

- 13) 변소, 욕실로의 출입을 위해 설치한 복도.
- 14) 家長의 거주공간인 자시키(座敷)의 일부에 바닥을 한 단 높여 만든 격식을 갖춘 장식공간으로 죽자나 꽃, 장식품등으로 꾸밈.
- 15) 자시키의 도꼬노마 옆에 설치한 장식선반
- 16) 집의 격을 높이기 위해 장식한 중인방
- 17) 생활용품의 수납을 위해 방의 한쪽 벽면에 설치한 만침.

72. 공무원연금공단 (대구공립상업학교 본관)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60-10번지 3필지
- 건축년대 : 1923년 건립
- 건축유형 : 교육(학교)
- 규 모 : 지상 2층, 지하 1층(연면적, 1,305.08㎡)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1922년에 공포된 “개정조선교육령(改正朝鮮敎育令)”에 의하여 실업교육(實業敎育), 실용교육(實用敎育)에의 치중과 급격한 인구팽창으로 교육도시, 상공업도시의 면모를 갖춘 대구에서는 상업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대구상업고등학교는 1923년 2월 16일 설립인가(設立認可)를 받고 3월 29일에 당시 일본인 학교인 대구중학교의 교사 일부를 빌어 개교하였다¹⁸⁾. 그 해 8월 6일에는 신축교사 중의 본관이 준공되어 이전해 오고, 1924년 7월에는 중관(中館)과 강당이 준공되었다.

1924년 이후 이들 건물은 대구상업학교의 교사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5년 1월 대구상업고등학교가 외곽지로 이전해감으로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인수, 사무실과 후생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의 간막이벽 일부와 창문 등을 개조 또는 교체하였다.



▲ 위에서 본 모습

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후생관은 일제가 대구지역의 실업인 양성을 위해 1923년 3월에 건립한 공립상업학교 본관 건물이다. 이 건물은 서쪽 도로에 인접한 一字形의 벽돌조 2층으로 정면 중앙의 현관 포치(Porch)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이다.

평면은 정면 중앙의 주 출입구와 연결하여 서쪽에 편복도를 두고, 뒤쪽에 동향(東向)하여 교실을 배열하였다. 외관은 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고, 지붕은 모임지붕에 마름꼴의 석면슬레이트를 이었는데 정면의 현관 포치(Porch)는 화강석 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붙인 한 쌍의 원주(圓柱)와 각주(角柱)를 세워 슬라브 지붕을 구성하고,

18) 大商50年史 編纂委員會：大商 50年史

화강석 다듬돌을 쌓은 파라펫(Parapet)에는 원형(圓形) 장식물을 줄지어 배열하였다.

또한 포치의 위는 사각탑 [Turret] 처럼 구성하여 벽면을 인조석으로 마감하였고, 양 날개부도 벽면을 동일하게 꾸며 그 위를 페디먼트(Pediment)로 장식하였다



▲ 정면



▲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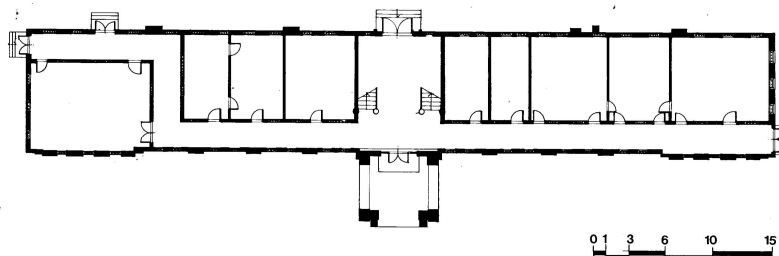
이 건물은 이 지역 상업교육의 요람으로써의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의 랜드마크적 역할도 해오고 있다. 내부 간막이벽, 창호, 마감재 등의 일부가 바뀌었지만 건물 전체의 형태 및 내부구조는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어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물이다.



▲ 창문 상세



▲ 복도



구 대구공립상업학교 본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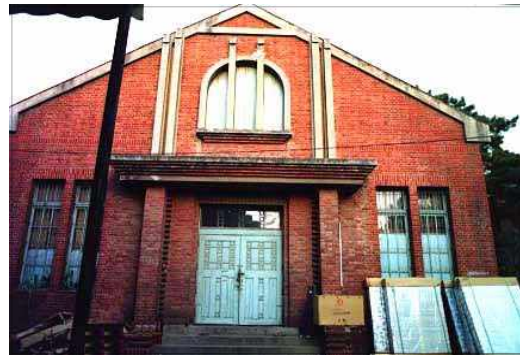
73.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사무소 창고2 (대구공립상업학교 강당)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60-10번지의 10필지
- 건축년대 : 1924년 건립
- 건축유형 : 교육(학교)
- 규모 : 지상 1층(연면적, 470.3㎡)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구사무소 창고는 1924년 일제가 대구지역의 실업인 양성을 위해 건립한 공립상업학교 강당이다. 이후 이 건물은 대구상업학교 강당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5년 1월 대구상업고등학교가 외곽지로 이전해감으로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인수하여 상품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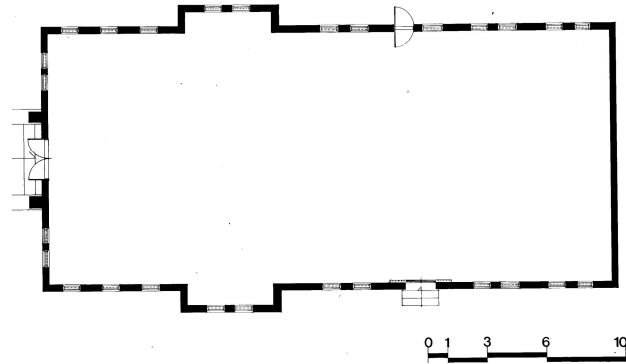
▲ 전경



▲ 정면

대구상업학교 강당은 동서로 긴 장방형으로 서쪽에 주 출입구를 두고 맞은편에 무대와 준비실을 둔 붉은 벽돌쌓기 단층 건물이다. 지붕은 환기구가 설치된 박공지붕에 석면슬레이트를 이었으며, 정면 중앙의 현관 포치(Porch)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이다. 현관 포치(Porch) 위에는 말굽형 고창을 설치하고, 그 양쪽에 포치의 기둥과 연결된 붙임기둥과 말굽형 창을 3등분하는 2개의 주형(柱形) 장식물을 세워 인조석으로 마감하였으며, 벽면에서 돌출된 창인방과 박공판을 각각 인조석으로 장식함으로써 건물의 정면성과 대칭성을 강조하고 있다. 출입문은 목재 양판문이고, 내부의 바닥은 목재 장마루판, 벽은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다.

이 건물은 본관과 함께 이 지역 상업교육의 요람으로써의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의 랜드마크적 역할도 해오고 있다. 창호, 마감재의 일부가 바뀌었지만 건물 전체의 형태 및 내부구조는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어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를 지닌 건물이다.



구 대구공립상업학교 강당 평면도

74. 경북대 사범대학부속중학교 본관 (대구사범학교 본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60-18의 3필지
- 건축년대 : 1923년 건립
- 건축유형 : 교육(학교)
- 규모 : 지상 2층(연면적 : 1,293.9㎡)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대구사범학교(大邱師範學校)는 1923년 4월 경상북도 도립 사범학교로 개교되어 1929년 4월 관립 대구사범학교로 개칭되었다. 1946년 10월 15일에는 대구사범학교 본과(本科)가 국립 사범대학으로 승격되고 심상과(尋常科)는 대구사범대학 부속중학교로 개편되었으며, 1951년 10월에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로 개칭되었다¹⁾.



▲ 정면부

1) 慶北師大附中三十年史 : pp. 37~38.

현 본관은 1923년 개교 당시에 건축된 것으로 1972년 2월 1일 화재로 건물 내부 목재부분이 전소(全燒)되고 외벽 벽돌구조부만 남아 있었으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원형대로 복구되어 현재까지 경북사대 부속중학교 교사로 사용되고 있다.

이 건물은 북쪽 도로에 인접하여 一字形으로 배치된 벽돌조 2층 건물로 정면 중앙의 현관 포치(Porch)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이다. 평면은 정면 중앙의 주 출입구와 연결하여 북쪽에 편복도를 두고, 현관 홀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리실과 일반교실을 배치하였다.

외관은 정면 중앙에 현관 포치를 두고 포치 위에는 페디먼트로 장식한 지붕을 얹었으며, 정면 좌우측 지붕에는 각각 페디먼트를 설치하여 인조석 셋어내기로 장식하였다. 현관 포치부는 화강석의 각형 주초 위에 화강석으로 다듬은 구형장식물과 각주를 한 쌍으로 좌우에 세워 슬라브 지붕을 덮었고, 슬라브 지붕의 파라펫 주벽에는 원형 돌출 장식물을 줄지어 배열하였다. 또한 정면의 중앙부 지붕에는 페디먼트로 장식한 박공지붕을 얹어 기와를 이었다. 벽면은 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구성하였으며, 처마부는 벽돌 내쌓기로 수평 돌림띠를 구성하였다. 창문은 평아치형으로 밀인방은 상호 연결하여 수평띠를 구성하여 목재 오르내리창을 설치하였다.

내부의 바닥은 목재 장마루판이었으나 인조석 물갈기로 개조되었고, 천장도 긴 널판재를 석고판으로 바꾸었으며, 벽은 페인트로 마감하였다. 이 건물은 1972년 화재(火災)로 내부 목재 부분이 전소(全燒)되었으나 원형(原型)대로 복구되어 건립 당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건축사 연구의 자료적 가치도 간직하고 있다.



▲ 배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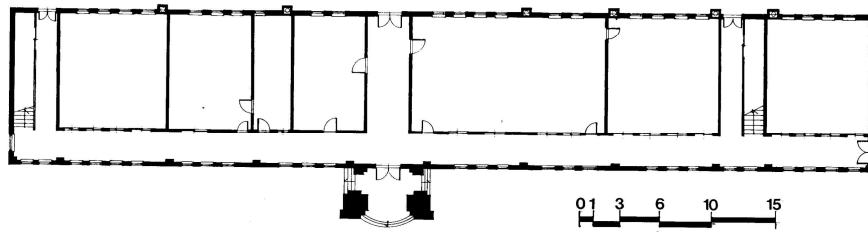
▲ 현관부



▲ 창문 상세



▲ 복도



경북대 사범대학부속중학교 본관 1층 평면도

75. 경북대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강당 (대구사범학교 강당)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60-18의 3필지
- 건축년대 : 1925년 건립
- 건축유형 : 교육(학교)
- 규모 : 지상 1층(연면적, 404.64㎡)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이 건물은 일제가 1925년 대구사범학교 강당으로 건립하였으며, 1951년부터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속중·고등학교 강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속중·고등학교 강당은 벽돌조 단층 건물로 박공지붕에 기와를 이었으며, 정면 중앙의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대칭이다,



▲ 전경



▲ 정면

평면은 동서로 긴 장방형으로 서쪽에 주 출입구, 그 맞은편에 무대와 준비실을 두고, 우측 두 곳에 부 출입구를 설치하였다. 외관은 화강석 줄기초 위에 버팀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 붉은 벽돌로 쌓았으며, 양 측면의 모서리는 화강석 버팀기둥으로 보강하였다. 배면 중앙부는 정면과 같이 구성하여 벽면을 모자이크 장식하였다. 창문은 목재 오르내리창, 출입문은 쌍여닫이 목재 양판문이다. 이 건물은 창 인방부와 처마부에 화강석을 내쌓기 하거나 돌출, 상호 연결시켜 돌림띠처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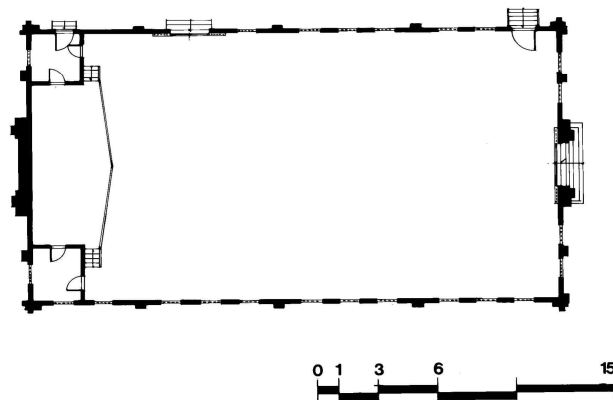
이 건물은 1925년 일제가 대구사범학교 강당으로 지은 것으로 1999년 일식기와를 아스팔트 성글로 교체 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원형을 잘 유지되어 있다. 건축의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당시의 건축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건물이다.



▲ 창문부 상세



▲ 내부



경북대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강당 평면도

76. 육군장교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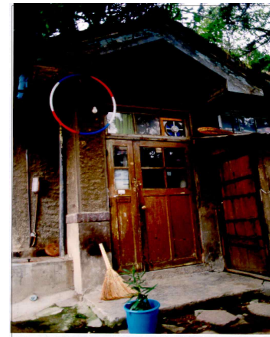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 건축년대 : 1933년 건립,
- 건축유형 : 주택(관사)
- 규모 : 지상 1층
- 구조 및 양식 : 목조, 일·양절충식(日·洋折衷式)
- 건축연혁 및 현황 :

일제는 1933년 현 봉산동 일대에 일단의 대지(垓地)를 조성하고, 대구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장교들의 관사를 집단적으로 건립하였다. 이들 관사들은 목조의 1층의 일·양절충형(日·洋折衷形)으로 기본평면은 북쪽에 현관을 둔 중복도형이다. 북쪽 중앙의 현관 포치(Porch)을 중심으로 좌측에 응접실, 우측에는 침실을 두고, 중복도의 앞쪽으로는 자시키(座敷)와 차노마(茶の間)를, 우측 끝에는 욕실과 부엌을 배치하였다. 자시키(座敷)의 앞쪽에는 긴 복도(縁側)를 부가하여 실내(室内)에서 남쪽 정원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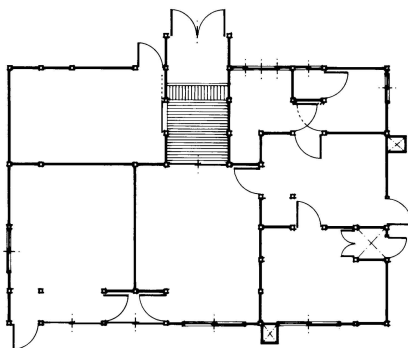
외관은 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목조 심벽(心壁)을 구성하고, 목재 비늘판과 시멘트 뿔칠로 마감하였으며, 지붕은 박공지붕에 일식(日式)기와를 이었다. 내부의 바닥은 다다미와 마루판을 깔았고, 벽은 회반죽, 천장은 井字살을 짜고 그 사이에 판재를 끼워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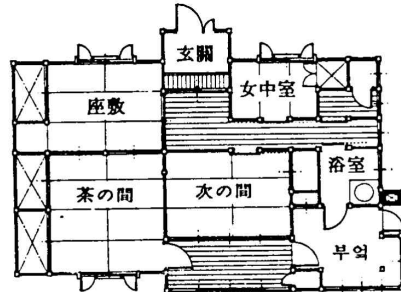
▲ 전경



▲ 주 출입구 현관



육군장교관사 복원 평면도



육군장교관사 복원 평면도

77. 구, 대구측후소 (대구측후소)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716-4번지
- 건축년대 : 1937년 건립, 1997년 철거
- 건축유형 : 공공(관청)
- 설 계 자 : 시라이(百井)
- 시 공 자 : 야시로꾸미(屋代組)
- 규 모 : 지상 5층(연면적, 554.7㎡)
- 구조 및 양식 : 철근콘크리트조, 표현주의 양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1903년 일본은 노일전쟁(露日戰爭) 후 조선반도에 대한 기상관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산을 비롯한 5개소에 임시 관측소를 설치하였다. 1907년 3월 통감부 관측소의 관제가 제정되자 인천 임시관측소는 통감부 관측소로 되고, 대구에는 통감부 관측소의 지소가 중구 포정동 27번지에 설치되었다. 그 후 1908년 3월에는 통감부 관측소 관제가 폐지되어 한국 정부의 관하로 되었으나 1910년 한일합방으로 다시 총독부 관제로 들어가게 되었다.

1916년 1월에는 대구관측소가 덕산정(德山町, 현 덕산동) 34번지의 청사로 이관하여 관측 업무를 해 오다가 1913년 4월 1일부터 조선총독부 관할에서 경상북도로 이관되면서 시설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1936년 12월 21일에는 신암동 신 청사를 준공하여 기계설비를 갖추고 1937년 1월 1일부터 관측업무를 개시하였으나 1939년 일제의 세계대전 준비로 다시 경상북도 관할에서 총독부 관할로 이관되었다가 1948년 8월 15일 국립 중앙관상대 대구측후소로 개칭되었다.

1950년 6.25 때는 군사적 필요에 의해 유엔군과 한국군의 공군부대에서 사용해 오다가 1962년 교통부로 이관되고, 1967년에는 과학기술처 소속으로 바뀌었으며, 1970년 7월 18일 중앙관상대 부산지대 대구관측소로 개칭되어 업무를 보아오다 1997년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철거하였다.

구 대구관측소는 대륙침략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을 획책하던 일제가 1937년에 이 지역의 기상관측을 위해 지은 건물이다. 건물의 설계는 일본인 시라이(百井)가 하고, 건축공사는 당시 대구에서 성업하던 야시로꾸미(屋代組)에서 맡았다.

이 건물은 대구시 동구 신암동의 언덕 위에 남서향으로 배치된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로 평면 및 외관구성에서 표현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띄고 있다.

평면형은 당시 쌍엽기로 불리어 졌던 전투용 비행기의 모양과 흡사하고, 외관구성에서는 건물의 2층 중앙부가 비행기의 머리부분을, 현관 포치(Porch)를 떠받치고 있는 양 쪽 기둥과 계단부의 둥근 난간은 쌍엽기의 몸체 다리와 바퀴, 2층 옥상의 넓은 슬라브 지붕은 날개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건물 내부 계단실에 있는 원형창은 대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게 설치되어 마치 비행기의 안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러한 표현주의적 경향 외에 이 건물에 보이는 건축적 특징은 창문 하단부의 수평돌림 띠와 슬라브 지붕에 의해 강조된 수평선, 모서리벽의 물딩수법, 정면부의 타일마감 등과 계단실 원형창의 아르누보적 장식수법, 특히 남쪽을 향해 날아가려는 듯한 건물의 형상 그리고 2층 내부의 모서리 기둥을 유리벽으로 감싸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한 것 등이다.

이러한 공간구성 수법은 독일의 건축가 월터 그로피우스(W. Gropius)가 1911년에 최초로 알프레드(Alfred)의 구두공장에 시도했던 것으로 20년이 지난 1936년에 일본의 식민지인 한반도에서 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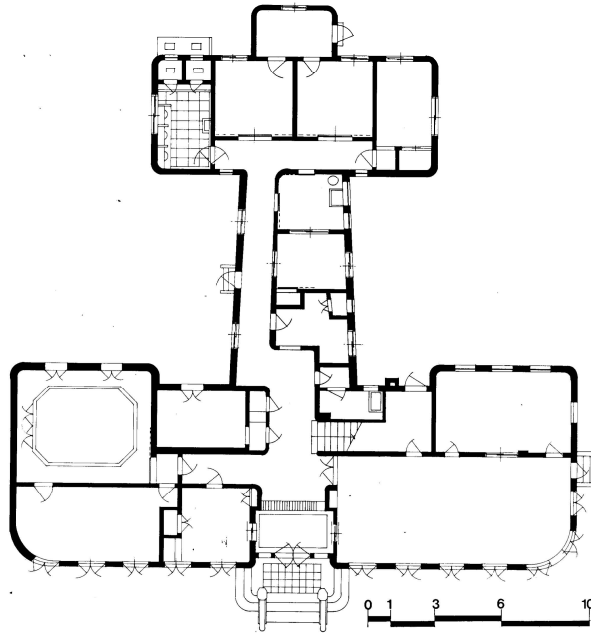
▲ 전경



▲ 주 출입구 포치부

이 건물이 지어진 1930년대 중반 일본은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서구의 근대건축을 학습하던 시기였다. 그리하여 당시 일본의 건축가들은 서구건축을 모방한 건축의 모험적 실험작품을 식민지였던 한국에서 과감히 시도해 본 것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이와 같이 대구관측소는 1930년대에 건축된 건축물로서는 보기 드물게 서구 근대건축의 이념과 당시 일제의 의지를 잘 대변해주는 건축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건물은 1936년 이후 대구시민들의 랜드마크적 역할뿐만 아니라 기상정보 제공처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온 역사적 건물이었으나 철거되어 아쉬움이 많다.



구 대구측후소 1층 평면도

78. 광복회 대구 경북 연합지부 (朝陽會館)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산 234-33번지
- 건축년대 : 1922년 건립, 1984년 이건
- 건축유형 : 공공(사회, 문화)
- 설 계 자 : 윤학기
- 시 공 자 : 중국인 기술자
- 규 모 : 지상 2층, 지하 1층(연면적, 837.088㎡)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조양회관(朝陽會館)은 항일 민족주의자 동암 서상일(東庵 徐相日)이 1922년 이 지역 청년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정신적 계몽을 펼치기 위해 대구구락부(大邱俱樂部)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건립한 건물이다.

서상일은 당시 중국, 만주 등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중 귀국하여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투옥(投獄)되었다. 출옥(出獄) 후에는 민족의 진정한 독립을 찾는 길은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의식을 깨우치는 길이라 생각하고, 고향인 대구에 내려와 동아일보 지국장

(支局長)을 맡아 대구의 뜻 있는 인사들과 대구구락부(大邱俱樂部)라는 친목단체를 결성하여 회원들에게 청년을 교육하고, 각종 강연회를 열 수 있는 민족의식의 구심점이 될 회관 건립을 발의(發議)하였다.

당시 대구구락부 회원은 대구 사회의 지도적 인물들로서 회관 건립을 위한 건축비를 회원 각자가 일정액씩 분담하기로 결의하고, 1922년 4월 서상일이 제공한 중구 대신동 1번지(현 달성공원 입구)의 약 500평의 대지에 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러나 이 건물이 장차 민족운동의 본거지로 사용될 것을 염려한 일본 고등계 형사들이 회원들의 건축비 지원을 방해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고, 모든 건축비를 서상일이 떠맡게 되었다²⁾. 그리하여 서상일은 벽돌값으로 성주에 있던 논과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산대뭇을 넘겨주는³⁾ 등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1922년 10월 30일 건물이 완공되자 “아침해가 비치는 곳”이라는 뜻으로 건물 이름을 조양회관(朝陽會館)이라 하고 이 때부터 대구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건물의 설계는 당시 대구에서 건축업을 하던 윤학기가 하고, 공사는 벽돌공장을 경영 하던 백남채의 감독 하에 중국인 기술자들이 맡았다. 건물 내에는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비롯하여 회의실, 사무실, 인쇄공장, 대구구락부, 대구운동협회, 대구여자청년회, 동아일보지국 등을 두고 시국강연, 국산품애용, 상공업진흥 등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야간에는 야학으로 청소년을 가르치고, “農村”이라는 잡지도 발간하였다.



▲ 전경

1930년대 후반에는 대구부립도서관,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 막바지에는 일본군 보급부대가 주둔하였고, 해방 후에는 한민당 사무실, 1950년 6.25시에는 유격대 병원으로 징발되기도 하였다. 1955년부터는 원화여자중·고등학교에서 교무실, 도서실, 양호실 등으로 사용해 왔으나 1980년 원화여자중·고등학교의 외곽지 이전으로 월성산업(주)이 인수하여 1982년 대구시에 기부하고 1984년 6월 현 위치에 원형테로 이전하여 현재 광복회 대구·경북 연합지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2) 대구직할시 : 대구의 향기, 1972, pp,114~115

3) 대구직할시 : 앞책, pp, 114~115



▲ 좌측면



▲ 창문부 상세

조양회관은 붉은 벽돌조 2층 건물로 중앙의 현관 포치(porch)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2층 벽면을 반원 아치창과 페디먼트로 장식하여 르네상스 풍의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평면은 장방형으로 좌우 날개부의 계단실을 전면(前面)으로 약간 돌출 시키고, 정면 출입구의 포치를 중심으로 十字형의 중복도를 두었으며, 대칭을 고려하여 외관과 함께 중앙 축선(軸線) 좌우에 균등하게 창문을 배치함으로써 유축대칭형(有軸對稱形)으로 구성하였다.

외관은 화강석 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벽면을 구성하고, 정면 중앙부의 포치와 페디먼트(Pediment)를 중심으로 평아치창을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였으며, 창문의 상하(上下)에는 화강석 평인방을 설치하여 대칭성과 수평성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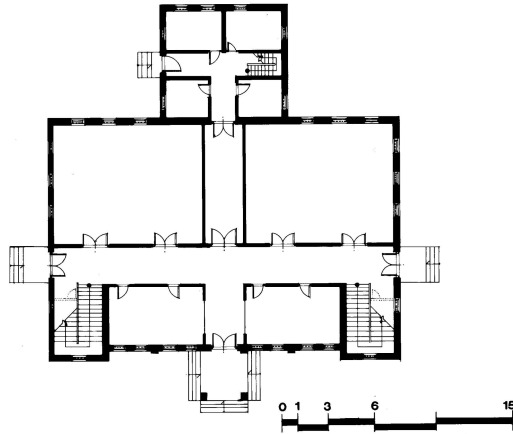


▲ 포치부



▲ 내부

내부의 바닥은 목재 장마루판, 벽면은 회반죽으로 마감하였으며, 특히 주 출입구와 창문의 트레서리(Tracery), 계단 엄지기둥, 난간두겹 등의 장식 수법이 정교하다. 현재 광복회 대구, 경북 연합지부 사무실로 사용하고있는 조양회관은 지금까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고, 건물이 갖는 역사적(歷史的) 의미뿐만 아니라 건축사 연구(建築史 研究)의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해야할 건물이다.



광복회 대구 경북 연합지부 1층 평면도

79. 고모역 철도관사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 4동 384-1번지
- 건축년대 : 1930년경
- 건축유형 : 주택(관사)
- 규모 : 지상 1층
- 구조 및 양식 : 목조, 일 · 양절충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철도관사는 일제기 철도 노선부설공사의 과정에서 철도업무와 거주상의 능율화 외에 한인(韓人)과의 격리 거주를 통해 그들의 우월성을 나타내려는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경인 · 경부선 철도부설과 더불어 건립되기 시작한 철도관사(鐵道官舍)는 주요 사무소 소재지에는 집단 관사로, 중간역(中間驛)에는 대개 역사(驛舍)에 연속하여 시설하였다.

철도관사의 특징 중 하나는 등급제(等級制)로서, 이는 임시 군용철도감부(臨時 軍用鐵道監部)에서 관사를 3등부터 8등으로 설정하는 기준설계안을 마련, 이를 실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철도관사는 철도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영향 등으로 동일 등급의 관사에서 평면이나 설비의 차이를 볼 수 있지만 등급 명칭을 그대로 하여 경부, 경인선에 시설된 것을 표준으로 설계안을 작성하여 보급하였다.

관사의 종류는 국장관사를 제외한 3등부터 8등까지 6종이었으며, 이들 명칭은 건축공사

상의 필요에 의한 분류였다. 등급별 전체 관사가 실시된 곳은 서울 용산과 평양이었으며, 기타 각 역(驛)에는 각기 필요한 등급의 관사가 순차로 시설되었다.



▲ 전경

고모역 철도관사는 일제가 1930년경 건립한 것으로 추측되며, 현재 8등 관사 규모의 연립형 3동이 남아 있다. 목조단층의 2호 연립형으로 지붕은 석면슬레이트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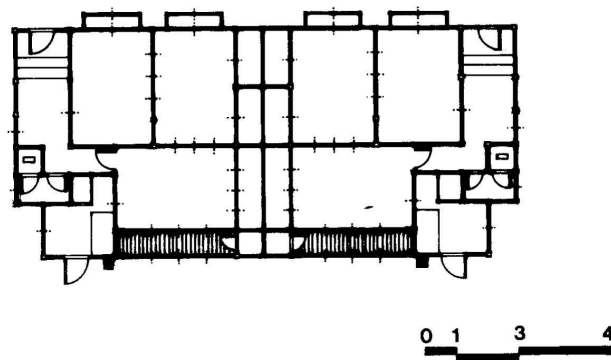
외관은 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목조 심벽(心壁)을 구성하고, 목재 비늘판과 시멘트 뿔칠로 마감하였으며, 내부의 바닥은 다다미와 마루판을 깔았던 것으로 보이나 장판, 비닐로 교체되었다. 벽은 회반죽, 천장은 井字살을 짜고 그 사이에 판재를 끼워 넣었다.



▲ 정면



▲ 좌측면



고모역 철도관사 평면도

80. 구, 대성초등학교 (대구남명보통학교)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 4동 169-1번지
- 건축년대 : 1933년 건립, 1998년 철거
- 건축유형 : 교육(학교)
- 규 모 : 지상 2층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 건축연혁 및 현황 :

대성초등학교는 경북 봉화군 금정광산의 금맥(金脈)을 발견하여 거부(巨富)가 된 광산왕 소남 김태원이 1933년에 비산동 일대의 미취학 아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이다.

김태원은 당시 대구의학전문학교 건축비와 교남학교, 일신학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대구남명학교, 월배항공학교 등을 설립하여 무상으로 육영사업을 하였다고 한다.

이 건물은 1998년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철거하였다. 이 건물은 북향하여 동서로 길게 배치된 一字形의 벽돌조 2층으로 지붕은 모임지붕에 기와를 이었다.

평면은 중앙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에 편복도를 두고, 그 뒤편에 운동장과 마주하여 교실을 배치하였다.

외관은 현관 포치(Porch)를 중심으로 대칭이며, 벽면은 화강석 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구성하고 교실 한 칸을 단위로 붙임기둥을 설치하여 벽면을 수직 분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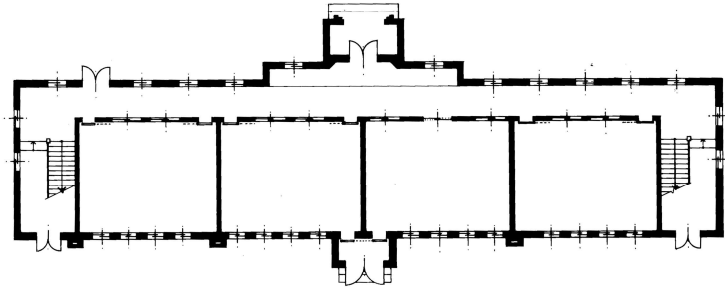
창문은 평아치형에 목재 미서기창을 설치하였는데 1층 창 의 밑인방은 상호 연결시켜 수평 돌림띠처럼 구성하고, 하부 벽과 함께 몰탈로 마감하였다.



▲ 정면



▲ 복도



구 대성초등학교 1층 평면도

81. 대구 애락보건병원 병동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1동 12-37번지
- 건축년대 : 1920년대
- 건축유형 : 종교(교회)
- 규 모 : 지상 2층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한·양절충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대구동산병원의 설립자인 존슨(Johnson)은 1909년 6월 병원 근처 선교 지부 구내에 초가 1채를 매입 나환자 10명을 수용하여 나환자요양사업을 시작하였다. 존슨은 1910년 가을 건강상의 이유로 동산기독교병원을 사직하고 그 후임으로 프랫처(A.G.Fletcher)가 부임하여 이 사업을 크게 발전시켜나갔다.

1913년 프랫처는 영국나환자선교회 후원으로 기존의 나환자 수용소를 수리하고 면모를 일신하여 나환자 병원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15년 4월 프랫처는 영국 나환자 선교회의 지원금 15,000엔을 지원 받아 현 위치인 달성군 달서면 내당동 51번지에 새 요양원 부지를 매입하여 1917년 6월 남녀 병동과 진료실, 예배당, 창고 등을 건립하여 이전하였다.

현 애락보건병원 병동은 1923년 5월 프랫처 선교사가 지은 붉은 벽돌조 2층 건물로 현재 대구 애락보건병원 내에 3동의 건물이 있으나 바닥, 천장 등이 퇴락한 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 이들 병동은 현재 남아있는 3동 모두 붉은 벽돌조 2층 건물로 정면 중앙의 현관 포치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평면은 장방형으로 현관 홀과 연결되는 계단실 좌우에 각각 1개씩의 병실을 배치한 단순한 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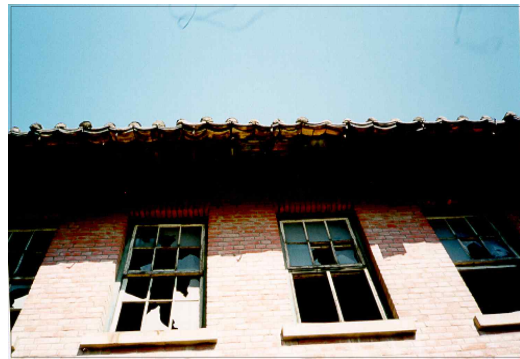


▲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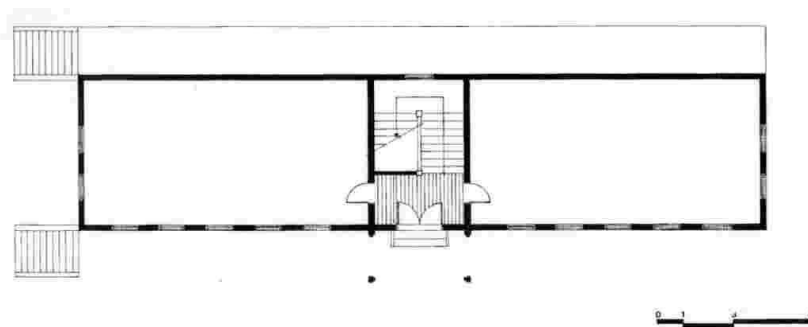
외관은 콘크리트 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고 현관 포치의 좌우에 일정한 간격으로 창을 배치하여 목재 오르내리창을 달았다. 지붕은 모임지붕에 기와를 이었으며, 내부 바닥은 목재 장마루판을 깔았는데 현대 사용할 수 없게 퇴락 하였다.



▲ 정측면



▲ 창문 상세



대구 애락보건병원 병동 1층 평면도

82. 애락교회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1동 12-37번지
- 건축년대 : 1928년경
- 건축유형 : 종교(교회)
- 규 모 : 지상 2층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한·양절충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애락교회는 1928년경 프랜체 선교사가 대구애락원에 수용된 나환자들을 위해 건립한 건물이다. 평면은 정면 중앙의 복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동형(同形)의 실을 배치하고 뒷편 좌우에는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실을 설치하였으며, 2층은 통간으로 큰 예배실을 구성하였다.



▲ 정면

외관은 정면 중앙의 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구성하고, 2층 박공면의 중앙부에는 3개의 뾰족아치창을 두고 그 좌우에 빗아치창을 내어 대칭성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대구 제일교회의 정면구성을 일부 채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지붕은 한식기와 지붕을 이었으며, 창은 빗아치 창으로 오르내리창을 달았으며, 층 사이에는 벽돌 내쌓기로 층간 돌림띠를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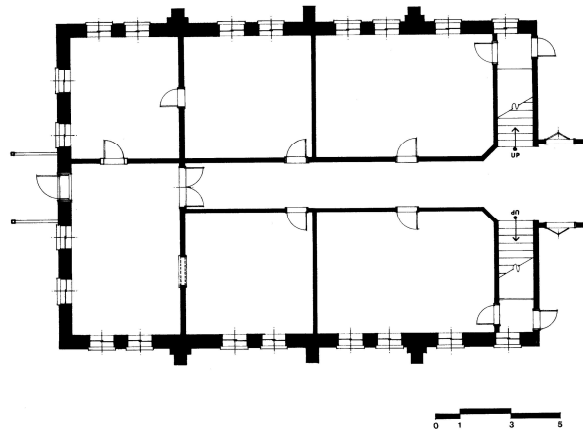


▲ 배면부



▲ 창문 상세

이 건물은 대구애락 보건의료원의 나환자들을 위해 건립한 교회당이고 건립 당시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 역사적 건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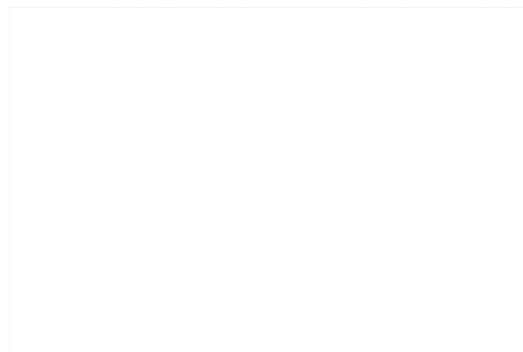


애락교회 1층 평면도

83. 대구애락보건의료원 식당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1동 12-37번지
- 건축년대 : 1930년경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구조 및 양식 : 붉은 벽돌 조적조, 한·양절충식
- 건축연혁 및 현황 :

대구애락병원 식당은 1930년경 프랫처 선교사가 나환자들을 위해 건립한 붉은 벽돌조 2층 건물로 전면의 도로보다 낮은 오목한 대지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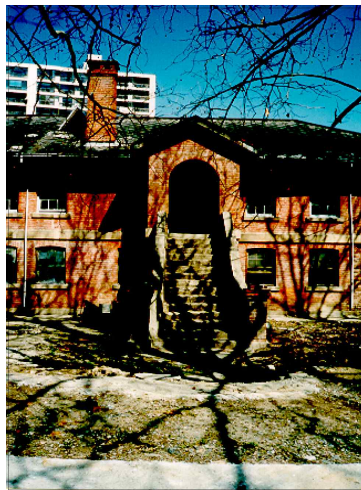
▲ 정면

평면은 장방형으로 지하 1층을 두고, 정면 좌·우측에는 계단을 설치하여 2층 강당과 연결되는 포치를 구성하였는데 현재 좌측의 출입구 포치에는 계단을 철거하고 도로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슬로프(Slope)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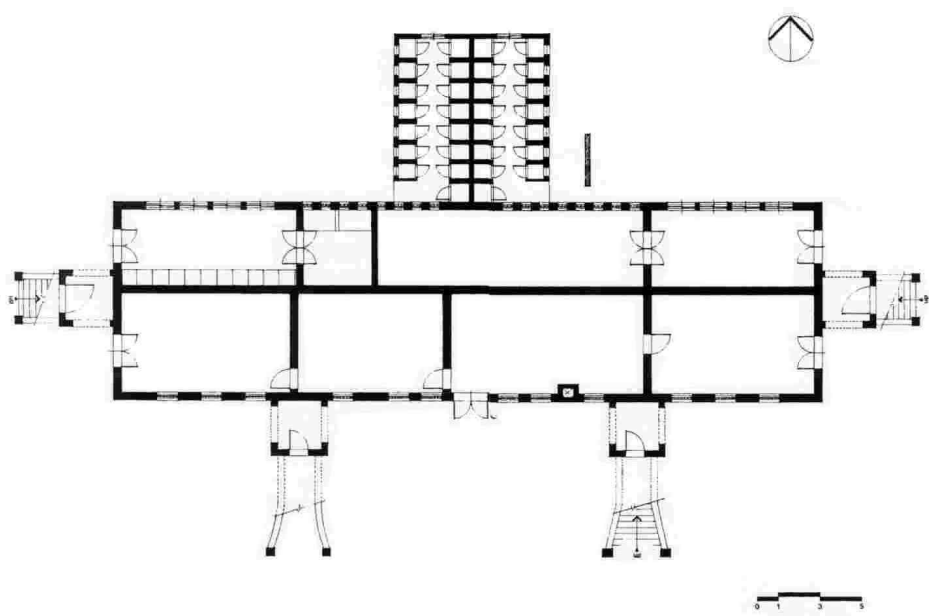
외관은 콘크리트 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고, 정면 좌·우측에 출입구 포치를 구성하여 좌우 대칭형을 이루었는데 2층은 전면(前面)의 도로 높이와 거의 비슷하다.

지붕은 모임지붕에 석면슬레이트를 마름모꼴로 이었으며, 벽면에는 층간 돌림띠를 구성하고 결원아치형 창을 규칙적으로 배치하여 대칭성을 강조하였다.

내부 바닥은 목재 장마루판을 깔았고 벽은 몰탈 마감로 마감하였다.



▲ 정면 포치부



대구 애락보건병원 식당 1층 평면도

제5장 고 건축물의 보존대책 및 활용방안

제1절 보존의 개념

문화유산 중 건조물은 대부분 건립 당시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명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런 구조물을 훼손과 파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보존(保存)이다. 그러나 건조물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남겨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구성, 생활방식의 변화 등으로 원형을 되살리고 복원시켜 유지 또는 보존해나가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건조물은 건축적 가치에 따른 유형에 따라 보존 이외에 개조라든가, 내부변경(용도 및 의장), 부분변경, 창조적 모티브의 채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즉 보전은 그 대상물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만들어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

보전의 개념은 그 범위와 방법이 광범위함으로 선행된 연구에서는 보존, 보호, 보수, 재활, 자율, 기록 등으로 구분하여 1) 여러 개념으로 세분화 시켰으나 본고에서는 크게 보존의 단계와 재활용의 단계로 나누어 본다. 보존은 보전의 단계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단계로서 건조물의 내·외부를 건립 당시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 원형을 유지시킨다. 이 개념은 박제된 형태로서 보관되고 전시되며 보호, 보수, 복원까지의 의미를 포함한다.

재활용(再活用)은 보존 단계에서부터 거주자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단계로서 부분적인 개조를 허용하면서 전통적인 조형요소를 유지시켜 나가며, 또한 원형에 대한 자료를 기록하여 보관함으로써 재활용에 대한 평가를 하고, 바람직한 보전의 단계로 유도해 나갈 수 있다.

제2절 보존대책 및 활용방안

대구지역 고 건축물 전반에 대한 보존현황 및 변형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건축물의 입지, 배치, 평면, 형태 등 모든 건축적 성격에서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변형들은 각 건축적 성격을 주요한 가치로 하는 건축유형에 있어서 심각한 문화재적 가치의 파괴로 인식되었다. 또한 변형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주로 보존제도 및 행정상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 보수, 복원 기술상의 문제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근대건축물은 개화기 이후 일제 강점기에 건립된 것으로 대부분 도시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과 변화를 우선 시 했던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건축사적,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 채 훼손되거나 기록 없이 사라져 가고 있다. 대구의 근대문화유산 중 문화재로

1) 서울특별시: 전통문화지대 복원, 정비실시 계획(안), 1990,2, p78.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는 건축물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은 사회변동과 생활양식의 변화, 기술혁신, 경제의 효율화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근대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 시기이며 한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역사적 시기로서 이 시기에 생성된 역사적 유산들은 당대의 문화, 역사를 반영하는 결과물이다. 따라서 대구지역내에 산재해 있는 전통·근대건축물들이 더 이상 없어지기 전에 조사, 정리하여 한 시대의 건축활동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고 아울러 과거에 성취된 문화적 업적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인위적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건축물들에 대한 보존대책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1. 고 건축물의 보존 대책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중 국가지정 문화재는 그 지정 일로부터 보호, 관리, 보수, 정비, 조사, 연구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문화재청이라는 전문부서의 직접적인 보존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진 지방문화재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예산과 전문가의 부족 등으로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특히 비지정 문화재급 건축물들은 방치되어 기록없이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의 보존에 있어서 원형보존의 중요성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물론 건축적 유산의 경우 건립된 이후 수 없는 변형을 거치기 때문에 무엇을 원형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다. 문화재 보수에 있어서 양식의 통일을 중시하는 양식주의 이론과 원형 그대로의 보존을 중시하는 낭만주의 이론으로 대비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어떠한 이론을 적용하든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잃지 않도록 원형을 유지하는 일은 문화재 보존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하겠다. 특히 건축문화재는 그 성격상 박물관 같은 특정한 장소에서 보존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보존방법이 요구되어 왔다. 우선 건축문화재는 그 입지적 성격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대지만이 아니라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광역적 환경은 그 건축적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어 왔다.

따라서 본래의 위치에서 보존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또한 건축문화재는 자연상태에 노출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의한 노후화, 공기오염, 진동,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건축문화재는 그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활용에 의한 노후화, 전란, 파괴, 화재, 개조, 보수 등 인위적인 훼손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화재의 성격이나 규모, 입지성에 따라 보존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화재 보존의 기본방향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상 건조물에 대한 조사, 연구의 필요성,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훼손원인의 규명과 대책의 강구, 보호방법의 적절화 등이 요구되어 왔다.

가. 건축적 가치에 따른 문화재의 유형화

건축의 가치는 건물의 형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입지, 배치, 평면 등

건축방법의 복합적인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 보호제도나 행정은 지정된 건물의 외관적 형태만을 보존하는데 치중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입지적 장소성이 가치를 갖는 도시형 문화재나 배치성격이 중요한 가치를 갖는 단지형 문화재, 내부공간이나 평면구성이 가치를 갖는 주거형 문화재는 각각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호범주에 따라 건축문화재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나. 문화재 유형에 따른 보존대책의 다원화

도시형 문화재나 경관형 문화재의 경우 광역적인 보호대책이 요구되며 도시의 역사적 환경과 특징적 경관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도시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지형 문화재의 경우 보호범주를 단지 전체로 확대하여 단지적(團地的) 성격, 즉 건물구성, 외부공간, 배치체계 등을 유지하도록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형 문화재는 생활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특히 내부공간이나 평면구성의 성격을 원형대로 유지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다. 보존가치에 따른 문화재의 등급화와 등급별 변형 허용기준의 설정

현재적 용도로 활용되는 문화재에 있어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변형은 거의 불가피하다. 이러한 변형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보존가치에 따라 문화재를 등급화 하여, 등급에 따른 허용범위가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관리지침이 설정되고, 관리 및 현상변경 제한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라. 보수, 복원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폭의 확대

변형 원인중의 하나는 보수, 복원과정에서 설계의 부적절성, 시공기술의 미숙이나 부실시공에 기인된다. 현행 제도상 보수, 복원에 대한 전문가의 역할은 설계도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국한되어 있다. 설계도서의 검토만으로는 설계의 타당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재료의 검토, 가공 및 조리방식 등을 감독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화재위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담당공무원의 기술적 지식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 보존실태에 대한 전문적, 주기적 점검과 원형 추적을 위한 조사연구

현상변경에 대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자연적 퇴락이나 훼손, 관리자의 임의적 변형을 방치, 누적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점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물의 형상 및 성격에 대한 보존자료의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현상변경의 점검 및 보수, 복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바. 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 연구

건축물은 사람들에게 이용되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겨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부족과 내구성의 문제, 수리변경시 법 적용문제에 의하여 현재 그대로의 보존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존 이외에 개조라든가, 내부 변경(용도 및 의장), 부분변경, 창조적 모티브 채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될 수 있을 것이다.

건축물 보호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는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기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의 해결과 더불어, 소유자와 관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제도적 보완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사. 보전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 조사, 연구를 통한 정보 구축과 정리

건축물의 보존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소재 상황 등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들의 소재 형상과 보존상황 등의 정보가 추가될 것이므로 이들 건축물들을 폭넓게 축적 정리해 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 주민의 이해 협력 및 적극적인 참여 획득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을 통해 문화재를 친숙하게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문화재에 관한 자원봉사 활동의 장려, 그리고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지역주민들 사이에 지원 협력하는 민간단체 등의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자. 관계부처, 기관, 단체간 협력 시스템 구축

건축물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대학과 박물관 등의 기관, 기업 단체 및 개인 수집가 등과의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2. 고 건축물의 활용 방안

가. 건축물의 특성에 맞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건축물의 디자인과 연결된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유산자원을 새로운 용도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은 때때로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역사적·미적 가치를 보존하고 그들의 현대적 삶과 기능상의 기준을 부여하는 유일한 경제적 방법이 되기도 한다.

나. 박물관 목적으로 개조

소장품을 전시하거나 주택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 역사건축물에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많은 수의 방문객들을 수용하고 온도조절, 조명, 화재안전, 출입,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변형을 요구하는 수도 있다.

다. 호텔 또는 관광객 숙소로 사용하는 것

건축물에 새롭고 다른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이것의 고유한 사회적 기능을 완전히 변화시

킬 수 있다. 이러한 용도가 가끔 하나의 합리적인 해결책이 되기도 하지만 원래의 사회적 기능을 보존 또는 재생시키는 것에 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한다.

라. 생활도구로 사용

보존 차원을 넘어 변화된 의식구조와 생활방식 등을 수용하는 생활도구로서 보전시켜나간다.

마. 역사·문화 환경 또는 국민교육의 장으로의 재활

역사·문화 환경이나 국민교육의 장으로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3. 조사대상 건축물 중 지정문화재 목록

○ 전통건축물

지역	건물명	지정종별	건립년대	소재지
동구	경주최씨종가	대구 민속자료 제1호	1694년	동구 둔산동 386번지
	문창공영당	대구 문화재자료 제20호	1912년	동구 도동 776번지
	강순항정려각	대구 문화재자료 제35호	1835년	동구 평광동 1183번지
	첨백당	대구 문화재자료 제13호	1896년	동구 평광동 979번지
	독암서당	대구 문화재자료 제12호	1865년	동구 봉무동 223번지
	봉무정	대구 유형문화재 제8호	1875년	동구 봉무동 939번지
	성재서당	대구 유형문화재 제9호	1770년	동구 미대동 169번지
	북지장사	보물 제805호(대웅전)	1623년	동구 도학동 620번지
	동화사	대구 유형문화재 제10호(대웅전) 외	1702년	동구 도학동 35번지
	비로암	보물 제247호(삼층석탑)	18세기 말	동구 도학동 30번지
	부인사	대구 기념물 제3호(사지)	1959년 중건	동구 신무동 356번지
	과계사	대구 유형문화재 제7호(원통전) 외	1695년(원통전)	동구 중대동 7번지
	표충재·표충사	대구 기념물 제1호	1888년	동구 지표동 526번지
북구	칠곡향교	대구 문화재자료 제6호(대성전)	1642년 초창	북구 읍내동 600번지
	구암서원	대구 문화재자료 제2호	1994년 이건	북구 산격동 산79-1번지
중·남구	선화당	대구 유형문화재 제1호	1807년	중구 포정동 21번지
	징청각	대구 유형문화재 제2호	1789년	중구 포정동 21번지
	관풍루	대구 문화재자료 제3호	1973 복원	중구 달성동 350-1번지
	대구향교	대구 문화재자료 제1호(대성전)	1932년	중구 남산동 735-4번지

○ 전통건축물(계속)

지역	건물명	지정종별	건립년대	소재지
수성구	고산서당	대구 문화재자료 제15호	1879년	수성구 성동 163번지
	독무재	대구 문화재자료 제17호	1850년경	수성구 만촌동 183번지
	하효자정려각	대구 문화재자료 제18호	1781년	수성구 만촌동 339번지
	야수정	대구 문화재자료 제14호	1900년	수성구 상동 140-4번지
달성군	하목정	대구 유형문화재 제36호	1604년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043번지
	박항가옥	중요민속자료 제104호	1809년(정침)	달성군 하빈면 묘1리 800번지
	도곡재	대구 유형문화재 제49호	1850년	달성군 하빈면 묘리 692번지
	태고정	보물 제554호	1614경 재건	달성군 하빈면 묘동 638번지
	소계정	대구 문화재자료 제31호	1923년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698번지
	용연사	대구 유형문화재 제41호	1728년 중건	달성군 옥포면 반송1리 882번지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대구 민속자료 제3호	19세기 초~ 20세기 중반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401-25외 14필지
	현풍향교 대성전	대구 문화재자료 제27호	1758년 이건	달성군 현풍면 상리 326-1번지
	현풍 석빙고	보물 제673호	1730년 건립	달성군 현풍면 상리 632번지
	이양서원	대구 문화재자료 제32호	1954년 중건	달성군 현풍면 대리 907-4번지
	현풍곽씨 12정려각	대구 문화재자료 제29호	1963년 중창	달성군 현풍면 대1리 1348-2번지
	예연서원	대구 기념물 제11호	1977년 복원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539번지
	이노정	대구 문화재자료 제30호	1904년 중수	달성군 구지면 내리 443번지
	도동서원	보물 제350호	1605년 창건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번지
	조길방가옥	중요민속자료 제200호	1784년	달성군 가창면 정대1리 350번지
	남지장사 청련암	대구 유형문화재 제34호	1808년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856번지

○ 근대건축물

번호	건 축 명		지 정 종 별	소유자 및 관리주체	원 용도	현 용도
	현 재 명	원 명				
1	대구계산동 성당	대구계산동 성당	사적 제290호	천주교 대구교구	성 당	성 당
2	성모당	성모당	유형문화재 제29호	천주교 대구교구	참 배	참 배
3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문화재자료 제23호	천주교 대구교구	학 교	학 교
4	샬트르성바오르 수녀원 코미넛관	샬트르성바오르 수녀원 코미넛관	문화재자료 제24호	천주교 성바오르 수녀회	수녀원	수녀원
5	스윙즈 주택	스윙즈 주택	유형문화재 제24호	기독교 학교법인 계명기독교대학	주 택	박물관
6	챔니스 주택	챔니스 주택	유형문화재 제25호	기독교 학교법인 계명기독교대학	주 택	박물관
7	블레이 주택	블레이 주택	유형문화재 제26호	기독교 학교법인 계명기독교대학	주 택	박물관
8	제일교회	대구제일교회	유형문화재 제30호	경북노회유지재단	교회당	교회당

4. 문화재 지정대상 건축물 목록

○ 전통건축물

지역	건 물 명	소 재 지	건 립 년 대	용 도
동구	심락재	내곡동 80번지	1660년 초창	재 사
	승방재	동내동 4번지	1915년	재 사
	동호서당	동내2동	1921년	교 육
	친목당	부동 58번지	1888년	재 사
	최병룡주택	둔산동 387번지	19세기말	주 거
	최세돈주택	둔산동 384번지	1800년대 초	주 거
	최홍원정려각	둔산동	1789년	여 각
	채효기주택	미대동 236번지	1904년	주 거
	채경기주택	미대동 236번지	1902년	주 거
	비로암	도학동 30번지	18세기 말(대적광전)	불 사
	채종서주택	지묘동 1146번지	19세기 말	주 거
북구	유화당	도남동 362번지	1744년	재 사
	도남정사	국우동 415번지	1899년	강 학
	칠곡향교	읍내동 600번지	1642년 초창	교 육
	이인술주택	구암동 307번지	1905년	주 거
	환성정	서변동 881번지	1971년	누 정
	서명보 효자각	산격동 878번지	1802년	비 각
중남구	대구향교	남산동 735-4번지	1932년	교 육
	안일암	대명동 225번지	미상	불 사
	은적사	봉덕3동 산1572번지	947	불 사
수성구	모명재	만촌동 716번지	1912년	재 사
	침모재	황금동 258번지	1954년	재 사
	오천서원	파동 432번지	1905년	교 육
달성군 · 달서구	이락서원	달서구 파호동 46-1	1765년	교 육
	이강서원	다사면 이천리 277번지	1639년	교 육
	김형규정효각	옥포면 본리2리 2256번지	1851년	여 각
	양촌고택	논공면 삼리 136번지	1610년	주 거
	영사재	논공면 노이리 1006번지	1924년	재 사
	윤재훈효행비각	논공면 하리 570번지	1936년	비 각
	웅산재	논공면 하리 457번지	1928년	재 사
	천왕당	논공면 남리	1924년	민 속
	인홍서원	화원읍 본리 437번지	1825년	교 육
	수봉정사	화원읍 본리 401-2번지	1936년	강 학
	광거당	화원읍 본리 410번지	1910년 재축	강 학
	문승기가옥	화원읍 본리 397번지	1910년	주 거
	현풍향교	현풍면 상리 326-1번지	1758년	교 육
	곽두식가옥	현풍면 상2리 618-2번지	1868년	주 거
	김병순가옥	현풍면 지리 1280번지	1857년	주 거
	한원당고택	현풍면 지리 1287번지	1951년 중건	주 거
	경모당	유가면 금1리 821번지	1910년	재 사
	유가사	유가면 양리 114번지	1772년	불 사
	도성암	유가면 양리 155번지	1975년	불 사
	소재사	유가면 용리 산4번지	1875년 중건	불 사
	남계서당	유가면 가태리 376번지	1860년	교 육
	홍의장군비각	유가면 가태리 584번지	1691년	비 각
	곽원순 가옥	유가면 한정2리 132번지	1860년	주 거
	곽재옥 가옥	유가면 한정2리 97번지	1944년	주 거
	남지장사	가창면 우록리 856번지	1803년 재건	불 사
	녹동서원	가창면 우록리 558번지	1970년 이건	교 육

○ 근대건축물

번 호	현용 도	건 축 물 명		소유자 및 관리주체	원용 도	활 용 안
		현 재 명	원 명			
1	주택	김현석주택	대구보건병원	개인	주택	주 거
2	"	장해숙주택	모문금주택	개인	주택	주 거
3	학교	남산초등학교강당	남산정공립보통학교 강당	국유(대구시교육청)	학교	학 교
4	"	경북대사대부속중학교 강당	대구사범학교강당	국유(경북대학교)	학교	학 교
5	"	경북대사대부속중학교 본관	대구사범학교본관	국유(경북대학교)	학교	학 교, 역사교육관
6	"	경북대학교의과대학본관	대구의학전문학교	국유(경북대학교)	학교	학 교, 역사교육관
7	"	헨더슨관	헨더슨관	계성학교	학교	학 교
8	"	아담스관	아담스관	계성학교	학교	학교, 박물관
9	"	맥퍼슨관	맥퍼슨관	계성학교	학교	학 교
10	병원	경북대의대병원본관	도립대구의원	국유(경북대학교)	병원	병 원, 역사교육관
11	"	동산기독병원 구관	동산병원	계명대학교	병원	병 원, 역사교육관
12	"	정소아과의원	서병직주택	개인	주택	주 거
13	은행	한국산업은행대구지점	조선석산은행대구지점	개인	은행	은행, 박물관
14	"	장기신용은행 대구지점	대구금융조합	법인(국민은행)	은행	은 행
15	상업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구사무소	대구공립상업학교본관	법인(공무원연금공단)	학교	역사교육관
16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창고2	대구공립상업학교강당	법인(공무원연금공단)	학교	역사교육관
17	상업	부산비닐상사	무영당	개인	상점	상 점
18	사무실	조양회관	조양회관	공공(광복회)	문화	역사교육관
19	"	대원석유주식회사	삼국상회	사단법인(대원석유)	상점	사무실
20	"	대구화교학교 사무실	서병국주택	법인(대구화교협회)	주택	사무실
21	"	천지기업사	교남학교	개인	학교	사무실
22	교회	애락원 애락교회	대구애락보건병원 애락교회	경북노회유지재단	교회	교 회

집필자

- 제1장 서 언 : 윤 재 웅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제2장 대구지역의 조사지 주변환경 : 강 유 신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 팀장)
- 제3장 대구지역의 전통 고 건축물
 - 제1절 ~ 4절 동구, 북구, 중·남구, 수성구지역 : 이 철 영 (울산과학대학 교수)
 - 제5절 달성군, 달서구 지역 : 장 석 하 (경일대학교 교수)
- 제4장 대구지역의 근대건축물 : 윤 재 웅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제5장 고 건축물의 보존대책 및 활용방안 : 윤 재 웅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대 구 의 고 건 축

2002. 1. 인쇄
2002. 2. 발행
발행 : 대 구 광 역 시
편집 : 대 구 가 톨 릭 대 학 교
인쇄 : 삼 화 기 획 인 쇄
☎ (053) 943-7842

< 非賣品 >